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8년 2월

박사학위 논문

『十省堂集』 國譯 研究

朝鮮大學校 大學院

古典翻譯學科

嚴 鑽 煥

『十省堂集』 國譯 研究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Sibseongdangjib*』

2018년 2월 23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古典翻譯學科

嚴 鑽 煥

『十省堂集』 國譯 研究

지도교수 정 길 수
공동지도교수 김성한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고 전 번 역 학 과

엄 찬 영

엄찬영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경숙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송식 (인)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김대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성한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길수 (인)

2017년 12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범 례 -

○ 『十省堂集』은 十省堂 嚴昕(1508~1543)의 文集으로, 1585년 定山縣에서 목판본으로 초간본이 간행되었다.

○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본(청구기호:820-20)을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촬영하여 소장하고 있는 마이크로필름(필름번호:M古3-2001-5)의 자료를 저본으로 삼았다. 上下 2卷과 附錄의 2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卷尾에 “圓完寺 常住”라는 後識가 있다. 半葉 10行 18字, 半郭 17.4×12.7cm, 총 108板이다.

○ 본고의 저본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일본 내각문고장본을 저본으로 삼아 발간한 한국문집총간 제32집 『十省堂集』과는 異本이다. 따라서 두 저본 간 異字에 대하여서는 <표1>을 만들어 서로 正誤를 비교하여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본고 저본에 나타나는 한자의 同字는 현재 흔히 사용하는 한자로 통일하고, 俗字와 訛字는 本字로 통일하였다.

예) 栖 → 棲, 筭 → 算, 鷲 → 鷲, 吡 → 吡, 蛭 → 蟲 疎 → 疏 등

○ 韻文의 국역문 제목은 위에 두고, 원문인 한문 제목은 行을 바꾸어 아래에 두었다. 그리고 본문은 국역문을 왼쪽에 두고, 원문은 오른쪽에 두었다.

○ 운문 표제의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각 면마다 쪽수를 붙여 索引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아울러 인용시의 각주에는 쪽수를 假表記하여 붙여 놓았다.

例) 1.01.1.에서 첫 번째 ‘1’은 ‘상권’을 의미하고, ‘01’은 ‘순번’을, 마지막 ‘1’은 제화사에서 표제의 순서 번호를 의미한다.

○ 註釋은 脚註로 처리하였다. 주석은 연구자들 및 일반 독자들이 배경을 알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히 달고 본문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를 밝히었다. 따라서 주석에 인용한 내용은 原典을 밝히되, 단행본의 저자가 있는 경우는 저자(역자), 서명, 출판

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순서로 하였고, 논문의 경우는 저자(역자), 논문명, 게재지, 학회명, 간행연도. 인용쪽수 순으로 하였다. 아울러 원문의 해석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원문만 밝혀 두었다.

○ 한자 표기가 필요한 경우 국역 본문에서는 한자를 병기하고 해제와 각주에서는 한자를 노출하여 표기하였다.

목 차

범 례

ABSTRACT

I. 『十省堂集』 해제	1
1. 서론	1
2. 嚴昕의 삶과 인간됨	3
2.1. 幼年期	3
2.1.1. 幼年時節	3
2.1.2. 孝道와 友愛	4
2.2. 青年期	6
2.2.1 敬의 學問	6
2.2.2. 交友關係	8
2.2.3. 言官으로서의 벼슬생활	11
2.2.4. 꿈의 挫折	12
3. 『十省堂集』 刊行經緯와 編次	14
3.1. 刊行經緯	14
3.2. 編次	17
4. 嚴昕의 시 概觀	21
4.1. 次韻詩	23

4.2. 送別詩	24
4.3. 景物詩	25
5. 嚴昕의 시세계	28
5.1. 平澹의 세계와 歸去來	28
5.2. 海東江西詩派 시의 範疇	34
6. 맺음말	38
II. 『十省堂集』 國譯	39
1. 『십성당집』 상	39
[十省堂集 上]	
○ 부 [賦]	
· 필간에 관한 부 [筆諫賦]	39
· 상사가 인재를 추천하여 임금을 섬기다에 관한 부 [上士事君以人賦]	42
○ 사 [辭]	
· <애추석사>에 차운하다 [次哀秋夕辭]	45
○ 전 [箋]	
· 호조에서 역전과 실시를 청한 전을 의작함 [擬戶曹請行力田科箋]	49
· 신라 김유신이 백제의 멸망을 하례하는 전을 의작함 [擬新羅金庾信賀滅百濟箋]	
.....	52

○ 잠 [箴]

- 서리를 밟음의 잠 [履霜箴]56

○ 명 [銘]

- 무현금의 명 [無絃琴銘]58

○ 송 [頌]

- 여러 해 풍년을 칭송하다 [屢豐年頌]60

○ 변 [辨]

- 한유와 유종원의 사관에 대한 논의의 변 [韓柳論史辨]65

○ 시 [詩]

- 1.01. 화표주/7언 고풍 [華表柱七言古風]67
- 1.02. 농민을 가엾이 여기다 [憫農]68
- 1.03. 산으로 돌아가는 충방을 전송하며 [送種放還山]69
- 1.04. 질풍이 강한 풀을 안다 [疾風知勁草]71
- 1.05. 팔관회 [八關會]72
- 1.06. 하량별 [河梁別]73
- 1.07. 상사일에 봉산 임시숙소에서/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上巳日寓宿鳳山次蘇贊韻]74
- 1.08. 안정관에서/동 화사 규봉의 시에 차운하다 [安定館次董華使圭峯韻越]75
- 1.09. 가평관에서 눈으로 길이 막혀버린 감회/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嘉平館阻雪有感次蘇贊成韻]76
- 1.10. 봄눈/배울 10운 한문공의 시운을 쓰다 [春雪排律十韻用韓文公韻]77

1.11. 여금서옥의 시권에 쓰다 [書餘金書屋詩卷]	78
1.12. 김 선생 언빈에게 주다 [贈金生彦彬]	79
1.13. 안락당의 시권을 제하다 [題安樂堂詩卷]	80
1.14. 배를 띄우다 [放船]	81
1.15. 매화를 조문하다 [弔梅]	82
1.16. 봉은사를 찾아가다 [訪奉恩寺]	83
1.17. 마른 오동나무 [枯梧]	83
1.18. 이른 아침 강가 누각에서 [江閣早朝]	84
1.19. 아우 선소와 서언에게 주다 [呈舍弟善昭曙彦]	84
1.20. 구름과 달/연지에게 보여주다 [雲月示演之]	85
1.21. 새로 돌아난 대나무 [新竹]	85
1.22. 석탄 [石灘]	86
1.23. 초가을에 생각이 있어 [新秋有懷]	86
1.24. 밤에 일어나 [夜起]	87
1.25. 병이 생기어 [病作]	87
1.26. 병을 치료하며 [治病]	88
1.27. 명천 가는 길에 [明川道中]	88
1.28. 홍원 동헌에 걸린 시에 차운하다 [次洪原東軒韻]	89
1.29. 매화나무를 심고 꽃을 보다 [種梅見花]	89
1.30. 뜰에 소나무를 읊다 [咏庭松]	90
1.31. 생각나는 대로 읊다 [謾吟]	90
1.32. 동호의 배에서/연지에게 보여주다 [東湖舟中示演之]	91
1.33. 남쪽 누각에서/연지에게 보여주다 [南樓示演之]	92
1.34. 남당의 시에 차운하여 부치다 [寄次南塘韻]	92
1.35. 고수암에서 쓰다 [題古岫庵]	93
1.36. 백운봉 정상에 올라 [登白雲峯頭]	94
1.37. 동북으로 부임하는 임 현감 대수를 이별하며/홍 명중의 시운을 쓰다 [別林縣監大 樹赴同福用洪明仲韻]	95
1.38. 성숙옥을 곡하다 [哭成叔玉]	96
1.39. 노희는 자가 대수로 우리 집 담장 북쪽에 살았다. 일찍이 나와 임대수를 따라 삼각산 백운봉을 유람한 적이 있는데 춤고 굽주림의 괴로움을 못 견디고 영남을	

떠돌아다녔다. 한번은 서울에 올라와 재상과 서로 아는 사람에게 미관말직을 부탁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자 서글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멀리서 편지를 보내왔기에 보니 내 부모님의 병환을 묻는 한편 처조부의 타계를 애도하며 자신은 멀리 있어 술 한 잔도 올리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에 간절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칠언율시를 지어 편지를 가지고 온 심부름꾼에게 다시 주어 보냈다 [盧君禧字大受居吾墻北嘗從我及林大樹遊三角山白雲峯爲飢寒所驅迫漂泊嶺南一至京師乞微官於卿相相知者終不得戚戚還其舊居遠寄一書問吾親之病又悼妻祖父下世身遠無由一奠辭意悲切余以七律復其來使] ……………97

1.40. 의주 목사로 부임하는 민공 회중을 전송하며 [送閔公希中赴義州牧] ……100

1.41. 봉황대 [鳳凰臺] ……………102

1.42. 대수의 시에 차운하다 [次大樹韻] ……………102

1.43. 또 대수의 시에 차운하다 [又次大樹韻] ……………103

1.44. 또 대수의 시에 차운하다 [又次大樹韻] ……………103

1.45. 밤비에 잠이 오지 않아/대수에게 주다 [夜雨不寐呈大樹] ……………104

1.46. 또 대수에게 주다 [又呈大樹] ……………104

1.47. 또 대수에게 주다 [又呈大樹] ……………105

1.48. 3월 28일에 저자강에서 놀다 [三月二十八日遊楮子江] ……………105

1.49. 이날 노를 저으며 여울을 내려가다 [是日下楫灘] ……………106

1.50. 이날 동강에 정박하다 [是日泊洞江] ……………106

1.51. 소 찬성이 성주에 국사를 봉안할 때 임금이 승지와 내관을 보내 제천정에서 술을 하사하였다. 잔치가 과하고 재상들이 다시 모여 전별하는 자리에서/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蘇贊成奉安國史于星州上遣承旨中官賜酒于濟川亭宴罷諸相更會 餞別席上次贊成韻] ……………107

1.52. 죽마계회도 [題竹馬契會圖 并序] ……………108

1.53. 제주로 부임하는 조 목사 계임을 전송하며 [送趙牧使季任赴濟州] ……110

1.54. 병중에 우연히 읊어/대수에게 주다 [病中偶吟呈大樹] ……………111

1.55. 또 대수에게 주다 [又呈大樹] ……………111

1.56. 또 대수에게 주다 [又呈大樹] ……………112

1.57. 아침부터 추위가 극심하여 시로 임 진적 대수의 병을 묻다 [朝來寒甚詩問林典籍大樹之病] ……………112

1.58. 대전춘첩자 [大殿春帖字] ……………113

1.59. 표숙 전 판사 김공이 멀리 경흥으로 귀양을 갔다가 석방되어 고향마을로 돌아와 정자를 지어 쾌상이라고 이름 지어 부치다/현판의 시에 차운하다 [表叔前判事金公遠謫慶興放回鄉里構亭名以快爽寄次板韻]113

1.60. 벗에게 보여주다 [示友人]114

1.61. 벗에게 반복하여 보여주다 [復示友人]114

1.62. 벗에게 다시 보여주다 [再示友人]115

1.63. 서당의 수목을 읊으며/벗의 시에 차운하다 [詠書堂樹木次友人韻]115

1.64. 벗의 <남쪽 누각>에 차운하다 [次友人南樓韻]116

1.65. 장마/벗에게 주다 [久雨 呈友人]117

1.66.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벗에게 주다 [又用前韻呈友人]117

1.67.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벗에게 주다 [又用前韻呈友人]117

1.68.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벗에게 주다 [又用前韻呈友人]118

1.69.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벗에게 주다 [又用前韻呈友人]118

1.70. 평사로 영변 절도사 막부에 부임하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以評事赴寧邊節度幕]119

1.71. 고향 벗에게 부치다 [寄鄉友]123

1.72. 강가에서 벗의 <별우>에 차운하다 [江上次友人別友韻]123

1.73. 어젯밤에 전배하려고 객관에서 만났는데 늦게 마치더라도 돌아오려고 하였지만 올 수 없었다. 지금 비에 길이 막혀 각건을 묶으며 부질없이 읊시 한 수를 짓다/벗에게 주었는데 비가 개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떻게 말할까 [昨夕欲歷展館會晚罷經還未能今則關雨縮角空吟一律呈友人雨晴期絃何如]124

1.74. 잠깐 동호에 있으면서 병이 들어 며칠을 누워 있는데, 생각이 매우 무료하여 오언율시를 짓다/벗에게 주며 화답시를 구하고 하여금 또 그가 오면 만나려는 마음을 바랬을 뿐이다 [頃在東湖中病來臥數日思甚無聊吟成短律呈友人求和教且冀其來見之意耳]124

1.75. 석천이 보낸 시에 차운하다 [次石川贈韻]125

1.76. 청석동/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靑石洞次蘇贊成韻]126

1.77. 충수산 비각에서 쉬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憇葱秀山碑閣次蘇贊成韻]127

1.78. 말 위에서 즉흥으로 읊시 두 수를 짓다/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馬上口占二律次演之韻]128

1.79. 신 선위의 시에 차운하다 [次申宣慰韻]129

1.80. 대동강 배에서/다시 앞의 시에 차운하다 [大同江舟中復次前韻]	129
1.81. 운암원/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雲巖院次蘇贊成韻]	130
1.82. 남당의 시에 차운하다 [次南塘韻]	130
1.83. 윤씨 어른에게 주다 [贈尹丈人]	131
1.84. 남당의 시에 차운하다 [次南塘韻]	131
1.85. 동릉과 [東陵瓜]	131
1.86. 경신일 밤에 친한 벗과 송당에서 만나다 [庚申夜與鄰友會于松堂]	132
1.87. 매미가 울다 [鳴蟬]	132
1.88. 슬픈 비단부채 [悲紈扇]	133
1.89. 동짓날에 관문을 닫다 [至日閉關]	133
1.90. 두자미의 <추야>에 차운하여 지은 시/벗에게 보여주다 [次子美秋野韻示友人]	134
1.91. 청강을 지나가며/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過清江次蘇贊成韻]	135
1.92. 소곳관/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所串館次蘇贊成韻]	136
1.93. 연지에게 부치다 [寄演之]	136
1.94. 당어령/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堂於嶺次蘇贊成韻]	137
1.95. 초현원에 가는 길에 성거산을 바라보며/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招賢院道中 望聖居山次蘇贊成韻]	137
1.96. 동파관/사수의 시에 차운하다 [東坡館次士遂韻]	138
1.97. 저탄을 지나가며/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過豬灘次蘇贊成韻]	138
1.98. 용천관/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龍泉館次蘇贊成韻]	139
1.99. 검수관/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劍水館次蘇贊成韻]	140
1.100. 저복원 가는 길에/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貯福院道中次蘇贊成韻]	140
1.101. 숙녕 가는 길에/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肅寧途中次蘇贊成韻]	141
1.102. 숙녕관에서 새벽에 읊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肅寧館曉吟次蘇贊成韻]	141
1.103. 눈을 맞으며 석문령을 지나가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雪中過石門嶺次蘇贊成韻]	142
1.104. 운흥관/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雲興館次蘇贊成韻]	142
1.105. 동림성/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東林城次蘇贊成韻]	143
1.106. 거련관에서 밤에 읊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車輦館夜吟次蘇贊成韻]	143
1.107. 고진강을 지나가며/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過古津江次蘇贊成韻]	143

1.108.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次蘇贊成韻]	144
1.109. 압록강에서 화·설 두 사신과 이별하고 돌아와 취승정에 누워서 [鴨綠江奉別華 薛兩使還臥聚勝亭]	145
1.110. 고향에서 성중옥과 다시 교유하며 [重遊成仲玉園林]	146
1.111. 독서당에 있으면서/우연히 여러 학자들을 찾아가 주다 [在讀書堂贈偶訪諸儒輩]	146
1.112. 배 안에서/벗의 <삼절>에 차운하다 [舟中次友人三絕]	147
1.113. 진달래를 읊다 [詠躑躅]	147
1.114. 동호에서 파릉 옛집을 그리워하며 [東湖有懷巴陵舊居]	148
1.115. 배에서 손님을 전송하며 [舟中送客]	148
1.116. 종송정에서 바로 시를 읊다 [種松亭口占]	148
1.117. 벗의 <별우>에 차운하다 [次友人別友韻]	149
1.118. 강가에서/벗의 <오절가>에 차운하다 [江上次友人五絕歌]	149
1.119. 석천의 시에 화답하다 [和石川韻]	150
1.120. 강가에서 사람을 송별하며 [江上送人]	151
1.121. 밤에 연정에서 자며 마음이 매우 무료하여 우연히 읊다 [夜宿蓮亭懷甚無聊 吟]	151
1.122. 한강 배 안에서 [漢江舟中]	152
1.123. 남당의 시에 차운하여 부치다 [寄次南塘韻]	152
1.124. 대수가 소장하고 있는 석경화 8폭에 제하다 [題大樹所藏石慶畫八幅]	153
1.124.1. 백로 [鷺]	153
1.124.2. 기러기 [雁]	153
1.124.3. 범 [虎]	153
1.124.4. 소 [牛]	154
1.124.5. 징경이 [雉鳩]	154
1.124.6. 학 [鶴]	154
1.124.7. 까치 [鵲]	155
1.124.8. 오리 [鴨]	155
1.125. 허치원의 단병에 제하다 [題許致遠短屏]	155
1.125.1. 난초 [蘭]	155
1.125.2. 대나무 [竹]	156

1.125.3. 국화 [菊]156

1.125.4. 매화 [梅]156

1.126. 저녁에 바라보다 [夕望]157

1.127. 시골 호롱불 [村燈]157

1.128. 봉화 [烽火]157

1.129. 아우 선소의 시에 차운하다 [次舍弟善昭韻]158

1.130. 청송거사 성중옥에게 보여주다 [示聽松居士成仲玉]158

1.131. 한강 배에서 시를 바로 짓다/제주 목사 조계임에게 보내다 [漢江舟中口占贈趙濟州季任]159

1.132. 게임과 이별한 뒤 마음이 매우 언짢아 시를 짓다/같은 배에 있는 여러 공들에게 보여주다 [別季任後懷抱甚惡吟示同舟諸公]159

1.133. 취하다/창서에게 주다 [醉贈昌瑞]159

1.134.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다/가랑에게 주다 [又用前韻贈歌娘]160

1.135. 대수에게 주다 [呈大樹]160

1.136. 보은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러 가는 이 사서 형백을 진송하며 [送李司書亨伯省覲于報恩]161

1.137. 인쇄소 어른의 시권에 차운하다 [次印文上人詩卷韻]161

1.138. 봄 난초 [春蘭]162

1.139. 여름 대나무 [夏竹]162

1.140. 가을 국화 [秋菊]163

1.141. 겨울 매화나무 [冬梅]163

1.142. 동노하/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同盧河次蘇贊成韻]164

1.143. 금아에게 주다 [贈琴兒]164

1.144. 초를 선물한 박중초에게 감사하다 [謝朴仲初惠燭]164

1.145. 수초에게 주다 [贈守初]165

1.146. 길을 가다가 우연히 회문체를 지어보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途中偶吟回文體次蘇贊成韻]165

2. 『십성당집』 하166
 [十省堂集 下]

○ 시 [詩]

2.01. 완화취귀도 [浣花醉歸圖]	166
2.02. 태공조어도 [太公釣魚圖]	167
2.03. 이제채미도 [夷齊採薇圖]	167
2.04. 타루비 [墮淚碑]	168
2.05. 목동 [牧童]	168
2.06. 동진날 이른 아침 [至日早朝]	169
2.07. 술을 경계하다 [戒酒]	169
2.08. 풍산을 지나면서 [過豐山]	170
2.09. 고원 시판에 차운하다 [次高原板上韻]	170
2.10. 뜰에 오동나무/최연지에게 보여주다 [庭梧示崔演之]	171
2.11. 뜰에 소나무/연지에게 보여주다 [庭松示演之]	171
2.12. 밤이 와 몸에 가을기운이 감돌아 읊다/연지에게 보여주다 [夜來已有秋氣吟示演之]	173
2.13. 두 소릉의 <추흥> 8수에 차운하다/임 주서 대수에게 주다 [次杜少陵秋興八首 呈林注書大樹]	173
2.14. 윤씨 어른의 야거에 들러 [過尹丈野居]	176
2.15. 마음대로 읊다 [謾吟]	177
2.16. 봄의 회포 [春懷]	177
2.17. 연경에 조회하려 가는 검찰관 조계임을 전송하며 [送檢察官趙季任朝燕]	178
2.18.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송 사성 수초를 전송하며 [送宋司成守初罷官歸]	179
2.19. 동복 현감 임대수에게 부치다 [寄林同福大樹]	179
2.20. 동서 서근부의 득남을 시로 축하하다 [同壻徐勤夫生男以詩賀之]	180
2.21. 아플 때 친히 약을 준 권경우의 은혜에 감사하다 [謝權景遇惠病親藥]	180
2.22. 11월 3일 우박과 번개가 요란하다 [十一月初三日大雨雹大雷電]	181
2.23. 연지가 언관의 논박으로 체직되어 시로 위로하다 [演之拜官駁遞詩以唁之]	182
2.24. 경우에게 주다 [呈景遇]	182
2.25. 스스로 기술하다 [自述]	183

2.26. 권 수찬 경우가 황태자를 축하하러 가는 사신을 따라 연경에 가는 것을 전송하며 질정하다 [送權修撰景遇從皇儲賀臣赴燕質正]	183
2.27. 시골집에 돌아오다 [歸村家]	185
2.28. 내 고향은 옛날부터 두견새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날아와 울기에 감흥이 있어서 시를 짓다 [吾鄉舊無杜鵑今忽來啼有感賦之]	185
2.29. 윤대수를 찾아가다 [訪尹大受]	186
2.30. 곧은 바위 [直巖]	186
2.31. 앞 여울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으며 [前灘網魚]	187
2.32. 김 노인 [金老]	187
2.33. 서쪽 이웃 김 노인의 새 집에 시를 쓰다 [題西鄰金老新居]	188
2.34. 삼진날에 서쪽 이웃 김 노인에게 주다 [三月三日呈西鄰金老]	189
2.35. 김 노인의 식사 초대에 가다 [赴金老邀飯]	191
2.36. 김 노인에게 울무 씨를 얻다 [乞薏種於金老]	191
2.37. 우연히 읊다 [偶吟]	192
2.38. 영남 관찰사 심공 맹용을 전송하며 [送沈公孟容觀察嶺南]	193
2.39. 평양으로 부임하는 이 도사 경용을 전송하며 [送李都事景容赴平壤]	194
2.40. 영남으로 부임하는 정 도사 근부를 전송하며 [送鄭都事謹夫赴嶺南]	194
2.41. 한식날 비바람이 요란하여 홀로 누워 있자 무료하였다. 작년 이날 가평 가는 길에서 눈으로 험난했던 일이 생각나 마음에 느낀바가 있어 읊시 한 수를 완성하여 읊다 [寒食時節風雨亂作獨臥無聊仍憶去年此日阻雪嘉平有感於懷吟成一律]	195
2.42. 대수가 앓아누워 시로 병문안하다 [大樹臥病以詩問之]	196
2.43. 천태산의 새벽모습을 바라보다 [天台曉望]	196
2.44. 봄날 나부담에서 노닐다 [春日遊羅敷潭]	197
2.45. 홍주목사 이요서에게 부치다 [寄洪州牧使李堯瑞]	198
2.46. 하성절사로 연경에 가는 신 침지를 전송하며 [送申僉知賀聖節赴燕]	198
2.47. 강릉으로 부임하는 구 부사 천노를 전송하며 [送具府使天老赴江陵]	199
2.48. 빠뜨려진 전답을 조사하고 단속하기 위해 북방 변경으로 향하는 권 경차관을 전송하며 [送權敬差官以檢括遺田向北塞]	200
2.49. 광주 목사로 나가는 이 집의를 전송하며 [送李執義出牧光州]	200
2.50. 강릉 현감 구천로의 편지에 답장하다 [答具江陵天老之書]	201

2.51. 제주 목사 조계임이 보낸 시의 운자로 화답하다 [答趙濟州季任寄韻] ……201

2.52. 선전관 계축을 제하다 [題宣傳官契軸] ……202

2.53. 군기시 당직을 서며 [直軍器寺] ……203

2.54. 신축년(1541, 중종36) 대전춘첩자 [辛丑年大殿春帖字] ……203

2.55. 신축년 3월 필선이 우연히 질병에 걸려 열흘을 쉬면서 벼슬에 나가지 못하니 동궁전에서 내관으로 하여금 문병하게 하고 선물로 진미를 하사하시기에 황공하여 몸 둘 곳이 없어 읍시를 지어 각골난망의 뜻을 부치다 [辛丑三月待罪弼善偶繫疾病旬休不仕東宮遣內宦問病又賜膳餘珍味兢惶罔措吟成一律以寓鏤骨之意] ……204

2.56. 병으로 필선 벼슬에서 교체되어 문을 닫고 병을 치료하며 시를 짓다/대수에게 드리다 [病遞弼善杜門調治吟呈大樹] ……205

2.57. 대수가 쾌유되지 않고 나도 병이 다시 도져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중에 읍시 한 수를 짓다/ 석천의 병상에 드리다 [大樹平復未僕前病復作終夜不寐涔涔之中吟得一律呈石川病榻] ……206

2.58.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은 하고픈 대로 할 수 있어 성정을 읍지 않고는 이품을 제거할 길 없기에 여러 날을 보내다가 다시 친 자 운으로 짓다/대수 선생에게 주니 병중의 마음이 어찌 그대가 나와 다르랴 [身雖病而心自如非吟詠性情無以鑷除沈痛消遣長日復步親字韻呈大樹先生病中之懷君豈異於我哉] ……206

2.59. 연이어 화답한 시를 얻어 오래도록 낫지 않던 병이 문득 사라졌다. 이른바 풍을 치료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이려했을까/다시 앞의 운자를 써서 대수 선생에게 드리다 [連得和詩沈痾頓除古所謂愈風手者不其然歟復用前韻呈大樹先生] ……207

2.60. 읍취현의 시 중에서 어찌 같은 마음에 같은 병인가라는 구절은 우리들을 말함인가 생각되어 우연히 읍다/ 대수 선생에게 드리다 [挹翠軒詩詎可同心又同病其吾輩之謂乎偶吟呈大樹先生] ……208

2.61. 다시 대수에게 드리다 [復呈大樹] ……209

2.62. 내게 해롭지 않는 가슴속 공허함이 녹아 사라지니, 어찌 이를 가지고 시를 짓지 않겠는가/다시 대수에게 드리다 [消鑠在身不害腦中之虛白安可以此而廢吟復呈大樹] ……209

2.63. 공 정사의 <압록강을 건너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渡鴨綠江韻] ……210

2.64. 오 부사의 <압록강을 건너다>에 차운하다 [次吳副使渡鴨綠江韻] ……210

2.65. 공 정사의 <의순관>에 차운하다 [次龔正使義順館韻] ……211

2.66. 공 정사의 <양책관 즉사>에 차운하다 [次龔正使良策館卽事韻]212

2.67. 오 부사의 <거련관 높이 자란 소나무>에 차운하다 [次吳副使車輦館喬松韻]
.....212

2.68. 오 부사의 <거련관 반송>에 차운하다 [次吳副使車輦館蟠松韻]213

2.69. 공 정사의 <임반관>에 차운하다 [次龔正使林畔館韻]213

2.70. 오 부사의 <곽산 효녀>에 차운하다 [次吳副使郭山孝女韻]214

2.71. 공 정사의 <신안관에서 자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宿新安館韻]215

2.72. 오 부사의 <신안관>에 차운하다 [次吳副使新安館韻]215

2.73. 공 정사의 <납량정>에 차운하다 [次龔正使納涼亭韻]216

2.74. 공 정사의 <가산령>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嘉山嶺韻]216

2.75. 공 정사의 <대정강을 건너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渡大定江韻]217

2.76. 오 부사의 <대정강>에 차운하다 [次吳副使大定江韻]217

2.77. 공 정사의 <안흥관에서 자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宿安興館韻]218

2.78. 공 정사의 <연광정에 오르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登練光亭韻]218

2.79. 공 정사의 <안흥을 출발하려 할 때 비를 만나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將發
安興遇雨韻]219

2.80. 공 정사의 <쾌재정에 오르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登快哉亭韻]220

2.81. 공 정사의 <대동관에서 자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宿大同館韻]220

2.82. 오 부사의 <대동관>에 차운하다 [次吳副使大同館韻]221

2.83. 다시 독서당에 이르러서/연지에게 보여주다 [重到讀書堂示演之]221

2.84.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연지에게 보여주다 [又用前韻示演之]222

2.85. 연지의 심 자 운을 차운하다 [次演之深字韻]222

2.86. 관직을 받고서/연지에게 보여주다 [蒙敍後示演之]227

2.87. 여강으로 돌아가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歸驪江]227

2.88. 서장관으로 의주에 도착한 벗에게 배울시를 지어 부치다 [友人以書狀官行到義
州 寄以長律]228

2.89. 부모님을 뵈려고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歸觀南鄉]
.....229

2.90. 계양으로 부임하는 윤 부사를 전송하며 [送尹府使赴任桂陽]230

2.91. 부모님을 뵈려고 강릉으로 돌아가는 최연지를 전송하며 [送崔演之歸觀江陵]

.....231

2.92. 벗의 <책을 햇볕과 바람에 쏘이다> 에 차운하다 [次友人曝書韻]232

2.93. 벗이 준 시에 차운하다 [次友人贈韻]233

2.94. 소나기 [急雨]233

2.95. 호서를 여행하는 벗에게 주다 [贈友人旅遊湖西]234

2.96. 남강에서 손님을 전송하다 [南江送客]234

2.97. 배안에서 벗에게 보여주다 [舟中示友人]235

2.98. 부모님을 뵈려고 청주로 돌아가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歸觀淸州]235

2.99. 곤양으로 부임하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赴任昆陽]236

2.100. 함평 수령으로 나가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出宰咸平]237

2.101. 강가에서/벗의 시에 차운하다 [江上次友人韻]237

2.102. 난간에 기대여 [憑欄]238

2.103. 밤이 와 몸에 가을기운이 감돌았다 인하여 읊시 한 수를 짓다/벗에게 주다 [夜來已有秋氣因成一律呈友人]238

2.104. 당신의 시에 거듭 화답하다 [重和瓊什]239

2.105. 새벽에 앉아 벗이 지은 시를 읽어보고 감흥이 있어 문득 생각나는 운자를 따라서 지어주다 [曉坐有感披詠友人詩忽依韻思得錄呈]240

2.106. 벗과 서로 얘기 나누기를 바랐으나 갑자기 병환의 소식을 알려와 마음이 더욱 무료하여/다시 앞의 시 운자로 화답하다 [期友相敘忽以病報思益無聊復和前韻]240

2.107. 대수에게 드리다 [呈大樹]241

2.108. 대수에게 드리다 [呈大樹]244

2.109. 강가에서 전송하며 [江上送人]249

2.110. 권경우에게 주다 [贈權景遇]250

2.111. 경차관으로 경상도에 부임하는 권 사인 경우를 전송하며 [送權舍人景遇以敬差官赴慶尙道]250

2.112. 기해년 2월 26일 사직하고 벽제관에 도착하여 자는데 전날 인견하는 은혜를 입어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보내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己亥二月二十六日拜辭到宿碧蹄館前日蒙賜引見慰諭而遣次蘇贊成韻]251

2.113. 혜음령을 지나며/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過惠陰嶺次蘇贊成韻]252

2.114. 임진강을 건너며/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渡臨津次蘇贊成韻]252

2.115. 임진강 가는 길에/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臨津道中次蘇贊成韻]253

2.116. 송도에서/『동사집』에 차운하다 [松都次東槎集韻]254

2.117. 천수 가는 길에/<벽제>의 운자를 사용하다 [天壽道中用碧蹄韻]254

2.118. 금교에서/장성의 시에 차운하다 [金郊次張城韻]255

2.119. 금교 가는 길에/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金郊道中次演之韻]255

2.120. 보산 가는 길에/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寶山道中次蘇贊成韻]256

2.121. 봉산군에서 유숙하며/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宿鳳山郡次演之韻]256

2.122. 삼짚날 통선령에서/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三月三日洞仙嶺次蘇贊成韻]
.....257

2.123. 족금계에서/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簇錦溪次蘇贊成韻]257

2.124. 삼짚날/신 선위의 시에 차운하다 [三月三日次申宣慰韻]258

2.125. 대동강 배 안에서/다시 앞의 시에 차운하다 [大同江舟中復次前韻]259

2.126. 3월 5일 임금의 생일을 맞아 망궐례를 행하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三月初
五日行誕日望闕禮次蘇贊成韻]260

2.127. 대동강 배 안에서/임사수의 시에 차운하다 [大同江舟中次林士遂韻]260

2.128. 부벽루 [浮碧樓]261

2.129. 부벽루에서/임사수가 흘리듯 빨리 써 내려간 시에 차운하다 [浮碧樓次林士遂走筆
韻]261

2.130. 신 선위의 시에 차운하다 [次申宣慰韻]262

2.131. 백상루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 [百祥樓次板上韻]262

2.132. 서울로 부임하는 정 동지 인보에게 이별하며 주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贈
別鄭同知仁甫赴京次蘇贊成韻]266

2.133. 서울로 부임하는 심 침추 맹용을 또 이별하며/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又別沈
僉樞孟容赴京次蘇贊成韻]267

2.134. 진하사 홍중숙에게 부치어 주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寄贈進賀使洪重叔 次
蘇贊成韻]267

2.135. 납청정의 옛 감회/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納淸亭感舊次蘇贊成 韻]268

2.136. 애일당/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愛日堂次蘇贊成韻]269

2.137. 진 급사의 시에 차운하다 [次陳給事韻]270

2.138. 임반관/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林畔館次蘇贊成韻]270

2.139. 임반관 가는 길에/공 정사의 시 운자를 사용하다 [林畔道中用龔正使韻]

.....	271
2.140. 양책관/공 정사의 시에 차운하다 [良策館次龔正使韻]	271
2.141. 3월 15일 의주 취승정 우거에 오다/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三月十五日來寓義州聚勝亭次蘇贊成韻]	272
2.142. 다시 앞의 운자를 사용하다 [再用前韻]	272
2.143. 세 번째 앞의 운자를 사용하다 [三用前韻]	273
2.144. 낮잠 [晝眠]	273
2.145. 여관에서 무료하여 연아체 읊시 2수를 짓고 연지에게 시를 잊게 하다 [旅館無聊得演雅體二律次演之]	274
2.146. 취승정/현판 시에 차운하다 [聚勝亭次板上韻]	275
2.147. 통군정에 올라/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登統軍亭次演之韻]	275
2.148. 압록강에서/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두 사신과 이별하고 아울러 서장관에 주다 [鴨江次蘇贊成韻別兩使兼贈書狀官]	277
2.149. 구룡연에서 유람하며/신 선위의 시에 차운하다 [遊九龍淵次申宣慰韻]	277
2.150. 다시 앞 시에 차운하다 [再次前韻]	278
2.151. 처의 조부 박 참찬을 위로하는 만사 [挽聘祖朴參贊詞]	278
2.152. 작은 집이 비좁아 갑자기 동호의 뱃놀이와 절간을 찾아가는 등의 일이 생각났다. 지난날 자취를 늘어놓으며 사사로운 마음으로 감탄하고 단를 두어 편을 지어 지난번의 유람을 덧붙여서 기록하다/교리 선생에게 주어 하여금 화답시를 바라다 [跼促小屋忽憶泛東湖訪招提等事卽成陳迹私心感嘆吟短律數篇追記曩日之遊 呈校理先生龔和教]	280
2.153. 전주로 부임하는 김 부윤에게 병중에 이별하며 주다 [病中贈別金府尹赴全州]	281
2.154. 다시 호남에 사는 윤씨 어른을 찾아보다 [再訪尹丈人湖居]	281
2.155. 면양정 시에 차운하다 [次俛仰亭韻]	282
2.156. 동호에서/앞 시에 차운하다 [東湖次前韻]	283
2.157. 조대 [釣臺]	284
2.158. 성천 가는 뱃의 길에 뒤따라 부치다 [追寄友人成川之行]	284
2.159. 뱃의 강가 정자에 제를 지어 부치다 [寄題友人江亭]	285
2.160. 뱃의 <술막걸리에 감사하다>에 차운하다 [次友人謝松醪韻]	286
2.161. 다시 뱃의 <술막걸리에 감사하다>에 차운하다 [復次友人謝松醪韻]	286

2.162. 술동이 앞에서/어린 시절 벗에게 주다 [樽前贈小時友]	287
2.163. 벗에게 드리다 [呈友人]	287
2.164. 괴산으로 부임하는 벗을 보내며 [送友人赴任槐山]	288
2.165. 추석 달 [中秋月]	289
2.166. 납매 [蠟梅]	289
2.167. 가을날/벗에게 보여주다 [秋日示友人]	290
2.168.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벗에게 보여주다 [又用前韻示友人]	290
2.169. 강가에서 밤에 등불을 보며/벗에게 보여주다 [江夜見燈示友人]	292
2.170. 송 미수의 <술 막걸리에 감사하다>에 차운하다 [次宋眉叟謝松醪韻]	292
3. 부록	293
[附錄]	
3.1. 조선대부수홍문관전한지제교겸경연시강관춘추관편수관엄공갈문 [朝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嚴公碣文]	293
3.2. 지명 [誌銘]	299
3.3. 십성당명 [十省堂銘]	304
3.4. 십성당설 [十省堂說]	307
참고문헌	310
엄혼年譜	313

ABSTRACT

A Study on the translation of 『*Sibseongdangjib*』

Eom, Chan-yeong.

Advisor : Associate Prof Jeong, Gil-su.

Co-Advisor : Associate Prof Kim Seong-han.

Major in Translation of Sino-Korean Classic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thesis translates Eom Heun 嚴昕's 『*Sibseongdangjib* 十省堂集』 into Korean. Eom Heun was a civil servant of king Jung-Jong 中宗. His anthology 『*Sibseongdangzib*』 were published the first edition with block book by his son, Eom Insul, in 1585 while working as officer at Jeongsan. 『*Sibseongdangjib*』 is made up of two volumes which is made up of the first volume, second volume, and an appendix. One part, there are some kind of words belong in Sa 辭 · Jeon 箋 · Jam 箴 · Myeong 銘 · Song 頌 · Byeon 辨 with nine chapters. Except for that, a majority of 『*Sibseongdangjib*』 are poems. There are almost 460 poems, most of them are bringing a rhyming word from poem.

Eom Heun early determined to live as a Salim 士林 scholar, so he tried to learn 'Zhongshu 忠恕', the point of Perfect virtue 仁, from ten reflection 十省 that is following three reflection 三省's example of Jeungja 曾子 based on reverence Chinese classics of Confucianism.

His poetry shares character with Chinese Poetry of 'Hae Dong Gang Seo Poetry Group'. It is summarized that Eom Heun's poetry world build a state of calm from beautiful scenery or desire homecoming against busy government work and injustice society. Unfortunately, a talented young poet Eom Heun lived to age 36. Due to the brief life, his lives can only be seen in the legacy of his poetry world.

Keyword : National gift 國器 poem, 『*Sibseongdangjib* 十省堂集』, A sect of poem of Gangseo 海東江西詩派, Tranquil mind 平澹, Guigeorai 歸去來.

I. 『十省堂集』 해제 - 國器 詩人 青年 嚴昕 -

1. 서론

본고는 嚴昕(1508~1543)의 『十省堂集』을 국역하였다. 엄흔은 中宗 때 문신이다. 본관은 寧越이며, 자는 啓昭, 호는 十省堂이다. 그의 문집 『십성당집』은 아들 仁述이 유고를 정리하여 1585년 定山(충남 청양군) 縣監으로 재직할 때 목판으로 초간본을 간행하였다. 이후 萬頃(전북 김제지역) 縣監으로 이임하여 간행하였는데, 그 重刊한 사실이 李好閔의 『五峯集』 <書十省堂集跋>에 있으나 정확한 간행경위가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엄흔의 작품으로는 <善으로 敗헌 닐 보며> 시조 1수가 『歌曲源流』에 전한다.¹⁾

엄흔의 『십성당집』은 상하 2권, 부록과 함께 2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의 문집에는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할 때의 바른 마음을 논의한 <筆諫賦>를 비롯하여 辭·箋·箴·銘·頌·辨에 속하는 文類가 9편이 실려 있다. 그 외 『십성당집』의 작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인데, 전체 460여 수가 수록되어 있고, 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차운시다.²⁾

현재 『십성당집』은 두 분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으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본을 마이크로필름(필름번호:M古3-2001-5)으로 소장하고 있다. 이 책은 卷尾에 “萬曆乙酉秋七月定山縣開刊”이라는 刊記가 있고, “圓完寺 常住”라는 後識가 있다.

또 다른 하나의 본은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는 필사본이다. 이 책 역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본을 마이크로필름(필름번호:古M3644-45)으로 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은 刊本이 아닌 日人에 의한 傳寫本으로 卷上에는 友野瑛, 細井謨, 福知瀏가, 卷下와 附錄에는 福知瀏, 細井謨, 江目圻 등이 교정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萬曆乙酉秋七月定山縣開刊”이라는 刊記가 적혀 있으며, 卷上과 卷下の 首題 아래에 각각 ‘淺草文庫’라는 所藏印이 찍혀 있다.

1) 엄흔의 시조는 1876년 朴孝寬과 安玟英이 편찬한 『歌曲源流』에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善으로 敗헌 닐 보며 惡으로 일운 닐 본다. / 이 두 즘음에 取捨 | 아니 明白헌가. / 平生에 惡된 닐 아니호 면 自然爲善호 리라.”(『歌曲源流』, 京城大學 朝鮮文學會,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17쪽.)

2) 엄흔의 차운시는 1539년에 집중적으로 창작되었다. 그해 봄 명나라에서 황태자 탄생을 알리는 사신단을 조선에 파견했고, 곧이어 5월에는 태자 책봉을 알리는 進賀使를 파견했다. 당시 엄흔은 遠接使 蘇世讓의 從事官으로서 활약했다. 이때 원접사와 宣慰使 申光漢 등이 명나라 사신단과 수창한 시가 다수 있는데, 엄흔은 이에 대한 차운시를 많이 남겼다.

엄혼은 그 시대 문학을 대표할 만한 蘇世讓, 宋純, 林億齡, 崔演, 林亨秀 등 여러 문인들과 활발하게 시적으로 교류했던 인물이나, 갑작스런 風疾로 인하여 36세에 요절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짧은 생애에도 불구하고 洪春卿의 <碣文>³⁾과 李潑의 <誌銘>⁴⁾에 國器의 재능을 지녔다는 찬사를 받은 기록이 있다. 또한 후대의 문인들 가운데 엄혼 시에 대해 호평한 바가 있다.⁵⁾

그러나 오늘날 엄혼의 시는 한국한시사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그의 짧은 생애와 오늘날의 낮은 지명도에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十省堂集』의 국역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데에 있다고 여기는바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해결을 위한 선행요건으로 『十省堂集』을 완역하려고 한다. 따라서 본고의 목표는 『十省堂集』 국역을 통하여 엄혼이 한국한시사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는 시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에 있다.

-
- 3) 홍춘경은 엄혼의 문장을 “爲文章踔有遠趣.”(洪春卿, <朝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嚴公碣文>, 『十省堂集』 下, 附錄, 4쪽.)라고 하였다. 또한 “爲文, 典重簡古 一時儕輩論文章之秀, 宜爲後日典文衡者, 咸以公爲先登.”(앞의 책, 『十省堂集』 下, 附錄, 6쪽.)라고 하였다. 이하 본고에서 홍춘경의 <朝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教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嚴公碣文>을 직접 인용할 때는 “<嚴公碣文>”으로 약칭하여 통일한다.
- 4) 이발은 엄혼 시문에 대하여 “爲詩文雅健圓麗.”(李潑, <誌銘>, 『十省堂集』, 附錄, 12쪽.)라고 하였다.
- 5) 허균은 『國朝詩刪』에서 엄혼의 <又次大樹韻>에 대하여서 “<又次大樹韻>. 有底花飛急, 風光不貸人. 春歸殘夢裏, 家在大江濱. 酒薄難成醉, 更長未易晨. 唯餘翰寫處, 得句寄東隣. 評 氣超語.”(許筠, 『國朝詩刪』,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韓國漢詩選集』, 아세아문화사, 1980.)

2. 嚴昕의 삶 인간됨

嚴昕은 아버지 忠佐衛 左部將 用和와 어머니 司贍寺 僉正 金仲誠의 딸 사이에서 1508년에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지금까지 엄흔의 생애에 대하여서는 『寧越嚴氏大同譜』의 간략한 기술⁶⁾과 함께 권혁명이 그의 선행연구에서 엄흔의 정치적 삶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는데, 첫 번째 시기는 21세 때 벼슬생활을 처음 시작하여 김안로에 의해 정계에서 축출당하기 직전까지로 1528년부터 1531년이고, 두 번째 시기는 김안로가 집권하던 1532년부터 1538년까지이며, 세 번째 시기는 김안로가 정계에서 완전히 축출된 뒤 엄흔이 정계에 복귀하여 풍질로 인해 사망하기 1년 전 벼슬을 그만 둘 때까지인 1539년부터 1542년까지이다⁷⁾라고 한 것이 전부이다. 그러나 권혁명의 이 구분은 단지 정치적 삶의 일부만을 말하고 있어 엄흔의 삶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한계점을 안고 있다.

엄흔은 1543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또한 그의 문집 『十省堂集』의 전체 내용은 시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서 엄흔의 생애에 관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선행연구 또한 미약한 현실이다. 그러나 엄흔의 시에서는 삶의 진솔한 모습과 사립다운 인간됨을 찾아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그의 문집에 실려 있는 시를 통하여 그 생애를 짐작해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절에서는 엄흔의 생애를 크게 유년기와 청년기 두 시기로 구분하고, 洪春卿의 『嚴公墓碣文』과 李潑의 『誌銘』과 함께 문집 속의 시를 통하여 그의 삶과 인간됨을 살펴보았다.

2.1. 幼年期

2.1.1. 幼年時節

<題竹馬契會圖>는 죽마고우들이 어른이 된 어느 날 다시 한곳에 모였다. 이때 어린 시절 죽마를 타고 놀던 추억을 회상하면서 다 같이 우정을 마음에 새겨 놓고 늙을 때까지 지니고 살아가자는 취지를 밝힌 작품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는 그의 어린 시절

6) 『寧越嚴氏大同譜(丙子譜)』 卷1 孫錄篇, 圖書出版 理想社, 1996, 64쪽 참조.

7) 권혁명, 「十省堂 嚴昕의 詩世界」, 『東洋古典研究』 第49輯, 동양고전학회, 2012, 142쪽 참조.

성장하는 과정이 비교적 자상하게 드러나 있다.

고향 마을 어릴 적 친구들	里閨髫年舊
三生の 오랜 숙명으로 친해졌네.	三生宿分親
개구쟁이 시절 봄날에 동무 되었지만	顛狂春作伴
늙도록 멀리 떨어져 지냈네.	契闊老隨人 ⁸⁾

엄혼은 서울 백악산 아래에서 태어나 인왕동 청풍계곡과 백운동 당춘대에서 죽마고우들과 함께 노닐며 성장하였다. 같은 마을에 사는 죽마고우 禹珣, 柳潤祥, 禹瓘, 申汝楫, 成守瑛, 李彦訥, 韓灝, 尹希周, 李夢奎, 韓澍와 더불어 항상 같은 곳에서 놀고 한 이불을 덮고 자며 서로의 곁을 떠난 적이 없이 지냈다.⁹⁾ 아침에 죽마고우들과 함께 스승을 찾아가 학문에 힘썼다. 낮에는 학우들과 詩를 지어 승부를 겨루면서 시간을 보내는 한편 죽마를 타고 달리기도 하고 꽃을 찾아다니는 등 하지 않은 놀이가 없었다.¹⁰⁾

2.1.2. 孝道와 友愛

엄혼은 어릴 때부터 행동거지가 보통 아이들과 다르고 효성이 지극하였다. 12세에 어머니 喪을 당하여 지나치게 哭泣함으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상례를 독실하게 마쳤다.¹¹⁾ 23세 무렵 아버지가 고질병에 걸려 병석에 항상 누워 있을 때에는 친히 약을 달이며 잠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다. 추위가 매서운 겨울에도 매일 목욕재계하고 한밤중에 마당으로 나와 하늘에 기도하면서 晷유를 빌었다. 때때로 이슬을 맞으며 아침을 맞이하곤 하였는데, 그 모습을 보고 애처로워 눈물을 흘리며 감동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고 한다.¹²⁾

그러나 안타깝게도 『十省堂集』에는 엄혼이 직접적으로 효도를 실천한 사적이 보이

8) 엄혼, <題竹馬契會圖>, 『十省堂集』上, 54쪽.

9) “余少長于京都之白岳山下. 于時同里之總角者, 禹伯瑜珣 生甲子, 柳應和潤祥 乙丑, 禹潤甫瓘 丙寅, 申濟鄉汝楫·成季玉守瑛·李希仁彦訥 丁卯, 韓源源灝·尹師聖希周及余 戊辰, 李昌瑞夢奎 庚午, 韓時中澍 辛未, 雖年序有參差, 少長或不齊. 然其室邇習近, 居同處, 寢同榻.”(엄혼, <題竹馬契會圖>, 『十省堂集』上, 51쪽.)

10) “朝則尋師而受業焉. 食輒課賦詩, 角勝負焉. 夕即求閑處而馳逐, 吹蔥騎竹, 尋花折柳, 無所不至.”(엄혼, <題竹馬契會圖>, 『十省堂集』上, 52쪽.)

11) “年十二, 丁內憂, 哭泣過哀, 濱於死, 益篤不已.”(홍춘경, <嚴公碣文>, 『十省堂集』, 부록 3쪽.)

12) “部將公, 嘗患風疾, 在床褥者三年, 公親調藥餌, 暫不離膝下, 形貌頓瘁. 雖祈寒, 必沐浴齋潔, 每中夜祈天請命. 或露立達朝, 見者悲泣.”(이발, 誌銘, 『十省堂集』, 부록 11쪽.)

지 않는다. 다만 그가 교유한 친구들이 歸觀하는 길에 자신의 효심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전부이다.

두 곳에서 임금과 부모를 나란히 섬기기는 어려우나	兩處君親難並事
한 몸에서 나오는 충효가 어찌 방도가 다르랴.	一身忠孝豈殊途
昏定晨省할 겨를이 있어 부지런히 찾아보리니	晨昏有假勤尋訪
四明狂客의 유풍이 鏡浦湖에 남아 있네.	狂客遺風在鏡湖 ¹³⁾

위의 시는 교우 崔演이 고향 강릉에 부모님을 뵈러 갈 때 그와 송별하면서 지은 시이다. 엄혼은 최연이 고향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昏定晨省하는 모습을 唐나라 玄宗 때의 문인인 賀知章의 유풍이 江陵 鏡浦湖에도 남아 있다며 그를 내심으로 부러워했다.¹⁴⁾

엄혼에게는 두 동생 曙와 昞이 있었는데, “무릇 임금과 부모를 섬기고, 형제에 우애하고, 친척에 은혜롭고, 봉우에 미더움이 하나같이 지성에서 나왔다.”¹⁵⁾는 말이 보여주듯 형제간의 우애도 매우 돈독하였다. 그의 시 <呈舍弟善昭彦昭>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형제를 향한 간절한 그리움을 보여준다.

우리 형제 세 곳에 헤어져 살지만	兄弟分三處
이 밤에 서로의 마음을 안다네.	相知此夜心
꽃을 따으나 님와 함께 물에 띄울꼬	採花誰共泛
술을 얻었으나 잔은 하나뿐이네.	得酒只孤斟 ¹⁶⁾

엄혼은 重陽節을 맞아 산에 올라 하루를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다가 꽃을 따서 함께 물에 띄우며 술자리를 함께 즐길 동생들이 곁에 없음을 아쉬워하였다. 그 후 어

13) 엄혼, <送崔演之歸觀江陵>, 『十省堂集』 下, 47쪽.

14) 엄혼이 歸觀하는 교우들을 부러워하면서 효심을 보여준 모습은 여러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봄날 소식 부모님과 막히고, 슬하에 색동옷 입을 사람이 없네. [三春消息隔庭闈, 膝下無人着綵衣.]”(엄혼, <送友人歸觀南鄉>, 『十省堂集』 下, 46쪽.), “언덕에서 술동이의 술로 獻酒를 마치니, 응당 깊은 정이 있어 서글픈 마음은 배가 되네. [岡陵獻罷樽中酒, 應有深情倍慘然.]”(엄혼, <送友人歸觀淸州>, 『十省堂集』 下, 51쪽.), “다만 새로운 반찬을 얻어 色養으로 봉양하니, 잠시 헤어진다고 상심하지 말라. [但得新羞供色養, 暫時分手莫傷心.]”(엄혼, <送友人赴任昆陽>, 『十省堂集』 下, 51쪽.) 등에서도 보인다.

15) “凡事君親, 友兄弟, 恩親戚, 信朋友, 一出至誠.”(홍준경, <嚴公碣文>, 『十省堂集』, 부록 7쪽.)

16) 엄혼, <呈舍弟善昭彦昭>, 『十省堂集』 上, 33쪽.

느 날 둘째 동생 昞이 갑작스럽게 질병을 얻었다. 의원이 와서 치료할 때 정성을 다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으나, 결국 동생 昞이 세상을 뜨자 애통한 마음을 오래도록 지울 수 없었다.¹⁷⁾ 그가 이처럼 동생들에 대한 형의 사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은 훗날 종사관이 되어 서울과 의주를 오갈 때 대동강에서 지은 <次舍弟善昭韻>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 시에서 엄혼은 “서울이 지척인데 많이 서운하구나. / 연파처럼 자욱한 시름 보냄을 알지 못하였으니.”¹⁸⁾라고 하면서 오랜만에 동생 곁에 왔지만 바쁜 정무로 인하여 煙波처럼 자욱하게 쌓인 동생의 근심을 알아주지 못한 처지를 안타까워하였다.

2.2. 青年期

2.2.1. 敬의 學問

엄혼은 經籍을 매우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은 적이 없었다. 항상 닭이 울면 일어나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곳에서 책을 바르게 놓고 앉아서 글을 읽었다. 글을 읽다가 옛 사람이 마음을 다스리고 반성하는 대목에 이르면 반복하여 읽으며 자신을 깊이 성찰하였다.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胡澹菴의 封事¹⁹⁾ 내용을 써서 문지방에 걸어 놓은 것을 항상 암송하였는데²⁰⁾, 이는 언관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갖추고, 불의에 굴하지 않는 사림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독서 습관에서 엿볼 수 있는 사례였다.

엄혼이 살다간 16세기는 사림을 중심으로 도학의 至治主義가 사회를 주도하던 시기였다. 그는 忠信과 청렴과 정직으로 그 마음을 扶植하고, 넓은 도량과 온화함과 후덕함으로 그 용모를 구제하였다. 따라서 일처리는 공명정대하게 하고, 뜻은 견고하게 세우

17) 엄혼이 동생을 잃은 애통한 마음은 고향으로 돌아와 成守琛과 다시 교류하면서 보낸 시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때 마침 성수침은 둘째 동생이 죽고 없었다. “고향에 다시 오니 나무는 다 예전 그대로인데, 가지 꽃이 두 번째 가지만 사라졌네. [重來樹木渾依舊, 只欠荊花第二枝.]”(엄혼, <重遊成仲玉園林>, 『十省堂集』上, 84쪽.)

18) “長安咫尺翻多恨, 不是煙波解送愁.”(엄혼, <次舍弟善昭韻>, 『十省堂集』上, 94쪽.)

19) 胡澹庵이 보낸 封事는 다음 내용을 말한다. 宋 高宗 紹興 연간에 금나라의 亂으로 인해 곤궁에 처했을 때, 王倫·奏檜·孫近 등 간신들이 和議를 주장하며 말하기를 “금에게 무릎 한번 꿇는다면, 二帝의 梓宮과 太后를 모셔올 수 있고, 빼앗겼던 땅도 되찾아 中原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高宗에게 항복하기를 권했다. 이에 대하여 胡澹庵은 “오랑캐는 情僞를 헤아릴 수 없으니, 무릎을 꿇는다고 해도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니, 이는 金이 宋을 우롱함이요, 간신들의 매국논의이다.”라고 高宗에게 封事를 올렸었다.(『宋史』卷374 <胡銓傳>.)

20) “嘗書胡澹菴封事一道, 揭諸楣間, 公退必莊誦.”(이발, <誌銘>, 『十省堂集』, 부록 12쪽.)

고, 행동거지를 취사함에 있어서 사군자의 지조가 있었다.²¹⁾ 이와 같은 그의 견지는 三代의 이상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사림의 도학을 선택하게 하였고, 태평성대의 성군 아래에서 실력을 갖춘 군자의 삶을 준비하도록 하였다.²²⁾ 그리하여 『論語』 <學而>에 나오는 曾子の 三省²³⁾을 본뜬 十省을 삶의 기본 준칙으로 삼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 ② 거만한 행동을 말라.
- ③ 술을 탐닉하지 말라.
- ④ 여색을 가까이 하지 말라.
- ⑤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
- ⑥ 화내기를 좋아하지 말라.
- ⑦ 남을 대접할 때에는 후덕하게 하라.
- ⑧ 일을 할 때에는 여유롭게 하라.
- ⑨ 공직에는 근면성실 하라.
- ⑩ 집안일은 멀리 하라.²⁴⁾

그는 이와 같은 十條目을 十省의 삶의 준칙으로 삼아 ‘十省堂’이라 自號하고, 평생 십성의 경계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외적 수양에 해당하는 십성의 생활 자세는 그를 내적 수양에 해당하는 敬의 학문²⁵⁾으로 나아가게 하였다. “군자가 종일토록 건실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저녁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면 비록 위태로운 지

21) “公以忠信廉直植其中; 寬弘溫厚濟其外. 處事正大, 立志牢確, 行止取捨, 有士君子之操.”(홍춘경, <嚴公碣文>, 『十省堂集』, 부록 6쪽.)

22) 宋代에 정립된 도학사상은 堯舜 이래 孔孟을 잇는 道統論에 기반 해 修己治人之學, 內聖外王之道로 일컬어지는 이상적 정치인 至治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至治를 통한 유가의 大同社會의 건설은 道學의 理想이며, 꿈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 현실 방안이었다. (서인희, 『靜菴 道學政治思想의 淵源 考察』, 『漢文古典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245쪽.)

23) 孔子 제자 曾子는 매일 세 가지에 대하여 살펴보며 반성하였다.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論語』, <學而>.)

24) “嘗以十省堂自號, 其目曰: 毋放言, 毋傲行, 勿耽酒, 勿近色, 無毀譽, 無喜怒, 待人厚, 作事寬, 勤公職, 棄家事.”(홍춘경, <嚴公碣文>, 『十省堂集』, 부록 7쪽.)

25) 儒學은 일상평상에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행복한 삶의 관건을 인간다운 삶으로 본다. 이런 목적을 위해 儒學이 제시한 방법이 修己治人の 道이다. 이 길의 근본은 修己에 있고, 孔子는 修己를 하는 방법으로 敬을 제시하였다. 이 修己以敬은 성리학에 이르러 인간 主體確立의 방법으로 계승되어 그 사상의 핵심적 영역이 되었다.(권정안, 『退溪의 삶과 敬學思想의 형성-修學期的 收斂工夫와 仕宦期的 持敬行義를 중심으로』, 『退溪學論集』,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249쪽.)

경을 당할지라도 허물이 없게 될 것이다.”²⁶⁾라고 하고, “하늘의 건실한 운행을 본받아서 군자는 스스로 힘쓰면서 쉬지 않는다.”²⁷⁾라는 『周易』 <乾卦> 九三의 爻辭와 象辭에 나오는 ‘乾道’에 입각하여 敬의 학문을 더욱 단련하고자 하였다. 한편 사림으로서 내적수양에 힘써 자신의 일과를 성현의 삶에서 反求하였다. 華察은 <十省堂銘>에서 그가 爲己修身하며 敬의 학문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옛날 성현은 아침부터 乾乾하고 저녁에도 조심하니, 禹임금은 촌음을 아끼고, 文王은 翼翼하며, 湯王은 十愆하며, 顏淵은 四勿하며.”²⁸⁾라고하며 성현들이 조심하는 마음에 견주어서 칭찬하기도 하였다.

2.2.2. 交友關係

엄혼은 관직에 있을 때 林億齡, 閔齊仁, 趙士秀, 李天啓, 宋純, 權應昌, 沈連源, 李若海, 鄭彦慈, 李莫, 申澣, 具壽聃, 權應挺, 李弘幹, 尹豊亨, 鄭萬鐘, 洪愼, 金希說 등 당시 여러 문인들과 교유하였다. 그의 교우관계는 교우가 현지로 부임할 때 이별하면서 지어준 시, 또는 평소 교우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편이나 서찰로 보내준 시를 통하여 짐작할 수밖에 없다.²⁹⁾ 특히 林億齡, 宋純, 崔演과는 매우 각별한 사이로 보이는데, 때로는 선생으로 더러는 친구로 생각하며 교유했던 임억령과의 우정은 다음 작품에서 잘 드러나 보인다.

그대는 黃庭堅 나는 范寥
시를 지어 서로 화답하고 술로 부르네.
몸은 우환으로 살아 편안하지 않으나
자취는 새장을 벗어나 번잡하지 않네.

君是庭堅我范寥
得詩相和酒相招
身居憂患非閑逸
跡脫樊籠不市朝³⁰⁾

26) 『周易』 乾卦 九三 爻辭의 말은 다음과 같다. “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周易』, 乾卦 九三 爻辭.)

27) 『周易』 乾卦 象傳에서는 “天行健，君子以自彊不息.”(『周易』, 乾卦 象傳.)라고 하였다.

28) “古之聖賢，朝乾夕惕，禹惜寸陰，文王翼翼，殷湯十愆，顏淵四勿.”(華察, <十省堂銘>, 『十省堂集』, 부록 15쪽.) 湯王의 ‘十愆’은 “三種惡劣風氣，所滋生的十種罪愆，指巫風二 舞·歌，淫風四 貨·色·游·畋，亂風四 侮經言·逆忠直·遠耆德·比頑童，合而爲十愆.”(『書經』, <伊訓>.)을 말하고, 顏淵의 ‘四勿’은 “顏淵曰：請問其目。子曰：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論語』, <顏淵>.)을 말한다.

29) 엄혼이 당대 문인들과의 교유한 작품의 수는 다음과 같은데, 宋純은 41제 68수, 蘇世讓은 37제 48수, 林億齡은 25제 71수, 崔演은 16제 35수가 『十省堂集』에 실려 있다.

30) 엄혼, <呈大樹>, 『十省堂集』 下, 56쪽.

위의 시는 <呈大樹> 14수 중 제1수이다. 이 시는 임억령이 부정한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고향 해남에서 은둔생활을 준비할 때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엄흔은 자신과 임억령의 우정을 黃庭堅과 范寥의 우정에 비견하였다.³¹⁾ 제5수에서 그는 “어느 때 임금의 은혜를 대략이나마 갚을까? 밤에는 책을 보고 낮에는 땔나무하러 가네.”³²⁾라고 하여 임억령의 은둔생활을 내심 부러워하였다. 그러나 제13수에서는 “재주와 힘은 정녕 강하여 아직 늦지 않았는데 / 石川은 왜 물고기를 잡고 땔나무나 하려 하는가?”³³⁾라고 하며 임억령이 다시 서울에서 함께 벼슬생활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한편 엄흔은 비록 나이는 많으나 평소 벗으로 여기는 송순³⁴⁾이 해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때 헤어지면서 “가을바람에 이별하니 어떻게 마음을 한정하라? 서로 헤어져 그리움을 생각하며 슬퍼하네.”³⁵⁾라고 하며 우정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지방관으로 고향 가까운 남쪽 가려고	一麾南去近鄉關
갑자기 儀曹의 玉笋班 던졌네.	擲却儀曹玉笋班
천리 밖이라 負米를 부지런히 못하겠지만	負米不勤千里外
육 년간은 빠뜨리지 말고 음식을 이바지하라.	供羞無闕六年間 ³⁶⁾

위의 시는 엄흔이 송순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으나 또다시 멀리 咸平수령으로 나가는 송순을 전송하며 서운함을 노래하였다. 또한 엄흔은 “천리 밖이라 부미를 부지런히 못하겠지만 / 육 년간은 빠뜨리지 말고 음식을 이바지하라. [負米不勤千里外, 供羞無闕六年間]”고 하며 객지에서 부모의 효도를 소홀히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엄흔은 강가에서 함평에 있는 송순을 생각하며 “내일 아침 이별하는 곳에서 / 고개를 돌리면 한번 슬퍼지리라.”³⁷⁾라고 하면서 이별할 때의 아쉬움을 말하였다. 한편 엄흔은 “강

31) 중국 劉珊의 논문 「黃庭堅:生前之樂 身後之名」의 가운데 다음 내용을 근거하면 黃庭堅과 范寥는 친구사이로 보인다. “실제 ‘신중’은 황정견이 의주에 있을 때 봉우 범요의 자이다.” [其實信中, 乃是黃庭堅在宜州時的朋友范寥的字.] (劉珊, 「黃庭堅:生前之樂 身後之名」, 『學習時報』, 2015년 참조.)

32) “何時粗報君恩畢, 夜即看書晝即樵.”(엄흔, <呈大樹>, 『十省堂集』 下, 56쪽.)

33) “才力政強時未晚, 石川那得作漁樵”(엄흔, <呈大樹>, 앞의 책.)

34) 『十省堂集』의 시제 아래 각주는 엄흔이 직접 주석을 단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따라서 <送友人歸觀南鄉>의 제목 아래 ‘友人即宋純’이라는 주석으로 보아 송순을 친구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엄흔, <送友人歸觀南鄉>, 『十省堂集』 下, 46쪽.)

35) “秋風離別情何限, 渭水江雲一望悲.”(엄흔, <送宋司成守初罷官歸鄉>, 『十省堂集』 下, 10쪽.)

36) 엄흔, <送友人出宰咸平>, 『十省堂集』 下, 51쪽.

37) “明朝分手處, 回首一悽然.”(엄흔, <江上 次友人別友韻>, 『十省堂集』 上, 65쪽.)

수와 회수의 헛된 눈물만 부치고 / 기러기에게는 부질없이 서신을 전하네.³⁸⁾”라고 하고, “지금부터 뒤로 서로 만남이 / 다시 몇 번이나 돌아오려나.”³⁹⁾라고 하면서 그에 대한 한결같은 우정을 보여주었다.

최연은 엄흔과 함께 원접사 蘇世讓의 종사관으로 임무를 수행하였는데⁴⁰⁾, 그가 최연에 대하여서는 전체 11수로 된 연시 <次演之深字韻>에 자신의 마음을 가까이서 전하고 있다. 그 중 제8수에서는 최연과 임억령을 “빙설 같은 마음의 百年知己”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였다.

빙설 같은 마음으로 깊은 우정 맺었으니	氷雪情懷托契深
백년지기는 崔演之와 林大樹라네.	百年知己有崔林
도중에 이별하여 함께 눈물 뿌렸지만	中間離別同揮涕
늘그막에 고생하며 둘이서 마음 알았네.	末路艱難兩識心 ⁴¹⁾

위의 시 <次演之深字韻> 제1수에서 “슬픈 뜻과 기쁜 마음 누가 깊고 얕은가 / 옛 동산에서 다시 노닐며 기뻐하네.”⁴²⁾라고 한 말을 보면, 엄흔과 최연이 같은 언관의 벼슬에 있으면서 바른 언관의 자세를 겸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제9수 “한번 그대의 시를 읊어보니 하나같이 맛이 깊어 / 옥 같은 가을달이 구슬 숲에 비치는 듯.”⁴³⁾에서는 최연의 시를 가을 달에 비친 瓊林에 비유하여 극찬하기도 하였다.

엄흔은 이처럼 당대 교우들과 교유하며 주고받은 시에서 평소 친구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을 진솔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38) “江淮空寄淚，鴻雁浪傳書.”(엄흔, <復示友人>, 『十省堂集』上, 58쪽.)

39) “從今相見後，復作幾時廻.”(엄흔, <咏書堂樹木友人韻>, 『十省堂集』上, 59쪽.)

40) 엄흔이 종사관으로서 활약한 사실은 다음 蘇世讓의 復命에 잘 나타나 있다. “『황화집』이 5권인데 모두 해정하게 베껴왔습니다. 그러나 틀린 곳이 아직도 많으니 보고 나서 다시 내려주시면 종사관들(崔演·嚴昕·林亨秀)에게 校書館으로 출사하면서 교정하게 하여 인출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中宗實錄』, 중종 34년 5월 28일조 참조.) 한편 바른 언관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보여준 두 사람의 구체적인 사례는 시기가 서로 다른 다음의 두 기사에서 알 수 있다. 최연은 김안로의 전횡을 고변하였다.(『中宗實錄』 중종 26년 10월 23일조 참조.) 및 엄흔은 언론의 개방과 탄압 중지 등을 건의하였다.(『中宗實錄』, 중종 36년 6월 25일조 참조.)

41) 엄흔, <次演之深字韻>, 『十省堂集』下, 41쪽.

42) “悲意歡情孰淺深，重遊欣得舊園林.”(엄흔, <次演之深字韻>, 앞의 책.)

43) “一詠君詩一味深，琅如秋月映瓊林.”(엄흔, <次演之深字韻>, 『十省堂集』下, 41쪽.)

2.2.3. 言官으로서의 벼슬생활

1525년 엄흔은 18세로 생원시에 합격하고, 21세 때 문과에 급제하여 弘文館 正字에 임명되면서 벼슬생활을 시작하였다. 일찍부터 胡澹菴 封事の 도리를 가지고 바른 언관의 태도를 지향하였었는데, 집에 있을 때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의 논의에 대비하고, 조정에서는 임금을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품은 생각을 모두 진달하였다.⁴⁴⁾

바른 언관으로서 삶의 자세를 견지한 결과 그는 侍講院 說書로 재직하던 중 趙琛의 일에 관련된 諫員들의 체직을 상소하기에 이르렀다.⁴⁵⁾ 司諫院 正言을 지낼 때에는 李沆의 죄를 논하고 周世鵬의 파직을 청하니⁴⁶⁾, 언관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는 소문이 조정 안팎에 널리 알려졌다. 엄흔의 이러한 면모는 金安老 같은 권신을 다시 등용하는 일이 불가함을 주장하는 모습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김안로는 유배되어 외지에 있었는데, 조정에 신하들은 그를 다시 등용하여 동궁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고 하였다. 그때 엄흔은 여론에 대하여 홀로 반대하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나는 일찍이 金安老와 혼인으로 인척이 되어 그가 마음을 처신하고 일을 행하는 것을 익히었는데, 결단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물며 동궁은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함께 우러러 받드는 분인데, 하필이면 이러한 사람을 등용하여 경중으로 삼겠는가?⁴⁷⁾

엄흔의 이 말을 들은 조정 신하들은 목을 움츠렸으나 그 자신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엄흔은 이와 같이 言官의 지위에 있을 때 손익을 따지는 법이 없이 공명정대함을 견지하였고 사립다운 모습을 잃은 적이 없었다. 그는 평소 조정에서 金安老가 교활하여 남을 해코지하기를 좋아한다고 여겨 배척하기도 하였다.⁴⁸⁾ 처음에 사람들은 그

44) “惟納約之自曷兮，諫固貴於有幾。苟托類而善導兮，可繩愆而格非。”(엄흔, <筆諫賦>, 『十省堂集』上, 1쪽.)

45) 『中宗實錄』, 중종 24년 3월 28일조 참조.

46) 『中宗實錄』, 중종 25년 7월 19일조 참조.

47) 公獨執不可曰：“吾與安老，嘗連姻，熟聞其處心行事，決非佳士也。況東宮，一國臣民，所共仰戴，何須此人，以爲輕重耶?”(이발, <誌銘>, 『十省堂集』, 부록 9쪽.)

48) 엄흔이 평소 김안로를 배척하게 된 경위의 구체적인 사건은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할 때 ‘灼鼠의 變’으로 짐작된다. ‘灼鼠의 變’은 1527년 중종의 사위이며 金安老의 아들인 廷城尉 金禧가 沈貞과 柳子光 등에게 원한을 품고 이들을 제거하려는 아버지 김안로의 사주를 받아 쥐를 태워 東宮(世子로 있을 때의 仁宗임)의 생일에 동궁 뜰에다 내걸고 저주했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동궁이

말을 믿지 않았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실로 판명되자 모두 그의 선견지명에 탄복하였다. 그러나 훗날 金安老가 석방되어 세력을 회복하자 엄혼은 언관으로서 김안로의 석방을 반대했던 일에 연루되어 도리어 김안로의 배척을 당하였다.⁴⁹⁾ 엄혼은 이를 계기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陽川에서 7년 여 동안 두문불출하며 학문에 전념하였다.⁵⁰⁾

2.2.4. 꿈의 挫折

엄혼은 여기서 의기소침하지 않고 서용을 기다리면서 임금의 은혜에 작은 힘이나마 보답하려고 하는 一片丹心을 여러 작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⁵¹⁾ 이를테면 <新秋有懷>에서는 “일편단심을 나라에 허락하였으니 / 떠나고 싶어도 다시 머무네.”⁵²⁾라고 하였고, <復示友人>에서는 “한 치 단심은 남아 있으나 / 일천 오라기 흰머리만 들통나네.”⁵³⁾라고 하였다.

1538년 2월 드디어 엄혼은 관직에 서용되어 부수찬이 되었다.⁵⁴⁾ 하지만 오매불방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려는 그의 희망은 몇 해 지나지 않아 질병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541년 3월 彌善으로 있을 때 우연히 병에 걸려 열흘 동안 조정에 나가지 못한 일이 있었다. 이때 동궁전에서는 내관으로 하여금 문병하게 하고 山海珍味를 함께 내려주자 엄혼은 감격하여 다음과 같은 시로써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보여주었다.

진수성찬이 궁궐에서 내려와 절하며 받으니
가난한 집에 內官이 와 놀라보네.

珍羞拜受廚人賜
蓬戶驚看內使來

亥生이었는데, 亥는 五行으로 돼지에 속하고 쥐도 역시 돼지와 모양이 비슷한 것이므로 당시 의논이 동궁을 저주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사건으로 잘못 경빈 박씨가 연루된 혐의를 받아 아들인 福城君 李暉와 함께 賜死되었다.(『中宗實錄』, 중종 22년 5월 24일조 참조.)

49) “엄혼은 김안로가 석방되어 돌아올 적에 正言으로 있었는데, 김안로를 석방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한 그의 주장은 뒤에 김안로에게 미움을 받은 계기가 되었다. [嚴暉當安老放還之時, 爲正言, 以爲安老不可放, 以是見忤於安老.]”(『中宗實錄』, 중종 33년 1월 29일조 참조.)

50) “安老既得志, 用前嫌斥之, 公 罷居陽川, 先業者七稔, 杜門掃軌, 日以書史自娛.”(이발, <誌銘>, 『十省堂集』, 부록 10쪽.)

51) 엄혼이 자신의 재주를 부족하다 여기고 부끄러워하면서 君恩에 보답하려고 한 마음은 <至日早朝>, <次杜少陵秋興八首 呈林注書大樹>, <呈境遇>, <重到讀書堂 示演之>, <次演之深字韻>, <蒙敍後 示演之>, <送友人歸觀南鄉>, <呈大樹>, <林畔館 次蘇贊成韻>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52) “丹心曾許國, 欲去更淹留.”(엄혼, <新秋有懷>, 『十省堂集』 上, 35쪽.)

53) “一寸丹心在, 千莖白髮疏.”(엄혼, <復示友人>, 『十省堂集』 上, 58쪽.)

54) 『中宗實錄』, 중종 33년 9월 23일조 참조.

이제 죽을 곳을 모르겠나니

從此未能知死所

어찌 하면 목숨 걸고 보살핌에 보답할까.

何方殞首答栽培⁵⁵⁾

엄혼은 끝내 병이 낫지 않아 벼슬을 그만두었다. 당시 자신의 처지를 林億齡에게 “疏廣처럼 어질지 못하는데 오히려 벼슬을 사직하고 / 逢萌의 자취와 다른데 문득 冠을 걸어놓았네.”⁵⁶⁾라고 하며 병으로 사직하게 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였다. 한편 최연에게는 “죽기 전에 돌아왔으나 병이 이미 깊어졌고 / 더구나 노쇠한 발자취로 한림원에 몸담았네.”⁵⁷⁾라고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1543년 엄혼은 병이 악화되어 그해 9월, 36세의 젊은 나이로 눈을 감으니, 사림의 꿈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가 죽자 친척과 친구들은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中宗은 부음을 듣고 인재를 안타까워하며 장례비용 은택을 내려주었다. 그의 덕은 백성을 보살피줄 만하였고, 재주는 나라를 다스릴 만하였다. 그러나 요절하여 재주와 덕을 베풀지 못하자 사림을 울리고 임금마음을 측은케 하는 말미를 주고 말았다.⁵⁸⁾

이상 엄혼의 『十省堂集』의 시세계와 홍춘경의 <嚴公碣文>과 이발의 <誌銘> 등을 통하여 그 삶을 조명하여 볼 때, 엄혼이 敬의 學問에 기초하여 十省의 생활을 일관하며 사림으로서 인간적 삶을 이루려고 노력한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反求하는데 示唆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55) 엄혼, <辛丑三月, 待罪弼善, 偶縈疾病, 旬休不仕, 東宮遣內官問病, 又賜膳餘珍味, 兢惶罔措. 吟成一律, 以寓鏤骨之意>, 『十省堂集』 下, 28쪽.

56) “賢非疏廣猶辭位. 跡異逢萌便掛冠”(엄혼, <病遞弼善杜門調治 吟呈大樹>, 『十省堂集』 下, 28쪽.)

57) “未死歸來病已深. 又將衰跡廁詞林.”(엄혼, <次演之深字韻>, 『十省堂集』 下, 41쪽.)

58) “及其病卒, 親戚朋友聞之, 無不痛傷而流涕者. 上聞而惜之, 賜賻有加. 德宜覆民, 才宜器國, 而竟夭不施, 泣士林而惻上情, 其有由矣.”(홍춘경, <嚴公碣文>, 『十省堂集』, 부록 7쪽.) 지금까지 國器 詩人 靑年 嚴昕에 대한 생애를 洪春卿의 <碣文> 및 李瀾의 <誌銘>과 그의 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3. 『十省堂集』 刊行經緯와 編次

3.1. 刊行經緯

엄흔의 문집 『十省堂集』은 1585년 그의 아들 嚴仁述⁵⁹⁾이 定山(충남 청양군) 縣監으로 재직할 때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후 萬頃(전북 김제지역) 縣監으로 이임하여 다시 刊行하였는데, 그 간행본이 일본으로 유입되어 현재 國立國會圖書館(청구기호:820-20)에 소장되어 있다.

본고의 저본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목판본이다. 현재 이 책은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본을 마이크로필름(필름번호:M古3-2001-5)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다. 이 책은 卷尾에 “萬曆乙酉秋七月定山縣開刊”이라는 刊記가 있고, “圓完寺 常住”라는 後識가 있다. 이 刊記와 後識로 보아 『十省堂集』은 1585년 7월에 처음 간행되었는데, 그 중 하나를 圓完寺 사찰에서 소장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하나의 異本이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 또한 서울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그 본을 마이크로필름(필름번호:古M3644-45)으로 소장하고 있는 자료이다. 그런데 이 책은 刊本이 아닌 日人에 의한 傳寫本으로 卷上에는 友野瑛, 細井謨, 福知瀏가, 卷下와 附錄에는 福知瀏, 細井謨, 江目圻 등이 교정하였다는 기록과 함께 “萬曆乙酉秋七月定山縣開刊”이라는 刊記가 적혀 있으며, 卷上과 卷下의 首題 아래에는 각각 ‘淺草文庫’라는 所藏印이 찍혀 있다.⁶⁰⁾

한편 李好閔의 『五峯集』에는 <書十省堂集跋>과 七言律詩 <題十省堂詩集後 - 時十省胤嚴尹爲漢城判官>⁶¹⁾ 1수가 실려 있다. <書十省堂集跋>에서 이호민은 저자 엄흔과 부친의 친분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엄인술이 만경에서 재임할 때 선고의 유고를 한 부 가져왔다는 사실과 함께 만경에서 간행한 본이 전쟁으로 대부분 없어져 버린 사실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88년~1589년 즈음에 萬頃 縣監이 된 저자의 아들 旌善이 先君의 유고와 板刻을 가져와 印刊

59) 엄인술(1540~1606). 자는 述之, 호는 旌善이다. 通訓大夫 淮陽都護府使 鎭兵馬僉節制使를 지냈다. 또한 1581년부터 1586년까지는 定山縣監으로 재임하였다.(『定山邑誌』 참조.)

60) 金圻彬, 『十省堂集』 해제, 한국문집총간 제32집, 고전번역원, 1998 참조.

61) 李好閔의 칠언율시 <題十省堂集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先友桐江一德星, 妙齡擈藻滿天庭. 洛中舊輩全淪沒, 京兆吾君是典刑. 遺稿茂陵金玉在, 微言江表菡蘭馨. 元眞所有餘殘馥, 雨露今年草又青.”(李好閔, <七言律>, 『五峯集』 卷4 한국문집총간 제59집, 376쪽.)

하여 한 분을 보내주었다. 내가 공경히 받들고 삼가 읽어보니, 문집 말미에 洪石壁(名, 春卿)이 지은 碣文이 있었다. (中略) 萬頃에서 찍은 간행본이 전쟁으로 대부분 없어져 버렸으니, 다행이 두 집안의 자제들이 힘을 모아 다시 간행하여 영원히 전하여지는 것이 지극한 소원이다. 정선은 이 말로써 반드시 마음이 유쾌할 것이며, 나도 이 말로써 선친을 우러러 존경할 것이다.⁶²⁾

엄혼의 『십성당집』은 간기와 李好閔의 <書十省堂集跋>의 여러 사실들을 유추해 볼 때, 그의 아들 엄인술이 定山 縣監 재직 당시에 유고를 정리하여 목판으로 初刊하였고, 다시 萬頃으로 이입한 뒤 간행하여 유포하였는데, 이호민이 발문을 쓴 1601년경에는 그 간행본이 상당 수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십성당집』은 일본 국립국회도서관본과 내각문고장본 두 본이 존재하고 있다. 하나는 2001년 국립중앙도서관에서 古典籍을 조사·영인할 때 국회국립도서관 소장 목판본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필름번호:M古3-2001-5)이다. 본고에서는 이를 가지고 저본으로 삼았다. 다른 하나 역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내각문고장본인 필사본을 촬영한 마이크로필름(필름번호:古M3644-45)이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이를 가지고 한국문집총간 제32집 『십성당집』 저본으로 삼았다.

따라서 본고는 두 본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내각문고장본은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의 목판본을 후대에 와서 일본인이 필사하였으며,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기록을 허다하게 남기었다. 따라서 본고의 아래 <표1>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바 본고의 저본이 한국문집총간 제32집 『十省堂集』의 저본 내각문고장본보다 先本이자 善本임을 전체 五十六字의 異字를 근거하여 밝혔다. 아울러 두 저본 간의 異字는 본고 저본의 원문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각각 비고를 통하여 의미를 비교하여 보도록 하였다.

• <표1>

국립국회도서관본	내각문고장본	비고
重曰	重田	상권 2쪽 8열 4행 ‘曰’과 ‘田’ (이하 상권에서는 ‘상권’을 생략한다.)
力穡之榮	力穡之策	7쪽 7열 2행 ‘榮’과 ‘策’
秋省斂	秋省斂	7쪽 8열 15행 ‘斂’과 ‘斂’
躬自重穀	躬目重穀	8쪽 6열 1행 ‘自’과 ‘目’

62) “歲萬曆戊子己丑間, 旌善宰萬頃縣, 以其先君遺稿鈔梓, 印一本寄某. 某奉以莊誦, 見集末有洪石壁所撰碣文. (中略) 萬頃印本, 多沒於兵火. 幸兩家得分寸力, 重爲入梓, 以永其傳, 是至願也. 旌善必以此語愜, 某亦以此語景嚴矣.”(李好閔, <記·跋>, 『五峯集』 卷8 한국문집총간 제59집, 437쪽.)

鷹揚而啓行	鷹揚而啓竹	11쪽 1열 16항 ‘行’과 ‘竹’
致中和	致中秋	16쪽 1열 18항 ‘和’와 ‘秋’
四海于湯	四海千湯	16쪽 8열 2항 ‘于’와 ‘千’
征斂煩多巧	征斂煩多巧	22쪽 3열 1항 ‘斂’과 ‘斂’
故鄉蒼茫千萬里	故鄉蒼范千萬里	25쪽 5열 11항 ‘茫’과 ‘范’
舉眼不見浮觴處	舉眠不見浮觴處	26쪽 7열 7항 ‘眼’과 ‘眠’
要須元氣壯	要須亢氣壯	36쪽 7열 15항 ‘元’과 ‘亢’
課盡栽培力	課盡我培力	37쪽 8열 13항 ‘栽’와 ‘我’
元非擊楫人	亢非擊楫人	39쪽 3열 6항 ‘元’과 ‘亢’
勳葉新投筆	勳葉雜投筆	54쪽 9열 5항 ‘新’과 ‘雜’
久負剡溪船	久負刻溪船	55쪽 9열 18항 ‘剡’과 ‘刻’
借問文園令	借問文圓令	56쪽 7열 4항 ‘園’과 ‘圓’
振策關河道	振策開河道	62쪽 3열 3항 ‘關’과 ‘開’
食覺鷓林足	食覺鶴林足	67쪽 8열 5항 ‘鷓’와 ‘鶴’
平原入望開	平原入望關	68쪽 2열 12항 ‘開’와 ‘關’
揄揚纔一語	偷揚纔一語	68쪽 8열 11항 ‘揄’와 ‘偷’
停時欲斷絃	停時欲斷絲	72쪽 10열 2항 ‘絃’과 ‘絲’
同廬水一帶	東廬水一帶	98쪽 9열 1항 ‘同’과 ‘東’
祇益登臨此日思	祇益登監此日思	하권 2쪽 7열 1항 ‘臨’과 ‘監’ (이하 하권에서는 ‘하권’을 생략한다.)
他年地下共徜徉	他年地下共徜徉	3쪽 9열 17,18항 ‘徜徉’과 ‘徜徉’
良材一失逢難再	良村一失逢難再	5쪽 5열 6항 ‘材’와 ‘村’
大材自古無人顧	大村自古無人顧	5쪽 8열 6항 ‘材’와 ‘村’
花前杯酒借顏紅	花有杯酒借顏紅	7쪽 7열 18항 ‘前’와 ‘有’
他年認取開懷地	他年認取關懷地	7쪽 8열 9항 ‘開’와 ‘關’
星河漸結半庭陰	墨河漸結半庭陰	8쪽 3열 3항 ‘星’과 ‘墨’
登臨何處對斜暉	登臨河處對斜暉	8쪽 8열 3항 ‘何’와 ‘河’
千年那復與追游	千年那復與進游	10쪽 3열 13항 ‘追’와 ‘進’
眼底曾經路四千	眼底曾經洛四千	10쪽 8열 7항 ‘路’와 ‘洛’
已作爛斑戲老萊	已作爛斑戲老萊	12쪽 4열 19항 ‘爛’과 ‘爛’
衡字獨留彭澤徑	衡字獨留彭澤徑	30쪽 2열 11항 ‘字’와 ‘字’
誰識胸中元不病	誰識胸中亢不病	32쪽 2열 9항 ‘元’과 ‘亢’
不緣藥力收刁匕	不緣藥力收刁匕	35쪽 2열 16항 ‘緣’과 ‘緣’
同垂松梓三年淚	同垂松梓三年深	46쪽 1열 2항 ‘淚’와 ‘深’
不是尋常海外生	不是尋當海外生	46쪽 2열 15항 ‘常’와 ‘當’
久恨塵埃長悵望	又恨塵埃長悵望	47쪽 4열 15항 ‘久’와 ‘又’

永日閑開萬卷書	求日閑開萬卷書	48쪽 8열 8항 ‘永’과 ‘求’
久爲艱難多旅泊	又爲艱難多旅泊	50쪽 1열 10항 ‘久’와 ‘又’
雲宵舊路多閑地	雲霄舊路多閑地	52쪽 1열 11항 ‘宵’와 ‘霄’
憑公暫取清江趣	憑分暫取清江趣	63쪽 5열 6항 ‘公’과 ‘分’
幕下有人存郢質	幕下有人有郢質	65쪽 5열 9항 ‘存’과 ‘有’
地遠元無鼓打開	地遠元無鼓打閣	70쪽 4열 9항 ‘開’와 ‘閣’
囊貧不怪詩篇富	囊賀不怪詩篇富	72쪽 3열 11항 ‘貧’과 ‘賀’
蓼莪非復慕羹牆	蓼莪非後慕羹牆	75쪽 6열 11항 ‘復’와 ‘後’
已付生涯枯淡裏	已付生涯拈淡裏	78쪽 6열 9항 ‘枯’와 ‘拈’
郭北長江分遠派	邪北長江分遠派	79쪽 9열 15항 ‘郭’과 ‘邪’
點點胡山向我迎	點點胡山何我迎	81쪽 5열 6항 ‘向’과 ‘何’
幽尋有約可相違	幽尋有約可相遣	83쪽 10열 14항 ‘違’와 ‘遣’
噴月驚濤寒洒面	噴月驚濤寒洒面	84쪽 1열 10항 ‘噴’과 ‘噴’
何日同舟又同醉	何日同舟又同辭	84쪽 5열 11항 ‘醉’와 ‘辭’
簪纓未禁蓴鱸興	簪纓未禁蓴鱸興	85쪽 10열 10항 ‘鱸’와 ‘鱸’
髣髴磯頭水濕袍	髣髴磯頭水滋袍	86쪽 6열 13항 ‘濕’과 ‘滋’
丹砂長駐少容顏	丹砂長駐少容顏	90쪽 1열 9항 ‘顏’과 ‘韻’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립국회도서관본은 1585년 定山에서 초간한 본을 萬頃에서 간행한 본이 분명하고, 일본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誤記가 많은 내각문고장본보다 『십성당집』의 저본이 되어야 함은 타당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차후 학계에서 엄흔의 『십성당집』 연구와 일반인의 독해에 정확성을 기여하기 위하여 두 본 간의 異字를 위와 같이 따로 정리하여 보았다.

3.2. 編次

엄흔의 『十省堂集』은 상·하 2권, 부록 합 2책으로 되어 있으며, 문집에 대한 목차나 序·跋의 글은 보이지 않는다. 시의 편차 방식은 뚜렷한 기준이 없고, 저작 연도순으로도 배열되어 있지 않다. 권상에는 칠언고시와 오언고시, 오언율시, 칠언절구, 오언절구의 순서대로 실려 있다. 권하에는 전체 칠언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이 함께 실려 있다. 한편 詩題 아래에 달려 있는 주석은 내용상으로 보아 저자가 직접 주석을 단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상에서의 <安定館>이나 권하에서의 <江上送人>처럼 군데군데 글자가 빠진 곳이 있어 원본의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十省堂集』

의 구성을 문체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다.

• <표2>

권별	문체별	편수
上	賦	2
	辭	1
	箋	2
	箴	1
	銘	1
	頌	1
	辨	1
	五言古詩	6
	七言古詩	6
	五言絶句	2
	七言絶句	53
	五言律詩	76
	六言詩	1
	排律	2
下	七言律詩	170
附錄	碣文	1
	誌銘	1
	銘	1
	說	1

『十省堂集』 권상에는 賦, 辭, 箋, 箴, 銘, 頌, 辨의 文類 전체 9작품과 시 146제 213수가 실려 있다. 賦에는 전체 2편이 실려 있는데, 柳公權이 서법의 운용을 가지고 唐나라 穆宗에게 간언하는 내용을 근거하여 임금에게 바른 마음으로 간언을 해야 한다는 중심내용의 <筆諫賦>와 『荀子』 <大略>에서 “하등의 신하는 재물로 임금을 섬기고, 중등의 신하는 자기 몸으로 임금을 섬기고, 상등의 신하는 인재를 추천하여 임금을 섬

긴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신하가 임금을 섬기는 바른 도리를 강조한 <上士事君以人賦>가 있다.

辭에는 1375년 陶隱 李崇仁이 明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하자는 상소로 유배를 당하게 되어 지은 <哀秋夕辭>를 차운하여 자신의 학문의 연원을 밝히고 있는 <次哀秋夕辭> 1편이 있다.

箋에는 전체 2편이 실려 있는데, 농업은 정치의 근본으로 임금이 백성의 厚生하는 방법을 진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戶曹에서 力田科를 시행하라는 청을 의작한 <擬戶曹請行力田科箋>과 및 하늘은 순일한 덕을 지닌 자를 도와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준다는 『書經』 <商書 咸有一德>의 내용을 강조하면서 신라 김유신 장군이 백제를 멸망시킨 근본이 순일한 덕을 지니고 있어서 가능하였다는 <擬新羅金庾信賀滅百濟箋>이 있다.

箴에는 『周易』의 <坤卦>의 爻辭 “履霜堅冰至”를 근거하여 서리를 밟으면 단단한 얼음이 어는 시기가 이른다는 뜻으로 일의 조짐을 보고 미리 그 禍를 경계해야 한다는 <履霜箴> 1편이 있다.

銘에는 백아절현의 고사를 가져와 진솔한 소리의 이치를 노래한 <無絃琴銘> 1편이 있다.

頌에는 백성의 안녕을 풍년으로 축원하는 마음에 있어서 먼저 임금이 湯임금처럼 聖德을 갖추어야 자주 풍년이 든다는 내용의 <屢豐年頌> 1편이 있다.

辨에는 고대 史官의 기록에 대한 인식의 변론으로 柳宗元의 <與韓愈論史官書>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유종원의 문자보다는 韓愈의 도학자적인 기록관을 더 중요시하는 자신의 견해를 밝힌 <韓柳論史辨> 1편이 있다.

이어 칠언고시 <華表柱>를 시작하여 전체 146題⁶³⁾ 213수가 실려 있는데, 오언고시 6수, 칠언고시 6수, 오언절구 2수, 칠언절구 53수, 오언율시 76수, 육언시 1수와 배율 2수가 있다. 그 중 <題竹馬契會圖>는 어른이 된 죽마고우들이 한 때 모여 우정을 늙을 때까지 변하지 말자는 요지의 并序가 붙어 있다. <憫農>은 추수를 마쳐도 먹을 양식이 없는 백성의 고충을 다룬 愛民詩이다. 그 외 다수의 次韻詩들은 1539년 5월 중국 사신 華察과 薛廷寵이 왔을 때, 원접사 蘇世讓의 종사관이 되어 원접사의 일행과 사신단이 수창한 시의 운자를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또한 林億齡, 崔演, 宋純, 趙士秀, 成守琛, 申光漢, 林亨秀, 宋麟壽, 李莫, 沈連源, 李若海, 鄭彥懿 등 당대 문인들과 교류

63) 본고에서 분석한바 『十省堂集』의 작품 수는 전체 316제 457수이다.

하면서 주고받은 교유시 및 병풍에 題한 시 등이 실려 있다.

권하에는 <浣花醉歸圖>에서 시작하여 전체 170題의 244수의 詩가 실려 있는데, 모두 칠언율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 중 차운시는 중국 사신으로 온 正使 龔用卿과 副使 吳希孟의 시에 차운한 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밖에 대동강, 부벽루, 백상루 등의 명승지를 다니면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景物詩와 임금의 命에 따라 지은 應製詩 등이 실려 있다.

한편 부록에는 洪春卿이 지은 <碣文>, 李潑이 지은 <誌銘>, 華察이 지은 <十省堂銘>, 薛廷寵이 지은 <十省堂說>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화찰의 <十省堂銘>과 설정총의 <十省堂說>은 엄혼이 堂號를 十省이라고 한 것이 曾子の 三省의 뜻을 본뜬 것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⁶⁴⁾

64) 화찰은 <십성당명> 서두에서 “校理 엄혼은 ‘十省’으로 堂을 命名하였는데, 이는 曾子の ‘三省’의 뜻을 취하여 넓힌 것이다. [嚴校理听, 以十省名堂, 蓋取曾子三省之義而擴之.]”라고 하였고, 설정총은 <십성당설> 서두에서 “校書 엄혼은 十省으로 堂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가 말하기를 ‘옛날 曾子는 孔子의 뛰어난 제자임에도 세 가지를 살핀다고 하였는데, 나처럼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매사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을 이렇게 이름 지었다.’ [嚴校書听, 以十省名其堂, 其言曰: ‘昔曾子, 聖門高弟. 猶曰三省, 如听未學, 所當每事皆省. 故名其堂云云.』”라고 하였다.”

4. 嚴昕의 시 概觀

엄흔이 살다간 16세기 韓國漢詩史는 다양한 시단이 형성되었는데, 그 중 海東江西詩派의 활동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⁶⁵⁾ 해동강서시파는 宋대의 黃庭堅을 詩宗⁶⁶⁾으로 삼은 陳師道, 陳與義 등이 하나의 시파를 이룬 江西詩派의 영향⁶⁷⁾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朴閔, 李荇, 鄭士龍, 黃廷彧 등이 하나의 詩群을 이룬 시파를 말한다.⁶⁸⁾

엄흔의 시 또한 해동강서시파 시의 특징을 공유하는데, 拗體와 奇字의 단련, 시어의 확장, 시의 산문화 등을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을 수 있다. 한편 엄흔 시의 주제는 아름다운 자연이나 景物을 통해 平澹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거나 불의한 현실과 바쁜 政務 속에서 歸去來를 希求하는 것으로 요약되는데, 이 측면 또한 당대 사회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고는 『십성당집』 시의 작품을 분석하여 크게 내용과 형식 두 부문으로 분류하여 보았다.⁶⁹⁾ 그의 시는 내용상 그가 종사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원접사 蘇世讓 일행

65) 16세기 우리나라 漢詩史에서 해동강서시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유를 이종묵은 그의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成宗 연간부터 가열된 정치적 투쟁으로 인한 사회의 빈번한 발생과 해동강서시파의 범주에 있는 시인들이 대부분 유배생활을 경험하거나 정치적 좌절을 겪었다. 예를 들어 朴閔은 사회에 희생되어 죽음에 이르렀고, 李荇은 짧은 기간이지만 유배를 당하며, 정치적 패배를 여러 번 겪었고, 朴祥은 己卯名賢으로 불리나 외직을 전진했으며, 鄭士龍 역시 잦은 탄핵으로 宦路를 이탈한 때가 많았으며, 盧守愼은 무려 22년간의 유배생활을 하였고, 黃廷彧도 생애의 후반기는 吉州 유배지에서 울분의 생활을 보냈다.(이종묵,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13쪽 및 20쪽 참조.)

66) 黃庭堅의 詩風은 “以俗爲我”나 “點鐵成金”, 곧 비속한 재료를 가지고 우아한 표현을 만든다는 시의 작법을 말하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서 보이고 있다. ① 민요, 속담, 민간소설의 회곡, 기타 성어를 즐겨 시어로 사용하였다. ② 참요의 전고를 가져와 시어로 활용한다. ③ 杜甫의 시를 추종하였다. 그러므로 陸游, 韓駒의 시풍과 지속적인 연관성을 갖는다. ④ 시의 字句를 다듬고 의경을 조직하여 大家에 이르렀다.(이종묵,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13쪽 및 20쪽 참조.)

67) 江西詩派는 唐詩의 正統을 거부하고 奇想奇句를 숭상하여 新풍을 일으켰다. 그러나 기발함에 치우치다가 畦畝에 빠지거나 斬新을 쫓다가 生硬을 드러내어 詩의 품위를 沮喪케 하였다. 그래서 明나라 李東陽은 天真을 잃은 捕風捉影의 詩風이라고 하여 酷評을 하였다.(閔丙秀,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第1輯, 韓國漢文教育學會, 1986, 57쪽.)

68) 閔丙秀의 선행연구에서 해동강서시파로 대두되는 시인들의 후대평가로서 許筠의 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朴閔의 <福靈寺> “春陰欲雨鳥相語, 老樹無情風自哀”의 句는 神助가 있었다고 하고, 그의 시는 正聲이 아니라고 하였다. 李荇은 沈厚和平 淡雅純熟한 시세계로 朝鮮第一大家라 稱道하였다. 黃廷彧은 그의 시가 朴祥에서 나와 盧守愼과 鄭士龍의 사이를 출입하였다고 하였다.(閔丙秀, 앞의 책, 57~61쪽 참조.)

69) 엄흔의 시에 대하여 권혁명은 현재 『石川集』과 『十省堂集』에 두 사람이 수창한 시가 상당량 있고, 唐詩를 함께 수창한 사실(“共和唐詩爲別句, 長因海客得鄉書.”(엄흔, <呈大樹>, 『十省堂集』 下, 54쪽.))을 확인하고서 향후 16세기 唐風의 경로와 맥락을 이해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짐작하였다.(권혁명, 『十省堂 嚴昕의 詩世界』, 『東洋古典研究』 第49輯, 동양고전학회, 2012, 146쪽 참조.)

이 사신단과 수창한 시에 붙인 次韻詩, 당대 문인들과 교류하면서 현지로 부임하는 교우들과 이별할 때 지어준 送別詩, 아름다운 자연과 경물을 읊은 景物詩, 백성들이 겪는 부역과 세금의 苦衷을 다룬 愛民詩, 죽음을 애도한 輓詞가 있다. 그 외에 오칠언 고시와 근체시 형식을 빌려와 형식상 교우들에게 시를 지어 직접 주거나 편지 등을 통하여 보내준 贈呈詩, 詩卷이나 병풍 또는 그림에 붙인 題詩, 서문을 붙여 놓은 并序詩, 임금의 명에 따라 지은 應製詩가 있다.

따라서 <표3>은 『十省堂集』 시를 주제와 형식으로 일차 분류하고, 다시 형태로 구분하여 전체 작품 수를 명시하여 보았다.

• <표3>

분류	구분	작품수
주제	次韻詩	176
	送別詩	71
	景物詩	80
	愛民詩	1
	輓詞	4
	其他	125
형식	五言古詩	6
	七言古詩	6
	五言絶句	2
	七言絶句	88
	五言律詩	108
	七言律詩	244
	六言詩	1
	排律	2

본고에서는 『십성당집』의 시 316제 457수에서 전체 비중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차운시, 송별시, 경물시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4.1. 次韻詩

漢詩에서 次韻詩는 남이 지은 시의 운자(韻字)를 가져와서 지은 시를 말한다. 엄흔의 『십성당집』 속에는 蘇世讓을 비롯하여 申光漢, 崔演, 林亨秀, 林億齡, 宋純, 嚴用順, 嚴曙, 龔用卿, 吳希孟, 董越 등 여러 문인들의 시를 차운한 작품과 함께 樓亭의 板上에 걸려 있는 시에 차운한 작품이 다수 실려 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세양 41수, 공용경 15수, 송순 12수, 신광한 7수, 오희맹 7수, 최연 6수, 임억령 4수, 엄용순 4수, 임형수 3수, 동월 1수, 엄서 1수이다. 그 외 樓亭의 板上 시에 차운하여 지은 4수가 있다.

1539년 2월과 5월 명나라에서는 사신단을 조선에 파견하였는데,⁷⁰⁾ 엄흔은 원접사 소세양의 종사관으로 활약하면서 많은 차운시를 남겼다. 이때 지어진 시가 『십성당집』의 차운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愛日堂 次蘇贊成韻>은 원접사 소세양이 崔應參⁷¹⁾의 愛日堂에 걸려있는 시를 차운한 시에 대하여 엄흔이 다시 韻字를 가져와 지은 작품인데, 당시 원접사 일행의 일상모습과 마음의 품은 바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양쪽 푸른 귀밑머리를 팔십 여일 머무르며 보니	八十留看兩鬢蒼
蓼莪를 일 수 없으니 羹牆을 사모하네.	蓼莪非復慕羹牆
老萊子の 옷과 毛義의 임명장 천년을 같이하고	萊衣毛檄同千載
참죽나무와 원추리떨기 한 집에서 함께 하네.	椿樹萱叢共一堂
그림자 짧아지는 桑榆 어찌 그리 궁박하고	景短桑榆何苦迫
진실로 깊어가는 세월 자주 어른을 욱보이네.	誠深日月屢添長
공을 의지하여 南陔曲으로 화답하여 마치고	憑公和罷南陔曲
문득 만 리가 넘는 호남의 하늘을 바라보네.	却望湖天萬里強 ⁷²⁾

위의 시는 부역으로 멀리 나가 있어 아버이를 봉양하지 못하고 부모가 죽은 뒤에 돌아와 그 슬픔을 읊은 『詩經』의 <小雅·小旻之什·蓼莪>⁷³⁾의 전고를 사용하였다.

70) 『中宗實錄』, 중종34년 2월 5일 및 5월 3일조 참조.

71) 崔應參 : 최응삼(생몰연대 미상)은 본관이 全州, 字는 春鄉, 號는 愛日堂이다. 斷指之孝를 하고 三年喪 이후 죽을 때까지 음악을 듣지 않고 농담을 하지 않았다고 전한다.

72) 엄흔, <愛日堂 次蘇贊成韻>, 『十省堂集』 下, 75쪽.

73) “蓼莪”는 부역으로 멀리 나가 있어 아버이를 봉양하지 못하고 死後에 돌아와 그 슬픔을 읊은 『詩經』, <小雅 小旻之什 蓼莪>을 가리킨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蓼蓼者莪, 匪莪伊蒿. 哀哀父

또한 “앞아 있으면 담장에 요임금이 보이고, 밥을 먹으면 국에 순임금이 보인다.”⁷⁴⁾라고 말한 『後漢書』 <李固傳>에 나오는 말을 가져와 시어를 삼고, 어머니를 매우 그리워하고 있는 마음을 점화하고 있다.

한편 楚나라의 효자 老萊子와 東漢의 효자 毛義의 전고 및 『詩經』에 제목만 남아 있는 <小雅·南陔曲>⁷⁵⁾을 가져와 예전에 斷指의 효도를 보여준 愛日堂 崔應參의 고향인 호남의 하늘을 바라보며 객지생활에 매여 부모님께 昏定晨省을 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었다. 엄흔은 이와 같이 종사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여정 가운데에서도 부모를 봉양하려는 마음을 애써 감추지 못하였다.

4.2. 送別詩

엄흔은 당시 林億齡, 閔齊仁, 趙士秀, 李天啓, 宋純, 權應昌, 沈連源, 李若海, 鄭彦懋, 李莫, 申澣, 具壽聃, 權應挺, 李弘幹, 尹豐亨, 鄭萬鐘, 洪愼, 金希說 등 여러 문인들과 시적으로 교류하였다. 그는 벼슬생활을 하면서 교우들이 현지로 부임하는 길에 헤어질 때나 고향에 있는 부모님을 歸覲하려 할 적에 이별시를 지어 송별하곤 하였다. 그 중 <送友人歸覲淸州>는 淸州에 있는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의 벗 宋純을 보내면서 지은 시이다.

남해에서 삼년 壽筵과 멀어져	南海三年隔壽筵
누가 채복입고 다시 너풀너풀 춤출 줄을 알았으랴.	誰知綵服再蹁躑
본연의 도는 곧으니 세상을 용납하기 어렵고	本緣道直難容世
홀로 일편단심 자료하며 하늘을 등지지 않네.	獨賴心丹不負天
아버지는 새로이 黃髮頌을 이루고	椿樹新成黃髮頌
어머니는 일찍이 素冠篇을 지었네.	萱堂曾賦素冠篇

母, 生我劬勞.(一章) 蓼蓼者莪, 匪莪伊蔚. 哀哀父母, 生我勞瘁.(二章) 餅之罄矣, 維罍之恥. 鮮民之生, 不如死之久矣. 無父何怙, 無母何恃. 出則銜恤, 入則靡至.(三章) 父兮生我, 母兮鞠我, 拊我畜我, 長我育我, 顧我復我, 出入腹我, 欲報之德, 昊天罔極.(四章) 南山烈烈, 飄風發發. 民莫不穀, 我獨何害.(五章) 南山律律, 飄風弗弗. 民莫不穀, 我獨不卒.(六章).”(『詩經』, 小雅 小旻之什, <蓼莪>.)

74) 엄흔은 『後漢書』 <李固傳>에 나오는 전고를 통하여 평상시에도 항상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坐則見堯於墻, 食則覩舜於羹.”(『後漢書』, <李固傳>.)

75) 남해곡(南陔曲) : 『詩經』 <小雅>에 제목만 있고 시가 없는 篇 이름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향기 좋은 난초를 캐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뜻의 노래이다. “循彼南陔, 言采其蘭. 眷戀庭闈, 心不違安.”(東皙, <補亡詩>. 『文選』.)

산언덕에서 술동이 속의 술로 獻酒를 마치니
 응당 깊은 정 있으나 서글픈 마음 배가 되네.

岡陵獻罷樽中酒
 應有深情倍慘然⁷⁶⁾

위의 시 수련은 “남해에서 삼년 壽筵과 떨어져 / 누가 채복입고 다시 너풀너풀 춤출 줄을 알았으랴. [南海三年隔壽筵, 誰知綵服再踟躕]”라고 하며 남해 임지에 있어 소홀했던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다시 할 수 있게 된 기쁨을 老萊子의 전고를 가져와 말하였다. 경련에서는 아버지를 위하여 『詩經』의 <魯頌·駟之什·閟宮> 9장 중 제4장의 <黃髮頌>⁷⁷⁾을 부르고, 어머니를 위해서는 『詩經』의 <檜風·素冠篇>⁷⁸⁾을 불러 드리라는 엄혼의 마음을 『詩經』의 전고를 통하여 송순에게 전달하였다. 미련은 『詩經』 <小雅·天保>의 임금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전고를 가져와 부모님의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하지만 임금의 은혜를 갚으려는 깊은 뜻은 오히려 부모님께 효도를 하지 못하는 슬픔을 배로 만들고 말았다.

엄혼은 고향을 떠나 정무를 보면서 오랫동안 부모님의 혼정신성을 살피드리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따라서 <送友人歸觀淸州>에서는 친구가 뜻하지 않는 기회로 고향으로 내려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기쁨을 내심 부러워하면서 자기대신 매일 혼정신성하는 효도를 다하라고 당부하기도 하였다.

4.3. 景物詩

엄혼이 자연경관이나 경물을 보고 읊은 경물시⁷⁹⁾에서는 세한의 절조와 평담의 세계

76) 엄혼, <送友人歸觀淸州>, 『十省堂集』 下, 51쪽.

77) 시의 제목 <黃髮頌>에서 “黃髮”은 노인의 흰머리가 다시 누렇게 되는 것은 곧 長壽의 조짐을 말한다. 따라서 부모의 장수를 기원하고 있는 <黃髮頌>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公車千乘, 朱英綠滕, 二矛重弓, 公徒三萬, 貝冑朱綬, 烝徒增增. 戎狄是膺, 荊舒是懲, 則莫我敢承, 俾爾昌而熾, 俾爾壽而富. 黃髮台背壽胥與試, 俾爾昌而大, 俾爾耆而艾, 萬有千歲, 眉壽無有害.”(『詩經』, 魯頌 駟之什 <閟宮> 九章 중 4章)

78) 檜風·素冠篇: 『詩經』 <素冠>은 사람들이 三年喪을 행하지 않는 것을 풍자한 시이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庶見素冠兮, 棘人變變兮, 勞心博博兮. 庶見素衣兮, 我心傷悲兮, 聊與子同歸兮. 庶見素韉兮, 我心蘊結兮, 聊與子如一兮.”(『詩經』, 檜風 <素冠>.)

79) 해동강서시파의 범주에 있는 시인들의 경물시에 대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朴聞은 좌절된 인생을 체념과 안분으로 초탈하여 虛無主義의인 색채를 강하게 내포하였다. 朴祥은 尾聯에서 慷慨하는 시인의 모습을 시 속에 회화적으로 끌어들이 강개의 미학이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었다. 鄭士龍은 경물을 요란하게 묘사하면서 그 이면에 정치적 좌절을 투영하여 寄託의 구조를 택하고 있다. 盧守愼은 고요한 분위기 속에 신선의 세계로 승천하는 맑은 목소리를 느낄 수 있다. 黃廷彥은 이와는 달리 웅장한 경물 자체에 자신의 울분을 발산하고 있다.(이종목, 『海東西詩派 研究』, 大學社, 1995, 373쪽 참조.)

가 엿보인다. <疾風知勁草>, <枯梧>, <種梅見花>, <庭梧>, <庭松> 등 여러 작품에서는 그가 사립다운 세한의 절조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弔梅>, <新竹>, <咏庭松>, <鳳凰臺>, <三月二十八日遊楮子江>, <題古岫庵> 등의 경물시에서는 16세기 館閣派의 정수로 알려진 鄭士龍, 盧守愼이 자연의 경물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해동강서시파의 면모를 반영⁸⁰⁾하고 있듯이 엄흔의 시 또한 평담의 세계를 이루려고 노력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밤에 中興寺에서 자고	夜宿中興寺
아침에 古岫庵으로 왔네.	朝來古岫庵
흰 구름은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白雲迷上下
푸른 산봉우리는 동남쪽을 싸안았네.	靑嶂擁東南
벽에는 수천 수백 부처	壁佛身千百
사는 중은 두세 명 뿐.	居僧數兩三
林泉이 한가로운 땅에 있으니	林泉有閑地
호젓한 바위 옆에 집을 지었네.	卜築近幽巖 ⁸¹⁾

<題古岫庵>은 서울 삼각산 白雲峯에 있는 中興寺와 古岫庵의 두 用事⁸²⁾를 가져와 시의 의미를 확대하여 지은 작품이다. 이 시는 선경후정의 서술방식으로 먼저 고수암의 주위 경관을 말한 후 다시 엄흔 자신의 속마음을 서술하였다.

흰 구름이 쉬고 있는 白雲峯 중턱에는 중흥사가 자리하고 동남쪽으로는 고수암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시에서 “白雲”은 못 백성을 가리키기도 하고, 고수암을 부지

80) 해동강서시파의 일원으로 宋詩와 唐詩를 함께 아우르면서 漢詩史의 족적을 남긴 “湖蘇芝”, “館閣三傑”로 일컬어지는 鄭士龍과 盧守愼, 黃廷或을 말한다. 이들은 호방한 자연을 묘사하여 유태주의에 입각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망망대해를 노래하거나 높은 곳에 올라 창작한 작품이 많으며, 모호한 전고를 사용하고, 새로운 시어를 창조하는 등 또렷한 개성을 드러내 소위 해동강서시파의 면모를 반영하고 있다.(강동석, 『朝鮮前期 自然觀과 그 變貌樣相에 관한 연구-館閣文人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 第38卷, 槿域漢文學會, 2014, 159쪽 참조.)

81) 엄흔, <題古岫庵>, 『十省堂集』 上, 40쪽.

82) 漢詩 作詩에서 用事に 대한 견해는 학자마다 다르다. 李奎報는 ‘載鬼盈車體’, 혹은 ‘拙盜易擒體’라고 하였고, 李仁老는 ‘點鬼簿’라고 하여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말하였다. 그러나 丁若鏞은 “시를 지을 때에는 반드시 用事を 위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걸핏하면 우리나라 시인들은 중국 故事만을 사용한다. 이 또한 비루한 성품 때문이다. 마땅히 『三國史記』·『高麗史』·『國朝寶鑑』·『東國輿地勝覽』·『懲愆錄』·『練藜室記述』 및 기타의 우리나라 문헌들에서 그 사실을 취하고, 그 지방을 고증하여 시에 쓰도록 하여야만 세상에 이름을 남기며 후세에 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여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丁若鏞, 『與猶堂全書』 卷21 <寄淵兒>.)

런히 오르고 내리는 시인 자신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고수암은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화평한 세상이 되어 그의 앞으로 한걸음 다가와 서 있었다.

“白雲”과 “靑嶂”은 색채대비에 의한 대우방식을 취하여 푸른 산을 흰 구름이 안고 있는 고수암의 운치를 더해 주었다. 또한 “千百”과 “兩三”의 수의 대우를 가져와 고수암의 한적한 분위기를 배로 증가하였다. 엄훈은 이처럼 고수암의 자연경관을 묘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경물에 이입하고 평담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5. 嚴昕의 시세계

5.1. 平澹의 세계와 歸去來

엄흔은 21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弘文館 正字에서부터 벼슬길을 시작하였다. 그는 직접적인 사화를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사회현실을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어려운 현실을 살았다.⁸³⁾ 게다가 젊은 나이에 원접사의 종사관이 되어 바쁜 정무와 함께 오랜 객지생활을 경험하였다. 그의 詩作은 정계 활동을 시작한 20대 초반부터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시에서는 불의한 현실을 인식하고⁸⁴⁾ 간혹 정치를 내려놓고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歸去來의 모습⁸⁵⁾을 엿볼 수 있는데, 귀거래에 대한 회구는 평담의 세계를 추구하려는 일면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엄흔의 시에서 평담의 세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귀거래의 회구로 귀착하는지 예시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三月二十八日 遊楮子江>에서는 엄흔이 평담의 세계를 구축하는 모습을 다음과 같이 보여주고 있다. 그가 종사관으로 의주에서 서울을 오가며 바쁜 정무에 시달릴 때 한강변에서 바라보이는 한적한 楮子江의 경관은 흡사 무릉도원처럼 보였다.

하나의 강이 두 갈래로 나뉘어
굽이굽이 마을을 안고 돌아가네.
이끼 낀 길 산을 따라 다하고

一江分兩派
曲曲抱村廻
苔逕緣山盡

83) 엄흔이 살았던 당시는 사림과 훈구와의 대립 속에 기묘사화가 일어났고, 그가 죽은 2년 후 을사사화가 일어났다. 1531년은 김안로에 의해 간신으로 몰려 辛卯三奸(沈貞, 李沆, 金克愐)이 처형되고, 1537년은 권력을 전횡하며 갖은 횡포를 부리다가 丁酉三凶(金安老, 許沆, 蔡無擇) 권신이 賜死되었다.

84) 엄흔이 불의한 현실을 인식한 모습에 대하여 권혁명은 그의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훈구파에 의해 독점되는 세계로 시비곡직이 난무하고, ‘風霜’과 ‘蠶蟻’와 ‘求啄鳥’ 등에 의해 오동나무가 말라 죽은 태평스럽지 못한 부정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재능을 갖추고 歲寒의 절조를 지키며 세상을 구제하는 것이었다.”(권혁명, 『十省堂 嚴昕의 詩世界』, 『東洋古典研究』 제49輯, 동양고전학회, 2012, 158쪽 참조.)

85) 엄흔이 귀거래를 회구하는 모습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와 비슷한 시대의 인물 중 朴祥의 귀거래관을 먼저 소개하여 보았다. 朴祥(1474~1530)은 陶淵明의 詩도 즐겨 읽어 그의 詩作 가운데는 “정치는 버렸지만 인생은 버리지 않는” 陶淵明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작품이 많다.(閔丙秀,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第1輯, 韓國漢文教育學會, 1986, 63쪽.) 그 가운데 朴祥의 마음을 드러낸 詩句는 다음과 같다. “부끄럽고 한스러운 것은 지금도 벼슬길에 있어 / 고향동산을 황폐하게 만들어 소요하는 일을 저버린 거다. [慙恨至今待斗米, 故園蕪絕負逍遙.]”(朴祥, <酬鄭翰林留別韻> 中.)

사립문은 강을 보며 열려 있네.
맑은 물가는 새만 보이고
깨끗한 모래 위 먼지가 없네.
다시 무릉도원 가까움을 깨닫고
꽃잎은 강물 따라 마을을 벗어나오네.

柴扉面水開
渚清唯見鳥
沙淨不生埃
更覺桃源近
浮花出巷來⁸⁶⁾

위의 시는 杜甫가 “맑은 강물은 한 굽이 마을을 안고 흘러가고 / 긴 여름날 강촌에는 일마다 한가롭네.”⁸⁷⁾라고 노래한 <江村>의 시를 가져와 점화하였다.

엄흔은 바람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아래 저자강의 어느 봄날의 모습을 “이끼 낀 길산을 따라 다하고 / 사립문은 강을 보며 열려 있네. [苔逕緣山盡, 柴扉面水開]”라고 하고, “맑은 물가는 새만 보이고 / 깨끗한 모래 위 먼지가 없네. [渚清唯見鳥, 沙淨不生埃]”라고 楮子江의 한가로운 풍경을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화창한 봄날에 자신을 꽃잎으로 승화시켜 멀리서 마을을 안고 두 갈래로 나뉘어져 흘러내려오는 강물 위에 몸을 의탁하였다. 시인의 눈에 바라보이는 한적하고 화평한 저자강의 자연경관은 도연명의 무릉도원인가 의심하기에 충분하였다. 이처럼 시 속에서 그는 평담의 세계를 구축하고 바쁜 정무를 잠시 내려놓고 쉬고 싶은 마음을 귀거래를 통하여 희구하였다.

이와 같은 엄흔 시의 평담의 세계는 <題大樹所藏石慶畫八幅>에서 여덟 폭의 題畫詩를 통하여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題大樹所藏石慶畫八幅> 其五는 징경이가 다정하게 쉬고 있는 ‘모래톱 섬’을 귀거래로 제시하고, 봄날 징경이가 다정하게 쉬고 있는 화평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침에는 모래톱 섬 동쪽에 저녁에는 서쪽에 있으니
함께 날아와 물에 젖고 다시 함께 쉬고 있네.
인간은 이별에 얼마나 알지
강가의 징경이 한번 보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네.

朝在洲東暮在西
雙飛雙浴復雙棲
人間離別知多少
一見河鳩不勝悽⁸⁸⁾

- 雉鳩 -

위의 작품은 임억령이 소장하고 있는 여덟 폭의 병풍에 폭마다 표제를 달아 칠언절

86) 엄흔, <三月二十八日 遊楮子江>, 『十省堂集』 上, 49쪽.

87) “清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杜少陵詩集』 卷9 <江村>.)

88) 엄흔, <題大樹所藏石慶畫八幅>, 『十省堂集』 上, 90쪽.

구의 형식을 빌려 지었는데, 그 중 다섯 번째로 나오는 시이다. 이 시 전체를 감상하고 있으면, 마치 여덟 폭의 병풍을 마주하여 바라보고 있는 듯 폭마다 다른 이미지의 평담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其五 <睢鳩>에서 모래톱 섬 주위로 다정하게 놀고 있는 징경이의 모습은 엄혼에게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이 헤어지고 만나가를 생각하게 하고, 서로 이별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며 슬프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그는 “인간은 이별에 얼마나 알지 / 함께 날아와 물에 젖고 다시 함께 쉬고 있네. [人間離別知多少, 雙飛雙浴復雙棲]”라고 하면서 징경이가 다정하게 쉬고 있는 정경을 통하여 담담한 마음으로 세상사를 바라보며 평담의 세계를 구축하였다.

한편 엄혼의 시에서는 귀거래를 회구하는 모습을 여러 작품에서 엿볼 수 있다.⁸⁹⁾ 그가 술을 경계하면서 지은 <戒酒>에서는 “천 년 전 도연명과 나와 너는 / 훗날 지하에서 같이 소요하며 자적하리라.”⁹⁰⁾고 하였다. 또한 그는 귀거래를 지향하면서 시마다 歸去來處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 節에서 논의한 <題古岫庵>에서는 임천이 한가로운 ‘고수암’을 제시하였고, <三月二十八日 遊楮子江>에서는 꽃잎이 강물에 떠서 마을을 벗어나오는 ‘저자강’을 題詩 <題大樹所藏石慶畫八幅> 其五에서는 징경이가 다정하게 쉬고 있는 ‘모래톱 섬’을 분명하게 제시하여 보여주었다. 아래 <歸村家>는 정자를 세워놓고 청풍명월과 함께하고 싶은 ‘고향집’을 귀거래처를 삼고, 엄혼은 담담하게 인생의 부침과 정사의 출처를 관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썩대가지로 오래전에 강가에 집을 짓고 고목 천 그루와 두어 서까래로 지붕을 덮었네. 일을 그만두고 새로 지은 집에서 밭을 가니 마음을 일찍이 나라에 허락하여 괜히 하늘만 근심하네. 헤아려보니 이해득실 모두 몸에서 벗어나고 바라다보니 인생의 浮沈 눈앞에 있네. 나는 강에서 낚시하고 산에서 나물 캐는 일 좋으니 정자에서 청풍명월과 해마다 보내리라.	蕭條舊築寄江邊 古木千章屋數椽 業已耕田新卜地 心曾許國謾憂天 算來得失皆身外 看去升沈在眼前 釣水採山吾事足 一亭風月送年年 ⁹¹⁾
--	---

89) 본고에서 분석한 엄혼의 귀거래 회구는 “桃源”, “松菊久荒”, “菊徑”, “元亮徑”, “淵明徑”, “歸來”, “一官”, “莫停杯” 등 구체적인 시어를 제시하여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작품의 수는 25여 수에 이른다.

90) “千載淵明吾與爾, 他年地下共徜徉.”(엄혼, <戒酒>, 『十省堂集』 下, 3쪽.)

91) 엄혼, <歸村家>, 『十省堂集』 下, 15쪽.

위의 시는 엄흔이 고향집으로 돌아와 전원에서 일상생활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⁹²⁾ 그는 전원을 통한 이상의 세계로 무릉도원에서의 생활을 “쑤대가지로 오래전에 강가에 집을 짓고 [蕭條舊築寄江邊]”라고 하고, 이어서 “나는 강에서 낚시하고 산에서 나물 캐는 일 좋으니 [釣水採山吾事足]”라고하며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였다. 그는 귀거래의 전원생활과 현실의 일에서 갈등하면서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 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일을 그만두고 새로 지은 집에서 밭을 갈려고 하나 / 마음을 일찍이 나라에 허락하여 괜히 하늘만 근심하네. [業已耕田新卜地, 心曾許國謾憂天]”라고 하였고, 끝내 “헤아려보니 이해득실 모두 몸에서 벗어나고 / 바라다보니 인생의 浮沈 눈앞에 있네. [算來得失皆身外, 看去升沈在眼前]”라고하며 일상의 생활을 벗어나 전원생활을 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엄흔은 이처럼 귀거래를 회구하고 화평한 세계를 구축하려는 전원생활을 구체적으로 말하였는데, 그가 귀거래를 회구하는 모습은 일상생활에서도 엿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秋日 示友人>에서는 평소 친구로 여기는 宋純과 헤어진 후 슬픔을 달래려고 귀거래를 회구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밤비는 끝없이 送客의 마음 슬프게 하는데	夜雨無端送客悲
찬 빗소리 어지러이 들려와 창문 몰래 알았네.	寒聲亂報暗窓知
丹心이 천지에 쓸쓸해지는 날	心丹天地蕭騷日
白髮이 강산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때이라.	鬢白江山搖落時
오래도록 황폐한 소나무와 국화는 陶淵明의 오솔길	松菊久荒元亮徑
헛되이 음미하는 난초와 향초는 屈原의 辭네.	蘭荃空味屈平辭
내일 아침은 당연히 서글프리니	明朝氣色應悵悵
다시 누가 내 시에 화답할 이 있을까.	更何何人和我詩 ⁹³⁾

위의 시는 唐나라 李商隱의 <夜雨寄北>의 전고를 가져와 엄흔이 정다운 친구로 여기는 宋純을 비오는 가을날 별 뜻 없이 보내 놓고, 헤어진 뒤의 슬픈 마음을 귀거래

92) 엄흔이 전원생활을 동경하는 마음은 다음의 시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가슴속에 이미 돌아가려는 꾀를 정하였으니 / 지난날 君平이 풀어준 의심을 마라. [胸中已定歸來策, 莫向君平更決疑.]” (엄흔, <次友人增韻>, 『十省堂集』 下, 49쪽.) 및 “잠깐 때를 얻고 잃음은 운명에 관련됨이 아니니 / 우리가 지난날 礪溪에서 만났더라도 낚시 드리웠겠지. [暫時得失非關命, 但向礪溪直我鉤.]” (엄흔, <贈友人旅遊湖西>, 『十省堂集』 下, 49쪽.)

93) 엄흔, <秋日 示友人>, 『十省堂集』 下, 91쪽.

를 통하여 달래주고 있다.

엄혼은 가을날에 친구를 보내는 슬픔을 자연의 경관에 비추어 “단심이 천지에 쓸쓸해지는 날 / 백발이 강산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때이라. [心丹天地蕭騷日, 鬢白江山搖落時]”라고 하였다. 그리고 정다운 친구와 헤어지는 쓸쓸한 마음을 “밤비는 끝없이 送客의 마음 슬프게 하는데 / 찬 빗소리 어지러이 들려와 창문 몰래 알았네. [夜雨無端送客悲, 寒聲亂報暗窓知]”라고 하여 숨기려고 하였으나 숨길 수 없음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슬픔은 멀리 있는 고향 언덕 황폐한 소나무와 국화는 <歸去來辭>의 “오슬길”로 난초와 향초는 <離騷經>의 “辭”인양 착각하게 만들었다. 이 때문에 “오래도록 황폐한 소나무와 국화는 陶淵明의 오슬길 / 헛되이 음미하는 난초와 향초는 屈原의 辭네. [松菊久荒元亮徑, 蘭荃空味屈平辭]”라고 하였다. 그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친구와 헤어진 후 밀려오는 슬픔을 달래려고 귀거래를 회구하였다.

한편 엄혼은 귀거래를 역사 속 隱士의 전고⁹⁴⁾를 가져와 보여주고 있다. <送種放還山>은 여러 隱士들의 전고를 통하여 그가 바쁜 정무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다.

선생의 출처는 巢父와 許由를 겸하였고
지조와 절개는 頑夫를 청렴하게 하였네.
옛날 종남산에서 배불리 먹고 숨어 살 때
조서로 은근히 몇 번이나 안부를 물었던가.
하룻밤 사이에 客星이 임금의 자리를 범하였으나
같은 조정에서 모심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네.
평소 일이 없을 때에는 간쟁하는 일이 괴로우나
갑작스런 고관대작도 본성은 아니라네.
홀쩍 옷을 털고 황제의 성을 떠나니
華山의 원숭이와 학이 다투어 맞아주네.
希夷의 雲臺觀 속에 들꽃이 향기롭고
옥녀의 화분 아래 가을바람은 서늘하네.

先生出處巢許兼
志節可使頑夫廉
終南昔日飽嘉遯
詔書慙幾存問
一夜客星犯帝座
得侍同朝欣共賀
時平無事苦諫諍
儻來軒冕非所性
翩然拂衣辭帝城
華山猿鶴爭相迎
希夷觀裏野花香
玉女盆下秋風涼

94) 엄혼의 시에서는 江西詩派의 특징인 典故와 故事가 자주 등장한다. 이는 “黃廷彧의 시의 표현이 전고를 많이 사용하여 궁벽하다.”(김중서, 『芝川黃廷彧의 삶과 詩』, 『韓國漢詩研究』, 韓國漢詩學會, 2012, 266쪽.)는 평을 받는 것과 일맥 통하고 있다. 또한 “朴祥의 시는 故事와 典故를 능숙하게 운용하고 있어 初心者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閔丙秀,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第1輯, 韓國漢文教育學會, 1986, 63쪽.)라고 한 평가와 같다.

천지를 소요하며 마음대로 한적하니	逍遙天地任閑適
物外에 무엇이 번거로워 다시 그렇게 바쁘는가.	物外何煩更忙劇
죽어서 그대와 맺은 오랜 약속을 알 것이니	去去知君契宿約
충심만 쇠약할 뿐 아니라 정의도 얇았네.	不是忠衰情義薄
하물며 지금 임금은 高逸之士를 권면하는데	況今聖明礪高逸
폐백이 쌓인 巖穴之士를 예우하려 하겠는가.	束帛淺禮巖穴
雲煙처럼 쉬이 늙어가는 빠른 세월을 잡으려고 마라	休將白駒老雲煙
나는 그대를 보내고 <귀거래사>를 읽노라.	送子爲讀歸來篇 ⁹⁵⁾

위의 시는 역사 속의 隱士 種放의 전고⁹⁶⁾를 현실의 詩 속으로 가져와 種放이 산으로 돌아갈 때 송별하며 지은 排律詩이다. 엄혼은 이 시에서 여러 隱者나 隱士들을 통하여 담담한 마음으로 전원생활의 동경을 말하고 있다.

엄혼은 위의 시 전반부에서 隱士 巢父와 許由의 전고를 가져와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요임금은 巢父와 許由에게 천하를 넘겨주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받아주지 않았다. 이어 北宋 때 종남산에서 은거한 種放의 전고를 가져오고, 또 東漢의 은사 嚴子陵이 친구인 光武帝와 함께 누워 잘 적에 그만 광무제의 배 위에 발을 올려놓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이를 본 太史가 “客星이 御座를 침범하였다.⁹⁷⁾”라고 보고하였다는 전고를 가져왔다. 이어 陶淵明이 彭澤令의 벼슬을 내팽개치고 歸去來하는 전고를 가져와 엄혼 자신의 마음을 투영시키고 있다.

후반부는 40여 년 동안 華山의 雲臺觀에서 은거하면서 한번 잠을 자면 100여 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는 宋나라 때의 은사 希夷先生의 전고⁹⁸⁾를 가져오고, 이어 華山의 정상 玉女盆에서 머리를 감던 明星玉女의 전고⁹⁹⁾를 가져왔다. 그리고 『莊子』 <逍遙遊>의 主旨를 가져와 세상의 준칙에 얽매이지 않고 物外와 無爲에 멋대로 소요하는 물외의 선비, 곧 은사의 거처를 가져와 말하였다.

엄혼은 어지러운 정치현실을 개의치 않고 산으로 돌아가는 충방을 보내면서 “하물며 지금 임금은 高逸之士를 권면하는데 / 폐백이 쌓인 巖穴之士를 예우하려 하겠는가.

95) 엄혼, <送種放還山>, 『十省堂集』 上, 22쪽.

96) 種放의 전고 : 宋 眞宗이 30년 동안이나 은거 생활을 한 種放을 여러 번 불러 벼슬을 주었으나 그때마다 충방이 사양하고 다시 은거하자 畫工을 시켜 그의 處所를 그려 올리게 한 전고를 말한다.(『宋史』 卷457 <種放傳>.)

97) 『後漢書』 卷83 <逸民列傳·嚴光>.

98) 『宋史』 卷457 <隱逸列傳上·陳搏>.

99) 『太平廣記』 卷59 <集仙錄>.

[況今聖明礪高逸，束帛淺淺禮巖穴]”라고 충방을 겉으로는 위로하고 있으나, “雲煙처럼 쉬이 늙어가는 빠른 세월을 잡으려고 마라 / 나는 그대를 보내고 <귀거래사>를 읽노라. [休將白駒老雲煙，送子爲讀歸來篇]”고 하면서 안으로는 자신의 아쉬운 마음을 달래려 陶淵明의 <歸去來辭>를 읽겠다고 하였다.

엄혼은 이와 같이 어느 날 种放이 관직을 내려놓고 홀쩍 황제의 성을 떠나 華山으로 돌아가면, 그를 반겨주는 원숭이와 학이 있겠지만 임금은 巖穴의 선비같은 충방을 예우하지 않으리라고 하면서도 그는 바쁜 일상에서 쉬고 싶은 歸去來의 마음을 시를 통하여 독자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지금까지 엄혼의 시에서 나타나는 평담의 세계와 귀거래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는 <三月二十八日 遊楮子江>·<題大樹所藏石慶畫八幅>에서 화평하고 평담한 세계를 보여주었다. 이어 <歸村家>·<秋日 示友人>·<送种放還山>에서는 歸去來의 希求가 불의한 현실과 바쁜 정무 속에서 전원생활을 동경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가 시에서 평담의 세계를 구축하고 귀거래를 희구하는 노력이 <題大樹所藏石慶畫八幅>에서 완성한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엄혼의 시에서 보여주는 歸去來의 希求는 그가 결코 불의한 현실을 좌절한 체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5.2. 海東江西詩派 시의 範疇

엄혼의 시는 형식적인 측면에서 宋代 江西詩派의 영향을 받아 16세기 漢詩史의 중심 詩派를 이룬 海東강서시파 시의 拗體와 奇字의 단련, 시어의 확장, 시의 산문화 등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海東강서시파는 宋代 강서시파가 杜甫의 시에서 拗體를 지적하는 것처럼 율격적인 면에서의 요체를 중요시하고 있다.¹⁰⁰⁾ 요체는 근체시의 평측 배열에 있어서 평성이 들어야 할 자리에 측성이 자리하거나, 측성의 자리에 평성이 자리하여 시의 참신성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그 중 가장 많이 구사되는 요체의 한 형태는 율시에서 각 聯 상구의 제5자(오언에서는 제3자) 평성의 자리에 측성을 두거나, 하구의 제5자(오언에서는 제3자) 측성의 자리에 평성을 두어 서로 평측 배열을 어긋나게 하는 방법¹⁰¹⁾을 말한다.

100) 이종목, 『海東江西詩派研究』, 太學社, 1995, 363쪽 참조.

101) 拗體는 근체시의 ~ 拗하는 방법 : 엄찬영, 『嚴昕의 詩에서 나타나는 海東江西詩派의 특징』, 『韓國詩歌文化研究』 第40輯, 2017, 124쪽 참조.

좋은 계절 삼진날 하늘가에서
문득 고향의 桃花水 단술 생각나네.
눈에 선한 환락 이미 다 사라져가니
여행 속에 회포를 어찌 오래 견디랴.
남은 찻잔으로 밀려오는 졸음 자주 깨우고
술이 있을지라도 憂愁는 이기지 못하겠네.
눈을 다하여 긴 강가 꽃다운 풀빛 바라보며
강남과 강북의 봄 마음을 보네.

天邊佳節三月三
忽憶故園花水酣
眼中歡樂已全少
客裏情懷寧久堪
空餘茶碗睡頻破
縱有酒兵愁未戡
極目長洲芳草色
春心江北與江南¹⁰²⁾

<三月三日 次申宣慰韻>은 원래 두 수로 이루어졌는데, 위의 시는 평성운자 30자 중 하평성 13번째 ‘覃’의 운자를 사용하여 지은 申光漢의 시 <三月三日>¹⁰³⁾에서 차운하여 지은 앞의 시이다. 엄흔은 이 시를 통하여 떠나면 객지에서 삼진날을 맞이하고 고향에 가지 못하는 鄉愁를 노래하였다.

근체시 칠언율시에서는 일반적으로 함련과 미련의 상구 제5자가 평성의 자리이다. 그러나 <三月三日 次申宣慰韻>의 앞 시에서 함련의 상구 제5자 평성의 자리에 측성의 ‘巳’자를 사용하여 拗體와 함께 助辭를 사용한 奇字의 단련이 나타나고 있다.¹⁰⁴⁾

宋代 강서시파는 黃庭堅의 “以俗爲我”, “點鐵成金”의 이론을 詩作에 응용하여 지명이나 산 이름 등의 고유명사를 시어로 가져온다거나 전고를 사용하여 시어를 확장하고, 『詩經』, 『書經』에 나오는 말이나 다른 시인의 시구를 가져와 점화한 詩作의 형태를 보여준다. 엄흔의 시에서는 이와 같은 黃庭堅의 詩作의 이론을 응용하여 우리나라의 지명, 인명, 산과 강 이름 등 고유명사를 시어로 가져와 시어를 확대하여 의경의 참신성을 보여주고 있다.

龍灣과 燕山의 달은 멀지 않는데
鶴野에서 압록강은 봄을 멀리서 이었네.
여기서 떠나가면 그대는 다시 멀다고 말하지 말라

龍灣不隔燕山月
鶴野遙連鴨水春
此去莫言君更迤

102) 엄흔, <三月三日 次申宣慰韻>, 『十省堂集』 下, 67쪽.

103) 한국문집총간 『企齋集』에 실려 있는 申光漢의 <三月三日>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清明寒食又三三, 佳節相仍客與酣. 老子風流元不淺, 諸公鋒穎儘難堪. 江山好處詩爲壘, 罇酒開時戰必戡. 可笑蹇跚空殿後, 醉聞飛旆渡江南.”(申光漢, <三月三日>, 『企齋集』 卷6 한국문집총간 제22집, 457쪽.)

104) <三月三日 次申宣慰韻>은 원래 ~ 나타나고 있다 : 엄찬영, 『嚴昕의 詩에서 나타나는 海東江西詩派의 특징』, 『韓國詩歌文化研究』 第40輯, 2017, 126쪽 참조.

아직 돌아갈 수 없는 몸이나 하늘가에서 함께하니.

天涯同是未還身¹⁰⁵⁾

<寄贈進賀使洪重叔 次蘇贊成韻>은 우리나라의 지명, 인명, 산과 강 이름 등 고유 명사를 시어로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고 시의 의미까지 큰 변화를 주었다. 수련은 “타향에서 게다가 이별하는 사람 되었고 / 비는 관서지방 길가의 먼지 적시네. [他鄉又作別離人, 雨濕關西路上塵]”라고 하여 지명 ‘關西’를 시어로 가져와 친구와 멀리 떨어져 소식을 주고받을 수 없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경련은 ‘龍灣’과 ‘燕山’, ‘鶴野’와 ‘鴨綠江’의 지명과 산과 강 이름을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의 의미까지 확대하였다.

해동강서시파는 이처럼 黃庭堅의 ‘以俗爲我’의 논리를 詩作에 응용하여 시어를 확장하여 경물의 묘사를 웅장하게 하고 참신한 의경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한편 엄흔이 시에서 시어를 확장하는 모습은 해동강서시파처럼 『詩經』과 『書經』의 전고나 말을 가져와 시어로 삼기도 하였지만, 『論語』나 『孟子』의 말을 가져와 시의 의미를 확대하였는데, 그의 絶句詩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봄바람 부는 날 손꼽아 보니 오십 남짓
매화 꽃 처음 필 때 버들가지도 드리웠지.
의리상 술자리를 파하지 못하고 노닐며
詩翁이 녹취하는 일을 대신하여 알려주네.

屈指東風餘五十
梅心初綻柳枝垂
北門不鎖遊人路
報與詩翁取次知¹⁰⁶⁾

<呈大樹>는 宋나라 韓琦가 北門에 있을 때 동료들과 술자리를 벌인 전고를 가져와 七言絶句의 형식을 빌려 엄흔이 봄날을 보내면서 임억령에게 보내준 시이다. 임억령과 헤어져 지내는 그에게 봄날은 훌쩍 지나갔다. “매화꽃 처음 필 때 버들가지도 드리웠지. [梅心初綻柳枝垂]”라고 하며 ‘매화’와 ‘버들가지’를 자신과 임억령으로 비유하며 서로 같이 지내려는 마음을 말하였다. “의리상 술자리를 파하지 못하고 노닐며 / 詩翁이 녹취하는 일을 대신하여 알려주네. [北門不鎖遊人路, 報與詩翁取次知]”에서는 宋나라 韓琦의 전고 및 詩翁 梅堯臣의 전고¹⁰⁷⁾를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였다. 한편 『孟

105) 엄흔, <寄贈進賀使洪重叔 次蘇贊成韻>, 『十省堂集』 下, 74쪽.

106) 엄흔, <呈大樹>, 『十省堂集』 上, 96쪽.

107) 詩翁 梅堯臣의 전고 : 宋 仁宗 연간에 歐陽脩가 문풍의 폐단을 혁신하려는 포부를 품고 시관으로 과시를 주관하고 梅堯臣 역시 參詳官으로 시관의 자리에 참여했던 고사를 말한다.

子』에 나오는 “인은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¹⁰⁸⁾는 말을 가져와 시어를 확장하여 시의 의미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해동강서시과는 강서시과가 唐詩에 비하여 시인의 개인생활과 더욱 가까운 내용으로 산문적인 시를 지향했던 것처럼 시에서 句法의 변화를 가져와 시의 산문화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시의 산문화는 엄혼이 당시 崔演과 교류하면서 지은 시를 살펴보면 일상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작은 일까지 시로써 노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달은 덕이 높은 선비와 같이 고상하여	高月如高士
출처의 마음을 겸하였네.	兼存出處心
잠시 흩어졌다 모이는 구름으로 인해	暫因雲聚散
세상의 浮沈을 배우네.	能學世浮沈
외로운 달 숨음을 한스러워 마라	不恨孤輪隱
온 나라가 어두움을 근심할 뿐이니.	惟愁萬國陰
마당 가운데 홀로 서니	中庭成獨立
애통함이 다시 깊어지네.	惆悵到更深 ¹⁰⁹⁾

<雲月 示演之> 2수 중 앞의 시이다. 일반적으로 근체시 五言詩에서는 2-3 또는 3-2의 구법인데, 엄혼은 수련에서 1-4의 구법을 구사하여 시의 산문화를 시도하였다. “달은 높은 덕을 지닌 선비처럼 고상하여 / 출처의 마음을 겸하였네. [高月如高士, 兼存出處心]”라고 하며 달은 출처하는 삶을 알아 어지러운 세상에서는 구름 속에 숨고, 태평성대가 되면 구름 속에서 나와 천하를 밝게 비춘다고 하였다. 함련은 바람에 흩어지고 모이는 구름이 세상과 같다고 하였다. 이처럼 <雲月 示演之>은 시의 내용상 인간의 희노애락과 자신의 삶의 지향을 자연현상에서 오는 일상적인 이야기를 시의 소재로 삼아 시의 산문화를 이루고 있다. 한편 형식상 수련에서처럼 근체시의 五言詩 2-3/3-2의 구법을 1-4의 구법으로 변화하여 시를 산문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 논의를 종합하여보면 엄혼의 시세계는 주제면에서 평담의 세계를 추구하는 가운데 귀거래를 희구하고, 형식면에서는 해동강서시과 시의 범주에서 拗體와 奇字의 단련, 시어의 확장, 시의 산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08) “仁, 人心也. 義, 人路也.”(『孟子』, <告子 上>.)

109) 엄혼, <雲月示演之>, 『十省堂集』 上, 33쪽.

6. 맺음말

『十省堂集』의 저자 엄흔은 中宗 때 문신이다. 그는 일찍부터 사림의 삶을 확고하게 하려고, 敬의 학문에 입각한 十省으로 일관하는 생애를 自號 ‘十省堂’에서 보여주었다. 엄흔은 당시 사림의 도덕적 정치 아래에서 曾子の 三省을 본뜬 十省의 삶으로 仁의 핵심인 忠恕를 체득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남이 한번 하면 자신은 백 번 하였다고 말한 曾子の 삶의 모습은 그에게 있어 사림으로서 도학의 삶을 시종여일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는 좋은 본보기였다.

엄흔이 살다간 16세기 韓國漢詩史는 蘇軾의 획일적인 시풍에서 벗어나려고, 黃庭堅을 詩宗으로 하는 陳師道, 陳與義 등 江西詩派의 시를 배우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朴聞, 李荇, 鄭士龍, 黃廷彥 등을 詩群으로 하는 海東江西詩派가 주류를 이루었다. 엄흔의 시 또한 海東강서시파 시의 특징을 공유하였는데, 拗體와 奇字의 단련, 시어의 확장, 시의 산문화 등을 대표적인 항목으로 꼽을 수 있었다. 한편 엄흔 시는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주제도 아름다운 자연이나 景物을 통해 平澹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거나 불의한 현실과 바쁜 政務 속에서 歸去來를 希求하는 것으로 요약되었다. 그런데 그의 시에서는 평담의 세계를 추구하는 노력이 귀거래의 회구로 귀착되고, 한편으로는 귀거래를 회구하면서 평담의 세계를 구축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 엄흔의 삶의 인간됨과 『十省堂集』의 시세계를 종합하여 볼 때, 엄흔은 한국한 시사에서 위치와 海東강서시파의 범주에서 재조명되어야 한다는 논지는 타당하다. 그가 우리들에게 示唆한 敬의 學問에 기초한 十省의 생활을 일관하며 사림으로서 도학자다운 삶을 이루려고 노력한 모습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反求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역자는 본고의 『十省堂集』 국역연구가 초역으로 엄흔이 그의 시에 가져온 典故와 用事를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였거나 미처 밝히지 못하여 상당수 誤譯한 국역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그러나 엄흔이 한국한시사에서나 海東강서시파 범주에 있어서 굳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본고를 발판으로 하여 賢哲博識한 在野君子들의 더 많은 玉稿를 기대해 본다.

II. 『十省堂集』 國譯

1. 『십성당집』 상

[『十省堂集』 上]

○ 부

[賦]

· 필간에 관한 부(110)

[筆諫賦]

납약(納約)을 하되 통한 곳으로부터 해야 하니 ¹¹¹⁾	惟納約之自牖兮
간언은 진실로 기미(幾微)가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네.	諫固貴於有幾
진실로 유사함에 가탁(假託)하여 올바르게 좋은 길로 이끈다면	苟托類而善導兮
허물을 고치고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네. ¹¹²⁾	可繩愆而格非
외면의 잡기를 누르고 내면을 경계하면	槩外技而警內兮
마치 사람이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아름답네.	美若人之蠹忠

110) 필간에 관한 부 : 筆諫은 서법에서 붓을 운용하는 도리를 빌어 勸諫하는 일을 말한다. “穆宗이 정치가 편벽되었는데, 한번은 公權에게 ‘서법은 어떻게 하면 더없이 좋아지는가?’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붓을 쓰는 것은 마음에 달려 있으니, 마음이 바르면 필체가 바르게 된다.’고 하니, 목종이 얼굴빛을 고치고 그것이 간언인줄 알았다.” 하였다.(『舊唐書』, <柳公權傳>.) ‘賦’는 한문문체의 하나이다. ‘賦’는 본래 『詩經』의 표현방법의 하나로서, 작자의 생각이나 눈앞의 경치 같은 것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는 것을 말한다.

111) 납약(納約)을 하되 ~ 해야 하니 : 임금에게 나아가 말을 함에 있어서 임금이 잘 아는 것부터 말하여 임금을 깨우쳐 주는 것을 말한다. “맺음을 들이되 통한 곳으로부터 하면 끝내 허물이 없을 것이다. [納約自牖, 終无咎]” 하였는데, 이에 대해 傳에서는 “‘納約’은 임금에게 나아가 맺는 도를 말하고, ‘牖’는 ‘開通’의 뜻이다. 사람의 마음은 가려진 바가 있고 통한 바가 있는데, 가려진 바는 어두운 곳이고 통한 바는 밝게 아는 곳이다. 그러니 임금이 밝게 아는 곳에 나아가 아뢰어서 임금이 믿기를 구하면 쉽게 깨우칠 수 있다. [納約, 謂進結於君之道, 牖, 開通之義. 人心有所蔽有所通, 所蔽者 暗處也, 所通者 明處也. 當就其明處而告之, 求信則易也.]” 고 하였다.(『周易』, 坎卦 六四 爻辭 및 傳言.)

112) 허물을 고치고 ~ 수 있네 : 穆王이 伯冏에게 말하였다. “나는 어질지 못하니, 진실로 좌우전후에 있는 선비들이 그 미치지 못함을 보좌하며, 허물을 곧게 하고 그릇됨을 바르게 하여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아 선대의 공을 잇고자한다. [惟予一人無良, 實賴左右前後有位之士, 匡其不及, 繩愆糾謬, 格其非心, 俾克紹先烈.]”(『書經』, <周書·命命>.)

이에 한마디 말에서 신임을 받으면
 임금의 마음을 선으로 채우게 할 수 있네.
 돌아보건대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니
 실로 모든 일을 검속(檢束)하네.¹¹³⁾
 이 예능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마음을 보존하는 것에서부터 확충하네.
 만일 내면을 잘 간직하여 정도를 얻는다면
 획을 긋는데 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라.
 필적을 바르게 하려는 마음을 알고자 하는데
 어찌 스스로를 삼가하고 돌아보지 않는가.
 잡고 쓰는 것이 거칠고 정밀하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곧고 굽음으로 나타나네.
 저 재주 하나도 잘 다스리는 것도
 오히려 스스로 터득하는 기술이 있는데
 하물며 임금의 한 마음에서
 스스로 끝없이 변화가 나오는 일에 있어서야.
 진실로 조존(操存)¹¹⁴⁾의 사이에서 정도(正道)를 잃으면
 어떻게 아름다운 정치를 이룰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저 어두운 자는 망각하여
 일찍이 가까운데 두고서 구하지 않는가.
 한갓 부딪친 곳에서 발생하는 것만 물으니
 우매하게도 이것을 들고서 저것을 본받네.
 아! 선생¹¹⁵⁾은 바른 도(道)를 잡아
 일찍부터 마음을 서예에 노닐게 하였네.

爰取信於片言兮
 俾君心以善充
 顧方寸之至微兮
 實萬事之攸攝
 斯藝能之發外兮
 自存中而乃擴
 儻內持之得正兮
 孰少差於施畫
 知欲正乎筆跡
 盍反觀乎自飭
 由乘用之麤精兮
 心乃見其曲直
 彼一藝之善治兮
 猶自得之有術
 矧人主之一心兮
 寔萬化之所自
 苟操存之失正兮
 詎美治之能致
 胡彼昏之罔覺兮
 曾莫求乎在邇
 問徒發於所觸兮
 昧提此而準彼
 懿先生之秉正兮
 夙游心於書藝

113) 검속(檢束)하네 : 임금을 대할 때의 예절은 곧 위의 있는 행실을 가지고 벗을 사귀는 도리처럼 하여야함을 말한 것이다. 『詩經』 <生民之什·既醉 8章>에서는 “봉우가 단속해 주었나니 / 위의 로써 단속해 주었네. [朋友攸攝, 攝以威儀.]”라고 하였다.
 114) 조존(操存) : “操存”은 ‘操則存’의 준말로, 마음을 다스려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 “孔子曰：操則存，舍則亡，出入無時，莫知其鄉，惟心之謂與。”(『孟子』, <告子 上>.)
 115) 선생(先生) : 穆宗에게 筆諫한 柳公權(778~865)을 가리킨다. 柳公權은 穆宗·景宗·文宗 3대에 걸쳐 奉職한 名臣으로 처음에는 王羲之體를 배웠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當代의 필법을 두루 섭렵하여 우아한 자형과 강건한 필세로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표작으로 <神策軍碑>, <玄秘塔碑> 등이 있다.

직언하는 계책을 받들어 마음에 심고
 쉽게 얹으로 훈계를 극진히 하였네.
 성정(誠正)¹¹⁶의 한 단서를 심문(審問)하여
 바른 붓에 깊은 깨달음을 가탁(假託)하네.
 이 잠규가 몸에 가깝고 간절하니
 저 마음에 감화하고 깨달음이 이처럼 빠르네.
 이에 묵묵히 생각하는 데에서 스스로 알아
 거의 정도 나아가 마음을 바로잡아 중도에 부합하네.
 아! 시작이 있고 끝이 없다면
 무용(無用)한데에 바른 말을 두었구나!
 삼가 천 억년까지 경계를 남기니
 임금에게 명감(明鑑)¹¹⁷을 밝게 하네.

奉訐謨而植內兮
 因易曉而致誠
 叩誠正之一端兮
 寓深喻於正筆
 此規箴之近切兮
 彼感悟之斯速
 爰自會於默思兮
 庶就正而協中
 嗟有始而無終兮
 置格言於無用
 祇貽誠於千億兮
 昭明鑑於人牧

다시 말하다.

重曰

간언(諫言)의 고귀함은 기미(幾微)에 있으니
 기미가 아니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비유를 끌어다가 지극하게 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네.
 나의 붓이 바르면
 저절로 마음도 바르네.
 나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이에 붓도 바르지 못하네.
 마음속에 있으면 밖으로 드러나니
 아! 공경하지 않겠는가.

諫貴有幾
 非幾奚益
 引喻之至
 不強以入
 我筆之正
 自心之正
 我心非正
 筆斯不正
 存內形外
 嗚呼不敬

116) 성정(誠正) : 여기서 “誠正”은 『大學』 八條目の 가운데 ‘誠意’와 ‘正心’을 말한다.

117) 명감(明鑑) : 인재를 알아보는 밝은 감식안을 말한 것이다.

· 상사가 인재를 추천하여 임금을 섬기다¹¹⁸⁾에 관한 부
〔上士事君以人賦〕

아름답다 대신(大臣)이 임금을 보필함이어!	猗大臣之弼后兮
모든 책임이 모인 곳을 맡아	任百責之攸萃
유사(有司)를 대신하여 홀로 수고로우니 ¹¹⁹⁾	代有司而獨賢
어찌 하늘의 조화로 이루어진 묘한 재주를 폐기하라.	奈天工之廢棄
그러므로 선정(先正) ¹²⁰⁾ 이 임금을 보필할 때	故先正之右辟
진실로 인재를 추천하는 것보다 귀한 것이 없고	允莫貴於以人
덕(德)이 같은 이를 불러 보필하고	呼同德以輔佑
어진 이를 등용하여 근신(近臣)으로 삼네.	進厥良而臣隣
암혈(巖穴) ¹²¹⁾ 의 기이한 인재를 모으고	罄巖穴之奇材
초야(草萊) ¹²²⁾ 의 준걸을 끌어올려	引草萊之俊傑
왕실의 곁지신(股肱之臣)으로 삼아	作股肱於王室
이목관(耳目官)에 보내 힘써 노력하게 하네.	寄耳目於宣力
아! 새벽부터 밤늦도록 서로 공경하고 합심하여	誓夙夜以協恭
끝없이 임금을 계옥(啓沃) ¹²³⁾ 하고 동인(同寅) ¹²⁴⁾ 이 되어	亘啓沃而同寅
많고 많은 신하들이	藹多士之濟濟
편안함을 이루어 백성을 새롭게 하네.	致以寧而新民
위에서 추천하여 널리 구하면	上推薦而旁求
아래에서는 서로 사양하며 망설이네.	下相讓而優游
모두 마음을 다하여 보필함이 밝으니	咸輸忠而謨明
임금의 계책에 보불(黼黻) ¹²⁵⁾ 을 바라네.	期黼黻乎皇猷

118) 상사가 인재를 ~ 임금을 섬기다 : “하등의 신하는 재물로 임금을 섬기고, 중등의 신하는 자기 몸으로 임금을 섬기고, 상등의 신하는 인재를 추천하여 임금을 섬긴다. [下臣, 事君以貨, 中臣, 事君以身, 上臣, 事君以人.] ”(『荀子』, <大略>.)

119) 홀로 수고로우니 : “이것이 왕의 일이 아님이 없건만, 나만 홀로 어질다 하여 수고롭다는 말이다. [此莫非王事, 我獨賢勞也.] ”(『詩經』, <小雅·北山>.)

120) 선정(先正) : 선대의 어진 사람을 말한다.

121) 암혈(巖穴) : ‘巖穴之士’의 준말이다. 속세를 떠나 깊은 산중에 은거하는 선비를 말한다.

122) 초야(草萊) : 풀이 무성하고 황폐한 토지를 말한다.

123) 계옥(啓沃) : 충성스러운 말을 임금에게 아뢰를 말한다.

124) 동인(同寅) : 높은 벼슬아치들이 서로 공경하는 동료라는 뜻으로 쓰던 말이다.

125) 보불(黼黻) : 임금이 예복으로 입던 下衣인 袞裳에 놓은 도끼와 ‘亞’자 모양의 黼를 말한다. 黼는

모든 장인이 이 때문에 기뻐하고
 모든 일들이 이 때문에 편안해지네.
 시운이 모이지 않을 적에 형통하여
 나라의 운수가 끝없이 이어지네.
 위대한 상사의 명석한 견해는
 오직 어진이가 보배임을 아니
 진실로 어진 이를 꺼려하고 능력 있는 이를 질투하면
 이것은 소인(小人)의 자기 멋대로 함이네.
 누가 마음을 다하여 이를 아름답게 하겠는가
 그 닦음을 간략히 하고 돌아보네.
 주공(周公) 같은 큰 성인도 아름답게 여기고
 벨고 움켜잡(126)을 부지런히 하여 선비를 맞이하였네.
 인걸(人傑)의 명석한 식견을 아름답게 여기니
 도리(桃李)¹²⁷를 대궐의 문에 모이게 하네.
 어찌 다만 한 때의 훌륭한 일이겠는가
 진실로 만세의 본받을 만한 법이로다.
 저 장문중(臧文仲)은 어진 이를 폐하여
 앉아서 지위를 훔쳤다는 비판을 남겼네.¹²⁸
 공손홍(公孫弘)은 동자(董子)¹²⁹를 물리치니
 대중이 서로 그의 시기와 질투를 꾸짖었네.
 아! 태학사(太學士) 동각(東閣)¹³⁰에서 이미 속이니

百工以之而熙哉
 庶事以之而康哉
 亨時運於未屯
 綿國祚於無疆
 偉上士之灼見
 知所寶之惟賢
 苟妨賢而嫉能
 是小人之自專
 孰盡心而休茲
 簡厥脩而顧謨
 美周公之元聖
 勤吐握而迎士
 嘉仁傑之明識
 聚桃李於公門
 豈但一時之盛事
 誠萬世之式遵
 彼臧仲之蔽賢
 坐貽譏於竊位
 公孫之擯董子
 衆交詆其疾忌
 嗟東閣之已許

검은 빛과 흰 빛으로 된 도끼머리 모양의 무늬를 말하며, 黻은 푸른빛과 검은 빛으로 된 ‘己’자 두 개가 등지고 있는 모양의 무늬를 말한다.

126) 벨고 움켜잡 : 『史記』魯나라 <世家>에 나오는 周나라 어진 재상, 周公 旦의 어진 이를 대우하는 마음을 말하고 있다. “史記魯周公世家篇, 然我一沐三捉髮, 一飯三吐哺, 起以待士, 猶恐失天下之賢人.”(『論語』, <學而>.)

127) 여기서는 추천한 인재를 말한다.

128) 장문중(臧文仲)은 어진 ~ 비판을 남겼네 : 范氏가 말하였다. “장문중이 노나라에서 정사를 하는데, 만약 어진 이를 알고서 천거하지 못하면 이는 어진 이를 가림이니, 불명의 죄는 적고 폐현의 죄는 크다. 그러므로 공자는 그를 어질지 못하다고 하고 또 지위를 도둑질하였다. [臧文仲爲政於魯, 若不知賢, 是不明也. 知而不舉, 是蔽賢也. 不明之罪小, 蔽賢之罪大. 故孔子以爲不仁, 又以爲竊位.]”(『論語』, <衛靈公> 第15章 註.)

129) 동자(董子) : 董仲舒로 중국 前漢 때의 대학자로 한때는 학문에 열중하여 3년 동안이나 자기 집 문을 들여다보지 않기까지 하였다고 전해진다.(『史記』, <儒林列傳>.)

130) 동각(東閣) : 동쪽으로 열린 쪽문이라는 뜻으로, 고관이 빈객을 예우하며 招致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漢나라 公孫弘이 재상이 된 뒤에 “起客館, 開東閣, 以延賢人.”이라는 고사에서 유래한 것

누가 치의(縑衣)¹³¹ 입은 현자(賢者)를 감히 바라랴.
아! 공사(工師)¹³²가 집을 지을 때는
많은 재목을 모아 비로소 다스리네.
경남기재(梗柎杞梓)¹³³로 하여금 거두지 못하게 하니
또 어디에 승묵(繩墨)을 사용하겠는가.
오직 어진 이를 얻어서 보필하니
이것이 재상의 직분이라네.
혹여 재관록(材館錄)¹³⁴에 쌓아둔 것이 있어도
한 치도 다른 시대에 빌려주지 않네.
바라건대 묘당(廟堂)¹³⁵에서 구휼함을 알아
뛰어난 인재를 구하여 간언 드리기를 바라네.
나 역시 남에게 도움을 청한 뒤로부터
삼공(三公)의 지위¹³⁶를 향하여서 불을 빌리네.
띠와 이엉을 뽑아서 동료들과 함께 나아가¹³⁷
우리 정승을 보좌하여 도우리라.

孰縑衣之敢冀
噫工師之構廈
集衆材而始克
使梗柎杞梓而不收
又安用夫繩墨
惟得人以該輔
寔宰相之攸職
儻材館之有儲
寸不借於異代
庶廟堂之知恤
冀籲俊而納誨
余亦束縑而從後
向台階以乞火
拔茅茹以彙征
贊吾相之輔佐

이다. 東閣이라고도 한다.(『漢書』 卷58 <公孫弘傳>.)

131) 치의(縑衣) : 賢者를 좋아한다고 표현한 『詩經』, <鄭風·縑衣>를 말한다.

132) 공사(工師) : 일하는 사람의 우두머리를 말하는데 『孟子』 <梁惠王> 第9章에서 “工師는 工人의 우두머리이다. [工師, 匠人之長.]”라고 하였다.

133) 경남기재(梗柎杞梓) : 느릅나무와 녹나무와 구기자나무와 가래나무를 말한다.

134) 재관록(材館錄) : 인재들을 장부에 적어 놓고 세 등급을 만들었는데, 보고 듣는 것이 있을 적마다 즉시 기재하였는데 『備邊司謄錄』, 영조 8년 5월 기사에는 “零允文은 소매 속에 材館錄이 있어 재능 있는 사람을 들으면 번번이 모두 수록하여 얻은 인재가 매우 많아 성대하게 慶曆과 元祐의 기풍이 있었다. [零允文有袖中材館錄, 聞人之材, 輒皆收錄, 得人甚多蔚有慶曆元祐之風,]”라고 하였다.

135) 묘당(廟堂) : 1400년에 설치한 행정부의 최고 기관을 말하며 국정을 논의하는 곳이다.

136) 삼공(三公)의 지위 : “台階”는 별 이름으로 곧 三台星을 가리키는데, 전하여三公의 지위를 말한다. 『後漢書』 卷52 <崔駰列傳>에 “태계에 올라 대궐을 엿본다.”라고 하였다.

137) 띠와 이엉을 ~ 함께 나아가 : “初九는 띠를 뽑으면 그 뿌리가 엉켜있다. 그 무리와 하나가 되어 나아가면 길하다. [初九, 拔茅茹, 以其彙, 征, 吉.]”(『周易』, <泰卦>.)

○ 사

[辭]

· <애추석사>에 차운하다¹³⁸⁾

[次哀秋夕辭]

슬프다 가을 저녁의 쓸쓸함이어!

무엇이 나의 생각을 깊고 어둡게 하는가.

마음이 멍멍하여 알 수 없으니

홀연히 냇이 멀리 달아나네.

사수(泗水)¹³⁹⁾를 따라 빨리 달려가니

실처럼 엮인 나를 채찍질하며 돌아보네.

행단(杏壇)¹⁴⁰⁾의 부자(夫子)에게 나아가

살아가는 대도(大道)를 구하였네.

무릎 꿇고 자리를 펴 뜻을 올리니

어찌 나는 말을 많이 하고 배회하는가.

선생은 차근차근 자상하게 나를 가르치니

그 말이 괴로우나 기쁨지네.

오직 하늘은 백성에게 고르게 주는데

누가 혹 굽히고 꺾진다고 하는가.

백성은 혼몽하여 스스로 포기하니

哀秋夕之慘悽兮

何余思之窈冥

心惛惛而莫識兮

魂忽忽乎遐征

循泗水而駉駉兮

回余策其如縈

就夫子於杏壇兮

求大道之攸居

跪敷衽而陳詞兮

寧余口囁而足趨

子諄諄其詔余兮

其言之苦而腴

惟天均賦下民兮

夫孰云或屈或伸

衆昏貿而自棄兮

138) <哀秋夕辭>에 차운하다 : <哀秋夕辭>는 고려 말 陶隱 李崇仁(1349~1392. 字는 子安, 본관은 星州)의 작품이다. 1375년 8월에 李崇仁이 金九容, 鄭道傳, 權近 등과 함께 北元의 사신을 물리치고 明나라와의 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都堂에 상소했다가 당시의 권신 李仁任, 慶復興 등에 의해 京山府로 유배되자 <哀秋夕辭>를 지어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였다. 辭는 한문 문체의 하나이다. 주로 楚나라에서 형성되고 발전하여 ‘楚辭’라고도 하며, 屈原의 <離騷>가 초기의 대표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騷’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李仁老의 <和歸去來辭>가 최초의 작품이다. 『東文選』, 卷1의 첫머리에 <和歸去來辭>·<山中辭>·<閔志辭> 등 10편과 『續東文選』에 徐居正의 <佛巖辭爲專上人作>, 姜希孟의 <香山辭> 등 7편의 辭가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文選』에 漢武帝의 <秋風辭>와 陶淵明의 <歸去來辭>는 辭體의 대표적 작품이다.

139) 사수(泗水) : 孔子의 학문을 말하는데, 공자가 고향인 이 지역에서 제자들을 가르친 데서 나온 말이다.

140) 행단(杏壇) : 孔子가 살구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고사로 인하여 학문하는 곳을 말한다.

도는 오직 성인에 달려있네.	道惟在乎聖之人
많은 아름다움을 보전하여 순수하니	保衆美而純粹兮
인 의와 예지요.	智禮與義仁
두 황제가 서로 정일(精一) ¹⁴¹ 로써 전함은	二帝相傳以精一兮
중도(中道)라는 말 한마디에 지나지 않네.	不過中之一言
탕(湯) 임금과 우(禹) 임금이 공경히 이어서	湯禹繼之以祇敬兮
응당 가슴에 새겨놓고 간절히 하네. ¹⁴²	要服膺而拳拳
문왕(文王)이 화목하고 무왕(武王)은 편안하니	文穆而武寧兮
오직 도(道) 이외에 또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惟於道又何他
옛날에 소강공(昭康公)이 성왕(成王)을 경계하면서	昔康公之戒王兮
오히려 <卷阿>를 가지고 맹세하였지만 ¹⁴³	猶矢以卷阿
세상이 퇴폐하여 점점 어지럽게 되자	世靡靡漸趨亂兮
사람들은 다투며 이빨을 흔들며 씹으려하네.	欲咀人競搖牙
진실로 이 도가 행해지지 않으니	苟此道之無行兮
내가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리랴.	吾何以能國也
나는 네가 도를 구하는 일을 아름답게 여기고	余嘉爾之求道兮
너의 뜻이 순정하고 깨끗함을 가상하게 여기네.	嘉爾志之精白也
도는 의리를 따르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道貴於義之比兮
진실로 그렇게 함도 없고 오로지 주장함도 없네. ¹⁴⁴	固無莫而無適
내게 있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顧在我者如何兮
어찌 부침(浮沈) ¹⁴⁵ 을 바라겠는가.	何期乎浮與沈
충서(忠恕)를 미루어 남에게 베풀고	推忠恕而施人兮

141) 정일(精一) :舜임금이 천하를禹임금에게 선위할 때 전한 말이다. “人心惟危，道心惟微，惟精惟一，允執厥中.”(『書經』, <禹書·大禹謨>.)
 142) 응당 가슴에 ~간절히 하네 : “안회의 사람됨은 중용에 가려서 하나의 선함을 얻으면 가슴에 간절히 하여 잃지 아니한다. [回之爲人也。擇乎中庸，得一善則，拳拳服膺，而弗失之矣.]”(『中庸』, 第8章)
 143) 옛날에 소강공이 ~ 가지고 맹세하였지만 : 昭康公이 成王을 경계를 주기 위하여 부른 노래를 말한다. “有卷者阿，飄風自南。豈弟君子，來游來歌，以矢其音.”(『詩經』, <大雅·生民之什·卷阿 10章>.)
 144) 도(道)는 의리를 ~ 주장함도 없네 : “군자는 천하 사람들에게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그르다고 부정 하지도 않으며 의리를 좇을 뿐이다. [君子之於天下也，無適也無莫也，義之與比.]”(『論語』, <里仁>.)
 145) 부침(浮沈) : 시세나 세력 등이 盛했다 衰했다 함을 말한다.

스스로 수양하면 오직 공경할 뿐이네.
 행실의 요체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너는 힘써 나의 말을 지켜라.
 확고하게 하여 변치 말고
 세상과 더불어 옮겨가지 말라.
 이루기는 어렵지만
 곧 쉽게 무너지리라.
 이치는 진실로 밖에서 찾아서는 안 되니
 너의 마음을 도모하고 의심을 끊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묵묵히 깨달으면
 방원(方圓)¹⁴⁶에 참여할 수 있네.
 갑자기 말을 듣고 스스로 깨달으면
 도는 현묘하고 또 현묘함이 아니라네.
 누항(陋巷)을 경유하여 아래로 내려와
 단사(簞食)의 이유를 묻네.¹⁴⁷
 증자(曾子)¹⁴⁸와 이별하고 돌아오는 길에
 삼성(三省)의 도¹⁴⁹로 전별하였네.
 빈 방에 물러나와 고요하게 생각하니
 무극(無極)이면서 태극(太極)이네.¹⁵⁰
 갈아도 갈리지 않고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으니¹⁵¹
 어찌 험박과 곤궁함을 걱정하라.
 자로(子路)가 성내고 뵈¹⁵²을 비웃고

其自脩則惟欽
 行之要不外是兮
 勉爾守我辭
 確然而不變兮
 毋與世而轉移
 雖難其成兮
 則易於虧
 理固不可以外求兮
 謀乃心而斷疑
 冥情而默會兮
 亦可參夫方圓
 忽聞言而自悟兮
 道非玄之又玄
 經陋巷而下降兮
 問簞食之故也
 辭曾氏而復路兮
 躋三省之道也
 退虛室而靜思兮
 無極而太極也
 彼磨涅不能以磷淄兮
 又何憂乎迫阨
 哂由也之慍見兮

146) 방원(方圓) : 天圓地方的 준말로 즉 天地를 가리킨다.

147) 누항(陋巷)을 경유하여 ~ 이유를 묻네 : 顏回(B.C.521?~B.C.491? 춘추시대 魯나라 사람, 자는 子淵)의 簞瓢陋巷의 고사를 말한다. “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論語』, <雍也>.)

148) 증자(曾子) : 曾子(B.C.505~B.C.436)의 이름은 參, 자는 子輿이다. 『大學』의 저자이다.

149) 삼성(三省)의 도 : 『論語』 <學而>에 나오는 曾子の 三省을 말한다.

150) 무극이 태극이네 : 周敦頤(1017~1073, 자는 茂叔, 호는 濂溪)의 <太極圖說>을 말한다.

151) 갈아도 갈리지 ~ 검어지지 않으니 : 공자가 말하였다. “그렇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단단하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갈아도 얇아지지 않으니, 희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검은 물을 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어찌 뒤옹박과 같으리오. 어찌 한곳에 매달린 채 먹지를 못하는 것과 같겠는가. [然. 有是言也, 不曰堅乎. 磨而不磷, 不曰白乎. 涅而不緇, 吾豈匏瓜也哉. 焉能繫而不食.]”(『論語』, <陽貨>.)

152) 자로(子路)가 성내고 뵈 : 공자가 제자 子路의 불손함을 말한 것이다. “子路(B.C.543~B.C.480.

군자의 고궁(固窮)¹⁵³을 아름답게 여기네.
 성인의 경계를 공경하고 큰 띠에 써서
 몸에 있는 이 도를 복응(服膺)하네.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거의 자득(自得)할 것이니
 어디에 간들 통달하지 않겠는가.

嘉君子之固窮
 欽聖戒而書紳兮
 服茲道之在躬
 庶自得於艱難兮
 何所往而不通

성은 仲, 이름은 由)가 성난 얼굴로 공자를 보고 물었다, 군자도 궁할 때가 있습니까? [子路 慍見曰: 君子亦有窮乎?] (“『論語』, <衛靈公>.)

153) 고궁(固窮) : 孔子가 군자는 참으로 곤궁하여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자세를 칭찬하는 말이다. “군자는 진실로 곤궁하지만 소인은 곤궁하면 이에 넘친다. [君子, 固窮, 小人, 窮斯濫矣.]” (“『論語』, <衛靈公>.)

○ 전

[箋]

· 호조에서 역전과 실시를 청한 전(154)을 의작함

[擬戶曹請行力田科箋]

농업은 정치의 근본이니, 이미 후생(厚生)¹⁵⁵의 방도를 극진히 하였고, 식량은 오직 백성의 하늘이니, 삼가 힘써 농사지어 얻은 영화를 진언(陳言)합니다. 감히 저의 어리석지만 간절한 생각으로 이에 성상(聖上)의 총명함을 더럽히고자 합니다. (예컨대) 나라를 부강하게 한 계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모두 재물을 내는 방도(方道)가 있었습니 다. 봄에는 경작하는 일을 살피고, 가을에는 거두는 일을 살피는 계책¹⁵⁶은 안영(安嬰)¹⁵⁷이 제(齊)나라 경공(景公)에게 권장한 일ियो. 들에는 시체가 널려 있고, 백성에게는 굶주린 빛이 있다¹⁵⁸는 것은 맹자(孟子)¹⁵⁹가 양(梁)나라 혜왕(惠王)을 질책한 말이니, 이것은 모두 백성의 어려운 식량 사정을 앎이요, 바로 나라를 배양할 수 있는 큰 근본입니다.

154) 전(箋) ; “力田科”는 漢나라 관리임용법의 하나이다. 농사에 근면한 자에게 力役을 면제하고 관리에 등용하여 농사를 권장하였다. ‘箋’은 국가에吉凶의 일이 있을 때 임금께 아뢰던 四六體의 글이다. 전의 종류는 賀狀, 祝箋, 辭箋, 謝箋, 進箋으로 나누어진다. 신년이나 탄일, 절후를 축하하는 賀狀이 가장 많고, 태자나 왕후를 책봉하거나 尊號를 올릴 때의 祝箋이 많다. 그 밖에 벼슬을 사양하는 辭箋, 물건을 받고 감사하는 謝箋, 책을 지어 왕에게 바치는 進箋 등이 주종을 이룬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朴浩의 <賀年起居箋>에서부터 시작되었다.

155) 후생(厚生) ; 삶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부하고 윤택하도록 하는 일을 말한다.

156) 봄에는 경작하는 ~ 살피는 계책 : “봄에는 경작을 살펴서 부족함을 보충하며 가을에는 수확을 살펴서 족하지 못함을 돕나니, 하나라 속담에 ‘우리 임금이 봄 농사 시찰을 하지 않으면 내 어찌(씨) 쉬며 우리 왕이 추수 시찰을 하지 아니하면 내 어찌(씨) 도움을 받으리요. (이에) 한번 봄 농사 시찰을 하고 한번 추수 시찰을 함이 제후의 법도가 된 것이다.’고 하였다. [春省耕而補不足, 秋省斂而助不給. 夏諺曰: 吾王不遊, 吾何以休, 吾王不豫, 吾何以助, 一遊一豫, 爲諸侯度.]”(『孟子』, <梁惠王章句 下>.)

157) 안영(安嬰) : 안嬰(?~B.C.500)은 중국 춘추시대 齊나라의 훌륭한 재상이다. 자는 仲, 시호는 平. 晏弱의 아들로, 齊나라 萊의 夷維 사람이다. 靈公, 莊公, 景公 3대를 섬긴 재상으로서 절약 검소하고 군주에게 기탄없이 간언한 것으로 유명하였다. 晏平仲, 혹은 晏子라는 존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158) 들에는 시체가 ~ 빛이 있다 : 맹자가 대답하였다. “왕의 수라상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는 살찐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굶주려 있고 들판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는 짐승들을 몰고 와 사람을 잡아먹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庖有肥肉, 廄有肥馬. 民有飢色, 野有餓莩. 此率獸而食人也.]”(『孟子』, <梁惠王章句 上>.)

159) 맹자(孟子) : 맹자(B.C.371~B.C.289)의 본명은 軻, 자는 子與·子車 또는 子居, 시호는 鄒公. 孔子의 정통유학을 계승 발전시켰고 孔子 다음의 亞聖으로 불린다.

삼가 생각건대,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기를 간절하게 염려하고, 나라를 풍족하게 하려는 마음을 진실로 돈독하게 해야 하니, 천시를 따라 잃지 않음은 요(堯)임금의 평질(平秩)의 정치¹⁶⁰를 본받음이요. 지리를 다하여 남김이 없음은 우(禹)임금의 구혁(溝洫)의 제도¹⁶¹를 본받은 것입니다. 들에 개간되지 않는 땅이 없다면 백성은 전답을 받은 집이 있을 것이니, 집에는 여덟 식구의 재물을 넉넉하게 하여 이미 곤궁하고 굶주리는 근심이 없고, 나라에는 9년의 비축을 쌓아 홍수와 가뭄의 재앙에 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은 농사에 게을러 스스로 안일하여지고, 국가의 법은 마음을 격려하고 뜻을 권면하게 되니, 한편으로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몸소 곡식의 중요함을 보고 농사에 힘쓰고, 다른 한편으로는 반드시 이보다 심한 사람이 있어 일을 다투어 하여 쟁기질을 깊이 하고 김매기를 쉽게 할 것이니, 오직 경작하고 수확하는 즐거움을 이롭게 할 것이니, 어찌 손과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는 수고로움을 마다하겠습니까?

‘수누화전법(水耨火田法)’¹⁶²으로 (봄 여름 가을) 삼시(三時)를 따르는 일¹⁶³을 당하여 아버지는 목정밭을 일구고, 아들은 파종하는 일로 마땅히 몸의 부지런함을 다하여야 합니다. 이미 봄에 농사짓는 공(功)으로 마침내 가을에 추수하는 희망을 보니, 봄에 심지 않으면 가을에 거둘 수 없으니, 무엇으로써 창고마다 채우겠습니까? 이를 북돋으며 이를 천거하여야¹⁶⁴ 반드시 집집마다 경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하물며 안식(安息)의 날을 만나 어찌 과업을 권장하는 마음을 추대하지 않겠습니까?

엿드려 바라옵니다. 추서(鄒書)에서의 ‘어기지 말라.’¹⁶⁵함을 체득하고, 노어(魯語)에서의 ‘근본에 힘쓰라.’¹⁶⁶함을 염려하여 특별히 힘써 경작하라는 조서를 내려 게으른

160) 평질(平秩)의 정치 : “희중에게 명령하여 산봉우리에 머물게 하여 양곡이라고 부르고, 뜨는 해를 공손히 맞이하여 봄 농사를 고르게 다스리도록 하였다. [命羲仲, 宅嵎夷, 曰暘谷. 寅賓出日, 平秩東作.]”(『書經』, <堯典>.)

161) 구혁(溝洫)의 제도 : 周代에 田地 사이에 灌溉를 하거나 배수를 위해 설치했던 水路이다. 古制에 夫의 전지 사이에 있는 것을 溝라고 하고, 100夫의 전지 사이에 있는 것을 洫이라 하였다.(『書經』, <大禹謨·禹貢>.)

162) 수누화전법(水耨火田法) : 옛날 농사짓는 한 가지 방법으로 밭에서 초목을 불태우고 이것을 갈아엎어 비료의 대신으로 하는 것을 火耕이라 하고, 밭에 물을 대어 풀매는 일을 대신하는 것을 水耨이라 하는데 수운은 水耨라고도 한다.

163) 삼시(三時)를 따르는 일 : 三時는 농사일을 하는 세 계절, 즉 봄·여름·가을로, 春耕은 봄에 씨를 뿌리는 일, 夏耘은 여름에 김을 매는 일, 秋收는 가을에 수확하는 일을 말한다. “故務其三時, 脩其五教, 親其九族, 以致其禋祀. 於是乎民和而神降之福. 故動則有成.”(『左傳』, 桓公 6년條.)

164) 이에 북돋으며 이를 천거하여야 : 원문에는 ‘是蓂是薦’이나 문맥상 ‘是蓂是薦’으로 바로 잡아 국역하였다.

165) 추서(鄒書)에서 어기지 말라 : “鄒書”는 『孟子』를 가리키며 ‘어기지 말라’라고 한 말은 “농사철을 어기지 않으면 곡식을 이루 다 먹을 수 없다. [不違農時, 穀不可勝食也.]”(『孟子』, <梁惠王上>.)는 것이다.

166) 노어(魯語)에서 근본에 힘쓰라 : “魯語”는 『論語』를 가리키며 ‘근본에 힘쓰라’는 말은 “군자는

사람들로 하여금 힘쓰게 한다면 작은 섬에 가든 서울에 가든 해마다 일만의 세금¹⁶⁷⁾을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지¹⁶⁸⁾가 아니면, 가을에 삼백의 곡식창고를 수확할 것이니, 부유함이 어찌 백성에게만 그치고, 곡식이 (나라의) 창고에서 썩어나가지 않겠습니까?

삼가 선정을 공정히 따르고, 외람되오나 응당 지관(地官)¹⁶⁹⁾으로 하여금 전국의 지형을 살펴보고 곡식을 과중하게 한다면, 비록 후직(后稷)¹⁷⁰⁾의 직책에는 부족할지라도 6부가 바로잡히고 국가의 비용¹⁷¹⁾이 다스려져 영원히 농부의 충심을 간직할 것입니다.

農爲政本，既盡厚生之方，食惟民天，恭陳力穡之榮。敢將一得之懇，庸瀆萬機之聰。歷觀富國之謀，咸有生財之道。春省耕而秋省斂，晏嬰之勸於齊王；野有莩而民有飢，孟軻之責於梁王，茲皆知黎民之艱食，乃能培邦國之大根。恭惟念切裕民，心敦足國，順天時而不失，效唐堯平秩之治；盡地利而無遺，體夏禹溝洫之制。野無不闢之地，民有受田之家，家饒八口之資，已無阻飢之患；國儲九年之畜，亦備水旱之災。然民情惰農而自安，而國法勵心而勸志，上有好者，躬自重穀而務農，下必甚焉，爭事深耕而易耨，惟利耕獲之樂，豈憚胼胝之勞？水耨火田，當赴三時之務，父菑子播，宜竭四體之勤。既做東作之功，終見西成之望，不穡不稼，何以致千倉之盈？是蓑是蓐，必有興百室之慶，矧值安食之日，盍推勸課之心？伏望體不違於鄒書；念務本於魯語，特降力耕之詔，俾勵怠惰之人，則如坻如京，歲取十千之稅。不稂不莠，秋收三百之困，富豈止於蒼生，粟當腐於倉粟？謹當恪遵善政，濫膺地官，相九土播穀種，縱乏后稷之責，掌六府治國用，永肩農扈之忠。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확고하게 섬에 도가 발생한다. [君子務本, 本立而道生.]”(『論語』, <學而>)는 것을 말한다.

167) 일만의 세금 : “十千之稅”는 『詩經』 <小雅·甫田篇>에서 “반듯한 저 큰 밭에서 해마다 十千을 받는다. [倬彼甫田, 歲取十千.]”는 말에 대하여 鄭玄은 “1井에 1夫를 세받는데 그 전지는 100묘이다. 通에는 10부를 세받는데 그 전지는 1천 묘이며, 成에는 100부를 세받는데 그 전지는 1만 묘이다. [井稅一夫, 其田百畝. 通稅十夫, 其田千畝. 成稅百夫, 其田萬畝.]”라고 하였다. 또 朱子는 “十千이란 1성 되는 전지를 이룬 것이다. 사방이 10리면 밭이 9만 묘인데 그 중 1만 묘를 공전으로 한다. 대개 9분의 1로 하는 법이다. [十千, 謂一成之田. 地方十里, 爲田九萬畝, 而以其萬畝爲公田. 蓋九一之法也.]”라고 하였다.(『經世遺表』 卷5 <地官修制>.)

168) 가라지 : 稂莠. 곡식을 해치는 잡풀을 말한다.

169) 지관(地官) : 戶曹의 별칭이다.

170) 후직(后稷) : 后는 군주, 稷는 五穀이라는 뜻이다. 고대 중국 전설상의 농사를 관장하는 장관으로 周나라의 시조라 전해지는 전설상의 인물이다. 어머니 姜原이 거인의 발자국을 밟아 임신하고, 태어나서 금방 버려졌다고 하여 棄라고 불렀다.

171) 국가의 비용 : 國用. 국가에서 豐儲倉을 설치하여 祭祀·賓客·사냥·喪葬 및 흉년에 필요한 비용을 모두 여기에서 지출하였는데, 이것을 국용이라고 한다. 국용의 출납과 회계에 관한 일은 都評議使司·三司·司憲府가 각각 직책에 따라 관장하였다.

· 신라 김유신이 백제의 멸망을 하례하는 전을 의작함

[擬新羅金庾信賀滅百濟箋]

(하늘은) 순일한 덕을 지닌 자를 도와¹⁷²⁾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 는 재앙을 주니, 하늘의 도는 어그러지지 않고 (초목의 꽃처럼) 아름답습니다.¹⁷³⁾ (그 러므로) 우리의 무용을 떨쳐 난(亂)을 다스려 천자의 군대가 이룬 공을 빛나게 하였으 며, 승전보고서가 신속하게 아뢰어져 칭송하는 소리가 우레처럼 일어나 성대하였습니 다.

삼가 생각건대 왕께서는 불세출의 용맹과 지혜와 진실로 하늘이 허여(許與)한 성신 (聖神)으로 (예전의) 지극히 어진 성인보다 나라를 태평성대로 만들고, 뜻은 옛 사람의 업적과 공적보다 뛰어납니다. 큰 교화로 백성의 삶을 어루만지고, 마음은 서로 바로 잡 아주는데 돈독하며, 의리는 먼 지방까지 생각하여 베풀고, 위엄은 우매한 이를 다스리 는 일이 행하여졌습니다.

토대를 견고한 뽕나무 뿌리에 매어두면¹⁷⁴⁾ 수고롭게 동쪽으로 향하여 정벌¹⁷⁵⁾ 하지 아니하여도 정벌될 것이고, 변방에 용마(戎馬)¹⁷⁶⁾의 진애(塵埃)를 평정하면 누가 남쪽 으로 내려와 기르겠습니까? 작고 바다를 등진 쇠약한 백제(百濟)가 우리를 원수로 삼 아 큰 나라가 망하면 업신여기겠다고 창을 몰래 숨기고 와 국경을 침범하겠습니까?

이에 만약 싹튼 강아지풀처럼 험준한 지세를 의지하고 눈앞의 안일함만을 꾀한다면 이것은 슬단지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¹⁷⁷⁾와 같을 것입니다. 매번 함부로 포악하고 교 활한 짓을 하면서 침을 흘리니, 여러 차례 조두(刁斗)¹⁷⁸⁾로 경계하였으나 불화의 씨가

172) 순일(純一)한 덕(德)을 도와 : “오직 하늘은 순일한 덕을 도운 것이며, 상나라가 아래 백성들에 게 요구한 것이 아니요. 오직 백성들은 순일한 덕을 따른 것이다. [惟天佑一德, 非商求于下民, 惟 民歸于一德.]”(『書經』, <商書·咸有一德 8章>.)

173) 하늘의 도는 ~ 아름답습니다 : “하늘이 진실로 아래 백성을 돕는다. 죄인이 내쳐져 복종하니, 하늘의 명이 어긋나지 아니함이 초목처럼 아름답다. 모든 백성이 진실로 번성할 것이다. [上天, 孚佑下民. 罪人, 黜伏, 天命弗僭, 賁若草木. 兆民, 允殖.]”(『書經』, <商書·湯誥 5章>.)

174) 토대를 견고한 ~ 뿌리에 매어두면 : <否卦> 九五 爻辭는 망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조심 하며, 마음을 튼튼한 뽕나무그루에 매어두듯 삼가고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其亡其亡, 繫于苞 桑.”(『周易』, <否卦>.)

175) 수고롭게 동쪽을 하여 정벌함 : “동쪽을 정벌하면 서쪽 오랑캐가 원망하며, 남쪽을 정벌하면 북 쪽 오랑캐가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뒤에 하는가라고 말한다. [東面而征, 西夷怨, 南面而征, 北狄 怨, 曰: 奚爲後我.]”(『孟子』, <盡心 下>.)

176) 용마(戎馬) : 군대에서 쓰는 말로 흔히 전쟁에 쓰이는 말을 말한다.

177) 슬단지 안에서 헤엄치는 물고기 :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거나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도 그 위험이 목전에 다가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비유한 것이다.(『左傳』, 襄公 29년. 및 『後 漢書』, <張綱傳>.)

만들어져 몸의 악행이 쌓이고 하늘의 진노를 범하였습니다. 우매함으로부터 공격의 단서가 시작되니 전갈이 독을 드러내어 백성의 고향을 칠하였습니다.

드디어 대를 끊는 죄악이 가득 차고 몰래 나라를 뒤집으려는 불길한 뜻을 가지고, 오직 반드시 죽이려는 음흉한 모략을 품은 채 좁도독질¹⁷⁹)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칼날을 맞아 바로 쪼개지는 대나무 같은 처지에 달려 있으니, 죽음을 피하기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름을 내걸고 출정한 군대에서 사람들은 다투어 잔적을 없애려고 용맹을 과시하였고 사병들은 모두 도적들을 소탕하려고 몽둥이를 잡았습니다.

신(臣) 등은 조정에서 세운 만전의 계략¹⁸⁰)을 받들고, 한번 노(怒)한 하늘의 위엄을 의지하여 장군을 모시고, 길을 앞장서서 인도하겠습니다. 대장의 지휘 아래 적군을 포박하고 개미떼처럼 모인 도적의 소굴을 가리키며 무찌르니, 승리는 이미 두 눈에 그려졌습니다.

깃발은 높이 탄현(炭峴)¹⁸¹)의 바람에 펄럭이고, 전투함은 백마강(白馬江)의 물결을 가로막았습니다. 정루(鄭壘)¹⁸²)에 올라가 군사를 정돈하고 버마제비의 팔을 꺾듯 창을 거꾸로 꽂으니, (당나라 행궁) 장춘(長春)에서 전쟁의 시기를 먼저 알려와 백골이 되어 서라도 나라의 은혜를 갚으려는 소원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소정방(蘇定方)¹⁸³)은 멀리 검푸른 바다를 건너와 대당(大唐)은 난(亂)을 다스리는 군사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이에) 쾌연(沛然)히 형세를 타고 번개처럼 몰아가니, 말이 흠어지고¹⁸⁴) 바람에 허둥대듯¹⁸⁵) 물고기가 썩듯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조문하고 죄 있는 이를

178) 조두(刁斗) : 고대에 행군할 때 쓰던 용구의 이름으로, 일명 鑊斗라고도 한다. 쌀 한 말 정도의 밥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구리를 녹여 만들었다. 낮에는 음식을 조리하고, 밤에는 이것을 두드려 야간 순찰용으로 사용했다.

179) 좁도독질 : 鼠竊狗偷의 준말로, 쥐가 물건을 훔치고 개가 남의 눈을 속이는 것처럼 남모르게 숨어서 부당한 물건을 취하는 좁도독을 말한다.

180) 계략 : 廟算. 조정에서 세우는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과 계략을 의미한다.

181) 탄현(炭峴) : 백제시대의 지명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청북도 옥천군 군서면의 경계에 위치한 食藏山에 있는 고개이다. 대체로 옥천지방 또는 대전 동쪽 식장산을 가리킨다고 하나, 보다 정확한 위치는 옥천군 군서면 오동리와 군북면 자모리의 경계인 식장산 중심 산록 중 깊은 자루목이다. 백제의 마지막 왕인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이 침공하자 유배 중이던 충신 興首에게 좋은 방책을 묻자 백마강과 탄현을 지킬 것을 말하였으나 간신들이 이를 무시하였으므로 당나라의 군사는 백마강을, 신라군은 탄현을 함락하게 되어 백제가 멸망하였다. 여러 자료로 미루어볼 때 史書에 나오는 沈峴과 동일한 지역으로 추정된다.

182) 정루(鄭壘) : 성채 이름으로 보이나 자세한 위치는 추정하여 상고하지 못하였다.

183) 소정방(蘇定方) : 蘇定方(595~667) 이름은 烈, 자는 定方이다. 660년에 羅唐 연합군의 대총관으로서 13만의 唐나라 軍을 거느리고 백제의 사비성을 함락하고, 의자왕과 태자 隆을 사로잡았다. 661년에는 평양성을 포위하였으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철군하였다.

184) 흠어지고 : 渙은 『周易』 64卦 중 59번째 卦이름으로 물이 흘러서 흠어진다는 뜻이다.

185) 허둥대듯 : 바람에 허둥대듯 한다는 말은 “望風而遑遑.”(『三國志』)에서 보인다.

징계하는¹⁸⁶) 일이 한번 일어나니, (이것은) 하늘이 바야흐로 내려준 일이었겠습니까? (그것은 천명을) 따르고 거역하는 도리가 잘 밝혀지는 것을 백성들은 본래부터 만족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성(城)을 등지고 적과 최후의 일전(一戰)을 벌이여 머리가 진흙장이 되도록 싸워도 복소(覆巢)¹⁸⁷될 뿐입니다. 석두성(石頭城)¹⁸⁸ 주변에서 오(吳)나라 왕이 여촌(輿櫬)¹⁸⁹하는 모습을 보고,朱雀門(朱雀門) 밖에서는 진(陳)나라 군주가 함주(含珠)¹⁹⁰하는 모습이 마땅하니, 원수를 갚음은 역사의 기록¹⁹¹에서 빛나고, 추망(推亡)¹⁹²하는 일은 옛날에도 자랑할 만하였으니, 변방의 백성들이 편안하게 누워서 지낼만합니다.

삼한(三韓)을 통일할 즈음에 개선가가 하늘에 진동하여 참으로 천년의 영구한 태평의 경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만 리의 영토를 넓히는 선견의 지혜와 위엄 있는 군주의 슬기로운 지략이 만나 계책이 신처럼 기이하였으니, 원수의 나라를 반드시 이기는 시기를 가리킨 것입니다. 우리를 창대하게 할 상서로운 조짐이 이미 거북이 등에 문채로 나타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징조는 귀신을 부르는 괴이함을 기다리지 않아도 부여(夫餘)의 고립된 지역은 진정되고, 사비성(泗水城)¹⁹³의 유민은 죄에 굴복할 것입니다.

신(臣)은 평소에 군사를 독려하는데 한 치나 부족하여 한마(汗馬)보다 공이 적음을 부끄럽게 생각하였습니다. (저는) 남중(南仲)¹⁹⁴의 (초나라 오랑캐) 만형(蠻荊)을 세 번 연승하여 물리친 것도 없고, 곽자의(郭子儀)¹⁹⁵가 자신의 한 몸에 왕의 안위를 담당했던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 종묘사직의 큰 계책을 이루었으니, 이것은 신(神)과 사람이 진실로 부합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보호하여 영원히 이지러지지 않

186) 조벌(弔伐) : 弔民伐罪의 준말로, 殷나라 湯王과 周나라 文王의 고사를 인용하였다. 고생하는 백성을 위로하고 죄 있는 통치자를 징벌한다는 말이다.

187) 복소(覆巢) : 覆巢餘卵의 준말이다. “覆巢無完卵.”(『世說新語』, <言語>.)

188) 석두성(石頭城) : “石頭城”은 ‘石吐城’으로 추정되나 자세하게 상고하지 못하였다.

189) 여촌(輿櫬) : 옛날에 항복할 때의 禮이다. “銜璧輿櫬.”(『春秋左氏傳』.)

190) 함주(含珠) : 含珠輿櫬의 준말이다.

191) 역사의 기록 : “汗青”은 史書 또는 기록을 말한다.

192) 추망(推亡) : “약한 이를 아우르고 우매한 이를 치고, 어지러운 이를 취하고 망한 이를 상하게 하며 망한 이를 미루고 보존하는 이를 견고하게 하여야 나라가 창성할 것입니다. [兼弱攻昧, 取亂侮亡, 推亡固存, 邦乃其昌.]”(『書經』, <商書·仲虺之誥>.)

193) 사비성(泗水城) : 충청남도 부여의 부소산 위에 있는 백제 때의 성터를 말한다.

194) 남중(南仲) : 周나라 때 장군 이름이다. “王命南仲, 往城于方, 出車彭彭, 旂旐央央. 天子命我, 城彼朔方, 赫赫南仲, 玁狁于襄.”(『詩經』, <小雅·鹿鳴之什·出車>.)

195) 곽자의(郭子儀) : 郭子儀(697~781)는 唐나라 무장이며, 玄宗 때에 朔方節度使가 되어 安史의 난을 평정하였다. 肅宗·代宗을 섬기며 吐蕃을 무찌르고 太尉中書丞으로 승진했다.

음¹⁹⁶)을 축하하고, 한 치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드리며, 뛰어난 무예와 용맹으로 이미 평정함을 장(章)¹⁹⁷으로 노래하고, 삼군(三軍)을 진작시켜 축하를 베풍니다.

佑一德而禍淫，賁天道之弗僭。揚我武而取亂，赫王師之集勳，捷書奏於星馳，頌聲殷其雷起。恭惟不世出之勇智，固天縱之聖神，圉方內於至仁，志將多于前烈。撫民生以大化，心克敦於胥匡，義施懷遠之方，威行攻昧之舉。基繫苞桑之固，不勞東面而征，陞靖戎馬之塵，誰敢南下而牧？萑爾負海之孱濟，讎我侮亡之大邦，潛戈侵疆？迺若在苗之莠，偷安依險，有同戲鼎之魚。每肆暴猾而垂涎，屢警刁斗而構釁，積已惡干天怒。自昧造攻之端，呈蠱毒塗民膏。遂盈殄世之罪，陰將反鄙之孽志，祇懷必誅之兇謀，不已狗偷。命在迎刃之竹，難追鯨戮。當出揭名之師，人競賈勇於除殘，士咸執殳於蕩寇。臣等奉萬全之廟算，仗一怒之天威，引鷹揚而啓竹。敵可縛於麾下，指蟻聚而擣穴，勝已形於目中。高旗拂炭峴之風，戰艦塞馬江之浪，登鄭壘而整旅，挫螭臂而倒戈，長春先告兵期，枯骨懷報國之願。定方遠涉溟海，大唐助芟亂之軍。沛然乘勢而電驅，渙馬望風而魚爛。弔伐之舉一出，天方授乎？順逆之道克明，衆素飽矣。疇敢背城而借一，爭致泥首而覆巢，石頭城邊，見吳王之輿櫬；朱雀門外，宜陳主之含珠，雪讎有光於汗青；推亡可誇於前古，邊氓奠枕。際三韓一統之時，凱歌動天，實千年永泰之慶。茲蓋伏遇廓萬里之明見，儼九重之沈機，睿略與神爲奇，仇方指期必克。昌我之瑞，已呈龜背之文，亡彼之徵，不待鬼呼之怪，扶餘之孤壤底定，泗泚之遺衆伏辜。臣素寸劣於董戎，愧功微於汗馬。非南仲攘蠻荊於三捷，無子儀繫安危於一身。幸成宗社之訏謨，蓋由神人之允協。祝天保不騫之壽，竭寸心而薦誠，歌神武既平之章，振三軍而播賀。

196) 하늘이 보호하여 ~ 이지러지지 않음 : 임금의 萬壽無疆을 기리는 말로 쓰인다. “如南山之壽，不騫不崩。如松柏之茂，無不爾或承。”(『詩經』, <小雅·天保>.)

197) 장(章) : 한문 문체의 하나이다. 劉勰이 이른바 ‘章者明也’에서 취한 것으로, 그 목적이 사리를 들어내어 밝히는 데 있다. 漢나라에서 신하가 임금에 올리는 글로 章 이외에 奏·表·駁議가 있었다. 章은 散體로 漢나라에서 신하가 임금께 謝恩하는 데만 쓰이는 글체이던 것이 後漢에 와서는 그 사용범위가 넓어져서 論諫이나 慶頌의 글체로도 애용되었다.

○ 잠
[箴]

· 서리를 밟음의 잠(198)
[履霜箴]

어떤 사람이 내게 물었다. “하늘에 기미(幾微)가 있는가?” 내가 대답하였다. “있으니, 그 점진적임이 매우 미묘하다. 하늘에는 두 가지 기(氣)가 있는데, ‘음(陰)’과 ‘양(陽)’이라고 말하니, 한번 움직임에 한번 쉰다. (그러므로) 추위와 더위가 서로 이어지고, 몰래 사라지고 모르는 사이에 자라난다. 그 기가 곧 싹트면, 반드시 먼저 기미가 있어 그 모양이 나타나니, ‘음’이 처음 엉기게 되면 서리가 비로소 내리기 시작한다.

천지의 마음은 적막하고 고요할 뿐이니, 그 기가 울렬(慄冽)¹⁹⁹하고, 그 색(色)이 참담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서리가 엄청나게 내려 있어 내가 걸으며 밟다가 마음이 걱정하였으니, 내가 걱정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마지막 때문이지 처음 때문이 아니네.²⁰⁰ 밟기를 그만두지 않고 밟으니, 또한 얼음이 어는 것이다. 내가 그 점점 나아감을 살펴보니, 돌아서자마자 엉기어 그 이치가 밝고 밝아 호리(毫釐)의 차이도 없었다. 성인(聖人)은 선견지명이 있어 (서리를) 밟고서 바로 아니, 점진(漸進)함은 은미함을 알고, 은미함은 드러남을 안다. 알면 막을 수 있으니, 이것을 ‘통변(通變)²⁰¹’이라고 한다. 저 백성은 혼몽(惛懵)하여 (서리를) 밟고서도 알지 못한다. 갑자기 얼음이 닳쳐와 후회하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천하의 일은 오직 기미일 뿐이니, 지극하다 기미여! 두려워할 만하구나!

198) 서리를 밟음의 잠(箴) : “서리를 밟는다.”는 말은 서리를 밟을 때가 되면, 얼음이 얼 때도 곧 닳친다는 뜻으로, 어떤 일의 징후가 보이면, 머지않아 큰일이 일어남을 말한다. “履霜堅冰至.”(『周易』, <坤卦 爻辭>). 여기서 잠(箴)은 한문 문체의 하나로 경계하는 뜻을 서술하는 글이다. 箴은 사람의 잘못을 諷諭(넌지시 나무라는 뜻을 표하여 남을 깨우침)하거나 規戒(바르게 경계함)하는 말을 의미한다. 잠의 문체는 보통 4言 韻語로 짓는다. 고금의 흥망과 치란의 변을 반복하여 경계하여 교훈을 드리우는 것으로 일관한다. 주요 작품으로는 李奎報의 <面腰思風箴>, 李齊賢의 <猫狗雜箴>, 李穡의 <自傲箴>, 李達衷의 <愛惡箴>이 있다.

199) 울렬(慄冽) : 추위가 맵고 심하여 몸에 스며드는 모양을 말한다.

200) 내가 걱정한 ~ 때문이 아니네 : “履霜”은 서리를 밟으면 점점 굳어져 얼음이 되듯 조그마한 악이 점점 확대됨을 말한 것이므로 작자가 서리를 밟으며 걱정한 이유는 ‘처음의 조그만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큰 잘못으로 발전해가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

201) 통변(通變) : <通變>에서는 변화의 근원이 옛 것을 모범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장을 짓는 체제는 일정한 것이 있지만, 문장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일정한 것이 없다. [夫設文之體有常, 變文之數無方.]”(『文心彫龍』, <通變 第29>.)라고 하였다.

이미 드러나면 구제하기 어렵고, 드러나지 않으면 알기 어렵다. 아는 일이 진실로 어려우니, 누가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이윽고 그 굴뚝을 곧게 하고, 또 그 뿔나무를 많이 쌓아올려 놓지만 굴뚝이 터지고 기둥이 불타면²⁰²⁾, 장차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청(請)할지라도 재앙이 이미 급박하니, 배꼽을 물려해도 어떻게 당하겠는가?²⁰³⁾

(그러므로) 비가 아직 오지 않을 때에 우리 집을 엮어매야 하고,²⁰⁴⁾ 그 형체를 볼 수 없으면, 곧 그 그림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것을 ‘능두(能杜)’라고 하니, 이렇게 하면 위태로움도 없고 욕됨도 없을 것이다. 처음은 아른거리는 불꽃이 아직 미약하지만 언덕을 불사르면 끄기 어렵다. 한 국자의 양(量)이 적을지라도 모아지면 하늘을 넘치는 데 어찌 끝이 있겠는가? (기미를) 점차 자라게 할 수 없는데,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이 말을 기록하고, 장래의 잠규(箴規)로 삼고자 하였다.

或問於余, “天有幾耶”, 余對曰: “有, 其漸甚微. 天有二氣, 曰陽 曰陰, 一動一靜. 寒暑相尋, 潛消暗長. 其氣乃萌, 必先有幾, 而有其形, 陰之始凝, 霜初下矣. 天地之心, 寂爾寥爾, 慄冽其氣, 慘憺其色. 朝起視之, 霜其肅肅, 我步我履, 心焉憂止, 我憂伊何? 伊終匪始. 履之不已, 履且至冰. 我觀其漸, 旋焉而凝, 其理昭昭, 不爽毫釐. 聖人先見, 履即知之, 知漸之微, 知微之顯. 知而能防, 是曰‘通變’. 彼氓昏焉, 履且不識. 忽及於凍, 雖悔何益? 天下之事, 惟幾而已, 至哉幾乎! 其可畏耳. 已著難救, 未著難知. 知之固難, 能救者誰? 既直其突, 又積其薪, 突決棟焚, 將伯助人, 禍已斯迫, 噬臍奚及? 迨其未雨, 綢繆我室, 不見其形, 其影則察. 是謂‘能杜’, 無殆無辱. 焰焰尚微, 燎原難滅. 一勺雖少, 滔天曷極? 漸不可長, 胡不戒哉?” 或人志之, 用箴將來.

202) 굴뚝이 터지고 기둥이 불타면 : 아무런 기미가 없다가 갑작스럽게 큰 일이 일어남을 昔人是 처마 밑 등지에 있는 제비와 참새를 예로 들어 말하였다. “옛 사람이 말을 하였다. ‘제비와 참새가 집에 처할 때에 / 어미와 새끼가 서로 편안하여 / 스스로 즐거워하네. / 굴뚝이 터지고 기둥이 불타나 / 편안히 재앙이 장차 미칠 것을 알지 못하네.’ 고 하였으니, 아마도 이를 말한 것이다. [昔人有言, 燕雀處堂, 母子相安, 自以爲樂也. 突決棟焚, 而怡然不知禍之將及, 其此之謂乎.]”(『詩經』, <祈父之什·正月 12章>.)

203) 배꼽을 물려 ~ 어떻게 당하겠는가 : “噬臍莫及”은 배꼽을 물려고 해도 입이 미치지 못한다는 말이니, 곧 좋은 기회를 잃고 후회를 한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의미를 말한다.

204) 비가 오지 ~ 엮어매야 하고 : “未雨綢繆”는 비가 오기 전에 올빼미가 등지의 문을 닫아 엮어매다는 뜻으로 화가 싹트기 전에 미리 방지하라는 말이다. 『詩經』 <國風·邶風·鸛鳴>에서는 “迨天之未陰雨, 徹彼桑土, 綢繆牖戶, 今女下民, 或敢侮予.”라고 하였다.

○ 명
[銘]

· 무현금의 명(205)

[無絃琴銘]

이루고 무너짐을 커서 밝히니	成虧昭鼓
음악은 거문고에 붙어사네.	樂寓於琴
백아(伯牙) ²⁰⁶ 가 산수(山水)를 타니	山水牙彈
뜻이 소리에 있네.	志在於音
달인(達人)은 이와는 다르니	達人異是
들음이 마음에 밝구나.	聽瑩於心
자연의 음악이	自然之樂
어찌 악기를 갖추어 쓰랴.	寧用器備
일곱 구멍이 뚫리지 않아도	七竅未鑿
혼돈은 죽지 않네. ²⁰⁷	渾沌不死
현(絃)을 번거롭게 다스리지 않아도	繁絃未制
대음(大音)을 먼저 갖추었네.	大音先具

205) 무현금의 명 : “無絃琴”은 줄이 없는 거문고를 말한다. 쑤나라 陶淵明은 본래 음률을 몰랐는데, 평소 줄 없는 거문고 하나를 옆에 두었다가 벗들과 만나 술을 마실 때면 이 거문고를 연주하여 자신의 뜻을 부치곤 하면서 “거문고의 정취만 알면 되지 / 무엇하러 번거롭게 줄을 당겨 소리를 내겠는가. [但識琴中趣, 何勞絃上聲.]”라고 말한 일화가 전해진다.(『晉書』卷94 <陶潛列傳>.)李白은 <贈臨洛縣令皓弟>에서 “도잡이 팽택 영의 직책 버리니 / 아득히 태고인의 마음이었네. / 오묘한 소리 절로 곡조 이루니 / 줄 없는 거문고를 탈 뿐이었네. [陶令去彭澤, 茫然太古心. 大音自成曲, 但奏無絃琴.]”라고 하였다. 銘은 한문문체의 하나이다. 銘은 금석·기물·비석 같은 데에 자신을 경계하기 위한 글, 남의 공적을 祝頌하는 글, 사물의 내력을 기록한 글, 고인의 일생을 적은 글을 새겨 넣은 것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형식은 운문으로서 대개 격구로 압운이 되어 있다. 자수는 대부분 4言이나, 간혹 3言·5言·7言 또는 잡체로 넘나드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명은 金富軾의 <兜率院鐘銘>이며, 金弼溪가撰한 <聖德王神鐘銘>, 權近의 <鑄鐘銘> 등이 대표적이다.

206) 백아(伯牙) : 중국 춘추시대 때 거문고의 달인으로 ‘伯牙絕絃’의 고사로 유명하다.(『列子』, <湯問>.)

207) 일곱 구멍이 ~ 죽지 않았네 : 자연은 인간에게 무한한 혜택을 주지만, 인간은 이에 순응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이는 인위적인 개발이 안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고이다. [南海之帝爲儻, 北海之帝爲忽. (中略) 人各有七竅, 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渾沌死.] (『莊子』, 內篇, <應帝王篇 - 混沌七竅>.)

사물이 사물과 사귀는데²⁰⁸⁾
 어찌 그 뜻을 알겠는가.
 텅 비어 있는 북창에
 한 단락 우조(右調)²⁰⁹⁾라네.
 너를 아는 사람 드무니
 누가 그 미묘함을 알랴.

物交於物
 焉得其趣
 枵然北牕
 一段右調
 知爾者希
 孰識其妙

-
- 208) 사물이 사물과 사귀는데 : 孟子가 말하였다. “이목의 기관은 생각하지 못하여 외물에 가리니, 외물에 접촉되면 거기에 끌려갈 뿐이다.’ [耳目之官, 不思而蔽於物. 物交物則, 引之而已矣.]”(『孟子』, <告子 上>.)
- 209) 우조(右調) : 『樂學軌範』에서 밝힌 거문고와 가야금 따위의 높은 조. 평조와 계면조에 각 7조가 있었는데 四指, 五指, 六指, 七指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문맥상 ‘右’를 ‘古’의 誤記로 보아 古調, 즉 옛날부터 전해 오는 가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이는 한국고전번역원에서도 ‘右’를 ‘古’의 誤記로 보았다.

○ 송
[頌]

· 여러 해 풍년을 칭송하다²¹⁰⁾
[屢豐年頌]

신(臣)은 “어그러진 기운은 괴이함을 불러오고, 화평한 기운은 상서로움을 불러온다.²¹¹⁾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보시고, 하늘은 우리 백성들이 듣는 것을 통해서 들으십니다.²¹²⁾ 상(商)나라의 죄가 가득 차²¹³⁾ 왕실이 마치 불타는 듯하여²¹⁴⁾ 사나운 정사로 위엄을 베풀어 여러 형벌을 받은 자들이 바야흐로 무고(無辜)함을 상천(上天)에 하소연하였습니다.²¹⁵⁾ 그러므로 하늘이 은(殷)나라를 버리려고²¹⁶⁾ 편안한 음식을 주지 않고, 아울러 나라에 있어서²¹⁷⁾ 기근을 거듭 이르게 하였습니다.²¹⁸⁾ 우리 주왕(周王)이 백성들을 잘 계승하고 능히 덕(德)으로써 그것을 감당하여 신(神)과 하늘을 주장할 수 있게 되었고²¹⁹⁾, 유독 범부(凡夫. 紂王)만을 참수하니, 회전(會戰)하던 그날 아침은 청명하였습니다.²²⁰⁾”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로운 이를 제거하고 백성을 편안히 한 공이 진실로 술을 빚은 때 충분히 편안하여 잔치가 황제에게 미치고 아름다운 상서가 이르니, 해마다 풍년이 드는 일이 우연이겠습니까? 사람의 일은 여기서 감동하고, 재앙과 상서로운 일은 거기에서

210) 송(頌) : 한문 문체의 하나이다. 본래 『詩經』에서 비롯된 하나의 시 형식이다. 『詩經』의 六義 가운데 여섯 번째에 위치하고 있다. 頌의 형식은 산문을 쓰거나 韻語를 쓴다. 그러나 頌이 본래 『詩經』에서 출발한 것이므로 운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正體는 동편이 4言體이고, 격구 압운이라는 형식을 취한다. 『동문선』에는 <洛山觀音腹藏修補文并頌>, <聖皇朝享太廟頌>, <集賢殿藏書閣頌> 등 8편의 頌이 실려 있다.

211) “和氣致祥, 乖氣致災.”(『後漢書』.)

212) 원문에는 ‘天視天聽, 自我民聽.’으로 되어 있으나, 『書經』 원전 “天視自我民視, 天聽自我民聽.”(『書經』, <周書·太甲 中>.)을 따라 국역하였다.

213) “商罪貫盈.”(『書經』, <周書·泰誓 上>.)

214) “王室如燬.”(『詩經』, <周南·汝墳>.)

215) “虐威庶戮, 方告無辜于上.”(『書經』, <周書·呂刑 29章>.)

216) 원문의 ‘故天棄殷’은 『書經』 원전에는 “故天棄我”(『書經』, <商書·西伯戡黎>.)이나, 원문을 따라 국역하였다.

217) “竝其有邦.”(『書經』, <周書·太甲 中>.)

218) “不有康食, 饑饉荐臻也.”(『書經』, <商書·西伯戡黎 3章>.)

219) “惟我周王, 靈承于旅, 克堪用德, 惟典神天.”(『書經』, <周書·多方>.)

220) 원문의 ‘獨夫授首, 會朝清明.’는 『詩經』 원전에 “肆伐大商, 會朝清明.”(『詩經』, <大雅·文王之什·大明>.)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을 따라 국역하였다.

대응합니다. 주(紂)왕이 악을 고치지 않고²²¹⁾ 내가 천명에 순종하지 않으면, 곧 그 죄가 무거워 서토(西土)의 백성들이 굶주림을 걱정합니다. 천벌을 공손히 시행하여²²²⁾ 저 흉악하고 잔학함을 다스린다면, 곧 모든 나라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밝고 밝은) 상제가 풍년을 내려줄 것입니다.²²³⁾ 그렇다면 백성을 은혜롭게 하는 것은 하늘이요, 하늘을 받드는 것은 임금입니다. 하늘보다 먼저 하여도 하늘이 이를 어기지 않습니다.²²⁴⁾ 그러므로 중화(中和)의 도를 극진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여 만물이 생육됩니다.²²⁵⁾ 하늘보다 뒤에 하여도 천시를 받듭니다.²²⁶⁾ 그러므로 여러 법을 받아들여 황극(皇極)을 세우면,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여 아름다운 상서가 이어집니다.²²⁷⁾ 우리 백성을 부유한 데에 모아놓고, 이 세상을 태평하고 화락한 지역으로 교화시키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옛날에 성탕(成湯)이 하(夏)나라를 혁신할 때, 학정을 관용으로 대신하였으나, 7년의 가뭄²²⁸⁾으로 여전히 걸(桀)왕의 뒤에 남아 있는 해로운 요소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니, 이것은 곧 진실로 전쟁의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왕의 덕이 잔악함을 이기고 살인을 버려²²⁹⁾ 사람들은 아래에서 화목하고, 하늘은 위에서 감응하여 협조하는 기운이 두루 통하고, 풍년의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나 큰 은혜가 사해(四海)를 덮어 탕(湯)임금보다 빛이 있습니다.²³⁰⁾ 이 어찌 백성만 먹을 것이 풍족하고 즐겁게 지내고²³¹⁾ 죽간(竹簡)을 빗내고 마는 일이 되겠습니까? 이를 시와 음악으로 전(傳)하여 맑고 깨끗한 종묘에 고(告)하고, 우리 왕의 비할 데 없는 공렬을 밝혀야 합니다.

221) “紂惡不悛.”(『書經』, <商書·西伯戡黎>.)

222) “恭行天罰.”(『書經』, <周書·泰誓 下>.)

223) 원문 ‘上帝迄用康年.’은 『詩經』 원전에 “明昭上帝, 迄用康年.”(『詩經』, <周頌·臣工之什·臣工 1 章 - 勸農官>.)으로 되어 있으나, 원문을 따라 국역하였다.

224) “先天而天不違”(『周易』, 乾卦.)

225)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中庸』, 第1章.)

226) “後天而奉天時”(『周易』, 乾卦.)

227) “襲于休祥.”(『書經』, <周書·泰誓 中>.)

228) 7년의 가뭄 : “湯有七年之旱, 太史占之曰: 當以人禱.”(『夜航船』 卷1)

229) 우리 왕의 ~ 살인을 버려 : 孔子가 말하였다. “착한 사람이 나라를 백 년 동안 다스린다면, 또한 잔악함을 이길 수 있고 죽임을 없앨 것이다. 라고 하니, 옳구나, 이 말이여. [善人, 爲邦百年, 亦可以勝殘去殺矣. 誠哉, 是言也.]”(『論語』, <子路>.)

230) 탕(湯) 임금에게도 ~ 있을 것입니다 : <太誓>에서 말하였다. “우리가 무위를 드높여 은나라를 침범 하였다. 저 잔악한 폭군을 주살하여 우리 공적이 드넓게 펼쳐지니, 이것은 탕 임금에게 광휘를 안겨주는 일이다. [我武惟揚, 侵于之疆則取于殘, 殺伐用張, 于湯有光.]”(『孟子』, <滕文公章句 下> 5~8章.)

231) 지내고: 舍哺는 舍哺鼓腹의 준말이다. 잔뜩 먹고 배를 두드린다는 뜻으로, 먹을 것이 풍족하여 즐겁게 지냄을 이르는 말이다.

신(臣) 아무개는 삼가 손을 모아 머리를 조아리고 칭송하는 글을 올립니다.

臣聞“乖氣致異，和氣致祥. 天視天聽，自我民焉. 商罪貫盈，王室如燬，虐威庶戮，方告無辜于上. 故天棄殷，不有康食，竝其有邦，饑饉荐臻. 惟我周王，靈承于旅，克堪用德，惟典神天，而獨夫授首，會朝清明.” 其除害安民之功，固足以醞釀時康，燕及皇天，而休祥之至，屢獲豐登，豈偶然哉？人事感於此，災祥應於彼. 紂惡不悛，而予不順天，則厥罪惟鈞，而西土惟時阻飢，恭行天罰，而取彼凶殘，則萬邦綏定，而上帝迄用康年. 然則惠民者天；奉天者辟. 先天而天不違. 故致中和而得位育；後天而奉天時. 故受多方而建皇極，天人感應，襲于休祥. 囿吾民於既富之中，陶斯世於泰和之域者，爲如何哉？昔者，成湯革夏，代虐以寬，而七年之旱，猶未免桀之餘烈，則信乎軍旅之後，必有凶年. 而我王之德，勝殘去殺，人和於下，天應於上，協氣旁通，豐年效瑞，大賚四海，于湯有光者. 豈特含哺斯民，焜耀竹簡而已哉？是宜播之聲詩，告于清廟，用昭我皇無競之烈. 臣某謹拜手稽首而獻頌曰：

아! 아름다워라 주(周)나라여! ²³²⁾	於皇時周
대대로 밝은 임금 있어	世有哲后
쌀알 같은 우리 백성들이	粒我烝民
이미 많고도 부자이나	既庶且富
상(商)나라 수(受) ²³³⁾ 가 무도하여	商受無道
독(毒)이 구주(九州)에 퍼져 있네.	流毒九有
사나운 불꽃이 미치는 곳마다	虐焰所暨
귀신은 성내고 백성은 원망하니	神怒民怨
상제가 착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²³⁴⁾	帝用不臧
기근(饑饉)을 내려 망하게 하였네. ²³⁵⁾	降喪饑饉
덕이 있는 사람을 두루 구하여	眷求有德
이에 우리 왕을 생각하니	時惟我王
아! 밝으신 우리 왕이	於昭我王

232) 『詩經』, <周頌·閔予小子之什·般 1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於皇時周，陟其高山. 隨山喬嶽，允猶翕河. 敷天之下，哀時之對. 時周之命.”(『詩經』.)

233) 수(受) :殷나라 마지막 폭군의 이름이다.

234) “帝用不臧.”(『書經』, <商書·仲虺之誥 3章>.)

235) 『詩經』, <小雅·祈父之什·雨無正 1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浩浩昊天，不駿其德. 降喪饑饉，斬伐四國. 旻天疾威，弗慮弗圖. 舍彼有罪，既伏其辜. 若此無罪，淪胥以鋪.”(『詩經』.)

천명을 크게 받으셨네.
 은(殷)나라를 이기고 살상을 막아주어²³⁶⁾
 은 나라가 마음에 새겨두고 잊지 않고
 왕을 바꾸지 않으니
 상제의 흠명(欽命)이네.
 어그러진 기운을 없애고
 지극한 인(仁)을 만들어
 태화(泰和)가 모인 곳에
 아름다운 상서가 자주 이르네.
 그 상서가 이 무엇인가
 실상으로 오곡(五穀)이 잘 여물음이니
 오! 황제여 우리 곡식이
 지붕처럼 쌓이고 다리처럼 쌓였네.²³⁷⁾
 우리 백성이 은혜를 받아
 격양가(擊壤歌)²³⁸⁾로 즐겨 노니
 누가 배부르지 않고 굶주리며
 누가 옷이 없어 추우랴!
 옷과 음식²³⁹⁾이
 풍년이니 우리의 태평이오.
 농부의 경사는
 우리 왕의 강녕(康寧)일세.
 우리 왕의 덕행은
 상천과 짝하여 뒤처짐이 없고
 홍수가 나를 깨우쳐 주니
 순(舜)임금은 백성의 곤궁과 기아를 걱정하네.²⁴⁰⁾

受命溥將
 勝殷遏劉
 萬邦宅心
 不易惟王
 上帝是欽
 消除戾氣
 醞釀至仁
 泰和攸鍾
 休祥屢臻
 其祥伊何
 實惟豐穰
 於皇我稼
 如茨如梁
 吾民受賜
 擊壤戲嬉
 孰飢不飽
 孰寒無衣
 絲身穀腹
 登我太平
 農夫之慶
 我王以寧
 我王之德
 配天罔隙
 逢水警予
 舜憂阻飢

236) 『詩經』 <周頌·閔予小子之什·閔予小子>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於皇武王，無競維烈。允文文王，克開厥後。嗣武受之，勝殷遏劉，耆定爾功。<周頌·閔予小子之什·閔予小子>”(『詩經』.)

237) 『詩經』, <小雅·甫田之什·甫田 4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曾孫之稼，如茨如梁。曾孫之庾，如坻如京。乃求千斯倉，乃求萬斯箱。黍稷稻粱，農夫之慶。報以介福，萬壽無疆。”(『詩經』.)

238) 격양가(擊壤歌) : 풍년이 들어 농부가 태평한 세월을 즐기는 노래. 땅을 두드리며 부르는 노래라는 뜻으로, 중국 唐堯 때 지어졌다고 한다.

239) 옷과 음식 : 몸을 가리는 실과 배를 채우는 곡식이라는 뜻으로, 입는 것과 먹는 것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상림(桑林)에서 자책하며 ²⁴¹⁾	桑林自責
탕(湯)임금은 오랜 가뭄을 괴로워하니	湯苦久旱
재앙이 변하여 상서로운 일이 되고	轉災爲祥
오랜 근심을 끝냈네.	終古攸患
이에 오늘 같은 날	乃如今日
진실로 창성한 시기 되고	允爲昌期
큰 감화에 맞추어지니	手調亢化
묵묵히 깊고 묘한 이치를 운행하네.	默運玄機
상서로운 일이 어찌 징조가 없으랴	祥豈無徵
하늘은 응당 치우치지 않으니	天應不頗
아름답고 훌륭한 왕이	於赫皇王
복을 받음이 많지 않겠는가. ²⁴²⁾	受福不那
천 년 만 년 ²⁴³⁾	萬有千歲
온갖 복을 어찌하랴. ²⁴⁴⁾	百祿是何

240) 순(舜)임금은 백성의 ~ 기아를 걱정하네 : 순임금이 말하였다. “기아, 백성들이 곤궁하고 굶주리므로 너를 후직으로 삼으니, 철에 맞게 백곡을 파종하게 하라. [棄, 黎民阻飢 汝后稷, 播時百穀.]”(『書經』, <虞書·舜典>.)

241) 상림(桑林)에서 자책하며 : 탕 임금은 7년 간 가뭄이 계속되자 桑林에서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일로 자책하였다. “政不節歟, 民失職歟, 宮室崇歟, 女謁盛歟, 苞名行歟, 讒夫昌歟.”(『十八史略』 卷1)

242) 『詩經』 <小雅·桑扈之什·桑扈 3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之屏之翰, 百辟爲憲. 不戢不難, 受福不那.”(『詩經』.)

243) 『詩經』, <魯頌·閟宮 5章>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公車千乘, 朱英綠縵, 二矛重弓. 公徒三萬, 貝冑朱綬, 烝徒增增. 戎狄是膺, 荊舒是懲, 則莫我敢承. 俾爾昌而熾, 俾爾壽而富, 黃髮台背. 壽胥與試, 俾爾昌而大, 俾爾耆而艾, 萬有千歲, 眉壽無有害.”(『詩經』.)

244) 『詩經』, <商頌·玄鳥>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天命玄鳥, 降而生商, 宅殷土芒芒, 古帝命武湯, 正域彼四方. 方命厥后, 奄有九有, 商之先后, 受命不殆, 在武丁孫子. 邦畿千里, 維民所止, 肇域彼四海. 四海來假, 來假祁祁, 景員維河. 殷受命咸宜, 百祿是何.”(『詩經』.)

○ 변
[辨]

· 한유와 유종원의 사관에 대한 논의의 변²⁴⁵⁾
[韓·柳論史辨]

한유(韓愈)²⁴⁶⁾는 도학이 뛰어난 사람이고, 유종원(柳宗元)²⁴⁷⁾은 문장이 뛰어난 사람이다. 말을 하면 꼭 도리에 맞게 하는 사람은 한유가 마땅하지만 유종원은 마땅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사관(史官)²⁴⁸⁾에 관하여 논의한 글을 살펴보면, 한유의 말은 그른데 가깝고 유종원의 말은 옳은데 가까우니, 장차 무엇을 가지고 절충할 수 있겠는가?

대저 사관(史官)은 당시의 정사(政事)나 사람의 일을 기록할 뿐이다. 그러므로 기록한 것 가운데 일의 시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어렵다. 정상(情狀)과 증거가 진실한 것은 글로 의심할 수 없으나, 흉내 낸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들은 일에서 나왔으니, 다 믿을 수 없다. 만약 숨기고 쓰지 않았다면 곧은 기록이 아니요, 높이 치켜들어 썼다면 잘못된 기록이다.

둘에 깎인 곳은 오히려 갈 수 있고 쇠가 뾰족한 곳은 오히려 깎을 수 있으나, 사관(史官)이 쓴 바는 수시로 고칠 수 없다. 진실로 기록한 일이 사실이면,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이 없고 성인을 기다려도 의혹함이 없다. 그렇지 않으면, 선악이 섞이고 시비가 전도(顛倒)되어 위로 하늘 거울의 심(甚)히 밝음을 속임이요. 아래로 사람 원망의

245) 변(辨) : 한문 문체의 하나이다. 辨은 ‘판별한다.’의 뜻으로 시비를 가려서 참되고 거짓됨을 판별하는 목적으로 쓴 글이다. 우리나라에서의 주요작품에는 李奎報의 <狂辨>, 李穡의 <辭辨>, 鄭道傳의 <佛氏雜辨>, 李廷龜의 <辨誣奏>가 있다.

246) 한유(韓愈) : 韓愈(768~824)는 중국 唐을 대표하는 문장가·정치가·사상가이다. 唐宋八大家의 한 사람으로 字는 退之, 호는 昌黎이며 시호는 文公이다. 저서로는 『韓昌黎集』 40卷과 『外集』 10卷이 있으며, 아울러 <原道>·<原性> 등과 같은 주요 논문이 있다.

247) 유종원(柳宗元) : 柳宗元(773~819)의 異名은 柳河東, 字는 子厚, 하동해 사람이다. 유종원의 <山水遊記>는 널리 알려져 있는데, 특히 경물의 특징을 묘사하는 데 뛰어났다. <永州八記> 가운데 <鉅鉞潭西小丘記>는 돌을, <小石潭記>는 담수어를, <袁家渴記>는 초목을 묘사했는데, 서로 다른 각각의 사물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그밖에 <種樹郭橐駝傳>·<捕蛇者說>·<三戒>·<蝥螋傳>·<柳河東集> 등이 있다.

248) 원문 “史” 字의 字解는 다음과 같다. ① ‘사관’의 뜻으로 제왕의 언행을 기록하며, 또 정부의 문서를 맡은 벼슬아치를 말한다. “動則左史書之, 言則右史書之.”(『禮記』.) ② ‘속관’의 뜻으로 長官 밑에 딸린 벼슬아치. 六官의 佐屬을 말한다. “既立之監, 或佐之史.”(『詩經』.) ③ 史乘. 歷史. 事實의 뜻이다. “紬史記石室金匱之書.”(『史記』.) ④ ‘화사하다’의 의미로 장식이 있어 아름답다. “文勝質則史.”(『論語』.) ⑤ 성씨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史’의 자해를 ‘사관’의 뜻으로 보고 국역하였다.

봉기를 모으게 된다. 이로써 미루어보면 ‘하늘의 형벌’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옳고, ‘사람의 재앙’이 있다고 말하더라도 옳을 것이다.

천하 고금에 사관(史官)이 된 자(者)가 누가 공평한 마음과 직필로 임무를 삼지 않겠는가? 그러나 애매모호한 일에 이르면, 한갓 이목(耳目)의 주도면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하여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기록하는데 급박하여 변별을 기다린 이후에 쓸 겨를이 없게 된다. 이러한 직임을 한 달 동안 맡으면 한 달 동안의 기록한 내용이 모두 이와 같고, 한 해를 맡으면 한 해 동안의 기록한 내용이 또한 이와 같다. 이러한 직임에 오랫동안 있어서 오래 동안 이처럼 애매모호한 일을 기록하면, 곧 하늘을 우러러 보고 땅을 굽어보아 이승에서는 반드시 사람들의 비난이 따르고, 저승에서는 귀신들의 책망이 따를 것이다. 저 좌구명(左丘明)의 소맹(小盲)과 범엽(范曄)의 죽음과 같은 일²⁴⁹)은 어떻게 이를 알고 응대(應對)하였겠는가? 이것이 (사관(史官)의 일에) 밝은 사람일지라도 천하의 이치를 말하지 않으면, 다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렵구나! 사관(史官)의 직임이여. 시비가 명백한 사람이 천 사람의 일을 날마다 기록하였을지라도 나는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 그 애매모호함을 기록한 일에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는가? 이점이 한유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 이유이다.

도학에 밝은 한유가 어찌 사관(史官)의 중대함을 알지 못하여 이처럼 단연코 끊고 자 하였겠는가? 이것을 말한 까닭은 귀신의 화복을 중요하게 여김이 아니요, 바로 애매모호함을 중히 여긴 이유이다. 아마도 애매모호함을 중히 여긴 이유는 사관(史官)을 때

249) 좌구명(左丘明)의 소맹(小盲)과 범엽(范曄)의 죽음과 같은 일 : 左丘明의 눈이 멀고 范曄이 죽음을 당한 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柳宗元이 韓愈에게 보낸 <與韓愈論史官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孔子가 魯·衛·陳·宋·蔡·齊·楚 등의 나라에서 곤경에 처했던 이유는 그 시대가 암울했고 諸侯들이 孔子를 등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孔子가 불우하게 죽은 이유 또한 『春秋』를 저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는 비록 『春秋』를 저술하지 않았더라도 孔子는 역시 도를 펼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周公이나 史佚 같은 사람들은 비록 말을 기록하고 사건을 서술하였으나 오히려 좋은 기회를 만나고 현달했습니다. 이로 볼 때 역시 『春秋』를 저술한 것이 孔子에게 누가 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范曄은 반란을 피했으니 비록 역사를 저술하지 않았다 해도 그의 집안은 멸족 당했을 것입니다. 司馬遷은 천자의 비위를 건드려 노여움을 샀고, 班固는 아랫사람을 단속하지 않았고, 崔浩는 자기의 정직을 과시하여 포악한 오랑캐와 다투었으니, 이는 모두 中道가 아닙니다. 左丘明은 병으로 눈이 멀었으니, 이는 불행한 운명 때문입니다. 子夏는 역사를 저술하지 않았어도 눈이 멀었으니, 이것을 가지고 경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 나머지도 모두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孔子之困于魯衛陳宋蔡齊楚者, 其時暗, 諸侯不能以也. 其不遇而死, 不以作春秋故也, 當其時, 雖不作春秋, 孔子猶不遇而死也. 若周公史佚, 雖紀言書事, 猶遇且顯也, 又不得以春秋爲孔子累. 范曄悖亂, 雖不爲史, 其族亦赤. 司馬遷觸天子喜怒, 班固不檢下, 崔浩沽其直, 以鬪暴虜, 皆非中道. 左丘明以疾盲, 出於不幸. 子夏不爲史亦盲, 不可以是爲戒. 其餘皆不出此.]”(『唐宋八大家文抄』, <與韓愈論史官書> 참조.) 한편 范曄(398~445)의 죽음은 445년(元嘉22년) 彭城王 劉義康(409~451)의 謀叛에 참여했다가 처형된 사건을 말하며, 이로 인하여서 范曄은 『後漢書』의 ‘志’ 부분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했다.

우 중대하게 여긴 까닭에서였을 것이다.

유종원은 한유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이것을) 깊이 끊으려 하였으니, 유종원의 말이 비록 옳으나 나는 옳다고 말하지 않고, 한유의 말이 비록 그르나 나는 그르다고 말하지 않는다. 어떻게 유종원은 고집스럽다고 하고 한유를 잘못하였다고 하겠는가?

韓子, 道學勝者也; 柳子, 文章勝者也. 言必有中者, 宜韓而不宜柳也. 而今觀論史之書, 則韓之言近非; 柳之言近是, 將何以折衷之? 夫史者, 記時政人事而已. 所記之中, 事之是非, 最難明者也. 情迹之眞實者, 可以書之不疑, 至於似者, 則傳聞所出, 不可盡信. 若沒而不書, 則非直史也; 揭而書之, 則是誤史也. 石之所刻, 猶可磨也; 金之所鑄, 猶可削也, 史之所書, 無時改也. 苟其錄也實, 則可以質諸鬼神而無疑, 俟諸聖人而不惑. 不然, 是善惡渾淆, 是非顛倒, 上欺天鑑之孔昭; 下聚人怨之蜂起. 以此推之, 則雖曰有‘天刑’, 可也; 雖曰有‘人禍’, 可也. 古今天下, 爲史者, 孰不以公心直筆爲務? 而至於疑似之事, 則莫不非徒耳目之有所未周, 加之以迫於庶事之多記, 無暇待辨之明而後書. 居此任一月, 則一月之所記, 皆如是也; 一年則一年之所記, 亦如是也. 久居此任, 而長記如是之疑似, 則俯仰天地, 明必有人非, 幽必有鬼責. 彼如左丘明之盲, 范曄之誅, 安知以是而應之乎? 此雖明者, 所不道天下之理, 不可盡知矣. 難矣哉! 史之任也. 是非之明白者, 雖日記千人之事, 吾不可以回心也. 其於書疑似也, 心可安乎? 此韓子之所以是言也. 以韓子道學之明, 而豈不知史之爲重, 而如是斷然欲絕之乎? 所以言此者, 非所以重鬼神之禍福, 乃所以重疑似者也. 其所以重疑似者, 所以深重史也. 柳子不知韓子之意, 而有深折之, 柳之言雖是, 而吾不曰是也; 韓之言雖非, 而吾不曰非也. 烏可膠柳而疵韓?

○ 시 [詩]

1.01. 화표주²⁵⁰) 7언 고풍

[華表柱 七言古風]

군명지(昆明池) 겁회(劫灰)²⁵¹) 날아온 지 오래되니

昆明劫灰飛已久

250) 화표주 : 요동에 있었다는 길거리의 表木을 가리키는 말이다. 요동 사람 丁令威가 仙道를 배워 터득한 뒤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고향 땅에 돌아와서 華表柱에 앉아 있다가 탄식하며 날아갔다는 전설이 있다.(『搜神後記』卷1)

낙양(洛陽)의 구리 낙타를 가지발 속에서²⁵²⁾ 보네.
 오래된 유물 화표주(華表柱) 천지에 홀로 남아
 천 년 만 년 요동(遼東)의 저자를 지키고 있네.
 돌아온다는 학의 말을 믿지 못하니
 다만 보이는 건 펄럭이는 하얀 두 깃.
 머리 들어도 옛적 사람을 만나지 못하니
 누가 전신(前身)이 정씨(丁氏)²⁵³⁾임을 알라.
 의연(依然)히 집 떠나는 날을 기억하니
 황량하고 오래된 성곽만 눈에 가득하네.
 다닥다닥 개미집 슬퍼하지 마라
 언덕의 흩은 천지에 무궁하다네.
 어지럽게 날아가고 또 날아오니
 한 순간 속세의 인연 끊지 못해 괴롭네.
 훗날 학이 다시 돌아오면 보내지 마라
 요동의 바다는 더럽혀지고 화표주(華表柱) 이미 부러졌네.

洛陽銅駝荊棘裏
 乾坤舊物柱獨在
 千古萬古遼東市
 歸來未信鶴有語
 但見翩翩雙白翎
 舉頭不逢昔時人
 誰識前身猶姓丁
 依然記得去家日
 滿目荒涼城郭故
 壘壘蟻穴不須悲
 天地無窮一丘土
 紛紛飛去又飛來
 一念塵緣苦未絕
 他年莫遣鶴再歸
 遼海成塵柱已折

1.02. 농민을 가엾이 여기다

[憫農]

농가의 구월(九月) 말(末)에는
 갖은 고생 마쳐도 밥이 없네.

農家九月末
 辛苦已無食

251) 겁회(劫灰) : 劫火의 재라는 뜻으로, 재앙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다. 하나의 세계가 끝날 즈음에 겁화가 일어나서 온 세상을 다 불태운다고 하는데, 漢武帝 때 昆明池 밑바닥에서 나온 검은 재에 대하여 인도 승려 竺法蘭이 “바로 그것이 겁회를 당한 재 [劫灰]”라고 대답했다는 고사가 전한다.(『高僧傳』 卷1 <竺法蘭>.)

252) 낙양(洛陽)의 구리 ~ 가지발 속에서 : 나라가 망함을 뜻하는 말이다. 銅駝는 銅으로 만든 駱駝를 말하는데, 東晉 때 索靖이 매우 선견지명이 있어 천하가 곧 어지러워질 것을 예측하고는 洛陽宮門 앞에 서 있는 동타를 가리키면서 “얼마 후에는 가지숲 속에 섰을 너를 보겠구나.” 하며 탄식한 데서 온 말이다.(『晉書』, <索靖傳>.)

253) 정씨(丁氏) : 漢나라 때 遼東사람 丁令威가 靈虛山에서 도를 닦아 신선이 되었는데, 천 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학으로 化하여서 요동에 돌아와 무덤 앞의 華表柱에 앉아 시를 지었다. 그 시에, “새여 새여 정영위여 /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오늘에야 돌아왔네. / 성곽은 의구한데 사람들은 아니로세. / 어찌 신선 아니 배워 무덤이 종종 하는가?”라고 하였다.(『搜神後記』 卷1)

수확하였다고 말하지 마라
 얼굴에 늘 주린 빛이 어려 있으니.
 해를 마치도록 부지런히 일하여도
 몇 번이나 배부를 수 있었는가.
 사또는 추서(推愆)²⁵⁴하는 마음은 적고
 세금 징수에 번다한 기교만 바라네.
 전날에 우리 부세는 없다고 하면서도
 아전은 대문 밖에서 세금을 재촉하네.
 오래 산들 다시 무엇이 좋아지랴
 해마다 이런 일을 만나는데.
 광주리를 메고 북쪽 산에 올라가
 눈을 쓸고 굵은 도토리²⁵⁵를 줍네.
 머리 돌려 고대광실²⁵⁶을 바라보니
 굵어 죽은 뼈가 나를 슬프게 하네.

收穫未云竟
 面有恒飢色
 卒歲勤此力
 能成幾時飽
 縣官少推愆
 征歛煩多巧
 久謂我賦盡
 門外催稅吏
 舊居復何好
 年年遭此事
 荷筐登山北
 掃雪收稼實
 回頭望甲第
 傷我飢死骨

1.03. 산으로 돌아가는 총방²⁵⁷을 전송하며 [送种放還山]

선생의 출처는 소보(巢父)와 허유(許由)를 겸하였고
 지조와 절개는 탐욕스러운 사람을 청렴하게 하였네.
 옛날 종남산에서 배불리 먹고 숨어 살 때
 은근히 조서로 몇 번이나 안부를 물었던가.
 하룻밤 사이에 객성(客星)²⁵⁸이 임금의 자리를 범하였으나

先生出處巢許兼
 志節可使頑夫廉
 終南昔日飽嘉遯
 詔書慙慙幾存問
 一夜客星犯帝座

254) 추서(推愆) : “推愆及人”의 준말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남에게 까지 미친다는 의미이다.

255) 굵은 도토리 : “稼實”은 굵은 도토리를 말한다.(『東醫寶鑑』.)

256) 고대광실 : “甲第”는 크고 너르게 아주 잘 지은 집을 말한다.

257) 총방 : 种放(955~1015)을 말한다. 중국 宋나라 眞宗 때의 文臣·隱士이다. 終南山에서 은거하다가 工部侍郎 등을 지냈다. 陳搏에게 先天易學의 사상과 河圖洛書의 비결을 전수받아 穆修·李旼·許堅 등에게 전했다. 그는 終南山 豹林谷에 은거하면서 높은 벼슬을 하며 도성과 산성을 왔다 갔다 하였으므로 그를 풍자한 <北山移文>이 전한다.(『宋史』卷457 <隱逸列傳 种放>.)

258) 객성(客星) : 東漢의 隱者인 嚴光을 가리키는 말로, 은자를 뜻하는 말이다.(『後漢書』卷83 <隱

같은 조정에서 모심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하네.	得侍同朝欣共賀
평소 일이 없을 때에도 간쟁하는 일이 괴로운데	時平無事苦諫諍
갑작스런 고관대작은 본성이 아니라네.	儻來軒冕非所性
홀쩍 옷을 털고 황제의 성을 떠나더라도	翩然拂衣辭帝城
화산(華山)의 원숭이와 학은 다투어 맞아주네.	華山猿鶴爭相迎
희이(希夷) ²⁵⁹ 의 운대관(雲臺觀) 속에 들꽃은 향기롭고	希夷觀裏野花香
옥녀의 화분 ²⁶⁰ 아래 가을바람은 서늘하네.	玉女盆下秋風涼
천지를 소요하며 마음대로 한적하게 지내면서	逍遙天地任閑適
세상 밖 무엇이 번거로워 다시 그렇게 바쁘는가. ²⁶¹	物外何煩更忙劇
그대와 맺은 오랜 약속 가면 갈수록 알아지니	去去知君契宿約
충심이 쇠약하고 정의가 얇어진 게 아니네.	不是忠衰情義薄
하물며 지금 임금은 고일지사(高逸之士)를 권면하는데	況今聖明礪高逸
속백(束帛) ²⁶² 의 암혈지사(巖穴之士)를 예우(禮遇)하겠는가.	束帛淺淺禮巖穴
운연(雲煙)처럼 쉬이 늙어가는 빠른 세월을 ²⁶³ 잡으려고 마라	休將白駒老雲煙
나는 그대를 보내고 <歸去來辭> ²⁶⁴ 를 읽으리라.	送子爲讀歸來篇

逸列傳 嚴光>.)

- 259) 희이(希夷) : 宋나라 때의 隱者 陳搏이다. 자가 圖南이고, 호가 希夷先生이다. 40여 년 동안 華山 雲臺觀에 은거하였는데, 한번 잠자면 100여 일 동안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宋史』 卷457 <隱逸列傳 陳搏>.)
- 260) 옥녀분(玉女盆) : 玉女盆은 華山의 정상에 사는 明星玉女가 머리를 감던 물동이 형태의 웅덩이를 말한다. ‘玉女洗頭盆’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는 맑고 푸른 물이 담겨 있으며 가뭄이나 폭우에도 불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고 한다.(『太平廣記』 卷59 <集仙錄>.)
- 261) 천지를 소요하며 ~그렇게 바쁘는가 : 『莊子』 <逍遙遊>의 主旨가 세상의 準칙에 얽매이지 않고 物外와 無爲에 멋대로 거닐어 있다. “物外”는 세속을 초월한 隱士를 뜻하기도 한다.
- 262) 속백(束帛) : 쓰지 않고 묶어 둔 비단을 말한다. 『周易』 賁卦에서는 “구원에 광채가 있으나, 속백을 재단하여 옷을 만들면 아깝기는 하나 끝내는 길하리라. [六五, 賁于丘園, 束帛戔戔, 吝, 終吉.]”(『周易』, 艮山離火 賁卦.)라고 하였다.
- 263) 빠른 세월을 : “白駒過隙”은 인생이 지나가는 것의 빠르기가 문틈으로 흰 말이 지나가는 것을 봄과 같다는 말이다. “人生天地之間, 若白駒之過隙, 忽然而已.”(『莊子』, <知北遊篇>.)
- 264) 귀거래사(歸去來辭) : 중국 晉나라 陶淵明의 대표적 작품이다.

1.04. 질풍이 강한 풀을 안다

[疾風知勁草]

봄이 되어 온갖 풀이 지면을 덮으니
 꽃이 따스한 봄볕을 다투며 만발하네.
 모두가 검푸른 빛인데
 정조와 곧은 절개 누가 알랴.
 하루 밤은 서늘한 회오리바람 소슬히 불어
 남김없이 가지를 꺾고 잎을 시들게 하였네.
 뜰 앞에 풀 한 포기 서 있는 자세를 바꾸지 않고
 높은 지조로 즐거이 서리바람을 맞으며 움직이네.
 벼락의 전율로도 나를 흔들지 못하니
 초연(超然)히 시들어 떨어져도 변하고 쇠약함이 없네.
 못 풀이 돌아보며 모두 수줍어하는데
 하물며 갯버들과 계절을 다투랴.
 세한에도 얼어붙은 날 없이
 바람을 능멸하는 자태 아는 이 없네.
 종래 강한 풀이 스스로 뒤에 마름을²⁶⁵⁾
 봄바람과 온갖 화훼는 속고 속이지 마라.

當春百草蓋地皮
 競向艷陽何紛披
 攢青凝碧渾一色
 貞操直節誰能知
 涼颯蕭瑟一夕至
 枝摧葉萎無復遺
 庭前一草立不改
 高操肯被風霜移
 縱有震凌不我撓
 超然搖落無變衰
 回看衆草摠含羞
 況與蒲柳爭天時
 不有歲寒凝五日
 無人識得凌風姿
 從來勁草自後凋
 春風百卉休相欺

265) 뒤에 마름을 : 추위가 다한 뒤 소나무와 잣나무 잎이 뒤에 마름을 안다는 말로, 군자의 지조를 말한다. “歲寒然後，知松栢之後凋也。”(『論語』, <子罕>.)

1.05. 팔관회²⁶⁶⁾

[八關會]

불교가 일찍이 나라(國中)에 들어오기 전에는	佛敎未入中國前
천 백년이나 천하는 화복하였네.	天地雍穆千百年
불교가 이미 나라(國中)에 들어온 뒤부터는	佛敎已入中國後
국가는 아침에 편안하고 저녁에는 지키지 못했네.	國家朝安暮不守
흥망과 치란(治亂)이 단지 우리에게 달려있는데	興亡治亂只在我
구구(區區)하게 어찌 화복만을 이야기 하랴.	區區邪說能福禍
누가 다시 영명술(永命術)에 나아가려 하면서	何人更進永命術
경(敬)과 덕(德)을 따르지 않고 아침하는 부처를 따르는가.	不由敬德由諂佛
공중에 가로놓인 채봉(彩棚) ²⁶⁷⁾ 은 높이가 다섯 장이나	橫空彩棚高五丈
발을 친 창문에는 등잔불이 밝게 비치네.	簾櫳照耀燈暉晃
밤새도록 범패소리는 우레처럼 울리나	徹夜梵唄如雷吼
흡향하는지 않는지 어슴푸레 보이지 않네.	未見依稀來享否
꼭두각시 온갖 놀이는 나를 교묘히 환각케 하니	傀儡百戲巧幻身
그저 신을 오만하게 여기고 신을 좋아함 아니네.	只是慢神非樂神
하물며 또 죽은 자는 돌아옴을 알지 못하는데 ²⁶⁸⁾	況復死者返冥漠
이미 내가 죽으면 나의 삶이 편안하지 않겠는가.	既不我殺寧我活
신하들 앞에 홀기를 안고 홀로 부끄러움이 없으니	群臣抱笏獨無恥
그 속에서 어찌 한어사(韓御史) ²⁶⁹⁾ 를 알겠는가.	其中安得韓御史
훈도(薰陶) ²⁷⁰⁾ 가 드디어 귀머거리를 이루고	薰陶遂成耳聾者

266) 팔관회 :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속신앙과 불교의 八關齋戒가 결합된 국가적인 행사이다. 高麗의 八關會는 太祖 원년(918) 11월부터 시작되었다. 태조 26년(943)에 발표한 <太祖十訓要> 가운데 제6조에 이르기를, “내가 지극히 원하는 것은 燃燈과 八關이다. (중략) 관은 天靈과 五嶽, 名山大川과 龍神을 섬기기 때문이다. 후세에 간혹한 신하가 加減을 건의하면 일절 금지해야 한다. 내가 당초부터 마음에 맹세하여 會日에는 國忌를 범하지 않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겼으니 마땅히 공경하게 이대로 거행해야 한다.”고 하였다. 때문에 고려 때에 팔관회는 천하의 태평과 군신의 화합을 기원하는 민족적이고도 호국적인 연중행사로 발전하였다.

267) 채봉(彩棚) : (색종이·무늬 있는 비단·소나무가지 따위로) 장식한 假設幕을 말한다.

268) 알지 못하는데 : “冥漠”은 저승으로 無知를 뜻하는 말이다.

269) 한어사(韓御史) : 韓愈는 唐 穆宗때에 兵部侍郎이 되었다가 京兆尹으로 옮겨 御史大夫를 겸하였다. 이를 근거하여 볼 때, “韓御史”는 韓愈를 가리키는 말이다.

270) 훈도(薰陶) : 德義로써 사람을 教化함을 말한다.

재앙이 우리나라에 천 년이나 흘렀네.
아! 기복(祈福)에는 특별한 도가 있는데
사람들은 미혹하여 끝내 알지 못하니 한스러울 뿐이네.
이는 팔관회를 변화시키는 것만 못하니
경서(經書)를 펴고 한 번 우리의 도가 큼을 물어보네.

禍我東方千載下
嗚呼祈福別有道
只恨人迷終不曉
不如變此八關會
橫經一問吾道大

1.06. 하량별²⁷¹⁾

[河梁別]

이역(異域)에서 갇혀 지낸 십구(十九)년²⁷²⁾
고향은 아득히 천 만 리라네.
두 마음이 한 마음 되었으나
오늘 하량(河梁)에서 당신과 헤어지네.
소년의 의기로 형제의 정 맺고
만년에 온갖 고생 도리어 함께 하네.
밭해 가에서 수양을 기르고 먹이며
연산(連山)에서 종기를 붙잡고 피를 마셨네.
두 사람만이 어려움(艱難)을 서로 알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도리어 돌아가고 한 사람은 남아 있네.
나라의 은혜 갚지 못하고 도리어 나라를 등지니
신은 아홉 번 죽을지라도 후회 없네.
잠시 삶을 훔치는 부끄러움을 받아들이고
한 치 풀자리 펴고 임금 은혜 갚고자 하네.
그대는 돌아가 무릉(蘇陵)²⁷³⁾의 묘에 머리 숙여 절하고

異域拘囚十九年
故鄉蒼茫千萬里
二肝腸作一肝腸
今日河梁分與子
少年意氣結兄弟
晚歲辛苦還相同
牧羝啖旃渤海邊
扶瘡飲血連山中
艱難相識只兩人
一人還歸一人在
報國不成反負國
臣雖九死臣未悔
包羞偷得暫時生
欲展寸草酬君恩
君歸稽首武陵墓

271) 하량별(河梁別) : <河梁別>은 李陵의 시인데, 원래 “河梁”은 河水를 건너지른 다리를 말한다. 漢나라 때 이곳에서 李陵이 蘇武와 작별하면서 <河梁別> 시를 썼으므로, 후대에는 이별하는 장소를 뜻하는 말이 되었다.(『漢書』 卷54 <李廣傳>.)

272) 이역(異域)에서 갇혀 ~ 십구(十九)년 : 蘇武는 漢 武帝 때 匈奴에 사신으로 갔다가 19년간 억류되어 온갖 고초를 겪고 귀국하였고, 李陵 역시 한 무제 때에 흉노를 정벌하러 갔다가 패하여 결국 흉노의 單于에게 투항한 뒤 그곳에서 20년간 지내다가 병사하였다.(『漢書』 卷54 <李廣蘇建傳>.)

273) 무릉(武陵) : “武陵”은 漢 武帝 때 충신 蘇武와 李陵 두 장군을 가리킨다.

고신(孤臣)의 천고(千古) 원통을 한번 씻어줄 수 있는가.

一洗孤臣千古冤

1.07. **상사일(274)에 봉산 임시숙소에서** 소 찬성(275)의 시에 차운하다. 이름은 세양이다.

[上巳日 寓宿鳳山 次蘇贊成韻 名世讓]

석양의 길가는 꽃다운 풀이 무성하고
 늘 하늘 끝에서 미혹하게 살아가네.
 하물며 아름다운 절기를 만나 객중에서 지내니
 술을 마셔도 기쁘지 않고 창자는 토하려고 하네.
 멀고 긴 길에서 고향을 돌아보니
 오늘 봄빛은 예전과 다름없네.
 늘그막에 부역의 고통은 배(倍)나 많으나
 소년의 즐거움은 참으로 잠깐이라네.
 남이 번뇌하는 모습에 부질없이 흥청거리고
 새는 맑은 소리를 조롱하니 제비소리만 남아있네
 회계산(會稽山)과 낙수(洛水)는 어디쯤에나 있는지
 눈을 들어도 술잔이 떠 있는 곳은 보이지 않네.
 헛되이 시구만 가지고 봄 풍경에 화답하나
 고향에 가는 길이 천 리 같아 한스럽네.
 변방의 강하는 아득하고 서쪽 길은 요원(遼遠)하니
 어느 때 말 머리 동쪽을 향해 돌아오려나.

萋萋芳草夕陽路
 一向天涯迷去住
 況逢佳節客中過
 對酒無歡腸欲吐
 故園回首隔長途
 今日春光依舊無
 老來行役倍多苦
 少年歡樂真須與
 惱人光景渾謾與
 鳥弄晴聲燕留語
 稽山洛水在何許
 舉眼不見浮觴處
 空將詩句答春風
 恨入家山千里同
 關河杳杳西路永
 馬首何時還向東

274) 상사일 : 음력 3월 첫 巳日을 말한다. 魏나라 이후로는 이 사일을 따지지 않고 음력 3월 3일을 상사일로 정했는데, 삼짱날이라고도 부른다.

275) 소 찬성 : 蘇世讓(1486~1562)을 말한다. 중종 때 문신으로, 본관은 晉州, 자는 彦謙, 호는 陽谷·退齋·退休堂. 시호는 文靖이다. 문명이 높고 律詩에 뛰어났으며, 글씨는 松雪體를 잘 썼다. 그의 유저 『陽谷文集』과 글씨로 '任參贊權碑'와 '蘇世良夫人墓碣'이 있다.

1.08. **안정관**²⁷⁶⁾에서 동 화사 규봉²⁷⁷⁾의 시에 차운하다. 이름은 율이다.

[**安定館** 次董華使圭峯韻 名越]

내 마음도 매달려 있는 기(旗)처럼	我懷如懸旌
바람을 따라 필력이며 불안하네.	隨風飄不定
하물며 이 길은 마을이 요원(遼遠)하고	況茲道里永
하늘의 해는 쉬이 저물어 어두워지네.	天日易昏暝
자못 군막 안에서 논평을 만났으나	頗遭幕中評
일이 있어 괜히 살피지 못하였네.	遇事漫不省
공연히 말 등에 걸터앉아 있으니	空餘跨鞍馬
다시 봄 경치를 마주할 수 없네.	無復對煙景
지난날의 전쟁터 개성(開城)에서는	開城舊征戰
구름 그림자가 흘겨보는 사이에 지나가네.	一瞥過雲影
옛 자취는 물을 곳이 없으니	古跡問無處
가슴속을 씻겨주는 팔병(八餅)의 차 ²⁷⁸⁾ 를 기다리네.	滌胸須八餅
때때로 새로운 시구를 찾으려	時時覓新句
사방을 돌아보며 목을 수고롭게 하네.	四顧勞轉頸
누가 바쁘게 일하는 ²⁷⁹⁾ 날을 알고	誰知鞅掌日
풍류와 운치를 아는 이 ²⁸⁰⁾ 와 함께 하려나.	賞音與之併
나무를 흔들면 부유(蜉蝣) ²⁸¹⁾ 가 웃고	撼樹笑蜉蝣

276) **안정관** : 평안도 順安縣에 있는 **安定館**이다.(『海東歷史』, <朝鮮部>.)

277) **동 화사 규봉** : 董越(1430~1502)을 말한다. 자는 尙矩, 호는 圭峯, 寧都 사람이다. 한림원 시강으로서 1488년에 明帝의 卽位詔書를 가지고 왔다. 그때의 부사는 王敞이었는데 그의 자는 漢英, 호는 竹堂이고 江寧 사람이다. 관직은 工科給事中이었다. 동월은 『征東日錄』, 『朝鮮雜誌』 1卷, 『奉使錄』 1卷, 『朝鮮賦』 1卷 등의 저술이 있고, 그의 시문집으로는 『圭峯文集』 42卷이 있다. 그의 『朝鮮賦』는 우리나라의 風土를 賦의 문체로 서술한 책으로 自註를 곁들였고, 1卷으로 되어 있다.(『殿閣詞林記』.)

278) **팔병(八餅)의 차** : 여덟 덩이의 차로 頭綱八餅茶를 말한다. 仲春 이전에 京師에 도착한 白茶나 勝雪茶 등의 새 차를 頭綱이라고 한다. 蘇軾의 시에서 “상인께서 내가 머뭇대는 뜻을 물어보니 / 팔병의 두강차를 내려 주길 기다려서 그런다네. [上人問我遲留意, 待賜頭綱八餅茶.]”라고 하였다.(『蘇東坡詩集』 卷36 <七年九月……>.)

279) **바쁘게 일하는** : “鞅掌”은 물건을 등에 지고, 또 손에 든다는 뜻으로 바쁘게 일하는 모양을 말한다.

280) **운치를 아는 이** : “賞音”은 풍류와 운치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곧 친구를 말한다.

281) **부유(蜉蝣)** : 하루살잇과에 속하는 잠자리 비슷한 작은 곤충을 말한다. 여름과 가을에 물가에서 떼 지어 나는데 산란 후 수 시간 만에 죽는 하루살이를 말하며, 인생의 덧없음을 비유한 말이다.

종을 치면 한 치 몽둥이만 번거롭네.
 □의 얇도 스스로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붓 끝을 시험하려고 하네.
 공은 한번 씻어내기를 바라고
 나는 의관이 단정함을 바라네.
 마음에 헛되이 근심 있으니
 힘을 다하여도 이를 길 없네.
 베개를 빌려 잠깐 잠을 자는데
 또 사람이 불러 깨었네.

擊鍾煩寸槌
 □識不自量
 猶欲試毫穎
 期公一湔拂
 歛我衣冠整
 有懷徒耿耿
 極力無由騁
 借枕暫成睡
 又被人喚醒

1.09. 가평관²⁸²에서 눈으로 길이 막혀버린 감회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嘉平館 阻雪有感 次蘇贊成韻]

기후가 서쪽 변방과 다르니
 추위와 더위가 계절을 잃었구나.
 저 산에 꽃이 이미 졌는데
 이 땅은 한 자 눈이 쌓였네.
 사철이 각각 평등하게 나뉘었다고
 창려(昌黎)²⁸³는 일찍이 잘못 말하였네.
 문득 음흉한 요기(妖氣)가 성대하니
 따스한 봄별이 도리어 꺾였네.
 구멍(句萌)²⁸⁴이 자생하는 마음을
 뽑고자하나 도리어 싹이 숨어있네.
 하물며 우리가 도중(道中)에 있으니

氣候西塞異
 寒暄失時節
 他山花已落
 此地盈尺雪
 四序各平分
 昌黎曾謬說
 却恐陰沴盛
 春和反摧折
 句萌自生意
 欲抽還藏茁
 況我在中道

282) 가평관 : 평안도 嘉山縣에 있는 嘉平館을 말하는데, 중국 사신들이 오고가는 중요한 역관의 명칭이 ‘嘉平’이라고 이름한데서 유래하였다.

283) 창려(昌黎) : 韓愈(768~824)를 말한다, 唐代의 문장가, 字는 退之이고, 河陽(지금의 河南省 孟縣)人이다. 스스로를 ‘郡望 昌黎’라고 불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韓昌黎’라고 부른다. 저서에는 『昌黎先生集』이 있다.

284) 구멍(句萌) : 草木이 처음 싹트는 모습을 말하는데, 굽어져서 트는 싹을 ‘句’라 하고, 곧게 트는 싹을 ‘萌’이라고 한다.

가는 길이 원활하기를 오래 생각하네.
오직 섬계(剡溪)²⁸⁵의 감흥이 남아
하나같이 더 없이 깨끗하네.
음양은 서로 소멸하고 자라나
상반된듯하나 서로 결정하네.
만약 오래 동안 춥다면
썩 하나 돋았다고 어찌 기이하랴.
훗날 봄과 가을을 이어
대설(大雪)을 삼월(三月)이라고 쓰리라.

永懷行路滑
唯餘剡溪興
一味頗清絕
陰陽互消長
相反如相決
若但十日寒
何異有一薛
他年續春秋
大雪書三月

1.10. 봄 눈 배울 10운 한문공의 시운을 쓰다.

[春雪 排律十韻 用韓文公韻]

어떻게 삼월(三月)의 중반을 알랴
흰 눈이 새로운 노래를 시작하는데.
요기가 남아 있을까 의심나고
봄기운 점점 사라질까 두렵네.
봄에 속아 온전히 기운을 빼앗기고
세상 떠나 허리가 야위어지려하네.²⁸⁶
매화망울에 새어나와
버들가지를 침범하여 누르네.
난정(蘭亭)에서 장차 계(契)를 만들고²⁸⁷
패수(瀾水)에서 문득 다리를 찾으려 하네.²⁸⁸

那知三月半
白雪起新謠
陰沴疑仍在
陽和恐漸消
欺春全奪氣
沒地欲沈腰
漏洩呈梅萼
侵凌壓柳條
蘭亭將作契
瀾水却尋橋

285) 섬계(剡溪) : 중국 절강성에 있는 계곡 이름이다.晉나라 王徽之가 눈 내리는 밤에 불현듯 剡溪에 사는 친구 戴逵를 찾아갔다가 문 앞에서 되돌아왔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다.(『世說新語』, <任誕>.)

286) 허리가 야위어지려하네 : 남북조 시대 梁나라 沈約이 老病으로 허리가 수척해졌는데, 이를 ‘沈腰’라고 하였다.

287) 난정(蘭亭)에서 장차 계(契)를 만들고 : 여기서는 “蘭亭會”를 말한다.晉나라 穆帝 때, 王羲之, 孫綽, 謝安 등 당시의 名士 41명이 蘭亭에서 禊宴을 베풀며 시를 지어 읊던 모임을 말한다. 353년 3월 3일에 열린 이 모임에서 쓴 시를 모아 王羲之가 서문을 쓰고 그 서문을 <蘭亭集序>라고 하였다.

피꼬리는 근심에 젖고
 푸른 숲은 잠깐 흔들리네.
 붉게 타는 노을 어제 보았는데
 오늘 아침 눈이 하얗게 쌓였네.
 꽃다운 흥을 많이 볼 수 없으니
 나그네는 질풍 같은 마음을 금하지 못하네.
 몰래 자리를 만들어 조금씩 술을 마시며
 얇은 비단을 펴고 한가로이 시를 쓰네.²⁸⁹⁾
 아직 하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끝내 내가 넉넉하다고 하지마라.

黃鳥愁沾濕
 靑林乍動搖
 燃紅看昨日
 積素自今朝
 芳興無多見
 羈思不禁飄
 淺樹成密坐
 閑寫展輕綃
 未識天公意
 終然莫我饒

1.11. 여금서옥²⁹⁰⁾의 시권에 쓰다 이름은 분이다.

[書餘金書屋詩卷 名漬]

신년(申年)에 고령(高靈)에서 태어나
 스스로 청구자(淸癯子)라고 불렀네.
 장차 의국(醫局)을 의탁하여 보니
 마음에 누(累) 없음을 귀하게 여겼네.
 나와는 가장 절친한 정으로
 가까운 이웃에서 살았네.
 지금은 재상의 막부를 따라

申生出高靈
 自號淸癯子
 將見托醫局
 所貴心無累
 與我最情親
 居止在隣比
 今隨相公幕

288) 패수(瀾水)에서 문득 ~ 찾으려 하네 : “瀾水橋”는 중국 長安 동쪽에 위치한 다리 이름이다. 孟浩然是 唐나라 襄陽 사람으로 젊었을 때는 鹿門山에 은거하다가 40세 때 長安으로 나와 살았다. 벼슬을 하지 않고 자연의 풍물을 대상으로 시를 지었는데, 興이 일어나면 패수교가에서 나귀를 타고 시를 읊으며 즐겼다 한다.(『新唐書』 卷203 <孟浩然列傳> 및 『史要聚選』 卷6 <文章>.)

289) 몰래 자리를 ~ 시를 쓰네 : 淺樹低唱. 宋나라 때 翰林學士 陶穀이 일찍이 党太尉 집의 기녀를 얻어가지고 定陶에 들러 雪水を 취하여 차를 끓이면서 기녀에게 말하기를, “당 태위의 집에서는 응당 이런 풍류를 모를 것이다.”고 하자, 기녀가 대답하기를, “저 당 태위는 추솔한 사람인데, 어찌 이런 풍류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는 소금장 아래 앉아 조용히 조금씩 술을 음미하면서 미인의 고운 노랫소리를 들으며, 양고미주나 마실 뿐입니다. [彼粗人也, 安有此景, 但能銷金暖帳下, 淺樹低唱, 飲羊羔美酒耳.]”고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宋稗類鈔』.)

290) 여금서옥 : “餘金書屋”은 申漬의 집을 말한다. 申漬은 中宗~宣祖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高靈이다. 典醫監副正을 지냈으며, 篆書를 잘 썼다. 申漬과 관련어는 이외에도 ‘餘金’, ‘餘金老’, ‘餘金老人’, ‘淸癯子’ 등이 있다.

중국사신 맞이하고 보내네.
가서 몇 달 만에 돌아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온갖 고생 다하였네.
분주하여도 권태로운 모습이 없으니
자못 다시 일의 이치를 알았네.
바람이 불어 붓 끝을 희롱하는 때
그대가 자미(子美)²⁹¹임을 더욱 아네.
여금서옥(餘金書屋)의 소문이 남아있고
문전에는 조강(祖江)²⁹²의 물이 흐르네.
나도 파릉(巴陵)²⁹³이 집이니
서로 삼십(三十) 리(里)를 바라보네.
훗날 홀(笏) 던져 버리고
농기구²⁹⁴를 빌릴 만하네.

迎送中朝使
往回幾旬朔
辛苦備終始
奔走無倦態
頗復諳事理
風生弄筆際
益見渠子美
聞有餘金屋
門前祖江水
我亦家巴陵
相望三十里
他年投笏去
可以借耒耜

1.12. 김 선생 언빈에게 주다

[贈金生彥彬]

김 선생은 어찌면 그리도 소박한가
고인을 닮아 마음 또한 고인답네.
주후(肘後)²⁹⁵라는 좋은 처방책 있으니
화(和)²⁹⁶와 편작(扁鵲)²⁹⁷ 아마 조상이겠지.

金生何太朴
貌古心又古
肘後有良方
和扁乃其祖

291) 자미(子美) : 杜甫(712~770)의 자이다. 호는 少陵으로 중국 최고의 시인으로서 詩聖이라 불렸던 盛唐時代의 시인이다. 그의 장편의 古體詩는 주로 사회성을 발휘하였으므로 시로 표현된 역사라는 뜻으로 詩史라도 불린다. 주요 작품에는 <北征>, <秋興> 등이 있다.

292) 조강(祖江) :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 하류 끝의 한강 물줄기를 일컫는 이름이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조강리 앞에 조강나루터가 있었다.

293) 파릉(巴陵) : 중국 岳陽의 옛 地名이나 여기서는 경기도 파주의 옛 이름으로 짐작된다.

294) 농기구 : “耒耜”는 한마루를 삼각형 모양으로 맞추어 소나 말로 끌면서 논밭을 가는 농기구를 말한다.

295) 주후(肘後) : 肘後備急方을 말한다. 處方書의 이름으로 총 8卷으로 되어 있다. 약칭은 肘後方이다. 晋代의 葛洪(281~341)이 저술하여 3세기경에 만들어졌다.(『東洋醫學書』.)

296) 화(和) : 춘추시대 秦나라 良醫 이름이 和이다. “自秋已來，忽爾嬰疹，坐朝既闕，踰旬未瘳。六疾斯侵，萬機多曠，醫和無驗，以至彌留。”(『舊唐書·懿宗紀』.)

297) 편작(扁鵲) : 생물연대 미상. 성은 秦, 이름은 越人이다. 渤海郡(지금의 河北省) 사람이다. “一說

나와 늦그막에 서로 만나
 객지 숙소에서 일을 하였네.
 수 천리를 가 돌아오니
 마음이 슬쩍 드러났네.
 부지런하고 조심하는 성품이 곧 그러하니
 분주하여도 얼굴에 거만한 기색이 없었네.
 나는 본래 글을 잘 쓰지 못하여
 붓을 잡고 어(魚) 자(字)와 노(魯) 자(字)를 혼동하네.²⁹⁸⁾
 시를 이루려고 그대에게 쓰게 하면
 세차게 비바람이 몰아치듯 하였네.
 헤어졌다 만나는 일 어찌 보통이라
 어지러운 구름 흩어지고 모이는데.
 조정에 돌아온 나는 즐거우나
 머물러 있는 그대 고충 많으리.
 훗날 십성당(十省堂)은
 맑은 술 따르고 한번 웃으려네.

與我晚相遇
 從事於旅寓
 往回數千里
 略見肝與腑
 勤謹性則然
 奔走顏無忤
 我本不能書
 下筆混魚魯
 詩成使爾寫
 颯颯生風雨
 離合安可常
 紛紛雲散聚
 還朝我方樂
 留滯爾多苦
 他時十省堂
 一笑傾清醑

1.13. 안락당²⁹⁹⁾의 시권을 제하다 유이손.

[題安樂堂詩卷 柳耳孫]

나는 유(柳)선생의 명성을 들었으나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네.
 생각해보면 세월이 많이 흘러서
 꽃잎처럼 흩날려 지나버렸네.
 개성관(開城館)에서 만나니

我聞柳生名
 而不一相見
 思之歲月多
 飄泊同花片
 邂逅開城館

家於盧國(今山東省長清縣南), 故又稱盧醫. 學醫於長桑君, 醫道精湛, 擅長各科, 行醫時“隨俗爲變”, 在趙爲“帶下醫”, 至周爲“耳目痺醫”, 入秦爲“小兒醫”, 名聞天下.

298) 어(魚) 자(字)와 노(魯) 자(字)를 혼동하네 : “魚魯不辨”의 준말로, 이는 ‘魚’字와 ‘魯’字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몹시 무식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299) 안락당 : “安樂堂”은 柳耳孫의 堂名이다. 이에 대한 근거는 『稗官雜記』에 “耳孫搆有安樂堂, 自稱漢濱之漁翁.”(魚叔權, 『稗官雜記』卷4)이라는 구절이 있다.

오랜 안면으로 정이 깊었네.
무슨 일을 하는지 물으니
어려서부터 붓과 벼루와 친하다고만 하네.
유공권(柳公權)의 서법을 알아
글자마다 백 번의 담금질³⁰⁰로 정밀하게 하였네.
벼슬길에서 빛나는 것은 해로우나
은거하면서도 마음은 승문원³⁰¹을 향하네.
절현(絶絃)³⁰²은 예로부터 슬프니
덕(德)을 안고³⁰³ 스스로 자랑하기 어렵네.
봉록 때문에 벼슬하는 자도 있으니
낮은 벼슬이라고 그대는 천하게 여기지 말라.
그대가 작은 집을 지어
수천 권을 보관한다고 들었네.
여기에서 편안하고 즐거움은
사치생활³⁰⁴ 아니니 난 부럽다네.

情深舊識面
借問何所業
自少親筆硯
書法得公權
字字精百鍊
宦路妨煥赫
陸沈向槐院
絕絃古所悲
抱玉難自銜
仕有爲祿者
卑官君勿賤
聞君構小堂
藏書數千卷
此是安樂地
輕肥非我羨

1.14. 배를 띄우다

[放船]

국경 초제(招提)³⁰⁵에서 자고

一宿招提境

- 300) 백 번의 담금질 : “百鍊”은 노력을 중시하라는 말로, 『詩經』에서는 “정밀한 금은 화로에서 백 번이나 단련되고 / 매화는 매서운 추위를 견여야 맑은 향기가 나네. 精金百鍊出紅爐, 梅經寒苦發清香.”라는 구절이 있다.
- 301) 괴원(槐院) : 중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 쓰이는 吏文의 교육을 담당한 承文院을 槐院이라고 부른다.
- 302) 절현(絶絃) : 伯牙絶絃의 준말로, 伯牙가 거문고 줄을 끊었다는 뜻이다. 진하여 자기를 알아주는 절친한 벗의 죽음을 슬퍼한다는 말이다.
- 303) 덕(德)을 안고 : “抱玉”은 마음속에 지식과 덕성을 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 304) 사치한 생활 : “輕肥”는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옷을 입는다는 뜻으로 부귀한 사람의 사치한 생활을 말한다. “乘肥馬, 衣輕裘.”(『論語』, <雍也> 및 白居易, <輕肥>.)
- 305) 초제(招提) : 拓闢提奢의 준말로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이나 한 곳에 머물지 않는 수행승들이 잠시 쉬어가도록 마련한 절이 바로 四方僧坊이다. 招는 본래 拓이던 것이 쓰는 이의 잘못으로 언제부터인가 招로 읽혀졌다. 『大唐西域求法高僧傳』 上卷의 <法顯傳>에 의하면 인도와 서역에 招提가 있고, 중국에서는 後漢 때에 지은 洛陽의 白馬寺가 본래는 招提寺이다.

돌아오니 이미 한낮이네.
편안히 언덕을 따라 집을 꾸미고
살살 여울 아래로 배를 띄우네.
세상사는 청강(淸江)³⁰⁶ 밖
한가한 정경은 백로주(白鷺洲)³⁰⁷ 가.
삼산(三山)³⁰⁸이 멀지 않아
바로 신선에게 묻고 싶네.

歸來已午天
穩粧緣岸屋
輕放下灘船
世事淸江外
閑情白鷺邊
三山應不遠
直欲問神仙

1.15. 매화를 조문하다

[弔梅]

꽃을 관상하는 말을 찾아 들으니
봉은사(奉恩寺)³⁰⁹ 매화가 으뜸이라네.
가지는 자라 문에 들어오려 하고
향기는 멀리 선방(禪房)으로 살며시 스미네.
얼마나 많은 시인이 읊으며
문득 승사(僧舍)³¹⁰에 애뜻함을 두는가.
다시 찾아와 소식을 물으니
꽃이 진 지 이미 삼년이라네.

聞取看花說
奉恩梅最先
枝長欲入戶
香遠細侵禪
幾被騷人詠
偏有僧舍憐
重來問消息
零落已三年

306) 청강(淸江) : 杜甫의 <江村> 수련에 淸江이 나온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淸江一曲抱村流, 長夏江村事事幽. 自去自來梁上燕, 相親相近水中鷗. 老妻畫紙爲棋局, 稚子敲針作釣鉤. 多病所須唯藥物, 微軀此外更何求.”(『杜律』.)

307) 백로주(白鷺洲) : 중국 江蘇省 江寧縣 서남쪽의 大江 가운데 있는 모래섬의 이름이다. 李白의 <登金陵鳳凰臺> 경련에 나오는데,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鳳凰臺上鳳凰遊, 鳳去臺空江自流. 吳宮花草埋幽徑, 晉代衣冠成古丘. 三山半落青天外, 二水中分白鷺洲. 總爲浮雲能蔽日, 長安不見使人愁.”(李白, <登金陵鳳凰臺>, 『李太白集』 卷20)

308) 삼산(三山) : 중국 전설에 나오는 蓬萊山, 方丈山, 瀛洲山에서 신선이 산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금강산을 봉래산, 지리산을 방장산, 한라산을 영주산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는 전설상 신선이 사는 三山을 말한다.

309) 봉은사(奉恩寺) : 서울 강남구 三成洞 修道山에 있는 절을 말한다. 신라 눌지왕 때 阿度和尙이 세웠다. 1551년 이 절을 禪宗의 首寺刹로, 광릉의 奉先寺는 교종의 수사찰로 삼았으며, 普雨를 주지로 삼아 불교를 중흥하는 중심도량이 되게 하였다. 보우는 1562년에 중종의 능인 靖陵을 宣陵 동쪽으로 옮기고 절을 현 위치로 이전하여 중창하였다.

310) 승사(僧舍) : 승려들이 불상을 모셔 놓고 佛道를 닦으며 教義를 펴는 곳을 말한다.

1.16. 봉은사를 찾아가다

[訪奉恩寺]

강가의 절 찾아가려고	爲訪江邊寺
밧줄을 끌어당기며 급한 여울에 오르네.	牽維上急湍
여울소리는 배 밑에서 오열하고	瀧聲船底咽
물 기운은 밤이 와 차갑네.	水氣夜來寒
숨은 달이 때때로 나와	隱月時時出
먼 산 곳곳이 보이네.	遙山面面看
평생의 마음이 육체에 묶였으나	一生形役累
오늘 은거(隱居)할 곳 ³¹¹ 을 알았네.	今日得盤桓

1.17. 마른 오동나무

[枯梧]

응당 재배하는 뜻이 있으니	栽培應有意
단연코 녹음을 이루었네.	端爲綠成陰
바람서리 다그쳐 괴로운데다가	苦被風霜迫
누의(虻蟻) ³¹² 가 침범하니 견디기 어렵네.	難堪虻蟻侵
먹이를 쫓려는 새는 날아오고	飛來求啄鳥
둥지를 잃은 새는 지나가네.	過去失巢禽
지금 세상에는 지음(知音) ³¹³ 이 적으니	今世知音少
누가 순(舜)임금의 거문고 ³¹⁴ 를 만들랴.	誰裁舜殿琴

311) 은거(隱居)할 곳 : “盤桓”은 어정어정 머뭇거리면서 그 자리에서 멀리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일을 말하나, 여기서는 은거할 곳을 말한다. “考, 成也. 槃, 盤桓之意. 言成其隱處之室也.”(『詩經』, <衛風·考槃>)

312) 누의(虻蟻) : 땅강아지와 개미를 뜻하는데, 여기서는 小人을 비유하는 말이다.

313) 지음(知音) : 마음이 서로 통하는 친한 벗을 이르는 말이다. 거문고의 명인 伯牙가 자기의 거문고 소리를 듣고 樂想을 잘 이해해 준 鐘子期가 죽은 후, 그 소리를 아는 자가 없다고 하여 거문고의 줄을 끊어 버렸다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列子』, <湯問> 및 『呂氏春秋』, <本味>.)

314) 순(舜)임금의 거문고 : 舜殿은 舜임금의 궁전이란 뜻으로, 전하여 대궐을 가리킨다. 舜임금이 일찍이 五絃琴을 처음 만들어 타면서 <南風詩>를 지어 노래했다. “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慍兮.”

1.18. 강가 누각의 이른 아침

[江閣早朝]

나그네는 누각에서 일어나고
 어부는 포구를 돌아 건너오네.
 해가 뜨니 안개는 점점 얇아지나
 보리 적신 이슬 온전하게 맺혔네.
 절로 산새의 즐거움이 있으니
 서로 친밀한 물새가 다가오네.
 강호(江湖)에서 새로 얻은 뜻
 만사(萬事)가 떠도는 진애(塵埃)인걸.

宿客樓中起
 漁人渡口廻
 迎陽煙漸薄
 浥露麥全堆
 自在山禽樂
 相親水鳥來
 江湖新得意
 萬事寄浮埃

1.19. 아우 선소와 언소에게 주다 이름은 서와 병이다.

[呈舍弟善昭彦昭 名曙哂]

형제는 세 곳에 헤어져 살지만
 이 밤에 서로의 마음을 안다네.
 꽃을 따으나 누와 함께 물에 띄울꼬
 술을 얻었으나 잔은 하나뿐이네.
 꿈은 넓은 강물에 떨어지고
 녀은 깊은 국화 길로 돌아가네.
 가을 저녁에 오래 머물며
 월인(越人)의 시름³¹⁵⁾을 길이 부끄러워하네.

兄弟分三處
 相知此夜心
 採花誰共泛
 得酒只孤斟
 夢落滄江闊
 魂歸菊逕深
 淹留秋又暮
 長愧越人吟

南風之時兮，可以阜吾民之財兮。”(『孔子家語』.)

315) 월인(越人)의 시름 : 여기서 “越人”은 월나라 사람 莊烏를 가리킨다. 장석이 楚나라에서 벼슬하여 顯達하였는데 병이 나서 누워 있게 되자, 楚王이 “장석은 예전에 월나라에서 미친한 사람이었는데 지금 초나라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부귀하니 월나라를 생각하지 않겠지.”하며 사람을 시켜 살펴보게 하였더니 여전히 월나라 소리로 앓고 있었다고 한다.(『史記』 卷70 <張儀列傳>.)

1.20. 구름과 달 연지³¹⁶에게 보여준다. 최연.

[雲月 示演之 崔演]

달은 덕이 높은 선비와 같이 고상하여
 출처의 마음을 겸하였네.
 잠시 흠어졌다 모이는 구름으로 인해
 세상의 부침(浮沈)을 배우네.
 외로운 달 숨음은 한스럽지 않으나
 온 나라가 어두움을 근심할 뿐이네.
 마당 가운데 홀로 서니
 애통함이 다시 깊어지네.

高月如高士
 兼存出處心
 暫因雲聚散
 能學世浮沈
 不恨孤輪隱
 惟愁萬國陰
 中庭成獨立
 惆悵到更深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은 자태 있으나
 돌아누운 푸른 달은 무심하네.
 홀연히 스스로 밝은 때에 나와
 도리어 어두운 곳을 따라 잠기네.
 드러나고 어둠 알면
 맑고 흐림도 알리라.
 앉아서 인간사를 헤아리니
 많은 한(恨) 점차 깊어지네.

浮空雲有態
 輒碧月無心
 忽自明時出
 還從暗處沈
 如能知顯晦
 兼亦識晴陰
 坐算人間事
 悠悠恨轉深

1.21. 새로 돌아난 대나무

[新竹]

누가 묵은 뿌리에 있었다고 믿을까
 봄이 오니 송아지 뿔 하나 새로운데.
 뻗뻗하게 감싼 노란 껍질 이미 풀리니

誰信霜根在
 春來一角新
 密苞黃已解

316) 연지 : 崔演(1503~1546)의 字이다. 연산군~명종 때 문신으로, 본관은 江陵, 자는 演之, 호는 良齋이다. 저서로 『良齋集』이 있다. 좌찬성 겸 대제학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文襄이다.

연한 마디가 파랗게 처음으로 돋았네.
 바람 앞에 소리를 얼마나 보내
 세속의 사람 많이 치료하였을까.
 밤비를 미워하지 않고
 함께 정신 수양함을 좋아하네.

嫩節綠初勻
 幾送風前韻
 多醫俗裏人
 不須嫌夜雨
 好與養精神

1.22. 석탄³¹⁷⁾

[石灘]

온조(溫祚) 왕국은 풀이 우거졌으나
 고풍청아(高風清雅)한 곳은 선비의 석탄(石灘)이라네.
 명성은 높는데 돌부처는 부질없이 서 있고
 달이 밝은데 강물은 절로 차갑네.
 한번 죽는 일 또한 무엇이 어렵다고
 요즘 사람 참으로 유달리 어려워하네.
 내가 부자(夫子) 사모함은
 일편단심을 품어서라네.

草舍溫王國
 風清直士灘
 名高石空立
 月白江自寒
 一死亦何有
 今人良獨難
 嗟余慕夫子
 懷此片心丹

1.23. 초가을에 생각이 있어

[新秋有懷]

오늘 게다가 초가을인데
 몸은 자유롭지 못하다네.
 사람을 따라 부질없이 골몰하여
 해를 마치도록 한가롭게 보내지 못하였네.
 이미 일어나 오흥(吳興)³¹⁸⁾에 돌아와서

今日又新秋
 此身難自由
 隨人空汨沒
 卒歲未優游
 已起還吳興

317) 석탄 :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錦江 상류의 여울 이름이다. 참고로 고려시대 正言 李存吾(1341~1371)는 관직에서 물러난 후 만년에 은거하면서 石灘의 풍경과 백제 멸망의 역사를 <石灘行>으로 노래하였다.

어찌 바다에 배를 띄우지 않는가.
 일편단심을 나라에 허락하였으니
 떠나고 싶어도 다시 머물어지네.

寧無泛海舟
 丹心曾許國
 欲去更淹留

1.24. 밤에 일어나

[夜起]

밤에 일어나 무슨 일 걱정하나
 삼년 벼슬아치의 마음이라네.
 남에게 손익 없으니
 세상과 부침(浮沈)할 뿐.
 약석(藥石)³¹⁹은 양의(良醫)보다 심오하고
 기름진 맛은 오랜 병보다 깊네.
 귀뚜라미는 떠나지 않고
 나를 위해 슬픈 시 돕네.

夜起愁何事
 三年仕宦心
 於人無損益
 與世但浮沈
 藥石良醫遠
 膏旨久疾深
 秋蟲不相棄
 爲我助悲吟

1.25. 병이 생기어

[病作]

애초에 원기(元氣)가 시들어
 풍사(風邪)³²⁰가 밖으로부터 침입하네.
 때를 타서 온갖 병이 생기니
 밤새도록 홀이불 안고 자네.
 억지로 견디려는 피를 내나
 전전긍긍하는 마음 난감하네.

元氣初萎爾
 風邪自外侵
 乘時生百病
 終夜擁單衾
 強作支持計
 難堪轉輾心

318) 오흥(吳興) : 趙孟頫의 <江村漁樂圖>에 나오는 강촌의 用事를 가져온 것으로 짐작된다.

319) 약석(藥石) :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주의를 주어서 그것을 고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말을 뜻한다.

320) 풍사(風邪) : 한의학에서 바람이 병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좋은 의원과 좋은 약은
오늘 바로 천금이라네.

良醫與良藥
此日直千金

1.26. 병을 치료하며

[治病]

병을 치료함은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급하게 하려고 하면 어렵다네.
 온갖 욕심 제거하려 마음을 수양하며
 천 알이 넘도록 약을 복용하네.
 진맥으로 차고 뜨거움 점쳐보고
 의원을 불러 마르고 습함 묻네.
 요컨대 원기(元氣)를 굳세게 하면
 몸 하나 편안함 충분하다네.

治病如治國
 爲之急則難
 養心除百欲
 服藥過千丸
 診脈占寒熱
 邀醫問濕乾
 要須元氣壯
 贏得一身安

1.27. 명천³²¹⁾ 가는 길에

[明川道中]

눈바람 몰아치는 변방의 산길
 길 가는 사람은 세모(歲暮) 생각나네.
 몇 번이나 다리 끊어진 곳을 만나
 말이 오는 동안 넘어졌던가.
 힘을 다해 임금의 일에 나아가려고
 달게 여기고 나의 사사로움 버렸네.
 평생 삼감(三監)³²²⁾의 뜻은 없으나

風雪關山道
 征人歲暮思
 幾逢橋斷處
 行到馬顛時
 竭力趨王事
 甘心棄我私
 平生靡監意

321) 명천 : 함경북도 남동부에 있는 明川이다. 명승지로 七寶山, 雙溪寺, 松德寺 등이 있다.

322) 삼감(三監) : 周나라 때 殷나라 遺民들을 통치하던 관직이름이다. 周나라 武王이 은나라 紂를 치고 은나라의 도읍인 朝歌에 紂의 아들인 武庚을 봉해 준 다음 그 땅을 셋으로 나누어 자기 동생인 管叔·蔡叔·霍叔에게 각각 한 지역씩 맡겨 다스리게 했다.

오늘 주시(周詩)³²³를 이었네.

今日續周詩

1.28. 홍원³²⁴ 동헌에 걸린 시에 차운하다

[次洪原東軒韻]

바닷가에 옛 성이 있는데
 동헌(東軒)의 그림자 지고 하늘만 밝네.
 파도물결 하루 종일 세차고
 눈바람은 몇 번이나 개었을까.
 말을 타고 천산 멀리 달려가서
 높은 곳 올라가 평원을 바라보네.
 일찍 대장부 뜻³²⁵을 품고
 아녀자의 마음먹지 않았네.

海邊有古城
 軒影落空明
 波浪長日怒
 風雪幾時晴
 鞍馬千山遠
 登臨一望平
 曾懷四方志
 不作女兒情

1.29. 매화나무를 심고 꽃을 보다

[種梅見花]

매화 심고 잠시도 지나지 않아
 일찍 보통 꽃과 다름을 알았네.
 과정마다 재배하는 힘 다하니
 가랑눈 속에 꽃봉오리 보는구나.
 바람 따라 향기 차가우니
 달그림자 머금고 비껴가네.
 행여 조羹(調羹)³²⁶이 될까 두려워

種梅非造次
 早識異凡花
 課盡栽培力
 看他粉雪葩
 隨風香冷冽
 帶月影橫斜
 只恐調羹物

323) 주시(周詩) : 無邪周詩의 준말로, 『詩經』을 뜻하는 말이다. 孔子는 <魯頌>에 있는 ‘思無邪’라는 한 마디로 『詩經』을 대변할 수 있다고 하였다. “周詩三百篇, 雅麗通訓詁.”(韓愈, <薦士>.)

324) 홍원 : 함경남도 중부에 있는 洪原이다. 명승지로는 松島, 節婦巖 등이 있다.

325) 대장부 뜻 : “四方志”는 옛 풍속에 아들을 낳으면 쭉대 활과 뿔나무 화살로 四方을 보고 쏘는 데, 이는 대장부가 四方의 뜻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鄭知常의 <題登高寺>에서는 “丈夫本有四方志, 吾輩瓠瓜繫此間.”(鄭知常, <題登高寺>.)라고 하였다.

적막한 집에서 나무끼며 떨어지네.

飄零寂寞家

1.30. 뜰에 소나무를 읊다

[詠庭松]

한쪽 뜰에 반송(盤松)이 있는데
 그 사이로 몇 사람이나 앉을까.
 밝은 해가 비치지 않는 그늘에는
 상쾌한 바람이 항상 몸에 배어있네.
 때때로 비바람을 피하니
 걸음마다 신음소리 사라지네.
 여유로운 곳에서 상대하니
 손님 온들 누가 다시 나무라랴.

庭角盤松在
 其間坐幾人
 白日不照地
 清飈常在身
 時時避風雨
 步步費吟呻
 相對有餘處
 客來誰復嗔

1.31. 생각나는 대로 읊다

[謾吟]

어제 비가 오고 오늘 눈이 내리니
 하늘의 마음 누가 알려나.
 하물며 봄이 절반이나 지났으니
 아마도 음기가 왕성한 때인가 보다.
 꽃소식 늦음을 한하지 말고
 양기가 쇠약함을 근심하라.
 낭간(琅玕)³²⁷이 뱃속 가득해도
 단지(丹墀)³²⁸에 바칠 길 없네.

昨雨又今雪
 天心誰則知
 況於春半後
 豈是陰盛時
 不恨花信晚
 惟愁陽氣衰
 琅玕滿腹裏
 無路獻丹墀

326) 조갱(調羹) : “傳說調羹”의 준말로,殷나라 高宗이 傳說을 명하는 말에 ‘단술을 만들면 네가 누룩이 되고, 국을 만들면 네가 염매가 되어 달라’고 하였다.(『書經』, <說命> 下.)

327) 낭간(琅玕) : 중국에서 나오는 질은 녹색, 또는 청록색의 반투명한 翡翠를 이르는 말이다. 장식용으로 많이 쓰인다.

1.32. 동호³²⁹⁾의 배에서 연지에게 보여준다.

[東湖舟中 示演之]

태고(太古)부터 긴 강이 있어
 몇 사람이나 와서 노닐었는지 묻네.
 지금 보면 옛 것 아님이 없는데
 짐짓 새 것이 됨을 어떡하랴.
 당시의 자취 보지 못하니
 훗날 먼지만 부질없이 남기네.
 유유히 처지를 생각하면서
 고개 돌려 수건 적시었네.

萬古長江在
 來遊問幾人
 無非今視昔
 其奈故爲新
 不見當時迹
 空留後日塵
 悠悠懷想地
 回首一沾巾

이로부터 사신이 타니
 원래 격즁인(擊楫人)³³⁰⁾은 아니라네.
 바람이 가늘어 수면 평온하고
 이슬이 차니 달빛도 새롭구나.
 힘들게 자신의 일을 도모하나
 어지럽게 길의 먼지에 덮이네.
 지금부터 속세의 번거로움 벗어나려
 가는 곳마다 오건³³¹⁾을 높게 쓰려네.

自是乘槎客
 元非擊楫人
 風微江面妥
 露冷月華新
 役役營身事
 紛紛染路塵
 從今擺俗累
 隨處岸烏巾

328) 단지(丹墀) : 황제의 御殿 앞에 있는 붉은 돌계단을 말한다. 墀는 섬돌, 층계를 말한다.

329) 동호 : “東湖”는 지금 중랑천과 한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압구정동과 옥수동 사이의 한강지역을 가리킨다. 『新增東國輿地勝覽』 <漢城府>에 “두모포는 도성 동남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東湖라고 한다.”고 하였다.

330) 격즁인(擊楫人) :晉나라의 祖逖이란 사람이 중국의 북쪽 흉노족에게 함락된 것을 수복하려고 군사를 거느리고 강을 건너갈 때에 배에 돛대를 치며 맹세코 적을 격멸하겠다고 하였다.(『晉書』 卷62 <祖逖傳>.)

331) 오건(烏巾) : 벼슬하지 않고 은거하는 자가 쓰는 검은색의 두건을 말한다.

1.33. 남쪽 누각³³²⁾에서 연지에게 보여준다.

[南樓 示演之]

높은 누각에서 끝없이 바라보며
 혼자 있는 때 가장 많네.
 눈에 보인 삼산(三山) 가깝고
 바람이 머문 돛대는 더디네.
 강과 호수는 오늘의 마음
 근심과 즐거움 고인(古人)의 바램.
 동남(東南)의 절승지(絶勝地)에서
 두보(杜甫)의 시 없음을 슬퍼하네.

高樓望不極
 獨立最多時
 眼入三山近
 風留一帆遲
 江湖今日意
 憂樂古人期
 勝絕東南地
 嗟無杜老詩

1.34. 남당³³³⁾의 시에 차운하여 부치다

[寄次南塘韻]

오촌 당숙 진사 엄용순은 자주 과제(科第)를 그만두었다. 이천에서 살았는데, 천성이 효성스러워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두루 지극하였다. 집 아래 연못을 파고 ‘남당’이라고 이름 하였다. 五寸叔進士嚴用順, 屢屈科第. 往居利川, 性孝, 養母備至. 鑿池屋下, 以‘南塘’名之.

한 굽이 맑은 연못가에서
 부모는 날마다 봄이라네.
 아침저녁으로 맛있는 음식을 드리고
 복랍(伏臘)³³⁴⁾에 좋은 때를 만들었네.
 얼음에 뛰는 고기 석 자니
 잔치 열어 백 술잔 따르네.

一曲清池上
 高堂日日春
 晨昏供美味
 伏臘作良辰
 冰躍魚三尺
 筵開酒百巡

332) 남쪽 누각 : “南樓”는 개성 南大門의 門樓를 가리키는 듯하나, 정확한 추정은 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杜甫의 <夏日李公見訪>에는 “가난한 생활은 시골 마을 같고, 후미지긴 성 남쪽 성루와 가깝네. [貧居類村塢, 僻近城南樓.]”라고 하였다.

333) 남당 : “南塘”은 嚴用順(생졸년 미상)의 號이다. 본관은 寧越이다. 1516년 式年試에 생원 진사가 되었다. (『國朝榜目』, 1516년 生員進士榜.)

334) 복랍(伏臘) : “伏臘”은 伏日과 臘日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여기서는 사시사철을 의미한다.

때에 응당 새의 놀이³³⁵)를 마치고
나무에 기대어 자주 책을 읽네.

時應弄雛罷
倚樹讀書頻

포박(抱璞)³³⁶)을 아는 사람 없어
궁벽한 산에서 사십 년.
귀밑머리 세월을 다투고
친구는 삼신(參辰)³³⁷)에 막혔네.
시골 늙은이 술병을 차고 오니
이영처마에 지팡이 찾아 따르네.
앞 연못에 고기 부대를 기르며
먹이를 던져 자주 낚시하여 올리네.

抱璞無人識
窮山四十春
鬢毛爭日月
親舊阻參辰
野老提壺至
茅簷拄杖巡
前池養魚隊
投餌上竿頻

1.35. 고수암에서 쓰다

[題古岫庵]

삼각산³³⁸) 백운봉에 있다.
在三角山白雲峯.

밤에 중흥사(中興寺)에서 자고
아침에 고수암(古岫庵)으로 왔네.

夜宿中興寺
朝來古岫庵

335) 새의 놀이 : “弄雛”는 옛날 楚나라의 孝子인 老萊子가 나이 70세가 되어서 두 아버지를 즐겁게 해 드리기 위하여 어린애처럼 색동옷을 입고 새 새끼를 가지고 장난하고 놀았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336) 포박(抱璞) : 卞和抱璞의 준말로, 卞和氏가 原石을 품고 있다는 뜻의 고사이다.(『史記』 卷81 <廉頗藺相如列傳>.)

337) 삼신(參辰) : 『左傳』 昭公 元年條에, “子產이 叔向에게 말하기를 ‘옛날 高辛氏에게 아들 둘이 있어, 맏아들은 閼伯, 둘째 아들은 實沈으로서 曠林에 살았는데, 서로 의가 좋지 못하였다. 그들은 날마다 干戈로 싸움을 벌이니, 后帝는 좋게 여기지 아니하여, 알백은 商丘로 옮겨 辰을 主祀하게 하였으므로 신이 商星이 되었고, 실침은 大夏로 옮겨 參을 주사하게 했다.’라고 한다.”고 하였다. 삼은 곧 서방의 白虎宿의 하나이다.) 상고하건대, 昭公 17년에, ‘彗星이 大辰에 나타났다.’ 했고, 『公羊傳』에, ‘대신이란 무엇이냐? 大火를 말한다. 대화는 곧 心星이다.’라고 하였으니, 바로 동방 蒼龍宿의 하나로서, 參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 각기 한 방위를 차지했다. 알백·실침을 옮겨 놓게 된 까닭이다.

338) 삼각산(三角山) : 서울의 북쪽과 경기도 고양시에 걸쳐 있는 산을 말한다. 白雲臺, 萬景臺, 仁壽峯의 세 봉우리가 있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흰 구름은 희미하게 오르내리고
 푸른 산봉우리는 동남쪽을 싸안았네.
 벽에는 수천 수백 부처
 사는 중은 두세 명 뿐.
 임천(林泉)³³⁹이 한가로운 땅에 있으니
 호젓한 바위³⁴⁰ 옆에 집을 지었네.

白雲迷上下
 靑嶂擁東南
 壁佛身千百
 居僧數兩三
 林泉有閑地
 卜築近幽巖

단지 흰 구름만 남아있고
 다시 황학은 오지 않았네.³⁴¹
 사람은 소사(蕭史)³⁴²의 일을 전하고
 귀신은 조사대(祖師臺)를 보호하네.
 법안(法眼)³⁴³이 온 세계의 새장이니
 뜬구름 같은 인생은 한 티끌에 모였네.
 어찌 오래도록 한 곳에 집착을 하는가
 고개 돌려 천태산(天台山)을 바라보네.

只有白雲在
 更無黃鶴來
 人傳蕭史事
 鬼護祖師臺
 法眼籠千界
 浮生集一埃
 何能久住着
 回首望天台

1.36. 백운봉 정상에 올라

[登白雲峯頭]

백운봉(白雲峯) 정상에 올라가 바라보고
 조물주의 공(功)에 깊이 탄식하였네.
 꾸불꾸불 땅의 북쪽에서 와

試上峯頭望
 深嗟造化功
 蜿蜒來地北

339) 임천(林泉) : 숲과 샘이라는 뜻으로, 隱士가 사는 곳을 이르는 말이다.

340) 호젓한 바위 : 쑤나라 孫綽의 다음 시구를 집화하였다. “호젓한 바위 위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 / 긴 냇가에 임하여 낭랑하게 읊조리네. [凝思幽巖, 朗詠長川.]”(『文選』卷11 <遊天台山賦>.)

341) 다시 황학은 오지 않았네 : 唐代의 시인 崔顥(704~754)가 중국 호북성 武漢市에 있는 황학루에 올라 지은 칠언율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崔顥, <黃鶴樓>.)

342) 소사(蘇史) : 秦나라 穆公 때의 전설적인 신선이자 음악가이다. 弄玉의 남편으로 아내에게 피리 부는 것을 가르쳐 유명한 음악가가 되도록 했고 나중에 아내와 함께 봉황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343) 법안(法眼) : 불법의 바른 이치를 꿰뚫어 보는 지혜의 눈을 말한다.

우뚝우뚝 하늘 동쪽을 채우네.
 봉래산 밖을 거꾸로 비추고
 북두칠성 중앙을 지탱하네.
 멀고 가까움을 알 수 없지만
 한 기운 천지의 원기뿐이네.

磅礴滿天東
 倒映蓬壺外
 支撐斗極中
 無由識遠近
 一氣但鴻濛

세 봉우리는 하늘 밖에 서 있고
 사찰 하나 꼭대기에 붙어있네.
 옥황상제³⁴⁴ 큰 소리 들리고
 별들이 달려 가만히 보이네.
 푸른 바다 세상에 떠돌고
 밝은 낮에 신선이 내려오네.
 오래 홍진(紅塵)에 삶 아나
 돌아보니 몇 천리 떨어졌네.

三峯天外立
 一寺寄其巔
 高語虛皇聽
 平看列宿懸
 滄溟浮世界
 白日下神仙
 舊識棲塵末
 回頭隔幾千

1.37. 동복으로 부임하는 임 현감 대수³⁴⁵를 이별하며 홍명중³⁴⁶의 시운을
 쓰다. 임억령. 홍춘년.

[別林縣監大樹, 赴同福. 用洪明仲韻 林億齡 洪春年]

충성심은 나라에 옮길 수 있으나
 먼저 어버이에게 다해야 마땅하네.
 태평성대에 효자가 있으니
 먼 지방에 얼어 죽는 백성 없네.
 이별의 자리 밤을 지새우고 싶었으나

忠可移於國
 先當盡我親
 聖代有孝子
 遐方無凍民
 別席欲殘夜

344) 옥황상제 : “虛皇”은 허공의 황제라는 뜻으로, 도교에서 말하는 옥황상제를 말한다.

345) 임 현감 대수 : 林億齡(1496~1568)을 말한다. 연산군~선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善山, 자는 大樹. 호는 石川이다. 朴祥의 문인으로 저서 『石川集』이 있다.

346) 홍명중 : 洪春卿(1497~1548)을 말한다. 연산군~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南陽, 자는 明仲. 호는 石壁이다. 1545년 중종의 誌文을 짓기도 하였다. 성품이 강직하여 권세에 굽히지 않았고, 또한 권세가의 집을 찾는 일이 없었다 한다. 글씨에 뛰어나 金生體에 능하였다. 원문의 洪春年은 春卿의 아우로 자는 和仲, 호는 癡巖이다. 이에 근거하여 ‘洪春年’에서의 ‘年’ 자는 ‘卿’ 자의 誤字로 보아야한다.

돌아오는 길 오히려 이른 봄이라네.³⁴⁷⁾
 같은 이웃 같은 병의 나그네는
 벗을 잃고 홀로 마음 아파하네.

歸程猶早春
 同隣一病客
 失侶獨傷神

1.38. 성숙옥(348)을 곡하다 이름은 수종이다.

[哭成叔玉 名守琮]

지하에 계신 성(成)선생
 겨우 사십 세를 살았네.
 일찍이 세 번 뒤꿈치 잘린 형벌을 겪고
 마침내 아홉 번이나 간장이 끊어졌다네.
 근본은 이미 고보(高譜)³⁴⁹⁾에 없고
 시에는 응당 단장(短章)³⁵⁰⁾이 있네.
 옛 친구가 와서 울음을 그치니
 천도(天道)는 여전히 망망(茫茫)하네.

地下成夫子
 才名四十霜
 曾經三刖足
 終斷九回腸
 基已亡高譜
 詩應有短章
 故人來哭罷
 天道一茫茫

347) 오히려 이른 봄이라네 : 엄훈이 임억령과 헤어진 지 않았는지 모른다는 의미이다. 李白의 <早春寄王漢陽>에 “봄이 왔다는 소식을 듣긴 했으나 아직 몰라서 / 찬 매화 곁으로 달려가 소식을 찾아보네. [聞道春還未相識, 走傍寒梅訪消息]”라고 하였다.

348) 성숙옥 : 成守琮(1495~1533)을 말한다. 연산군~중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昌寧, 자는 叔玉이고, 호는 節孝이다. 1741년 직제학에 추증되었다. 성품이 무겁고 도량이 넓어 사람들이 敬服하였다. 창녕의 勿溪書院과 과주의 坡山書院에 배향되었다.

349) 고보(高譜) : 成氏의 족보인 『成原高譜』를 말한다.

350) 단장(短章) : 짧은 문장이나 시가를 말한다.

1.39. 노희³⁵¹)는 자가 대수로 우리 집 담장 북쪽에 살았다. 일찍이 나와 임대수를 따라 삼각산 백운봉을 유람한 적이 있는데 춥고 굶주림의 괴로움을 못 견디고 영남을 떠돌아다녔다. 한번은 서울에 올라와 재상과 서로 아는 사람에게 미관말직을 부탁하였으나 끝내 얻지 못하자 서글퍼하며 고향으로 돌아갔다. 멀리서 편지를 보내왔기에 보니 내 부모님의 병환을 묻는 한편 처조부의 타계를 애도하며 자신은 멀리 있어 술 한 잔도 올리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그 말에 간절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내가 칠언율시를 지어 편지를 가져온 심부름꾼에게 다시 주어 보냈다

[盧君禧，字大受，居吾墻北，嘗從我及林大樹，遊三角山白雲峯，爲飢寒所驅迫，漂泊嶺南。一至京師，乞微官於卿相相知者，終不得戚戚，還其舊居。遠寄一書，問吾親之病，又悼妻祖父下世，身遠無由一奠，辭意悲切。余以七律，復其來使]

대수(大受)는 나의 친한 형인데
영남 외촌(外村)에서 떠돌며 살았네.
이미 오두막집³⁵²)에서 달게 살며
오랫동안 권문세가 곁에 붙어있음을 부끄러워하였네.
마을은 고요하여 과거첩지 없고
계절은 온화하여 술동이만 있네.
남은 인생 그런대로 즐거워
분수대로 전원에서 늙었네.

大受吾隣伯
飄蓬嶺外村
已甘居華戶
長愧傍權門
邑靜無科牒
時和有酒尊
餘生差可樂
隨分老田園

두 해를 서울에서 객지생활 하니
마음과 일이 온전하게 다르네.
재상은 경솔하게 허락한 일 많으나
친한 벗은 의지할 만한 일이 적네.

二年客京洛
心與事全違
卿相多輕諾
親朋少可依

351) 노희 : 중종 때 진사이다. “盧禧，中廟進士.”(『嶠南誌』卷59 <咸陽郡篇>.)

352) 오두막집 : “華戶”는 蓬門華戶의 준말로 오두막집의 사립문을 뜻하는 말이다.

미관말직도 취(取)할 길이 없어
 늘그막에 전원으로 돌아가려 하네.
 살림살이 수습하여 떠나가는
 함양(咸陽)³⁵³고을 촌부라네.

微官無路取
 晚歲有田歸
 收拾生涯去
 咸陽一布衣

산길 밖에서 편지를 받아
 열어보니 여러 근심이네.
 멀리 가는 길은 험하고
 문득 계절은 제멋대로네.
 산과 바다에서 서로 그리워 괴롭고
 속세에서는 함께 만나기 어렵네.
 당신이 미관말직을 바라니
 조만간에 서울에서 만나려나.

嶠外得書札
 開緘愁萬端
 悠悠道途阻
 忽忽時序闌
 嶺海相思苦
 塵埃與面難
 期君營一命
 早晚會長安

영남에서 옛 문객(門客)이
 슬픈 편지를 멀리서 가져오네.
 이미 두 눈물을 전하였으니
 어찌 한 잔 제주(祭酒) 바라랴.
 아! 중천(重泉)³⁵⁴과는 길이 다른데
 두 곳에서 함께 슬퍼함을 감사하네.
 양담(羊曇)³⁵⁵의 피눈물 통곡을 다하고
 장차 소식(消息)³⁵⁶ 돌아옴을 의지하네.

天南舊門客
 悲札遠封來
 已得傳雙淚
 何須酌一杯
 重泉嗟異路
 兩地謝同哀
 泣盡羊曇血
 憑將雁足回

함께 백운봉(白雲峯) 정상에서 노닐며
 손을 잡고仙境丹梯³⁵⁷에 올랐네.

同遊白雲頂
 握手上升梯

353) 함양(咸陽) : 현재 경상남도 서부에 있는 고을 이름이다.

354) 중천(重泉) :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영혼이 가서 산다는 세계를 말한다.

355) 양담(羊曇) :晉 謝安의 사위로 사안의 사랑을 받았던 양曇은 사안이 죽고 난 뒤 그가 살던 西州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한 번은 술이 취해 노래 부르다 자기도 모르게 서주 관문에 이르렀다. 이에 悲感을 견디지 못해 曹植의 “生存華屋處, 零落歸山丘”를 외우며 통곡하고 돌아갔다. 이후 죽은 親戚이나 親友를 그리워하는 典故로 쓰인다.(『晉書』, <謝安傳>.)

356) 소식(消息) : “雁足”은 雁足傳書의 준말이다. 漢나라 때 흉노로 끌려간 蘇武가 기러기발에 편지를 묶어 전한 고사를 말한다.

천하의 검푸른 바다는 넓고	天地滄溟闊
신선의 붉은 학은 흥미하네.	神仙紫鶴迷
높은 고개에서 서로 바라보고	相望人嶺嶠
동서로 길이 한번 나뉘었네.	一別路東西
이름을 푸른 벽에 새기고	名字鐫蒼壁
어느 때 옛 시를 찾을까.	何時覓舊題

우환으로 귀밑머리에 서리가 침범하니	憂患霜侵鬢
수고롭게 그대는 멀리서 자주 문안하네.	勞君遠問頻
오늘의 눈물로 얼음을 두드리고 ³⁵⁸⁾	叩冰今日淚
예전의 사람은 쌀을 지고 오네. ³⁵⁹⁾	負米昔年人
곡식을 쥐고 의술과 점을 구하며	握粟求醫卜
머리를 조아리고 귀신에게 비네.	稽頭乞鬼神
작은 정성도 하늘은 살피니	微誠天照鑑
내 몸을 대신하여 청하네.	請以代吾身

내 벗 임 동복(林 同福) 현감은	我友林同福
소 잡는 칼로 작은 고을 다스리네. ³⁶⁰⁾	牛刀試小邦
언언(言偃) ³⁶¹⁾ 의 함문(閤門)은 거문고소리 한아하고	琴閑言偃閣
경정(敬亭) ³⁶²⁾ 의 창문은 산이 마주보이네.	山對敬亭窓

357) 단계(丹梯) : 붉은 사다리, 전하여 仙境에 들어가는 길을 뜻하는 말이다.

358) 얼음을 두드리고 : “叩冰”은 王祥叩冰의 준말로, 중국 핑나라 사람 王祥의 고사를 말한다.

359) 쌀을 지고 오네 : “負米”는 子路負米의 준말이다. 자료가 쌀을 등에 짊어짐이란 뜻이다. 孔子의 弟子 子路(仲由. B.C.543~B.C.480)가 가난하여 每日 남의 米을 등짐으로 지고 100리 바깥까지 날라 그 運賃으로 받은 쌀로 兩親을 奉養했다.(『孔子家語』.)

360) 소 잡는 ~ 고을 다스리네 : 큰 재주를 가지고 작은 고을을 다스린다는 공자의 제자 子游의 고사를 말한다. “割鷄, 焉用牛刀.”(『論語』, <陽化>.)

361) 언언(言偃) : 중국 춘추 시대 魯나라의 유학자이다. 言偃(B.C.506~B.C.445)은 孔門十哲의 한 사람으로, 子夏와 더불어 문학에 뛰어났고 禮의 사상이 투철하였다.

362) 경정(敬亭) : 중국 安徽省 宣州市 敬亭山에 있는 정자 이름이다. 南朝 齊나라 때의 유명한 시인 謝朓가 宣城太守로 있을 때 이 정자에 올라 시를 읊었다고 한다. 여기서는 임억령이 동복현감으로 부임하여 이 전고를 가져온 것이다. 전고는 다음과 같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경정산은 별거 벗어 초목도 없고 그렇다고 볼만한 산세가 있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 선성의 사 태수가 시 한 수를 짓자, 마침내 오악과 그 명성을 나란히 하게 되었으니, 어떤 물건이든 사람을 잘 만나야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고 하였다. [古人云: 敬亭之山, 兀如斷草無稜角, 宣城謝守一首詩. 遂使聲名齊五嶽, 物之遇於人, 如是夫.]”(『簡易集』 卷3 <狼子山圖詩序>.)

홀로 아송(哦松)의 운치³⁶³를 쓰고
부질없이 술 항아리를 적시네.
그대 한 번 지나가기를 기다려
풍속이 순후 하는가 물으려네.

獨寫哦松韻
空餘酒甕缸
須君一經過
爲問俗淳龐

1.40. 의주 목사로 부임하는 민공³⁶⁴ 희중을 전송하며 이름은 제인이다.

[送閔公希中 赴義州牧 名齊仁]

자물쇠 같은 서문을 굳건하게 하니
변방의 방어는 이 사람에게 달려 있네.
국사(國士)가 추천하여 등단하니
붓을 던지고 사신(詞臣)³⁶⁵으로 나섰네.
오랑캐를 평정하는 대범한 책략
임금에게 보답하는 당당한 자신.
변경에 많은 일 좇으려고
이곳 봉화의 티끌 쓸어버렸네.

鎖鑰西門壯
關防只在人
登壇推國士
投筆出詞臣
落落平戎策
堂堂報主身
邊庭比多事
此去掃烽塵

웅주(雄州)³⁶⁶는 한(漢)나라 경계 울타리니
목사로 나아가 대장기를 꺼안았네.
한번 가니 용만(龍灣)³⁶⁷이 중대하고

雄州蕃漢界
出牧擁麾旌
一去龍灣重

363) 아송(哦松)의 운치 : 옛날 崔斯立이 소나무를 보고 시를 읊는 흥취를 말한다. 韓愈의 <藍田縣丞廳壁記>에 “이곳 승청에 옛 기문이 있었는데, 무너지고 비가 새서 더러워지다 보니 읽을 수가 없었다. 최사림이 서까래와 기와를 갈고 벽을 흠손질하여 수리하고는 전임자들의 성명을 모두 기록하였다. 뜰에는 늙은 해나무가 네 줄로 벌여 있고 남쪽 담장에는 큰 대나무 천 그루가 우뚝 서서 서로 버티고 있는 듯하며 물이 졸졸졸 뜰을 따라 흘러갔다. 최사림은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대 주면서 그곳에 두 그루의 소나무를 마주 심어 놓고는 날마다 그 사이에서 시를 읊었다.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공적인 일이 있으니, 그대는 우선 가라.’ 하였다. [丞廳故有記, 壞瀟瀟不可讀. 斯立易桷與瓦, 塲治壁, 悉書前任人名氏. 庭有老槐四行, 南牆鉅竹千挺, 儼立若相持, 水瀲瀲循除鳴. 斯立痛掃灑, 對樹二松, 日哦其間. 有問者, 輒對曰: 余方有公事, 子姑去.]”(『韓昌黎文集』 卷13 <雜著·藍田縣丞廳壁記>.)

364) 민공 : 閔齊仁(1493~1549)을 말한다. 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驪興, 자는 希仲, 호는 立巖이다. 문장과 역사에 능통했으며, 저서로는 『立巖集』 6卷, 『東國史略』 등이 있다.

365) 사신(詞臣) : 文學侍從大臣을 말한다.

366) 웅주(雄州) : 함경북도 길주 지역의 옛 지명이다.

삼년에 압록강 물이 맑아졌네.
 산에 가까운 도둑 쥐를 없애려고
 변방에 나가 만리장성을 쌓았네.
 안일하고 위태로운 처지에 이를지라도
 몸을 잊고 밝은 성주의 은혜 갚으려네.

三年鴨水清
 近山無竊鼠
 臨塞有長城
 若到安危地
 忘身報聖明

부곡의 먼지와 모래³⁶⁸⁾ 속에서도
 한묵(翰墨)³⁶⁹⁾의 사이에 풍류로세.
 요동과 연나라는 강으로 막히고
 말갈족은 가까이 산을 이었네.
 세 변방으로 둘러있어 고요하니
 만 갑(甲)의 비휴(狴貅)³⁷⁰⁾ 한가롭네.
 조정은 서융(西戎)의 염려가 적으니
 높이 누워 웅주(雄州)의 관문을 잠그네.

部曲塵沙裏
 風流翰墨間
 遼燕遙隔水
 靺鞨近連山
 控帶三邊靜
 狴貅萬甲閑
 朝廷西戎少
 高臥鎖雄關

동료는 예부터 친분이 많으나
 이제 이별하니 홀로 서글프네.
 노쇠한 발자취는 질병에 구애되어
 전별 자리에서 술잔을 걱정하네.
 다른 날 제후에 봉(封)함³⁷¹⁾ 보리니
 어느 해에나 혈(穴) 자리를 찾을까.
 도와주고 더해주는 편달 없으니
 시를 새로 지어 편지로 축하하네.

同僚多夙好
 此別獨悽然
 疾病拘衰跡
 杯觴阻餞筵
 封侯看異日
 探穴在何年
 相贈無鞭策
 新詩當賀牋

367) 용만(龍灣) : 평안북도 의주시의 옛 별호이다.

368) 먼지와 모래 : 티끌과 모래와 같이, 수량을 알 수 없는 번뇌를 말한다. 천태종 三惑의 하나. 이것은 먼지 견혹·사혹을 끊고, 깨달은 空理에 집착하는 번뇌이므로 着空의 惑이라고도 하고 열등한 慧를 體로 삼는다.

369) 한묵(翰墨) : 文翰과 筆墨이란 뜻으로, 글씨를 쓰거나 글을 짓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370) 비휴(狴貅) : 범과 비슷하다고도 하고 곰과 비슷하다고도 하는 맹수를 말하는데, 狴는 수컷이고 貅는 암컷이다. 용·봉황·거북·기린과 함께 5대 상서로운 동물 중 하나로 용맹한 군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371) 제후 봉(封)함 : “封侯”는 雍齒封侯의 준말로, 漢 高祖가 웅치를 제후에 봉했다는 말이다. 전하여 가장 미워하는 사람에게 요직을 맡겨 여러 장수의 불만을 무마시킨 계책을 말한다.

1.41. 봉황대 응제시³⁷²⁾

[鳳凰臺 應製]

용호³⁷³⁾에는 왕의 기운이 끝나가고
 옛 누대는 신선의 자취 남아 있네.
 구름은 오랜 세월 떠 있는데
 봉황은 어느 때 와서 놀려나.
 하늘은 삼각산(三角山)으로 들어가 다하고
 강물은 이수포(二水浦)를 나뉘어 돌아가네.
 남긴 시에 좋은 글귀 없으니
 한림의 재주 부끄러움 많아라.

王氣終龍虎
 仙蹤有舊臺
 浮雲千古在
 遊鳳幾時來
 天入三山盡
 江分二水回
 留題無好句
 多愧翰林才

142. 대수의 시에 차운하다

[次大樹韻]

다만 마음을 취하여 같이 살아가니
 어찌 성(姓)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라
 일관(一官)³⁷⁴⁾은 천리 밖이요
 삼경(三逕)³⁷⁵⁾은 오호(五湖)³⁷⁶⁾ 물가.
 묘음(卯飲)³⁷⁷⁾은 도리어 저녁까지 남아있고
 밤에 읊은 감동이 새벽까지 미치네.
 평생의 사업을 함께 하고
 행동거지를 이웃처럼 하였네.

但取心同處
 何嫌姓異人
 一官千里外
 三逕五湖濱
 卯飲還侵夕
 宵吟動及晨
 百年同事業
 居止又同隣

372) 응제시 : 왕의 命에 의해 詩文을 짓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373) 용호(龍虎) : 풍수설에서 뿔자리나 집터의 왼쪽과 오른쪽의 지형을 이르는 말이다.

374) 일관(一官) : 대수롭지 않은 관직을 말한다.

375) 삼경(三逕) : 三逕은 도연명의 “三逕은 荒蕪하여졌으나 / 술과 국화는 오히려 있다.”(陶淵明, <歸去來辭>.)를 말한다. 또한 漢나라 隱士 蔣詡가 대밭 속에 세 갈래 길을 내었으므로 隱士의 집을 뜻하기도 한다.

376) 오호(五湖) : 太湖·鄱陽湖·洞庭湖·彭蠡湖·巢湖를 말한다.

377) 묘음(卯飲) : 아침인 卯時에 술을 마신다는 뜻으로, 전날에 마신 술기운을 풀기 위하여 아침에 술을 마심을 이르는 말이다.

1.43. 또 대수의 시에 차운하다

[又次大樹韻]

처마지붕에 그치지 않는 새소리
 젖은 진흙은 나그네를 방해하네.
 청량한 뜻은 기수(沂水) 가에서 생겨나고³⁷⁸⁾
 고상한 정은 낙수(洛水) 가에서 지고 오네.³⁷⁹⁾
 바람에 꽃은 피었다 또 떨어지고
 시간의 순서 밤이 도로 새벽이네.
 다행이 지나가는 곳마다
 소단(蘇端)³⁸⁰⁾이 가까운 이웃에 있네.

屋簷鳴不止
 泥濕礙遊人
 涼意生沂上
 高情負洛濱
 風花開又落
 時序夜還晨
 賴有經過處
 蘇端在比隣

1.44. 또 대수의 시에 차운하다

[又次大樹韻]

어찌하여 꽃은 급히 날아가고
 풍광(風光)은 남에게 빌려주지 못하는가.
 봄은 어렴풋한 꿈속으로 돌아가고
 집은 큰 강가에 있네.
 술은 독하지 않으면 취(醉)하기 어렵고
 시간이 길면 쉬이 새벽은 오지 않네.
 오직 남은 마음을 써서 보내려고
 시를 지어 동쪽 이웃에게 부치네.

有底花飛急
 風光不貸人
 春歸殘夢裏
 家在大江濱
 酒薄難成醉
 更長未易晨
 唯餘輸寫處
 得句寄東隣

378) 청량한 뜻은 ~ 가에서 생겨나고 : 沂水에서 시를 읊고 돌아온다는 曾點의 고사를 말한다.(『論語』, <先進篇>.)

379) 고상한 정은 ~ 지고 오네 : 唐나라 때 河南尹 李待價가 부정을 씻어 버리려고 매년 3월 3일마다 행하는 禊祭를 洛水 가에서 행하기 위해 하루 전에 留守 裴令公에게 아뢰자, 배령공이 다음 날 白居易 등 15인을 불러 배 안에 모여 잔치를 베풀고 沂沿에 오르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낸 고사를 말한다.(『古今事文類聚』 前集 卷8 <宴洛濱詩> 및 『山堂肆考』 卷10 <居易獻詩>.)

380) 소단(蘇端) : 杜甫의 친구로 알려져 있으나, 생몰연대에 대하여서는 구체적으로 상고하지 못하였다.

1.45. 밤비에 잠이 오지 않아 대수에게 드리다.

[夜雨不寐 呈大樹]

봄날의 정취가 많이 있지 않으니
고향의 붉은 꽃 이미 시들었겠네.
창에 떨어지는 비를 어떻게 하고
오경(五更)의 추위 또 보낼꼬.
헝클어진 머리 줄기마다 하얗고
잿빛 마음은 마디마다 붉은데.
임금의 은혜를 갚을 수 없으니
어느 날에나 벼슬을 그만둘까.

春事無多在
園林紅已殘
如何一窓雨
又送五更寒
髮亂莖莖白
心灰寸寸丹
君恩酬不得
底日是休官

1.46. 또 대수에게 드리다

[又呈大樹]

점점 봄이 늦어짐을 깨달으니
두 귀밑머리 쇠해짐을 불쌍히 여기네.
숲속에 비둘기는 길게 비를 부르고
처마에 제비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네.
만랑(漫浪)은 원결(元結)과 같고³⁸¹⁾
청빈(淸貧)은 범단(范丹)³⁸²⁾의 임무라네.
아픈 허리 띠 묶으면 해로운데
무슨 일로 미관말직 연연할까.

漸覺三春晚
都憐兩鬢殘
林鳩長喚雨
簷燕不禁寒
漫浪同元結
淸貧任范丹
病腰妨束帶
何事戀微官

381) 만랑(漫浪)은 원결(元結)과 같고 : “漫浪”은 唐나라 元結(723~772. 字는 次山, 號는 漫叟 또는 元子)의 별호로 흔히 漫郎으로 쓴다. “顧吾漫浪久不欲有所拘.”(『元次山集』 卷4 <遊惠泉示泉上學者>.)

382) 범단(范丹) : 東漢의 名士 范丹을 말한다.(『後漢書』, <范丹傳>.)

1.47. 또 대수에게 드리다

[又呈大樹]

점점 봄이 거의 지나가고	冉冉春垂盡
고요한 밤도 다하여 가네.	愔愔夜向殘
누가 사마(司馬)의 병 ³⁸³ 을 알고	誰知司馬病
광문(廣文)의 가난 ³⁸⁴ 을 기억할까.	猶憶廣文寒
세상을 놀래는 견백론(堅白論) ³⁸⁵ 은 없고	駭世無堅白
삶을 연장하는 반단전(半丹田) ³⁸⁶ 은 있네.	延生有半丹
봉래산은 가서 살아갈 만하니	蓬萊如可駐
그곳 선관(仙官)이 되고 싶네.	吾欲作仙官

1.48. 3월 28일에 저자강³⁸⁷에서 놀다

[三月二十八日 遊楮子江]

하나의 강이 두 갈래로 나뉘어	一江分兩派
굽이굽이 마을을 안고 돌아가네.	曲曲抱村廻
이끼 낀 길은 산을 따라 다하고	苔逕緣山盡
사립문은 강을 보며 열려 있네.	柴扉面水開
맑은 물가는 오직 새만 보이고	渚清唯見鳥
깨끗한 모래 먼지가 나지 않네.	沙淨不生埃
다시 무릉도원 가까움을 깨닫자	更覺桃源近
두둥실 꽃잎이 마을을 벗어나네.	浮花出巷來

383) 사마(司馬)의 병 : 司馬相如의 소갈병을 말한다.

384) 광문(廣文)의 가난 : 杜甫의 친구 鄭虔을 말한다.

385) 견백론(堅白論) : 중국 戰國시대 趙나라 公孫龍이 唱導한 悞변을 말한다. 눈으로 돌을 볼 때에는 빛이 흰 것은 아나 굳은 것은 모른다. 손으로 돌을 만질 때에는 그 굳은 것은 알지만 흰 것은 모른다. 따라서 堅白石의 존재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개념의 論法으로서, 是를 非라 하고, 非를 是라 하고, 同을 異라 하고, 異를 同이라고 우겨대는 변론을 말한다. “堅白同異, 堅白同異辯.”(『荀子』, <修身篇>.)

386) 반단전(半丹田) : 丹田에서 기본호흡법인 半丹田을 말한다.

387) 저자강 : 한강 서쪽에 있는 龍山江의 楮子島를 말한다.(『國朝寶鑑』, 肅宗條 30년(甲申, 1704).)

1.49. 이날 노를 저으며 여울을 내려가다

[是日下楫灘]

배가 급히 지나가자 놀란 여울물이 빨라져
 내가 가도 잠시도 머무르지 않네.
 흐르는 물 타고 제멋대로 가며
 모래톱 만나 게다가 쉬을 아네.
 인간 세상사 바다에 나부끼는 바람이요
 뜬구름 같은 인생은 물결치는 거품이라.
 누가 한없이 쫓아가서
 외람되이 백년근심 만들까.

船急驚湍駛
 吾行不暫留
 乘流聊放去
 得坻且知休
 世事風翻海
 浮生浪打漚
 誰能趁無限
 枉作百年愁

1.50. 이날 동강에 정박하다

[是日泊洞江]

해문(海門)이 점점 가까이 보이고
 석양은 서산으로 내려가네.
 난(蘭)잎 향기 물가에 두둥실
 복숭아꽃 물결 언덕을 치네.
 추녀 창은 다투어 눈에 들어오고
 산비탈 바위 여기저기 시가 있네.
 밤새도록 홍진(紅塵)에 꿈을 꾸니
 어떻게 이 혼미함을 견디려나.

海門看漸近
 斜日下山西
 蘭葉香浮渚
 桃花浪拍堤
 軒窗爭入眼
 崖石遍留題
 後夜塵中夢
 那堪到此迷

1.51. 소 찬성이 성주에 국사를 봉안할 때 임금이 승지와 내관을 보내 제천정에서 술을 하사하였다. 잔치가 파하고 재상들이 다시 모여 전별하는 자리에서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蘇贊成，奉安國史于星州，上遣承旨中官，賜酒于濟川亭，宴罷，諸相更會，餞別席上。次贊成韻]

내관(內官)이 자리를 파하라는 명(命)을 전하자마자	中使傳宣罷
강가에 다다라 송별 연회를 열었네.	臨江祖席開
바람 부는 장막 채방(彩舫) ³⁸⁸ 을 이으니	風帷聯彩舫
향온주(香醞酒) ³⁸⁹ 가 신선의 잔에 넘치네.	香醞灑仙杯
산에 사고(史庫)를 감추지 못하는데	不爲藏山史
누가 임금 보좌하는 재주 칭송하랴.	誰頌補袞才
남산이 멀다고 하지 마라	休言南嶠遠
구름기운이 봉래산 닿았으니.	雲氣接蓬萊

388) 채방(彩舫) : 예전에 대궐에서 문才를 베풀 때에 船遊樂에 쓰는 배를 이르던 말이다.

389) 향온주(香醞酒) : 멧쌀과 찹쌀을 찌서 식힌 다음, 보리와 녹두로 만든 누룩을 섞어서 담근 술. 우리나라 고유의 술이다.

1.52. 죽마계회도 서문을 붙여놓다.

[題竹馬契會圖 并序]

나는 어려서 서울 백악산 아래에서 자랐다. 당시 같은 동네 총각으로 우백유(禹伯瑜) 순(珣)은 갑자(1504)생이고, 유응화(柳應和) 윤상(潤祥)은 을축(1505)생이고, 우윤보(禹潤甫) 관(罐)은 병인(1506)생이고, 신계향(申濟鄉) 여집(汝楫)·성계옥(成季玉) 수영(守瑛)·이희인(李希仁) 언눌(彦訥)은 정묘(1509)생이고, 한원원(韓源源) 호(灑)·윤사성(尹師聖) 희주(希周) 및 나는 무진(1508)생이고, 이창서(李昌瑞) 몽규(夢奎)는 경오(1510)생이고, 한시중(韓時中) 주(澍)는 신미(1511)생이니, 나이가 들쪽날쪽하여 적고 많음이 가지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집이 가깝고 가까이 알고 지내 같은 곳에서 살고, 같은 흠이불에서 자고, 일찍이 잠시도 서로 떠난 적이 없으니, 삼생(三生)³⁹⁰의 오랜 인연이 아니면, 여기에 이를 수 있겠는가? 아침에 스승을 찾아가 뵈고 공부하였다. 점심을 마친 후에는 빈번히 부(賦)와 시(詩)를 시험하여 승부를 겨루었다. 저녁에는 한가한 곳을 찾아 쫓고 달리며, 풀잎을 따다 불며 죽마를 타고, 꽃을 찾고 버드나무 가지를 꺾으며, 가지 않는 곳이 없었다. 인왕동(仁王洞)청풍(淸風)계곡과 백운동(白雲洞) 탕춘대(蕩春臺)는 모두 (우리들의) 놀이터이다. 세월이 덧없이 지나가 각각 커서 장성하니, 누구는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에 오른 사람도 있고, 누구는 시대의 운명이 불우하여 아직까지 형설(螢雪)의 공(功)³⁹¹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부모님이 늙고 집안이 가난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게 되었다. 세상의 일은 견디지 못하도록 괴롭고, 부평초처럼 (거처가) 일정하지 않아 어렸을 때 서로 따르는 것만 못하나, 어렸을 때의 정(情)은 지금도 그대로이다. 하루는 모두 계옥(成守瑛의 字)의 서당에서 모였는데, 좌중(座中)에 서운해 하면서 말한 친구가 있었다. “장소는 동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나 사는 것은 같은 곳에서 시작했고, 때는 앞뒤로 오래 되었으나 태어난 것은 때를 같이하였다. 걸음마를 배울 때부터 이미 서로 부르며 쫓고, 말을 익히는 날로부터 바로 이름과 자(字)를 붙였다. 기골을 연마하며 함께 마시고 먹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의 일이 아니겠는가? 지금 그 모습이 당당하고 관복(冠服)을 입고 있으나, 두어 장(丈)³⁹²의 대나무를 얻어 다시 어렸을 때에 놀이를 하려는데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곤궁하고 현달(顯達)이 다르면 서로 방문하는 경우가 적거나 많아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적거나 많아지면 정의(마음)가 더러 변하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이다. 어떻게 죽마계(竹馬契)를 만들지 않고, 세한(歲寒)의 뒤에 즐겁고 경사로운 일과 슬프고 조문(弔問)할 때에 자연스런 거동이 있기를 기대하겠는가?” 우리들은 모두 “좋다. 감히 단심(丹心)에 새기어서 늙을 때까지 가지고 가자.”라고 대답하였다. 한주(韓澍)는 공인(工人)을 고용하여 오늘의 일을 그리게 하였고, 엄흔은 그 전말(顛末)을 서술하고 시로써 부쳐놓았다.

390) 삼생(三生) : “三生”은 佛家の 용어로, 前生, 現生, 後生을 가리킨다.

391) 학문을 계속한다는 의미로 겨울철 눈에 책을 비취 읽었던 孫康과 여름철 반딧불에 책을 비취 읽었던 車胤의 螢雪之功 고사를 말한다.

392) 질 : 길이의 단위를 말하며 10자(尺)가 1장(丈)이다.

余少長于京都之白岳山下. 于時同里之總角者, 禹伯瑜珣 生甲子, 柳應和潤祥 乙丑, 禹潤甫璫 丙寅, 申濟鄉汝楫·成季玉守瑛·李希仁彥訥 丁卯, 韓源源灝·尹師聖希周及余 戊辰, 李昌瑞夢奎 庚午, 韓時中澗 辛未, 雖年序有參差, 少長或不齊. 然其室邇習近, 居同處, 寢同裯. 未嘗暫時相離者, 非有三生宿緣, 能至是耶? 朝則尋師而受業焉. 食輒課賦詩, 角勝負焉. 夕即求閑處而馳逐, 吹蔥騎竹, 尋花折柳, 無所不至. 仁玉洞 清風溪·白雲洞 蕩春臺, 皆遊戲之所也. 荏苒歲月, 各成壯大, 或有釋褐而登仕者; 或有時命不遇而猶守螢雪者; 或有親老家貧而求出他塗者. 世故之驅迫, 萍梗之不定, 雖不得如少時之相從, 其少時之情則猶在也. 一日, 咸集于季玉之書堂, 座有含悽而言者曰: “地有東西之遠而居同開; 時有前後之久而生同時. 自學步之時, 已相徵逐; 習語之日, 便呼名字. 磨肌骨共飲食, 以至今日者, 茲非天也歟? 今其形貌昂藏, 冠服在身, 欲尋數丈之竹, 復作少日之戲, 其又可得耶? 窮顯之有殊而訪問之疏數; 訪問之疏數而情意之或變, 亦今世之態也. 則何不作為竹馬之契, 期無負於歲寒之後, 若夫吉慶悲弔, 自有其儀.” 衆咸曰: “諾, 敢不銘之丹心, 以到白首.” 時中, 倩工爲之圖, 啓昭, 敘其末而係以詩.

고향 마을 어릴 적 친구들

삼생(三生)의 오랜 숙명으로 친해졌네.

개구쟁이 시절³⁹³ 봄날에 동무 되었지만

늑도록 멀리 떨어져 지냈네.

풀피리 부는 고향 찾아갔으나

아! 죽마 타는 몸이 아니라네.

단청(丹青)³⁹⁴을 교칠(膠漆)³⁹⁵의 마음에 비추니

응당 뇌의(雷義)와 진중(陳重)³⁹⁶에 지지 않네.

里閉髻年舊

三生宿分親

顛狂春作伴

契闊老隨人

試覓吹蔥地

嗟非騎竹身

丹青照膠漆

應不負雷陳

393) 개구쟁이 시절 : “顛狂”은 ‘정신없이’, ‘미치다.’ ‘미쳐 날뛰다.’ 등의 뜻으로 해석되나, 여기서는 문맥상 ‘개구쟁이시절’로 국역하였다. 참고로 杜甫의 시에 “아직도 내 시 속의 경책의 말 아껴 주고 / 술 먹으면 정신없는 내 버릇 기억하네. [尙憐詩警策, 猶記酒顛狂]”라는 구절이 있다.(『杜少陵詩集』 卷11 <戲題寄上漢中王>.)

394) 단청(丹青) : 圖象을 말한다. 圖象은 畫象이라고도 하는데, 그림으로 그린 사람의 모습을 말한다. 또한 궁궐이나 사찰 전각에 여러 가지 빛깔로 그린 그림이나 무늬를 말한다. 여기서는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뜻한다.

395) 교칠(膠漆) : 膠漆之心の 준말로, 아교와 옷칠 같은 마음. 두터운 우정을 뜻한다. 白樂天和 元微之의 고사를 말한다.

396) 뇌의(雷義)와 진중(陳重) : 東漢 시대의 雷義와 陳重은 같은 고을 사람으로 우정이 매우 돈독하였는데, 그 고을 사람들이, “아교풀이 견고하다지만 뇌씨와 진씨의 우정만은 못하다.”고 하였다.(『後漢書』 卷81 <獨行列傳>.)

1.53. 제주로 부임하는 조 목사 계임을 전송하며 사수.

[送趙牧使季任赴濟州 士秀]

충신(忠信) ³⁹⁷ 은 평생의 일이니	忠信平生事
풍파는 제멋대로 치는 부평초라네.	風波任打萍
의관을 갖추고 궁궐 ³⁹⁸ 을 떠나니	衣冠辭紫禁
배와 노 ³⁹⁹ 가 큰 바다에 떨어졌네.	舟楫落滄溟
공훈의 책에 새로 붓을 던졌으나 ⁴⁰⁰	勳業新投筆
문장의 재능은 오랫동안 솟돌에 간 칼날 ⁴⁰¹ 같네.	才華舊發硎
오늘밤 남극 밖에서는	今宵南極外
사람들이 문왕(文王) ⁴⁰² 을 연주하리라.	人奏有文皇

시월은 바람과 파도가 심하니	十月風濤甚
가벼운 돛대로 바다 건너기 어렵네.	輕檣跨海難
추자도(楸子島) ⁴⁰³ 지나가는 길 험하고	行經楸子險
한라산(漢拏山) 가까이 정박하니 춥네.	泊近漢拏寒
단절천(短節川) ⁴⁰⁴ 교룡을 피하고	短節川蛟避
유의동(儒衣洞) ⁴⁰⁵ 요자(獠子) ⁴⁰⁶ 를 보네.	儒衣洞獠看
뽕밭이 때에 변하지 않으니	桑田時未變
이별의 눈물도 마르지 않네.	別淚不曾乾

397) 충신(忠信) : 충성과 진실함을 말한다. “君子進德脩業，忠信所以進德也.”(『周易』, 乾卦). “君子則不然，所守者道義，所行者忠信，所惜者名節.”(歐陽修，〈朋黨論〉.)

398) 궁궐 : “紫禁”은 임금이 거처하는 곳을 北斗七星의 북쪽에 있는 紫微垣에 비유하여 이르던 말이다.

399) 배와 노 : “舟楫”은 배와 노로서 세상을 건지는 재상과 대신을 비유한 것이다. “若濟巨川，用汝作舟楫.”(『書經』, 〈說命上〉.)

400) 붓을 던졌으나 : 投筆은 붓을 던지고 從軍함을 뜻한다. 後漢의 명장 班超의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大丈夫無它志略，猶當效傅介子張騫，立功異域，以取封侯。安能久事筆研閒乎?”(『後漢書』 卷47 〈班超列傳〉.)

401) 방금 솟돌에 간 칼날 : “發硎刀”는 새로 솟돌에 간 칼날은 소를 잡는 데에 더욱 여유만만하다는 데서 온 말로 뛰어난 재능을 비유한 말이다.(『莊子』, 〈養生〉.)

402) 문왕(文王) : 원문에 ‘文皇’은 ‘文王’을 말하니, 『詩經』 大雅 〈文王之什〉을 가리킨다.

403) 추자도(楸子島)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북부 해상에 있는 섬을 말한다.

404) 단절천(短節川) : 하천의 이름으로 짐작되나 어디를 가리키는지 추정할 수 없다.

405) 유의동(儒衣洞) : 마을 이름으로 짐작되나 어느 마을을 가리키는지 추정할 수 없다.

406) 요자(獠子) ; 오랑캐 이름으로 荊州 지방에 살던 蠻族을 말한다.

‘상전시미변’은 어떤 곳에는 ‘넓고 큰 바다에 먼지 일어나지 않으면’으로 되어 있다.
 桑田時未變, 或作滄瀛塵未起

1.54. 병중에 우연히 읊어 대수에게 드리다.

[病中偶吟 呈大樹]

형체는 참으로 흙과 나무 같으니
 질병이 또 찾아와 나를 괴롭히네.
 노란 국화와 동무함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넓은 바다에서 뱃놀이 마음깊이 간직하네.
 의원은 술을 끊어야 한다하고
 스님은 일찍이 참선을 권하였네.
 누가 믿을까 평상 위에서
 팔극천(八極天)⁴⁰⁷에 정신이 노니는 것을.

形骸眞土木
 疾病又來纏
 長憶黃花伴
 深懷滄海船
 醫言宜斷酒
 僧勸早參禪
 誰信床敷上
 神遊八極天

1.55. 또 대수에게 드리다

[又呈大樹]

마음이 어지러운 실을 같아
 근심은 없으나 절로 괴롭네.
 동시에 장포(漳浦)⁴⁰⁸의 손이 되니
 오래 섬계(剡溪)의 배를 저버렸네.
 시벽(詩癖)을 이룬 마음을 보내니
 선(禪)의 도(道)에 들어 몸이 편하네.
 이미 돌아가 정할 곳을 아니
 높은 하늘에 묻지 마라.

心緒猶絲亂
 無愁亦自纏
 同爲漳浦客
 久負剡溪船
 遣意詩成癖
 安身道入禪
 已知歸定處
 休與問高天

407) 팔극천(八極天) : 온 우주를 뜻하는 말이다.

408) 장포(漳浦) : 삼국시대 魏나라의 劉楨은 병이 있어 늘 장포에 누워 있었으므로 앓고 있는 시골 마을을 가리키게 되었다.

1.56. 또 대수에게 드리다

[又呈大樹]

일찍부터 시서(詩書)에 잘못되고
 게다가 상환(喪患)으로 얽히었네.
 용모는 벌레가 좀먹어가는 나무
 신세는 바다를 표류하는 배라네.
 자취가 없어 풍속을 알기 어려우니
 말을 잊고 잠시 참선을 배우네.
 병중이라 원래 잠이 줄어드니
 무슨 일로 다시 하늘을 근심하라.

早被詩書誤
 兼遭喪患纏
 形容蟲蠹木
 身世海漂船
 沒跡難諧俗
 忘言暫學禪
 病中元少睡
 何事更憂天

1.57. 아침부터 추위가 극심하여 시로 임 전적 대수의 병을 묻다

[朝來寒甚 詩問林典籍大樹之病]

문 원령(文園令)⁴⁰⁹에게 한번 묻노라
 아침이 추운가 그렇지 않는가.
 사람에게 부는 바람 세차니
 지붕을 뚫은 햇빛도 쇠잔하네.
 양고기와 술 다시없고
 거여목 나물만 소반에 남아도네.
 과교(灞橋)⁴¹⁰에 눈이 그치어 좋으나
 어깨 들썩이며 뉘와 함께 구경할까.

借問文園令
 朝來寒未寒
 着人風力緊
 穿屋日華殘
 無復羊羔酒
 空餘苜蓿盤
 灞橋晴雪好
 肩聳共誰看

409) 문원령(文園令) : 孝文園令에 임명되었던 漢나라 司馬相如를 가리키는데, 그는 평생 消渴病으로 시달렸다.

410) 과교(灞橋) : 盛唐의 시인 孟浩然은 눈발이 휘날리는 灞橋 위를 나귀 타고 지나갈 때 가장 멋진 詩想이 떠올랐다고 하는데, 蘇軾의 시에 “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皺眉吟詩肩聳山.”이라는 名句가 있다.(『蘇東坡詩集』 卷12 <贈寫真何充秀才>.)

1.58. 대전 춘첩자⁴¹¹⁾ 응제시.

[大殿 春帖字 應製]

천지의 조화 봄을 따라 움직이니
모두 순일한 덕행을 의지하네.
밝은 위육(位育)⁴¹²⁾을 생성하니
묘한 기미를 재단하고 조각하네.
따뜻함이 더해져 먼저 눈을 녹이고
추위가 가벼워져 적삼을 입고자하네.
머리를 조아려 분정(分庭)⁴¹³⁾을 마치고
자니함(紫泥函)⁴¹⁴⁾을 다투어 보네.

大化春隨轉
依乘一德咸
生成昭位育
翦刻妙機緘
暖重先消雪
寒輕欲試衫
分庭稽首罷
爭睹紫泥函

1.59. 표숙⁴¹⁵⁾ 전 판사 김공이 멀리 경흥⁴¹⁶⁾으로 귀양을 갔다가 석방
되어 고향마을로 돌아와 정자를 지어 쾌상이라고 이름 지어 부치다

현판의 시에 차운하여 부치다 이름은 형이다.

[表叔前判事金公, 遠謫慶興, 放回鄉里, 構亭名以快爽寄. 次板韻 名潤]

세 칸 집을 높이 지으니
백 척 누대가 바로 보이네.
전원에서 나는 늙고자 하였으나
서울서 머리만 부질없이 돌리네.
번잡한 흥금 맑아져 상쾌하고
좋은 회포 열려 바람이 흘네.

高起三間屋
平臨百尺臺
田園身欲老
京洛首空回
爽入煩襟淨
風披好抱開

411) 춘첩자(春帖字) :立春日에 대궐 안에 있는 전각의 기둥에 써 붙이는 柱聯인데, 제술관에게 명하여 하례하는 시를 지어 올리게 하고 꽃무늬가 있는 종이에 써서 붙였다.

412) 위육(位育) : 『中庸』第1章에서 “중과 화를 지극히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편안히 하고, 만물이 잘 생육될 것이다.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이라고 하였다.

413) 분정(分庭) : 상호간에 대등한 지위나 예의로써 대하다.

414) 자니함(紫泥函) : 자주빛 印朱函을 말한다. 옛날에는 武都에서 나는 자주빛 진흙으로 詔書를 봉하는데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시에서는 자주빛 술잔을 가리킨다.

415) 표숙 : “表叔”은 어머니의 형제를 말한다. 여기서는 엄흔의 외삼촌을 가리킨다.

416) 경흥 : 함경북도 북동쪽에 있는 고을 慶興이다.

정자 경치 최고라고 익히 들었으나
무슨 수로 함께 술잔을 전해 볼까.

飽聞亭勝絕
何路共傳杯

옛적에 연명길(淵明徑)을 쌓고
새로 자미대(子美臺)에 오르네.
몇 해나 정자 위에 누워
천리의 적소를 회상할까.
산수는 동쪽으로 멀리 노닐고
별자리 북쪽에서 한눈에 들어오네.
술이 있다 마음 보내었으니
가난하다 술잔 멈추지 마라.

舊築淵明徑
新登子美臺
幾年亭上臥
千里謫中回
山水東遊遠
星辰北望開
遣懷唯有酒
潦倒莫停杯

1.60. 벗에게 보여주다

[示友人]

비바람이 잦아 해마다 이별하고
동서로 떨어져 바닷가에 살아가네.
애써 천리 꿈 수고롭지만
편지 한 통 얻을 수 없네.
근심으로 애간장이 다 끊어져 가고
늙은 추태로 미움만 많아 소원하네.
노쇠한 몸이 다시 만나는 날
오래 묵은 마음 또 어떡할까.

風雨頻年別
東西隔海居
長勞千里夢
不得一封書
斷盡愁腸薄
憎多老態疏
重逢衰白日
舊意且何如

1.61. 벗에게 반복하여 보여주다

[復示友人]

예전에는 담장을 이어 지키고

舊日連牆守

중년에는 이별하여 살아가네.	中年判袂居
강수(江水)와 회수(淮水)에서 헛되이 눈물만 부치고	江淮空寄淚
기러기에게 부질없이 서신을 전하네.	鴻雁浪傳書
한 치 단심은 남아 있으나	一寸丹心在
일천 오라기 흰 머리만 듚성하네.	千莖白髮疏
진애(塵埃)에서 다시 만나면	塵埃更相見
이는 꿈속을 마주한 것 같으리라.	對此夢中如

1.62. 벗에게 다시 보여주다

[再示友人]

무슨 사연으로 당신은 병이 나고	子病緣何事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나는 늙었나.	吾衰不定居
새로운 근심에 귀밑머리털을 보고	新愁看鬢髮
오래된 호엽(瓠葉)에 시의 글 생각나네. ⁴¹⁷⁾	舊葉憶詩書
이별의 세월 오래니	日月分離久
풍진에 만남 소원하리.	風塵會合疏
어떻게 지척의 땅 다스려질 줄 알고	那知經尺地
다시 이 험난함을 같이 가려고 하나.	重此阻相如

1.63. 서당의 수목을 읊으며 벗의 시에 차운하다.

[咏書堂樹木 次友人韻]

평온한 현도(玄都) ⁴¹⁸⁾ 의 숲에	安穩玄都樹
---------------------------------	-------

417) 오래된 호엽(瓠葉)에서 ~ 글 생각나네 : 묵은 호박잎을 보니, 술이 생각난다는 뜻으로 보인다. 『詩經』 <小雅·都人士之什·瓠葉>에 “깃발처럼 산들대는 호박잎을 / 따다가 삶아 요리하리라. / 군자가 술자리를 마련하니 / 술 권하며 호박잎을 맛보리라. [幡幡瓠葉, 采之烹之. 君子有酒, 酌言嘗之.]”라고 하였다

유랑(劉郎)⁴¹⁹이 또다시 오네.
강호는 천리 멀리 떨어졌으나
비바람 일곱 번이나 불어왔네.
예전의 일은 도리어 교태 많고
새 시는 정녕 재주가 부족하네.
지금부터 뒤로 서로 만남이
다시 몇 번이나 돌아오려나.

劉郎又再來
江湖千里隔
風雨七回開
舊物翻多態
新吟政乏才
從今相見後
復作幾時廻

1.64. 벗의 <남쪽 누각>에 차운하다

[次友人南樓韻]

평온한 호수 가에 누각이 있으니
맑은 바람에 베개가 시원하네.
난초 배는 적벽(赤壁)을 그리워하고⁴²⁰
대나무 집은 황강(黃岡)을 기억하네.⁴²¹
멀리 천지 사이에 홀로 우뚝 서서
해와 달이 길어짐을 큰 소리로 읊네.
일 하나도 없이 한가로운 가운데
장황유묘(張皇幽眇)⁴²²를 이루었네.

樓在平湖上
清風一枕涼
蘭舟懷赤壁
竹屋憶黃岡
獨立乾坤迥
高吟日月長
閑中無箇事
幽眇致張皇

418) 현도(玄都) : 신선이 사는 곳을 말한다.

419) 유랑(劉郎) :漢나라 明帝 때 사람인 劉晨을 가리킨다. 阮肇와 함께 千台山에서 약초를 캐다가 길을 잃고 仙界의 여인들을 만나 반년을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이미 수백 년 세월이 흘러 자기 7代孫이 살고 있었다. (『太平御覽』 卷41)

420) 난초 배는 ~ 그리워하고 : 蘇軾이 일찍이 초가을에 赤壁에서 船遊하며 지은 <赤壁賦>에 “계수나무 노와 목란 상앗대로 맑은 물결을 치며 달빛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오네. [桂棹兮蘭槳擊空明兮泝流光]”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21) 대나무 집은 ~ 기억하네 : 大同江 하류 平壤 남쪽에 黃州郡이 있는데, 黃州 땅이 중국에 있는 黃岡과 너무 닮았고 아름다워 一名 朝鮮의 黃岡이라고 불렀다.(都慶兪, <黃岡延詔圖>.) 그러나 여기서서 杜牧이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지은 <黃州竹筵>를 가리키는 말인 듯하다.

422) 장황유묘(張皇幽眇) : 오묘한 이치를 펼쳐 밝혀 놓았다는 뜻이다. “이단을 배척하고 부처와 노자의 주장을 물리쳤으며, 틈새와 물이 새는 곳을 보완하고 오묘한 이치를 펼쳐서 밝혀 놓았다. [觚排異端, 攘斥佛老, 補苴罅漏, 張皇幽眇.]”(韓愈, <進學解>.)

1.65. 장마에 벗에게 드리다.

[久雨 呈友人]

올해는 많이 비로 막히어
 친구와 술잔 오래 걱정했네.
 흠비에 문득 맑은 하늘이 어둡은
 밝은 해 비침을 시기하여서라네.
 요란하게 바다를 뒤집으며 넘어트리고
 빈틈없이 옷을 적시며 오네.
 지척에 소단(蘇端)같은 벗이 있어
 명아주지팡이 짚고 찾아와주었네.

今年多滯雨
 深阻故人杯
 霾却晴天暗
 猜他白日開
 轟轟翻海倒
 密密潤衣來
 咫尺蘇端在
 扶藜一訪回

1.66.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 벗에게 드리다.

[又用前韻 呈友人]

파초가 우는 새벽이 이르니
 등불 아래 나그네 술잔 멈추네.
 지붕이 새어 때로 말랐다가 젖고
 바람에 창문 짐짓 열렸다 닫히네.
 산에는 새 빛이 일어남이 더해지지만
 대문(大門)은 친구 오는 것도 끊겼네.
 산의 북쪽 눈 뿐 만 아니라
 무단한 밤에 상앗대를 돌리네.

芭蕉鳴到曉
 燈下客停杯
 屋漏時乾濕
 風牕故闔開
 山增新色起
 門絕舊人來
 不獨山陰雪
 無端夜掉杯

1.67.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 벗에게 드리다.

[又用前韻 呈友人]

서울의 밤 오래 비가 내리니
 술잔을 보내오는 사람도 없네.

久雨長安夜
 無人送酒杯

뇌정(雷霆)이 치는 소리 다하지 않고
 운무(雲霧)가 뻑뻑하여 열기가 어렵네.
 새끼를 거느리는 용이 나는 듯 달려가고
 진흙을 머금은 제비 먹이를 빼앗아 오네.
 나뭇잎 소리가 귀에 많이 부서지니
 꿈속의 영혼 돌아와 놀라서 부르네.

雷霆敲不盡
 雲霧密難開
 引子龍騰踏
 含泥燕掠來
 葉聲多碎耳
 驚喚夢魂回

1.68.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 벗에게 드린다.

[又用前韻 呈友人]

병환 중에 장마를 만나
 깊은 정 한잔 술을 부탁하네.
 근심의 실마리 어지럽게 이어지니
 다시 좋은 마음 열어줄 수가 없네.
 나그네 자리⁴²³⁾ 털방석 없고
 이웃집에서는 쌀을 보내오네.
 그대 만날까 생각하며 잠깐 찾아가다가
 진흙길 미끄러워 도중(途中)에 돌아오네.

病裏逢連雨
 深情付一杯
 空餘愁緒亂
 不復好懷開
 客榻無氈坐
 隣家送米來
 思君期暫訪
 泥滑半途回

1.69.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 벗에게 드린다.

[又用前韻 呈友人]

늙그막에 각기병을 앓으니
 아픈 손으로 술잔을 억지로 반기네.

衰年中脚氣
 病手強親杯

423) 나그네 자리 : “客榻”은 손님 접대용의 걸상을 가리킨다. 後漢 때의 高士였던 豫章太守 陳蕃은 賓客을 전혀 접대하지 않았으나, 당대의 고사였던 徐穉가 찾아오면 특별히 걸상 하나를 내다가 그를 정중히 접대하고, 그가 떠난 뒤에는 다시 그 걸상을 걸어 두곤 했던 데서 온 말이다.(『後漢書』 卷53 <徐穉列傳>.)

풀 섬돌이 젖어 있음을 보니
 석류창문을 열고 보낼 수 없네.
 숲에 비둘기는 울다가 또 그치고
 못 파리는 가다가 다시 돌아오네.
 좁은 평상마다 물이 새니
 하루에 몇 번 시름했을까.

草砌唯看濕
 榴窓不遣開
 林鳩啼又歇
 群蜻去還來
 局促床床漏
 愁腸日幾回

1.70. 평사⁴²⁴)로 영변 절도사 막부에 부임하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以評事 赴寧邊節度幕]

책명(策命)을 떨치려고 관하(關河)⁴²⁵) 가는 길
 더운 날씨에 말을 타고 가네.
 산천의 빛이 많이 변하니
 초목의 이름을 다 알겠네.
 수하(手下) 삼천의 얼굴
 흉중(胸中) 백만의 병사로세.
 긴 수염 나부끼며 기쁘게 일어나
 막료의 평사로 부끄러움이 없네.

振策關河道
 炎天一騎行
 山川多動色
 草木摠知名
 手下三千馘
 胸中百萬兵
 長髯翻起喜
 無愧幕僚評

마음은 시서(詩書) 배움 가득하니
 군막(軍幕)을 도와 바르게 하네.
 두 깃 화살은 비껴가고
 눈비가 담비 갓옷을 한번 적시네.
 격문을 쓰면 붓에는 바람이 생겨나고
 채찍을 던지면 바다는 흐름 끊어지네.

滿腹詩書學
 端能佐幕籌
 橫行雙羽箭
 雨雪一貂裘
 草檄風生筆
 投鞭海斷流

424) 평사 : 정6품 관직 이름으로 兵馬評事의 약칭이다. 병마절도사의 막하에서 군사조직에 참여하며 文簿를 관장하고 軍資와 考課 및 開市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였다. 처음에는 兵馬都事를 두었으나 1466년에 병마평사로 개칭하여 평안도와 永安北道에 각각 1인씩을 두었는데, 이는 변방에 武臣수령이 많이 임명되고 兵使의 권한이 막중하였으므로 文臣출신의 막료가 보좌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477년부터 實職이 뿜혀서 과견되었고, 임기는 2년이였다.

425) 관하(關河) : 函谷關과 黃河의 병칭으로, 고향이나 도성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을 뜻하는 말이다.

아녀자와 헤어진 깊은 슬픔에
시시콜콜한 말 그치지 않네.

深悲兒女別
刺刺語無休

호랑이 굴에 깊이 들어가야 하니
봉(封)해진 제후는 다시 누구인가.
하늘의 북쪽 경계를 경영하고
나라의 서쪽 모퉁이 바빠 걷네.
늙어서 지리의 방법을 논하니
고명(高名)하여 천시(天時)의 주요함을 알리네.
군무(軍務)를 따르고 남은 힘이 있으면
횡삭부(橫槩賦)⁴²⁶를 시험 삼아 지으려네.

虎穴須深入
封侯更是誰
經營天北界
踏踏國西陲
髮白論兵地
名高報主時
從軍有餘力
橫槩試題詩

호쾌(好快)하게 고서기(高書記)를 버리고
말안장을 의거하여 활시위를 당기네.
고군분투 선선(鄯善)⁴²⁷을 찾고
한 칼로 누란(樓蘭)⁴²⁸을 베네.
오래토록 선비의 고충을 아니
누가 선비의 어려움을 말하라.
조정에서는 대장을 찾으니
이로부터 점점 등단하였네.

好去高書記
張弓據馬鞍
孤軍收鄯善
一刃斬樓蘭
久識爲儒苦
誰言得士難
朝廷覓大將
從此漸登壇

안변(安邊)⁴²⁹에는 삼책(三策)⁴³⁰이 있으니

安邊三策在

426) 횡삭부(橫槩賦) : 말 위에서 창을 가로로 비껴들고 시를 짓는다는 말이다. 陣中에서 시가를 읊는 풍류를 즐긴다는 뜻이나 文武를 겸비한 인물이 전쟁터에서 지어 낸 豪快한 글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曹操曹丕, 上馬橫槩, 下馬談論”.(『南齊書』 권28 <垣榮祖列傳>.) 및 “曹氏父子, 鞍馬間爲文, 往往橫槩賦詩.”(元稹, <唐故工部員外郎杜君墓係銘>.)

427) 선선(鄯善) : 중국 서부 Tarim盆地 남동쪽에 있었던 고대 국가이다. 西域과 青海를 연결하는 요충지로, 5세기 무렵 吐谷渾에 의해 멸망하였다.

428) 누란(樓蘭) : 西域 여러 나라 중의 하나이다. 비단길 서역 南路의 중요한 중계 거점으로 번영하였는데, 계속되는 여러 세력의 침입과 자연의 변화로 6세기 이후 멸망하였다. 많은 고분과 유적이 남아 있다.

429) 안변(安邊) : 함경남도 안변군에 있는 면. 군청 소재지이며 경원선과 동해 북부선이 나뉜다.

430) 삼책(三策) : 세 가지 계책으로, 蘇秦이 趙王을 유세하면서 쓴 말이었으나 국가의 긴요한 정책을 들어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원수에게 주어 가리고 취(取)하게 하네.
 오랑캐를 평정한 공력 다 말하니
 원대한 공(功) 정하지 않음이 없네.
 차주(借籌)⁴³¹하는 장막 눈이 차고
 붓을 던지고 앉으니 바람이 생기네.
 부곡(部曲)에 한가한 여가 많아지니
 의기(意氣) 속에서 명성 이루어졌네.

取擇付元戎
 盡道平羌力
 無非定遠功
 借籌帷滿雪
 投筆坐生風
 部曲閑多暇
 名成意氣中

몸의 거취(去就)는 새처럼 가볍게 하지만
 은혜를 갚을 때는 몸을 돌보지 않네.
 병법(兵法)을 말하고 칼날 상자를 울리며
 적의 상황을 물으며 턱 아래 수염을 떨치네.
 이로부터 기이한 남자가 되니
 원래 천박한 장부가 아니라네.
 천고(千古) 위에 아름다운 말은
 기실(記室)⁴³²이 원유(元瑜)⁴³³에게 있었네.

身去輕如鳥
 酬恩不顧軀
 談兵鳴匣劍
 問敵奮頷鬚
 自是奇男子
 元非賤丈夫
 休言千古上
 記室有元瑜

조두(俎豆)는 평생의 일이니
 새로 곽표요(霍嫖姚)⁴³⁴를 따르네.
 어떻게 연참(鉛槧)⁴³⁵에 죽을까
 활과 조두를 맡기고 싶네.
 말은 얼음 바다를 처음으로 지나가고
 독수리는 음산(陰山)에서 이미 다하였네.
 멀리 사막 너머의 일을 알아

俎豆平生事
 新隨霍嫖姚
 胡能死鉛槧
 直欲托弓刁
 冰海初行馬
 陰山已盡鵬
 遙知沙漠外

431) 차주(借籌) : 임금의 밥상 앞의 젓가락을 빌려 계획을 헤아린다는 말이다. 漢 高祖 劉邦이 식사 중에 張良이 들어와 고조의 젓가락을 빌려 산가지로 삼아 계획을 의논한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漢書』, <張良傳>.)

432) 기실(記室) : 정7품 관직을 말하며, 기록에 관한 사무를 맡은 관리를 말한다.

433) 원유(元瑜) : 後漢 獻帝 때인 建安 연간(196~220)에 曹操(155~220) 부자 밑에서 활약한 문학 집단 가운데 특히 뛰어난 才子 7인인 建安七子 중 한 사람이다. 건안7자는 孔融(153~208. 字는 文舉)·陳琳(?~217. 字는 孔璋)·王粲(177~217. 字는 仲宣)·徐幹(170~217. 字는 偉長)·阮瑀(?~212. 字는 元瑜)·應瑒(?~217. 字는 德璉)·劉楨(?~217. 字는 公幹)을 말한다.

434) 곽표요(霍嫖姚) : 漢나라 武帝 때 일찍이 嫖姚校尉를 지낸 대장군 霍去病을 말한다.

435) 연참(鉛槧) : 글씨를 쓰는 납 가루와 나무판자라는 뜻으로, 붓과 종이를 이르는 말이다.

밝은 임금의 조정에 와서 보고하네.

來報聖明朝

당신의 원숭이 같은 팔과 손을 보고
 이별의 술잔을 잡고 오래 노를 젓네.
 오랑캐 평정하는 책명 사양하지 않고
 말 재주에 기대고 보답하기를 구하네.
 해와 눈에 번득이는 조두(刁斗)를 차니
 바람과 우레가 진동하듯 말을 하네.
 서까래 같은 붓을 아끼지 않고
 연산(燕山)에 새긴 비석 돌아보네.

看君猿臂手
 長楫把離杯
 不讓平蠻策
 要酬倚馬才
 佩刁翻日雪
 談舌振風雷
 莫惜如椽筆
 燕山勒石回

잠시 천 냥의 귀중함을 허락하니
 몸은 가는 것 하나보다 가볍구나.
 시서(詩書)로 장군 장막에 참여하여
 갑옷과 투구를 유림 옷으로 바꾸었네.
 웅장한 기운이 뒤집혀 근심이 극에 달하고
 이별의 정자에서 흠뻑 취(醉)하고 돌아오네.
 만 여리 양관(陽關)에는
 불현듯 친구가 드무네.⁴³⁶⁾

暫諾千金重
 身輕一羽微
 詩書參將幕
 介冑換儒衣
 壯氣翻愁極
 離亭盡醉歸
 陽關萬餘里
 轉覺故人稀

손수 삼백 근을 끌어당기니
 당신의 힘이 여유로움을 알겠네.
 만인(萬人)의 적을 구하려고
 어찌 오거서(五車書)⁴³⁷⁾를 쓰랴.
 밤에 나팔소리 변방 고을에 시끄럽고
 가을의 시는 오랑캐 땅에 떨어지네.
 한각(漢閣)⁴³⁸⁾ 가에 부끄러움 많고

引手彎三百
 知君力有餘
 要爲萬人敵
 何用五車書
 夜角喧邊郡
 秋吟落虜墟
 多慙漢閣上

436) 만 여리 양관(陽關)에는 ~ 친구가 드무네 : “陽關”은 옛 關名이다. 古人들이 흔히 이곳에서 친구를 전송하였다. 王維의 <送元二使安西>, “渭城朝雨浥輕塵, 客舍青青柳色新. 勸君更進一杯酒, 西出陽關無故人.”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437) 오거서(五車書) : 수많은 서책을 의미하는 말이다. “혜시의 학설은 다방면이어서 그 저서가 다섯 수레에 실을 정도이다. [惠施多方, 其書五車.]”(『莊子』, <天下>.)

늪어 충어(蟲魚)를 주석하고 있네.⁴³⁹⁾

白首註蟲魚

1.71. 고향 벗에게 부치다

[寄鄉友]

물어 보려네 소나무 숲 속에는
 우리 정자가 예전처럼 있는가.
 가을바람에 오동잎 하나가 떨어지고
 밤이슬에 천 그루 굴나무가 젖었네.
 물고기 통발 거두어 저녁밥을 먹고
 새벽 반찬은 토란을 깎아 나누었지.
 그대의 은혜에 보답할 수가 없으니
 세 갈래 지름길 제멋대로 거칠겠지.

借問松林裏
 吾亭似舊無
 秋風梧一葉
 夜露橋千株
 晚飯收魚筍
 晨羞斲芋區
 君恩酬不得
 三逕任荒蕪

1.72. 강가에서 벗의 <별우>에 차운하다.

[江上 次友人別友韻]

이번에 가는 함평(咸平) 고을은
 앞의 여정이 몇 천리인가.
 강남은 장차 해가 저물고
 한강 이북은 가을하늘이 되려고 하네.
 이별의 소매는 술잔의 술로 적시고
 이별의 노래는 피리와 거문고 섞었네.
 내일 아침 헤어지는 곳에서
 머리 돌리면 한번 슬퍼지리.

此去咸平縣
 前程問幾千
 江南將暮日
 漢北欲秋天
 別袖沾杯酒
 離歌雜管絃
 明朝分手處
 回首一悽然

438) 한각(漢閣) : 漢武帝가 건립한 麒麟閣으로 宣帝 때에 이르러 霍光, 蘇武 등 功臣 11인의 초상화를 그려 이 누각 위에 걸어 기념하였다.(『漢書』卷54 <蘇建傳 蘇武>.)

439) 충어(蟲魚)를 주석(註釋)하네 : 미세한 동식물의 註解를 낸다는 뜻으로 繁瑣한 訓詁의 작업을 가리킨다.

1.73. 어젯밤에 전배하려고 객관에서 만났는데 늦게 마치더라도 돌아
오려고 하였지만 올 수 없었다. 지금 비에 길이 막혀 각건을 묶으
며 부질없이 읊시 한 수를 짓다 벗에게 주었는데 비가 개기를 바라는 마음은
어떻게 말할까?

[昨夕，欲歷展館會，晚罷經還未能。今則關雨縮角，空吟一律 呈友人 雨
晴期敘何如]

세상일은 마치 미는 수레바퀴와 같아
 진실로 가고 멈춤을 남에게 의지하네.
 한 자 여덟 자도 다시 너에게 의뢰하니
 나가고 물러남을 또한 무엇으로 따르랴.
 봄은 절로 헛되이 보냄을 미워하고
 벼슬은 응당 조금 쉬어야 한다네.
 꽃을 시기한 비바람이 어지러우니
 말을 달려 새벽의 유희를 만드네.

世事如推轂
 憑人信去留
 尺尋聊復爾
 進退亦何由
 春自嫌虛負
 官應得少休
 猜花風雨亂
 走馬作晨遊

1.74. 잠깐 동호에 있으면서 병이 들어 며칠을 누워 있는데 생각이
매우 무료하여 오언을시를 짓다 벗에게 주며 화답시를 구하고 하여금 또 그가
오면 만나려는 마음을 바랬을 뿐이다.

[頃在東湖中，病來臥數日，思甚無聊，吟成短律 呈友人求和教 且冀其來見之
意耳]

병중이라 원래 잠이 없어
 밤새도록 희미한 등불을 마주하였네.
 역력히 지난 일 생각하며
 머나먼 고향 벗 기억하네.
 몸은 해경(海梗)⁴⁴⁰에 떠있는 듯

病中元少睡
 終夜對殘燈
 歷歷思前事
 遙遙憶故朋
 身如浮海梗

440) 해경(海梗) : 昆明湖의 동쪽 끝에 있다.

마음은 가을 파리 만난 듯하네.
 다시 산대를 다하여도 깨닫지 못하니
 근심스러운 마음은 열배나 더해졌네.

心似遇秋蠅
 不覺更籌盡
 愁懷十倍增

강변에 눕지도 앓았는데
 어떻게 쇠약한 병 많을꼬.
 봄이 왔으나 추위 다시 심하니
 밤은 오래 고난하게 지나가네.
 잠깐 잠에 긴 꿈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 마음대로 혼자 읊네.
 으레 맑은 냉수(冷水)를 가지고
 한번 이 숙질(宿疾)을 씻어보려네.

不是江邊臥
 如何衰病多
 春來寒更甚
 夜久苦難過
 短被從長脫
 新詩任獨哦
 須將清冷水
 一洗此沈痾

여러 날을 지내며 신음하니
 원기가 삭연(索然)히 사라지네.
 만사가 부질없이 감돌아
 점점 삶이 외롭고 쓸쓸해지네.
 친구는 어느 날에 만나려나
 쇠한 귀밑머리 지금도 시드는데.
 가만히 문 앞 버드나무를 생각하니
 온 가지가 얼마나 노랗게 흔들릴까.⁴⁴¹⁾

吟呻經數朝
 元氣索然消
 萬事空縈繞
 孤生漸寂寥
 故人何日見
 衰鬢此時凋
 暗想門前柳
 搖黃幾百條

1.75. 석천이 준 시에 차운하다

[次石川贈韻]

의관 속대는 바쁜 걸음을 방해하고
 돌아가려는 마음에 들판과 시내 생각나네.

束帶妨趨走
 歸心憶野溪

441) 가만히 문 ~ 노랗게 흔들릴까 : 봄이 다 감을 아쉬워하는 말이다. 참고로 김종직의 시를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명일에 한강 강가의 길을 가노라면 / 노란 버들눈이 흔들리는 걸 함께 보겠네. [明日漢江江畔路, 共看楊柳眼搖黃.]”(金宗直, <書許金山混詩卷>, 『佔畢齋集』卷7)

천시(天時)가 천천히 움직임을 보니
연못가 풀 꿈만 몽계몽계 자라네.
먹음은 초림(鷓林)⁴⁴²의 뱀새에서 깨닫고
이름은 안탑(雁塔)⁴⁴³의 시에는 부끄럽네.
항상 노(魯)나라 부자(夫子)⁴⁴⁴를 슬퍼하며
한 해가 저무는데 억지로 안절부절 하는가.

天時看冉冉
池草夢萋萋
食覺鷓林足
名慙雁塔題
常悲魯夫子
歲晚強栖栖

1.76. 청석동⁴⁴⁵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靑石洞 次蘇贊成韻]

길을 금교관(金郊館)⁴⁴⁶으로 나설 때
푸른 이끼를 밟고 가니 행차가 더디어지네.
양의 창자는 아홉 번이나 꺾이고⁴⁴⁷
조도(鳥道)⁴⁴⁸는 천 번을 돌아가네.
절벽은 구름을 이어 다하고
평원은 한 눈에 들어오네.
청아한 시를 주고받을 수 없게 되니
후리(候吏)⁴⁴⁹는 문득 천문(天文)의 상(相) 재촉하네.

路出金郊館
行遲踏綠苔
羊腸仍九折
鳥道又千迴
絕壁連雲盡
平原入望開
清吟酬不得
候吏遽相催

442) 초림(鷓林) : 자기의 분수를 지켜 편하게 사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뱀새가 깊은 숲속에 등지를 뜬다 해도 나무 가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鷓鷀巢於深林, 不過一枝.]”(『莊子』, <逍遙遊>.)

443) 안탑(雁塔) : 唐나라 玄奘法師를 위해 세운 탑으로 陝西城 西安市의 慈恩寺 안에 있다. 이것을 ‘大雁塔’이라 부르고 薦福寺에 있는 것을 ‘小雁塔’이라고 부른다.

444) 노(魯)나라 부자(夫子) : 魯나라 孔丘를 가리킨다.

445) 청석동 : 황해도 金川郡 古東面에 있는 靑石峴을 말한다.

446) 금교관(金郊館) : 옛 江陰縣에서 서남쪽으로 30리 되는 곳에 있다.(『朝鮮紀事』.)

447) 양의 창자는 ~ 번이나 꺾이고 : 九折羊腸으로, 산길 따위가 양의 창자처럼 꼬불꼬불하여 험함을 말한다. 전하여 세상이 복잡하여 살아가기 어렵다는 말이다.

448) 조도(鳥道) : 나는 새만이 갈 수 있을 만큼 좁은 산속 길을 말한다.

449) 후리(候吏) : 後漢 和帝 때 李郃을 말한다. 幕門候吏의 벼슬자리에 있을 때 天文을 보고 使臣이 오는 것을 알았다는 고사가 있다.

1.77. 총수산⁴⁵⁰비각에서 쉬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憩蔥秀山碑閣 次蘇贊成韻]

말을 두 비각(碑閣) 아래 세워놓고 보니
산의 주위가 한 폭의 병풍이네.
다듬고 새기니 석고(石鼓)⁴⁵¹와 같고
문자는 반명(盤銘)⁴⁵²인가 의심스럽네.
자라는 조금 숙인 머리를 이고
용은 절반 드러난 얼굴을 끄네.
신의 가호는 귀신 힘 번거로울까봐
영원히 바위 문을 잠그네.

立馬雙碑下
山圍一畫屏
鐫磨同石鼓
文字擬盤銘
鼇戴微低首
龍拏半露形
搗呵煩鬼力
千古鎖巖扃

감상은 원래 늦은 것이 아니니
사신(詞臣)의 눈을 새롭게 하네.
겨우 한마디 기려서 드러냈는데⁴⁵³
천년을 나아가 밝게 보여주네.
마음 얹은 경우를 따라 많고
이름 남김 남에게 달려 있네.
당시(當時)를 회고하지 못하니
오늘도 부질없이 야위어가네.

遇賞元非晚
詞臣着眼新
揄揚纔一語
昭示卽千春
會意多緣境
留名故在人
當時不回顧
今日謾嶙峋

450) 총수산 : 현재 황해도 平山都護府의 북쪽 30리에 있는 蔥秀山이다.

451) 석고(石鼓) : 중국에 현재 남아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각 문자이다. 중국 先秦代의 것으로 모두 열 개였는데 각 돌마다 모두 四言詩가 한 수씩 새겨져 있었다. 내용은 모두 사냥에 대한 것이다.

452) 반명(盤銘) : 중국 殷나라의 湯王이 자신이 쓰는 쟁반에 새긴 글을 말한다. “湯之盤銘曰: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大學』, 傳文 第2章)

453) 기려서 드러냈는데 : 서예에서 흔히 ‘木’과 ‘扌’는 혼용하여 쓴다. 이를 근거하여 ‘揄揚’은 ‘揄揚’으로 교감하여 국역하였다.

1.78. 말 위에서 즉흥으로 읊시 두 수를 짓다 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馬上口占二律 次演之韻]

또 몇 리를 달리고 달리니
 말 머리에서 산이 어지럽게 비껴가네.
 근력으로 세상 살아가기 어려운데
 시서(詩書)로 삶을 쉬이 그르쳤네.
 먼지와 모래에 절인 날이 없으니
 강과 바다에 마음도 돌아가지 못하네.
 저녁 무렵 객관 앞에 몸을 던지고
 황량(黃梁)의 꿈⁴⁵⁴을 한번 꾸었네.

馳驅又幾里
 馬首亂山橫
 筋力難供世
 詩書易誤生
 塵沙靡鹽日
 江海未歸情
 向暮投前館
 黃梁夢一成

의기투합하여 친구로 의지하니
 동행하는 전생의 인연 있었네.
 산천은 국경에서 다하고
 세월은 시(詩) 끝에서 늙어가네.
 길이 있어 굳은 땅에서 자니
 작년에 만들어진 정이 깊어지네.
 말을 타는 날은 어떻게 하려고
 다시 밭 구하러 간다고 하는가.⁴⁵⁵

托契憑知己
 同行有宿緣
 山川窮塞上
 歲月老吟邊
 道在投膠地
 情深作客年
 如何鞍馬日
 更說去求田

454) 황량(黃梁)의 꿈 : 唐나라 開元 연간에 邯鄲의 한 주점에서 가난한 서생 盧生과 呂洞賓과의 고사를 말한다.

455) 다시 밭 ~ 간다고 하는가 : 求田問舍의 준말로, 밭이나 구하고 집이나 묻는다는 뜻으로 원대한 포부는 없이 가산이나 경영하는 비속한 행위를 말한다. 삼국시대 魏나라 陳登에게 許汜가 찾아왔을 때 진동이 그를 무시하고 대우를 하지 않자, 허사가 이에 불만을 품고는 “원룡은 호기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劉備에게 하소연을 하니, 유비가 “당신은 국사의 명성을 지닌 사람인만큼 세상을 구할 생각을 해야 할 것인데, 그저 밭이나 구하고 집이나 묻는 등 취할 말이 없었으므로 원룡이 꺼린 것이다. [君求田問舍, 言無可采, 是元龍所諱也]”라고 대답하였다.(『三國志』 卷7 <魏書·陳登傳>.)

1.79. 신 선위의 시에 차운하다 이름은 광한이다.

[次申宣慰韻 名光漢]

객중에서 또 좋은 계절인데
 꽃이 없으니 절로 마음 아프네.
 변방구름 어두컴컴하고
 바다의 해 황혼을 희롱하네.
 한번 고향산천과 이별하니
 쓸쓸히 가는 길 길게만 느껴지네.
 향수(鄉愁) 없애는 좋은 시구 기다리며
 가끔 붓 끝을 적신다네.

客裏又佳節
 無花還自傷
 關雲帶昏黑
 海日弄曛黃
 一與故山別
 空懷征路長
 消愁須好句
 時復染毫芒

1.80. 대동강 배에서 다시 앞의 시에 차운하다.

[大同江舟中 復次前韻]

객지에서 만나는 사람 적으니
 가도 가도 부질없이 마음만 아프네.
 국경의 하늘 구름은 끊어졌다 이어지고
 변방 가는 길 말은 검고 누르네.
 북쪽에서 만나는 별은 멀어지고
 서쪽으로 가는 길은 길어지네.
 헛되이 책과 칼이 남아 있으나
 이따금 날카로운 빛이 비치네.

客裏逢人少
 行行意謾傷
 塞天雲斷續
 關路馬玄黃
 直北星辰遠
 征西道里長
 空餘書劍在
 時復耀精芒

1.81. 운암원⁴⁵⁶⁾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雲巖院 次蘇贊成韻]

새로운 정자 규모가 작아
 황량한 처마 이영도 자르지 못하네.
 이끼 낀 뜰은 비가 그치니 미끄럽고
 돌길에는 구름이 높이 일어나네.
 저녁 반찬은 물고기 회(膾)를 준비하고
 봄 반찬은 가시연 털을 벗기네.
 휘파람소리 한아하게 들려오는 곳마다
 동쪽 언덕⁴⁵⁷⁾에 있는지 방불(彷彿)케 하네.

制度新亭小
 荒簷不翦茅
 苔庭經雨滑
 石逕出雲高
 晚饌供魚膾
 春羞剝芡毛
 閑來舒嘯處
 彷彿在東臯

1.82. 남당의 시에 차운하다

[次南塘韻]

연달아 작은 연못에서 통소를 부니
 빈객(賓客)이 봄을 차지하고 앉았네.
 집 짓는 날을 어찌 따지랴
 즐거움과 기쁨 이때 미치네.
 자연과 같이 은일하니
 물고기와 새가 함께 머뭇거리네.
 조만간 집 근처로 이사하여
 지나가도 싫다고 찌푸리지 마소.

連筒開小沼
 賓客坐占春
 卜築知何日
 歡娛及此辰
 林泉同隱逸
 魚鳥共逡巡
 早晚移家近
 經過不厭頻

456) 운암원 : 安州牧 驛院인 雲巖院으로 州의 남쪽 30리에 있다.(『東國輿地勝覽』 卷52)

457) 동쪽 언덕 :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동쪽 언덕에 올라 길이 휘파람 불고 / 맑은 시냇가에서 시를 짓기도 한다. [登東臯以舒嘯, 臨清流而賦詩.]”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83. 윤씨 어른에게 주다

[贈尹丈人]

늙고 젊음을 각각 들쭉날쭉하다고 누가 말하나
 어릴 때부터 고향에서 친하게 지냈는데.
 부자(父子)가 뛰어난⁴⁵⁸ 집 앞 가을 해질 무렵
 당신을 본받아 훗날 큰 술잔을 잡으리라.

誰云老壯各參差
 鄉邑親情自少時
 雙美堂前秋晚後
 擬君他日把深卮

1.84. 남당의 시에 차운하다

[次南塘韻]

두 지방에 뜬구름 절로 걷히고 퍼지나
 한 통의 소식 기러기가 처음 가져왔네.
 훗날 남쪽으로 가는 나그네가 되어
 연못가에 말 멈추면 삭거(索居)⁴⁵⁹를 물으려네.

兩地浮雲自卷舒
 一封消息雁來初
 他年若作南行客
 立馬池邊問索居

1.85. 동릉과⁴⁶⁰

[東陵瓜]

어느 지역엔들 오이가 마땅하지 않을까마는
 동릉(東陵)이 좋다는 칭찬을 독차지 하였네.
 진(秦)나라 법령에서 도망오고
 초(楚)나라 전쟁에서 벗어났네.

何地不宜瓜
 東陵擅美多
 逃來秦法令
 脫却楚干戈

458) 부자(父子)가 뛰어난 : “雙美”는 둘이 함께 뛰어나다는 뜻이다. 唐나라 때 令狐楚와 그의 아들 令狐絢가 다 같이 文章으로 유명하였고, 벼슬도 다 같이 宰相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唐書』 卷172 <令狐楚傳>.) 그러나 여기에서는 ‘雙美堂’이라는 윤씨 어른이 거처하였던 堂의 이름으로 짐작된다.

459) 삭거(索居) : 離群索居의 준말로, 무리를 떠나 홀로 쓸쓸히 지낸다는 뜻이다.

460) 동릉과 : 참외의 별칭이다. 秦나라가 망한 뒤에 고관으로 있었던 邵平이란 사람이 동릉에 가서 참외를 많이 심어서 그것을 팔아 생활하였다 하여 東陵瓜라는 말이 있다.

미물(微物)도 부끄러워 취(取)하지 않으니
 고상한 명예는 지키면 없어지지 않네.
 유전(流傳)⁴⁶¹하여 만일 심는다면
 양지바른 언덕에 부탁하고 싶네.

微物慙無取
 高名保弗磨
 流傳如有種
 吾欲托陽坡

1.86. 경신일 밤에 친한 벗과 송당⁴⁶²에서 만나다

[庚申夜與隣友會于松堂]

가까운 거리에 송당(松堂)이 있으니
 대 여섯 명이 뒤쫓아 따라가네.
 몇 번이나 갑자(甲子)일이 지나고
 지금 또 경신(庚申)일 이르렀는가.
 몰래 앉아 친근하게 술잔 나누는데
 희미한 등불에 자주 재가 떨어지네.
 수고로움 없이 졸음을 쫓으며
 서로 웃으며 하는 말 새로워라.

咫尺松堂地
 追隨五六人
 幾多經甲子
 今又到庚申
 坐密傳杯近
 燈殘落燼頻
 無勞逐眠睡
 相對笑言新

1.87. 매미가 울다

[鳴蟬]

가을이 이처럼 문득 찾아와
 맴맴 매미우는 소리 그치었네.
 우는 곳 처음은 피리처럼 요란하다가
 멈출 때는 거문고 줄 끊어질 듯.
 길가 나무에서 많이 들려오고

秋期遽如許
 嚶嚶已鳴蟬
 噪處初喧籥
 停時欲斷絃
 多聞官道樹

461) 유전(流傳) : 流通傳持의 준말로, 교법이 만대에 유통하여 흐르는 물과 같이 끊임없이 전함을 말한다.

462) 송당 : 엄흔이 성수침에게 보여 준 <示聽松居士 成仲玉>의 내용으로 보아 聽松居士의 松堂으로 짐작된다.

석양 하늘에서 문득 오염하네.
 구공(歐公)의 부(賦)⁴⁶³에 화답하고 싶으나
 서까래 같은 붓이 없음을 부끄러워하네.

偏咽夕陽天
 欲和歐公賦
 慙無筆似椽

1.88. 슬픈 비단부채

[悲紈扇]

구중궁궐 이른 가을 기운에
 정원 나무에 아마 서늘한 바람 불겠지.
 둥근달 같은 손바닥의 진주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듯.
 인정에 두텁고 얇음이 있으니
 춥고 따뜻함은 이 마음이 옮기네.
 장차 너와 함께 배회하니
 첩의 마음 진실로 절로 슬프네.
 찬바람은 또 오래가지 못하나
 해는 도리어 뜨겁게 타오르네.
 유독 첩과는 후일의 기약이 없으니
 그대의 은혜 지금 이미 쇠해졌다네.

深宮秋氣早
 庭樹風淒其
 團團掌中珍
 一朝棄如遺
 人情有厚薄
 寒暑此心移
 將汝共徘徊
 妾心良自悲
 寒風亦不久
 天日還炎曦
 獨妾無後期
 君恩今已衰

1.89. 동짓날에 관문을 닫다

[至日閉關]

석과(碩果)가 회생하는 이치
 지뢰복괘(地雷復卦)에서 처음 알았네.⁴⁶⁴

碩果回生理
 初聞在地雷

463) 구공(歐公)의 부(賦) : 宋나라 歐陽脩(1007~1072. 자는 永叔, 호는 醉翁,六一居士) 52세 때의 작품인 <秋聲賦>를 말한다.

464) 석과(碩果)가 회생하는 ~ 처음 알았네 : 純陰의 달인 10월이 지나고 동지가 되었다는 말이다. 『周易』 <山地剝卦> 上九 爻辭에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 [碩果不食]”라고 하였는데, 이는

하늘의 마음 발육을 도와주고
 태양의 덕은 재배에 힘쓰게 하네.
 모든 객관이 닫혔다고 의심하지 마라
 끝내 만호(萬戶)가 열림을 볼 것이니.
 『周易』 상전(象傳)의 말 분명하게 있으니
 마치 복희씨(伏羲氏)가 와서 만난 듯하네.

天心資發育
 陽德厲栽培
 莫訝千關閉
 終看萬戶開
 分明存易象
 如見伏羲來

1.90. 두자미의 <추야>에 차운하여 지은 시 벗에게 보여준다.

[次子美秋野韻 示友人]

아침 안개가 때때로 흩어지고 모이니
 해질녘 가을 강물이 공허하네.
 흥미한 황야 눈을 다하여 보고
 멀리 떨어진 빈터에 마음 돌려보내네.
 비녀와 갓끈 귀밑머리털에 새롭고
 논밭에서 오랫동안 김매고 가꾸었네.
 낡고 구차한 앞 계곡 물에서
 늘그막에 아름다운 물고기를 생각하네.

朝霞時散合
 秋水晚空虛
 極目迷荒野
 歸心落遠墟
 簪纓新鬢髮
 田畝舊耰鋤
 敝苟前溪水
 長年憶美魚

여기서 가면 내 고향 가까우니
 평생 함께 가기를 바라네.
 때로 가을엔 누각에 기대 바라보고
 저물어 돌아가는 배 오래 전송하네.
 나라에 허락한 몸 아직 살아있으니
 밭을 구하는 일은 이미 클러졌다네.
 임금의 은혜를 소홀하게 갚으려
 한가로이 고향에서 고사리 캐네.

此去吾鄉近
 平生與願違
 時憑秋閣望
 長送暮帆歸
 許國身猶在
 求田事已非
 君恩粗報得
 閑採故山薇

다섯 개의 겹가 모두 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효 하나만 陽인 것을 '碩果'로 비유한 것으로, 하나 남은 양의 기운이 외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이 剝卦를 거꾸로 뒤집으면 바로 復卦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이다.

내 머리는 쇠하여 많이 희고
 당신 얼굴은 아름다워 유달리 붉네.
 그때 밤에 달빛을 나눠 받았고
 오늘 가을바람을 함께 쐬네.
 호수와 바다에서 삼년을 떨어졌으나
 술잔과 술동이를 하루저녁 같이하네.
 어찌 초라한 뒤의 일을 알라
 붓을 들고⁴⁶⁵⁾ 요궁(瑤宮)⁴⁶⁶⁾에서 모시네.

我髮衰多白
 君顏美獨紅
 當時分夜月
 今日共秋風
 湖海三年隔
 杯樽一夕同
 那知潦倒後
 簪筆侍瑤宮

빈 마루에 가을 기운이 적막하니
 홀로 서서 우리들을 생각하네.
 세월은 사람들의 늙음을 재촉하고
 강물의 파도는 나그네 소문을 보내네.
 천년동안 흘러가는 강물을 따르니
 만사가 뜬 구름처럼 변하네.
 난정(蘭亭)의 모임뿐만 아니라
 사문(斯文)이 우군(右軍)⁴⁶⁷⁾에게 감사하네.

空堂秋寂寞
 獨立憶吾群
 歲月催人老
 江波送客聞
 千年隨逝水
 萬事變浮雲
 不獨蘭亭會
 斯文感右軍

1.91. 청강을 지나가며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過清江 次蘇贊成韻]

청강(淸江)의 강가에 해가 지니
 흐르는 물가에 가서 한번 묻노라.
 조각구름과 몸이 함께 멀어지니
 외진 변방의 길 위태로움이 많네.
 수심이 얕으니 헤엄치는 물고기 적고

落日淸江上
 臨流一問之
 片雲身共遠
 絕塞路多危
 水淺魚游少

465) 붓을 들고 : “簪筆”은 관원이 冠이나 笏에 붓을 꽂아서 書寫에 대비하는 것을 이르는 말로, 전하여 帝王의 近臣이 된 것을 의미한다.

466) 요궁(瑤宮) : 신선들이 사는 곳을 말한다.

467) 우군(右軍) : 右軍은 東晉의 서예가 王羲之를 가리킨다.

다리가 길어 말은 더디게 건너가네.
 만일 속된 마음 씻을 수 있다면
 전번 바람에 흠음을 아까워 마라.

橋長馬度遲
 塵襟如可濯
 不惜向風披

1.92. 소곶관⁴⁶⁸⁾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所串館 次蘇贊成韻]

멀리서 역관 정자가 보이는 곳
 끝이 없는 황무지 밭이라네.
 산해(山海)는 변방지역에 안
 청명(淸明)은 곡우(穀雨) 앞.
 가는 길 길어 노고가 이어지고
 돌아가고픈 생각 문득 아득하네.
 동행하는 짝이 있어 의지하니
 솔바람과 마주보고 앉아 자네.

驛亭遙望處
 極目是荒田
 山海關防內
 淸明穀雨前
 征途長役役
 歸思却懸懸
 賴有同行伴
 松風對榻眠

1.93. 연지에게 부치다 5월 2일 저녁 양책관에 도착하여 잠을 자는데, 마음이 몹시 무
 료하여 길 떠나기 전에 초서로 써서 드리다.

[寄演之 五月初二夜, 到宿良策館, 懷甚無聊, 臨行草呈]

떠나는 날 동무 많았으나
 돌아올 때 나 홀로 왔네.
 먼 하늘 구름은 조각조각
 깊은 계곡 새들 재잘재잘.
 조정에 돌아와 좋으나
 각별한 우정 어떡하랴.
 밤이 오니 백발은 새롭고

去日多徒侶
 歸時我獨行
 遙天雲片片
 深谷鳥嚶嚶
 縱得還朝樂
 其如別友情
 夜來新白髮

468) 소곶관 : 義州에서 남쪽으로 33리 되는 곳에 있는 所串館이다.(『朝鮮紀事』.)

날날이 그대 삶 생각하네.

箇箇憶君生

1.94. 당어령⁴⁶⁹⁾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堂於嶺 次蘇贊成韻]

크고 작은 당어령(堂於嶺) 가를
가도 가도 흰 구름이 머리를 침범하네.
산 구름은 북쪽으로 넓은 하늘 바라보고
말을 타고 서쪽으로 조밀한 길을 오네.
늦봄에 다시 어지럽게 나는 제비 없고
거친 밭에는 잠자는 소만 보이네.
임금의 은혜 몸이 늙어 갚지 못하니
어느 날 세 번 쉬고 네 번 쉬려나.⁴⁷⁰⁾

大小堂於嶺上
行行白雲侵頭
雲山北望天闊
鞍馬西來路稠
春晚更無亂燕
田荒唯見眠牛
君恩未報身老
何日三休四休

1.95. 초현원에 가는 길에 성거산을 바라보며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招賢院道中望聖居山 次蘇贊成韻]

연못 누대에는 야인의 주거지가 다 보이니
주춧돌 깨지고 담은 무너졌으나 옛 궁전은 남았네.
침조정(沈朝廷)⁴⁷¹⁾은 어느 곳인가 묻고 싶으나
바람이 불어오니 근심이 다시 뒤섞여 어지럽네.

池臺盡入野人居
破礎崩垣古殿餘
欲問沈朝是何處
臨風愁緒更紛如

469) 당어령 : 定州의 서쪽 15리에 있는데 광산군과의 경계 堂於嶺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卷52) 한편 이 시는 『十省堂集』 가운데 유일하게 六言詩로 이루어져 있다.

470) 어느 날 ~ 번 쉬려나 : 三休는 唐나라 司空圖의 <休休亭記>에서 말한 것으로, 재주를 헤아려 보아 쉬는 것, 분수를 헤아려 보아 쉬는 것, 늙고 귀먹으면 쉬는 것이고, 四休는 宋나라 黃庭堅의 <四休居士詩序>에서 말한 것으로, 허술한 음식으로라도 배부르면 쉬고, 뚫어진 데를 기워 따사로우면 쉬고, 세 가지는 보통이고 두 가지는 만족해서(三平二滿) 지나치면 쉬고, 탐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아 늙으면 쉬는 것이 그것이다.

471) 침조정(沈朝廷) : 開城府 보현원 앞에 작은 여울이 있는데 세상에서 '沈朝廷'이라 한다.

번화한 일은 가도 아득하여 찾기 어렵고
천지는 무궁하니 세월만 깊어져가네.
흥망성쇠 물어 있는 곳을 아니
일송잠(一松岑)⁴⁷²은 안개 낀 예전대로라네.

繁華事去杳難尋
天地無窮歲月深
問得興亡知有處
煙間依舊一松岑

여기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나그네 가는 길이 더디는가
서리(黍離)⁴⁷³의 새로운 곡조 하얀 귀밑머리에 드리워졌네.
동해가 뽕 밭으로 되는 것은 보통 변화인데⁴⁷⁴
말을 세워 놓고 마음 상하니 또한 어리석네.

到此如何客去遲
黍離新曲鬢絲垂
桑田東海尋常變
立馬傷神亦一癡

1.96. 동파관⁴⁷⁵) 사수의 시에 차운하다 임형수.

〔東坡館 次士遜韻 林亨秀〕

서촉(西蜀)과 동한(東韓)은 각각 다른 지방인데
웅대한 이름은 도리어 한 문장이네.
꽃답고 예쁜 이름을 전하여 천년을 함께 하니
바삐 높은 절벽으로 돌아가도 해롭지 않네.

西蜀東韓各異方
雄名還是一文章
傳芳娃字同千古
勤却蒼崖也不妨

1.97. 저탄⁴⁷⁶)을 지나가며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過豬灘 次蘇贊成韻〕

은은하고 긴 다리아래 얇은 여울에 누워

隱隱長橋臥淺灘

472) 일송잠(一松岑) : 구체적인 지역을 상고할 수 없으나, 앞뒤의 문맥상 고개 이름으로 국역하였다.

473) 서리(黍離) : 黍離之歎의 준말로, 나라가 망해서 옛 대궐 터에 기장 같은 식물이 무성한 것을 탄식한다는 뜻이다. 전하여 세상의 영고성쇠가 무상함을 탄식하여 이르는 말이다. “彼黍離離，彼稷之苗。行邁靡靡，中心搖搖。知我者，謂我心憂。不知我者，謂我何求。悠悠蒼天，此何人哉。” 賦而興이다.(『詩經』, <國風·王風65 黍離>)

474) 동해가 뽕밭으로 ~ 보통의 변화인데 : 仙女 麻姑가 王方平에게 말하기를 “東海가 물이 말라서 뽕밭으로 변하는 것을 세 번이나 보았다.”고 하였다.

475) 동파관 : 개성부를 출발하여 35리를 가면 東坡館이 있다.

476) 저탄 : 평양 大同江의 다른 이름이다.

맑은 물굽이에 고개 숙여 옷깃을 여미네.
 중류는 격하게 임하는 것 같지 않아 좋으니
 유람하는 사람들에게 자세히 보라고 하네.

開襟聊此俯清灣
 中流不似臨磯好
 爲報遊人仔細看

1.98. 용천관⁴⁷⁷⁾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龍泉館 次蘇贊成韻]

안개 자욱한 푸른 하늘이 베갯머리병풍에 들어오니
 산 기운이 늦게 내려와 사람을 엄습하여 맑네.
 깊이 생각하여도 앞길이 뭍을 기억하지 못하니
 반나절을 투한⁴⁷⁸⁾하여 마음을 위로하였네.

空翠霏霏入枕屏
 晚來山氣襲人清
 沈吟不記前途遠
 半日偷閑足慰情

여행 중에 근심거리 절로 여러 가지니
 속세에 분주하여 말단 벼슬아치가 되었네.
 고향의 매화꽃봉오리 응당 날 기다리니
 봄바람은 또 급히 불어 쇠잔케 마라.

客中愁緒自多端
 奔走塵埃爲一官
 梅蕊故園應待我
 東風且莫急吹殘

황량몽(黃梁夢)에 안장 지운 말을 쉬게 하니
 한이 없는 나그네 마음 표현하기가 어렵네.
 말위에서 한가한 세월 자라 사라지니
 봄의 일이 점점 쇠퇴해짐을 모른다네.

黃梁一枕息征鞍
 無限羈懷寫出難
 馬上長消閑日月
 不知春事漸成闌

477) 용천관 : 황해도 瑞興都護府내에 설치된 龍泉館이다.

478) 투한(偷閑) : 忙中偷閑의 준말이다. 바쁜 가운데 조금 틈을 내어 즐거움을 말한다.

1.99. **검수관**⁴⁷⁹⁾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劍水館 次蘇贊成韻]

먼 타향에서 계획도 없이 용천(龍泉)을 파니
 밤마다 정기가 올라와 위로 하늘에 사무치네.
 원망한 기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으니
 길 가는 나그네의 부질없는 말만 많아지네.

遐鄉無計斲龍泉
 夜夜騰精上徹天
 冤氣至今消不得
 行人謾說是雲煙

봄바람은 겁 발의 간격을 허락하지 않으니
 때로 앞 처마에 보내져 제비가 재갈거리네.
 갑자기 고향의 봄 예전처럼 생각나나
 여전히 이 몸은 화산(華山) 남쪽에 있네.

東風不許隔重簾
 時送前簷燕語喃
 忽憶故園春似舊
 依然身在華山南

1.100. **저복원**⁴⁸⁰⁾ 가는 길에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貯福院道中 次蘇贊成韻]

저복원(貯福院) 지붕 축대 가지 옛 길가에 자라고
 대나무 그늘과 소나무 통소 사이는 맑고 시원하네.
 잠시 이유 없이 서쪽으로 가는 병거(兵車)를 쉬게 하고
 다시 앞길을 향하려고 태항산(太行山)⁴⁸¹⁾을 물어보네.

院屋蕭條古道傍
 竹陰松籟兩清涼
 無緣暫稅西西駕
 復向前途問太行

서쪽 갈림길에 와 부질없이 종횡하며
 이미 헛된 명예만 믿고 삶을 잘못 살았네.
 저복원(貯福院) 안에 사람들 응당 나를 비웃으리니
 무슨 일로 한 해에 네 번이나 갔을까.

西來岐路謾縱橫
 已信虛名誤此生
 院裏有人應笑我
 一年何事四回行

479) 검수관 : 義州 鳳山郡에서 동쪽으로 30리에 있는 劍水館이다.(『朝鮮紀事』.)

480) 저복원 : 황해도 황주에 있는 貯福院이다.

481) 태항산(太行山) : 중국 太行山을 말한다. 태항산은 하남성과 산둥성·산시성·하북성을 포함한 4개의 성과 경계하며 남북으로 600km 동서로 250km로서 거대하게 산군을 이루고 있다.

뻑뻑한 숲 까마귀 울음소리에 하늘은 저물려하고
 소를 채찍질하니 밭을 갈지 않는 곳이 없네.
 그대는 저복원(貯福院)의 깊은 의미 많음을 알고
 멀리 남산에 만년 흠향을 축수하는가.

鴉噪叢林欲暮天
 鞭牛無處不耕田
 知渠貯福多深意
 遙獻南山享萬年

1.101. 숙녕 가는 길에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肅寧途中 次蘇贊成韻]

봄바람 나를 속여 귀밑머리 시들고 쇠잔하니
 봄의 중턱에 변방의 성은 특별히 춥네.
 운수(雲樹)⁴⁸²를 보려고 다시 올라가고 싶은데
 높은 누각은 어느 곳에 난간이 있을까.

東風欺我鬢凋殘
 春半關城特地寒
 更欲登臨望雲樹
 高樓何處有欄干

변방의 경치 모두 적막하고 쓸쓸하니
 장기(瘴氣) 안개가 낀 저녁 무렵 해는 쉽게 그늘지네.
 말이 긴 길을 박차고 진흙에 빠지려고 하는데
 어찌 이러한 때에 다시 한가롭게 시를 읊을까.

窮邊物色儘蕭森
 瘴霧昏天日易陰
 跋馬長途泥欲陷
 此間那復着閑吟

1.102. 숙녕관⁴⁸³에서 새벽에 읊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肅寧館曉吟 次蘇贊成韻]

새벽빛이 창가에 다가와 점점 밝아지니
 한단(邯鄲)의 꿈자리 처음으로 깨었네.
 바쁘게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에 일어나 괴롭고
 길을 재촉하는 북과 나팔소리 멀리서 들려오네.

曙色侵窓漸向明
 邯鄲一枕夢初醒
 惻惻苦被人呼起
 鼓角催程入遠聽

482) 운수(雲樹) : 雲樹之懷의 준말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뜻한다.

483) 숙녕관 : 평안도 안주목 肅川 都護府에 있는 肅寧館이다.

1.103. 눈을 맞으며 석문령(石門嶺)을 지나가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雪中過石門嶺 次蘇贊成韻]

숲을 뚫고 몰아치는 눈 어지럽게 내리며	穿林打雪落紛紛
오후가 되어도 흐리고 갠이 불분명하네.	日午陰晴尙不分
지난번에 석문령(石門嶺)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試向石門高處望
송골매 봉우리 멀리 압록강 구름을 머금고 있었네.	鵲峯遙帶鴨江雲

서쪽부터 밤에 비가 내려 가평(嘉平)가는 길을 막으니	西來雨夜阻嘉平
두어 번이나 옆 사람을 불러 눈이 개었는가 묻네.	數喚傍人問雪晴
막하에서 조금도 도움 없어 많이 부끄러우니	幕下多慙無少補
어떻게 이번 행차 은영(恩榮)을 보답할까.	此行何以答恩榮

1.104. 운흥관(雲興館)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雲興館 次蘇贊成韻]

시를 찾고 술을 찾아 문득 환호하니	搜詩覓酒便歡呼
객중 풍류의 마음 절로 외롭지 않네.	客裏風懷自不孤
하늘가 기이하게 떨어진 곳 다 보며	看盡天涯奇絕處
서쪽에서 온 첫 소식 심사숙고 하네.	西來始信足良圖

지지배배 새로 온 제비 처마 곁에서 부르고	喃喃新燕傍簷呼
동풍에 외로운 나그네 꿈은 놀라 깨트려졌네.	驚破東風客夢孤
가랑비 부슬부슬 내리고 안개는 희미하니	細雨霏霏煙淡淡
정원에 청아한 경치 그림으로 그리기 어렵네.	一庭清景畫難圖

484) 석문령 : 양주목 동쪽 15리 지점에 있는 石門嶺이다.(『新東國輿地勝覽』.)

485) 은영(恩榮) : 임금의 恩德을 입은 영광을 말한다.

486) 운흥관 : 『동국여지승람』에는 郭山 객관부에 新亭이 있다고만 하였고, 운흥역이 북쪽 17리에 있는데 使行路이며, 예겸 등의 기가 있다.(『東國輿地勝覽』 卷52 <平安道>.)

1.105. 동림성⁴⁸⁷⁾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東林城 次蘇贊成韻]

무너진 벽돌담 절반은 푸른 이끼로 반반하고	破甃班班半綠苔
봄바람에 말을 세워놓고 오래토록 배회하네.	東風立馬久徘徊
당시의 오정(五井) ⁴⁸⁸⁾ 을 찾을 곳이 없으나	當時五井尋無處
고수(古水) ⁴⁸⁹⁾ 를 먹으러 하늘을 잇닿는 들에 사슴이 오네.	古水連天野鹿來

1.106. 거련관⁴⁹⁰⁾에서 밤에 읊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車輦館夜吟 次蘇贊成韻]

오경(五更)에 비바람이 부니 하늘이 차갑고	五更風雨半天寒
꿈속의 소나무 소리 급한 여울을 알리네.	夢裏松聲報急湍
바쁘게 일어나서 잠자리를 옮기니	忽忽起來移枕席
세상에 괴안국(槐安國) ⁴⁹¹⁾ 이 있는지 모르겠네.	不知身世在槐安

1.107. 고진강⁴⁹²⁾을 지나가며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過古津江 次蘇贊成韻]

들은 맑은 강으로 둘러있어 눈에 들어와 새롭고	遶野清江入眼新
흐르는 물은 속세가 가득한 마음을 다 씻어내네.	臨流洗盡滿襟塵

487) 동림성 : 함경북도 새별군 慶源都護府에 있는 東林城이다.

488) 오정(五井) : 강화도의 高麗山에 淵蓋蘇文의 옛 집터가 있고 그 高麗山에는 五井이 있었으며 그 다섯 우물에선 항상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다.(瓶窩 李衡祥, <江都誌>.)

489) 고수(古水) : 후추나무열매를 말한다. “胡椒曰古水.”(『五洲衍文長箋散稿』, 詩文篇 論文類 文字, <寄象觀譯辨證說>.)

490) 거련관 : 평안북도 鐵山郡에 있는 車輦館이다.

491) 괴안국(槐安國) : 唐나라 淳于棼의 고사를 말하며, 槐安國의 꿈이라는 뜻으로, 덧없는 꿈이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이다.(李公佐, <南柯記>.)

492) 고진강 : 함경도 義州에 있는 古津江이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가는 나그네 많으니
길을 잘못 들어와⁴⁹³⁾ 몇 사람이 묻던가.

東西南北多行客
借問迷津有幾人

1.108.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次蘇贊成韻]

이름을 이루려 다시 남 앞에 서지 않겠지만
빈 배가 똥똥함은 효선(孝先) 같네.⁴⁹⁴⁾
누가 후생이 두려워할 만하다고 하였는가
죽도록 성문(聖門)의 채찍 잡기 바라면서.

成名不復在人前
空腹便便似孝先
誰道後生爲可畏
終身願執聖門鞭

한·위(漢魏) 앞에서 무너져가는 풍속 불러일으키려고
조·유(曹劉)는 손을 감추며⁴⁹⁵⁾ 공(公) 앞세워 양보하네.
서림(書林)은 다행히 고상(翱翔)⁴⁹⁶⁾하는 땅이 있으니
나는 훗날 채찍을 맞으리라.

激起頽波漢魏前
曹劉縮手讓公先
書林幸有翱翔地
許我他時着一鞭

493) 길을 잘못 들어와 : “迷津”은 나무를 찾지 못하고 헤맨다는 말이다. 『論語』에 長沮와 桀溺의 고사가 있다. 그들이 밭을 갈고 있을 때 孔子가 지나가다가 子路를 시켜 나무를 묻은 일이 있다.(『論語』, <微子>.)

494) 빈 배가 ~ 효선(孝先) 같네 : 後漢 때 邊韶의 전고를 가지고 經學에 밝음을 말하려고 하였다. 後漢 때 문인 邊韶의 자는 孝先인데, 그가 일찍이 수백 인의 門徒를 교수할 적에 한번은 낮잠을 자는데 한 제자가 선생을 조롱하기를 “변효선은 배가 똥똥하여 글 읽기는 싫어하고 잠만 자려고 한다. [邊孝先, 便便腹, 懶讀書, 但欲眠.]”고 하자, 변소가 그 말을 듣고 즉시 대구를 짓기를 “똥똥한 내 배는 오경의 상자이고, 잠만 자려고 하는 것은 오경의 일을 생각하기 위함이다. [腹便便, 五經笥, 但欲眠, 思經事.]”라고 하였다.(『後漢書』 卷110 <文苑列傳上·邊韶>.)

495) 조·유(曹劉) : 後漢 建安 연간의 시인인 曹植과 劉楨을 말한다. 여기서 ‘縮手’는 재능을 감춘다는 의미로 쓰였다. “다른 사람들은 나무를 잘 깎지 못하여 손가락을 다쳐 피가 흐르고 얼굴에는 땀을 뻘뻘 흘리는데, 뛰어난 장인은 도리어 소매 속에 손을 넣고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 [不善爲斲, 血指汗顏, 巧匠旁觀, 縮手袖間.]”(『山西通志』 卷218)

496) 고상(翱翔) : 새가 하늘 높이 빙빙 날아다님을 말한다.

1.109. 압록강에서 화·설 두 사신과 이별하고 돌아와 취승정(497)에

누워서 이름은 찰이요. 이름은 정충이다.

[鴨綠江, 奉別華薛兩使, 還臥聚勝亭 名察 名廷寵]

세상에서 반갑게 하늘의 신선 만났는데
 어찌 서둘러 시부(詩賦)를 돌려주는가.
 구름이 날고 비 흩어짐이 끝없는 곳
 강변에 서니 마음이 망연(498)해지네.

下界欣逢上界仙
 惻惻何遽賦言旋
 雲飛雨散終無處
 却立江干意惘然

객관에서 수 십 일 쫓아 따르며
 간담상조하고 늙어가며 친해졌네.
 지금부터 다시 만남 접치지 못하니
 남극과 동해 만 리의 사람이라네.

客館追隨只數旬
 膽肝相照白頭親
 從今未卜重逢地
 南極東溟萬里人

두 사신의 집이 함께 남방에 있다.

兩使家俱在南方

부질없이 강어귀를 향해 위성(渭城)을 부르니
 끝없는 아침 비에 이별의 마음이 움직이네.
 어느 방향으로 의탁하고 남쪽으로 날개 짓 할까
 소식은 아득하고 이 삶에서 멀어져만 가네.

漫向江頭唱渭城
 無端朝雨動離情
 何方可托南飛翼
 消息茫茫隔此生

놀란 까치 보고 근심하며 빈숲을 맴돌고
 서풍을 향해 좋은 소식 부치고자하네.
 천리 멀리서 서로 생각한다고 하지마라
 연산(燕山)은 두 고향 중심과 멀지 않으니.

愁看驚鵲遶空林
 欲向西風寄好音
 莫道相思千里遠
 燕山不隔兩鄉心

뾰족한 붓으로 예봉(銳鋒)의 위광(威光) 드러내고자하니

毫穎詞鋒欲露稜

497) 취승정 : 평안도 義州府의 城안에 있는 聚勝亭이다.(『林下筆記』 卷25 <春明逸史>.)

498) 망연(惘然) : 惘然若失의 준말로, 精神을 잃고 어리둥절함을 뜻하며, 茫然自失이라고도 한다.(『後漢書』 卷43 <列傳>.)

사람을 감동시킨 신선의 풍채 어찌 일찍이 보았겠는가.
 지금부터 회자(膾炙)하는 시구(詩句)가 많으리니
 서해(西海)의 명성에 설공(薛公)⁴⁹⁹이 쓰러질 것이네.

動人仙彩見何曾
 從今膾炙多詩句
 四海聲名倒薛能

1.110. 고향에서 성중옥⁵⁰⁰과 다시 교유하며 이름은 수침이다.

[重遊成仲玉園林 名守琛]

육 칠 년 사이 일은 슬퍼할만 하니
 본래 기약 없이 부평초처럼 만나고 헤어졌네.
 고향으로 다시 오니 숲은 다 예전 그대로인데
 가시 꽃이 두 번째 가지에만 사라졌네.

六七年間事可悲
 浮萍聚散本無期
 重來樹木渾依舊
 只欠荊花第二枝

이때 중옥의 동생 숙옥이 이미 죽었다.
 時仲玉之弟叔玉已亡

1.111. 독서당에 있으면서 우연히 여러 학자들을 찾아가 주다.

[在讀書堂 贈偶訪諸儒輩]

조용하고 텅 빈 서당에서 그윽한 정 품고 있는데
 우연히 발자국소리 들려와 눈이 크게 떠지네.
 옆 사람에게 부지런히 물색(物色)을 알려려고 하니
 응당 이 가운데 부신(符信)을 버린 사람 있으려나.

空堂悄悄抱幽情
 偶得蹣音倍眼明
 爲報傍人勤物色
 此中應有棄繻生

499) 설공(薛公) : 正使 薛廷寵을 가리킨다.

500) 성중옥 : 成守琛(1493~1564)을 말한다. 성종~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昌寧, 자는 仲玉, 호는 聽松·竹雨堂·坡山淸隱·牛溪閑民이다.

1.112. 배 안에서 벗의 <삼절>에 차운하다.

[舟中 次友人三絶]

밤에 일엽편주 강 가운데에 띄우니
 한없이 높은 산 넓은 바다와 함께하네.
 십 년을 습관으로 늙고 어른 됨을 보고
 그대에 권하노니 오늘은 술잔 놓지 마라.

扁舟夜泛水中央
 無限山高與海長
 十載慣看成老壯
 勸君今日莫停觴

술잔은 다함이 있으나 마음은 다함이 없어
 삼경(三更)에 옷 이슬에 젖어 마르지 않네.
 잠시 달이 밝기를 기다려 절경 보니
 만경창파에 청산이 거꾸로 비치었네.

杯觴有盡意無闌
 衣上三更露未乾
 少待月明看絕勝
 滄波萬頃倒青山

긴 시간이 또 짧은 시간을 다 허락하니
 거나하게 흠뻑 취하고서 살짝 깨려하네.
 뜬구름은 무엇보다 이 마음 몰라주는데
 찬 두꺼비⁵⁰¹⁾ 밝은 빛을 아끼려고 하네.

聽盡長更又短更
 醺醺宿醉欲微醒
 浮雲最是無情思
 不遣寒蟾十分明

1.113. 진달래를 읊다

[詠躑躅]

아리따운 자태와 수줍어하는 모습 눈에 싱그럽고
 녹음 사이로 특별한 봄을 얻어 머물었네.
 아침에 내린 이슬에 젖어 깊이 자는 듯
 주렴 아래 미인이 있어 서로 바라보네.

嬌態羞容入眼新
 綠間留得別般春
 朝來浥露如深睡
 簾下相看有美人

501) 찬 두꺼비 : 老兔寒蟾의 준말이다. 달 속에 있는 늙은 토끼와 한기 어린 두꺼비를 말하니, 달을 가리킨다.

1.114. 동호에서 파릉 옛집을 그리워하며
 [東湖有懷 巴陵舊居]

고향을 다 바라보려고 오래토록 난간에 기대니
 누각은 높고 지형은 멀어 마음의 아픔 더해지네.
 앞에 있는 강물에 소식 전하면
 흘러서 파릉(巴陵)에 이르러 고향소식 알려려나.

望極鄉關久倚軒
 樓高地遠更傷魂
 憑傳消息前江水
 流到巴陵報故園

1.115. 배 안에서 손님을 전송하며
 [舟中送客]

작은 배는 만斛(萬斛)의 이별 근심 신고서
 가볍게 노를 저어 저녁강의 물안개 헤치네.
 노래 소리 풍이굴(馮夷窟)⁵⁰²에 울려 퍼지고
 풍랑은 끝없이 한 줄기 강물을 채우고 가네.

萬斛離愁載小船
 輕橈劈破暮江煙
 歌聲動盪馮夷窟
 風浪無端滿一川

1.116. 종송정⁵⁰³에서 바로 시를 읊다
 [種松亭口占]

비온 뒤 산의 얼굴 배(倍)나 싱그럽고
 앉았노라니 솔의 이슬 의견에 떨어지네.
 홍진(紅塵)이 천태산(天台山)⁵⁰⁴ 길과 지척이니
 속된 식견(識見)의 사람들 많음 비웃을 만하네.

雨後山容一倍新
 坐來松露滴衣巾
 紅塵咫尺天台路
 可笑滔滔眼肉人

502) 풍이굴(馮夷窟) : 수궁을 말한다.馮夷는 전설 속에 나오는 黃河의 神인 河伯으로 水神이다.

503) 종송정 :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었던 種松亭으로 짐작된다.(『春塘先生文集』, <携子亭公述士安會話于道谷種松亭>.)

504) 천태산(天台山) : 중국의 天台山으로 신선인 마고할미가 사는 곳이다.(『太平御覽』 卷41)

1.117. 벗의 <별우>에 차운하다

[次友人別友韻]

위수(渭水)나무와 강수(江水)구름⁵⁰⁵ 서로 바라보니
 북쪽바다 남쪽하늘 꿈이 절로 어지럽네.
 다 끊어진 당시 창자 이미 오래니
 다시 오늘 녹일 만한 마음 없다네.

相望渭樹與江雲
 北海南天夢自紛
 斷盡當年腸已久
 更無今日可銷魂

1.118. 강가에서 벗의 <오절가>에 차운하다.

[江上 次友人五絕歌]

강가의 달빛 밝고자하나 구름은 검고자하고
 굽이굽이 슬픈 노래 귀신은 숨어 오열(嗚咽)하네.
 이별의 근심 만곡(萬斛)인데 술은 한잔
 삼경(三更)에 옷깃 이슬 이미 하얗게 젖었네.

江月欲明雲欲黑
 曲曲哀歌鬼幽咽
 離愁萬斛酒一杯
 衣上三更露已白

앞마을 저녁 검은 안개 한번 걷히자
 풀잎 벌레소리 애처롭게 다시 오열하네.
 애기하고 싶은 친구 그대 기쁘게 맞아주니
 세사(世事) 논의하다가 갑자기 백발 되었네.

前村一抹暮煙黑
 草際蟲音悽更咽
 欲對故人君眼青
 却論世事吾髮白

가고자하여도 길이 매우 어두워 가지 못하고
 앞의 여울 밤에 급하니 물소리 정녕 오열하네.
 하늘은 뜻이 있어 뜬구름 쓸어 주고
 초승달 동쪽에서 떠올라 새로 밝히네.

欲去未去路深黑
 前灘夜急聲正咽
 天公有意掃浮雲
 微月東方出新白

505) 위수(渭水)의 나무와 강수(江水)의 구름 : 멀리 있는 벗을 그리워하는 것을 말한다. 杜甫의 <春日憶李白>에 “위수 북쪽엔 봄날의 나무 / 장강 동쪽엔 해 저무는 하늘의 구름 / 언제나 술동이 하나 앞에 놓고 / 다시 만나 자세히 문장을 논할까? [渭北春天樹, 江東日暮雲. 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杜甫, <春日憶李白>.)라고 하였다.

산색과 물빛 함께 흔들리니
 물속 금(金) 층계 천 길 높네.
 이별의 창자 다 끊어져 한 치도 남아 있지 않는데
 실 피리⁵⁰⁶)는 무슨 마음으로 다시 시끄럽게 우는가.

山光水色合動搖
 波底金層千丈高
 離腸斷盡無一寸
 絲管何心更嘈嘈

흥건하고 낭자하게 벗은 취(醉)하여 넘어지고
 머리 들어보니 새벽빛 이미 밝아졌네.
 푸른 강이 마르지 않으면 산도 평평하지 않으니
 나그네 이곳에서 늙어가는 줄 누가 알까.

淋漓狼籍客醉倒
 舉首晨光殊已曉
 滄江未渴山未平
 誰識行人此中老

1.119. 석천의 시에 화답하다

[和石川韻]

뜬 구름 같은 인생살이 이미 보잘 것 없이 늙었으니
 몇 번이나 맑은 바람 좋은 달구경 약속을 저버렸는가.
 세상길은 서로 아는 이 예로부터 적으니
 부평초와 물 어떻게 헤어질 수 있겠는가.

浮生草草已衰遲
 幾負清風好月期
 世路相知從古少
 如何萍水足分離

친구 찾아 한 맹세 나는 이미 게을러 더디지만
 금서(琴書)⁵⁰⁷)에 한가한 토론 당신과 같이 기약하네.
 유유한 두 계획을 모두 저버리고 돌아가니
 속세의 속박 가소로우나 앓아 이별하기 어렵네.

雲水尋盟我已遲
 琴書閑討子同期
 悠悠兩計皆歸負
 可笑塵牢坐難離

정원 나무에 가을바람 더디지 않으니
 옛 수심과 새로운 한(恨) 몰래 기약한 듯.
 친구는 간략한 편지라도 나누자는 소식 두었으나
 어떡하나 편지 속에 먼 이별이 숨어 있는데.

庭樹秋風來不遲
 舊愁新恨暗如期
 故人有信分書字
 何奈書中有遠離

506) 실 피리 : “絲管”은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서 관악기의 하나이다.

507) 금서(琴書) : 거문고와 책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황폐한 성 가을 풀 홀로 가는 길 더디고
 구름색깔⁵⁰⁸ 쓸쓸하여 훗날 기약 한(恨)스럽네.
 늦가을 단풍이 들 때 돌아오길 기다리며
 손을 맞잡고 감회를 펴니 떠날 수가 없네.

荒城秋草獨行遲
 雲物淒淒恨後期
 會待歸來楓葉晚
 相携相敘莫相離

1.120. 강가에서 사람을 송별하며 [江上送人]

짧은 피리 긴 노래 한 배에서 들려오고
 강은 새 달빛 채우고 저녁 안개 씻네.
 만경징파(萬頃澄波)⁵⁰⁹에 잔잔한 물결 고요한데
 물에 떠서 무엇을 기다리며 흐르는 시냇물 한탄하는가.

短笛長歌共一船
 滿江新月洗昏煙
 澄波萬頃纖瀾靜
 浮泛何須嘆逝川

1.121. 밤에 연정⁵¹⁰에서 자며 마음이 매우 무료하여 우연히 읊다 [夜宿蓮亭懷甚無聊偶吟]

희미한 등불 성긴 비는 물시계소리 재촉하고
 한 단락 맑은 시름을 다스리지 못해 괴롭네.
 혼자 자려니 밤새도록 다 자지 못하고
 풍운의 회포 후인에게 남겨주네.

殘燈疏雨漏聲催
 一段清愁苦未裁
 孤枕五更渾不寐
 風懷留與後人來

508) 구름 색깔 : ‘雲物’은 구름의 빛깔이다. “五雲의 物로 吉凶·水旱·豐荒의 祲象을 내린다.”(『周禮』, <春官保章氏>.)

509) 만경징파(萬頃澄波) : 한없이 넓은 바다를 가리킨다.

510) 연정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蓮亭이 있다. 이곳을 가리키는지는 추정하지 못하였다.

1.122. 한강 배 안에서

[漢江舟中]

외로운 배에서 만나절을 홀로 한가로이 읊고
 무더운 바람 없어도 장마의 무더위 엄습하네.
 강가에 와서 인간의 세상사 말하지 마라
 헤엄치는 물고기도 시비(是非)의 마음 있으니.

孤舟半日獨閑吟
 不受炎風溽暑侵
 臨水莫言人世事
 游魚亦有是非心

1.123. 남당의 시에 차운하여 부치다

[寄次南塘韻]

온화한 바람은 담담하고 해는 느릿느릿하니
 한번 웃는 어머니의 얼굴 첫 술잔을 드리네.
 반 이랑의 남당(南塘)은 명성이 없어지지 않고
 마을에는 노래자(老萊子)가 산다고 시를 짓네.

和風淡淡日舒舒
 一笑慈顏獻酒初
 半畝南塘名不泯
 鄉閭題作老萊居

당시 대책⁵¹¹⁾은 동중서(董仲舒)를 군세게 하고
 남쪽으로 돌아와 물을 움키자 달빛이 처음 생겼네.
 다투어 알리라 연못가에 세 칸 집
 담담하고 빼어난 경치 부(府) 안에 있음을.

對策當年屈仲舒
 南歸掬水月生初
 爭知池上三間屋
 絕勝潭潭府裏居

511) 당시 대책 : 董仲舒(B.C.179경~B.C.104경)는 前漢의 유학자이다. 그가 武帝 즉위 초에 賢良對策으로 올린 글 가운데 “임금이 된 자는 자기 마음을 바로잡아 조정을 바르게 하고, 조정을 바로잡아 백관을 바르게 하고, 백관을 바로잡아 만백성을 바르게 하고, 만백성을 바로잡아 사방을 바르게 해야 한다. 사방이 바르게 되면, 멀고 가까운 곳 모두가 감히 한결같이 바른길로 나오지 않음이 없게 되어 사특한 기운이 그 사이에 범접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爲人君者, 正心以正朝廷, 正朝廷以正百官, 正百官以正萬民, 正萬民以正四方. 四方正, 遠近莫敢不壹於正, 而亡有邪氣奸其間者.]”라고 하였다.(『漢書』 卷56 <董仲舒傳>.)

1.124. 대수가 소장하고 있는 석경화 8폭에 제하다

[題大樹所藏 石慶畫八幅]

1.124.1. 백로

[鷺]

시들은 갈대와 마른 연잎으로 가을빛이 희미하니
 한 쌍의 백로가 늦도록 서로를 의지하네.
 물고기 엿보는 곳에 가장 한가한 마음 있으니
 사람들은 무심하다 말하나 기미(幾微)가 있네.

敗葦枯荷秋色微
 一雙白鷺晚相依
 閑情最在窺魚處
 人道無心亦有機

1.124.2. 기러기

[雁]

어제 밤 앞 계곡에 비바람 몰아치더니
 쇠잔한 갈대 이파리 하나 찬 연못에 떨어졌네.
 서로 마주보고 수심하는 기러기의 정 다함이 없고
 만 리 형양(衡陽)⁵¹²⁾ 가는 길은 길게만 뻗어 있네.

昨夜前溪風雨忙
 殘蘆一葉臥寒塘
 愁鴻相對情無盡
 萬里衡陽去路長

1.124.3. 범

[虎]

바위 앞뒤 숲에 바람의 자취 없는데
 홀로 산을 의지하는 짐승 두 눈에 불을 켜네.
 바로 아침이 올까봐 한번 으르렁 우니
 밝은 낮 맑은 하늘 울리는 천둥소리에 놀라네.

巖前巖後樹無風
 獨獸依山兩眼紅
 直恐朝來聲一起
 驚霆白日擊晴空

512) 형양(衡陽) : 중국 湖南省 남부의 공업도시를 말한다. 별칭이 '기러기 도시'이다.

1.124.4. 소

[牛]

황소는 밭을 다 갈고 들 곁에서 즐고
 우거진 초목에 푸른 안개가 아득하네.
 이제부터 자유로워 다 간섭이 없으니
 문득 당시 두 코가 뚫렸음을 망각하네.

耕罷黃牛傍野眠
 靑煙漠漠草芊芊
 從今自在渾無管
 忘却當時兩鼻穿

1.124.5. 징경이

[雎鳩]

아침에는 모래톱 동쪽에 저녁에는 서쪽에 있으니
 함께 날아와 물에 젖고 다시 함께 쉬고 있네.
 인간은 이별에 얼마나 알지
 강가의 징경이⁵¹³ 한번 보니 슬픔을 이기지 못하겠네.

朝在洲東暮在西
 雙飛雙浴復雙棲
 人間離別知多少
 一見河鳩不勝棲

1.124.6. 학

[鶴]

소나무 사이에 한 마리 학이 오래 서서
 푸른 하늘을 돌아보며 생각에 젖어있네.
 무한한 피리와 생황 소리에 날려는 마음 버렸는데
 왕교(王喬)⁵¹⁴는 매미 허물을 왜 더디게 하는가.

松間獨鶴立多時
 回首靑冥有所思
 無限笙蕭飛去意
 王喬蟬蛻一何遲

513) 징경이 : “河鳩”는 ‘징경이’를 가리킨다. 이 새는 부부가 화합한 새이므로 좋은 부부를 비유할 때 주로 쓰인다. 참고로 周나라 文王과 后妃의 盛德을 읊은 시가 있다.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詩經』, <國風·周南·關雎>.)

514) 왕교(王喬) : 東漢 때의 사람 王喬를 가리킨다. 왕교는 葉縣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道術을 부려 자신의 신발을 물오리로 변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타고서 조정으로 날아오곤 했다는 전설이 있다.(『後漢書』 卷28 <王喬列傳>.)

1.124.7. 까치

[鵲]

작은 담 서쪽에 가지가 영킨 오래된 나무
 때로 한금(寒禽)⁵¹⁵이 밤에 앉아서 우네.
 눈보라가 하늘에 가득차도 오지 않는 적 없으나
 편안히 살아갈 만한 나뭇가지 하나도 없네.

槎牙老樹小墻西
 時有寒禽夜上啼
 風雪滿空來不斷
 一枝無處可安棲

1.124.8. 오리

[鴨]

모래밭에 물이 차가우니 그대를 어찌할거나
 바람이 이는 두 언덕에는 갈대와 억새 많네.
 갖은 고생하며 둥지 옮기며 풀끝을 의지하니
 객(客)으로 하여금 쉬이 창과의 곤욕 면케 하네.

沙寒水冷奈渠何
 兩岸風生蘆荻多
 辛苦移巢依草際
 免教客易困滄波

1.125. 허치원⁵¹⁶의 단병에 제하다 이름은 입이다.

[題許致遠短屏 名任]

1.125.1. 난초

[蘭]

푸른 잎이 어지럽게 헤쳐 나와 자줏빛 줄기를 보호하니
 얼마나 꽃이 지고 얼마나 피었을까.

翠葉紛披護紫莖
 幾時衰落幾時榮

515) 한금(寒禽) : 가을에 북쪽에서 날아와 겨울을 나고, 이듬해 봄에 다시 북쪽으로 날아가서 번식 하며 여름을 나는 철새. 고니, 기러기, 두루미, 백조 등을 말한다.

516) 허치원 : 許任(생물년 미상)을 말한다. 조선중기 때 의원이다. 저서로 『鍼灸經驗方』, 『東醫聞見方』이 있다. 그러나 여기서 許任은 同名異人으로 짐작되고, 자세하게 상고하지 못하였다.

맑고 깨끗함을 아는 까닭으로 혐오와 시기 많아
 버릴 수 없는 맑은 향기 물정(物情)에 부딪치네.

故知皎潔多嫌忌
 不放清香觸物情

1.125.2. 대나무

[竹]

뜨거운 번뇌 사라지자 맑은 기운 뱃속에 스며들고
 상쾌한 바람이 푸른 낭간(琅玕)을 흔들며 스쳐가네.
 만약 스무 줄 거문고 가락 더해진다면
 소상(瀟湘)⁵¹⁷에 밤비 내리는 모습 본 듯하리.

熱惱消時爽氣寒
 好風吹動碧琅玕
 若添二十絃中曲
 換作瀟湘夜雨看

1.125.3. 국화

[菊]

황금빛 안색에 백설 같은 정신
 이슬에 젖어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눈을 환히 비추네.
 가을이 지난 동쪽 울타리 무한한 아취(雅趣)를
 어찌 강주(江州)에 흰옷 입은 사람⁵¹⁸만 아끼랴.

黃金顏色雪精神
 浥露搖風照眼新
 秋後東籬無限趣
 江州何惜白衣人

1.125.4. 매화

[梅]

일찍이 앞마을 눈 속에서 가지를 보았는데
 달빛이 비칠 때 십분 청아(清雅)하고 좋다네.

曾見前村雪裏枝
 十分清絕月來時

517) 소상(瀟湘) : 瀟湘班竹의 준말로, 중국의 瀟湘江 일대에서 나는 자줏빛 반점이 있는 대나무를 말한다. 舜임금이 滄梧의 들판에서 죽은 뒤 그의 두 妃인 娥皇과 女英의 고사를 말한다.

518) 강주(江州)에 흰옷 입은 사람 : 陶淵明을 가리킨다.

비스듬히 드리운 성긴 그림자는 다 예전그대로인데
서호처사(西湖處士)⁵¹⁹의 시만 빠졌다네.

橫斜疏影渾依舊
只欠西湖處士詩

1.126. 저녁에 바라보다

[夕望]

들 밖에서 연기가 나니 누구의 집인가
서쪽 가 외로운 나무 위로 해가 절반 비끼었네.
상강(湘江)은 멀어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니
강남에서 멀리 초(楚)나라 하늘 끝만 가리키네.

煙生野外是誰家
獨樹西邊日半斜
望眼不知湘水遠
江南遙指楚天涯

1.127. 시골 호롱불

[村燈]

비를 아랑곳 앓는 시골 호롱불 한 점이 꺼져가니
누 집의 가난한 여인의 밤 베틀만 차가워라.
갖은 고생 아는 사람 없다고 하지마라
따로 열린 창문으로 멀리 손이 보는데.

雨外村燈一點殘
誰家貧女夜機寒
莫言辛苦無人識
別有開窓遠客看

1.128. 봉화

[烽火]

한 점의 가장 높은 누대를 멀리서 사랑하여
만 리나 떠돌아다니며⁵²⁰ 변방 밖까지 왔네.

遙憐一點最高臺
萬里間關塞外來

519) 서호처사(西湖處士) : 林逋(967~1028)를 가리킨다. 宋代 錢塘 출신으로 자는 軍復, 시호는 和靖, 梅妻鶴子라고도 부른다.

520) 떠돌아다니며 : 間關流離의 준말로, 때때로 고난에 처하여 여기저기 떠돌아다님을 말한다.

오늘밤 변방 지역의 일을 물으니
 기연산(祈連山)⁵²¹ 어느 곳에서 먼지바람 인다고 하네.

爲問今宵邊地事
 祈連何處有風埃

1.129. 아우 선소의 시에 차운하다

[次舍弟善昭韻]

나라와 임금 은혜를 갚으려는 일 이미 멀어지고
 대강(大江)⁵²² 어귀에서 십 년을 헛되이 늙었네.
 서울이 지척인데 많이 서운하구나
 연파(煙波)처럼 자욱한 시름 보냄을 알지 못하였으니.

報國酬君事已悠
 十年虛老大江頭
 長安咫尺翻多恨
 不是煙波解送愁

1.130. 청송거사 성중옥에게 보여주다

[示聽松居士成仲玉]

이때 임금이 재집⁵²³에게 등용할만한 선비를 천거하라고 명하니, 중옥을 천거한 사람이 5~6명이다.

時上命宰執，舉可用之士，有以仲玉薦者五六人。

선생의 현안(玄晏)⁵²⁴이 가고 돌아오지 않으니
 송당(松堂)은 적적하고 이끼가 빗장을 가리네.
 재상으로부터 교장(交章)⁵²⁵까지 천거하니

玄晏先生絕往還
 松堂寂寂掩苔關
 自從卿相交章薦

521) 기연산(祈連山) : 중국 甘肅省과 青海省 경계에 있는 高山이다.

522) 대강(大江) : “大江”은 압록강(『成宗實錄』, 성종 20년 6월 29일 기사 참조.)과 한강(『宣祖實錄』, 선조 26년 4월 28일 기사 참조.)를 근거하면 두 강을 가리키나, 여기서는 “서울이 지척거리이다.”는 뒤의 문장을 보아 ‘대동강’으로 국역하였다.

523) 재집(宰執) : 임금을 도와 모든 관원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二品 이상의 벼슬이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524) 현안(玄晏) : 고대 성현의 禮敎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成仲玉을 가리킨다. “玄晏之風恒存，動神之化已滅.”(陸機, 『文選』, <演連珠>.) 李善注, “玄晏之化，豐洽之政.”(曹植, <魏德論>.) 呂延濟注, “玄晏，禮敎也.”

525) 교장(交長) : 三司交章의 준말로, 홍문관, 사헌부, 사간원의 삼사가 합의하여 임금에게 상주하던 일을 말한다.

비로소 명성이 세상에 떨어짐을 깨달았네.

始覺聲名落世間

1.131. 한강 배에서 시를 바로 짓다 제주 목사 조계임에게 주다.

[漢江舟中口占 贈趙濟州季任]

바람이 돛대를 멀리 아득한 곳에 떨어트리니
놀란 파도를 손으로 움켜져 별도로 얼굴을 씻네.
어찌 누런 흙먼지 푸른 바다에서 생기랴
그대와 같이 한라산(漢拏山)에 오르는데.

風檣遙落杳茫間
手掬驚濤洗別顏
安得黃塵生碧海
與君同上漢拏山

1.132. 계임과 이별한 뒤 마음이 매우 언짢아 시를 짓다 같은 배에 있는
여러 공들에게 보여준다.

[別季任後, 懷抱甚惡吟 示同舟諸公]

무로함을 달래려 큰 소리로 노래하고 급히 피리 불며
언짢은 마음을 안고 오직 맛있는 술만 마시네.
몇 번씩이나 이별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없으니
다함께 같이 바다 어귀로 조수(潮水)를 쫓아가세.

高歌急管慰無聊
惡抱唯須美酒澆
多少別懷裁不得
一時都逐海門潮

1.133. 취하다 창서(526)에게 주다.

[醉 贈昌瑞]

서로 만나면 그대는 아낌없이 술자리 다하고
국화는 며칠에 노랗게 피었는지 물어보았네.
구름도 멈추는(527) 노래 들려와 도리어 한스러우나

相逢不惜盡君觴
借問秋花幾日黃
歌到遏雲翻作恨

526) 창서 : 李夢奎(1510~1563)의 字이다.(『十省堂集』, <題竹馬契會圖 并序>.)

527) 구름도 멈추는 : “遏雲”은 가던 구름이 음악을 들으려고 멈춘다는 뜻으로 풍악이 멋지게 울려

기쁨이 많으니 근심하는 마음 변화하였네.

十分歡緒變愁腸

1.134. 또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다 가랑에게 주다.

[又用前韻 贈歌娘]

한 곡조 청아한 노래로 내게 술잔을 권하니

一曲清歌勸我觴

술잔에 어린 술 빛깔 아황 빛⁵²⁸⁾ 같네.

停觴酒色似鵝黃

광평(廣平)⁵²⁹⁾의 철석같은 마음도 오히려 애간장이 끊어지는데

廣平鐵石猶腸斷

하물며 원래 철석같은 심장이 아닌 나에야.

況我元非鐵石腸

1.135. 대수에게 드리다

[呈大樹]

봄바람 부는 날 손꼽아 보니 오십 남짓

屈指東風餘五十

매화꽃 처음 필 때 버들가지도 드리웠지.

梅心初綻柳枝垂

의리상 술자리를 파하지 못하고 노닐며⁵³⁰⁾

北門不鎖遊人路

시옹(詩翁)이 녹취(錄取)하는 일⁵³¹⁾을 알려주네.

報與詩翁取次知

퍼지는 것을 말한다. 秦나라의 명창 秦靑이 노래를 부르자 가던 구름도 그 소리를 듣고 멈춰 섰다는 ‘響遏行雲’의 일화가 있다.(『列子』, <湯問>.)

528) 아황 빛 : 좋은 술의 빛깔을 말한다.

529) 광평(廣平) : 唐나라 宋璟의 字이다. 사람들은 그가 정조가 굳고 마음이 철석같아 고운 문장은 짓지 못할 것이라 여겼는데, 그가 지은 梅花賦는 청신하고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530) 의리상 술자리를 ~ 못하고 노닐며 : “人路”는 ‘의리’를 말한다. “仁人心也, 義人路也.”(『孟子』, <告子上>.) 또한 “北門”은 ‘술자리’를 말한다. 宋나라 韓琦가 北門에 있을 때 重陽節에 僚佐들을 모아놓고 술자리를 벌이다가 지은 <九日水閣>에서 “늙은 채원사가 가꾼 가을빛이 담담함을 부끄러워 말고 / 우선 늦게 피는 국화를 보라. [不羞老圃秋容淡, 且看寒花晚節香.]” 하니, 識者들이 한기의 만절이 높을 것임을 알았다고 한다.(『古今事文類聚』續集 卷29)

531) 시옹(詩翁)이 녹취(錄取)하는 일 : “詩翁”은 梅堯臣(1002~1060. 北宋時代의 대표적 시인.)을 가리킨다. 宋 仁宗 연간에 歐陽脩가 문풍의 폐단을 혁신하려는 포부를 품고 시관으로 과시를 주관하고 梅堯臣 역시 參詳官으로 시관의 자리에 참여했던 전고를 말한다. 참고로 이때 구양수는 <禮部貢院閱進士就試>를 지어 “소란 없는 전사들은 재갈 문 용사 같고 / 붓 휘두르는 소리는 봄누에 뽕잎 먹는 소리로다. [無譁戰士銜枚勇, 下筆春蠶食葉聲.]”라고 읊었고, 梅堯臣은 <試院>를 지어 “수많은 개미 한창 싸울 제 봄날은 길고 / 다섯 별 밝은 곳에 밤의 전당은 깊기만 하네. [萬蟻戰酣春晝永, 五星明處夜堂深.]”라고 하였다.(『說郛』.)

1.136. 보은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려 가는 이 사서 형백(532)을 전송하며 이름은 천계이다.

[送李司書亨伯 省覲于報恩 名天啓]

남쪽 고향으로 감을 잠시 허락하여 동위(東闈) ⁵³³ 와 멀어지니	南鄉暫許隔東闈
예사로운 꿈 맴돌다가 모두 날아가네.	魂夢尋常繞極飛
멀리 대문에 기대고 ⁵³⁴ 생각하다가 보기를 애초에 그만두니	遙想倚門初罷望
봄바람이 불어와 노래자(老萊子)의 옷자락에 젖어드네.	春風吹入老萊衣

1.137. 인쇄소 어른의 시권에 차운하다

[次印文上人詩卷韻]

온 산이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건 말건	遮莫千山高復低
몸에 지니고 있는 것은 오직 짚신 한 켤레뿐.	隨身唯有一芒鞋
무슨 방법으로 네게 수수방관을 빌려	何方借汝傍觀手
미혹 속에서 나는 위로하며 풀어 볼까.	解我勞勞局裏迷

문을 나서면 길을 이루고 또 갈림길 이루니	出門成路又成岐
이로부터 한 뿌리는 만 가지를 자라게 하네. ⁵³⁵	自是孤根達萬枝
참다운 근원을 향해 요긴함을 찾으려고	欲向眞源尋喫緊
선생은 지금 말을 잊고 나는 시를 잊네.	師今忘語我忘詩

발걸음을 매고 어찌 일찍 다다른 곳에만 있으랴	繫跡何曾着處留
물살을 타고 마음대로 가 물가에 닿으면 쉬리라.	乘流任去得坻休

532) 이형백 : 李天啓(생몰년 미상)을 말한다.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新平, 자는 亨伯, 호는 槐堂이다.

533) 동위(東闈) : 王太子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534) 대문에 기대고 : 倚門之望의 준말로,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문에 의지하고서 기다린다는 뜻이다. 전하여 어머니의 자식 사랑을 말한다.

535) 이로부터 한 뿌리 ~ 자라게 하네 : 理一分殊를 말한다. 모든 사물은 개별적인 理를 구비하고 있다는 宋代 程頤와 朱熹의 성리학 이론의 하나를 말한다.

근원의 물이 있는 땅에서 공을 거두니
만어천언(萬語千言)이 도리어 넉넉하네.

收功有地源頭水
萬語千言反類優

어찌 비단 같은 말⁵³⁶을 계등(溪藤)⁵³⁷에 쓰라
오고가는 헛된 번뇌는 도승(道僧)에게 있다네.
어둡고 어두운 속세의 장구한 이 밤에도
기원(祇園)⁵³⁸에 조사(祖師)의 등불 서로 잇네.

那能綺語寫溪藤
來往空煩有道僧
塵界昏昏長是夜
祇園相續祖師燈

1.138. 봄 난초

[春蘭]

적막한 산림 속 처사의 집에서
마음에 자란화(紫蘭花) 피어 있음을 알았네.
예부터 빈 골짜기에는佳人(佳人)이 있으니
<離騷經>⁵³⁹을 읽으며 세월을 아쉬워하라.

寂寞山林處士家
知心惟有紫蘭花
從來空谷佳人在
莫把離騷惜歲華

1.139. 여름 대나무

[夏竹]

한밤중 바람과 우레 소리에 택(蘗)⁵⁴⁰의 용이 놀랐는지
이끼 낀 섬들을 뚫고나와 빨처럼 솟아있네.
부드러운 마디는 연한 자태를 자랑하지 마라

風雷半夜蘗龍驚
穿破苔階一角生
嬾節莫言多軟態

536) 비단 같은 말 : “綺語”는 불교의 十惡罪 중 하나를 말한다. 여기서는 문장에 화려한 말을 가리킨다.

537) 계등(溪藤) : 종이의 별칭이다. 浙江省의 剡溪에서 등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가 생산되는데 최상의 품질을 지닌 것으로 이름났다.

538) 기원(祇園) : 寺院의 별칭으로 쓰였다. 옛날 인도의 祇陀太子 소유의 園林을 給孤獨長者가 구입하여 精舍를 세운 다음 석가모니에게 희사했다는 祇樹給孤獨園을 줄인 말이다. 祇園精舍는 竹林精舍와 더불어 불교 초기의 양대 사원으로 꼽힌다.

539) 이소경(離騷經) : 중국 戰國시대 楚나라의 屈原이 지은 賦의 제목이다.

540) 택(蘗) : 풀이름이다. “黃華而莢實 名曰蘗.”(『山海經』.)

곧은 마음으로 세한(歲寒)의 맹세 남몰래 맺었으니.

貞心暗結歲寒盟

1.140. 가을 국화

[秋菊]

오랜 감회를 대하니 떨어진 사모(紗帽)⁵⁴¹ 생각나고
노란 국화 일찍 피었으나 아직 가을은 아니라네.
한번 흐드러지게 피면 쇠약하고 그침이 없으니
시원한 바람을 막론하고 밤낮으로 불어오게 하네.

對此長懷落帽思
黃花先發未秋時
一從爛熳無衰歇
遮莫涼風日夜吹

1.141. 겨울 매화나무

[冬梅]

깊은 밤에 외로운 달이 찬 매화 비추니
달빛은 차고 매화는 맑아 세속의 먼지 씻긴 듯.
적적하여 다시 관장하는 사람 없으니
시원한 바람이 푸른 구름을 보내오네.

夜深孤月映寒梅
月冷梅清淨俗埃
寂寂無人重管領
涼風吹送碧雲來

541) 떨어진 사모(紗帽) : 쑤나라 孟嘉가 9월 9일에 征西將軍 桓溫이 베푼 龍山의 酒宴에 參軍의 신분으로 참석했다가 국화주에 취한 나머지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서 측간에 가자 환온이 그에게 알려 주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눈짓을 하고는 孫盛에게 희롱하는 글을 짓게 하였는데 맹가가 돌아와서 그 글을 보고는 곧장 멋지게 대응하는 글을 지어 좌중을 경탄하게 했던 龍山落帽의 고사가 있다.(『晉書』 卷98 <孟嘉列傳>.)

1.142. 동노하⁵⁴²⁾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同盧河 次蘇贊成韻]

동노하(同盧河) 강의 일대는	同盧水一帶
맑고 얇은 물 서쪽을 향해 흘러가네.	清淺向西傾
네게 무슨 한이 있냐고 물으니	問汝有何恨
오랜 세월 돌에 부딪쳐 운다고만 하네.	長年觸石鳴

1.143. 금아에게 주다

[贈琴兒]

깊은 안방에서 나고 자라 아는 사람 적으니	深閨生長少人知
피꼬리가 말을 배우는 때와 흡사하네.	恰似鶯兒學語時
등불 뒤에서 수줍어 머뭇거리며 초(楚)나라 곡조 타니	羞澁背燈彈楚曲
가을밤 소상(瀟湘)강에 비가 실실 내리는 듯.	瀟湘秋夜雨絲絲

1.144. 초를 선물한 박중초⁵⁴³⁾에게 감사하다 이름은 충원이다.

[謝朴仲初惠燭 名忠元]

진중(珍重)한 친구가 편지 한 장 보내오면서	尺書珍重故人封
멀리서 짧은 초를 나누어 병든 늙은이에게 부쳤네.	短燭遙分寄病翁
말뚱말뚱 하늘 밖에서 꿈을 이루지 못하고	耿耿不成天外夢
적막하고 고요한 오경(五更)에 서로 마주하네.	寂寥相對五更中

542) 동노하 : 朴承任(1517~1586)의 『嘯臯先生文集』 및 蘇世讓의 『陽谷文集』에 <同盧河>라는 시가 보인다. “同盧河”의 상세한 지도 위치는 추정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蘇世讓의 시는 다음과 같다. “宣郭河爲界，東西石作塘。新晴鴉浴水，旭日鶯窺梁。風斷山雲細，人稀野徑長。少年遊賞地，今日剩悲涼。”

543) 박중초 : 朴忠元(1507~1581)을 말한다. 중종~선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密陽, 자는 仲初, 호는 駱村·靜觀齋이다. 시호는 文景이며, 저서로 『駱村遺稿』가 있다.

1.145. 수초에게 주다 송순.

[贈守初 宋純]

동호(東湖)에 새와 물고기는 가까이서 돌아다니며
 내게 옛 주인은 언제 오는가를 묻네.
 창졸(倉卒)간에 내일이라 대답하고 나서
 늘그막 의심은 없으나 문득 시기가 나네.

東湖魚鳥近徘徊
 問我何時舊主來
 倉卒答言明日是
 却疑遲暮便生猜

1.146. 길을 가다가 우연히 회문체(回文體)를 지어보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途中偶吟回文體 次蘇贊成韻]

맑은 시냇가 흰 돌이 울리고
 푸른 숲에는 황금이 앉아 있네.
 미관말직 많은 일을 근심하니
 예나 지금이나 망망(茫茫)하네.

礪青鳴白石
 林翠坐黃金
 宦薄愁多事
 茫茫古與今

544) 회문체(回文體) : 한문 詩體의 하나다. 두 사람, 혹은 여러 사람이 이어서 만드는 시로 長律이 많다.

2. 『십성당집』 하 [『十省堂集』 下]

○ 시 [詩]

2.01. 완화취귀도⁵⁴⁵⁾

[浣花醉歸圖]

술 취해 나귀타고 시냇가를 지나가다
 쓸쓸히 흰 머리를 푸른 물에 비취보네.
 시절을 근심하니 병든 눈에 부질없이 눈물 흐르고
 나라 걱정하니 노쇠한 얼굴에 시름만 품었네.
 오랑캐의 창(胡戈)⁵⁴⁶⁾이 땅에 가득한 강변(江邊)에서 늙고
 좁고 험한 길이 하늘을 가로지른 검외(劍外)⁵⁴⁷⁾에서 노니네.
 술 힘으로 마음을 위로한다⁵⁴⁸⁾ 하지 말라
 취하니 마음 더욱 아파오네.

騎驢酩酊過溪頭
 白髮蕭條映綠洲
 病眼感時空灑淚
 衰容憂國謾含愁
 胡戈滿地江邊老
 鳥道橫天劍外遊
 莫謂寬心須酒力
 醉來心思轉悠悠

545) 완화취귀도 : 杜甫가 浣花溪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두보는 50세 넘어 잠깐 成都 근처 浣花溪谷에 살며 태평 속의 평온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이때 그는 평화로운 봄날을 즐기면서 술에 취하면 나귀를 거꾸로 타고 집으로 돌아오곤 했다는 고사를 말한다.

546) 오랑캐 창(胡戈) : “胡戈”는 정확하게 무엇을 지칭하는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譯者는 원문의 글자대로 “오랑캐의 창”으로 국역하였다.

547) 검외(劍外) : “鳥道”는 새나 넘을 수 있을 만큼 좁고 험한 산길을 말한다. “劍外”는 四川 劍閣 이남의 蜀 땅을 가리킨다.

548) 술 힘으로 ~ 위로한다 : 두보의 시 <可惜>에 나오는 “마음 위로엔 응당 술이 제일이요 / 흥을 푸는데 시보다 나은 게 없구나. [寬心應是酒, 遣興莫過詩.]”(『杜少陵詩集』.)에서 따온 말이다.

2.02. 태공조어도⁵⁴⁹⁾

[太公釣魚圖]

지덕(至德)한 사람이라야 인생의 부침(浮沈) 아나니
 낚시 줄 드리운 채 세상에 뜻을 두었다고 누가 말했던가.
 몸은 모래밭 갈매기와 함께 표표(漂漂)히 날고
 마음은 흐르는 물 따라 유유(悠悠)히 흐르네.
 미끼 없이 낚시질하며 어찌 세상 낚으며
 마음 이미 물고기 잊었거늘 하물며 주(周)나라에 있으랴.
 늘그막에 임금의 스승된 건 참으로 우연일 뿐
 그렇지 않았다면 위수(渭水) 바위에서 달게 늙었겠지.

至人唯解載沈浮
 誰道垂綸志有求
 身與沙鷗同泛泛
 心隨流水共悠悠
 釣還無餌寧鉤世
 意已忘魚況在周
 晚作王師誠偶爾
 不然甘老渭磯頭

2.03. 이제채미도⁵⁵⁰⁾

[夷齊採薇圖]

은(殷)나라 망하고 주(周)나라 흥한 발자취 이미 오래인데
 고사리 캐어먹은 고상한 의리는 천년을 비추네.
 종묘사직이 망하는 날을 만나지 않았으면
 백이(伯夷) 숙제(叔齊)가 뛰어난 사람인 줄 그 누가 알까.
 천지에 끝없이 새로운 나라가 들어서도
 산림에는 오직 옛 군신만 남아 있네.
 위수(渭水)에서 낚시하는 늙은이⁵⁵¹⁾ 비웃음 건디고
 천신만고 끝에 공을 이루었으나 머리만 희어져 버렸네.

殷滅周興跡已陳
 採薇高義照千春
 不逢社稷將亡日
 誰識夷齊特立人
 天地盡輸新版籍
 山林唯有舊君臣
 渭川釣叟眞堪笑
 辛苦成功雪滿巾

549) 태공조어도 : 姜太公이 낚시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을 말한다.

550) 이제채미도 : 伯夷叔齊의 고사를 그린 그림이다. 宋나라의 화가 李唐(1080?~1130?)이 그린 <採薇圖>가 유명하다.

551) 위수(渭水)에서 낚시질하는 늙은이 : 姜太公을 가리킨다. 그는 殷나라 말~周나라 초의 무신·제후이다. 零落하여 渭水 근처에서 낚시로 세월을 보내던 중 周나라 文王을 만나 周나라 건국의 기반을 다지고 齊侯에 봉해졌다.

2.04. 타루비⁵⁵²⁾

[墮淚碑]

비에 젖고 이끼 서리어 용과 거북 어려움 겪으나
 행인(行人)들의 슬픔 다하지 않네.
 비석은 어떻게 알고서 홀로 서 있는지
 눈물이 도리어 많아 절로 두 줄로 흐르네.
 당시의 자취 찾아 노닐고 싶어
 오늘 더욱 높이 올라 바라보며 생각하네.
 진남(鎭南)⁵⁵³⁾의 높은 식견 없음이 애석하니
 한평생 오직 섬길 것은 물 속 비석뿐이라네.

雨淋莓蝕剝龍龜
 惹起行人不盡悲
 石豈有知惟獨立
 淚還多緒自雙垂
 欲尋遊賞當時跡
 祇益登臨此日思
 可惜鎭南無遠識
 一生唯事水中碑

2.05. 목동⁵⁵⁴⁾

[牧童]

세상에 길이 한가한 건 목동(牧童)이라
 소 등에 탄 채 유유자적 동(東)으로 서(西)로.
 도롱이 걸치고 가는 곳마다 봄풀이 푸르고
 피리 불며 돌아올 때 석양이 붉게 물들었네.
 아침에 숲 아래 쉴 묵는 늙은이 따라가고

人世長閑是牧童
 任他牛背自西東
 披蓑去處春蕪綠
 橫笛歸時落照紅
 林下朝隨束薪叟

552) 타루비 : 南北朝시대 때 쯤나라의 羊祜가 軍中에서 항상 갑옷을 입지 않은 채 가벼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느슨히 풀어 놓고 있었으나 군사들이 모두 그 덕에 감복하여 군대가 잘 정제되었다. 훗날 양호가 鎭南大將軍이 되어 蜀나라를 치다가 病死하자 변경을 지키던 蜀나라 군사들까지 그의 덕을 사모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 뒤에 襄陽 사람들이 양호가 즐겨 노닐던 峴山에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서 “墮淚碑”라고 불렀다. 杜預가 양호의 뒤를 이어 군대를 맡은 뒤 양호가 한 것처럼 항상 갑옷을 입지 않은 채 항상 가벼운 옷을 입고 허리띠를 느슨히 풀어 놓고 있었으나 역시 군사들이 잘 정돈되어 蜀나라를 평정하였다.([資治通鑑節要] 卷25 <漢紀 後帝禪下> 및 『晉書』 卷34 <杜預傳>.)

553) 진남(鎭南) : “鎭南”은 鎭南大將軍 羊祜를 가리킨다.

554) 목동 : 이 시는 黃庭堅의 <牧童>과 시상이 유사하다. “소를 타고 멀리 멀리서 앞마을 지나니 / 첫대 소리 바람에 비껴 언덕 저편에서 들려오네 / 다소의 장안에 명리를 좇는 사람들은 / 기관을 다 쓰는 것이 그대만 못하여라. [騎牛遠遠過前村, 吹笛風斜隔岸聞. 多少長安名利客, 機關用盡不如君.]”(黃庭堅, <牧童>.)

밤에는 시냇가 물고기 낚는 늙은이 찾아가네.
 평생 상송(商頌)을 노래하는 자⁵⁵⁵를 부끄러워했으나
 늘그막에 제(齊)나라 제후를 만나 재상이 되었네.

溪頭夜訪釣魚翁
 一生愧殺商歌者
 晚遇齊侯作相公

2.06. 동짓날 이른 아침

[至日早朝]

해마다 동짓날 동위(彤闈)⁵⁵⁶에 절하니
 일편단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네.
 한 번 중문이 열리니 새벽기운 통하고
 두 눈으로 높은 대궐 바라보니 아침햇빛 쏟아지네.
 화롯불 연기는 땅에 흩어져 푸른 소매 희미하고
 부채 그림자 허공에 나부껴 붉은 옷 흐리네.
 음(陰)이 사라지며 양(陽)이 차츰 되살아나니
 새벽 서리 두려워 않고 신발 가득 채워 돌아오네.

年年至日拜彤闈
 依舊丹心莫有違
 一闕重門通曉氣
 雙瞻高闕射朝暉
 爐煙散地青迷袖
 扇影翻空赤暈衣
 從此陰消陽漸復
 晨霜不怕滿靴歸

2.07. 술을 경계하다

[戒酒]

내가 살아가며 쓸데없이 술만 맘껏 마시니
 아이들은 주정뱅이 미치광이라고 나를 비웃네.
 깨어 있을 때 스스로 경계해도
 아름다운 곳만 만나면 문득 잊어버리네.
 안화(眼花)⁵⁵⁷로 산이 내 앞에 당도한 것도 보지 못하고

我生無用只酣觴
 任被群兒笑醉狂
 幸有醒時猶自戒
 每逢佳處輒相忘
 眼花不見山當席

555) 일생 상송(商頌)을 ~ 노래하는 자 : 가난 속에서도 절조를 지키려는 曾子를 말한다. 증자가 衛나라에 살면서 사흘 동안 밥을 짓지 못하고 십 년 동안 새 옷을 만들어 입지 못하여 옷깃을 잡으면 팔꿈치가 드러나고 쉼신을 신으면 발뒤꿈치가 터져 나왔는데도 밥을 끝먼서 『詩經』 3頌 중의 하나인 商頌을 부르면 그 소리가 천지에 가득 차 마치 금석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는 고사가 있다.

556) 동위(彤闈) : 붉게 칠을 한 宮門을 말한다.

이열(耳熱⁵⁵⁸)로 개미가 침상에서 오열하는 소리도 듣지 못하네.
 천 년 전 도연명(陶淵明)과 나와 너⁵⁵⁹는
 훗날 지하에서 같이 소요(逍遙)하리라.

耳熱寧聞蟻咽牀
 千載淵明吾與爾
 他年地下共倘佯

2.08. 풍산⁵⁶⁰)을 지나면서

[過豐山]

역마 타고 멀리 달려 잠시도 쉬지 않았지만
 무산(茂山⁵⁶¹)을 겨우 지나자 또 풍산(豐山)이네.
 땅이 남북으로 나뉘는 하늘이 내린 요새요
 사람은 화이(華夷)가 섞여 사는 귀신이 지키는 관문일세.
 눈은 저 멀리 푸른 바다 바라보고
 발은 저 높이 검은 구름을 차네.
 젊어서 나그네 되어 마음은 무한한데
 한번 변방에 오니 귀밑머리 새려 하네.

駟騎長驅不暫閑
 茂山纔過又豐山
 地分南北天成險
 人雜華夷鬼守關
 望眼遙臨青海外
 行蹄高蹴黑雲間
 少年爲客情無限
 一到邊城鬢欲斑

2.09. 고원 시판에 차운하다

[次高原板上韻]

북쪽 떠나 남쪽 돌아온 지 이십일도 안 되었는데
 아득한 변방 몇 번이나 길을 잘못 들었던가.
 무단히 말 타고 천리를 지나다니며
 끝없는 산천에 한 몸을 보내네.
 쓸쓸한 벽 등잔불 꺼져가는 외로운 여관의 밤

北去南還未二旬
 悠悠關塞幾迷津
 無端鞍馬經千里
 不盡山川送一身
 半壁殘燈孤館夜

557) 안화(眼花) : 눈앞에 불똥 같은 것이 어른어른 보이는 증세를 말한다.

558) 이열(耳熱) : 술에 大醉하여 두 귀가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을 말한다.

559) 너 : '술'을 가리킨다.

560) 풍산 : “豐山”은 함경남도의 郡이름이다.

561) 무산(茂山) : 함경북도 북서쪽에 있는 郡이름이다.

찬 눈 내리는 사방 창문 안에는 타향 나그네.
 세상 재미 얼마나 되기에
 나그네는 지금 갑절이나 고생하는가.

四窓寒雪異鄉人
 嘗來世味知多少
 旅況如今倍苦辛

2.10. 뜰에 오동나무 최연지(이름은 연)에게 보여준다.

[庭梧 示崔演之名演]

뜰에 오동나무 한 그루 열 자도 못 되거늘
 옛 사람은 무슨 깊은 뜻으로 옮겨 심었는가.
 시를 지으며 가지마다 이파리 딸 만하고
 자리 옮겨 앉은 곳마다 그늘 더하네.
 누의(虬蟻)⁵⁶²가 왕래해도 발자취 남기지만
 봉황은 깃들어 자도 욕심이 없네.
 그대에게 권하노니 더욱 열심히 키워
 훗날 이 나무로 선운금(鮮愠琴)⁵⁶³ 이루기를.

一樹庭梧未十尋
 昔人移植意何深
 題詩可摘枝枝葉
 轉席能添座座陰
 虬蟻往來猶有跡
 鳳凰棲宿欲無心
 勸君更進栽培力
 他日裁成鮮愠琴

2.11. 뜰에 소나무 연지에게 보여준다.

[庭松 示演之]

손수 심은 푸른 소나무 이미 열 자
 뜰 가운데 우뚝 서니 참으로 삼엄하네.
 고고한 모습은 하늘까지 치솟고
 꺾리처럼 굽은 모습 땅을 덮은 그늘 많네.
 훗날 큰집 지탱하는栋梁 되리니
 오늘은 눈서리 속에서 정결한 마음을 보네.
 좋은 재목 한번 잃으면 다시 만남 어려우니

手種青松已十尋
 庭中獨立正森森
 孤高自有參天勢
 盤屈兼多蓋地陰
 樑棟他時扶大廈
 雪霜今日見貞心
 良材一失逢難再

562) 누의(虬蟻) : 땅강아지와 개미를 말하며, 보잘 것 없는 것을 비유할 때 쓰인다.

563) 선운금(鮮愠琴) : 원망의 소리가 없는 청아한 거문고를 말한다.

누의(虬蟻)가 어지러이 침범하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莫遣紛紛虬蟻侵

담장 너머 곧은 줄기 몇 자나 되는지
저 멀리 질푸른 산 기운과 통하네.
푸른 용은 땅에 누워 바람에 그림자 흘날리고
푸른 일산은 창공에 퍼져 달 그늘 옮기었네.
눈서리에도 천 개 잎 시들지 않고
더우나 추우나 오직 한마음을 지키네.
큰 재목은 예부터 보살피주는 사람 없거늘
날마다 범(犯)하는 초동(樵童)을 만나네.

直幹抽牆問幾尋
遠通山氣翠森森
蒼龍臥地風搖影
青蓋張空月轉陰
霜雪不彫千箇葉
炎涼唯保一般心
大材自古無人顧
會見樵童日日侵

우산(牛山)⁵⁶⁴의 나무 멀리 있어 도끼의 해 입지 않고
남쪽 섬돌에 와 벽옥(碧玉)빛 숲을 짝하네.
우뢰(竽籟)⁵⁶⁵는 때때로 밤비에 놀라고
연람(煙嵐)⁵⁶⁶은 번거로이 아침 그늘을 돕네.
청춘은 생성하는 힘 본받지 않거늘
백설은 어찌 철석심장(鐵石心臟)⁵⁶⁷ 옮기려는가.
주인이 아끼고 보호한 수고 갚으려거든
이끼가 쉬이 침범하게 하지마라.

牛山遠謝斧斤尋
來伴南階碧玉森
竽籟有時驚夜雨
煙嵐多事助朝陰
青春不效生成力
白雪寧移鐵石心
爲報主人煩愛護
莫教容易蘚痕侵

564) 우산(牛山) : 孟子가 말한 牛山을 가리킨다. 『孟子』 <告子 上>에 “우산의 나무가 일찍이 아름다웠는데, 큰 나라의 교외이기 때문에 도끼로 매일 베어 가니, 아름답게 될 수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만물을 성장시키는 원기와 촉촉이 적셔 주는 비와 이슬이 있으므로 싹이 움트지 않음이 없지만, 소와 양이 또 따라서 방목되므로 이 때문에 저와 같이 민둥민둥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 민둥민둥한 것만을 보고 일찍이 훌륭한 재목이 없었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산의 본성이겠는가. [牛山之木嘗美矣，以其郊於大國也，斧斤伐之，可以爲美乎。是其日夜之所息，雨露之所潤，非無萌蘖之生焉，牛羊又從而牧之，是以若彼濯濯也。人見其濯濯也，以爲未嘗有材焉，此豈山之性也哉。]”(『孟子』, <告子 上>.) 라고 하였다. 이것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선한 본성이 있지만 사물과 접촉하는 사이에 선하지 못한 행동이 선한 본성을 해치니, 마치 목장에 소와 양이 방목되면 싹이 자라나지 못하고 죽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성을 밝히고 잘 길러서 확충시키는 것은 싹이 목장과 떨어져 잘 자라게 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이다.

565) 우뢰(竽籟) : 피리를 말하나, 여기서는 바람소리를 말한다.

566) 연람(煙嵐) : 피어오른 흐릿한 이내를 말한다.

567) 철석심장(鐵石心臟) : 쇠처럼 변함없이 굳은 마음을 말한다.

2.12. 밤이 와 몸이 가을기운이 감돌아 읊다 연지에게 보여준다.

[夜來已有秋氣吟 示演之]

찌는 듯 무더운 날에는 가을 생각 괴로웠거늘	昔在炎蒸苦憶秋
가을이 오니 만년의 근심 일어나네.	秋來又作暮年愁
슬픈 귀뚜라미소리 차가운 장막 아래로 점점 가까워지고	悲蛩漸近寒帷下
차가운 달빛은 작은집 지붕으로 천천히 들어오네.	冷月長侵小屋頭
잠을 잊고 뒤척이며 하늘 걱정하고	廢寢憂天真蠢蠢
흠손 그리며 ⁵⁶⁸⁾ 유유히 밥을 구하네.	畫塲求食信悠悠
초(楚)나라 나그네 ⁵⁶⁹⁾ 의 쓸쓸한 마음 깊이 품었으나	深懷楚客蕭條意
후대에 상심하여 짝이 되지 못하누나.	異代傷心不與儔

2.13. 두소릉의 <추흥> 8수⁵⁷⁰⁾에 차운하다 임 주서 대수에게 드린다. 이름은 역령이다.

[次杜少陵秋興八首 呈林注書大樹 名億齡]

세상사는 서글픈 한 판의 바둑	世事曾傷一局碁
가을 오니 또 초(楚)나라 신하의 슬픔 느끼네. ⁵⁷¹⁾	秋來又作楚臣悲
가련하다 강에 임하고 산에 오르는 곳마다	可憐臨水登山處
모두 어버이를 떠나고 벗과 이별하는 때 같네.	盡似離親別友時
이슬 뒤에 푸른 오동잎 일찍 시들고	露後靑梧彫葉早

568) 흠손 그리며 : “畫塲”은 담장의 꾸밈을 함부로 그어놓는다는 말로 功은 없고 害만 있음을 뜻한다. 『孟子』 <滕文公 下>에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기왓장을 부수고 담장의 꾸밈을 함부로 그어 놓고도, 그 뜻이 장차 밥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자네는 그에게 밥을 먹이겠는가? [有人於此, 毀瓦畫塲, 其志將以求食也, 則子食之乎.]”라는 말이 있다.

569) 초(楚)나라 나그네 : “楚客”은 간신의 참소를 입고 유배되어 객지를 떠돌다가 자결한 楚나라 屈原을 가리킨다.

570) 두소릉의 <추흥> 8수 : <秋興> 8首는 少陵 杜甫가 나이 55살 무렵에 夔州에서 머물러 있었다. 그때 자기를 도와주던 친구들은 모두 죽고 없었다. 따라서 지나간 유랑생활에서 오는 고통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하여 400餘 首의 시를 남겼는데 그 중 하나이다. 참고로 엄흔의 차운시는 <秋興> 8首에서 其四, 其五, 其六, 其七, 其八, 其一, 其二, 其三의 순서대로 시의 운자를 차례대로 가져왔다.

571) 가을 오니 ~ 슬픔 느끼네 : 楚나라 조정에서 쫓겨난 屈原의 슬픔을 말한다.

서리 앞에 흰 기러기는 소식을 더디게 보내네.
 새장이 적적하여 한 쌍의 새 넣고
 고개 돌려 긴 하늘 만 리(萬里) 밖을 그리네.

霜前白雁送書遲
 雕籠寂寂囚雙鳥
 回首長天萬里思

높고 험한 북악산 서산(西山)과 맞닿아
 두 산 사이에 일만 집이 들어섰네.
 종과 북의 맑은 소리 한밤중 궁전에서 들려오고
 아름다운 연기구름 새벽 변방에 퍼지네.
 문장은 붓을 던져 새로운 수법을 보내고
 훈업(勳業)은 갓을 털며 옛 얼굴을 부끄러워하네.
 덧없이 흐르는 세월 가을이 또 저무는데
 일생의 마음계획 조정의 원반(鵝班)⁵⁷²을 더네.

峇嶠北岳接西山
 萬屋參差兩麓間
 鍾鼓清聲宵在殿
 煙雲佳氣曉通關
 文章投筆輸新手
 勳業彈冠愧舊顏
 荏苒年光秋又晚
 一生心計滅鵝班

집은 과릉(巴陵)의 왼쪽 벼랑 끝
 서쪽을 바라보니 속세 너머엔 맑은 가을이네.
 노란 국화 마주할 이 없음을 알고
 근심 속에 단풍을 보내네.
 오늘 마음은 추분(秋分)에 제비 가는 것⁵⁷³ 같거늘
 어느 때나 이 몸이 파도 위 갈매기를 쫓아갈까.
 성조(聖朝)에 조금도 보탬이 없었으니
 두자미(杜子美) 검주(劍州)⁵⁷⁴에서 늙어 마땅하네.

家左巴陵斷岸頭
 塵中西望隔清秋
 遙知黃菊無人對
 長遣丹楓在處愁
 此日心如經社燕
 何時身逐泛波鷗
 聖朝未有涓埃補
 子美端宜老劍州

기와가 부서지면 아무 공(功)이 없거늘
 공허한 계획만 가슴에 쌓여가네.
 삼경(三更)의 달밤 온갖 근심으로 잠 못 이루고
 한밤중에 바람은 나무마다 쓸쓸히 불어오네.
 세월의 재촉에 머리는 벌써 희었고

毀瓦深知未有功
 唯將虛計蓄胸中
 百憂耿耿三更月
 萬木蕭蕭半夜風
 頭上光陰催鬢白

572) 원반(鵝班) : 조정 신하의 반열을 뜻하는 말이다.

573) 추분(秋分)에 제비 가는 것 : ‘社燕’은 제비가 春社日(춘분)에 왔다가 秋社日(추분)에 떠나므로 여기서 秋分에 떠나는 제비를 의미하는 말이다.

574) 검주(劍州) : 지금의 福建省을 말한다.

꽃 앞에 술잔 얼굴이 붉어지네.
 훗날 마음 열어 안다면
 일편단심 두 늙은이 뿐.

花前杯酒借顏紅
 他年認取開懷地
 一片丹心兩老翁

돌아갈 마음에 길이 먼 것도 모르고
 문득 서풍(西風) 좇아 한밤중 언덕에 이르렀네.
 물이 떨어져도 어룡(魚龍)은 바다 깊이 들어가고
 숲이 흔들려도 오작(烏鵲)은 가지가 편안하네.
 단풍 숲과 국화꽃은 추위도 아직 남아 있고
 대나무 절개와 소나무 마음은 늙어도 변치 않네.
 벗의 마음 나와 같음을 생각하니
 새벽에 귀밑머리 실처럼 함께 드리웠네.

歸懷未識路逶迤
 忽逐西風到夜陂
 水落魚龍深入海
 林搖烏鵲可安枝
 楓叢菊蕊寒猶在
 竹節松心晚不移
 想得故人心似我
 曉來同有鬢絲垂

쓸쓸한 낙엽이 이미 숲을 떠나고
 화악(華岳)⁵⁷⁵에 고목나무만 남아 있네.
 물시계가 아득히 새벽하늘에 메아리를 전하니
 은하수 점점 움직여 뜨락에 그늘을 이루네.
 가을바람에 천 가닥 머리 흘날림 슬퍼하나
 유유히 일편단심으로 나라 은혜에 보답하려네.
 마을 이웃 몇 사람은 함께 자지 못하고
 맑은 서리 곳곳에서 찬 다듬이소리 재촉하네.

蕭蕭落葉已辭林
 華岳唯餘老木森
 更漏遙傳夜響
 星河漸結半庭陰
 傷秋颯颯千莖髮
 報國悠悠一片心
 隣巷幾人同不寐
 清霜處處促寒砧

짧은 모자에 산수유(山茱萸)를 비스듬히 꽂고
 서글퍼 고개 돌려 화려했던 시절 생각하네.
 마음을 적시는 것은 술잔 속의 술뿐이요
 세상에 붙어사는 바다 위 찌꺼기 같네.
 밝은 달 집집마다 가을 방아소리

插却茱萸短帽斜
 悵然回首惜年華
 澆腸但有杯中酒
 寄世眞如海上查
 皎月千家秋搗練

575) 화악(華岳) : 원래는 중국의 五嶽 중 하나로 唐나라의 수도인 長安 북쪽의 산 이름인데, 문맥상 여기서는 경기도 가평군 끝자락 강원도와 경계를 이루면서 높게 솟아 있는 화악산으로 보았다. 이 산은 경기도의 최고봉일 뿐만 아니라 경기 5岳(화악산, 운악산, 관악산, 송악산, 감악산) 중 으뜸으로 꼽힌다.

차가운 성 곳곳마다 한밤에 호가(胡笳)⁵⁷⁶소리.
 다시 서리 바람 부는 길로 은근히 향하니
 울타리 가에 두어 송이 꽃이 나를 붙잡네.

寒城幾處夜吹笳
 殷勤更向霜風道
 留我籬邊數朶花

유람하는 곳마다 저녁노을 바라보며
 속세에 즐거운 일 적음을 깨달았네.
 날마다 해와 달은 아침저녁으로 갈마들고
 해마다 기러기는 남북으로 날아가네.
 번잡한 공무 반년에 몸은 장차 늙어가고
 호수와 바다에서 노닐 꿈은 오래도록 어그러지네.
 주하(柱下)에 있는 사람⁵⁷⁷은 이러한 뜻 알고
 석천(石川)에 살찐 쏘가리⁵⁷⁸ 길이 기억하리.

登臨何處對斜暉
 頗覺塵埃樂事微
 日日兔烏朝暮代
 年年鴻雁北南飛
 簿領半歲身將老
 湖海三秋夢久違
 柱下有人知此意
 石川長憶鱖魚肥

2.14 윤씨 어른의 야거에 들리 이름은 여달이다. 집이 한강변에 있다.

〔過尹丈野居 名餘達 居在漢江邊〕

어느 해 이곳에 터 잡고 살았나
 집 아래로는 맑은 강이요 위로는 산이네.
 버드나무 두어 가지 당겨 낮은 잠자리 만드니
 속세의 성문과 십 리가 떨어졌네.
 황소는 봄에 동쪽과 서쪽 언덕으로 흩어지고
 백조는 아침에 멀고 가까운 포구로 날아가네.
 누가 주인에게 가난이 뼈에 사무쳤다 말하는가
 손님 오면 잠시 한가로움을 나누어 준다네.

何年於此卜柴關
 屋下清江屋上山
 攀柳數枝低枕席
 塵埃十里隔城闌
 黃牛春散東西岸
 白鳥朝飛遠近灣
 誰道主人貧到骨
 客來分與暫時閑

576) 호가(胡笳) : 張騫이 西域에서 가져왔다고 전하는 피리의 일종이다.

577) 주하(柱下)에 있는 사람 : 엄흔 자신을 지칭하는 시어의 중의적 표현으로 엄흔이 지난날 임역령과 했던 굳은 약속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한다.

578) 석천(石川)의 살찐 쏘가리 : “石川”은 林億齡의 호이다. 천성적으로 도량이 넓고 청렴결백하며 시문에 탁월하여 당시 사람들이 존경하였지만, 관직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러므로 시에서 ‘살찐 쏘가리’라고 시어의 중의적 표현을 한 것으로 보인다.

2.15. 마음대로 읊다

[謾吟]

황야(荒野)의 발자취 속세에 떨어져
 밤마다 강산이 꿈속에 들어오네.
 나라의 은혜 갚으려는 마음 있어 공연히 강개하고
 공(功)은 거들 길이 없어 아직도 배회(徘徊)하네.
 나는 적막한 고향에서 자라 가난하고 병 많고
 풍연(馮衍)⁵⁷⁹은 기구하여 늙도록 재주 폐했네.
 홀로 북창(北窓)에 누워 밝은 해 보니
 백년의 인생사 더욱 아득하여라.

蓬蒿蹤跡落塵埃
 夜夜江山入夢來
 報國有懷空怏慨
 收功無路尚低徊
 長鄉寂寞貧多病
 馮衍崎嶇老廢才
 獨臥北窓看白日
 百年人事轉悠哉

2.16. 봄의 회포

[春懷]

속세의 자취에 고향 선산과 멀어지니
 그 옛날 마소유(馬少游)⁵⁸⁰에게 참으로 부끄럽네.
 오두미(五斗米)⁵⁸¹로 살아가며 좋은 날이 없었거늘
 십년 동안 미적거리며 누구 위해 머물었나.
 나루터 소용돌이 위태로워 건너기 어려우나
 조출한 초가집 늙어도 구할 수가 있다네.
 한 잔의 술 들고 잠깐 취하려는데
 봄날의 풍경 앞에 왜 또 깊이 시름하는가.

塵埃蹤跡遠林丘
 端愧當時馬少游
 五斗經營無日快
 十年牽挽爲誰留
 要津洶湧危難涉
 草屋蕭條老可求
 手把一杯期暫醉
 春容何事又深愁

579) 풍연(馮衍) : 後漢 初期의 辭賦家로서 자는 敬通이며 杜陵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여러 책을 널리 탐독하였다. 행실이 介潔하여 거취가 분명하였으나, 조정에서 크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 은거한 채 시문을 지으며 일생을 보냈다.(『後漢書』 卷58 <馮衍列傳>.)

580) 마소유(馬少游) : 後漢 때 名利에 욕심이 없는 馬少游가 일찍이 從兄 馬援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선비가 한 세상을 살면서 다만 의복과 음식이 충족하기만 취하여 작은 수레를 타고 작은 말을 몰면서 고을의 아전이 되어 선산을 지키고 향리에서 선인이라 일컬어지면 될 것이지 가득함을 구하려 하면 다만 스스로 괴로울 뿐입니다. [士生一世, 但取衣食裁足, 乘下澤車, 禦款段馬, 爲郡掾史, 守墳墓, 鄉里稱善人, 斯可矣, 致求盈餘, 但自苦耳.]”라고 하였다.(『後漢書』 卷24 <馬援列傳>.)

581) 오두미(五斗米) : 晉나라 處士 陶淵明이 五斗米를 마다하고 彭澤令을 하직할 일을 말한다.

증점(曾點)의 마음 공자(孔子)와 부합했으니⁵⁸²⁾
 천년 뒤 어찌 따라가 함께 노닐까.
 봄의 생각은 홀연히 자취 없이 오고
 하늘의 질서는 돌고 돌아 머물지 않고 떠나네.
 꿈속에 어렴풋이 세 이랑이 보이고
 세상에 거침없이 일만 사내 구하네.
 노쇠함 무릅쓰고 억지로 산에 올라 보니
 들풀과 바위 꽃이 곳곳마다 시름겹네.

狂點胸襟契聖丘
 千年那復與追游
 春思忽忽來無跡
 天序沄沄去不留
 夢裏依稀三畝在
 人間奔沛萬夫求
 扶衰強欲酬登眺
 野草巖花處處愁

2.17. 연경에 조회하러가는 검찰관 조계임⁵⁸³⁾을 전송하며 이름은 사수다.

[送檢察官 趙季任 朝燕 名士秀]

이번에 가는 검찰관 어진 줄 알아
 맑은 바람이 압록강의 안개를 다 쓸어주네.
 가슴에는 오랫동안 『詩經』 삼백 수를 간직하고
 눈으로는 일찍이 사천(四千) 리 길⁵⁸⁴⁾을 경험했네.
 백발의 늙은이라 쇠퇴한 날 쉬이 아프고
 녀이 녹아내려 이별 노래 부르기 어렵네.
 병든 몸을 부지하는데 좋은 약이 필요하니
 선단(仙丹)⁵⁸⁵⁾을 싣고 구천(九天)⁵⁸⁶⁾에서 내려오기를.

此去人知檢察賢
 淸風掃盡鴨江煙
 胸中久貯詩三百
 眼底曾經路四千
 頭白易傷衰廢日
 魂銷難賦別離篇
 扶持病骨須良藥
 稴載仙丹下九天

582) 증점(曾點)의 마음 ~ 부합했으니 : 공자 제자 曾點의 고사를 말한다. “暮春者, 春服既成, 冠者五六人, 童子六七人, 浴乎沂, 風乎舞雩, 詠而歸.”(『論語』, <先進>.)

583) 조계임 : 趙士秀(1502~1558)를 말한다. 연산군~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漢陽, 자는 季任, 호는 松岡이다. 시호는 文貞이다.

584) 사천(四千) 리 길 : 북경 가는 길의 거리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이전의 사신의 경험을 말한다.

585) 선단(仙丹) : 신선이 만든다는 長生不死의 환약을 말한다.

586) 구천(九天) : 고대 중국에서, 하늘을 아홉 방위로 나누어 이르던 말이다. 중앙을 鈞天, 동방을 蒼天, 서방을 旸天, 남방을 炎天, 북방을 玄天, 북동방을 變天, 남동방을 陽天, 남서방을 朱天, 북서방을 幽天이라고 한다.

2.18. 파직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송 사성 수초(587)를 전송하며 이름은
순이다.

[送宋司成守初 罷官歸鄉 名純]

책 속의 <月夜> 시(588)를 전하여 보고
호수가에서 의연히 술잔을 잡네.
부평초는 다 정처 없이 모이고 흩어지니
동서의 갈림길에서 어찌 기약이 있으랴.
반가운(靑眼) 광문(廣文) 헛되이 쓸쓸하고
백발의 낭서(郎署)는 이미 노쇠하네.
가을바람에 이별하니 감개무량하여
위수강운(渭樹江雲)(589)을 한번 바라보고 슬퍼하네.

卷裏傳看月夜詩
依然湖上把杯時
萍蓬聚散渾無定
岐路東西詎有期
靑眼廣文空冷落
白頭郎署已衰遲
秋風離別情何限
渭樹江雲一望悲

2.19. 동북 현감 임대수에게 부치다

[寄林同福大樹]

조용하고 편안한 산성에 있는 임 태수가
근래에 소식이 없으니 이별의 근심을 알겠네.
두 땅의 거리가 몇 천리인가
하루를 못 보는 게 삼년 같구나.
근심은 흰 구름을 쫓아 북쪽으로 가고
눈물은 창해(滄海)에 기대어 동쪽으로 흐르네.

安穩山城林太守
近無消息解離憂
兩地相望幾千里
一日不見如三秋
愁逐白雲兼北去
淚憑滄海寄東流

587) 송 사성 수초 : 宋純(1493~1582)을 말한다. 성종~선조때 문신으로, 본관은 新平, 자는 遂初 또는 誠之, 호는 企村 또는 俛仰亭이다. 俛仰亭歌壇의 창설자이며 江湖歌道の 선구자이다. 그는 벼슬에서 물러나 강호생활을 하면서 자연 예찬을 주제로 한 작품을 지음으로써 강호가도의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俛仰亭三言歌>·<俛仰亭題詠>등 수많은 한시(총 505首, 賦 1편)와 국문 시가인 <俛仰亭歌> 9首, <自上特賜黃菊玉堂歌>·<五倫歌> 등 단가(시조) 20餘 首를 지어 조선 시가문학에 크게 기여하였다. 문집으로는 『俛仰集』이 있다.

588) 월야(月夜) 시 : 원문의 <月夜> 시는 누구의 시를 말하는지 근거를 상고하지 못하였다. 참고로 宋純의 『俛仰集』속에서 <月夜>라는 편 이름의 시는 보이지 않는다.

589) 위수강운(渭樹江雲) : 渭水에 있는 나무와 위수를 지나와 江水 위에 떠 있는 구름을 말하는데, 떨어져 있는 두 곳의 거리가 먼 것을 이르는 말로 멀리 떨어져 있는 벗이 서로 그리워하는 말로 쓰인다.

하늘가의 기러기와 강물 속의 잉어여
내 서신을 호숫가에서 찾아보기를.

天邊鴻雁江中鯉
試覓吾書湖水頭

2.20. 동서 서근부(590)의 득남을 시로 축하하다 이름은 같이다.

[同壻徐勤夫生男 以詩賀之 名劼]

좋은 소식 전하려고 한달음에 달려오니⁵⁹¹⁾
양가(兩家)의 웃음소리 일시에 터지네.
머리를 묶은 건 신선의 솜씨요
정신을 모으는 건 부처의 아이인 듯.
훗날 창문을 바르고 바른 이름(字) 짓고
오늘 아침 늘그막에 귀한 자식 얻었네.
그대가 일찍이 심은 삼괴수(三槐樹)⁵⁹²⁾를 보니
가문의 복이라 지난 슬픔⁵⁹³⁾에 헛되이 울 것 없네.

好語相傳折屐來
兩家歡笑一時開
應經結髮仙人手
定是凝神釋氏孩
他日塗窓鴉作字
今朝入掌蚌生胎
看君早植三槐樹
門祚無勞泣死灰

2.21. 아플 때 친히 약을 준 권경우(594)의 은혜에 감사하다 이름은 응창이다.

[謝權景遇 惠病親藥 名應昌]

하늘로부터 내려준 약물이라고 시를 지어 놓고

題封藥物自天來

590) 서근부 : 조선중기 유학자로 利川 徐氏이다. 十省堂 엄흔의 同壻이며, 霧峯 高敬命의 족속이다.

591) 한달음에 달려오니 : 원문은 “折屐”로 미친 듯이 기뻐함을 뜻하는 말이다. 383년 쑤나라 謝玄(343~388)이 前秦의 苻堅(338~385)이 이끄는 백만 대군을 격파했을 때 그의 삼촌 謝安이 손님과 바둑을 두다가 소식을 듣고도 변함없이 바둑만 두더니 바둑을 끝내고 내실로 들어갈 때는 미친 듯이 기뻐하여 문턱에 나막신 굽이 걸려 부러지는 줄도 몰랐다는 고사를 원용한 표현이다.(『晉書』 卷79 <謝安列傳>.)

592) 삼괴수(三槐樹) : 세 그루의 왜나무. 周 나라 때 조정에 이 나무를 세 그루 심어서 삼공의 좌석 표지를 삼았으므로 삼공을 뜻하는 말이다.

593) 지난 슬픔 : “死灰”는 죽은 재가 다시 탄다는 死灰復燃의 준말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맥상 “지난 슬픔”으로 국역하였다.

594) 권경우 : 權應昌(1505~1568)을 말한다. 연산군~선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安東, 자는 景遇, 호는 知足堂이다. 주요 저서로 『牛馬羊猪染疫病治療方』이 있다.

당상(堂上)의 봄바람에 한바탕 웃음이 도네.
 비가 고목을 적시니 푸른 가지 생겨나고
 바람이 찬 재를 부니 붉은 불씨 일어나네.
 검루(黔婁)⁵⁹⁵가 슬피 흐느껴 울을 바야흐로 보고
 노래자(老萊子)는 색동옷 입고하는 놀이 그만두었네.
 태산 같은 은혜 갚을 길 없어
 감사 시 짓다가 재주 없어 부끄럽네.

堂上春風一笑回
 雨濕青枝生古木
 風噓紅焰起寒灰
 方看號泣傷黔婁
 已作爛斑戲老萊
 賜重丘山無以報
 裁成謝句愧非才

2.22. 11월 3일 우박과 번개가 요란하다

[十一月初三日 大雨雹大雷電]

한 겨울에 요란한 우박소리 은은한 천둥소리
 양기가 새나가 음기가 엉기어 두 재앙 합했네.
 사람의 일은 정녕 실수가 많을 뿐이니
 하늘의 마음 누가 아득하다 하라.
 이로부터 원기를 고르고 낭묘(廊廟)⁵⁹⁶에 서서
 가슴을 헤칠 길 없어 초래(草萊)⁵⁹⁷에 전전(展轉)하려네.
 성스러운 붓⁵⁹⁸ 천년을 밝게 내려오니
 어떻게 상주문(上奏文) 들고 구중궁궐 올까.

深冬大雹又輕雷
 陽洩陰凝合兩災
 人事正多其失耳
 天心誰道更茫哉
 調元自是須廊廟
 披腹無由展草萊
 聖筆昭昭千載下
 何當封奏九重來

595) 검루(黔婁) : 중국 춘추시대齊나라 사람으로 清節을 지키면서 벼슬하지 않았다.(『史記』, <高士傳, 黔婁先生>.)

596) 낭묘(廊廟) : 백관을 통솔하고 정사를 총괄하던 최고의 정치 기관이다. 1400년에 왕권 강화의 일환으로 都評議使司를 개편한 것으로, 대한제국 때까지 500여 년간 계승하였다.

597) 초래(草萊) : 황폐한 토지를 말한다.

598) 성스러운 붓 : 孔子가 지은 『春秋』를 가리킨다.

2.23. 연지가 언관의 논박으로 체직되어 시로 위로하다

[演之 拜官駁遞 詩以唁之]

처음 경복궁에서 임명 받았다는 소식 들었는데
 대간의 탄핵을 당해 두문불출 한다지.
 영예가 있으면 욕도 있음을 이미 알거늘
 비방도 칭찬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임금의 총애⁵⁹⁹⁾ 지극해도 비난하는 사람 많으며
 삼월(三刑)⁶⁰⁰⁾이 무슨 상관 욕은 예전 그대론데.
 마음에 두지 않으면 몸 밖의 일이니
 백 년 동안 조잘댄들 일체가 공허한 것이라네.

初聞北闕降除書
 旋被臺評掩戶居
 已覺有榮兼有辱
 誰能無毀又無譽
 九遷雖銳人多短
 三刑何傷玉自如
 不必關心身外事
 百年啁哳一空虛

2.24. 경우에게 드리다

[呈景遇]

새옹지마라 슬픔도 기쁨도 갖들일 것 없나니
 세상의 시비가 귀에 들리지 않네.
 이른 나이에 초라한 모습만⁶⁰¹⁾ 헛되이 내게 남았거늘
 늦은 계절 지나갈 때 유독 그대가 있네.
 숲에 있는 고목은 송백(松柏)의 기쁨⁶⁰²⁾을 품고
 땅에 난 마른 쭉은 난초 향기에 젖네.
 서리바람 부는 날 백발의 단심

塞馬何須寄戚欣
 是非於世耳無聞
 早年潦倒空餘我
 晚節經過獨有君
 老木在林懷柏悅
 枯蓬生地襲蘭薰
 丹心白髮風霜日

599) 임금의 총애 : “九遷”은 한 달 동안에 아홉 번이나 벼슬에 오른다는 뜻으로 임금의 총애를 많이 받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600) 삼월(三刑) : “三刑”은 五刑(一劓·二墨·三劓·四宮·五大辟) 중에 세 번째 형벌인 월형이라는 뜻이다. 卞和가 월형을 당한 것은 두 차례로, 厲王 때는 왼쪽 발꿈치를 베이고, 武王 때는 오른쪽 발꿈치를 베었다고 한다.

601) 초라한 모습만 : “潦倒”은 볼품없이 노쇠한 것을 뜻한다. 참고로 杜甫의 시 <夔府書懷四十韻>에 “내 몰골 진실로 노쇠하니 / 은덕을 갚음을 감당치 못하노라. [形容真潦倒, 答效莫支持.]”라고 하였다.(『全唐詩』卷230 <夔府書懷四十韻>.)

602) 송백(松柏)의 기쁨 : 松茂柏悅로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는 뜻으로, 벗이 잘되는 것을 기뻐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부운(浮雲)⁶⁰³ 배우지 않아도 괜시리 어지럽네.

不學浮雲謾自紛

2.25. 스스로 기술하다

[自述]

지금 나이 스물여섯 이룬 것 하나 없이
곤궁한 성에서 녹봉 축내는 내 모습 괴이하네.
마음속 마디마다 단심을 품었거늘
귀밑머리에 흰머리 몇 가닥 새로 돋았네.
우환으로 생계가 어려우니 가련하고
시서(詩書)로 일생 그르치니 문득 우습구나.
두어라 도견(陶甄)⁶⁰⁴이 승화하여 가니
세간의 명예일랑 아랑곳할 것 없네.

年今廿六百無成
自怪窮城竊食行
腔裏久懷丹寸寸
鬢邊初覺白莖莖
苦憐憂患妨多計
却笑詩書誤一生
任是陶甄乘法去
安排不要世間名

2.26. 권 수찬 경우가 황태자를 축하하러 가는 사신을 따라 연경에 가는 것을 전송하며 질정하다

[送權修撰景遇 從皇儲賀臣 赴燕質正]

먼 나라에서 머리 조아려 전성(前星)⁶⁰⁵을 하례하리니
명을 맡든 여러 신하 모두 젊다네.
천자의 궁궐에서 글을 읽고 한(漢)나라를⁶⁰⁶ 떠날 것이요
문묘에서 음악을 보고 주(周)나라로 들어가네.
장악(莊嶽)⁶⁰⁷에서 제(齊)나라 말을 묻고

遐邦稽首賀前星
銜命諸公摠妙齡
天上掩書辭漢閣
廟中觀樂入周庭
方從莊嶽求齊語

603) 부운(浮雲) : 의롭지 않은 부귀는 뜬구름 같다는 ‘人生浮雲’의 준말이다. “飯蔬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 不義而富且貴, 於我如浮雲.”(『論語』, <述而>.)

604) 도견(陶甄) : 陶工이 轆轤를 돌려서 각종 질그릇을 잘 만들어 내는 것처럼, 聖君이 선정을 펼쳐 천하를 잘 다스리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605) 전성(前星) : 皇太子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606) 한(漢)나라 : “漢閣”은 漢나라 때 조정의 서적용 수장하던 天祿閣을 말한다.

607) 장악(莊嶽) : 齊나라 수도 임치의 거리 이름이다.

하간헌왕(河間獻王)608)에게 『禮記』를 찾겠지.
우물 밑609)에 오래 머문 내 한바탕 웃음
돌아와도 변함없이 반갑게 보아주길.

要向河間覓禮經
井底淹留吾一笑
歸來無改眼雙青

그대는 지금 멀리 구중궁궐 향하지만
나는 두어 이랑 전원으로 돌아가려네.
집극(執戟)610)의功名(功名) 백발로 변하고
뗏목을 타는611) 일 청년에 양보하네.
곧바로 도로는 삼천리 길 다하도록
느긋하게 시서(詩書) 한두 편 보려네.
삭풍(朔風) 속에 서로 전송하는 마음
나그네의 시름 제각기 아득하네.

君今遠向九重天
我欲歸來數頃田
執戟功名輪白髮
乘槎事業讓青年
直窮道路三千里
懶着詩書一兩篇
多少朔風相送意
閑愁羈況各茫然

일찍이 『詩經』 읽어 <載驅>612)은 아나니
눈바람이 여정에 불어닥쳐도 꺼릴 것 없네.
얼굴은 은원외(殷員外)613)의 기색이요
전대는 육대부(陸大夫)614)처럼 가볍다네.

曾誦周詩慣載驅
不嫌風雪擁征途
面無幾色殷員外
橐有輕裝陸大夫

608) 하간헌왕(河間獻王) : “河間”은 『隋書』 <經籍志>에 의하면 漢나라 초기에 河間獻王이 공자의 제자와 後學들이 이룩한 1백 31편을 얻었는데, 劉向이 여러 경적을 교감하여 1백 30편으로 만들었다. 또 <明堂位> 33편과 <孔子三朝記> 7편과 王·史씨의 기록인 21편과 <樂記> 23편 등을 얻어 5종에 포함 2백 14편이었다. 戴德이 그 번잡하고 중복된 것을 깎아버리고 85편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大戴記>라 하고, 또 戴聖이 <대대기>를 깎아 46편으로 만들었으니 이것을 <小戴記>라 한다. 漢末에 馬融이 小戴의 學을 전하면서 또 <月令> 1편과 <明堂位> 1편과 <악기> 1편을 추가하여 포함 49편이 되었다.

609) 우물 밑 : “井底”는 “井底之蛙”의 준말로 엄흔의 좁은 소견을 말한다.

610) 집극(執戟) : 秦·漢 시대에 궁궐을 시위하던 관직 이름으로 侍郎과 비슷하며 임무를 수행할 때에 손에 창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참고로 『史記』 卷126 <滑稽列傳>에 “관직은 侍郎에 불과하고 지위는 執戟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다.

611) 뗏목을 타는 : “乘槎”는 천자의 명을 받들고 해외에 사신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漢나라 張騫이 武帝의 명을 받들고 黃河의 근원을 찾으러 배 타고서 갔다가 은하수 위로 올라가 하늘 궁궐을 구경했다는 전설이 있다.(『天中記』 卷2)

612) 채구(載驅) : 齊나라 襄公이 그의 누이 文姜에게 간음한 것을 나무란 시, 『詩經』 <齊風·載驅>로 전문은 다음과 같다. “載驅薄薄, 簞芻朱軻. 魯道有蕩, 齊子發夕. 四驪濟濟, 垂轡瀾瀾. 魯道有蕩, 齊子豈弟. 汶水湯湯, 行人彭彭. 魯道有蕩, 齊子翱翔. 汶水滔滔, 行人儻儻. 魯道有蕩, 齊子遊放.”

613) 은원외(殷員外) : 훌륭한 사신을 뜻하는 말로 韓愈의 <送殷員外序>에서 유래하였다.

614) 육대부(陸大夫) : 漢 高祖 때의 名臣 陸賈를 가리킨다. 육가는 한 고조가 천하를 평정한 뒤에 南越王 尉佗에게 사신으로 가서 稱臣하는 등 여러 차례 사신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천하의 일은 마땅히 대범하게 행해야지
 소견 좁은 사람⁶¹⁵만 쩌쩌하게 고집하네.
 금낭(錦囊)에 연경(燕京) 땅을 다 거두어
 우리 동해의 한 모퉁이에 쏟아 붓기를.

天下事當行落落
 管中人獨守區區
 錦囊收盡幽燕地
 顛倒吾東海一隅

2.27. 시골집에 돌아오다

[歸村家]

죽대가지로 오래전 강가에 집을 짓고
 고목 천 그루 두어 서까래로 지붕 덮었네.
 새로 지은 집에서 밭을 갈면서도
 나라에 마음 허락한 터 부질없이 하늘을 근심하네.⁶¹⁶
 헤아리니 이해득실 모두 이 몸 밖이요
 바라보니 인생의 부침(浮沈) 눈앞에 있네.
 강에서 낚시하고 산에서 나물 캐는 일 흠족하니
 정자에서 청풍명월과 한 해 한 해 보내리다.

蕭條舊築寄江邊
 古木千章屋數椽
 業已耕田新卜地
 心曾許國謾憂天
 算來得失皆身外
 看去升沈在眼前
 釣水採山吾事足
 一亭風月送年年

2.28. 내 고향은 옛날부터 두견새가 없는데 지금 갑자기 날아와 울기 에 감흥이 있어서 시를 짓다

[吾鄉舊無杜鵑 今忽來啼 有感賦之]

이 땅이 생긴 지 이미 천년이 지났는데
 오늘밤 처음 두견새 울음소리 듣네.
 남쪽 새가 북쪽으로 오니 응당 뜻이 있을 터
 동쪽 바람 서쪽으로 가니 까닭 없이 괴롭네.

人言此地已千年
 今夜初聞哭杜鵑
 南鳥北來應有意
 東風西去苦無緣

615) 소견이 좁은 사람 : “管中”은 管中窺豹의 준말이다. 대롱 속으로 표범을 엿본다는 말이니, 세상 물정을 알지 못하는 좁은 식견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616) 하늘을 근심하네 : “杞國謾憂天.”(『列子』, <天瑞>.)

파산(巴山) 밖에서 고국을 오래 생각하며
 늦은 봄 또 바다 숲에서 보내네.
 그 누가 날이 새도록 잠들지 못하고 우는가
 고신(孤臣)은 책상 앞에 절하며 눈물 드리우네.

長懷故國巴山外
 又送殘春海樹邊
 啼到五更誰不寐
 孤臣垂淚拜床前

2.29. 윤대수⁶¹⁷)를 찾아가다 이름은 기이다.

[訪尹大受 名器]

짚신에 대나무지팡이 짚고 동쪽 마을 당도하니
 동자 육 칠 명이 뒤쫓아 따라오네.
 나무 베어 서쪽으로 틈을 내니 시야가 멀리 통하고
 평상 옮겨 북쪽으로 가까이 두고 시끌벅적 나를 초대했네.
 순채(蓴菜)와 된장 비비니 입 안이 향기롭고
 보리밥에 얼음 넣으니 정신이 시원해지네.
 바둑 한 판 끝나가도 담소는 그치지 않고
 석양에 숲의 이슬만 의건(衣巾)에 떨어지네.

芒鞋竹杖到東隣
 童子追隨六七人
 斧樹缺西通遠眼
 移床近北帖關身
 蓴絲化豉香侵口
 麥飯調水冷入神
 一局殘棋談未罷
 夕陽林露落衣巾

2.30. 곧은 바위

[直巖]

바위 밑에 맑은 강은 만 길이나 깊은데
 푸른 절벽이 강 가운데에 들어왔네.
 단제(丹梯)⁶¹⁸)의 그림자 어룡(魚龍) 굴에 넘어지고
 흰 파도소리가 조수(鳥獸)의 숲속에 불어오네.
 십 리 이어진 돛단배에 온 포구가 어둡고

巖下清江萬丈深
 蒼蒼絕壁入江心
 丹梯影倒魚龍穴
 白浪聲吹鳥獸林
 十里帆檣全浦暗

617) 윤대수 : 尹 殿中 希一의 父이다.

618) 단제(丹梯) : 붉은 사다리. 전하여 仙境에 들어가는 길을 뜻하며, 또는 붉은 계단의 뜻으로 조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늘 달과 별이 호수를 수놓았네.
가슴 속 대부분 사사로운 해가 없는데
어떻게 긴 자루⁶¹⁹)로 짧은 시를 지으리오.

一天星月半湖陰
胸中八九曾無蒂
那得長杠賦短吟

2.31. 앞 여울에서 그물로 고기 잡으며

[前灘網魚]

맑은 여울로 걸어가서 그물로 물고기 잡아
연한 밥과 향기로운 국으로 호수에 사는 이를 위로하네.
천 년 뒤의 명성일랑 돌아보지 않고
뜻은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자하네.⁶²⁰
바다어귀에 해가 저 서쪽 변방 어둑고
산기슭에 안개 피어 북쪽 마을 허허롭네.
컴컴한 숲에서 가랑비 맞으며 돌아와
지팡이로 솔가지 치니 이슬이 옷깃을 적시네.

步到清灘網小魚
羹香飯軟慰湖居
聲名不顧千秋後
志欲無求一飽餘
日落海門西塞暗
煙生山麓北村虛
歸來雨細前林黑
杖打松枝露濕裾

2.32. 김 노인⁶²¹) 이름은 사이다.

[金老 名泗]

삼년 동안 틀어박혀 공부하며⁶²²) 동산도 엿보지 않았거늘

下帷三載不窺園

619) 긴 자루 : “長杠”은 긴 장대를 가리키는데, 雄健한 문장력을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歐陽脩가 <廬山高> 시에서 여산에 은거한 劉渙의 고상한 절조를 찬미하며 “장부의 절개 그대만 한 이 적으니 / 아!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 장대같이 큰 붓을 어디에서 얻으랴. [丈夫壯節似君少，嗟我欲說，安得巨筆如長杠]”라고 하였다. (『歐陽文忠公集居士集』 卷5)

620) 뜻은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자하네 : 『論語』 <學而>의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말이다. “군자는 음식에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처에 편안함을 구하지 않으며, 일은 민첩하게 행하고 말은 신중히 하며, 도가 있는 이를 찾아가서 질정한다. [食無求飽，居無求安，敏於事而慎於言，就有道而正焉.]” (『論語』, <學而>.)

621) 김노인 : 金泗를 가리킨다. 본관은 安東, 자는 文瀾이며, 품계는 奉正大夫며, 관직은 行軍資監奉事이다. 1543년 式年試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다. (1543년 8월 24일 기사 生員進士試榜目 참조.)

622) 학문하면서 : “下帷”는 휘장을 드리운다는 뜻이다. 漢나라의 유학자 董仲舒는 景帝 때에 박사가 되어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학문에 열중하여 “휘장을 내리고 강송하며 3년간을 뜰을 엿보지 않았

마음속에는 예악(禮樂)의 글이 종횡무진 하네.	腹裏縱橫禮樂文
태평성대에 도(道)가 있음을 가벼이 여겨 응하지 않고	聖世未應輕有道
장대한 시절에 왜 갑자기 군주 없음을 탄식하는지.	壯年何遽歎無君
밤에는 여울 가에서 도롱이 헤치고 달을 낚으며	披蓑夜釣磯頭月
아침에는 언덕 위에 지팡이 꽂고 구름을 쟁기질하네.	植杖朝耕隴上雲
귀한 옥 스스로 진귀하다 여기지만 팔지 않으니	玉貴自珍非自售
초인(楚人)이 화씨벽(和氏璧) ⁶²³ 을 바쳐도 그 정성 헛수고였다지.	楚人來獻浪殷勤

2.33. 서쪽 이웃 김 노인의 새 집에 시를 쓰다

[題西隣金老新居]

서쪽 이웃집은 봄철 따라 새로 지었는데	西隣新築趁春期
병든 나그네는 재주 없어 글짓기 부끄럽네.	病客無才愧頌辭
산천의 영기(靈氣)를 담은 땅에서 해가 뜨고	川嶽儲靈坤闢日
도끼로 신비를 깨트린 귀신이 시절을 꾸짖네.	斧斤破祕鬼呵時
용호(龍虎)가 산을 안은 형세를 다 보고	盡看龍虎包山勢
웅비(熊羆)와 길몽 시 ⁶²⁴ 를 오래 차지하네.	長占熊羆吉夢詩
광주리 가득 집에 전하는 것 보물이 아니니	滿篋傳家非寶物
훗날 당구(堂構) ⁶²⁵ 가 어그러지지 않으리라.	他年堂構未應虧

다. [下帷講誦, 三年不窺園.] ”라고 하였다.(『漢書』卷56 <董仲舒傳>.)

623) 화씨벽(和氏璧) : 楚나라 사람 卞和가 荆山에서 璞玉을 얻어 초나라 厲王에게 올리니, 여왕이 玉工을 시켜 감정하게 하였다. 옥공이 돌이라고 하니, 속았다고 여긴 여왕은 변화의 左足を 베어버렸다. 여왕이 죽고 武王이 즉위하자 변화가 또 박옥을 올렸다. 무왕이 옥공을 시켜 감정하게 하였는데, 또 돌이라는 옥공의 말을 듣고 그 右足마저 베어버렸다. 그후 무왕이 죽고 文王이 즉위하자 변화가 박옥을 안고 형산 아래에서 통곡하니, 문왕이 사람을 보내 그 연유를 물었다. 변화가 말하기를 “보옥을 돌이라 하고 정직한 신비를 간사한 자라고 하니, 그것이 슬퍼서 그런다.”라고 하였다. 왕이 마침내 옥공을 시켜 박옥을 쪼개 보니, 과연 진귀한 보옥이 나오므로 드디어 和氏璧이라 이름 붙였다.(『韓非子』, <和氏>.)

624) 웅비(熊羆)와 길몽의 시 : “熊羆吉夢詩”은 두 시를 말하는데, 『詩經』 <斯干>에 “대인이 꿈 풀이를 하니 / 꿈과 큰 꿈은 아들을 낳을 상서로다. [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라는 말과 杜甫의 <徐卿二子歌>에 “그대는 못 보았나 / 서경의 두 아들 뛰어나게 잘난 것을 / 길한 꿈에 감응하여 연이어 태어났네. / 공자와 부처가 친히 안아 보내주었으니 / 두 아이는 모두가 천상의 기린 아이세. [君不見, 徐卿二子生絕奇, 感應吉夢相追隨. 孔子釋氏親抱送, 豈是天上麒麟兒.]”(『杜少陵詩集』卷10)를 가리킨다.

625) 당구(堂構) : 가업을 이어받아 발전시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書經』, <大誥>.)

주인의 심혈로 귀신의 아깁을 깨고
 새로운 유거지(幽居地)를 정해 이곳을 찾았네.
 북쪽 포구로 날아가는 흰 갈매기 앉아 기다리고
 남쪽의 산을 오르는 누런 송아지를 누워서 보네.
 봄밭에 비가 흠족하니 아침 쟁기질 급하고
 여름나무에 바람 잤으니 낮잠이 한가롭네.
 백년의 괴로운 삶 싫도록 맛보았고
 세상 인연 끊어버린 그대가 부럽네.

主人心匠破神慳
 新卜幽居向此間
 坐待白鷗飛北浦
 臥看黃犢上山
 春田雨足朝耕急
 夏樹風多午睡閑
 百歲酸辛嘗已飽
 羨君都絕世機關

푸른 산기슭 구불구불 들판으로 들어오고
 맑은 강물 가로질러 마을을 안고 도네.
 산에 해가 지니 서쪽 창을 열고
 땅에는 봄 토란 심을 만하여 북쪽 밭을 개간하네.
 한 평상에 손님 맛을 소나무 무성하고
 삼면(三面)에 빈 곳 채우려 버드나무 새로 심었네.
 하는 일 없이 한가로이 걷고 곤하게 자며
 때로 머슴아이 불러 푸른 이끼 쓸게 하네.

翠麓蜿蜒入野來
 清江橫走抱村回
 山宜落日西窓闢
 地可春芋北圃開
 延客一牀松舊茂
 補虛三面柳新栽
 閑行困睡無餘事
 時喚家童掃綠苔

2.34. 삼진날에 서쪽 이웃 김 노인에게 드리다

[三月三日 呈西隣金老]

푸른 봄 삼진날⁶²⁶
 시간은 번쩍번쩍 달리는 말처럼 다급하네.
 복숭아와 자두나무는 온 마을에 붉게 무성하고
 두 귀밑머리 눈서리처럼 하얗게 더필더필하네.
 난정(蘭亭)의 옛 흥⁶²⁷은 여전히 생생하거늘

青春六十又加三
 哲哲光陰急走驂
 桃李一村紅藹藹
 雪霜雙鬢白毵毵
 蘭亭舊興狂猶在

626) 푸른 봄 삼진날 : “六十又加三”은 봄 60일이 지나고 또 3일이 더 지난 3월 3일, 삼진날을 의미한다.

627) 난정(蘭亭)의 옛 흥 : 중국 會稽 山陰에 있던 蘭亭에서 東晉 때 會稽內史로 있던 王羲之를 비롯하여 孫綽·謝安 등 당시의 명사 42명이 그곳에 모여 禊祭祀를 행한 뒤에 술을 마시고 시를 지으며 놀았던 고사를 말한다.(『蘭亭考』卷1)

낙수(洛水)⁶²⁸의 새로운 정은 늙어 견디지 못하네.
 잠시 무한한 일 완상(玩賞)하다가
 그대 집에 술 있다 하여 남쪽언덕 오르네.

洛水新情老不堪
 相賞暫時無限事
 君家有酒上坡南

기구한 세상살이 온갖 세파 겪고⁶²⁹
 백 년 길에 비로소 참마(驂馬)⁶³⁰가 쉬네.
 푸른 풀 밟은 신발 사뿐사뿐 다니고
 붉은 꽃 모자 가득 너풀너풀 떨어지네.
 그대는 무슨 일로 근심 많고 기쁨 적은가
 나는 젊음 가고 늙음 옴을 견딜 수 없네.
 미인을 한번 바라보나 보이는 곳 없으니
 그리는 사람이 동남쪽에 있음을 그 누가 알리.

崎嶇涉世折肱三
 百歲征途始息驂
 草綠籍鞋行細細
 花紅滿帽落毵毵
 愁多歡少君何事
 壯去衰來我不堪
 一望美人無見處
 誰知所思在東南

서글퍼라 그대는 월형(別刑)을 세 번 겪고
 말을 풀었으나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였네.
 세월은 이러구러 덧없이 흘러가고
 바람꽃은 호탕하게 너풀너풀 희롱하네.
 적막한 술잔에 남은 흥이 없고
 어긋난 신세 절로 견딜 수 없네.
 오직 답청(踏靑) 놀이 하려는 마음만 있어
 산비탈에 명아주지팡이 짚고 강남을 바라보네.

悲君別足謾經三
 未向今時遇解驂
 歲月崢嶸行冉冉
 風花浩蕩弄毵毵
 杯觴寂寞無餘興
 身世參差自不堪
 唯有踏靑心況在
 扶藜山岼望江南

628) 낙수(洛水)의 새로운 정 : “洛水新情”은 낙수의 신은宓妃를 말하는데, 魏나라 조조의 아들 조식이 낙수를 건너면서 미인 甄氏를 思念하여 복비를 빗대어 <洛神賦>를 지었다는 고사를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629) 팔이삼절(肱已三折) : 의원은 세 번이나 부러뜨린 팔을 치료하여 많은 경험이 있어야 良醫가 된다는 뜻이다.(『說苑雜言』.)
 630) 참마(驂馬) : 驂馬는 수레를 끄는 네 마리 말 중에서 바깥쪽에 매운 두 필의 말을 말한다.

2.35. 김 노인의 식사 초대에 가다

[赴金老邀飯]

서쪽 이웃집 술이 있다고 동쪽 집 부르기에
산 정상에 올라 강가를 굽어보네.
들판의 푸른 풀 천리에 이어지고
봄 그늘의 붉은 꽃 일만 나무에 잠겼네.
조수(潮水)가 막 들어와 포구에 노 젓는 소리 시끄럽고
해가 반쯤 기울어져 사람그림자가 다리를 가로지르네.
눈을 다하여 강남의 하늘 한 끝 바라보니
저기가 바로 초(楚)나라 장사(長沙)⁶³¹ 땅인가.

西隣有酒喚東家
行到山巔俯水涯
野色綠連千里草
春陰紅鎖萬株花
棹聲喧浦潮初上
人影橫橋日半斜
極目江南天一角
楚鄉何處是長沙

쌀을 얻으면 반드시 술집부터 물으니
뜨구름 같은 인생 유한해도 일은 끝이 없네.
백발은 창발(蒼髮)⁶³²로 돌아가기 어렵고
꽃이 피길 기다리다가 벌써 꽃이 져버렸네.
세상길 풍파에 염여(灑灑)⁶³³가 떠다니고
인정은 험난하여 포사(褒斜)⁶³⁴를 지나는 듯.
구구한 백년인생 헛된 계획뿐
결국 바닷가 모래를 헤아림과 무엇이 다르랴.

得米先須問酒家
浮生有限事無涯
難將白髮還蒼髮
直待開花到落花
世路風波浮灑灑
人情艱險過褒斜
區區百歲徒虛計
畢竟何殊算海沙

2.36. 김 노인에게 울무 씨를 얻다

[乞薏種於金老]

장독(瘴毒)⁶³⁵이 도는 강촌에는 따뜻함이 봄보다 낮고

瘴毒江鄉暖勝春

631) 장사(長沙) : 중국 湖南 長沙市를 말하는데, 漢나라 때 賈誼가 좌천되어 가서 죽은 곳이다.

632) 창발(蒼髮) : 젊은이의 검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을 말한다.

633) 염여(灑灑) : 중국 四川省 三峽의 하나인 瞿唐峽 어귀의 강 가운데 있는 큰 바위를 말하는데, 이 주변의 물살이 몹시 사납기 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배들이 많이 전복되었다고 한다.

634) 포사(褒斜) : 褒斜棧道의 준말이다. 중국 陝西省 終南山의 골짜기에 있는 棧道로 石門에 잔도중 가장 아슬아슬하다.

의가(醫家)에서 울무 열매는 해독에 신통하다지.
한 치의 수저 안에 천 가지 약을 겸하니
사방 한 장으로 하필 팔진(八珍)⁶³⁶을 물으랴.
혐의를 피하지 않다 비방을 일으키나니
공력을 거두어 몸을 가벼이 해야지.
가난한 살림에 땅은 있으나 씨가 없다가에
이웃 노인에게 알려 남에게 빌려주네.

醫家薏實解通神
寸匙自可兼千藥
方丈何須問八珍
不避嫌疑能起謗
要收功力在輕身
貧居有地還無種
爲報隣翁乞與人

2.37. 우연히 읊다

[偶吟]

사월 강촌에 보리가 벌써 익었는데
깊은 숲에 비둘기 울어 맑은 날씨 불러오네.⁶³⁷
바람이 북창을 치니 창틀이 흔들리고
해가 서산에 지니 숲이 그윽하네.
세상만사에 모두 허깨비라
일신의 영화 구할 필요 없네.
백년을 살아도 피가 적어
오직 강가에서 낚시 배를 수리할 뿐.

四月江鄉麥已秋
深林時復喚晴鳩
風侵北戶窓扉戰
日下西山樹木幽
萬事省來俱是幻
一身榮處不須求
經營百歲無多策
直向磯頭理釣舟

635) 장독(瘴毒) : “瘴毒”은 瘴氣를 가리키니, 전염병을 일으키는 邪氣를 말한다.

636) 팔진(八珍) :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 八珍味를 말하는데 『周禮』 <天官·膳夫> 注에는 淳母·淳熬·炮豚·炮牂·擣珍·漬熬·肝膋를 팔진미라 하였다. 『群書拾唾』에는 龍肝·鳳髓·兔胎·鯉尾·鸚炙·猩脣·熊掌·酥酪을 팔진미라고 하였다.

637) 비둘기 울어 ~ 날씨 불러오네 : 맑은 날씨를 말한다. 참고로 沈與義의 시에서는 “비둘기가 울어 맑은 날씨를 불러올 줄 안다. [自有鳴鳩解喚晴]”고 하였다.

2.38. 영남 관찰사 심공 맹용(638)을 전송하며 이름은 연원이다.

[送沈公孟容 觀察嶺南 名連源]

호수와 산으로 띠처럼 둘러싸인 남쪽나라 울타리	湖山襟帶國南藩
새로 부월(斧鉞)을 내려준 은혜 입었네.	授鉞新承拔擢恩
서리 떨치는 수의(繡衣) ⁶³⁹ 입고 한양의 궁궐 하직하니	霜拂繡衣辭漢闕
봄 깊은 당수(棠樹) ⁶⁴⁰ 에 주원(周原) ⁶⁴¹ 의 음덕이 깃드네.	春深棠樹蔭周原
일찍이 현수(峴首)의 풍류가 성대하다는 말 듣고	曾聞峴首風流盛
양양(襄陽)의 지망(地望)이 높음을 알았네. ⁶⁴²	更識襄陽地望尊
홀로 이정(梨亭) ⁶⁴³ 의 달 밝은 밤 한하하니	獨恨梨亭明月夜
누구와 함께 옥잔 잡고 맑은 술 대작할까.	玉杯誰與對清樽

강훈⁶⁴⁴은 사인사 관상에 다음 시를 썼다. “죽엽주 맑은 술 백옥잔에 따르니 / 지난날 노닌 자
취 하늘을 맴도네. / 밝은 달빛 정자 앞에 배꽃나무에게 / 지금 필까 피지 않았을까 물어보네.”
姜渾舍人司板上, “竹葉清尊白玉杯, 舊遊陳迹首空回. 亭前明月梨花樹, 爲問如今開未開.”

심공은 사인 선배인데, 내가 당시에 사인이었으므로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하였다.

沈公, 舍人先生, 而余時爲舍人, 故末句及之.

- 638) 심공 맹용 : 沈連源(1491~1558)을 말한다. 성종~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靑松, 자는 孟容, 호는 保庵, 시호는 忠惠이다. 명종의 廟廷에 배향되었다.
- 639) 수의(繡衣) : 지방관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 640) 당수(棠樹) : 善政을 베푼 수령을 위해 베지 않고 남겨 놓은 나무로, 頌德碑와 같은 뜻이다. 周나라 召公이 甘棠나무 아래에서 정사를 행하였는데 백성들이 그 덕을 사모하여 나무를 보호하면서 甘棠詩를 지어 불렀다고 한다.(『詩經』, <國風·召南·甘棠>.)
- 641) 주원(周原) : 西周(B.C. 1111~771) 초기 周公과 召公의 채읍이다.
- 642) 일찍이 현수(峴首)의 ~ 높음을 알았네 : “峴首”와 “襄陽”은 중국 湖北省 襄陽縣과 같은 현 남쪽에 있는 峴首山을 말한다. 唐나라 시인 孟浩然은 湖北省 襄陽에서 출생하여 고향 부근의 鹿門山에 은거하다가 마흔에 進士科에 응시했으나 실패한 뒤 평생 處士로 지냈다.(『新唐書』 卷203 <孟浩然列傳>.)
- 643) 이정(梨亭) : “梨亭”에 대하여서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할 뿐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지 못하였다. “<江亭記>는 저자의 6代祖 閔普光이 건립한 梨亭을 1612년에 아버지 閔汝霖이 다시 짓고 ‘江亭’이라 명명한 유래를 적은 글이다.”(閔昱, 『石溪集』, 한국문집총간 續11,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金鎮玉 2006.)
- 644) 강훈 : 姜渾(1464~1519)을 말한다. 세조~중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晉州, 자는 士浩, 호는 木溪·東臯, 시호는 文簡이다. 金宗直의 문인이다.

2.39. 평양으로 부임하는 이 도사 경용(645)을 전송하다 이름은 약해이다.

[送李都事景容 赴平壤 名若海]

관서지방 막객(幕客) ⁶⁴⁶ 으로 어진 인재 구하니	關西幕客要賢才
산과 물이 채색을 더해 꾸미고 와 그대를 번거롭게 하네.	山水煩君潤色來
그대가 읊은 ⁶⁴⁷ 아름다운 시어는 초목을 적시고	咳唾珠璣沾草木
빛나는 문장은 누대를 비추네.	文章光焰映樓臺
천년 도읍에 이서(離黍)의 탄식 ⁶⁴⁸ 이 있고	千年都邑生離黍
오월 강성(江城)에 낙매화곡(落梅花曲) ⁶⁴⁹ 부르네.	五月江城唱落梅
벗이 노닐며 완상(玩賞)한 곳마다 찾아가	歷歷故人遊賞處
다시 이백(李白)의 술잔을 잡아도 해롭지 않으리.	不妨重把謫仙杯

내가 작년 봄과 여름에 원접사의 종사관으로 평양을 오고 갔기 때문에 마지막 구절에서 언급하였다.

余於前年春夏，以遠接使從事官，往來平壤，故末句及之。

2.40. 영남으로 부임하는 정 도사 근부(650)를 전송하며 이름은 의각이다.

[送鄭都事謹夫 赴嶺南 名彦愨]

소요(逍遙)하는 기법을 가진 장부의 몸으로	消風手法丈夫身
-------------------------	---------

645) 이 도사 경용 : 李若海(1498~1546)를 말한다. 연산군~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廣州, 자는 景容, 호는 首巖이다. 진라북도 익산의 華巖書院에 제향되었다.

646) 막객(幕客) : 監司, 留守, 兵使, 水使, 遣外使臣을 따라다니며 일을 돕던 무관을 말한다.

647) 그대가 읊은 : “咳唾”는 다른 사람의 아름다운 詩文을 뜻하는 말이다. 『莊子』 <秋水>에서는 “재채기를 할 때 튀어나오는 침방울을 보면 큰 것은 옥구슬 같고 작은 것은 안개 같다. [噴則大者如珠, 小者如霧.]”라고 하였다. 그리고 李白의 <妾薄命>에 “그대의 침방울이 구천에서 떨어지니 / 바람 따라 모두가 주옥을 이룬다. [咳唾落九天, 隨風成珠玉.]”(『李太白集』 卷3)고 하였다.

648) 이서(離黍)의 탄식 : 箕子가 殷나라 도읍을 지나며 보니 고국은 망하여 옛 宮室은 폐허가 되고 그 터는 보리밭이 된 것을 보고 麥秀之歌를 지어 탄식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다.

649) 낙매화곡(落梅花曲) : 옛날 악부의 피리 곡명을 말한다. 李白의 <吹笛詩>의 “황학루에서 옥피리 부니 / 오월 강성에 매화가 떨어지네. [黃鶴樓中吹玉笛, 江城五月落梅花,]”라고 한 시가 落梅花曲으로 樂府에 들어가 있다.

650) 정 도사 근부 : 鄭彦愨(1498~1556)을 말한다. 연산군~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海州, 자는 謹夫이다.

연화막부(蓮花幕府)⁶⁵¹의 막객(幕客)이 되었네.
세상을 놀라게 한 삼어(三語)⁶⁵²를 귀중히 여겨
참신한 시 백 편을 얻네.
꿈속에 난파(巒坡)⁶⁵³의 밤 종루(鍾漏)소리 듣고
영남 가는 봄 말머리에서 팔배나무를 보았네.
남쪽 땅에 명승절경이 많다하니
누대 곳곳에서 꽃잎⁶⁵⁴ 흩어질 테지.

去作蓮花幕下賓
驚世久專三語重
賦詩能得百篇新
夢中鍾漏巒坡夜
馬首棠梨嶺路春
見說南州多勝絕
樓臺幾處散芳塵

2.41. 한식날 비바람이 요란하여 홀로 누워 있자 무료하였다. 작년 이 날 가평 가는 길이 눈으로 험난했던 일이 생각나 마음에 느낀바 있 어 읊시 한 수를 완성하여 읊다

[寒食時節，風雨亂作，獨臥無聊。仍憶去年此日，阻雪嘉平，有感於懷，
吟成一律]

작년 한식날에는 가평(嘉平)에 있었는데
올해 청명일에는 낙성(洛城)⁶⁵⁵에 누워 있네.
눈바람은 사람에게 원래 분수를 주니
봄 경치 가는 곳마다 다정(多情)을 옮기네.
절기를 만나 흥이 일어나니 아직 청춘이요
늙을수록 근심 더하니 백발이 나네.

去年寒食在嘉平
今歲清明臥洛城
風雪與人元有分
煙花隨處轉多情
逢辰興逐青春在
向老愁添白髮生

651) 연화막부(蓮花幕府) : 재상이나 장군의 幕府를 말한다. 南朝 齊의 衛軍將軍 王儉이 才士를 많이 영입하여 막부를 열자, 당시 사람들이 蓮花池 혹은 蓮花府라고 일컬었던 데에서 유래한다.(『南史』 卷49 <庾杲之列傳>.)

652) 삼어(三語) : 阮瞻三語의 준말로, 晉나라 때 王戎이 阮瞻에게 “성인은 名教를 귀히 여겼고, 老子·莊子는 自然을 밝혀 놓았으니, 그 지취가 같은가?”라고 묻자, 阮瞻이 “결국 서로 같지 않겠는가 [將無同].”라고 대답하니, 왕용이 그를 대단하게 여겨 즉시 불려 掾吏로 삼았으므로, 당시에 阮瞻을 ‘三語椽’이라고 일컬었다. ‘三語’는 곧 ‘將無同’ 세 글자를 가리킨다.(『晉書』 卷49)

653) 난파(巒坡) : 고려 시대 임금의 명령을 문서로 꾸미는 일을 맡아보던 관청을 말한다.

654) 꽃잎 : “芳塵”은 꽃잎을 가리킨다. “굴평과 송옥이 맑은 근원을 앞에서 인도하고 가의와 사마상여가 꽃잎을 뒤에서 떨치니 빼어난 글은 금석을 운택하게 하고 높은 의기는 구름과 하늘에 닿을 듯 높네. [屈平宋玉，導清源於前，賈誼相如，振芳塵於後，英辭潤金石，高義薄雲天.]”(『宋書』 卷67 <謝靈運列傳>.)

655) 낙성(洛城) : 開城의 옛 이름이다.

고향의 조상 향한 마음이 끊어지려 하니
어느 날에나 돌아가 농사지을꼬.

香火丘原心欲折
歸歟何日托農耕

2.42. 대수가 앓아누워 시로 병문안하다

[大樹臥病 以詩問之]

봄이 다가와 증점(曾點)의 고사 따르려는 마음 간절하거늘
일에 흠뻑 젖어 당(堂)에서 내려오지 못하네.
주마(酒魔)에 빠져 낭패하지 않았지만
시마(詩魔)가 고향(膏肓)⁶⁵⁶에 들었다네.
문원령(文園令)은 한번 누워 소갈이 많고
두자미(杜子美)는 삼년이나 눈서리를 안았네.⁶⁵⁷
예부터 시인은 이런 근심 모두 가졌으니
근심을 풀려고 새 방법 찾을 것 없네.

春來準擬鬪顛狂
底事涔涔廢下堂
不是酒魔成潦倒
却緣詩蠱在膏肓
文園一臥多消渴
子美三年抱雪霜
自古騷人同此患
遣愁何必覓新方

2.43. 천태산의 새벽 모습을 바라보다 응제시.

[天台曉望 應製]

겹겹의 자줏빛과 비취색 높은 하늘에 들어가고
하늘은 동남쪽을 베어 새벽빛이 새롭네.
성 가득 노을빛이 비단 치마에 머무르고
차가운 바다 해는 붉은 바퀴처럼 용솨음치네.
구름이 기수(琪樹)⁶⁵⁸를 에워싸니 학이 오래 깃들고
이슬은 그윽한 꽃잎을 적셔 특별한 봄을 쌓네.

重重紫翠入高旻
天割東南曉色新
彩合城霞停錦帔
寒浮海日踴紅輪
雲封琪樹長棲鶴
露浥幽花別貯春

656) 고향(膏肓) : 膏肓之疾의 준말로, 오랫동안 앓고 있어 고치기 어려운 병이나 버릇을 말한다.

657) 두자미(杜子美)는 삼년이나 눈서리를 안았네 : 杜甫의 <寄彭州高三十五使君適虢州岑二十七長史參>에 다음 구절을 말한다. “삼 년 지나도록 지겨운 학질 / 이 병 귀신은 죽지도 않나. / 하루건너 삭신이 육신육신 쭈셔오고 / 눈과 서리 안은 듯 으슬으슬 오한이 드네. [三年猶瘧疾 一鬼不銷亡 隔日搜脂髓 增寒抱雪霜]”(『杜少陵詩集』卷8)

658) 기수(琪樹) : 玉과 같이 아름다운 나무를 말한다.

석실(石室)이 푸른 산속에서 열리면
 흐르는 물 어디서 진인(秦人)⁶⁵⁹을 찾을까.

石室定開青嶂裏
 水流何處覓秦人

2.44. 봄날 나부담에서 노닐다 응제시.

[春日遊羅敷潭 應製]

골짜기 속 맑은 못이 작은 연못과 같아
 한 움큼 손에 쥐니 시심(詩心)이 굽이치네.
 나부(羅敷)⁶⁶⁰의 절개에 의탁해 오래도록 이름 날리고
 일찍이 태백의 분방함에 머물러 감상이 미치네.
 숲에 낀 안개는 오늘 갈 길 막지 못하고
 바위에 핀 꽃은 예전 향기 그대로네.
 우습구나 저 기수(沂水)의 관동(冠童) 무리⁶⁶¹
 바람 쐬며 시원만 즐길 줄 알았겠지.

谷裏清潭敵小塘
 寒分一掬澆詩腸
 流名久托羅敷節
 延賞曾留太白狂
 林霧不遮今日路
 巖花多是昔年香
 笑他沂水童冠侶
 但識乘風一味涼

659) 진인(秦人) : “秦人”은 엄흔이 天台山과 관련된 劉晨, 阮肇, 陳搏 등 신선의 고사를 두고 한 말로 추정되나 명확하게 상고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秦人인 劉晨과 阮肇를 가리킨 것으로 보았다.

660) 나부(羅敷) : 樂府 相和歌辭의 곡 이름으로, <陌上桑>, <陌上歌> 또는 <羅敷曲>이라고 불리어지는 시 속에 秦羅敷를 가리킨다. 진나부의 고사는 다음과 같다. 戰國시대에 邯鄲 사람인 秦氏의 딸 나부는 같은 고을 사람으로 낮은 벼슬자리에 있는 王仁의 아내가 되었는데, 왕인이 뒤에 趙王의 家승이 되었다. 나부가 어느 날 밭두둑에 나가 뽕을 따고 있었는데, 조왕이 누대에 올라가 이를 바라보다가 나부의 미모에 혹하여 나부를 불러 술을 먹이고는 겁탈하려고 하였다. 그러자 나부가 箏을 뜯으면서 <맥상가>를 불러 거절하였는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사또님은 아내가 있고 / 나부는 남편이 있습니다. [使君自有婦, 羅敷自有夫.]”라고하자 조왕이 겁탈하지 못하였다.

661) 저 기수(沂水)의 관동(冠童) 무리 : 孔子의 제자 曾點이 늦은 봄 동자들과 함께 沂水에서 목욕하고 舞雩에서 바람을 쐬고 싶다고 했던 고사에서 따 온 말이다.(『論語』, <先進>.)

2.45. 홍주⁶⁶² 목사 이 요서⁶⁶³에게 부치다 이름은 명이다.

[寄洪州牧使李堯瑞 名莫]

안온(安穩)한 남쪽고을 이(李) 사또	安穩南州李使君
물고기가 소식 전하지 않네. ⁶⁶⁴	江魚多阻尺書文
도성 문에서 이별하던 일이 봄날의 꿈만 같고	都門一別同春夢
강호에서 보라보나 저녁 구름에 막히네.	湖路相望隔暮雲
술잔 나누던 예전의 노닐 모두 적막하고	杯酒舊遊渾寂寞
눈서리 쌓인 새 귀밑머리만 부질없이 흘날리네.	雪霜新鬢漫繽紛
궁궐에서 근일(近日) 조서를 내릴테니	九重近下徵黃詔
어찌 장기(瘴氣) 가득한 바닷가에서 머뭇거리겠는가.	那得盤桓瘴海濱

2.46. 하성절사⁶⁶⁵로 연경에 가는 신 침지⁶⁶⁶ 한을 전송하며 진퇴격.⁶⁶⁷

[送申僉知 瀚 賀聖節赴燕 進退格]

명성을 위해 외과(巍科) ⁶⁶⁸ 차지도 필요 없어	成名不必占巍科
사람들이 모두 교목세가(喬木世家)라 일컬었지.	喬木人稱是世家
고을 다스리는 규모는 한(漢)나라에서도 최고요	治郡規模爲漢最
음악의 조예는 오(吳)나라 계찰(季札) ⁶⁶⁹ 과 견줄 만하네.	觀周事業較吳多

662) 홍주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을 말한다.

663) 이요서 : 李莫(1496~1572)을 말한다. 연산군~선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禮安, 자는 堯瑞, 호는 東臯이다. 시호는 貞簡이다.

664) 반가운 소식 : 옛날 강물의 잉어를 통하여 서신을 왕래하였다는 전설이 있다. 참고로 『천년의 우리소설』에 나오는 “蓮花夫人”의 이야기를 소개해 보면 다음과 같다. 江陵府에 龍淵寺가 있었는데 절 앞에 石池인 養魚池가 있었다. “溟州 때에 한 書生이 있었는데 이곳으로 공부하러 왔다가 처녀와 혼약을 했다.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장차 시집을 보내려 하니 여자가 편지를 못 속에 던지자, 1자쯤 되는 잉어가 그것을 물어다가 서생에게 전하여, 그 인연을 이루었다고 한다 [溟州時, 有書生游學于此, 與室女有約. 其父母不知而將嫁之, 女以書投池中, 尺鯉致于生, 得諧其緣.]”(『惺所覆瓿藁』 卷7 <(龍淵寺 古迹記)>.)

665) 하성절사(賀聖節使) : 중국 황태자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중국에 보내던 사신을 말한다.

666) 신 침지 : 申瀚(1482~1543)을 말한다. 성종~중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高靈, 자는 仲容이다.

667) 진퇴격(進退格) : 시를 지을 때 韻字를 쓰는 하나의 격식이다. 예컨대 1句와 3句에서는 ‘虞’ 韻을 쓰고, 2句와 4句에서는 ‘魚’ 韻을 쓰는 형식이다.

668) 외과(巍科) : 대과시험이다.

청화절(淸和節)⁶⁷⁰도 지나 찌는 더위 심하고
 요계(遼薊)⁶⁷¹ 땅 산이 높아 갈 길이 아득하네.
 후배와 나란히 서서 서글피 바라보나니
 어느 날에야 압록강 물결을 다시 건너오.

淸和節轉炎蒸甚
 遼薊山高道里賒
 隣竝後生偏悵望
 幾時重涉鴨江波

2.47. 강릉으로 부임하는 구 부사 천로(672)를 전송하며 이름은 수담이다.

[送具府使天老 赴江陵 名壽聃]

모였다가 흩어지며 어지러이 흘러가는 물 앞에서
 지나간 일 생각하다 문득 망연자실(茫然自失)하네.
 관하(關河)에서 한번 이별하면 몇 천리 밖에
 연로(輦路)⁶⁷³에서 다시 만날 날은 삼사년 뒤.
 잠봉(蠶峯)에서 술잔 잡을 때 백발이 많고
 안탑(雁塔)에 이름 새긴 이⁶⁷⁴ 중 절반이 황천길로.
 평생 그대 허리가 더디 급해지는 걸 가장 잘 아나니
 어느 날에나 팽택(彭澤)⁶⁷⁵ 밭으로 돌아갈까.

聚散紛紛逝水前
 尋思往事却茫然
 關河一別幾千里
 輦路重逢三四年
 把酒蠶峯多白首
 題名雁塔半黃泉
 平生最識君腰懶
 何日歸來彭澤田

669) 주악(周樂)을 보는 : 春秋시대 吳나라 公子 季札이 魯나라에 사신으로 왔다가 周代 各國의 음악을 모두 듣고는 하나하나 품평을 하였던 고사가 있다.(『史記』 卷31 <吳太白世家>.) 및 “季札, 觀周樂.”(『左傳』, 襄公 29年.)

670) 청화절(淸和節) : 날씨가 청명하고 따뜻한 초여름으로, 음력 4월의 다른 말이다.

671) 요계(遼薊) : 遼地와 薊地로, 곧 지금의 遼寧지방과 北京市 河北省 동북지역을 이른다. 두 지역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한 것이다.

672) 구 부사 천로 : 具壽聃(1500~1549)을 말한다. 연산군~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綾城, 자는 天老이다. 1533년 副修撰으로서 經筵檢討官이 되어 기묘사화 때 화를 당한 사림파의 敍用을 주장하다가 파직당하고, 金安老의 모함으로 용천에 유배되었다.

673) 연로(輦路) : 임금의 행차를 말하나, 여기서는 서울을 가리키는 말이다.

674) 안탑(雁塔)에 이름 새긴 이 : 雁塔題名의 준말로, 과거시험에 합격한 舉人들이 이 탑에 올라가 이름을 새겼다고 한다.

675) 팽택(彭澤) : 중국 江西城 彭澤縣을 말하는데, 도잠이 이곳의 현령을 지내다가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2.48. 빠뜨려진 전답을 조사하고 단속하기 위해 북방 변경으로 향하는 권 경차관(676)을 전송하며 이름은 응정(677)이다.

[送權敬差官以檢括遺田向北塞 名應挺]

관복(繡衣) 나부끼며 변방 안개를 헤치고	繡服飄飄拂塞煙
수고로이 유전(遺田)(678)을 단속하러 역마 달리네.	煩君馳驅括遺田
서리바람처럼 빨라 미세한 일까지(679) 다 알고	鋒稜摠識霜風疾
물과 거울처럼 맑아 터럭 끝도 속이지 못하리.	毫髮難逃水鑑懸
탐욕을 돌려 착한 아전 되게 하고	可變貪回爲善吏
양식을 비축하여 흉년에 대비할 터.	自多儲蓄備荒年
다른 고을에도 간절히 말하노니	丁寧說與諸州鎮
오늘날 조정이 북쪽 변방 소중히 여긴다고.	今日朝廷重北邊

2.49. 광주 목사로 나가는 이 집의(680)를 전송하며 이름은 홍간(681)이다.

[送李執義 出牧光州 名弘幹]

상소문 품고 단지(丹墀)(682)에 절하는데	方懷諫疏拜丹墀
무슨 일로 난새가 탕자나무와 가시나무 가지에 깃들었나.	底事鸞棲枳棘枝
황패(黃霸)(683)는 고을 다스리며 명성 높았고	黃霸名高治郡日

676) 경차관 : 지방에 임시로 내려 보내는 벼슬을 이르던 말이다.

677) 응정 : 權應挺(1498~1564)을 말한다. 연산군~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安東, 자는 士遇, 호는 默菴이다.

678) 유전(遺田) : 국가에서 토지조사를 할 때 장부에 누락된 토지를 말한다.

679) 미세한 일까지 : “鋒稜”은 본래 창, 칼 따위의 예리한 끝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호발처럼 미세한 끝을 뜻하는 말이다.

680) 집의(執義) : 司憲府의 종3품 관직으로, 시정의 논집, 백관의 규찰, 풍속 교정, 원통함을 풀어 주는 일 따위를 맡아보았다. 1401년에 ‘中丞’을 고친 이름이다.

681) 홍간(弘幹) : 李弘幹(1486~1546)을 말한다. 성종~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龍仁, 자는 大立, 호는 雙槐이다. 趙光祖·金淨 등과 교유하면서 김정 등의 편협하고 과격함을 경계하였다.

682) 단지(丹墀) : 궁궐 내에 붉은 색으로 칠한 계단을 丹墀라고 한다.

683) 황패(黃霸) : 黃霸(B.C.130~B.C.51)는 淮陽 사람이다. 자는 次公, 시호는 定侯다. 漢나라 목민관으로 이름이 높았다. 황패는 漢武帝 때에는 河南 太守丞으로, 宣帝 때에는 潁川 太守로 있으면서 獄事를 관대하게 처리하고 백성을 잘 보살폈으므로 漢代에 治民吏를 말할 때는 반드시 황패를 먼저 꼽았다.(『漢書』卷89 <循吏傳 龔遂·黃霸>.)

육참(陸慘)⁶⁸⁴은 조정을 떠날 때 사람들이 애석해 했네.
남쪽 고을 초목은 바람에 눕듯 빨리 따를 것이요
북극성 별자리 눈에 들기는 더디다네.
갈 길 재촉하여 말에 채찍질 자주하지 마라
금지(禁池)⁶⁸⁵의 빈 자리 그 누가 없애랴.

陸慘人惜去朝時
南州草木從風速
北極星辰入望遲
莫向前程頻策馬
禁池虛席更除誰

2.50. 강릉 현감 구천로의 편지에 답장하다

[答具江陵天老之書]

제비와 기러기⁶⁸⁶ 멀리서 산 넘고 바다 건너오니
한없는 이별의 마음 편지에 가득하네.
가만히 눈물 참고 편지를 보니
완전히 마주 앉아 술잔을 나누는 듯.
허리 굽히기 게으른 그대는 어떠한지
홀쩍 돌아갈 생각을 나는 결단하지 못하네.
적막해라 예전 노닐던 곳 추억하니
고향 동산에는 납매(臘梅)가 피었겠지.

燕鴻遙度海山來
無限離懷滿紙開
淚暗可堪看盡札
心蘇宛與對銜杯
病腰懶折君何似
歸思長飄我不裁
寂寞舊遊相憶處
故園花放臘前梅

2.51. 제주 목사 조계임이 보낸 시의 운자로 화답하다

[答趙濟州季任寄韻]

관직에 매여 바다에서 봄 맞으니
꿈속에서 두 곳을 갔네.

一官羈絆海中春
兩地追隨夢裏身

684) 육참(陸慘) : 唐나라의 문신으로 歙州刺史로 부임하게 되자, 조정 신료들과 도성에 거주하는 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떠나면 안 된다고 한 고사가 있다. “陸君之道，行乎朝廷，則天下望其賜 刺一州，則專而不能咸，先一州而後天下，豈吾君與吾相之心哉.”(『韓昌黎文集』卷19 <送陸歙州慘詩序>.)
685) 금지(禁池) : 궁중의 연못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궁궐을 뜻한다.
686) 제비와 기러기 : 燕鴻之歎의 준말로, 제비가 날아올 때에는 기러기가 날아가고 기러기가 날아올 때에는 제비가 날아가 서로 만나지 못하여 탄식한다는 뜻으로, 길이 어긋나 서로 만나지 못하여 탄식함을 이르는 말이다.

고래 같은 파도를 잠시 빌려 장한 뜻 보냈거늘
 늙은 신하가 연우(蠶雨)로 응대하지 못하네.
 천리 아득한 바닷길에 깜짝 놀라
 소단(騷壇)⁶⁸⁷에서 보이지 않던 한 사람 손을 잡았네.
 험난한 길 모름지기 평탄하게 보라
 세상의 나루터 위태롭지 않은 곳 없으니.

暫借鯨濤酬壯志
 未應蠶雨老詞臣
 驚心水路遙千里
 握手騷壇少一人
 絕險須將平坦看
 世間無處不危津

2.52. 선전관⁶⁸⁸의 계축⁶⁸⁹에 쓰다

[題宣傳官契軸]

맑은 시절 구중궁궐 호위하여
 칼을 차고 북극성을 따랐네.
 금문(禁門)의 삼엄한 땅 가까워 전령은 급하고
 진법을 익힐 때 바람 일어 점기(點旗)⁶⁹⁰ 한가롭네.
 문무를 겸하여 명망이 높고
 금란(金蘭)으로 맺은 교분 굳게 지켰네.
 좋은 날 아름다운 교외의 모임자리
 석양에 나팔소리 청산에 은은하네.

淸時環衛九重關
 劍佩分趨北極間
 地近禁嚴傳令急
 風生陣習點旗閑
 用兼文武推多望
 契托金蘭保不刪
 勝日芳郊脩會處
 夕陽吹角殷青山

687) 소단(騷壇) : 문인들이 시문을 짓는 結社를 말한다. ‘騷壇赤幟’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결사를 이끄는 文士를 군대의 장수에 비겨 일컫는 말이다.

688) 선전관(宣傳官) : 宣傳官은 武班의 京官職으로, 宣傳官廳에 속하는 정3품부터 종9품까지의 벼슬 아치를 이른다. 선전관청은 形名(임금의 거동이 있을 때 의장대의 앞고 서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등의 동작을 지휘하는 일)·啓螺(임금의 거동이 있을 때 군악을 연주하는 일)·侍衛·傳命·符信出納 등의 일을 관장하는 기구이다.

689) 계축(契軸) : 환갑과 같은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하는 이에게 뜻있는 사람들이 얼마간 돈을 모아 잔치를 베풀고 축하 선물로 주기 위하여 詩賦를 지어 만든 卷軸을 말한다.

690) 점기(點旗) : 진법을 익힐 때, 기를 전후로 흔드는 것을 말한다.

2.53. 군기시⁶⁹¹) 당직을 서며

[直軍器寺]

창밖에 희미한 물시계 소리	報更窓外漏聲殘
홀로 지키는 관청에 밤이 깊었네.	獨守風廳到夜闌
기독(旗纛) ⁶⁹² 의 그림자는 별과 달을 따라 옮겨가고	旗纛影隨星月轉
창의 광채는 두우(斗牛) ⁶⁹³ 까지 서늘하게 비치네.	戈鋌彩徹斗牛寒
문신 싫어하는 전졸(典卒) 내버려두고	任教典卒嫌文吏
진부한 유산(儒酸) ⁶⁹⁴ 무관을 시험하네. ⁶⁹⁵	喜把儒酸試武官
오늘 보병은 술을 마시지 않으리니	今日步兵非爲酒
주방장 완생(阮生) ⁶⁹⁶ 처럼 보지 말라.	廚人莫作阮生看

2.54. 신축년(1541, 중종36) 대전 춘첩자 응제시.

[辛丑年 大殿 春帖字 應製]

자연의 조화 맑게 드러나 온 생명 ⁶⁹⁷ 을 통달하니	玄機晴著達飛潛
싹이 고르게 한 기운을 받아 무젓네.	芽甲均蒙一氣霑

- 691) 군기시(軍器寺) : 1414년에 군기감을 개칭한 것으로 병기·화약을 제조하는 일을 맡아보는 관아이며, 관원은 提調 2명 가운데 병조판서나 참판 가운데서 1명이 되고 또 1명은 武將 가운데서 선 발한다. 그 밖에 정·부정·첨정·별좌·관관·별제(정·종6품)·주부·직장·봉사·부봉사·참봉 등이 있다.
- 692) 기독(旗纛) : 大駕나 군대의 행렬 앞에 세우던 大將旗로 큰 창에 소의 꼬리를 달거나 또는 戟에 粟毛를 달아서 만들었다. 旗纛은 군대에서 쓰이다가 秦·漢 이후에는 天子의 車馬의 장식으로서 사용하였다.
- 693) 두우(斗牛) : 二十八宿 가운데 斗星과 牛星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 694) 유산(儒酸) : 선비를 지칭하는 말이다. 참고로 蘇軾은 그의 시 <約公擇飲是日大風>에서 “豪氣一洗儒生酸.”(『蘇東坡詩選』.)라고 하였다.
- 695) 문신 싫어하는 ~ 무관을 시험하네 : 엄흔이 살던 16세기 초 조선의 사회적 분위기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확한 근거를 추정하지 못하여 난해한 구절로 남겨놓고, 원문의 글자를 따라 국역하였다.
- 696) 완생(阮生) : 晉나라 때 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인 阮籍(210~263)을 말한다. 원문에서 완적을 “廚人(주방장)”이라고 말한 것은 다음 고사에서 연유하였다. 완적은 步兵教尉 자리가 비었을 때 그 부서의 주방에 좋은 술 300斛이 있다는 말을 듣고 흔쾌히 교위가 되기를 자청하여 부임하여서는 매일 劉伶과 함께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고 한다.(『晉書』卷49 <阮籍列傳>.)
- 697) 온 생명 : “飛潛”은 하늘을 나는 鳥類와 물속을 헤엄치는 魚類를 말한다. 여기서는 온 생명을 뜻한다.

상서로운 기운은 운영전(雲英傳) 북쪽 끝까지 깊고
 햇빛은 대전(大殿) 동쪽 처마에 먼저 쏟아지네.
 당(唐)의 깃발 오려서(698) 제후에게 나눠 보이고
 한(漢)의 조서 은사(恩賜) 내려 먼 지방 백성까지 미치네.
 봉력(鳳曆)은 새로 서른여섯 해(699)
 가는 붓으로 하늘을 그리려니 도리어 우습네.

瑞氣正深雲北極
 日華先射殿東簷
 唐幡翦綵分諸看
 漢詔頒恩走遠黔
 鳳曆新編三十六
 模天翻笑筆尖纖

2.55. 신축년 3월 필선(700)이 우연히 병에 걸려 열흘을 쉬면서 벼슬에
 나가지 못하니 동궁전에서 내관으로 하여금 문병하게 하고 선물로
 진미를 하사하시기에 황공하여 몸 들 곳이 없어 울시를 지어 각골
 난망(701)의 뜻을 부치다

[辛丑三月, 待罪弼善, 偶縈疾病, 旬休不仕, 東宮遣內官問病, 又賜膳餘
 珍味, 兢惶罔措, 吟成一律, 以寓鏤骨之意]

외람되이 가까이서 모시며 재주 없음 부끄러우니
 지극한 충애가 도리어 재앙 되겠네.
 장열(壯熱)702로 가슴 태우고 목이 말라 고생하며
 사풍(邪風)703이 뇌를 공격하니 눈을 뜨기 어렵네.
 궁궐에서 내리신 진수성찬 절하여 받는데
 가난한 집(704) 내관(內官)이 보고 놀라네.
 이제 죽을 곳을 모르겠나니

叨陪左右愧非才
 寵極還應積禍災
 壯熱焦心喉苦渴
 邪風攻腦眼難開
 珍羞拜受廚人賜
 蓬戶驚看內使來
 從此未能知死所

698) 전채(剪綵) : 비단 천을 오린다는 뜻인데, 중국에서는 새해가 되면 비단을 오려 사람을 만들거나 금발을 새겨 사람을 만들어 병풍에 붙여 두고 또한 사람처럼 수업도 붙이는 풍속이 있었다.

699) 봉력(鳳曆)은 ~ 서른여섯 해 : 봉황이 天時를 안다는 뜻에서 ‘冊曆’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中宗 36년을 뜻한다.

700) 필선(弼善) : 世子侍講院의 정4품 벼슬이나, 여기서는 당시 엄혼의 관직이 필선이므로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다.

701) 각골난망 : 銘肌鏤骨의 준말로, 살갓에 새기고 뼈에 새긴다는 뜻으로, 마음에 깊이 새겨 잊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동의어로는 銘心鏤骨이 있다.

702) 장열(壯熱) : 병 때문에 몸에 일어나는 높은 열을 말한다.

703) 사풍(邪風) : 몸에서 오열을 나게 하는 ‘邪氣’의 의미로 쓰였다.

704) 가난한 집 : “蓬戶”는 속으로 지붕을 이은 문이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의 집을 이르는 말이다.

어찌하면 목숨 걸고 보살핌에 보답할까.

何方殞首答栽培

2.56. 병으로 필선 벼슬에서 교체되어 문을 닫고 병을 치료하며 시를 짓다 대수에게 드리다.

[病遞弼善 杜門調治吟 呈大樹]

병중의 마음은 절로 만 갈래

病裏情懷自萬端

화창한 봄의 경치 잠시도 머무르기 어렵네.

韶華留得暫時難

소광(疏廣)⁷⁰⁵처럼 어질지 못한데도 벼슬을 그만두고

賢非疏廣猶辭位

봉맹(逢萌)⁷⁰⁶의 자취와 다르거늘 문득 관(冠)을 걸어두었네.

跡異逢萌便掛冠

아내는 괜히 힘을 내라고 술이 익었다 말하고

室婦強人言酒熟

정원사는 뜻을 시험하려 꽃이 시들었다고 알리네.

園丁試意報花殘

얼굴은 쇠하고 귀밑머리 희어 모습이 다 새롭거늘

顏衰鬢白渾新樣

오직 그대로인건 한 조각 단심뿐이네.

一片唯餘似舊丹

705) 소광(疏廣) : 漢나라 疏廣을 말하는데, 宣帝 때의 名臣이다. 소광은 太傅가 되고 그의 조카 疏受는 少傅가 되었는데, 소광이 소수에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험난한 지경에 처하지 않는다. 공을 이룬 뒤에는 떠나가는 것이 천도에 합당하다.”라고 하고 두 사람이 동시에 致仕를 청하였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이 모두 어질게 여겨 그들이 시골로 돌아가는 날 전송하러 온 자들의 수레가 수백 대나 되었으며, 황제가 많은 황금을 하사해 주었다. 두 사람은 그 뒤에 고향으로 내려가서 황제에게서 받은 황금을 다 나눠 주었다.(『漢書』 卷71 <疏廣傳>.)

706) 봉맹(逢萌) : 後漢의 高士로 字가 子康이며 北海사람으로 『春秋』에 밝았다. 王莽이 忠諫하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며 “지금은 三綱이 끊어졌으니, 벼슬을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禍患이 닥칠 것이다.”하고, 관을 벗어 동문에 걸어 두고는 떠나 遼東에 가서 살았다.(『後漢書』 卷83 <逸民列傳, 逢萌> 참조.)

2.57. 대수가 쾌유되지 않고 나도 병이 다시 도져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중에 읊시 한 수를 짓다 석천의 병상에 드리다.

[大樹平復未，僕前病復作，終夜不寐，涔涔之中，吟得一律 呈石川病榻]

적막한 방에서 누구와 친하게 지내나	寥寥一室向誰親
긴 밤 호롱불 꺼져가니 온갖 조심이 새롭네.	永夜燈殘百慮新
두 달을 신음하는 나의 이 병	兩月吟呻身是患
반평생의 고생이 나의 손님.	半生辛苦實之賓
주자(酒醺) ⁷⁰⁷ 에 먼지 쌓인 채 해시(亥時)가 막 지나고	醺頭塵暗初經亥
창밖에 꽃이 나부껴도 봄인 줄 모르네.	窗外花飛不識春
지척의 장빈(漳濱) ⁷⁰⁸ 에서 그대를 생각하니	咫尺漳濱相憶處
시를 논하며 속세를 떨치는 일 누구에게 맡기겠나.	談詩揮塵屬何人

2.58.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은 하고픈 대로 할 수 있어 성정을 읊지 않고는 아픔을 제거할 길 없기에 여러 날을 보내다가 다시 친 자운으로 짓다 대수 선생에게 주었다. 병중의 마음이 어찌 그대가 나와 다르랴?

[身雖病而心自如，非吟詠性情，無以蠲除沈痛，消遣長日，復步親字韻 呈大樹先生。病中之懷，君豈異於我哉]

교분이 일찍부터 골육(骨肉)과 같거늘	交義曾同骨肉親
늙었다고 어찌 새로운 정 없으리. ⁷⁰⁹	白頭那得更如新
소사업(蘇司業) ⁷¹⁰ 은 술값을 자주 빌려주고	酒錢屢乞蘇司業

707) 주자(酒醺) : 술을 거르는 데 쓰는 틀을 말한다.

708) 장빈(漳濱) : 은거하며 요양하는 곳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後漢의 시인 劉楨이 고질병에 걸려 요양하던 漳水를 말한다.

709) 늙었다고 어찌 ~ 정 없으리 : 前漢 초기 사람 鄒陽의 고사를 말한다. “白頭”는 白頭如新的 준말로,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깊이 알지 못한 나머지 항상 처음 만난 사람처럼 관계가 서먹서먹한 것을 말한다. 추양의 <獄中上書自明>에 “흰머리가 되도록 오래 사귀어도 처음 본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 수레 덮개를 기울이고 잠깐 이야기했지만 오랜 벗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白頭如新，傾蓋如故.]”라고 하였다.(『史記』卷83 <鄒陽列傳>.)

여동빈(呂洞賓) ⁷¹¹ 은 때때로 선보(仙譜) ⁷¹² 전하네.	仙譜時傳呂洞賓
형우(衡宇) ⁷¹³ 는 팽택(彭澤) 오솔길에 홀로 남았고	衡宇獨留彭澤徑
고기잡이배는 무릉도원(武陵桃源) ⁷¹⁴ 봄에 한가로이 갇혀 있네.	漁舟閑鎖武陵春
병 많을수록 깊은 정을 느끼니	病多轉覺深情在
누가 친구와 소원하다고 말하는가.	誰道相疏是故人

2.59. 연이어 화답한 시를 얻어 오래도록 낫지 않던 병이 문득 사라졌다. 옛날 이른바 풍을 치료하는 기술이라는 것이 이러했을까 다시 앞의 운자를 써서 대수 선생에게 드리다.

[連得和詩，沈痾頓除。古所謂愈風手者，不其然歟 復用前韻 呈大樹先生]

해질녘 강가에서 친구를 보내며	江邊日暮送朋親
눈을 들어 하늘 보니 세월이 새롭네.	舉眼看天歲月新
높은 베개 ⁷¹⁵ 는 매번 뜻 있는 선비를 슬프게 하고	高枕每回悲志士
화려한 자리 어디든 귀한 손님을 취하게 하네.	華筵何處醉嘉賓
몸은 수척한 학과 같거늘 한양을 생각하고	身如瘦鶴長懷漢
마음은 마른 나무 같아 봄을 기다리지 않네.	心似枯株不待春

710) 소사업(蘇司業) : 唐나라 國子監 학관으로 이름이 源明이다. 肅宗 때 지제고를 지냈다. “近有蘇司業，時時與酒錢。”(杜甫，〈戲簡鄭廣文兼呈蘇司業〉.)

711) 여동빈(呂洞賓) : 呂洞賓(796~?)은 중국의 八仙 중 한 사람으로 이름은 巖이고 호는 純陽子이다. 咸通 무렵에 과거에 입격하여 두 번 縣令이 되었다가 나중에 終南山으로 들어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여러 번 진사 시험에 떨어지자 강호에서 노닐다가 鍾離權을 만나 丹訣을 전수받아 신선이 되었다고도 한다. 『湖廣通志』 卷77에는 “여동빈이 신선이었다는 흔적으로, 하나는 黃鵠磯의 석벽에 그의 遺像이 완연히 있고, 또 하나는 黃鶴樓 뒤 西巖의 석벽에 靜春臺, 讀書臺의 石刻이 있다.”라고 하였다

712) 선보(仙譜) : 신선의 순서와 계통을 따라 기록하여 놓은 책이름이다. 前蜀 韋莊의 〈贈峨嵋山彈琴李處士〉에 “爲君吟作聽琴歌，爲我留名係仙譜.”라는 구절이 있다.

713) 형우(衡宇)는 팽택현(彭澤縣)의 ~ 남아 있고 : 陶淵明의 오두막집과 같은 단출한 가옥을 말한다. 陶淵明의 〈歸去來辭〉에 “이우고 오두막집을 바라보며 / 기쁜 마음으로 달려간다. [乃瞻衡宇載欣載奔]”라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彭澤縣은 陶淵明이 彭澤令으로 80일간 근무했던 고을 이름이다.

714) 무릉도원(武陵桃園) : 중국 宋나라 때의 시인 陶淵明이 지은 〈桃花源記〉에 나타나 있는 武陵桃源을 말한다. 武陵桃源이란 속세와 떨어져 있는 仙境을 의미한다.

715) 높은 베개 : “高枕”은 高枕安眠의 준말로, 베개를 높이 하고 편안히 잔다는 뜻으로 중국 춘추전국시대 齊나라 孟嘗君의 食客인 馮驩이 孟嘗君을 위기에서 구출하면서 했던 말로, 아무런 근심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는 높은 지위를 가리킨다.

아직도 미친 마음과 흥이 남아
시를 지어 다시⁷¹⁶⁾ 시인에게 보내네.

尙有顛狂情興在
詩成時復寄騷人

2.60. 읍취헌⁷¹⁷⁾의 시 중에서 어찌 같은 마음에 같은 병인가라는 구절은 우리들을 말함인가 생각되어 우연히 읍다 대수 선생에게 드리다.

[挹翠軒詩, 詎可同心又同病, 其吾輩之謂乎 偶吟 呈大樹先生]

늙은 복파(伏波)장군의 용맹을 헛되이 품었으나⁷¹⁸⁾
쓸쓸함은 병든 유마(維摩)⁷¹⁹⁾ 같네.
괴로움을 읊지 않으면 시가 야위어지고
마음이 미치면 술이 마귀가 되네.
봄이 지나 버들 꽃⁷²⁰⁾은 다 날아갔으나
산봉우리 연잎⁷²¹⁾을 많이 따가지고 왔네.

鬢鑠空懷老伏波
蕭條都似病維摩
不緣吟苦詩成瘦
定是情狂酒作魔
春後楊花飛去盡
峯頭蓮葉摘來多

716) 때로 다시 : 『論語』 첫 구절 ‘學而時習’에 대한 程子の 註에 “습은 거듭함이니, 때로 다시 생각하고 연역해서 가슴속에 무젓게 하면 기뻐지는 것이다. [習, 重習也, 時復思繹, 浹洽於中, 則說也.]”라고 한데서 시어를 확장하여 엄흔이 시를 이룬 기쁨을 말하고 있다.

717) 읍취헌(挹翠軒) : 朴聞(1479~1504)의 號이다. 성종~연산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高嶺, 자는 仲說이다. 박은은 海東江西派의 대표적 시인이며, 절친한 李荇이 그의 시를 모아 『挹翠軒遺稿』를 냈다. 제목의 “詎可同心又同病”은 그의 七言古詩 <齋先生止酒養明對菊不敢舉杯感歎有寄依韻和答>에 있는 구절인데, 원문은 다음과 같다. “窮子患眼已三年, 中間且與憂患併. 君今收視獨關門, 詎可同心又同病. 視物不省亦未害, 胸中自有明如鏡. 更莫見書道之餘, 塵編蠹簡甘長屏. 天公聊欲戲吾輩, 此事從來豈關命. 清晨裊露步東籬, 籬外黃花粲相映. 叫酒連傾三兩觥, 少年狂氣猶豪橫. 人言茲是喪明具, 日醉昏昏亦非正. 椎碎杯尊莫自親, 善而養之有餘慶. 秋花行復就殘謝, 未見一枝鮮且靚. 我生明日即云老, 更有一衰能再盛. 強爲微痾便戒酒, 亦如畏謗廢詩詠. 死生共是百年間, 戚戚安能抱憂怍. 徑須相對開大尊, 然後此論乃可竟.”(『挹翠軒遺稿』卷2)

718) 늙은 복파(伏波)장군을 ~ 헛되이 품고 : 後漢 때의 伏波將軍이었던 馬援은 당시 武陵의 蠻族들이 강성하여 토벌할만한 자가 없었다. 이에 마원은 나이가 많은데도 자신이 出征하겠다고 자원하였다. 光武帝가 마원의 나이가 많은 것을 염려하여 허락하지 않자, 갑옷을 입고 말에 올라 무용을 과시하는데, 매우 늙름하였다. 이를 광무제가 보고는 감탄하면서 “용맹하도다, 이 노인이어. [鬢鑠哉是翁也.]”라고 하였다.(『後漢書』卷24 <馬援列傳>.)

719) 유마(維摩) : 대승 불교의 경전인 『維摩經』의 주인공 維摩詰을 말한다. 인도 毘舍離國의 長者로서 俗家에 있으면서 보살 행업을 닦았다.

720) 버들 꽃 : 여기서 버들 꽃은 李白의 <猛虎行>에 나오는 시름의 병을 말한다. “울양현의 술집에 삼월의 봄이 오니 / 아득한 버들 꽃이 사람을 시름케 하네. [溧陽酒樓三月春, 楊花茫茫愁殺人.]”(『全唐詩』卷165 <猛虎行>.)

721) 봉우리 연잎 : 여기서 봉우리 연잎은 韓愈의 <古意>에 나오는 태화봉 꼭대기 옥정에서 자란 연잎을 말한다. “태화봉 꼭대기의 옥정에 자란 연은 / 꽃이 피면 열 길이요 뿌리는 배만 하네. / 차갑긴 눈서리 같고 달기는 꿀 같아서 / 한 조각 입에 넣으면 고질병이 낫는다네. [太華峯頭玉井]

같은 마음 문원령(文園令)이
소갈증을 참으며 때때로 내 노래에 화답하네.

同心賴有文園令
忍渴時時和我歌

2.61. 다시 대수에게 드리다

[復呈大樹]

눈짓⁷²²한다고 언제 이를 갈던가
 짐짓 문자를 가지고 편마(編摩)⁷²³ 하려 들었네.
 억지로 <齊物論>⁷²⁴을 말하지만 원래 물(物)이 없고
 마귀 쫓는데 마음 두니 도리어 마귀가 있네.
 욕심을 줄이고 마음을 맑게 하니 몸이 절로 평온하고
 차 끓이고 약 달이는 일 도리어 많아지네.
 여윈 것이 아침 갈증에 해롭다고 탄식하지 말라
 혀가 있어 여전히 휘파람 불고 노래할 수 있네.

折齒何曾爲眼波
 故將文字入編摩
 強言齊物元無物
 作意驅魔却有魔
 寡欲清心身自穩
 烹茶煮藥事還多
 莫嗟消瘦妨朝渴
 舌在猶堪嘯且歌

2.62. 내게 해롭지 않는 가슴속 공허함이 녹아사라지니 어찌 이를 가 지고 시를 짓지 않겠는가 다시 대수에게 드리다.

[消鑠在身不害胸中之虛白, 安可以此而廢吟 復呈大樹]

잠시 꿈길에서 물안개 떨어지더니
 여래(如來)가 시원하게 어루만져 주네.
 세상과 어긋난 건 다섯 귀신⁷²⁵으로 말미암고
 번뇌가 몸에 쌓인 건 모든 마귀로부터라네.
 달인(達人)이 신선이 되니 속세 인연 적고

暫時歸夢落煙波
 快得如來手按摩
 與世參差由五鬼
 積身煩惱自諸魔
 達人乘化塵緣少

蓮, 開花十丈藕如船. 冷比雪霜甘比蜜, 一片入口沈痼痊..]”(『韓昌黎集』卷3 <古意>.)

722) 눈짓 : “眼波”는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눈짓을 말한다.

723) 편마(編摩) : 史書나 문서 따위를 商量하여 편찬하는 일을 말한다.

724) 제물론(齊物論) : 평등한 견지에서 만물을 관찰함을 말하며, 서로 옳으니 그르니 하는 物論을 다 같이 가지런하게 본다는 莊子の <齊物論>을 말한다.

725) 다섯 귀신 : 사람을 궁하게 만드는 다섯 窮鬼를 말한다. 五鬼는 智窮, 學窮, 文窮, 命窮, 交窮이다.(『古文眞寶』, 韓愈의 <送窮文>.)

거사(居士)가 선(禪)을 탐하니 도의(道意)가 많네.
가슴이 본래 병들지 않았음을 그 누가 알까
아름다운 금석 소리에 장가를 부르네.

居士耽禪道意多
誰識胸中元不病
鏗鏗金石放長歌

2.63. 공 정사(726)의 <압록강을 건너다>에 차운하다 이름은 용경이다.

[次龔正使渡鴨綠江韻 名用卿]

압록강 물 멀고멀어 사신의 배 띄웠는데
풍사(風師)⁷²⁷를 먼저 물리치니 모래바람 잠잠하네.
천지가 여기에 이르러 경계 나뉘고
문물은 지금처럼 중화(中華)를 사모하네.
봉황이 구름 사이 내려오니 세상이 상서로움에 놀라고
시가 붓 끝에서 이루어지니 꽃이 흐드러지게 피네.
서로 만나 언어가 다름을 한하지 않나니
사해를 제항(梯航)⁷²⁸해도 모두 한 집이라.

鴨水迢迢泛漢槎
先驅屏翳靜風沙
乾坤到此應分界
文物如今正慕華
鳳下雲間驚瑞世
詩成筆底爛生花
相逢不恨方音異
四海梯航共一家

2.64. 오 부사(729)의 <압록강을 건너다>에 차운하다 이름은 희맹이다.

[次吳副使渡鴨綠江韻 名希孟]

박망사(博望槎)⁷³⁰ 타고 오는 손님 있으니

有客來乘博望槎

726) 공 정사 : 龔用卿(1500~1563)을 말한다. 1537년 2월 명나라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는 사신단의 正使로서 副使 吳希孟과 함께 조선에 왔다.

727) 병예(屏翳) : 고대 전설에 나오는 신으로, 출전마다 각각 가리키는 바가 다르다. 대체로 구름의 신인 豐隆, 비의 신인 雨師, 우레의 신인 雷師, 바람의 신인 風師를 가리키는데, 여기서는 바람의 신을 가리킨다. 참고로 魏나라 曹植의 <洛神賦>에 “병예가 바람을 거두고 / 천후가 물결을 잠재우네. [屏翳收風, 川后靜波.]”라고 하였다.(『文選』卷19)

728) 제항(梯航) : 사다다리를 놓고 산에 오르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는 뜻으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곳을 감을 이르는 말이다.

729) 오 부사 : 副使 吳希孟을 말한다. 1537년 2월 명나라 황태자의 탄생을 알리는 사신단의 副使로서 正使 龔用卿과 함께 조선에 왔다.

730) 박망사(博望槎) : 사신이 타고 가는 배를 말한다. 漢나라 武帝가 張騫을 大夏에 사신으로 보내 黃河의 근원을 찾게 하였는데, 장건이 뗏목을 타고 가다가 牽牛와 織女를 만났다고 한다.(『荊楚歲

봄바람 불어 낭두(浪頭)⁷³¹에 꽃 피웠네.
 지형은 점점 광활한 동해로 들어서고
 구름기운 멀리 기울어진 북두성까지 잇닿았네.
 백 년의 관하(關河) 굳게 잠겨 웅장하고
 세 갈래 도로는 모래먼지에 고달프네.
 서로 만나 술 마시며 마음 다하나
 신세는 지금 바다 한 끝에.

春風吹起浪頭花
 地形漸入東溟闊
 雲氣遙連北斗斜
 百歲關河雄鎖鑰
 三叉道路困塵沙
 相逢盡意傾樽酒
 身世如今海一涯

2.65. 공 정사의 <의순관>⁷³²에 차운하다

[次龔正使義順館韻]

두 절도사⁷³³가 몇 성을 지나 동쪽으로 오니
 삼천리 길 밖에 또 천리 길.
 붓 끝에 비바람이 일어나는 것을 알겠고
 가슴속에 갑병(甲兵)을 간직한 줄 믿겠네.
 태평성대라 지금 변방에는 봉화가 꺼져 있고
 변방(藩邦)⁷³⁴은 예부터 국경에 먼지 없네.
 밤에 텅 빈 객관(客館) 추위에 잠 못 이루는데
 강가의 격탁(擊柝)⁷³⁵소리 한가로이 들려오네.

雙節東行歷幾城
 三千程外又千程
 已知筆下生風雨
 須信胸中貯甲兵
 聖代卽今邊火息
 藩邦從古塞塵清
 夜來空館寒無寐
 閑却江頭擊柝聲

時記』.)

731) 낭두(浪頭) : 三道浪頭를 말한다. 義州 건너편 압록강의 하구 쪽에 위치한 곳이다. 『駐韓日本公使館記錄』 卷20 <鴨綠江經營別冊 新庄書記生報告寫進達 別紙 5>에 수록된 義州附近略圖를 참조하면 압록강과 접해 있으면서 安東縣의 남쪽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732) 의순관 : 의주 압록강 남쪽에 있는 義順館이다. 중국의 사신을 맞이하던 곳으로, 본래 이름은 望華樓였으나, 世祖 때에 樓를 철거하고 館을 설치하였다.

733) 두 절도사 : 여기서 두 절도사는 正使 龔用卿과 副使 吳希孟을 가리킨다.

734) 변방(藩邦) : 제후가 다스리는 나라를 말한다.

735) 격탁(擊柝) : 밤에 순찰을 도는 사람이 가지고 다니던 두 짝의 나무토막을 말한다.

2.66. 공 정사의 <양책관⁷³⁶ 즉사>에 차운하다

[次龔正使良策館卽事韻]

강물 흐르고 꽃이 지니 길이 어지럽고	水流花謝路多迷
객관(客館)에 사람 없어 제비가 진흙 떨어네.	山館無人燕落泥
손님이 들르니 천축사(天筑寺) ⁷³⁷ 를 만난 듯하고	客過如逢天筑寺
배가 돌아오니 무릉계곡에 왔나 싶네.	舟回疑到武陵溪
북극에 매달린 마음 청운(靑雲)의 꿈 멀고	心懸北極靑雲遠
동해바다 다 바라보니 태양은 나직하네.	望盡東溟白日低
봄바람에 소요하다가 좋은 시구 찾으네	消遣春風須好句
여파가 강서(江西)에서 나온 줄 깊이 알았네. ⁷³⁸	深知餘派出江西

2.67. 오 부사의 <거련관에 높이 자란 소나무>에 차운하다

[次吳副使車輦館喬松韻]

풍상(風霜) ⁷³⁹ 겪은 세월 깊거늘	閱了風霜歲月深
봄 숲에 아양 부리는 도리(桃李)가 우습구나.	却笑桃李媚春林
파도소리 땅에 뿌려 앞 포구로 통하고	濤聲洒地通前浦
검푸른 빛 하늘에 떠 먼 산까지 이어지네.	黛色浮空接遠岑
둥지의 학은 편안히 천 자 줄기 차지하고	巢鶴穩占千尺幹

736) 양책관 : 平安北道 龍川郡에 있는 良策館이다.

737) 천축사(天筑寺) : 절의 이름으로 보이나, 어디에 있는 무슨 절인지 자세하게 근거를 들어 상고하지 못하고 원문의 글자를 따라 국역하였다. 참고로 “天竺”은 중국에서 옛날에 인도를 일컫던 말이다.

738) 여파가 강서(江西)에서 ~ 깊이 알았네 : “江西”는 엄흔의 시에서는 해동강서시파의 형식적 특징이 자주 보이는데, 여기서 강서는 ‘江西詩派’를 가리키는 것으로 짐작된다. 참고로 강서시파는宋代 黃庭堅(1045~1105)의 일파를 말하는데 詩派의 주요 개관은 다음과 같다. 宋나라 초기에 번성했던 西崑의 詩風은 歐陽脩, 梅聖俞 등이 나와서 점차 억눌렸지만, 蘇軾이 나와 비로소 唐詩의 格律을 부흥시켰다. 소식의 후계자가 황정건으로, 황정건은 杜甫를 주로 배우고 여기에 陶潛, 韓愈 등 諸家の 장점을 취하여 참신한 일파를 세웠다. 神奇를 좋아한 나머지 기상천외한 奇句로 치달아서 自然을 잃고 生硬에 빠진 점도 있지만, 그 영향은 南宋의 陸游, 楊萬里, 范成大 등에 계도 미쳤다. 황정건에게 師事한 사람으로는 陳師道가 유명하다.

739) 풍상(風霜) : 모질게 겪은 세상의 고생이나 고통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행인은 한가로이 한쪽 그늘 빌리네.
사신이 발길을 멈추고⁷⁴⁰ 얼굴을 펴면
청량(淸涼)한 기운을 보내 뜨거운 소매 시원케 하네.

行人閑借一邊陰
皇華駐節增顏面
好送淸涼爽熱襟

2.68. 오 부사의 <거련관 반송>에 차운하다

[次吳副使車輦館蟠松韻]

봄날의 기운과 다투지 않고
홀로 우뚝 서서 물가를 향해 있네.
오월의 시원한 바람 멀고 가까이 침범하고
하늘 가득 시원한 통소소리 아침저녁으로 울리네.
무성한 잎에 단학(丹鶴)이 숨은 줄 알겠고
높은 가지에 흰 구름 둘러 있음을 믿네.
어디를 가나 한없이 맑은 그늘 가득하니
길가는 이에게 나누어 준들 무엇이 해가 되랴.

不隨春日競氛氳
獨立童童向水濱
五月寒風侵遠近
一天涼籟響朝曛
已知密葉藏丹鶴
須信高枝繞白雲
無限淸陰隨處滿
何妨長與路人分

2.69. 공 정사의 <임반관>⁷⁴¹에 차운하다

[次龔正使林畔館韻]

나그네 길 곳곳마다 꽃을 만나 기쁘네
석양이 기울면 조심스레 읊네.
자극궁(紫極宮)⁷⁴² 높은 구름 하늘 보니 멀고
땅 끝 넓은 바다 고국 떠나니 아득하네.
만 리의 바람과 안개 빼어난 경치 더하고
봄 한철 시와 술로 화려한 재주 낭비하네.

客路欣逢處處花
愁吟長到夕陽斜
雲高紫極瞻天遠
地盡滄溟去國賒
萬里風煙供勝絕
一春詩酒費才華

740) 발길을 멈추고 : “駐節”은 符節을 멈춘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발길을 멈추고 쉼다는 의미이다.

741) 임반관 : 평안북도 宣川郡에 있는 林畔館이다.

742) 자극궁(紫極宮) :天子나 임금의 거처하는 곳을 말한다.

또 임반산(林畔山) 객관(客館)에 와서
 한가로이 앞 시내 차지하니 달빛이 모래밭에 가득하네.

又來林畔山中館
 閑占前溪月滿沙

2.70. 오 부사의 <곽산 효녀>⁷⁴³⁾에 차운하다
 [次吳副使郭山孝女韻]

이끼 벗겨진 교룡이 홀로 머리를 들었으니
 옛 비석이 산 양지쪽에 있음을 알겠네.
 약의 힘 따르지 않으려 손가락을 거두고
 오직 정성을 다하니 눈서리 꿰뚫었네.
 오(吳)나라 옛 연못⁷⁴⁴⁾에 어찌 지분이 남았으랴
 마외(馬嵬)에 남은 옥패⁷⁴⁵⁾에는 향기가 없네.
 어떠한가 효녀의 명성
 아름다운 시문(詩文)이 빛을 천추에 밝히네.

莓剝蛟龍首獨驤
 仍知古石在山陽
 不緣藥力收刁匕
 只爲心精貫雪霜
 吳國舊塘寧有粉
 馬嵬遺佩更無香
 如何孝女聲名在
 佳什千秋動耿光

743) 곽산효녀 : 軍人 金末巾의 딸로 이름은 四月이다. 어머니가 병을 얻어 해가 지나도 낫지 않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는데, 사월이 산 사람의 뼈가 병을 낫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손가락을 끊어 약을 만들어 드시게 해 병이 나았다. 이 일이 알려져 조정에서 旌閭하고 부역을 면제하였다. 중국 사신들이 많은 시를 남겼는데, 陳鑑과 倪謙은 序文과 詩를 남겼으며, 董越도 시를 남겼다. (『新增東國輿地勝覽』 卷53 <平安道 郭山郡>.)

744) 오(吳)나라 옛 연못 : “舊塘”은 姑蘇臺 안에 있는 옛 연못을 가리킨다. 春秋時代 越나라의 美人 西施의 고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월나라 왕 句踐이 吳나라에게 패한 뒤에 美人計로 서시를 오나라 왕 夫差에게 보내니, 부차는 서시에게 혹하여 姑蘇臺를 짓고 정사를 돌보지 아니하여 마침내 勾踐과 范少伯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다.

745) 마외(馬嵬)에 남은 옥패 : “遺佩”는 玉環을 말하는데, 옥환은 楊 貴妃의 小名이다. 白居易의 <長恨歌>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馬嵬에서 죽은 양 귀비가 바닷 속의 仙山에서 玉眞이라는 선녀로 있다가 천자의 사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면서 “옥 같은 용모 적막해라 눈물만 줄줄 흘렀나니 / 배꽃 한 가지 봄비 머금은 듯하였다. [玉容寂寞淚闌干, 梨花一枝春帶雨]”라고 하였다.

2.71. 공 정사의 <신안관⁷⁴⁶>에서 자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宿新安館韻]

바다의 봄 경치 싫도록 보았거늘	海國煙花已飽參
지지배배 제비소리 또 들려오네.	又聞新燕語誦誦
먼저 비바람 몰아 금절(金節) ⁷⁴⁷ 을 따르고	先驅風雨隨金節
다시 난황(鸞凰) ⁷⁴⁸ 을 보내 옥함(玉函) ⁷⁴⁹ 받들게 했네.	更遣鸞凰戴玉函
한밤의 아름다운 연회 해롭지 않고	供夜不妨開綺席
바위에 이름 새기니 무슨 의미 있으랴.	勒名何幸伐堅巖
다음날 아침 수레가 바삐 출발하니	明朝車馬愨愨發
먼지 길 땀에 젖은 옷을 어찌 할까.	其奈塵途汗透衫

2.72. 오 부사의 <신안관>에 차운하다

[次吳副使新安館韻]

누가 청류(清流)로 하여금 탁류(濁流)를 비추게 했는가 ⁷⁵⁰	誰遣清流映濁流
넘실넘실 가슴바다 더욱 깊고 그윽하네.	汪汪胸海轉深幽
천 산 멀리 치는 달을 슬퍼하고	曾悲月照千山隔
강물가득 떠오르는 부평초에 잠깐 기뻐하네.	暫喜萍來一水浮
세상사는 돌개바람에 어지러이 흩날리는 버들가지요	世事顛風飄亂絮
인생은 대지에 던져진 가벼운 공(毬)이라네.	人生大地擲輕毬
훗날 다시 만날 기약 없음을 아나니	極知後會終無處
종이가득 주옥같은 작품 짓기를 아끼지 마오.	滿紙明珠莫惜投

746) 신안관 : 평안도 定州에 있는 新安館이다.

747) 금절(金節) : 사신의 상징인 황금 符節을 말한다.

748) 난황(鸞凰) : 훌륭한 인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749) 옥함(玉函) : 상대를 높여 그의 편지를 이르는 말이다.

750) 누가 청류(清流)로 ~ 비추게 했는가 : 惡類를 배척하고 善類를 찬양하는 激濁揚清의 의미를 말한 것이다. 이는 濁流를 밀어내고 清流를 끌어올린다는 뜻으로 惡을 제거하고 善을 장려한다는 말이다.(『舊唐書』卷70 <王珪列傳>.)

2.73. 공 정사의 <납량정> 751)에 차운하다

[次龔正使納涼亭韻]

커다란 편액 찬란하게 머리 위에 걸려 있으니
 옛사람 남긴 시 뜻이 어찌 그리 그윽한가.
 달은 맑은 그림자 옮겨 삼면(三面)을 비추고
 바람은 찬 소리 보내 십주(十洲)⁷⁵²⁾에 떨어지네.
 뻗속까지 시원하니 함께 얼음 궁전에 앉은 듯하고
 난간에 기대니 계수나무 궁궐에 노니는 듯하네.
 정자 이름과 빼어난 경치가 서로 걸맞지 않은 듯하나
 산수는 천추(千秋)에 유유(悠悠)하네.

巨扁煌煌掛上頭
 昔人留詠意何幽
 月移清影供三面
 風送寒聲落十洲
 爽骨却同冰殿坐
 憑欄渾似桂宮遊
 亭名地勝如相負
 山水千秋謾自悠

2.74. 공 정사의 <가산령> 753)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嘉山嶺韻]

바윗돌 더위잡고 높은 곳에 올라
 만 리 중원(中原)의 가을을 한눈에 바라보네.
 산악은 하늘에 이어져 북쪽이 희미하고
 강수(江水) 회수(淮水)는 대지를 가르며 동쪽으로 용솨음쳐 흐르네.
 한없이 넓은 천지를 알고
 아득한 세계에 떠 있음을 비로소 깨닫네.
 잠시 머물며 아름다운 시 읊기를 바라지만
 왕찬(王粲)⁷⁵⁴⁾의 <登樓賦> 같은 시를 쓰지 못하네.

攀緣石磴上高頭
 萬里中原一望秋
 山岳連天迷北向
 江淮坼地湧東流
 仍知縹緲乾坤迥
 始覺蒼茫世界浮
 但願少留吟信美
 莫同王粲賦登樓

751) 납량정 : 평안남도 평원군에 있는 納涼亭이다.

752) 십주(十洲) : 신선이 거주한다는 10곳의 섬으로 祖洲, 瀛洲, 玄洲, 炎洲, 長洲, 元洲, 流洲, 生洲, 鳳麟洲, 聚窟洲를 말한다.(『海內十洲記』.)

753) 가산령 : 평안도 嘉山郡에 있는 嘉山嶺을 말한다. 일명 石門嶺이다.

754) 왕찬(王粲) : 177~217. 중국 後漢 말기 魏나라의 시인이다. 建安七子 중 한 사람인데, 七子 가운데서도 비교적 높은 문학적 업적을 쌓았다. 대표작으로는 <七哀詩>·<登樓賦> 등이 있다.

2.75. 공 정사의 <대정강⁷⁵⁵>을 건너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渡大定江韻]

봄바람 흔들흔들 가벼운 배를 보내니	春風搖曳送輕船
양쪽 강가 붉은 기운 일만 나무의 안개일세.	兩岸紅蒸萬樹煙
학이 끄는 수레(鶴駕) ⁷⁵⁶ 를 맞이하는데 알맞고	地絕更宜邀鶴駕
용면(龍眠) ⁷⁵⁷ 을 시켜 그림을 그려낸 듯.	畫開何必倩龍眠
긴 강가 바라보니 꽃다운 풀 희미하고	長洲望眼迷芳草
해질녘 돌아가려는 마음 흐르는 강물을 좇네.	落日歸心逐逝川
고개 돌리면 북극 하늘 보이나니	回首正瞻天北極
이 몸이 바다 동쪽 끝에 있다 말하지 마라.	莫言身在海東邊

2.76. 오 부사의 <대정강>에 차운하다

[次吳副使大定江韻]

형설(螢雪) ⁷⁵⁸ 의 작은 발자취 멀리 외진 곳에 막혀	螢雪微蹤滯遠陬
한(恨) 많은 시 얻으니 넉넉하게 배회하는 것 같네.	得詩多恨類俳優
모과와 자두로 꽤욱 주고받음은 부끄러우나 ⁷⁵⁹	羞將木李酬瓊佩
마니(摩尼) ⁷⁶⁰ 를 잡고 탁류를 비추니 기쁘네.	喜把摩尼照濁流
운수(雲樹)의 정은 훗날 두 사람 추억을 이루고	雲樹他年成兩憶

755) 대정강 : 평안도 博川郡에 있는 博川江의 다른 이름이다.

756) 학이 끄는 수레 : 周나라 靈王의 太子 晉이 선인이 되어 백학을 타고 사라졌다는 고사가 있다. (『列仙傳』.)

757) 용면(龍眠) : 宋나라의 화가 李公麟의 호이다. 그는 중국 安徽 桐城의 서북쪽에 있는 龍眠山에서 만년을 보냈으므로 龍眠居士라 자호하였다.

758) 형설(螢雪) : 螢雪之功의 준말로, 반딧불과 눈빛으로 공부한다는 의미로 고생 속에 노력을 통해 성공한다는 의미다. 중국 진나라 車胤은 반딧불로 글을 읽고, 孫康은 눈빛으로 글을 읽었다는 고사를 말한다.

759) 모과와 자두로 ~ 주고받음이 부끄러우나 : “木李”는 자신의 詩文을 낮춘 말이고, “瓊佩”는 상대방의 詩文을 높인 말이다. “나에게 모과를 던져주기에 / 그에게 경구로 보답하였네.(중략) 나에게 오얏을 던져주기에 / 그에게 경구로 보답하였네.” [投我以木瓜, 報之以瓊琚. (중략) 投我以木李, 報之以瓊玖.] (『詩經』, <衛風·木瓜>.)

760) 마니(摩尼) : 용의 턱 아래나 용왕의 뇌에서 나왔다는 보물 구슬을 말한다.

항아리의 술은 오늘 흔쾌히 함께 유람하게 하네.
봄바람은 사람들 마음에 남아 있음을 모른 채
창해(漲海)⁷⁶¹ 어귀로 돌아가는 마음 이미 쫓아갔네.

杯尊今日好同遊
春風不識留人意
已逐歸心漲海頭

2.77. 공 정사의 <안흥관⁷⁶²에서 자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宿安興館韻]

손이 안흥관(安興館)에 이르러 잠시 안장 푸니
봄 대나무 푸른 낭간(琅玕)이 창에 가득하네.
두 깃발은 서월(晷月)⁷⁶³의 더위와 많이 얽히고
한 베개는 서늘한 바람에 이미 추위를 겁먹었네.
가는 길은 점점 창해(滄海)의 일각(一角)을 다하고
돌아가는 마음은 오랫동안 흰 구름 끝을 쫓네.
장차 한가한 물색(物色)을 시재(詩材)로 삼으니
약간은 모두 책 속에 있는 시편(詩篇)이라네.

客到安興暫解鞍
滿窓春竹碧琅玕
雙旌暑月多衝熱
一枕涼風已怯寒
行路漸窮滄海角
歸心長逐白雲端
閑將物色供吟料
卷裏詩篇摠若干

2.78. 공 정사의 <연광정⁷⁶⁴에 오르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登練光亭韻]

정자 하나가 청아한 승경(勝景)과 맑은 강가에 있으니
작은 배가 점점이 흰 비단을 가로지르며 오는 듯하네.
이미 계옹(溪翁)과 산옹(山翁)⁷⁶⁵의 오랜 짝이 되어

一亭清勝在澄江
白練橫來點小艘
已與溪山長作伴

761) 창해(漲海) : 南海의 大海 가운데는 따로 漲海가 있다. 삼국 吳나라 때 謝承의 『後漢書』에서 '交趾의 일곱 군에서 공물을 바치면서 모두 창해를 통해 출입하였다'고 하였고, 또 『外國雜傳』에 이르기를, '大秦 서남쪽 漲海 중에서 대략 7, 8백 리를 가면 珊瑚洲에 도달하는데, 이 산호주 해저에 大盤石이 있고, 산호가 그 위에서 자라며, 사람들이 철망으로 이를 채취한다.'라고 하였다.

762) 안흥관 : 평안도 安州에 있는 安興館이다.

763) 서월(晷月) : 더운 달이라는 뜻으로, 음력 6월을 달리 이르는 말이다.

764) 연광정 : 평양 대동강변 德巖에 있는 練光亭으로 고구려 때 세워진 이래 여러 차례 중수되었다. 장방형 평면의 누정 두 채가 그자 모양으로 붙은 형태다. 關西 8경의 하나로 꼽힐 만큼 풍치가 빼어나다.

풍월을 따르고자 하나 다시 헤어져야 하네. 봄이 저물어가니 고요한 그림자 외로운 책상에 흔들리고 밤이 깊어가니 차가운 빛이 사방 창가에 쏟아지네. 주고받은 새 시 부끄럽게도 천박하고 비루하니 문득 조희(曹檜) ⁷⁶⁶ 처럼 나라를 이루지 못하였네.	欲從風月更爲雙 春深靜影搖孤榻 夜久寒光射四窓 酬得新吟慚淺陋 却如曹檜不成邦
--	---

2.79. 공 정사의 <안흥을 출발하려 할 때 비를 만나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將發安興遇雨韻]

저녁 비 부슬부슬 들에 띠 풀 적시니 여기 강변 교외 ⁷⁶⁷ 를 떠나려는 깃발 머물며 지체하네. 그늘이 더해지는 숲속에서 찌꼬리 노래 들려오고 진흙이 떨어지는 마루 창 제비가 둥지를 정하였네. 바다건너 바람안개 시험지 제공하고 봄 끝에 소식을 꽃가지에 부치네. 꿈속에 지당(池塘)의 문장 ⁷⁶⁸ 을 기억하나 분명 일어나보면 풀이 평지에 가득하리라.	晚雨霏霏濕野茅 行旌留滯此江郊 陰添樹木鶯留語 泥落軒窓燕定巢 海外風煙供卷子 春邊消息付花梢 夢中記得池塘句 明起須看草滿坳
---	--

765) 계옹(溪翁)과 산옹(山翁) : “溪翁”은 시냇가에 사는 노인을 말하고, “山翁”은 산에 사는 노인을 말한다. “산옹은 산을 나가지 않고 / 계옹은 늘 계곡에만 있으니 / 야옹이 시내와 산 사이를 왕래 하면서 / 위로는 미륵 벼를 삼고 아래로는 갈매기 벼를 삼음만 못하다. [山翁不出山, 溪翁長在溪, 不如野翁來往溪山間, 上友麋鹿下鳧鷖.]”(蘇軾, <於潛令刁同年野翁亭>.)

766) 조희(曹檜) : 원문은 ‘曹檜’이나 ‘曹鄒’로 바로잡아 국역하였다. 曹와 鄒는 周나라 초기에 봉해진 나라들로서 춘추시대 제후국 중 가장 빈약한 나라였다. 『詩經』에는 曹風과 鄒風이 있다.

767) 강변 교외 : “江郊”는 龍山의 別營이름이다.(『正祖實錄』 정조 14년 11월 18일 및 24일, 기사 참조.) 여기서는 글자 그대로 “강변 교외”라고 국역하였다.

768) 지당(池塘)의 문장 : 南朝 宋나라의 시인 謝靈運이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다가 꿈에 族弟인 謝惠連을 만나보고 “池塘生春草”라는 명구를 얻은 뒤에 “이 시구는 신령이 도와준 덕분에 나온 것이지 나의 말이 아니다. [此語有神功, 非吾語也.]”라고 술회한 고사가 전한다.(『南史』 卷19 <謝惠連列傳>.)

2.80. 공 정사의 <쾌재정에 오르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登快哉亭韻]

높은 정자 흰 구름 위로 높이 솟아	危亭高出白雲頭
한번 오르니 시원하여 어구(御寇) ⁷⁶⁹ 와 노니네.	一上冷然御寇遊
곧바로 고래를 타고 푸른 바다 떠다니는 듯하고	直似騎鯨浮碧海
참으로 학 등에 걸터앉아 단구(丹丘) ⁷⁷⁰ 지난듯하네.	眞如跨鶴過丹丘
먼 들녘 안개 걷히자 산은 일천 점이요	煙收遠野山千點
먼 하늘 비개니 달은 반 갈고리라네.	雨霽遙天月半鉤
좋은 경치 눈앞 가득하여 상쾌한 마음 많으니	勝景滿前多快意
남은 인생 이로부터 창주(滄洲) ⁷⁷¹ 에 부탁하네.	餘生從此付滄洲

2.81. 공 정사의 <대동관⁷⁷²에서 자다>에 차운하다

[次龔正使宿大同館韻]

양류(楊柳)의 봄바람 얼굴을 비껴가니	楊柳春風拂面斜
성 안의 경치 마치 신선의 집과 같네.	城中物色似仙家
마루 창에서 새로 지은 시구 정중(鄭重)하고	軒窓鄭重新題句
독길에는 예전에 쌓인 모래 어렴풋이 보이네.	堤路依稀舊築沙
꿈은 아직도 북극하늘에 매달려 돌아가려 하고	歸夢尙懸天北極
뗏목은 수유(須臾)에 동해 물가를 다 떠도네.	浮槎須盡海東涯
이원제자(梨園弟子) ⁷⁷³ 는 지금은 자취 없는데	梨園弟子今無處

769) 어구(御寇) : 列御寇(B.C.475~B.C.221)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이다. 도가의 기본사상을 확립시킨 3명의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며 도가 경전인 『列子』의 저자로 전해진다.

770) 단구(丹丘) : 神仙이 사는 곳을 말한다.

771) 창주(滄洲) : 山水 좋은 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말이다. ‘滄洲’는 仙境을 가리킨다. 참고로 李白은 “공을 이루면 옷 떨치고 떠나가서 / 창주 물가 찾아 소요하리라. [功成拂衣去, 搖曳滄洲旁.]”(『李太白集』 卷8 <玉眞公主別館苦雨>.)라고 하였다. 杜甫는 “벼슬에 얽매인 몸 창주는 요원한 꿈이라서 / 옷 떨치지 못하는 걸 그저 슬퍼할 따름일세. [吏情更覺滄洲遠, 老大徒傷未拂衣.]”(『杜少陵詩集』 卷6 <曲江對酒>.)라고 하였다.

772) 대동관 : 평양에 중국사신을 접대하기 위하여 만들었던 大同館이다.

773) 이원제자(梨園弟子) : 梨園은 俳優들의 技巧을 닦는 곳이고 제자란 곧 演劇하는 배우를 지칭하는 말이다. 唐나라 玄宗 때 長安의 禁苑 안에 있는 梨園에서 제자 3백 명을 뽑아 俗樂을 가르쳤

유녀(遊女)는 오히려 언덕 위에서 꽃을 전하네.⁷⁷⁴⁾

遊女猶傳陌上花

2.82. 오 부사의 <대동관>에 차운하다

[次吳副使大同館韻]

꽃은 도성(都城)을 잠그어 잠시 예비마(豫備馬)를 쉬게 하고
 버들은 못가 대동관(大同館) 그늘지어 갈수록 어슴푸레지네.
 푸른 봄날 대낮은 깊어갈수록 고요하고
 자춧빛 제비와 노란 피꼬리 하나씩 나네.
 화려한 잔치 밤에 열려 오래 자리를 지키는데
 빈 뜰에서 저녁 산보하는 사람은 보기 드므네.
 동쪽으로 가는 곳곳마다 오래 머무를만하니
 돌아가려는 마음을 잡아 석양에 부치지 마라.

花鎖都城暫息駢
 柳陰池館轉霏微
 青春白日深深靜
 紫燕黃鸝箇箇飛
 華宴夜開成座久
 空庭晚步見人稀
 東行處處堪留滯
 莫把歸心付落暉

2.83. 다시 독서당에 이르러서 연지에게 보여준다.

[重到讀書堂 示演之]

백발로 돌아오니 두 귀밑머리 새롭고
 백 년 사는 천지 고신(孤臣)의 거울로 삼네.
 누가 울리(栗里)⁷⁷⁵⁾ 밭 가운데 나그네 알까
 또 영주산(瀛洲山) 정상 신선 되었는데.
 문득 강산을 기쁜 얼굴처럼 마주하고

白髮歸來兩鬢新
 百年天地鑑孤臣
 誰知栗里田中客
 又作瀛洲頂上人
 却對江山如色喜

던 데서 연유된 것이다.

774) 유녀(遊女)는 아직도 ~ 꽃을 전하네 : “동풍이 살짝 불어 가는 비를 들판에 뿌리니 / 봄빛이 불탄 자리에 아득히 보이네. / 산골 집에 해가 더디니 꽃이 필 듯하고 / 시내에 얼음이 녹으니 물이 힘차게 흐르네. / 목동들은 소등에서 갈대 피리를 불고 / 유녀들은 밭머리에서 시내의 마름꽃을 따네. / 말 위에서 계절에 놀라 읊조리노니 / 고향은 아득하여 내 시름 자아내네.”(李承召, <遊女田頭採澗蘋>, 『新增東國輿地勝覽』卷15)

775) 울리(栗里) : 쯤나라 陶淵明이 은거했던 곳이다. 진나라가 망하고 劉宋이 서자 도연명이 정절을 지켜 이곳에 살았다. 이곳은 당시에 彭澤縣에 속한 땅이었고 지금은 江西省 九江縣 서남쪽에 있다.

다시 새와 물고기랑 마음 친해지려고 찾아가네.
지금부터 다시 은혜를 갚을 곳 있으니
한 치 단심(丹心)⁷⁷⁶의 몸 죽을 수 없네.

重尋魚鳥欲情親
從今更有酬恩處
一寸丹心未死身

2.84. 앞의 시 운자를 사용하여 연지에게 보여준다.

[又用前韻 示演之]

한없는 안개꽃 눈에 가득하여 새롭고
영주(瀛洲)에서 옛 사신(詞臣) 서로 만났네.
청산은 대관절 무슨 일로 오래 이별하길래
늙어 몇 사람이나 다시 올 이 있을까.
말라 썩은 나무 우로(雨露)가 많으니 다시 꽃 피고
속된 세상에서 친한 벗 적으니 억지로 웃음보이네.
마음에 있는 번운(翻雲)⁷⁷⁷은 변하지 않으니
내 몸이 당신의 몸인 줄 확신하네.

無限煙花滿目新
瀛洲相對舊詞臣
青山久別關何事
白首重來有幾人
枯朽再榮多雨露
塵埃強笑少朋親
翻雲不變肝腸在
須信吾身是子身

2.85. 연지의 심 자 운을 차운하다

[次演之深字韻]

슬픈 뜻과 기쁜 마음 누가 깊고 얇은가
옛 동산에서 다시 노닐며 기뻐하네.
천 올 머리카락 눈서리로 이미 변하니
한 치 마음은 우환이 꺼지기 어렵네.
속된 귀는 물소리 듣고 갑자기 깨어나고

悲意歡情孰淺深
重遊欣得舊園林
雪霜已變千莖髮
憂患難灰一寸心
俗耳頓醒聞水響

776) 한 치의 단심(丹心) : 一寸丹心은 한 토막 붉은 마음이라는 뜻으로 자기의 참된 마음을 검손하게 이르는 말이다.

777) 번운(翻雲) : 翻雲覆羽의 준말로, 세상 사람들의 변화무상한 친구 사귀를 비유한 말이다. 杜甫의 <貧交行>에 “손 뒤집어 구름을 짓고 손 엮어 비를 짓는다. [翻手作雲覆手雨]”라고 한 데서 나온 표현이다.(『杜甫詩集』卷2)

그윽한 창은 술 그늘에 떨어져 부질없이 잠겼네.
세심한 생각 무궁한 일 모였다가 흩어지니
이 밤에 단란함은 만금의 값어치라네.

幽窓閑鎖落松陰
細思聚散無窮事
此夕團欒直萬金

늘그막에 임금의 깊은 은혜 독차지 하였는데
뱀새는 숲속에서 나뭇가지 하나로 만족함 이미 깨달았네.⁷⁷⁸⁾
천지는 새로운 우로(雨露) 용납이 있고
풍상(風霜)에 오래된 마음 변함이 없네.
청춘은 가볍게 나는 버들개지에 적막하고
밝은 해는 쉬이 맺힌 그늘에 자욱하네.
한가한 시간을 흠쳐 즐거운 일을 피하니
그대는 주머니에 아직 남은 돈을 아는가.

衰年偏荷主恩深
已覺鷓鴣足一林
天地有容新雨露
風霜無改舊肝心
青春錯寞輕飄絮
白日霏微易結陰
偷得閑時謀樂事
知君囊底尙餘金

속세의 번거로움 어지럽게 세월과 함께 깊어가고
청춘의 반 부질없이 행화(杏花) 숲에 던져버렸네.
이 나그네 때문에 속된 번뇌가 많으니
저 사람에게 원대한 마음이 있지 않네.
처녀충각 풍회(風懷)⁷⁷⁹⁾ 유수(洧水)⁷⁸⁰⁾에 떠도니
친한 벗 계사(禊事)⁷⁸¹⁾ 산음(山陰)⁷⁸²⁾서 저버렸네.
잘 익은 술을 가지고 좋은 계절에 갚기를 바라니
계자(季子)의 금⁷⁸³⁾ 많이 생기기를 바라지 마라.

俗累紛紛與日深
半春虛擲杏花林
只緣此客多塵惱
不是伊人有遠心
士女風懷浮洧水
親朋禊事負山陰
要將美酒酬佳節
莫願生多季子金

778) 뱀새는 숲속에서 ~ 이미 깨달았네 : 『莊子』 <逍遙遊>에 “뱀새가 수풀에 둥지를 짓지만 / 겨우 나뭇가지 하나 차지할 뿐이요. / 두더지가 황하의 물을 마시지만 / 겨우 제 배 채우면 그만이다. [鷓鴣巢林, 不過一枝. 鼯鼠飲河, 不過滿腹.]”라고 하였다.

779) 풍회(風懷) : 정서와 회포를 자아내는 풍치나 경치를 말한다.

780) 유수(洧水) : 황제는 현효의 호로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溱水라 하고, 창의를 호로에서 흘러나온 물줄기를 洧水라 했으며, 두 물줄기가 합류하여 新鄭, 南關을 거쳐 흐르는 곳을 雙泊河라 불렀다.(『河南民間故事集』.)

781) 계사(禊事) : 옛 풍속에 3월 3일에 물가에 가서 목욕하여 不祥한 것을 제거하는 것을 祓禊라고 하였다.

782) 산음(山陰) : 현 이름이다. 양주 會稽郡에 속하며, 그 성터는 지금의 절강성 蘇興에 있다.

783) 계자(季子)의 금 : 중국 황제에게 받은 꾸밈한 상품으로 蘇秦의 고사를 말한다. 季子는 전국 시대의 遊說家인 蘇秦의 字이다. 그가 六國 정승의 印을 차고 고향에 돌아오자, 예전에 멀리하며 박대했던 형수가 땅에 엎드려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는데, 이에 소진이 웃으면서 그 이유를 묻자 “계자의 지위가 높고 돈이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던 고사가 있다.(『史記』 卷69 <蘇秦列傳>.)

늙은 몸이 다시 깊은 우로(雨露)⁷⁸⁴를 받으니
다시 생각하면 칠년을 풍림(楓林)에서 울었네.
춘풍에 질병이 생긴 날은 남쪽에 머물고
달밤에 안개 자욱하면 마음은 북쪽을 바라보네.
귀밑머리 쓸쓸하니 몸은 이미 늙고
눈서리 떨어지니 해가 다 가는구나.
재주 없이 영주산(瀛洲山) 정상에 또 오르고
헛되이 왕실창고의 돈을 엿보아 부끄러움 많네.

衰朽重承雨露深
翻思七載泣楓林
春風疾病南留日
夜月煙波北望心
鬢髮蕭疎身已老
雪霜零落歲將陰
無才又上瀛洲頂
多愧虛沾內府金

옛날에 함께 화당(畫堂)에서 잔뜩 취하니
사람들은 미치광이 이한림(李翰林)⁷⁸⁵이라고 부르네.
호수와 바다에서 서로 함께 늙어가기를 생각하며
속된 세상에서 각자 단심(丹心)을 한번 보여주네.
긋은 비 봄의 습지 이루어 오래도록 가엾고
맑은 바람 석양의 그늘 쓸어가 문득 기쁘네.
시를 자주 부쳐 보내니 괴상하다 여기지 말고
당신과 사귄 의리 황금을 천하게 보네.

昔年同醉畫堂深
人道佯狂李翰林
湖海相思俱白髮
塵埃一見各丹心
久憐苦雨成春濕
却喜清風掃夕陰
莫怪有詩頻寄去
與君交義薄黃金

죽기 전에 돌아왔으나 병은 이미 깊어졌고
더구나 노쇠한 발자취로 한림원에 몸담았네.
속된 세상에서 건몰(乾沒)⁷⁸⁶하니 무슨 일을 이루랴
밝은 태양은 분명하게 이 마음을 비추네.
오랫동안 창에 기대어 낮빛 고치는 일은 많아지고
새로 복숭아와 자두나무 심어 점점 그늘을 이루네.
당신을 기대고 모방하여 지은 시를 가져와 읊으니
뭇 사람들의 말 전부터 쉬이 쇠를 녹였네.⁷⁸⁷

未死歸來病已深
又將衰跡廁詞林
紅塵乾沒成何事
白日分明照此心
舊倚軒窓多改色
新栽桃李漸成陰
憑君擬作吹齋賦
衆口從前易鑠金

784) 우로(雨露) : 雨露之澤의 준말로, 이슬과 비의 덕택이라는 뜻이 전하여, 왕의 넓고 큰 은혜를 말한다.

785) 이한림(李翰林) : 李翰林은 唐나라 때 翰林供奉을 지낸 李白을 가리킨다.

786) 건몰(乾沒) : 관에서 정당한 報償 없이 물건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말한다.(『古法典用語集』.)

787) 뭇 사람들의 ~ 쇠를 녹였네 : 근거 없는 말로 험뜯고 비방하여 사람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말한다. 戰國시대 張儀가 魏王에게 “뭇사람의 입은 무쇠도 녹일 수 있고, 참소가 쌓이면 뼈도 녹일 수 있다. [衆口鑠金 積毀銷骨]”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史記』 卷70 <張儀列傳>.)

펼 펼 나무끼는 두 귀밑머리에 눈(雪)의 자국 깊고
 지친 새가 오직 예전에 지내던 숲 그리워할 줄 안다네.⁷⁸⁸⁾
 북적북적한 시편 진취적인 나그네 태도요
 삭대가지와 버들강아지 늙은이 마음이라네.
 물고기가 물에서 놀고자함을 보고⁷⁸⁹⁾
 나는 바야흐로 한강 남쪽을 열어 밭에 물대려하네.
 오늘밤 와서 말하려는 마음 있는지 없는지
 한 주름 초승달 반 갈고리의 금과 같네.

飄飄雙鬢雪痕深
 倦鳥唯知戀舊林
 雜沓詩篇狂客態
 蕭條花柳老年心
 觀魚子欲遊濠上
 灌圃吾方托漢陰
 有意今宵來話否
 一簾新月半鉤金

빙설 같은 마음으로 깊은 우정 맺었으니
 백년지기는 최연지(崔演之)와 임대수(林大樹)라네.
 도중에 이별하여 함께 눈물 뿌렸지만
 늘그막에 고생(艱難)하며 들어서 마음 알았네.
 밝은 태양이 꽃에 비치니 붉은 그림자 움직이고
 푸른 안개가 버들을 이끄니 푸른 녹음이 생기네.
 그대에게 의지하여 다시 술자리를 이으니
 종래부터 화해를 다하여 우정을 이롭게 하였네.⁷⁹⁰⁾

冰雪情懷托契深
 百年知已有崔林
 中間離別同揮涕
 末路艱難兩識心
 白日映花紅轉影
 青煙惹柳綠生陰
 憑君更作連茵飲
 講盡從來利斷金

한번 그대 시를 읊어 보니 하나같이 맛 깊어
 옥 같은 가을 달이 구슬 숲⁷⁹¹⁾에 비치는 듯.
 일곱 글자가 이루는 구(句) 남은 자태 많고
 천 편에 이른 시는 심혈을 기울인 것 적구나.
 다만 청신함은 유신(庾信)⁷⁹²⁾과 포조(鮑照)⁷⁹³⁾를 겸하여 알고

一詠君詩一味深
 琅如秋月映瓊林
 句成七字多餘態
 吟到千篇少用心
 但覺清新兼庾鮑

788) 예전에 지내던 ~ 줄 안다네 : 칠새가 옛날 살던 숲을 그리워함을 말한다. 陶淵明의 <歸園田居>에 “칠새는 옛 숲을 그리워하고 / 못의 물고기는 옛 못을 생각하네. [羈鳥念舊林 池魚思故淵]”라고 하였다.

789) 물고기가 물에서 놀고자 함을 보고 : 莊子와 惠子が 함께 濠梁에서 魚子의 노는 것을 구경하다가 나눈 대화를 말한다. “惠子曰: 子非魚, 安知魚之樂? 莊子曰: 子非我, 安知我不知魚之樂.”(宋近洙, 『宋子大全』 卷5 <隨筭·卷45 書>.)

790) 우정을 이롭게 하였네 : “斷金”은 벗과 서로 의기가 투합하여 쇠를 자를 만큼 우의가 굳게 되었음을 말한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예리함이 쇠를 자를 만하고 마음을 함께 한 말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周易』, <繫辭傳上>.)

791) 구슬 숲 : 진귀한 것이 많이 들어있다는 뜻으로 책을 가리킨다. 그리고 宋代 정원의 이름으로 진사 급제자를 위해 연회를 베풀던 곳으로 그 후 진사 급제를 의미한다.

일찍이 온갖 고생 앓고 하음(何陰)⁷⁹⁴을 배웠네.
내가 장차 차례대로 전집(全集)을 이루어
끝없이 좋은 가격에 팔림을 앓아서 볼 것이네.

不曾辛苦學何陰
吾將次第成全集
坐閱無窮市上金

우리 정자는 멀리 깊고 푸른 강을 베고 있으니
안개비가 아침마다 내려 굴 숲이 보이지 않네.
나무를 심고 노년을 마치려는 계획을 행하여 이루었으나
꽃을 마주하니 돌아갈 수 없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네.
오경에 북쪽 궁궐에서 새벽이 옴을 전하고
십무(十畝)의 남쪽 시내 저녁 그늘로 잠겼네.
환상에 놀라 그윽한 꿈에서 깨어 와 보니
분명 한 척의 배 위에서 금을 던졌네.⁷⁹⁵)

吾亭遙枕碧江深
煙雨朝朝暗橋林
種木成行終老計
對花流涕未歸心
五更北闕傳晨漏
十畝南溪鎖晚陰
幽夢覺來驚是幻
分明一棹上投金

연래(年來)에 큰 술잔을 지나치게 좋아하니
곧바로 몸을 죽림(竹林)에 의탁하고 싶네.⁷⁹⁶
삼을 매고 사람을 따라가니 죽음을 아끼지는 않으나
길이 막혀 통곡하니 어찌 미친 마음이리오.
탐천(貪泉)⁷⁹⁷이라도 쉬이 청렴한 절개 손상시키지 못하는데
몹쓸 나무로 어찌 일찍이 아름다운 그늘을 만들랴.

年來酷好酒杯深
直欲將身托竹林
荷鍾隨人非愛死
窮途痛哭豈狂心
貪泉未易傷清節
惡木何曾產美陰

792) 유신(庾信) : 513~581. 중국 남북조시대의 시인이다. 字는 子山. 河南 출신이다. 徐陵과 함께 艷麗한 詩賦를 만들어 徐庾체로 일컬어졌지만, 北遷 이후에는 침울한 성향이 되었다. <哀江南賦>, <擬詠懷詩>가 유명하다. 저서로 『庾子山文集』이 있다.

793) 포조(鮑照) : 鮑照(420~479). 중국 남조 宋의 문학가로, 자는 명원. 동해 사람이다. 그의 대표작은 속마음을 터놓고 불우한 자신의 신세에 대한 분노를 묘사하여 권문사대가들에게 불만을 표시한 <行路難> 18首와 <蕪城賦>가 유명하다.

794) 하음(何陰) : 梁나라 때 詩를 잘 짓기로 명성이 높았던 何遜과 陰鏗을 합하여 부른 말이다.

795) 분명 한 척의 ~ 금을 던졌네 : “投金”은 돈을 던져 넣는 것으로 春秋시대 때 吳子胥가 물속에 황금을 던져 버리고 갔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吳越春秋』, <闔閭內傳>.)

796) 곧바로 몸을 ~ 의탁하고 싶네 : 중국의 魏나라와 晉나라의 정권교체기에 부패한 정치권력에 등을 돌리고 竹林에 모여 거문고와 술을 즐기며 淸談으로 세월을 보낸 이른바 ‘竹林七賢’에 의탁하고 싶은 마음을 말한다. 참고로 竹林七賢의 한 사람인 山濤의 아들 山簡은 술을 매우 즐겨 항상 酒食을 싣고 襄陽의 豪族인 翳氏 집안의 연못가에서 진탕 마시고 만취하여 돌아오므로, 그때 아이들이 노래하기를 “산공이 어디로 가는지 / 고양지로 가는지. / 해 저물면 거꾸로 실려 와서 / 잔뜩 취해 정신이 없다네. [山公出何許, 往至高陽池. 日夕倒載歸, 茗芋無所知.]”라고 하였다.(『晉書』 卷43 <山簡傳>.)

797) 탐천(貪泉) : 한번 마시면 천금을 생각하게 하는 샘을 말한다. “古人云: 此水一飲懷千金.”(『古文眞寶』 前集, <貪泉>.)

눈앞에서 안온(安穩)한 곳을 찾은 것이 좋으니
 애써 부지런히 일하여 부귀를 이룰 필요가 없네.

好向眼前尋穩地
 不須勤苦致千金

2.86. 관직을 받고서 연지에게 보여준다.

[蒙敍後 示演之]

우레와 바람 하루 저녁에 일어나 진흙에 묻히고
 천상의 난서(鸞書)⁷⁹⁸가 초라한 거실에 이르네.
 우로(雨露)의 깊은 은택이 썩은 나무를 적시니
 부평초 같은 노쇠한 발자취 신선 반열에 끼었네.
 옳고 그름은 천추(千秋)의 뒤에 볼 수 있으나
 늙고 장성함은 잠깐 십년 사이 잠깐 이루어지네.
 아직 끊어지지 않는 단심은 몇 마디나 남았을까
 물방울 가지고 구산(丘山)⁷⁹⁹에 보답함을 비기네.

風雷一夕起泥蟠
 天上鸞書到竹關
 雨露深恩沾朽木
 萍蓬衰跡廁仙班
 是非可見千秋後
 老壯俄成十載間
 未折丹心餘幾寸
 擬將涓滴答丘山

2.87. 여장으로 돌아가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歸驪江]

십년동안 속된 세상의 일 어떠하였을까
 각자 푸른 강을 차지하고 오르내리며 살았지.
 오직 파도에 부치는 눈물만 있고
 다시 물고기와 기러기에게 전하는 편지 없네.
 서로 만나도 초초하여 논의한 마음 적은데
 예서 이별하면 아득하여 만남도 소원해지리라.
 궁벽한 산을 향하여 오래 읍옥(泣玉)⁸⁰⁰하지 말라

十年塵世事何如
 各占滄江上下居
 唯有波濤憑寄淚
 更無魚雁爲傳書
 相逢草草論懷少
 此別茫茫會面疎
 莫向窮山長泣玉

798) 난서(鸞書) : 편지를 가리킨다.

799) 구산(丘山) : 언덕과 산을 말하나 물건이 많이 쌓인 모양을 비유한다.

800) 읍옥(泣玉) : 卞和泣玉의 준말로, 초나라 卞和의 고사를 말한다.

방금 좋은 취허(吹噓)⁸⁰¹가 먼저 도달하였으니.

即今先達好吹噓

2.88. 서장관⁸⁰²으로 의주에 도착한 벗에게 장울을 지어 부치다

[友人以書狀官行到義州寄以長律]

바람을 쐬면서 마음이 괴롭게 흔들리니

臨風心緒苦幢幢

돌아가는 구름 오랫동안 좇아 압록강에 이르렀네.

長逐歸雲到鴨江

부끄러우나 나는 신행(贖行)⁸⁰³에 말채찍도 없고

愧我贖行無馬策

가없게도 그대 멀리 바라보며 누각 창가에 있네.

憐君望遠有樓櫓

북극으로 가는 길은 삼천리요

征途北極三千里

서쪽 교외 이별주 백 항아리.

別酒西郊一百缸

이루어진 시를 아끼지 않고 번거롭게 부치어 보내니

不惜詩成煩寄去

객중에서 에오라지 근심의 마음을 갖추고 위로하네.

客中聊備慰愁腔

이별 뒤 그리움에 귀밑머리 아름답게 하고자하니

別後相思鬢欲華

오늘밤 떠다니는 뗏목은 어느 곳에서 머무르려나.

今宵何處泊星槎

빙상 같은 절친함 삼대(三代)를 이으니

氷霜托契連三世

고향에 부모의 마음은 저절로 일가라네.

鄉邑親情自一家

봄이 다한 용만(龍灣)에 안개비 그치지 않고

春盡龍灣留霧雨

바람 부는 학야(鶴野)⁸⁰⁴에 모래먼지 불어나네.

風來鶴野漲塵沙

이번 행차에 또 미고(靡盬)로 갚을 수 있으니⁸⁰⁵

此行且可酬靡盬

가깝고도 까마득한 앞길을 묻지 마라.

莫問前程路近賒

801) 취허(吹噓) : 남이 잘한 것을 크게 부풀려 칭찬하여 칭거함을 말한다.

802) 서장관 : 외국에 보내는 使臣을 따라 보내던 임시 벼슬인 記錄官으로. 正使·副使와 아울러 三使에 드는데, 정사·부사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行臺御史를 겸하였다.

803) 신행(贖行) : 먼 길을 떠나는 사람에게 주는 詩文이나 물건을 말한다.

804) 학야(鶴野) : 만주 별관을 가리키는 말이다.

805) 미고(靡盬)로 갚을 수 있으니 : 임금의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말이다. “어찌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으리오. / 국사를 소홀히 할 수 없어 / 내 마음이 서글퍼지네. [豈不懷歸. 王事靡盬, 我心傷悲.]”(『詩經』, <小雅·四牡>.)

만나고 헤어짐 가벼운 숨을 쫓아 기약 없고
 서로 따르는 우환으로 깊은 마음 보네.
 소나무와 가래나무 삼년의 눈물 함께 흘리고
 속된 세상의 만 리길 홀로 향하였네.
 주머니에 있는 돈을 부지런히 살피고
 객간(客間)에 많은 일 삼가 경영하네.
 중화(中華) 사람이 눈을 비비고 와 다투어 물으나
 바다 밖에서 삶은 대수롭지 않다네.

聚散無期逐絮輕
 相從憂患見深情
 同垂松梓三年淚
 獨向塵埃萬里程
 囊底有金勤檢察
 客間多事慎經營
 華人刮目爭來問
 不是尋常海外生

2.89. 부모님을 뵈려고 남쪽 고향으로 돌아가는 벗을 전송하며 벗은 곧
 송순이다.

[送友人歸觀南鄉 友人卽宋純]

봄날 소식 부모님과 막히고
 슬하에 색동옷 입을 사람이 없네.⁸⁰⁶⁾
 북쪽 대궐에 글을 올려 간절히 사직하고
 남쪽 고을로 길을 바꾸며 말을 달리네.
 그대는 부모마음 경중을 판단하지 말고
 벼슬하고 그치는 일 시비를 먼저 살펴라.
 신흠(晨昏)⁸⁰⁷⁾을 위해 오래 머무르지 마라
 한양 조정 빈자리는 돌아오기만 기다리니.

三春消息隔庭闈
 膝下無人着綵衣
 北闕拜書辭懇懇
 南州轉路馬駢駢
 君親未判情輕重
 仕止先觀事是非
 莫爲晨昏留滯久
 漢廷虛席待來歸

푸른 비단에서 한번 잠자니 꿈이 의연하고
 비가 흩날리는 강호에 길의 너비 천이라네.
 어장안족(魚腸雁足)⁸⁰⁸⁾의 편지 전하러 북쪽 변방을 이어서
 강수(江水)와 회수(淮水) 눈물 가지고 남쪽 변방에 이르네.
 단심(丹心)은 바람서리 부는 날에도 변함이 없고

靑綾一枕夢依然
 雨散江湖路闊千
 魚雁傳書連北塞
 江淮將淚到南邊
 丹心不改風霜日

806) 색동옷 입는 : 周나라 老萊子가 綵衣娛親한 故事를 말한다.

807) 신흠(晨昏) : 昏定晨省의 준말이다.

808) 어장안족(魚腸雁足) : 한나라 때 흉노로 끌려간 蘇武의 고사를 말한다.

백수(白首)는 늘그막 노쇠한 나이에 다시 만나네.
오늘 이별은 잠시니 서글퍼하며 바라보지 말고
오주(吳洲)에서 연월(煙月)⁸⁰⁹이 당신을 특별히 기다리리라.

白首重逢衰老年
此別暫時休悵望
吳洲煙月待君偏

호수와 바다에서 서로 그리워하며 머리만 희어졌으니
어찌 서울의 봄에 다시 답청절(踏青節)이 움을 알겠는가.
행장(行藏)⁸¹⁰은 절로 시대와 함께 통하고 막히니
진퇴가 어찌 도(道)의 굽힘과 꺾임에 상관하겠는가.
비구름을 뒤덮음⁸¹¹은 손을 따라 변하고
지는 꽃과 나는 버들개지 해를 좇아 새롭네.
오직 가슴 가득히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있으니
떠나는 길 송별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부치네.

湖海相思雪滿巾
那知重踏洛城春
行藏自與時通塞
進退何關道屈伸
覆雨翻雲隨手變
落花飛絮逐年新
滿懷唯有肝腸舊
分寄離程送別人

2.90. 계양⁸¹²으로 부임하는 윤 부사를 전송하며 이름은 풍형⁸¹³이다.

[送尹府使赴任桂陽 名豐亨]

푸른 비단을 한번 입는 십년의 지기(知己)는
호롱불 앞에서 자세히 쓴 시를 내게 주었네.
속된 세상을 오래 한(恨)하며 길이 슬피 바라보면서
쇠약함과 늙음을 어떻게 견디려고 또 떠나려하는가.
어진 명성 먼저 가서 황폐한 고을을 되살리고
예리한 기구(器具)를 옆에 놓고 어지러운 실을 분별하네.⁸¹⁴

靑綾一被十年知
細記燈前贈我詩
久恨塵埃長悵望
那堪衰白又分離
仁聲先去蘇荒邑
利器旁投別亂絲

809) 연월(煙月) : 구름이나 연기에 어리어 흐릿하게 보이는 달을 말한다.

810) 행장(行藏) : 用舍行藏의 준말로, 세상에 쓰일 때는 자기의 도를 행하고 버림받을 때는 물러가 숨는 君子의 處世를 말한다.(『論語』, <述而>.)

811) 비구름을 뒤덮음 : “覆雨翻雲”은 인정과 세태가 반복무상한 것을 비유한 말이다. “翻手作雲覆手雨, 紛紛輕薄何須數.”(杜甫, <交貧行>.)

812) 계양(桂陽) :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를 말한다.

813) 윤풍형(尹豐亨) : 중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漆原, 자는 衢仲, 호는 松月堂이다. 1537년 홍문관의 부제학으로 재직할 때 정권을 전횡하고 文定王后의 폐위를 도모한 金安老를 탄핵하여 죽게 하고 다시 대사간이 되었다.

814) 예리한 기구(器具)를 ~ 실을 분별하네 : 어려운 처지나 임무를 만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뛰어난 재주가 발휘된다는 뜻이다. “쉬운 것을 구하지 않고 어려운 일을 피하지 않는 것이 신하의 직분이

춘경(春卿)의 당일 부(賦)⁸¹⁵에 화운(和韻)하지 마라
조강(祖江)⁸¹⁶의 풍랑이 이전과 다르니.

莫和春卿當日賦
祖江風浪異前時

2.91. 부모님을 뵈려고 강릉으로 돌아가는 최연지를 전송하며 [送崔演之歸觀江陵]

멀리 공구(孔丘)의 뜰을 향해 리(鯉)의 종종걸음 배우려고⁸¹⁷
동궁에서 삼모(三謨)⁸¹⁸의 강의를 잠시 멈추었네.
재능이 높은 사람은 말들이 남지 않음을 허락하고⁸¹⁹
짧은 날의 정은 반포오(反哺鳥)⁸²⁰가 깊다네.
두 곳에서 임금과 부모를 나란히 섬기기는 어려우나
한 몸에서 나오는 충효가 어찌 방도가 다르랴.
혼정신성(昏定晨省)할 겨를이 있어 부지런히 찾아뵈리니
사명광객(四明狂客)의 유풍⁸²¹이 경포호(鏡浦湖)에 남아 있네.

遠向丘庭學鯉趨
東闈暫輟講三謨
高才人許空群馬
短日情深反哺鳥
兩處君親難並事
一身忠孝豈殊途
晨昏有假勤尋訪
狂客遺風在鏡湖

사월에 서쪽의 강물 제방에 부딪치고
영동(嶺東) 천리 저녁 구름 나직하네.

四月西江水拍堤
嶺東千里暮雲低

니, 이리저리 감긴 뿌리가 뒤엉킨 곳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예리한 기구를 구별하겠는가. [志不求易, 事不避難, 臣之職也. 不遇盤根錯節, 何以別利器.]”(『後漢書』卷58 <虞詡列傳>.)

815) 춘경(春卿) : “春卿”은 下句 “祖江”에 근거하여 엄흔과 같은 시기의 인물이자, 十省堂의 <嚴公碣文>을 쓴 경기도 출신 洪春卿(1497~1548)으로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16) 조강(祖江) :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한강하류 끝의 물줄기를 아울러 일컫는 이름이다.

817) 멀리 공구(孔丘)의 ~ 리(鯉)를 배우려고 : 『論語』에 나오는 陳亢과 伯魚의 고사를 말한다.. “陳亢問於伯魚曰: 子亦有異聞乎. 對曰: (중략) 陳亢退而喜曰: 問一得三, 聞詩聞禮. 又聞君子之遠其子也.”(『論語』, <季氏> 13章.)

818) 삼모(三謨) : 『書經』은 二典(堯典, 舜典)과 三謨(大禹謨, 皋陶謨, 益稷謨)의 篇名이 있다.

819) 말들을 비게 하고 : 冀北空群의 뜻이다. 재능이 있는 인재를 잘 뽑아서 재능이 있는 자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는 의미이다. “伯樂一過冀北之野, 而馬群遂空.”(韓愈, <送溫處士河陽軍序>.)

820) 반포오(反哺鳥) : 까마귀의 反哺之孝를 의미하는 말이다. “聲中如告訴, 未盡反哺心. 百鳥豈無母, 爾獨哀怨深.”(白居易, <慈烏夜啼>.)

821) 광객(狂客)의 유풍 : 원래 唐나라 玄宗 때 문인인 賀知章의 유풍을 말하나 여기서는 崔演이 江陵 鏡湖에서 부모님을 모시는 유풍을 가리킨다. 참고로 鏡湖는 安徽省 蕪湖縣에 있는 호수 이름이다. 풍류로 이름이 높았던 하지장은 四明狂客으로 自號하고 그곳에서 은거하였다고 한다. 조정에서 벼슬하다가 늙어서 고향인 甬中으로 돌아올 때 玄宗이 鏡湖의 剡川 一曲을 하사하였다.(『新唐書』卷196 <賀知章列傳>.)

나는 묘지를 찾았으나 고인의 혼은 오래전에 끊어지고
 그대는 부모와 떨어져 대문의 바라봄 오래토록 미혹하네.
 눈이 말랐으나 풍수지탄(風樹之嘆)의 눈물 흘리고
 나이만 들어서 아기 울음소리를 번거롭다고 하네.
 기쁜 마음과 슬픈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까
 오직 이별의 근심 있어 우리를 서글프게 하네.

我尋丘墓魂長斷
 君隔庭闈望久迷
 枯眼不收風樹淚
 老年翻作小兒啼
 歡情悲意知誰最
 唯有離愁兩慘悽

십년 전에 교우한 회포를 다시 생각하려고
 남쪽 누각 서쪽에서 의연(依然)한 꿈을 꾸네.
 단양(丹陽) 수령으로 내려가면 화답할 시가 없으니
 늙은 정랑(正郎)에게 몰래 술값을 모자라게 하였네.
 두 지역 진천(秦川)과 대관령(大關嶺) 눈을 서로 생각하며
 한 동이 술을 섬계(剡溪)로 오는 배에 함께 실었네.
 고향과 각별한 정은 얼마나 될까
 늘 돌아가려는 마음 붙잡아 해질 무렵 부치네.

重憶交懷十載前
 南樓西掖夢依然
 丹陽守去無詩句
 白髮郎潛欠酒錢
 兩地相思秦嶺雪
 一樽同載剡溪船
 鄉關此別情多少
 長把歸心付日邊

2.92. 벗의 <책을 햇볕과 바람에 쏘이다>에 차운하다

[次友人曝書韻]

도산(道山)에 일 없어 은둔생활을 짝하며
 하루 종일 한가로이 모든 책을 펼쳐보네.
 몸은 늙었으나 다섯 수레 선물 자랑하니
 집엔 단지 사마상여(司馬相如)처럼 네 벽뿐이네.⁸²²⁾
 연단(鉛丹)의 작은 일⁸²³⁾ 나와 무슨 관계라
 금석의 글을 남기어 그대들에게 다 주리라.
 단지 가슴에 있는 해묵은 서책만 보내니
 충어(蟲魚)⁸²⁴⁾를 쪼이는 고생 필요 없네.

道山無物件幽居
 永日閑開萬卷書
 身老五車多惠子
 家徒四壁類相如
 鉛丹小業何關我
 金石遺文盡付渠
 但把陳編輸在腹
 不須辛苦曬蟲魚

822) 네 벽뿐이네 : “四壁”은 가난한 생활을 말한다. 漢나라 司馬相如가 卓文君과 함께 成都로 도망가서 보니, “家居徒四壁立.”이라는 고사가 있다.(『史記』卷117 <司馬相如列傳>.)

823) 연단(鉛丹)의 작은 일 : 官員이 문서를 들고 검은 붓, 붉은 붓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93. 벗이 준 시에 차운하다

[次友人贈韻]

나의 뜻 시기를 놓쳤으나 그대가 기이함을 도와주니
 게으른 말 악와(渥洼)⁸²⁵의 자태 깊이 부끄러워하네.
 노래 영곡(郢曲)⁸²⁶을 이루니 풍속 어울리기 어렵고
 옥이 형산(荊山)⁸²⁷에 있으니 과연 때를 만났는가.
 마른 붓 오래도록 세상 놀래는 글귀 없고
 가난한 시주머니 받을 살 재물만 모으네.
 가슴속에 이미 돌아가려는 꾀를 정하였으니
 지난날 군평(君平)⁸²⁸이 풀어준 의심을 마라.

我志蹉跎子相奇
 驚駘深愧渥洼姿
 歌成郢曲難諧俗
 玉在荊山果遇時
 枯筆久無驚世句
 貧囊唯貯買田資
 胸中已定歸來策
 莫向君平更決疑

2.94. 소나기

[急雨]

우레 소리에 젓가락을 떨어뜨리고⁸²⁹ 번개 빛을 쫓으니
 동이를 뒤집는 빠른 형세 무너진 담장 누르네.
 하늘에서 자라와 악어 굴에 쏟아 부어
 평지의 황새와 학 마당으로 옮겨 오네.
 계곡에 흐르는 물 언덕마다 깊어져 잠시 기쁘나
 지붕이 새어 책상마다 젖음을 어떻게 견딜까.

失箸雷聲逐電光
 翻盆疾勢壓頽牆
 中天倒注鼉鼉窟
 平陸移來鶴鶴場
 暫喜溪流深岸岸
 那堪屋漏濕床床

824) 충어(蟲魚) : 벌레와 물고기를 말한다. 여기서는 四書五經을 가리킨다.

825) 악와(渥洼) : 渥洼天馬의 준말로, 渥洼는 川名인데, 漢武帝때 渥洼에서 神馬가 나왔던 데서 온 말로, 천하에 독보적이었음을 비유한 말이다.

826) 영곡(郢曲) : 춘추시대 楚나라의 서울이던 郢 땅의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는 뜻으로, 卑俗한 음악울 이르는 말이다.

827) 형산(荊山) : 중국 荊山에서 나는 백옥이라는 뜻으로, 보물로 전해 오는 흰 옥들을 이르는 말이다.

828) 군평(君平) : 西漢의 名士인 嚴遵을 말한다. 자는 君平이다. 天文學에 조예가 깊어 星相學者로 이름을 날렸다. 일찍이 成都에서 점을 쳤다고 전한다. 저서로 『老子指歸』가 있다.

829)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 賢德失箸. 현덕은 삼국 시대 蜀나라 劉備의 자이다. 曹操가 천하 영웅으로 자칭하고 유비밖에 없다고 하자 현덕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는데 그때 마침 천둥소리가 울리자 유비가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해명하였다.(『蜀志』, <先主劉備傳>.)

용공(龍公)의 호령 알 이 없고
 소나기와 돌개바람에 바쁘다네.

龍公號令無人識
 急雨顛風有底忙

2.95. 호서를 여행하는 벗에게 주다

[贈友人旅遊湖西]

한번 이별하고 망연한 이십 년
 강호에서 둘이 유유히 서로 바라보네.
 우연히 만난 오늘 기쁨을 다하고
 갑자기 당시 몸이 늙음을 말하네.
 많은 여행으로 오래토록 어려우니
 짐짓 굴레에 매여 초췌하다 마라.
 잠깐 때를 얻고 잃음은 운명에 관련됨이 아니니
 지난날 반계(磻溪)⁸³⁰에서 만나 우린 낚시하겠지.

一別茫然二十秋
 江湖相望兩悠悠
 偶逢今日渾青眼
 却說當年已白頭
 久爲艱難多旅泊
 莫因憔悴故羈留
 暫時得失非關命
 但向磻溪直我鉤

2.96. 남강에서 손님을 전송하다

[南江送客]

저녁 무렵 남강에서 이별 자리 마련하니
 붉게 단장한 물속의 하늘 경치 아름답네.
 근심어린 시 창파(滄波) 멀리 끌어오니
 이별의 실마리 갈매기 주위를 맴도네.
 이날 함께 나눈 술잔 잠시 기쁘지만
 여러 해를 멀리서 그림계 하지 말라.
 길손이 호산(湖山)⁸³¹에 머무르려 하니

晚向南江敞別筵
 紅粧明媚水中天
 愁懷句引滄波外
 離緒縈回白鳥邊
 暫喜杯尊同此日
 莫教雲樹隔多年
 湖山有意留行客

830) 반계(磻溪) : 文王과 武王을 도와 周나라를 세우는데 大功을 세운 太公望 呂尙이 살던 지명이다.

831) 호산(湖山) : 현재 충청남도 西山의 다른 이름이다.

강허있는 앞마을 안개 한번 걷어주네.

鎖却前村一抹煙

2.97. 배 안에서 벗에게 보여주다

[舟中 示友人]

강변에서 손님 마중하고 밤에 돌아오니
 오히려 남은 근심 달빛을 머금고 맴도네.
 마을 들은 가늘게 북쪽을 의지하여 다하고
 처마 창은 하나하나 남쪽을 향해 열렸네.
 노래를 부르며 구당협(瞿塘峽)⁸³² 이미 지나가고
 샣대를 저으며 염여퇴(灩澦堆)⁸³³ 도리어 지나네.
 전날 유람하며 감상한 곳 누가 알고
 늙어서 다시 친구와 술잔을 나눌까.

江邊送客夜歸來
 猶有餘愁帶月回
 村野微微依北盡
 軒窗一一向南開
 行歌已過瞿塘峽
 放棹還經灩澦堆
 誰識昔年遊賞地
 白頭重把故人杯

2.98. 부모님을 뵈려고 청주로 돌아가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歸觀清州]

남해에서 삼년 수연(壽筵)과 멀어져
 누가 채복입고 다시 너풀너풀 춤출 줄을 알았으랴.⁸³⁴
 본연(本緣)의 도는 곧으니 세상을 용납하기 어렵고
 홀로 일편단심 자료하며 하늘을 등지지 않네.
 아버지(椿樹)⁸³⁵는 새로이 황발송(黃髮頌)⁸³⁶을 이루고

南海三年隔壽筵
 誰知綵服再蹁躑
 本緣道直難容世
 獨賴心丹不負天
 椿樹新成黃髮頌

832) 구당협(瞿塘峽) : 중국 長江의 三峽 중 제1협곡으로 그 길이가 8km 밖에 되지는 않지만, 험하게 깎아 지르는 절벽이 주는 웅장함 때문에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곳이다. 구당협은 사천의 巫山의 대협곡에서 시작하여 奉節의 白帝城까지 이어진다.

833) 염여퇴(灩澦堆) : 瞿塘峽 어귀의 한복판에 있다.

834) 누가 채복(彩服)입고 ~ 줄을 알았으랴 : 부모님께 효도하는 楚나라 老萊子의 고사를 말한다.

835) 아버지 : “椿樹”는 椿樹下彩舞의 준말로 부모를 즐겁게 헤드리기 위해 춤을 추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참죽나무는 아버지를 가리킨다.

836) 황발송(黃髮頌) : 『詩經』 <魯頌·駟之什·閟宮> 9장을 말한다. <閟宮>에서 “누런 머리털에 검버섯이 피네. [[黃髮台背.] ”에서 온 말인데, 노인의 흰머리가 다시 누렇게 되는 것은 곧 長壽의

어머니(萱堂)⁸³⁷은 일찍이 소관편(素冠篇)⁸³⁸을 지었네.
산언덕⁸³⁹에서 술동이 속의 술로 헌주(獻酒)를 마치니
응당 깊은 정 있으나 서글픈 마음 배(倍)가 되네.

萱堂曾賦素冠篇
岡陵獻罷樽中酒
應有深情倍慘然

2.99. 곤양⁸⁴⁰으로 부임하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赴任昆陽〕

부평초처럼 유랑하고 죽대처럼 옮겨가는 부침(浮沈)에 익숙하나
벼슬에 얽매어 애처롭게도 바닷가 장독(瘴毒)이 들었네.
죽간(竹簡)에 올리려는 공명에 처음 인끈을 매고
생선 삶는 사업⁸⁴¹으로 오래도록 거문고 올리네.
소 잡는 칼로 현가(絃歌)소리 들리는 지역 문득 다스리니⁸⁴²
난(鸞)새가 탕자나무가시 숲에서 종신토록 살아가네.
다만 새로운 반찬을 얻어 색양(色養)⁸⁴³으로 봉양하니
잠시 헤어진다고 상심하지 말라.

萍飄蓬轉慣浮沈
羈宦悽悽瘴海潯
上竹功名初佩綬
烹鮮事業久鳴琴
牛刀却試絃歌地
鸞鳥終棲棘棘林
但得新羞供色養
暫時分手莫傷心

조집이라 하므로 이른 말이다.

837) 어머니 : “萱堂”은 남의 어머니를 높여 부르는 말이다. 여기서는 ‘慈堂’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838) 소관편(素冠篇) : 『詩經』 <檜風·素冠>은 國風 檜風의 편명으로, 사람들이 삼년상을 행하지 않는 것을 풍자한 시이다.

839) 산언덕 : 여기서 임금에게 무궁무진한 壽福을 축원한다는 의미이다. “하늘이 당신을 편안하게 하사 / 흥하지 않음이 없게 하네. / 마치 산인 양 언덕인 양 / 높은 피나 큰 능인 양 흥성하네. / 마치 냇물이 흐르고 흘러 / 보태지 않음이 없는 것 같네. [天保定爾, 以莫不興, 如山如阜, 如岡如陵, 如川之方至, 以莫不增.]” (『詩經』, <小雅·天保>.)

840) 곤양(昆陽) : 경상남도 사천 지역의 옛 지명이다.

841) 생선 삶는 사업 : 治國烹鮮의 준말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작은 生鮮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842) 소 잡는 ~ 지역을 다스리니 : 공자 제자 子游의 ‘牛刀割鷄’ 고사를 말한다.

843) 색양(色養) : 쯤나라 西河사람 王延은 어머니를 色養으로 봉양하였다.(『晉書』, <孝友列傳>.) 혹은 子夏가 孝에 대하여 묻자 공자가 “色難”이라고 대답한데 유래하여 자식이 부모의 안색을 잘 살피서 봉양하는 것을 말한다.(『論語』, <爲政>.)

2.100. 함평⁸⁴⁴) 수령으로 나가는 벗을 전송하며

[送友人出宰咸平]

지방관 ⁸⁴⁵)으로 고향 가까운 남쪽 가려고	一麾南去近鄉關
갑자기 의조(儀曹) ⁸⁴⁶)의 옥순반(玉筍班) ⁸⁴⁷) 던졌네.	擲却儀曹玉筍班
천리 밖이라 부미(負米) ⁸⁴⁸)를 부지런히 못하겠지만	負米不勤千里外
육 년간은 빠뜨리지 말고 음식을 이마지하라.	供羞無闕六年間
하늘가 오랜 길은 공한지(空閑地) 많으나	雲霄舊路多閑地
제각(齊閣)은 방금 맑아 바라보는 산 적네.	齊閣新晴少對山
생각하니 나는 오래 풍수의 한 ⁸⁴⁹) 품고 있으니	顧我長懷風樹恨
오늘 그대를 보내는데 눈물이 선명하게 흐르네.	送君今日淚班班

2.101. 강가에서 벗의 시에 차운하다

[江上 次友人韻]

물안개 자욱하여 한눈에 나루터 보이지 않고	一望煙波未見津
십년 만에 친구들 모두 다시 만났네.	重逢渾是十年親
늙도록 함께 지내자며 마음 아는 날	同經白首知心日
또 청운을 얻은 닳선 사람이 되었네.	又作青雲得路人
병든 후 슬픈 시 이별의 고통 따르고	病後悲吟緣別苦
취중에 깊은 잔 진실한 정이 되었네.	醉中深酌爲情眞
머지않아 오리와 갈매기도 서로 알리니	鳧鷗近近曾相識

844) 함평(咸平) : 현재 전라남도 서부에 있는 고을의 이름이다.

845) 지방관 : “一麾”는 외직으로 나가는 지방관을 말한다. 쑤나라 때 竹林七賢 중의 한 사람인 阮咸이 荀勗의 배척을 받아 始平太守로 나갔는데, 南朝시대 宋나라 顏延之가 완함에 대해 “누차의 천 거에도 조정엔 못 들어가고 / 순욱이 손 한번 내저으며 고을수령으로 나갔네. [屢薦不入官, 一麾乃出守.]”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文選』 卷21 <五君詠·阮始平>.)

846) 의조(儀曹) : 禮曹의 별칭이다.

847) 옥순반(玉筍班) :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끼리 서로 어울려 반열을 이룬 것을 말한다.

848) 부미(負米) : 子路負米의 준말이다. 백리나 떨어진 먼 곳으로 쌀을 지러간다는 말이다. 이는 아주 어렵게 살면서도 부모를 섬기는 지극정성을 말한다.(『孔子家語』.)

849) 풍수(風樹)의 한 : 風樹之嘆의 고사를 가리킨다.

강호에서 면목이 새롭다고 말하지 말라.

莫道江湖面目新

2.102. 난간에 기대어

[憑欄]

산기운 침침(沈沈)하여 물빛 차가운데
회고 푸른 물결 출렁이며 높은 난간에 들어오네.
창망(蒼茫) 안에 숲은 연기 자욱하고
표묘(縹緲) 끝에 생황노래 바람에 흩어지네.
발밑의 하늘과 땅 만 리를 열고
머리가 해와 달은 두 알 굴리네.
눈 안에 일엽편주 작은 것이 아니나
미관말직이라 호쾌한 마음에 해되네.

山氣沈沈水色寒
浮靑漾白入高欄
煙籠樹木蒼茫內
風散笙歌縹緲端
脚底乾坤開萬里
頭邊日月轉雙丸
眼中不是扁舟少
快意妨來在一官

2.103. 밤이 와 몸에 가을기운이 감돌았다 인하여 읊시 한 수를 짓다

벗에게 주다.

[夜來, 已有秋氣, 因成一律 呈友人]

가을이 와서 뜨거운 가슴 씻겨준다 하나
가을이 오니 또 가을의 고심만 남아있네.
풍당(馮唐)⁸⁵⁰은 세상에 살 때 공명 늦고
두보(杜甫)는 시 때문에 질병 깊어졌네.
밝은 달은 귀밑머리 여위게 하는 빛 이루고
그윽한 벌레 애간장 끊는 소리로 모두 우네.

擬道秋來濯熱襟
秋來又有苦秋心
馮唐在世功名晚
杜甫緣詩疾病深
明月偏成凋鬢色
幽蟲渾是斷腸音

850) 풍당(馮唐) : 漢나라 때의 名臣이다. 馮唐은 효도로 명성을 얻어 한 文帝 때에 中郎署長을 역임한 이래 景帝 때까지 중앙 고위관직을 담당하였다. 이후 漢나라 武帝가 즉위한 후 馮唐을 발탁하려 하였지만 이미 나이 90이 넘는 상태라 부득이 관직에 나가지 못하였고 대신 馮唐의 아들 馮遂가 기용되었다. 이 고사에 따라 馮唐은 연로한 신하가 자신의 노쇠함을 비유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되었다. (『史記』 卷102 <馮唐列傳>.)

임금의 은혜 갚지 못하여 돌아갈 수 없는 날은
국화길 옆에 소나무 집을 꿈속에서라도 찾으리.

君恩未報無歸日
菊逕松齋夢裏尋

2.104. 당신의 시⁸⁵¹⁾에 거듭 화답하다 〔重和瓊什〕

하고많은 봉묵(封墨)은 팽아(烹阿)를 주니⁸⁵²⁾
세속의 맛은 지금처럼 배부름 절로 많다네.
세월이 오래면 직분에 놀라 넘어져 부끄럽고
근심이 읍에 저자에서 또 춤만 추려고 하네.⁸⁵³⁾
관동 오륙 명(名)과 바람 쐬러 가고
동이술 삼천(三千)으로 너의 노래 짓네.⁸⁵⁴⁾
이 감흥을 그대 있는 곳에서 얻어 마치리니
먼저 일을 방해 않고 시를 읊고 들어오네.

悠悠封墨與烹阿
世味如今飽自多
歲久職思慙瞿蹶
愁來市也欲婆娑
童冠五六風乎去
尊酒三千作爾歌
此興終於君處得
未妨先事入詩哦

851) 당신의 시 : “瓊什”은 상대방을 높여 그가 지은 글을 이르는 말이다.

852) 하고많은 봉묵(封墨) ~ 팽아(烹阿)를 주니 : “封墨”은 斜封墨勅의 준말로, 公薦이나 材局을 보지 않고 사의로 부정하게 임관시키는 것을 비유한 말로 唐 中宗 때 韋后 및 太平·安樂公主가 권리를 쥐어 뇌물을 받고 임관시키는데 墨筆로 쓴 詔勅을 비뚤게 봉함해 내려 관직을 제수한 고사를 말한다. ‘烹阿’는 전국시대 齊 威王이 처음에 모든 지방 정치를 卿大夫에게 위임하였는데, 여러 경대부 중 阿大夫가 정치를 가장 잘한다고 칭찬이 자자했으나 실제로는 왕의 좌우에 뇌물을 써서 칭찬을 구한 것이었으므로 아 대부를 팽형에 처했다는 고사로 貪官을 극형에 처벌하는 것을 의미한다.(『史記』 卷46 <田敬仲完世家>.)

853) 저자에서 춤만 추고자하네 : 『詩經』, <國風·陳風·東門之枌> 3章에서 “삼을 길쌈하지 않고 / 시장에서 너울너울 춤만 추도다. [不績其麻, 市也婆娑.]”라고 하였다.

854) 동이 술 삼천(三千)으로 ~ 노래 짓네 : 金陵에서 지은 이백의 시에 “육대 흥하고 망한 나라에 / 술 석 잔으로 너를 위해 노래한다. [六代興亡國, 三盃爲爾歌.]”(『全唐詩』 卷186 <金陵三首> 中 其三.)라는 구절이 있다.

2.105. 새벽에 앉아 벗이 지은 시를 읽어보고 감흥이 있어 문득 생각나는 운자를 따라서 지어드리다

[曉坐有感，披詠友人詩，忽依韻思得錄呈]

청아한 아침 친구의 시에 조용히 화답하니
 오늘부터 이 감흥 깊음을 알았네.
 만사가 들쭉날쭉하니 어찌 흥미 있을까
 미관말직 떠돌아도 이미 마음에 없는데.
 남의 술 못 마신다는 말 싫어 오래 취한 양하고
 저가 많은 말을 경계하니 도로 병어리처럼 하네.
 유독 너는 그윽한 걱정 나와 함께 마치고
 가난(艱難)을 몰아내나 또 다시 이어지네.

清朝細和故人吟
 今日從知此興深
 萬事參差寧有味
 一官漂泊已無心
 嫌他不飲長如醉
 戒彼多言反類瘖
 獨爾幽憂終與我
 艱難驅去又重尋

2.106. 벗과 서로 얘기 나누기를 바랐으나 갑자기 병환 소식을 알려와 마음이 더욱 무료하여 다시 앞의 시 운자로 화답하다

[期友相敘，忽以病報，思益無聊，復和前韻]

어느 곳으로 초대하여 함께 청아한 시 지을까
 꽃잎만 날아오니 깊은 마음을 어쩔 수가 없네.
 갑자기 찬바람 있어 끝내 그대를 저버리니
 어찌 마음 의논할만한 술이 남지 않았으랴.
 다른 날 나도 같이 아프면 벗을 생각하고
 오늘 밤 입은 병어리인 듯 시를 생각하네.
 인간 세상에 한가로울 날 며칠인지 알까
 밝은 아침에 모든 일 또 점차 찾아오는데.

招邀何處共清吟
 不奈飛花一寸深
 忽有寒風終負子
 豈無殘酒可論心
 他時憶友身如病
 此夜思詩口似瘖
 人世得閑知幾日
 明朝萬事又侵尋

2.107. 대수에게 주다

[呈大樹]

희미한 불빛 깜박깜박 찬 움막에서 빛나고
 온갖 염려와 회포 억지로 다스리고 없애네.
 내가 이미 용렬하여 상서성(尙書省)⁸⁵⁵을 떠나고
 그대는 지금 신고(辛苦)하여 동어(銅魚)⁸⁵⁶를 구걸하네.
 하나하나 사람들의 소식 의지하여 시를 새로 짓고
 때때로 나그네의 글을 엿보아서 편지에 답장하네.
 문득 뜰에 있는 낙엽과 짝이 되는 것이 부끄러워
 바람을 따라 남북으로(이리저리) 훌쩍 떠나가네.

殘燈耿耿暈寒廬
 百慮千懷強撥除
 我已疏慵違省署
 君今辛苦乞銅魚
 新詩一一憑人報
 答札時時倩客書
 却愧中庭雙落葉
 隨風南北轉飄如

다행히 그대의 거처 내 움막과 이어졌으니
 때때로 걸어가면 앞마당에 이르네.
 마을 술을 잠깐 맛보니 새로 빚은 술 아니나
 동산 채소 조금 따오니 물고기보다 맛있다네.
 둘이서 당시(唐詩)에 화운(和韻)하여 이별시 짓고
 오랜만에 해객(海客)을 통하여 고향편지를 받았네.
 누항(陋巷)의 늙음을 어떻게 견디려는지 묻는 말에
 단표누항도 편안하다 대답하였네.⁸⁵⁷

多幸君居接我廬
 時時步履到前除
 暫開村釀非新醞
 少摘園蔬當美魚
 共和唐詩爲別句
 長因海客得鄉書
 問言陋巷何堪老
 答說簞瓢亦晏如

성조(聖朝)에서 자주 공명(孔明)⁸⁵⁸의 움막을 묻더니
 한 재주로 이름을 이루어 조서(詔書)로 체수되었네.
 정녕 연대(燕臺)⁸⁵⁹에서 죽은 뼈를 거두는 것 같고

聖朝頻問孔明廬
 一藝成名亦詔除
 正似燕臺收死骨

855) 상서성(尙書省) : 관청이름으로 中書省·門下省과 함께 고려 중앙정치기구의 중추를 이루던 三省의 하나로, 982년에 唐나라의 3성6부 체제를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856) 동어(銅魚) : 銅魚符의 준말로,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符信을 말한다. 官等에 따라 金·은·동의 구별이 있다.

857) 누항(陋巷)에서 어떻게 ~ 편안하다고 대답하였네 : 安貧樂道の 생활을 말한다. “子曰: 賢哉回也, 一簞食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回也.”(『論語』, <雍也>.)

858) 공명(孔明) : 諸葛亮(181~234)의 字이다. 後漢 말 劉備의 蜀을 도운 軍師로 알려져 있다.

859) 연대(燕臺) : 北京 부근에 있었던 높은 臺이다. 중국 戰國時代에 燕나라의 昭王이 구축하여 그 건물 안에 千金을 두고 천하의 賢者를 불러들이던 곳이다.

도리어 주아(周雅)⁸⁶⁰에서 가어(嘉魚)⁸⁶¹ 읊음을 듣는 듯하네. 還聞周雅詠嘉魚
 상강(湘江)⁸⁶²에서 가의(賈誼)⁸⁶³는 바야흐로 부(賦)를 던지고 湘江賈誼方投賦
 광범(光範)⁸⁶⁴에게 창려(昌黎)는 홀로 서(書)를 올리네. 光範昌黎獨上書
 광한궁(廣寒宮)⁸⁶⁵ 속 손님에게 말하니 爲說廣寒宮裏客
 다행히 청아한 이슬을 나누어 서로 구하는 듯하네. 幸分清露救相如

유유(悠悠)한 천지는 하나의 여관이니⁸⁶⁶ 悠悠天地一簾廬
 만사가 오면 술로 깨트려 없애네. 萬事之來酒破除
 변방에 늙은이 말을 잃은 것이 아니면⁸⁶⁷ 塞上老翁非失馬
 호량(濠梁)에서 장자(莊子)가 어찌 물고기를 알았으랴.⁸⁶⁸ 濠梁莊子豈知魚
 친구는 <歸田賦>⁸⁶⁹를 자주 찾고 故人屢索歸田賦
 향리(鄉里)에서는 <種樹書>⁸⁷⁰을 때때로 찾네. 鄉里時尋種樹書
 소나무와 대나무에 붙인 말 서로 기억하는지 寄語松筠相憶否

- 860) 주아(周雅) : 『詩經』, <周雅>를 말한다. 그러나 뒤에 말한 <南有嘉魚之什>은 <小雅>篇 속에 들어 있다.
- 861) 가어(嘉魚) : 『詩經』, <小雅·南有嘉魚之什>은 周 宣王이 안으로는 정사를 닦고 밖으로는 夷狄을 물리쳐 文·武王의 영토를 회복하고, 車駕와 器械를 修備하여 제후를 모아 사냥한 일을 노래한 시이다.
- 862) 상강(湘江) : “湘江”은 중국 강 이름이다. 廣西省에서 나와 湖南省으로 흘러들어가니, 湖南省의 最大河流이다. 賈誼의 고택이 있다.
- 863) 가의(賈誼) : 賈誼(B.C.200~B.C.168). 漢代 정치개혁의 제창자이자 이름난 시인이며 洛陽 사람이다. <鵬鳥賦>는 B.C.174년에 조정에서 쫓겨나 長沙王의 태부로 임명되어 떠날 때 지은 작품으로 그가 최초로 쓴 부이다. 쫓겨 가던 도중에 자신을 屈原에 비유하고 <離騷>를 모방하여 <悼屈原賦>를 지었다.
- 864) 광범(光範) : <上書光範>을 가리킨다. 韓愈는 자기를 추천하는 글을 要路에 많이 올렸다. 『唐宋八家文』, <上宰相書> 서두에 “정월 27일 전 鄉貢進士 한유는 삼가 光範의 문하에 었드려 거듭 절하고 글월을 올립니다.”라고 하였다.
- 865) 광한궁(廣寒宮) : 嫦娥가 산다는 달나라의 궁전 이름이다.
- 866) 유구한 천지는 하나의 여관이니 : 李白의 <春夜宴桃李園序>에 “천지는 만물의 여관이요, 광음은 백대의过客이라. [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陰者百代之過客]”라는 구절과 흡사하다.
- 867) 변방에 늙은이는 ~ 것이 아니면 : 塞翁之馬의 고사를 말한다.
- 868) 호량(濠梁)에서 장자(莊子)가 ~ 물고기를 알았으랴 : 濠梁之辯의 고사로 莊子와 惠子の 논변을 말한다. ‘濠梁’은 濠水 위의 다리를 말한 것으로 莊子와 그의 친구 惠子가 일찍이 호수의 다리 위에서 노닐 때, 장자가 말하기를, “피라미가 나와서 조용히 노니,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일세. [儵魚出游從容, 是魚樂也.]” 하자, 혜자가 말하기를, “자네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알겠는가. [子非魚, 安知魚之樂也.]” 하며 서로 대자연에 도취하여 흥겹게 이야기를 나누며 놀았던 데서 온 말이다.(『莊子』, <秋水>.)
- 869) 귀전부(歸田賦) : 쫓 나라 도연명이 彭澤令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田園生活의 즐거움을 노래한 <歸田賦>를 말한다.
- 870) 종수서(種樹書) : 柳宗元(773~819). 唐나라 唐宋八大家의 문인)의 <種樹郭橐駝傳>을 말한다.

근래에 희끗희끗한 머리 눈처럼 어지럽다네.

邇來華髮雪紛如

검을 익히는 고함소리 초가 움막을 울리고⁸⁷¹⁾

擊劍聲高動草廬

나이 늙고 돈이 다하니⁸⁷²⁾ 굳센 마음 없네.

年衰金盡壯心除

청산에 홀로 앉아 헛되이 이(蝨)를 잡고

靑山獨坐空捫蝨

백수(白首)에 서로 잊고 물고기만 낚네.

白首相忘但釣魚

백세에 이미 오랜 손님됨을 아는데

百歲已知長作客

일생을 어찌하여 책을 괴로이 보는가.

一生何用苦看書

내 고향 송죽(松竹) 평안하지 않으니

吾鄉松竹平安未

강가의 숲속 정자 막여정(莫如亭)이라고 부르네.

江上林亭號莫如

우리 고향집에 ‘막여정’이 있다.

吾鄉家有‘莫如亭’

옛집에서 누워 거미줄 그물 보니

臥看蛛絲網古廬

가슴 속 한가함 대번에 사라지네.

胸中閑氣頓消除

몸이 편안하고 귀한데 벼슬이 왜 필요하며

身安是貴何須爵

푸성귀 맛 달가운데 어찌 꼭 물고기이리요.

蔬味猶甘豈必魚

봉급의 쌀을 와서 나누는 것은 술을 사는 까닭이요

祿米散來因買酒

조복(朝服)을 전부 저당함은 책을 사들이기 위해서라네.

朝衣典盡爲收書

뜬구름 같은 영화 본래 나는 매이지 않으니

浮榮本不於吾繫

구름이 오고가는 산처럼 태연(泰然)하네.

雲去雲來山自如

871) 검을 익히는 ~ 움막에서 울리고 : 戰國시대 험객인 荊軻는 본디 讀書와 擊劍을 좋아하는데, 연나라에 가서는 筑을 잘 치던 高漸離 등과 사귀어 날마다 市中에서 술 마시고 비분강개하고 노래를 하며 지냈는데, 뒤에 荊軻와 高漸離는 모두 秦始皇을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하여 죽음을 당하였다.(『史記』 卷86 <刺客列傳 荊軻>.)

872) 돈이 다하니 : 金盡說難의 준말로, 戰國시대 遊說客 蘇秦이 秦王을 설득코자 열 번이나 <上書>를 올렸으나 그의 말이 가납되지 않음으로써 蘇秦은 가지고 나왔던 황금 백 근이 다 떨어져 생활이 困窮해진 고사를 말한다.(『戰國策』, <蘇秦篇>.)

2.108. 대수에게 드리다

[문대樹]

그대는 황정건(黃庭堅) 나는 범요(范廖)⁸⁷³
 시를 지어 서로 화답하고 술로 부르네.
 몸은 우환으로 살아 편안하지 않으나
 자취는 새장을 벗어나 번잡하지 않네.
 외파로 사는 사람 세상을 도망하는 기술 없고
 외로운 산에 매화 강에 비치는 가지만 있다네.
 궁궐 정문 벼슬아치 지금 사직하고 가니
 누가 지난번 소나무 사이 떨어진 뿔감 주웠던가.

君是庭堅我范寥
 得詩相和酒相招
 身居憂患非閑逸
 跡脫樊籠不市朝
 蜀肆人無逃世術
 孤山梅有映江條
 應門一稚今辭去
 誰向松間拾落樵

무디고 막힌데 제격이라 쓸쓸한데 마음 두고
 고향 산천에 돌아와 숨고 어찌 부르기를 기다릴까.
 한갓 한 말의 녹 가지고서는 쇠약한 병만 제공하니
 일찍이 추호도 성조(聖朝)에 보답할 길이 없었네.
 성곽 밖 밭은 두어 이랑도 없을지라도
 물가에 또 굴나무는 천 가지나 있다네.
 객중에서 생계 참으로 웃음 견디려고
 손수 거문고 하나 부쉘 뿔감 준비하네.

鈍滯端宜置寂寥
 故山歸隱豈須招
 徒將斗祿供衰病
 未有秋毫答聖朝
 郭外雖無田二頃
 洲邊亦有橘千條
 客中生計眞堪笑
 手破孤琴准備樵

병든 몸으로 쓸쓸하게 누워 무엇을 한하겠느냐마는
 가득 차면 바로 뿔을 부르는⁸⁷⁴ 유래라네.
 세상에 태어나 착한 남자 되었으니
 입신하여 성스럽고 밝은 조정을 지금 만났네.

病夫何恨臥寥寥
 滿則由來乃損招
 生世得爲善男子
 立身今遇聖明朝

873) 그대는 황정건(黃庭堅) ~ 나는 범요(范寥) : 黃庭堅(1045~1105). 宋나라 때의 시인이자 화가로, 호는山谷이다. 황정건은 范廖(생물연대 미상)와 친구사이로 보인다. “其實‘信中’, 乃是黃庭堅在宜州時的朋友范寥的字.”(劉珊, 『黃庭堅:生前之樂 身後之名』, 『學習時報』, 2015년 참조.) 여기서의 엄흔이 자신과 임억령의 관계를 서로 친밀한 사이임을 강조하는 말로 엿보인다.

874) 가득 차면 ~ 뿔을 부르는 : 옛날 禹 임금의 苗族을 정벌하러 가서 30일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자 伯益이 조언을 하였는데, 그 말 가운데 “가득 참은 뿔을 부르고 겸손함은 보탬을 받는다. [滿招損, 謙受益.]”라는 말이 있다.(『書經』, <大禹謨>.)

강하에 쥐 물을 마실 때 자신의 배만 채우고
 숲의 뱀새 살아갈 때 단지 한 가지만 만족하네.⁸⁷⁵⁾
 겨울에 가장 산뜻한 우리 집 생각하면서
 설산(雪山) 오솔길로 돌아오는 나무꾼을 보네.

江河鼠飲唯盈腹
 草木鷯棲只一條
 冬憶吾廬最瀟洒
 雪山微逕看歸樵

서검(書劍)⁸⁷⁶⁾을 이룰 수 없어 늙고 적막하니
 산림은 연분(緣分)으로 멀리서 급히 부르네.
 눈은 명절을 만나 문득 눈물 많고
 몸은 반열에 막혀 조정에 나가지 못하네.
 일몰의 경치와 궁벽한 수심 함께 무르익으니
 천시(天時)와 인사(人事)가 각각 쓸쓸하네.
 광부(狂夫)도 울분을 도랑과 골짜기 메우지 못하는데
 하물며 밭을 매고 나무 베는 일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書劍無成老寂寥
 山林有分遠招招
 眼逢節日偏多淚
 身阻班行不赴朝
 暮景窮愁同爛熳
 天時人事各蕭條
 狂夫未憤填溝壑
 況厭鋤田與斫樵

절로 우스운 내 삶 모두 쓸쓸하니
 와서 함께 사는 이 없고 가도 부르는 이 없네.
 추위에 떠는 닭 비바람 부는 새벽 폐하지 않고⁸⁷⁷⁾
 노련한 기마(騎馬) 눈서리 내린 아침 더욱 근심하네.
 산 너머 오두막집 묵은 일 남아있고
 강변에 갈대와 굴 새 가지가 자라네.
 어느 때 임금의 은혜를 대략이나마 갚을까
 밤에는 책을 보고 낮에는 땀나무하러 가네.

自笑吾生儘寂寥
 來無與處去無招
 寒鷄不廢風雨曉
 老騎轉愁霜雪朝
 山外田廬餘舊業
 江邊蘆橘長新條
 何時粗報君恩畢
 夜卽看書晝卽樵

백년의 우리 도 각각 아득하니
 쇠약하고 병든 이 누가 편지⁸⁷⁸⁾로 부르랴.

百年吾道各家寥
 衰病何人折簡招

875) 강하의 쥐는 ~ 하지만 만족하네 : “뱀새는 깊은 숲에 둥지를 틀어도 의지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에 지나지 않고, 두더지는 강물을 마셔도 제 배를 채우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 [鷯鷯巢於深林, 不過一枝. 鼯鼠飲河, 不過滿腹.]”(『莊子』, <逍遙遊>.)

876) 서검(書劍) :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자리에 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書劍을 못 일으키고 쓸데 업슨 몸이 되야 / 五十春光을 해움 업씨 지내연겨두어라. / 언의 곳 靑山이야 날 꺼릴 줄이 이시랴.”(『海東歌謠』, <書劍을 못 일으키고>.)

877) 추위에 떠는 ~ 폐하지 않고 : “바람 불고 비 오는데 / 어디선가 닭 우는 꼬끼오 소리 들리네. [風雨瀟瀟 雞鳴膠膠]”(『詩經』, 鄭風 <風雨>.)

베게는 천 점의 눈물 아직도 말라가고
 꿈속을 오래 쫓아가니 오경(五更)의 아침이네.
 단심에 쌓인 불 조각에 남아있고
 백발에 얽힌 서리 가지에 몇 번 떨어졌다.
 밭이 없어 돌아가지 못한다고 하지마라
 산이 있으면 어디서나 밭 갈고 나무할 수 있으니.

枕上猶乾千點淚
 夢中長趁五更朝
 丹心貯火餘殘片
 白髮縈霜落幾條
 莫說無田未歸去
 有山隨處可耕樵

어려서 분주하고 늘그막에 쓸쓸하니
 아름다운 시기 한번 가면 부를 수 없네.
 팔죽을 끓여 서로 초대하는 옛 풍속을 따르고
 향기로운 술잔 독대하며 오늘 아침 다 보내네.
 쇠잔한 자취는 바람 앞에 잎처럼 나풀거리고
 뛰어난 재주는 고개 위에 가지처럼 낙락(落落)⁸⁷⁹하네.
 훗날에 구름과 진흙⁸⁸⁰처럼 응당 멀리 떨어지지만
 다행이 편지를 가지고 어부와 나무꾼에게 부치네.

早年奔走晚寥寥
 一去佳期不可招
 豆粥相邀從舊俗
 芳尊獨對盡今朝
 飄飄衰跡風前葉
 落落高才嶺上條
 他日雲泥應遠隔
 幸將書信寄漁樵

작라(雀羅)⁸⁸¹의 문 앞 골목 더욱 적막하여
 오는 사람 보이지 않는데 하물며 나를 부르랴.
 헐어진 기와 많고 많아 음식 얻기 어려우니⁸⁸²
 다투는 명예 보잘 것 없지만 부질없이 조정에 나가네.

雀羅門巷轉寥寥
 不見人來況我招
 毀瓦悠悠難得食
 爭名瑣瑣謾趨朝

878) 편지(折簡) : 折簡은 尺書와 尺牘을 말한다. “一日 錢穆父折簡召坡食畝飯.”(曾慥, 『高齋漫錄』.) 및 “淩若有罪, 公當折簡召淩, 何苦自來耶?”(『晉書』 卷1 <宣帝紀>.)

879) 낙락(落落) : 뜻을 이룬다는 말이다. 後漢의 대장군 耿弇이 祝阿를 공격하여 성공을 거두자, 光武帝가 그에게 이르기를 “장군이 앞서 남양에서 이 대책을 세운 데 대하여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으리라고 여겼었는데, 뜻이 있는 사람은 일을 끝내 이루는구려. [將軍前在南陽建此大策, 常以爲落落難合, 有志者事竟成也.]”(『後漢書』 卷49 <耿弇列傳>.)

880) 구름과 진흙 : 구름과 진흙의 차이라는 뜻으로, 서로의 차이가 매우 심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881) 작라(雀羅) : 새그물을 칠 만큼 적막함을 의미한다. 漢나라 때 翟公이 처음 廷尉가 되었을 때는 빈객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 찾아왔는데, 파면됨에 미처서는 빈객이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아서 문 밖에 새그물을 칠 정도로 적적했다가, 뒤에 다시 정위에 임명되자 빈객들이 예전처럼 서로 앞을 다투어 찾아왔던 데서 유래한 말이다.

882) 헐어진 기와 ~ 얻기 어려우니 : 毀瓦畫鏹의 준말로, ‘기와를 헐고 담장의 꾸밈을 함부로 그어놓는다’는 말로 공은 없고 해만 있음을 말한다. “여기에 사람이 있는데, 기와장을 부수고 담장의 꾸밈을 함부로 그어놓고도, 그 뜻이 장차 밥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자네는 그에게 밥을 먹이겠는가? [有人於此, 毀瓦畫鏹, 其志將以求食也, 則子食之乎.]”(『孟子』, <滕文公 下>.)

살갓이 상처 난 늙은 말 마른 구유에서 울고
깃이 부러져 주린 매 죽은 가지에 앉아 있네.⁸⁸³⁾
성곽 너머 푸른 산 작유(柞樵)⁸⁸⁴⁾가 많은데
지금 무슨 일로 나무하러 돌아오지 않는가.

瘡皮老馬嘶枯樵
鍛翮飢鷹立死條
郭外青山多柞樵
至今何事未歸樵

가부(賈傅)⁸⁸⁵⁾의 그 해 일은 쓸쓸하나
유혼을 오늘 아마도 부를 수 있다네.
글을 던져 무정한 강물에 외람되이 조문하고
눈물 흘리며 도가 있는 조정을 헛되이 아파하네.⁸⁸⁶⁾
뼈는 황천에서 일찍이 만 년 전 썩었으나
말은 청사(靑史)에 몇 천 마디나 드리웠네.
고개를 돌리면 아득하여 깊이 서로 생각하고
왕도를 말하는 나 약초 캐고 나무하는 이가 짝으로 인정하였네.

賈傅當年事寂寥
遺魂今日儻能招
投書枉弔無情水
流涕空傷有道朝
骨朽黃泉曾萬載
言垂靑史幾千條
回頭漠漠深相憶
許我談王伴採樵

사람이 쇠약하고 세월이 저물면 쓸쓸하니
골짜기 입구와 호량(濠梁)에서도 초대받지 못하네.
홀로 앉아 누가 이 밤을 함께 할 수 있을까
서로 만나 다시 밝은 아침을 점치지 못하네.
바람에 놀라 사는 새는 처마 모서리를 의지하고
눈을 날리며 우는 까마귀는 나무 가지에 앉았네.
초야에서 속된 세상과 나는 이미 이별하였으니
맹저(孟諸)⁸⁸⁷⁾에서 훗날 정녕 고기 잡고 뿔나무하려네.

人衰歲暮境寥寥
谷口濠梁不見招
獨坐誰能同此夜
相逢未復占明朝
驚風棲鳥依簷角
擺雪鳴鴉踏樹條
草澤紅塵吾已別
孟諸他日定漁樵

883) 살갓이 상처 ~ 앉아 있네 : “老馬”와 “飢鷹”은 재능이 높은 현자를 비유하는데, 여기서는 작자 자신을 가리킨다. 杜甫의 시에, “늙은 준마는 머리 들기를 싫어하고 / 푸른 매는 쉽게 길들까 걱정하네. / 고상한 현자를 세상이 알지 못하니 / 의당 주리고 가난하기에 마땅하네. [老驥倦驥首, 蒼鷹愁易馴. 高賢世未識, 固合嬰饑貧.]”라고 하였다.

884) 작유(柞樵) : 계절에 따라 뿔감나무를 말하는데, “柞樵”는 가을의 뿔감나무를 말한다. 봄에는 柳榆의 불을 취하고, 여름에는 棗杏의 불을 취하고, 季夏에는 桑柘의 불을 취하고, 가을에는 柞樵의 불을 취하고, 겨울에는 槐檀의 불을 취한다 하였다.(『周禮』, <夏官 司燿>.)

885) 가부(賈傅) : 漢나라 文帝때 太中大夫로 있다가 대신들의 미움을 받아 長沙王 太傅로 좌천된 賈誼를 말한다.

886) 글을 던져 ~ 헛되이 아파하네 : 賈誼가 屈原이 汨羅에 빠져 죽은 후 백여 년 만에 長沙王 太傅가 되어 湘水를 지나다 投書하여 屈原을 조상한 것을 가리킨다.(『史記』卷84 <屈原賈生傳>.)

887) 맹저(孟諸) : 蕪澤 이름이다. “我本漁樵孟諸野, 一生自是悠悠者. 乍可狂歌草澤中, 寧堪作吏風塵下.”(高適, <封丘縣>.)

남의 간섭 어지럽고 나는 쓸쓸하니
 훌륭한 사람 초대 다정하게 오래 기다리네.
 곤드레만드레 시름에 취하니 어찌 일찍 깨며
 말뚱말뚱 차가운 밤에 아침이 달갑지 않네.
 외로운 손님 매번 저 산에 올라 시 짓고
 집 주인은 응당 그 가지를 잘라 노래하네.
 항상 위로(韋老)⁸⁸⁸를 생각하고 몸에 얽어매 없으니
 산의 북쪽과 남쪽으로 멀리 쫓아다니며 나무하었네.

人涉紛紛我寂寥
 多情長待美人招
 昏昏愁醉何曾醒
 耿耿寒宵不肯朝
 孤客每吟升彼岵
 家人應賦伐其條
 常思韋老身無絆
 山北山南遠逐樵

손님을 위한 좋은 시간이나 홀로 쓸쓸하니
 향아리에 잘 익은 국(麴)선생⁸⁸⁹을 부르네.
 젊어서는 눈을 헤치며 술과 시를 간직하였는데
 근래에는 부름을 받아 시장과 조정에 숨어있네.
 묵묵히 만 리 집에 계신 어버이 생각하니
 유유한 두 줄기 눈물을 베개 속에 감추네.
 전원으로 돌아가 늙어가는 것만 못하니
 아침 해를 등지고 앉아 나무꾼을 기다리네.

爲客佳辰獨寂寥
 瓮間聊爲麴生招
 少時披目藏詩酒
 近日蒙呼隱市朝
 默默思親家萬里
 悠悠伏枕淚雙條
 不如歸去田園老
 背負朝陽坐候樵

반양(班楊)⁸⁹⁰의 뛰어난 범도로도 세상은 적막하니
 부자(夫子)⁸⁹¹의 좋은 문장 이어 크게 부르네.
 단지 붉은 붓 끝으로 밝은 사국(史局)⁸⁹²을 말하나
 어찌 늙어서 곤궁한 내일 아침의 일을 알라.
 만 리의 먼 길 뛰어난 발이 필요하고
 천 칸 넓은 집 큰 나무가지 기다리네.
 재주와 힘은 정녕 강하여 아직 늦지 않았는데
 석천(石川)⁸⁹³은 왜 물고기를 잡고 뿔나무만 하고 다니는가?

班楊逸軌世寥寥
 夫子詞華繼大招
 但道彤毫光史局
 焉知白首困明朝
 脩途萬里須超足
 廣廈千間待巨條
 才力政強時未晚
 石川那得作漁樵

888) 위노(韋老) : 韋應物(737~804 ?) 중국 唐나라 때의 시인이다. 陶淵明과 함께 '陶韋'라고 불릴 만큼 쌍벽을 이루었다. 시집에 『韋蘇州集』 10권이 있다.

889) 국(麴)선생 : 술의 다른 이름이다. 술은 누룩으로 만들기 때문에 '麴生', '麴先生'이라고 사람에게 비유한다.

890) 반양(班楊) : 漢나라의 班固와 楊雄을 合稱한 말로 둘 다 훌륭한 문장가이다.

891) 부자(夫子) : 孔子를 가리킨다.

892) 사국(史局) : 史官이 史草를 꾸미던 곳을 말한다.

병든 학⁸⁹⁴ 쓰러지니 산 고개 쓸쓸하고
 배움을 즐기며 주린 매 한번 부름 기다리네.
 창 아래에서 나는 바야흐로 눈 녹는 물을 헤아리고
 문 앞의 사람은 바로 서리 내린 아침에 달려가네.
 산골 고을을 구하여 싶어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데
 때때로 주관(周官)⁸⁹⁵을 가지고 교시의 조목을 읽게 하네.
 비단옷을 만드는 것⁸⁹⁶이 우랄(迂闊)한 사람 일 아니니
 깊이 생각하면 숲에 책을 지니고 있는 땀나무꾼이라네.

摧頽病鶴峙寥寥
 肯學飢鷹待一招
 窓下吾方斟雪水
 門前人正走霜朝
 欲求山縣供甘旨
 時取周官讀教條
 製錦亦非迂者事
 深思林下帶書樵

2.109. 강가에서 전송하며

[江上送人]

장차 이별의 한을 싣고 곧 강을 거슬러 오니
 키(柁)는 부러지고 남은 자국 물결이 맴도네.
 긴 여정에 멀리 가는 사람은 보아도 보이지 않고
 저녁 산바람 달을 가리니 답답한 마음 풀기 어렵네.
 한 강 흐르는 물에 임하니 푸르기가 □ 같고
 온 산에 바라보이는 푸른 빛 얼마나 쌓였나.
 이별의 마음 견디지 없어 피리와 북소리 울리고

載將離恨泝江來
 柁破餘痕浪作回
 長路遠人看不見
 昏嵐礙月鬱難開
 臨流一水青如□
 入望千山翠幾堆
 別意未堪笳鼓咽

893) 석천(石川) : 大樹 林億齡의 號이다.

894) 병든 학 : “病鶴”은 蘇軾이 惠州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十一月二十六日松風亭下梅花盛開>의 운자를 써서 지은 <再用前韻>에 “나부산 아래 매화 마을에는 / 옥설로 뺨을 삼고 얼음으로 닦을 삼았네. (중략) 선생은 외로이 강해 가에 사노라니 / 병든 학이 황량한 동산에 깃든 듯 쓸쓸하거늘 / 친향 풍기는 국염을 어찌 돌아보려 하리오. / 내 익은 술 마시고 내 시 청운함만 알뿐이라네. [羅浮山下梅花村, 玉雪爲骨水爲魂. (중략) 先生索居江海上, 悄然病鶴棲荒園. 天香國豔肯相顧, 知我酒熟詩清溫.]”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895) 주관(周官) : 『書經』, <周書·周官>을 가리킨다.

896) 비단옷을 만드는 것 : 비단 옷을 만든다는 뜻으로,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관을 말한다. 鄭나라 子皮가 일찍이 尹何에게 퉁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자, 子產이 말하기를 “당신에게 아름다운 비단이 있다면 그것을 옷 지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 옷 짓는 일을 배우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큰 벼슬과 큰 읍은 백성의 몸이 의탁하는 곳인데, 배우는 사람에게 시험 삼아 다스리게 한다는 말입니까. 큰 벼슬과 큰 읍이야말로 그 아름다운 비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子有美錦, 不使人學製焉. 大官大邑, 身之所庇也, 而使學者製焉. 其爲美錦不亦多乎.]”(『春秋左氏傳』 襄公31年 참조.)

그대와 함께 서로 깊고 얇은 술잔을 □ 하네.

與君相□淺深杯

2.110. 권경우에게 주다

[贈權景遇]

사람은 멀고 집은 가까우니 어찌 이유 없을까
일마다 겨우 쫓아가니 일마다 새로워지네.
삼월은 이미 지나 장차 밤이 새려는데
일 년을 헛되이 보내 봄이 가련하다네.
대낮에 술동이 앞에서 처량하게 노래하니
거울 속에 홍안(紅顏)은 적막한 신세로다.
재미있고 즐겁게 노는 이때 마음만 급급하니
황혼은 예측하지 못하고 맑은 새벽 예측하네.

人遐室邇豈無因
事事纔從事事新
三月已過將盡夜
一年虛度可憐春
尊前白日淒涼曲
鏡裏紅顏寂寞身
行樂此時須汲汲
黃昏未卜清晨

2.111. 경차관으로 경상도에 부임하는 권 사인 경우를 전송하며

[送權舍人景遇, 以敬差官, 赴慶尙道]

하루 저녁 가는 수레에서 『皇華集』⁸⁹⁷⁾ 시를 읊으니

征車一夕賦皇華

897) 황화집(皇華集) : 1450~1633년 동안 24차례에 걸쳐 조선에 온 명나라의 사신과 이들을 迎送한 접대관들이 서로 주고받은 시와 문을 실은 시문집으로 23종이 있으며 각기 板種이 다르다. 1773년 御命에 의해 한 질로 합본하여 50卷으로 간행했다. 활자본이고, 25책 또는 26책으로 分冊했다. 이 과정에서 작품 수를 줄이기도 하여 체제를 통일했으며 拾遺를 첨부시켰다. 使行이 왔던 때의 명나라 연호·간지를 나란히 “皇華集”이라 쓴 것 앞에 붙여 각각의 책이름으로 삼았다(예를 들면 <景泰庚午皇華集>). 皇華란 『詩經』, 小雅 편명인 <皇皇者華>의 준말이다. <皇皇者華>는 천자가 제후국에 사신을 보낼 때 읊었던 시로서, 시의 의미를 기려 책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이 책에 실린 명나라 사신들은 명황제의 즉위나 복위, 황태자의 탄생이나 책봉을 알리는 황제의 詔命을 전달하는 일과 조선 왕에게 시호를 내려주는 일을 주로 했다. 遠接使는 대개 당대의 육조판서·좌참찬·우참찬·좌찬성에서 선발되었고, 詩 作者들은 당대에 문명을 떨친 사람들이었다. 卷9에 실린 祿順의 <朝鮮雜詠> 10首와 이에 대한 徐居正의 차운시는 기행시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당시의 문물을 흥미 있게 묘사했다. 卷10에 실린 董越의 <朝鮮賦>는 우리나라에서 1개월 동안 보고 들은 사실을 賦體로 지은 것으로 부제 아래에 직접 註를 붙였다. 卷16에 실린 唐阜와 史道の <平陽勝蹟>은 평양의 고적과 경치 21곳에 대하여 지은 5언절구 21首를 모아놓은 것이고, 이에 대한 李荇의 차운시 40首가 있다. 卷22에 실린 龔用卿의 <題鄭判書朝天錄>과 오희맹의 <朝天錄序>

이미 진한(辰韓)으로 향한 도로 멀기만 하네.
 오직 나라에 허락한 이 몸 일찍이 알았으니
 다시 집을 떠나라는 명을 받았다 누가 말하랴.
 연못가 정자 시와 술 가을 달빛에 한가하고
 영해(嶺海)의 명성을 저녁놀이 거두어들이네.
 구일(九日) 잠봉(蠶峯)에서 만나기를 바랐으나
 함께 부르는 이가 없어 노란 국화만 바라보네.

已向辰韓道路賒
 早識將身唯許國
 誰言受命更辭家
 池亭詩酒閑秋月
 嶺海聲名捲暮霞
 九日蠶峯期會處
 無人同喚看黃花

2.112. 기해년 2월 26일 사직하고 벽제관(898)에 도착하여 자는데 전날
 인견하는 은혜를 입어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면서 보내다 소 찬성의 시
 에 차운하다.

[己亥二月二十六日拜辭，到宿碧蹄館，前日蒙賜，引見慰諭而遣 次蘇贊成
 韻]

아득히 멀리 가는 기(旆) 서쪽을 향해 가니
 보루에 많은 정 두고 맞이하고 보내는데 익숙하네.
 나그네 되어 마음속의 회포 크게 적막하니
 사람을 만나서 나눈 대화도 분명하지 않네.
 봄에 진흙 길에 뿌리니 조금 미끄럽고
 석양에 구름 헤치니 흔쾌히 맑아졌네.
 몇 만 리 남은 앞길 묻지 마라
 용만(龍灣)은 여기서 천 길 멀리 가야하니.

遙遙征旆向西行
 堠置多情慣送迎
 作客襟懷殊寂寞
 逢人言語未分明
 春泥濺路微成滑
 晚日披雲快放晴
 莫問前途餘幾里
 龍灣此去隔千程

는 鄭士龍의 시집인 『朝天錄』에 관해 쓴 글로서 그를 칭찬하며 그의 시에 대한 특징을 설명했다. 卷34에는 압록강을 건너서부터 肅寧館 · 安定館을 거쳐, 개성·과주·벽제 등을 지나 서울로 들어 오는 도중에 지은 시와 <宿太平館> · <國王餞別慕華館> 등 돌아가는 도중의 감회를 읊은 진삼모의 시 41수가 있다. 詔使의 道程과 이에 대한 접반의 절차를 알 수 있게 해준다. 卷36 끝에 실려 있는 <與遠接使帖>은 詔使 황흥헌과 왕경민이 원접사 李珣에게 보낸 글이다. 다른 편에서 볼 수 있는 조사들의 태도와는 달리 李珣의 인격과 학문에 감동하여 흠모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의 풍속과 지리를 연구하는 데 참고가 될 만한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조선 전기 館閣文學의 흐름을 파악하고, 한국·중국 문학의 授受 관계를 비교문학적 차원에서 고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자료이다. 23종 각각의 『皇華集』과 이를 합본한 『皇華集』은 차이가 있으므로 서지학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898) 벽제관 : 驛院이었던 벽제역의 客館이다. 현재 경기도 고양시 동쪽에 있다.

2.113. **혜음령(899)을 지나며**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過惠陰嶺 次蘇贊成韻]

산에 돌 장군이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 흘러 이끼가 벗겨졌다. 그러므로 말구에서 언급하였다.
 山有石將軍, 歲久莓剝. 故末句及之.

하늘의 요새 참으로 백 팔 띄리를 이루었으나	天險眞成百八盤
촉도(蜀道)900와 진관(秦關)901을 어떻게 하라.	何如蜀道與秦關
언덕을 깎아지른 한줄기 물 얼음으로 기둥을 만들고	懸崖一水冰爲柱
푸른 하늘 지탱하는 못 봉우리 검산(劍山)이 되었네.	撐碧諸峯劍作山
개와 쥐는 절대로 삼일 밤을 울지 않고902)	狗鼠絕無三夜吠
비휴(貔貅)903는 오래 못 사내 한가함을 보내네.	貔貅長遣萬夫閑
관문(關門)을 지키는 돌 장군 있었다 할지라도	守門縱有將軍在
세월이 오래지나 이끼가 절반이나 아롱져있네.	歲久莓苔半已斑

2.114. **임진강을 건너며**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渡臨津 次蘇贊成韻]

봄날이 이미 삼분의 이 지나가니	九十春光已二分
그리움 한이 없어 비스듬히 비친 석양에 기대네.	含思無限倚斜曛
천년의 성곽 연진(煙塵)의 기운 서려있고904)	千年城郭煙塵氣

899) 혜음령 : 현재 파주시 남동쪽에 위치하고 있는 惠陰嶺이다.

900) 촉도(蜀道) : 중국 四川省으로 통하는 매우 험한 길을 말한다.

901) 진관(秦關) : 秦나라의 관문, 函谷關을 말한다.

902) 개와 쥐는 ~ 울지 않고 : 인격이 고상하지 못하고 상스러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惠子相梁, 莊子往見之. 或謂惠子曰: 莊子來, 欲代子相. 惠子恐, 搜於國中, 三日三夜. 莊子往見之曰: 南方有鳥, 其名爲鷦鷯, 子知之乎? 夫鷦鷯發於南海, 而飛於北海, 非梧桐不止, 非練實不食, 非醴泉不飲, 於是, 鷦得腐鼠鷦鷯過之. 仰而視之, 曰: 嚇.”(『莊子』, <秋水>.)

903) 비휴(貔貅) : 표범의 일종이다. 여기서는 周나라 武王을 도와 殷의 紂王을 토멸하여 역성혁명을 성공시킨 姜太公과 같이 훌륭한 인재라는 뜻이다. 무왕의 아버지인 文왕이 사냥을 떠나려고 짐을 찼던바 그 卜辭에 “곰도 아니고 범도 아니고 貔貅도 아니고 얻는 것은 霸王의 보좌이다.”라고 나왔는데, 그날 과연 위수 북쪽에서 낚시질을 하고 있던 呂尙을 얻어 와 결국 周나라를 흥성시켰다고 한다. 여상은 뒤에 태공에 봉하여졌다.

904) 연진(煙塵)의 기운 서려있고 : “煙塵”은 봉화 연기와 전장에서 일어나는 먼지로 전란을 의미한

백리의 산하 비단으로 수를 놓았네.
생애는 범경(泛梗)⁹⁰⁵을 따라 파문히고
신변의 일 한가한 구름을 지고 달리네.
공무(公務)에 기대어 잠깐 청강(淸江)의 의취 취하니
사람을 끄는 세상의 일은 부질없이 저절로 어지럽네.

百里山河錦繡文
汨沒生涯隨泛梗
馳驅身事負閑雲
憑公暫取淸江趣
世故牽人謾自紛

2.115. 임진강 가는 길에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臨津道中 次蘇贊成韻]

둔하고 게을러 먼 재주 이를 수 없어 부끄러우나
외람되이 받은 종사관 일 따라 모심을 하락하였네.
그대는 복상(卜商)⁹⁰⁶의 호련(瑚璉)처럼 마땅히 그릇이 되지만
나는 장주(莊周)의 가죽나무처럼 재목이 못되어 부끄럽다네.⁹⁰⁷
풍류의 회포 쓰려하나 호걸스런 시구 없고
다만 교분만 가지고 깊은 술잔에 의탁하네.
따뜻한 봄에 신묘한 노래로 화답하기 어려움을 알고
하늘에 명주(明珠)⁹⁰⁸를 지니 손에 달빛이 들어오네.

鶻懶慙非致遠才
濫叨從事許追陪
君如商璉宜爲器
我似莊樛媿不材
欲寫風懷無傑句
祇將交契托深杯
陽春妙曲知難和
空負明珠入手來

다. 참고로 杜甫의 <夜>에 “연진이 대궐 문을 들렀으니 / 백발의 씩씩한 뜻 어긋나버렸도다.
[煙塵繞闔闔, 白首壯心違.]”라고 하였다.([搜神後記』卷1 및 『全唐詩』卷230 <夜>.)

905) 범경(汎梗) : 물에 뜬 나무 木梗이다. 정처 없이 떠도는 인생을 말한다. 戰國시대 齊나라 孟嘗君의 고사를 말한다.

906) 복상(卜商)의 호련(瑚璉) : “商”은 孔子의 제자 子夏(506~?)의 이름이다. 魯나라 무성읍의 책임자가 될 정도로 일찍 능력을 인정받았다. “瑚璉”은 孔子의 제자 子貢(이름은 賜)의 전고를 말한다. 子貢問曰: 賜也何如? 子曰: 女器也. 曰: 何器也? 曰: 瑚璉也.”([論語』, <公冶長>.) 여기서는 그대의 재주가 子夏처럼 瑚璉으로 비유할 정도로 훌륭함을 말한다.

907) 나는 장주(莊周)의 ~ 것이 부끄럽네 : “樛媿不材”는 『장자』에 나오는 樛櫟散木의 뜻으로, 재능이 부족한 사람이나 자신의 겸사를 말한다. 惠子が 莊子에게 말하기를, “나에게 큰 나무가 있는데 남들이 가죽나무라고 부른다네. 그 줄기는 울퉁불퉁 웅이가 많아 목재로 쓰기에 맞지 않고 작은 가지들도 오글오글하여 쓸모가 없으므로 길가에 있어도 장인이 거들떠보지도 않는다오. [吾有大樹, 人謂之樛. 其大擁腫而不中繩墨, 其小枝卷曲, 而不中規矩, 立之塗, 匠者不顧.]”(『莊子』, <逍遙游>.)라고 하였다.

908) 명주(明珠) : 明月摩尼의 준말로, 고운 빛이 나는 아름다운 구슬의 빛이 밝은 달과 같으므로 이처럼 말한다. 여기서는 달을 비유하였다.

2.116. 송도(909)에서 『동사집』⁹¹⁰에 차운하다.

[松都 次東槎集韻]

봄바람에 눈물 뿌리며 옛 시절을 찾으니
 흥망이 한번 지나감을 누가 아는지 묻네.
 하늘에 그을린 부귀는 다 살 수 없고
 땅에 가득 찬 잡풀은 단지 터만 있네.
 황량한 성곽 두루 들에 밭 갈고
 적막한 누대 손님은 시를 이루네.
 서리맥수(黍離麥秀)⁹¹¹는 예전부터의 일이니
 길가는 이에게 알리려는 부질없는 생각 말게.

淚灑春風訪古時
 興亡一去問誰知
 熏天富貴渾無處
 滿地蒿萊只有基
 城郭荒涼耕遍野
 樓臺寂寞客成詩
 黍離麥秀從前事
 報道行人莫謾思

2.117. 천수 가는 길에 <벽제>의 운자를 사용하다.

[天壽道中 用碧蹄韻]

어떤 사람이 변방으로 나가는지 우리에게 물으니
 송산(松山)에서 멀리 보내고 맞이하자고 약속 몰래하였네.
 들에 드리운 가벼운 그늘 구름빛으로 싸여있고
 봉우리를 머금은 석양 노을 희미하게 흔들리네.
 이미 많은 군대 깃발 봄을 지내며 젖고
 잠시 기댄 누정 저녁을 따라 맑아지네.
 전날 아침 이별한 이곳에서
 몇 번을 눈 뚫어져라 먼 길 바라보네.

誰人問我出關行
 隱約松山遠送迎
 垂野輕陰籠黯黮
 銜峯落景盪微明
 已多旌旆經春濕
 暫倚樓亭趁晚晴
 此是前朝離別處
 幾回穿眼望長程

909) 송도(松都) : 開城의 옛 지명이다.

910) 동사집 : 1521년 중국사신 唐臯와 史道가 조선에 왔을 때 우리 측의 접반사 李荇, 종사관 鄭士龍·蘇世讓 등 당대의 저명한 시인들과 서로 많은 시를 수답하였는데, 그들이 돌아간 뒤에 그 시들을 묶어 『東槎集』이라 이름한데서 나온 말이다.(『稗官雜記』.)

911) 서리맥수(黍離麥秀) : 黍離麥秀之嘆의 준말로,殷나라가 망한 뒤에 箕子가 옛날 은나라 터를 지나다가 궁실이 모두 무너지고 무성하게 보리 이삭이 팬 것을 보고는 가슴이 아팠는데 곡을 하자니 안 될 일이고 울자니 부녀자와 비슷하게 될듯하여 이에 <麥秀歌>를 지어서 노래하였다고 한다.(『史記』, <宋微子世家>.)

2.118. 금교(912)에서 장성(913)의 시에 차운하다.

[金郊 次張城韻]

펼럭이는 깃발 봄바람 쫓고
 여행길의 봄날 경치 가는 곳마다 같네.
 진애(塵埃)를 채운 얼굴 하얀 귀밑머리 엄습하고
 술잔을 따라 나는 붉은 얼굴 빌려오네.
 긴 여정에서 한가로이 세월을 소요하며
 짤막한 글귀 속에 산천을 거두어들이네.
 화봉(華峯)⁹¹⁴으로 머리를 돌려 가니 점점 멀어져
 고향에 돌아가려는 계획은 이미 부질없게 되었는데.

飄飄征旆逐春風
 客路煙花處處同
 滿面塵埃侵鬢白
 隨身杯酒借顏紅
 閑消日月長途上
 收入山川短句中
 回首華峯行漸遠
 故園歸計已成空

2.119. 금교 가는 길에 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金郊道中 次演之韻]

공의 시 많은 자태 봄 구름처럼 무성하고
 서법 바로 전해 팔분체(八分體)⁹¹⁵를 생각하네.
 산천의 말 머리에 담론이 머무르고
 숲의 하늘가 향훈(香薰)⁹¹⁶이 엄습하네.
 임금은혜는 국에 간 맞추는 솜씨⁹¹⁶ 새로 시험하니
 중국에서는 번거롭게 임금을 보필하는 글 기다리네.
 막하의 대인은 영질(郢質)⁹¹⁷이 있으니

公詩多態藹春雲
 書法仍傳顧八分
 馬首山川留咳唾
 天涯草木襲香薰
 承恩新試調羹手
 華國須煩補袞文
 幕下有人存郢質

912) 금교(金郊) : 금교역은 王京에서 서북쪽으로 겨우 30리 거리에 있다.(權近, <金郊驛樓記>.)

913) 장성(張城) : 舍人 張城(생물연대 미상)을 말한다. 세조때 문신이다. 그의 시 <太平館>이 있다.

914) 화봉(華峯) : 지명인지 산명인지 정확한 위치를 상고하지 못하였다. 이곳에서는 문맥으로 산의 이름으로 보고 화악산으로 추측된다.

915) 팔분체(八分體) : 漢字 書體의 하나이다. 隸書에 篆書를 가미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낸 것으로, 중국 漢나라의 蔡邕이 만들었다고 한다.

916) 국에 간 맞추는 솜씨 : 湯임금이 어진 신하 傅說에게 국을 만드는 데 너는 소금과 매실이 되어 달라는 고사이다. “若作和羹，爾惟鹽梅.”(『書經』, <說命篇>.)

917) 영질(郢質) : 郢 땅의 도끼 바탕이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詩文의 수정을 의미한다. 春秋時代 楚나라 서울 郢 땅의 사람이 백토를 코끝에 매미 날개만큼 얇게 바르고 匠石을 불러 그 흠을 닦아 내게 했더니, 匠石이 바람이 휘휘 나도록 도끼를 휘둘러 그 흠을 완전히 닦아 냈으나, 그 사람의

신묘한 기술 한번 휘두르는 도끼에 달려있네.

神工唯在一揮斤

2.120. 보산 가는 길에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寶山道中 次蘇贊成韻]

해가 이미 떠오르니 쇠잔한 꿈 깨어나고
 돌은 앙상하나 길을 가며 밟는데 익숙하네.
 하늘가 종적(蹤迹) 의당 두루 가고
 해안가 산천은 일찍이 보이지 않네.
 긴 숲은 안개에 가리어 푸른빛이 사라져가고
 깎아지른 절벽 하늘을 능가하여 푸른빛이 강직하네.
 재주 쇠하여 해낭(奚囊)⁹¹⁸ 없음 오래전 알고
 자연에 보답하려고 하나 감사할 길이 없었네.

殘夢醒來日已昇
 登途慣踏石稜稜
 天涯蹤跡行須遍
 海曲山川見未曾
 隱霧長林青滅沒
 凌空削壁碧崢嶸
 才衰久覺奚囊乏
 報答風光謝不能

2.121. 봉산군⁹¹⁹에서 유숙하며 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宿鳳山郡 次演之韻]

웅장하게 서린 용호(龍虎) 변방을 안고 이루니
 봉황(鳳凰)은 천 년 전에 가고 다만 산만 남아있네.
 봄을 좇아 바라보는 눈 곡령(鶴嶺)⁹²⁰은 희미하고
 꿈을 따라 돌아오는 녀 공경(公卿)의 반열⁹²¹에 들었네.
 구름은 서쪽 강 너머 신기루로 이어지고
 하늘은 북극 간 봉(鵬)새의 길처럼 넓어졌네.
 날이 저무는 긴 길에 게을리 말을 몰고

雄蟠龍虎擁成關
 鳳去千年但有山
 望眼逐春迷鶴嶺
 歸魂隨夢入鵷班
 雲連蜃市西江外
 天闊鵬程北極間
 日晚長途驅馬倦

코는 조금도 다치지 않았다는 고사가 있다.(『莊子』, <徐无鬼>.)

918) 해낭(奚囊) : 詩草를 넣어두는 주머니를 말한다. 唐나라 李賀가 명승지를 구경하며 얻은 시를 奚奴가 뒤따라가며 古破錦囊에 넣은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919) 봉산군(鳳山郡) : 황해북도 서부의 사리원시를 둘러싸고 있는 군이다.

920) 곡령(鶴嶺) : 開城에 있는 松嶽山の 異稱이다.

921) 공경(公卿)의 반열 : “鵷班”은 질서 있게 날아다니는 새이므로 公卿의 반열을 말한다.

고향은 흰 갈매기 포구인양 한가로워라.

故鄉閑殺白鷗灣

2.122. 삼진날 통선령⁹²²)에서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三月三日 洞仙嶺 次蘇贊成韻]

변방의 산하 멀고멀어 돌아오는 사람 적으니
소식이 서쪽에서 오니 과연 옳을까 그들까.
말 위에서 잠깐 졸아 놀라는 때 있고
객중에서 겨울옷 바꾸는 일 많다네.⁹²³
하늘가에 세월 좋은 때 자주 오니
바닷가에 올라가 석양을 쉽게 보네.
낙수(洛水)와 계산(稽山)⁹²⁴ 보이는 곳 없으니
답청(踏青)하는 마음 더욱 어긋났네.

關河迢遞少人歸
消息西來果是非
馬上有時驚小睡
客中多事換寒衣
天邊歲月頻佳節
海角登臨易落暉
洛水稽山無見處
踏青心況轉成違

2.123. 족금계⁹²⁵)에서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簇錦溪 次蘇贊成韻]

멀고도 먼 변방 산하의 길 희미하고자 하나
진애(塵埃)에 눈을 뜨니 문득 맑은 계곡이네.
가슴을 헤치니 가는 바람 북쪽에서 시원하고
의자에 기대니 점점 해는 서쪽으로 따라가네.
천리의 저문 구름 하늘 밖 멀어지고

迢遞關河路欲迷
塵埃開眼忽清溪
披襟快得風微北
倚席從教日漸西
千里暮雲天外遠

922) 통선령 : 황해도 봉산군에 있는 洞仙嶺이다. 황해도와 함경도를 잇는 중요한 관문인 동시에 군사적 요새로 기능했다.

923) 객중에서 겨울 ~ 일 많다네 : 음력 10월 1일 寒衣節을 말한다. 한의절은 亡者(조상을 포함)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추위에 떨지 말라고 겨울옷을 태워 보내드리는 날을 말한다.

924) 계산(稽山) : 중국 浙江省 紹興市の 남동부에 있는 산이다. 뭇나라 왕 夫差가 越나라 왕 勾踐을 물러나게 한 땅으로 夏나라의 禹가 제후와 만났던 곳으로도 전해진다.

925) 족금계 : 簇錦溪는 황해도 황주군의 대동강 수로와 인접하고, 서북쪽 대로는 평양의 길목이 되어 예로부터 국방의 요충지로 중요시되었다. 극성진, 덕월산성, 정방산성, 황주읍성 등 무수한 요새들이 있다.

쌍주(雙洲)⁹²⁶의 봄풀 눈 안에 가지런하네.
나그네의 마음 묵묵(默默)하여 보내기 어려우
은빛도 무방하니 나를 향하여 고개 숙이네.⁹²⁷

雙洲春草望中齊
羈懷默默難容遣
銀櫛無妨向我低

2.124. 삼진날 신 선위⁹²⁸)의 시에 차운하다 이름은 광한이다.

[三月三日 次申宣慰韻 名光漢]

좋은 계절 삼진날 하늘가에서
문득 고향의 도화수(桃花水) 단술 생각나네.
눈에 선한 환락은 이미 다 사라져가니
여행 속에 회포를 어찌 오래 견디랴.
남은 찻잔으로 밀려오는 졸음을 자주 깨우고
술이 있을지라도 우수는 이기지 못하겠네.
눈을 다하여 긴 강가의 꽃다운 풀빛을 바라보며
강남과 강북의 봄 마음을 보네.

天邊佳節三月三
忽憶故園花水酣
眼中歡樂已全少
客裏情懷寧久堪
空餘茶碗睡頻破
縱有酒兵愁未戡
極目長洲芳草色
春心江北與江南

역(驛)의 정자 깊은 곳의 매화 한그루에게
남쪽 가지는 꽃이 피었는가를 물어보네.
차고 따뜻한 기후가 두세 달
안개비에 서너 꽃봉오리가 살포시 피었네.
타향 산천은 유달리 좋아지지 않았지만
고향 죽순과 고사리는 응당 싹이 돋았겠네.
고향의 정과 나그네의 생각 둘은 끝이 없고

驛亭深處梅一樹
爲問南枝花未花
寒暄氣候仲季月
煙雨開殘三四葩
異域山川殊未好
故園筍蕨應已芽
鄉情羈思兩無極

926) 쌍주(雙洲) : 慶會樓 아래의 못을 環壁 또는 玉液이라 하고, 서쪽의 작은 섬을 雙洲라 하고, 百岳을 고쳐 拱極이라 하고, 仁王을 彌雲이라 하였다.(『大東野乘』, <稗官雜記> 第4 참조.)

927) 은빛도 무방하니 ~ 고개 숙이네 : 옛날부터 於潛지방 여인들은 은으로 만든 한 자나 되는 큰 빗을 머리에 꽂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은빗을 머리에 꽂은 美人을 뜻한다. “산사람은 취하고 나면 철관을 떨어뜨리고 / 골짜기 여인들 옷을 적엔 은빗이 나직하구나. [山人醉後鐵冠落, 溪女笑時銀櫛低]”(蘇軾, <於潛令刁同年野翁亭>, 『蘇東坡詩集』 卷9)

928) 신 선위(申宣慰) : 申光漢(1484~1555)을 말한다. 성종~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高靈, 자는 漢之 또는 時晦, 호는 駱峰·企齋·石仙齋·靑城洞主이다. 저서로 『企齋集』이 있으며, 시호는 文簡이다.

당신의 시를 다 읊으니 두 귀밑머리가 무성하네.

吟罷公詩雙鬢華

2.125. 대동강 배에서 다시 앞의 시에 차운하다.

[大同江舟中 復次前韻]

종소리 삼엄한 성에 삼경을 알리는데
 연이은 술잔에 깊이 취하네.
 공명은 오래 전 장량(張良)⁹²⁹이 만족을 깨달았고
 속된 일은 본래 혜강(嵇康)⁹³⁰이 감당할 일 아니었네.
 마음의 눈은 청춘과 도리어 짝이 되니
 나른한 이의 낮잠⁹³¹을 정녕 누가 이기랴.
 바람을 쬐며 다시 누각에 올라 바라보니
 구름 기운이 멀리 화악산(華岳山) 남쪽으로 이어졌네.

鍾鼓嚴城報夜三
 留連杯酒倚沈酣
 功名久覺子房足
 俗事元非中散堪
 惱眼青春還是伴
 困人黃嬾定誰戡
 臨風更寄登樓目
 雲氣遙連華岳南

절기는 청명절(清明節)에 가까운데 집에 없으니
 고향의 꽃은 몇 그루나 피고 졌을까.
 나그네 근심 암암(黯黯)하여 강가에 풀을 잇고
 병든 눈은 몽몽(朦朦)하여 들에 꽃봉오리 겁주네.
 시단(詩壇)은 얼마나 옛 빛을 찾고
 차 솔은 한가로이 새 순을 시험하네.
 객중에 어느 곳이 봄 경치가 가장 좋은가
 세월이 귀밑머리 희끗희끗 올라옴만 깨달았네.

節近清明不在家
 幾株開落故園花
 羈愁黯黯連江草
 病眼朦朦怯野葩
 詩壘幾多尋舊債
 茶鐺閑却試新芽
 客中何處春深好
 唯覺年華上鬢華

929) 자방(子房) : 중국 漢나라의 건국 공신 張良(?~B.C.168)을 말한다. 陳勝·吳廣의 난이 일어났을 때 劉邦의 진영에 속하였으며, 고조 유방을 도와 한나라 창업에 힘썼다. 선견지명이 있는 策士로서 蕭何·韓信과 함께 한나라 창업의 三傑로 불린다.

930) 혜강(嵇康) : “中産”은 죽림칠현 중 魏나라 때 中散大夫로 있던 嵇康(223~262)을 말한다. 그의 작품 중 유명한 <與山巨源絕交書>가 있다.

931) 낮잠 : “黃嬾”는 梁代의 어느 名士가 書籍을 黃嬾라고 稱呼하니, 대개 精神을 수양하는 내용이 다. 여기서는 낮잠을 의미한다.

2.126. 3월 5일 임금의 생일을 맞아 망궐례⁹³²)를 행하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三月初五日 行誕日望闕禮 次蘇贊成韻]

이날 도로가를 몰고 달리며	此日馳驅道路邊
궁궐 오색구름 하늘 오래 바라보네.	九重長望五雲天
마음은 먼 천 리 봉궐(鳳闕) ⁹³³)에 달려 있으나	心懸鳳闕遙千里
몸은 조정의 반열에서 또 일 년이나 멀어졌네.	身隔鵷班又一年
문득 의관을 갖추고 함께 절하고 춤추는 모습 생각하니	却憶衣冠同拜舞
말 위에서 홀로 서글픈 생각을 건디지 못하였네.	不堪鞍馬獨傷憐
먼 타향에서 봉인(封人) ⁹³⁴)은 축하드리려고 하는데	遐鄉擬獻封人祝
서쪽 바다와 남쪽 산 새벽안개 끼여 있네.	西海南山接曙煙

2.127. 대동강 배에서 임사수⁹³⁵)의 시에 차운하다 이름은 형수이다.

[大同江舟中 次林士遂韻 名亨秀]

청강(淸江)의 북과 나팔소리 누선(樓船)을 안으니	淸江鼓角擁樓船
뼈에 사무친 맑은 바람이 차가워 잠이 오지 않네.	徹骨淸風冷不眠
멀리서 온 나그네 자주 바뀌는 절기에 절로 아프고	遠客自傷頻節序
옆에 있는 사람이 신선인가 문득 의아해 하네.	傍人却訝是神仙
길게 읊으니 괴로운 시정(詩情)이 더해 번뇌하고	長吟苦被詩情惱
떠나려고 하나 도리어 주흥(酒興)을 만나 끌리네.	欲去還遭酒興牽
석양이 질 무렵 앞의 산봉우리 무한히 좋으니	落日前峯無限好
가는 곳마다 자리를 옮겨도 무슨 상관있겠는가.	何妨隨處座成遷

932) 망궐례(望闕禮) : 궁궐이 멀리 있어서 직접 궁궐에 나아가서 왕을 배알하지 못할 때 멀리서 궁궐을 바라보고 행하는 예를 말한다.

933) 봉궐(鳳闕) :漢나라 때 宮闕 이름이다. “其東則鳳闕，高二十餘丈。”(『史記』, <孝武本紀>.)

934) 봉인(封人) : 국경을 지키는 벼슬 이름이다.

935) 임사수 : 林亨秀(1504~1547)를 말한다. 중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平澤, 자는 士遂, 호는 錦湖이다. 생전에 湖堂에서 함께 공부하였던 李滉·金麟厚 등과 친교를 맺고 학문과 덕행을 닦았다. 문장에도 뛰어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저서로는 『錦湖遺稿』가 있다.

2.128. 부벽루936)

[浮碧樓]

멀리까지 바라보이는 긴 물가 풀빛 푸르니
 한없는 안개와 파도 고향의 정이라네.
 조천석(朝天石)⁹³⁷ 어느 곳에 사람이 있는가
 부벽루(浮碧樓) 하늘 달만 홀로 밝게 비추네.
 고국은 천년 이서(離黍)의 한 서리고
 강성(江城)은 한번 낙매화곡(落梅花曲)이 울리네.
 난간에 기대어 자주 회고(懷古)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근심 듨성듨성 생겨나네.

極目長洲草色青
 煙波無限故鄉情
 朝天石在人何處
 浮碧樓空月獨明
 故國千年離黍恨
 江城一曲落梅聲
 憑欄不用頻懷古
 愁緒多端種種生

2.129. 부벽루에서 임사수가 흘러듯 빨리 써 내려간 시에 차운하다.

[浮碧樓 次林士遂走筆韻]

장안에서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길 요원하여
 멀리서 온 나그네 다정히 누각에 오래 기대네.
 삼월 봄날 풍경은 모두 타향이요
 백년 전쟁에 언덕만 황폐해졌네.
 풍류는 변화한 지역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학(笙鶴)은 한만(汗漫)한 노닐⁹³⁸에 희미하네.

長安南望路悠悠
 遠客多情久倚樓
 三月煙花渾異境
 百年征戰但荒丘
 風流落魄繁華地
 笙鶴依稀汗漫遊

936) 부벽루 : 평양시 牡丹臺 밑 清流壁 위에 있는 浮碧樓이다. 대동강 물위에 떠 있는 느낌을 주는 명소이다.

937) 조천석(朝天石) : 東明王의 九梯宮인 永明寺 남쪽 白銀灘에 바위가 있는데 밑물에는 묻히고 썩 물에는 드러나는데 이를 朝天石이라고 한다.(『世宗實錄地理志』.)

938) 생학(笙鶴) : 笙簧과 白鶴으로 신선이 타는 학을 말한다. 옛날의 仙人 王子喬는 바로 周 靈王의 대자 째으로 생황 불기를 좋아하여 곧잘 봉황의 울음소리를 내곤 하였는데, 仙人 浮丘公을 따라 嵩山에 올라가 仙道를 닦았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백학을 타고 緱氏山 꼭대기에 머물다가 손을 흔들며 사람들과 작별하고는 신선이 되어 승천하였다는 전설이 전한다.(『列仙傳』, <王子喬>.) “汗漫遊”는 세상 밖을 벗어나서 노니는 신선의 漫遊를 말한다. 秦 나라 盧敖가 若士라는 仙人으로부터 “나는 汗漫과 九垓 밖에서 노닐 약속을 했으니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설화가 전한다.(『淮南子』, <道應訓>.)

천리에서 서로 만났는데 도리어 이곳에서 이별인가
눈에 보이는 신세는 한 곡조 부구가(浮漚歌)⁹³⁹라네.

千里相逢還此別
眼看身世一浮漚

2.130. 신 선위의 시에 차운하다

[次申宣慰韻]

지나가는 세월은 당겨도 돌아오지 않고
안중화(眼中花)⁹⁴⁰는 참으로 날아가는 재를 쫓네.
봄이 다하여 바람이 다 불까 고층을 당하고
땅이 멀어 북은 원래 타개(打開)할 수 없네.
두목(杜牧)⁹⁴¹은 강호에서 응당 녀을 떨어뜨리고
유랑(劉郎)은 늙고 쇠약하여 다시 돌아왔네.
동군은 부지런히 보호하려는 마음 있으니
다른 날 잠시 머물러 좋은 중매 맺으리라.

鼎鼎光陰挽不回
眼中花信逐飛灰
春殘苦被風吹盡
地遠元無鼓打開
杜牧江湖須落魄
劉郎衰白再歸來
東君有意勤相護
留向他時結好媒

2.131. 백상루⁹⁴² 현판의 시에 차운하다 10수

[百祥樓 次板上韻 十首]

봄바람과 멀리 온 나그네 강가 백상루(百祥樓)에 오르니
아득하고 아련한 변방의 산하 생각을 거둘 수 없네.
밝은 태양은 북극하늘에 바로 자리하고

春風遠客上江樓
杳杳關河思不收
白日正懸天北極

939) 부구가(浮漚歌) : 樂普和尚의 <浮漚歌>를 말한다. 樂普元安(834~898)은 唐나라 때 스님으로 청원의 문하이다.

940) 안중화(眼中花) : “眼花”라고도 하는데, 눈이 흐릿한 증세를 말한다.

941) 두목(杜牧) : 杜牧(803~853)은 晚唐前期의 시인이다. 26세 때 진사에 급제하여, 宏文館校書郎이 되고, 黃州·池州·睦州 등의 刺史를 역임한 후, 벼슬이 中書舍人까지 올랐다.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 唐나라의 쇠운을 만회하려고 무한히 노력하였다. 산문에도 뛰어났지만 시에 더 뛰어났으며, 七言絶句를 잘 했다. 만당시대의 시인에 어울리게 말의 수식에 능했으나, 내용을 보다 중시하였다.

942) 백상루 :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에 있는 百祥樓이다. 아래로는 청천강이 흐르고 멀리 묘향산 향로봉이 바라보인다.

푸른 파도는 서쪽 바닷가에 가까워졌네.
 미친 듯 흐트러진 양쪽의 귀밑머리를 의지하니
 돌아가는 낚싯배 한 척이라도 없지는 않겠지.
 눈은 향기로운 풀 너머 석양에 머물고
 긴 강가를 두른 안개 숲은 흐릿흐릿하네.

蒼波近接海西頭
 顛狂賴有雙蓬鬢
 歸去非無一釣舟
 目斷夕陽芳草外
 依微煙樹繞長洲

높은 백상루(百祥樓)는 사계절마다 더없이 청아하고
 멀리서 온 나그네가 올라가 보아도 기이하네.
 나아감과 물러남을 근심한 것은 지난날의 뜻이요
 옛 사람의 시는 천지에 물처럼 떠 있네.
 변방의 관문에 봄이 차가우니 피꼬리의 울음소리가 적고
 하늘의 구름길이 끊어지니 기러기가 더디게 이르네.
 난간에 기대어 은은한 옥피리를 불지 말라
 소리 소리마다 고향생각을 일으킨다네.

高樓清絕四時宜
 遠客登臨亦一奇
 進退懷憂平昔志
 乾坤浮水古人詩
 春寒關塞鶯啼少
 路斷雲天雁到遲
 莫倚欄干飄玉笛
 聲聲惹起故園思

강가의 누각이 홀로 우뚝 솟아 강물이 깊으니
 지난날의 영웅호걸 몇 번이나 올라갔던고.
 유유(悠悠)한 구름의 그림자는 천 년의 발자취요
 묘묘(杳杳)히 안개 낀 강은 만 리의 마음이로다.
 마음은 향기로운 술이 백옥 잔을 채우니
 평평한 길은 여비가 떨어져도 두렵지 않네.
 석양이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 용의 아우성이 들려오니
 응당 은자(隱者)를 위해 고심한 시가(詩歌)를 도와주네.

江閣巋然江水深
 英雄過去幾登臨
 悠悠雲影千年跡
 杳杳煙波萬里心
 美酒唯懷傾白玉
 平途不怕盡黃金
 夕陽泓下聞龍吼
 應爲幽人助苦吟

한줄기 강물 괄괄 흘러 푸른 하늘에 요동하니
 맑은 물결에 석양의 붉은 빛 거꾸로 쏟아지네.
 푸른 산은 장간(長干)⁹⁴³ 너머로 은은히 비치고
 하얀 새는 아득한 안개 속에서 날아오네.
 이별의 길목에 절류곡(折柳曲)⁹⁴⁴을 당기어 많이 듣고

一水溶溶動碧空
 晴波倒射夕陽紅
 靑山隱映長干外
 白鳥飛來杳靄中
 別路聞多攀柳曲

943) 장간(長干) : “長干里”는 상인과 원주민이 混居하는 마을이라는 뜻이다.

944) 절류곡(折柳曲) : 고대의 악부 가운데 하나인 <折楊柳曲>으로 버들가지를 꺾으면서 이별하는

강성(江城)에는 낙매화곡(落梅花曲)의 바람이 다 불었네.
 유유(悠悠)한 속진(俗塵)의 세상 일이 끝이 없으니
 흐르는 물을 보고 몇 번이나 다시 마음에 대하여 물었네.

江城吹盡落梅風
 悠悠塵世無窮事
 借問臨流意幾重

풀은 천리에 이어져 무성하게 푸르고
 그리움은 아득하여 저문 하늘에 막혀 있네.
 웅장한 제도로 누대 지으니
 좋은 풍경 시절도 청명하네.
 경승지를 거두어 시재(詩材)로 채우려고 하니
 긴 강에서 나그네 보내는 배를 어떻게 해볼까.
 황급히 말에 올라 변방 밖으로 가니
 부평초 같은 신세 너무도 가엾어라.

草連千里碧芊綿
 雲樹茫茫隔暮天
 結構樓臺雄制度
 清明時節好風煙
 欲收勝景充吟料
 其奈長江送客船
 上馬匆匆關外去
 浮萍身世絕堪憐

구름이 걸어가는 화려한 누각 맑은 강물이 흐르고
 스무 해 동안 이름만 듣고 비로소 한번 지나가네.
 상강(湘江) 구비 깊은 밤에 옛 거문고 켜는데
 주원(周原)에 넉넉한 비 새 벼를 자라게 하네.
 시주머니는 시편 많음을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승지(勝地)는 도리어 경물(景物) 많음 싫어하네.
 바쁜 가운데에 한가함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니
 성사(星槎)⁹⁴⁵가 가벼운 물결에 뜬들 대수리요.

峯雲華構倚清沱
 廿載聞名始一過
 湘曲夜深彈古瑟
 周原雨足長新禾
 囊貧不怪詩篇富
 地勝翻嫌景物多
 忙裏得閑眞樂事
 星槎遮莫泛輕波

풍광(風光)을 수습해도 시를 공부 못하니
 수당(隋唐)의 유적은 이미 공허하게 되어버렸네.
 끊어진 언덕 푸른 풀은 자라나 아직 남고
 비긴 석양 붉은 우리 비추어 오래 머무네.
 기자(箕子)의 나라에 삼 년을 머무르니

收拾風光句未工
 隋唐遺跡已成空
 唯餘斷壘生青草
 長有斜陽照絳櫳
 留滯三春箕子國

아쉬운 정을 말한다.

945) 성사(星槎) : 은하수를 건너는 뗏목이란 뜻으로 사신의 행차를 말한다. 옛날에는 바다와 은하수가 서로 통해 있어서 왕래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이 뗏목을 타고 여러 날 가서 은하수에 도착하여 견우와 직녀를 만났다는 전설에서 유래하였다.(『博物志』 卷3)

범왕궁(梵王宮)⁹⁴⁶ 칠불(七佛) 황망하네.
 반나절 한가함 흠치어 앞길을 잊으니
 객중에 있는 우리 행차(行次) 누가 인도하랴.

荒茫七佛梵王宮
 偷閑半日忘前路
 誰道吾行在客中

흰 구름과 황학은 마음이 유유하니⁹⁴⁷
 꽃다운 풀과 맑은 냇물 나그네 눈동자에 들어오네.
 난초 잎 바람 따라 포구에 향기 가득하고
 복숭아꽃 물결 불어나 누대의 물에 떠다니네.
 홍진(紅塵)의 구역 바로 삼천 세계 떨어져 있고
 신선의 지경 멀리 열 두 대륙을 이었네.
 이로부터 연기 자욱한 강가 한없이 좋은데
 최랑(崔郎)⁹⁴⁸은 오늘도 외람되게 근심 생겼다네.

白雲黃鶴意悠悠
 芳草晴川入客眸
 蘭葉風來香滿浦
 桃花浪漲水浮樓
 塵區正隔三千界
 仙境遙連十二洲
 自是煙波無限好
 崔郎當日枉生愁

멀리 유람하며 누대에 오르지 않는 곳 없으니
 산하의 곁과 속 웅장하구나.
 네 마리 말 다행히 함께 천리 가니
 한 해에 몇 번이나 돌아올 수 있을까.
 절기 순서 아침이 도리어 저녁이니 마음 놀라고
 바람에 꽃이 지다가 또 피니 눈이 번뇌하네.
 서리 같은 귀밑머리 번거로운 때 응당 술 보냈는데
 소릉(少陵)⁹⁴⁹은 무슨 일로 술잔을 멈추고자 하는가.

遠遊無處不登臺
 表裏山河亦壯哉
 四牡幸同千里去
 一年能得幾回來
 驚心節序朝還暮
 惱眼風花落又開
 霜鬢繁時須酒遣
 少陵何事欲停杯

마루를 의지하여 옛 산천과 방불(彷彿)하니
 만 리에서 와 노니는 일 어찌 우연이겠는가.
 서쪽 변방에서 또다시 남쪽 산고개 달을 만나고
 동쪽 누대에서 북쪽 강의 안개를 오래 생각하네.

憑軒彷彿舊山川
 萬里來遊豈偶然
 西塞又逢南嶺月
 東臺長憶北江煙

946) 범왕궁(梵王宮) : 大梵天이 머무는 궁전이니, 절이나 불당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947) 흰 구름과 ~ 마음이 유유하니 : 崔灑의 <黃鶴樓>에서 온 말이다. “昔人已乘黃鶴去, 此地空餘黃鶴樓. 黃鶴一去不復返, 白雲千載空悠悠. 晴川歷歷漢陽樹, 芳草萋萋鸚鵡洲.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崔灑, <黃鶴樓>.)

948) 최랑(崔郎) : <黃鶴樓>의 “日暮鄉關何處是, 煙波江上使人愁.”를 근거하여 저자 崔灑를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949) 소릉(少陵) : 杜甫의 字이다.

천 겹의 숲 바라보는 눈이 아득하고
일엽편주 돌아가는 마음 출렁거리네.
흥이 다하여 술이 깨니 어부의 피리소리 늦어져
끝없는 풍랑소리만 하늘에 남아 울려오네.

悠悠望眼千重樹
漾漾歸心一葉船
興罷酒醒漁笛晚
無端風浪欲粘天

우리 정자는 양천에 있다. 남쪽에 있는 산을 “남령”이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강을 “북강”이라고 불렀다.

吾亭在陽川，南有山名曰南嶺，北有水名曰北江。

2.132. 서울로 부임하는 정 동지 인보(950)에게 이별하며 주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이름은 만중이다.

[贈別鄭同知仁甫赴京 次蘇贊成韻 名萬鍾]

연산(燕山)951이 한눈에 바라다보여 푸른 하늘 나직하고
지형은 서쪽 변방을 다하고 다시 서쪽으로 향하였네.
은하수는 아스라이 남쪽으로 가서 날개 펴고
변방의 성 굽고 평평하니 북쪽에서 오는 발굽모양이네.
하늘가 나그네 함께 분주하고
여행 중 이별 배나 서글프네.
학야(鶴野)와 용만(龍灣)에서 서로 헤어진 뒤
시통(詩筒)952에 어느 날 새 시를 부치려나.

燕山一望碧空低
地盡西邊又向西
雲漢微茫南去翼
關城蹢躅北來蹄
天涯羈旅同奔走
客裏分離倍慘悽
鶴野龍灣相隔後
詩筒何日寄新題

950) 정 동지 인보 : 鄭萬鍾을 말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州, 자는 仁甫, 호는 棗溪이다. 之夏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繼禹이고, 아버지는 允績이며, 어머니는 申子杠의 딸이다.

951) 연산(燕山) : 현재 충청북도 청원 지역의 옛 지명이다.

952) 시통(詩筒) : 詩客이 漢詩의 韻頭를 얹은 대나무 조각에 써넣어 가지고 다니던 작은 통을 말한다.

2.133. 서울로 부임하는 심 첨추 맹용을 또 이별하며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又別沈僉樞孟容赴京 次蘇贊成韻]

도로 곁에서 이별할 줄 어떻게 알고	那知離別道途傍
장정(長亭) ⁹⁵³ 을 석양에 이르니 사랑스럽네.	爲愛長亭到夕陽
구천(九天)의 대궐문에서 아침저녁으로 조회하고	閭闔九天朝日月
만국의 의관으로 제항(梯航) ⁹⁵⁴ 하여 접대하네.	衣冠萬國接梯航
변방의 산하에서 함께 부평초 되어 떠다니고	關河同作萍流轉
그리운 마음을 멀리 길에서 나누어 아득하네.	雲樹遙分路渺茫
서로 객중에서 전송하여 줄만한 게 없으니	相送客中無可贈
단지 시구를 가지고 행낭(行囊)을 붙여주네.	只將詩句寄行囊

2.134. 진하사⁹⁵⁵ 홍중숙⁹⁵⁶에게 부치어 주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이름은 신이다.

[寄贈進賀使洪重叔 次蘇贊成韻 名慎]

타향에서 게다가 이별하는 사람 되었고	他鄉又作別離人
비는 관서(關西)지방 길가의 먼지 적시네.	雨浥關西路上塵
천리를 점점 이루려 멀리멀리 가고	千里漸成行遠遠
일봉(一封) ⁹⁵⁷ 을 어떻게 자주자주 부칠 수 있나.	一封那得寄頻頻
용만(龍灣)과 연산(燕山)의 달은 멀지 않는데	龍灣不隔燕山月

953) 장정(長亭) : 멀리 떠나가는 사람을 전송하던 곳을 가리킨다.

954) 제항(梯航) : 梯山航海의 준말로, 험한 산에는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고 바다에는 배를 타고 건너간다는 뜻이다. 전하여 아주 먼 지방에 이른다는 말이다.

955) 진하사(進賀使) : 중국 황실에 경사가 있을 때 보낸 임시 使節을 말한다. 황제의 등극이나 황태자, 황후 등의 책립 및 외적의 평정 따위를 축하하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956) 홍중숙 : 洪愼을 말한다. 중종 때의 문신으로, 자는 重叔, 본관은 南陽이다. 1528년 平安都事로 재직하였고, 이후 1539년에는 高皇后·皇祖·皇天 등의 尊號를 올렸던 것을 하례하기 위한 進賀使가 되어, 沈連源·鄭萬鍾 등과 함께 중국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957) 일봉(一封) : 漢나라 제도에 조정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모두 公家의 마차를 댔는데, “一封”은 이때 가지고 가는 어사대부의 인장으로 봉한 1자 5치의 나무로 된 傳信을 말한다.(『漢書』卷12 <平帝紀> 및 『古今事文類聚 前集』卷29 <仕進部 聘召 一封輶車>.)

학야(鶴野)에서 압록강의 봄을 멀리서 이었네.
여기서 떠나가면 그대는 다시 멀다고 말하지 마라
아직 돌아갈 수 없는 몸이나 하늘가에서 함께하니.

鶴野遙連鴨水春
此去莫言君更迢
天涯同是未還身

2.135. 납청정(958)의 옛 감회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納清亭感舊 次蘇贊成韻]

계산(溪山)⁹⁵⁹에 납청정(納清亭) 둠을 받아들여
자양(紫陽)이 일찍이 여기서 정자(程子)의 머물음을 위하였네.⁹⁶⁰
안개와 구름에 굳게 갇혔다고 어찌 기다림이 없겠는가
형승지(形勝地)는 사람으로 인하여 처음 이름을 드날리네.
진토(塵土)에서 십년 머리는 희어지려고 하고
창랑(滄浪)⁹⁶¹의 한 곡조 눈이 두루 밝아지네.
납청정에서 얼마나 흥금을 털어 놓았던가
다시와서보니 옛 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네.

頷略溪山揭納清
紫陽曾此爲淹程
雲煙固鑄寧無待
形勝因人始擅名
塵土十年頭欲白
滄浪一曲眼偏明
披襟納得清多少
不獨重來有舊情

공의 시에는 ‘슬픈 마음이 다시 온다는’ 말이 있다. 그러므로 말구에서 언급하였다.
公詩有重來愴情之語，故末句及之

958) 납청정 : 평북 가산군에 있는 納清亭이다.

959) 계산(溪山) : 朱子の 아버지 韋齋 朱松이 생전에 이곳에 와 보고는 그 일기에 “考亭의 溪山이 맑고 그윽하여 卜居할 만하다.”라고 적어 두었는데, 朱子가 그 뜻을 이어 63세 6월에 滄洲精舍를 낙성하여 만년에 거처했던 곳이다.

960) 자양(紫陽)이 일찍이 ~ 머물음을 위하였네 : 『溪山記善錄』을 참조하면, 朱子가 『大學』經文章句 및 補亡章에 나오는 ‘物格’에 관한 程子의 뜻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大學經文章句及補亡章釋物格之義曰：物理之極處無不到。又曰衆物之表裏精粗無不到。此到字非自彼到此之義，乃理到情到造得到之到。(此程子語，言足目俱到，無所不盡。)蓋與盡字義同。(朱子曰：格盡也。格物而至於物，則物理盡。)言格物而至於物之極，則物之理到盡無餘矣。”(『葛庵集』卷12 <申明仲 益槐에게 답함 무인년>, 참조.)

961) 창랑(滄浪) : 중국의 강 이름이다. 楚나라 屈原이 모함을 받고 滄浪으로 귀양 가서 어부를 만나 주고받은 대화를 적은 <漁父辭>를 가리키고 있다.

2.136. **애일당**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애일당은 최응삼⁹⁶²의 현판이다.

[愛日堂 次蘇贊成韻 堂乃崔君應參所扁也]

양쪽 푸른 귀밑머리를 팔십 여일 머무르며 보니	八十留看兩鬢蒼
육아(蓼莪)를 잃 수 없으니 갱장(羹牆)을 사모하네. ⁹⁶³	蓼莪非復慕羹牆
노래자(老萊子)의 옷과 모의(毛義)의 임명장 천년을 같이하고 ⁹⁶⁴	萊衣毛櫛同千載
참죽나무와 원추리 ⁹⁶⁵ 떨기 한 집에서 함께 하네.	椿樹萱叢共一堂
그림자가 짧아지는 상유(桑榆) ⁹⁶⁶ 어찌 그리 궁박하고	景短桑榆何苦迫
진실로 깊어가는 세월 자주 어른을 육보이네.	誠深日月屢添長
공을 의지하여 <南陔曲> ⁹⁶⁷ 으로 화답하여 마치고	憑公和罷南陔曲
문득 만 리(萬里)가 넘는 호남의 하늘을 바라보네.	却望湖天萬里強

962) 최응삼 : 崔應參(생몰연대 미상)을 말한다. 본관은全州, 字는 春鄉, 號는 愛日堂이다. “愛日公趾美家庭, 能養雙親, 而其堂扁, 實出深誠. 蘇暘谷世讓, 既爲之記, 又以詩美之.”(宋禪圭, 『剛齋集』 권6 <跋·書全州崔氏先世誌狀後>.)

963) 육아(蓼莪)를 외지 ~ 갱장(羹牆)을 사모하네 : <蓼莪>는 부역으로 멀리 나가 있어 아버이를 봉양하지 못하고 死後에 돌아와 그 슬픔을 읊은 『詩經』, <小雅 小旻之什 蓼莪>을 가리킨다. “羹牆”은 어머니를 매우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坐則見堯於牆, 食則覩堯於羹.”(『後漢書』, <李固傳>.)

964) 노래자(老萊子)의 옷과 ~ 천년이 같고 : 楚나라의 효자인 老萊子の 옷을 말한다.(『北堂書鈔』, 第129卷.) 그리고 ‘毛義의 임명장’에 대한 전고는 다음과 같다. 東漢의 효자 모의가 집안이 빈한하여 모친을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다가 임명장을 받들고서 그지없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모친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관직을 그만두고서 다시는 벼슬길에 나아가지 않았다.(『後漢書』 卷39 <劉趙淳于江劉周趙列傳序>.)

965) 참죽나무와 원추리 : 부모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아버지를 椿府라고 하고, 어머니를 萱堂이라고 말한다.

966) 상유(桑榆) : 해가 질 때에는 그 빛이 뽕나무와 느릅나무 가지 끝에 비친다는 말에서 ‘노년’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太平御覽』 卷3)

967) 남해곡(南陔曲) : 『詩經』 <小雅>에 제목만 있고 내용이 없는 篇 이름이다. 여기서는 향기 좋은 난초를 케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는 뜻의 노래이다. “循彼南陔, 言采其蘭. 眷戀庭闈, 心不違安.”(東哲, <補亡詩>. 『文選』.)

2.137. 진 급사⁹⁶⁸)의 시에 차운하다

[次陳給事韻]

희미한 등잔 불꽃이 없어 그림자마저 몽롱하니
꿈에서 깨어나 돌아가는 기러기 먼 하늘에서 우네.
봄의 근심 눈에 엉겨 새벽부터 저녁 늦도록 미혹하고
찬 기운은 남에 돌침 놓듯 발 드리운 창을 통과하네.
창이 흰한 제각(齊閣)에 처음으로 밝음 생기고
햇볕 쏟아지는 산천에 점점 붉은 빛 흩어지네.
시가 괴로운 때에 이르니 마음도 점점 괴로워지고
다시 환백(歡伯)⁹⁶⁹을 찾아 기이한 공(功) 시험하네.

殘燈無焰影朦朧
夢破歸鴻叫遠空
着眼春愁迷曉夜
砭人寒氣透簾櫳
窓虛齋閣初生白
日射山川漸散紅
吟到苦時心轉苦
更尋歡伯試奇功

2.138. 임반관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林畔館 次蘇贊成韻]

황폐한 성은 보이지 않는데 온갖 꽃이 흩날리고
빈관(賓館)이 침침하니 석양빛을 향하네.
청안(靑眼)으로 천 리 멀리 사람을 생각하고
단심(丹心)으로 미약한 몸 나라에 하락하였네.
호롱불 심지 시들며 불꽃 자주생기고
시편을 낭송하며 사립문 홀로 잠그네.
무슨 일로 오경(五更)인데 조금도 졸리지 않고
앞산 불여귀(不如歸)⁹⁷⁰만 하소연하는가.

荒城未見百花飛
賓館沈沈向夕暉
靑眼懷人千里遠
丹心許國一身微
落殘燈燼頻生焰
吟就詩篇獨掩扉
何事五更無少睡
前山叫徹不如歸

968) 진 급사 : 1459년에 사신으로 나온 刑科 給事中 陳嘉猷(생몰연대미상)를 가리킨다. 그러나 陳給事의 原詩는 추정하여 밝히지 못하였다.

969) 환백(歡伯) : 술로 근심을 덜고 즐거움을 주며, 귀천이나 賢不賢 및 야만이나 문명이 없이 달게 마시어 즐긴다는 뜻이다.(『酒譜』.)

970) 불여귀(不如歸) : 두견잇과에 속한 새. 몸길이는 25센티미터 정도로, 겉모습은 빠꾸기와 비슷하나 훨씬 작다. 등은 어두운 회청색이고 배는 하얀색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있으며, 암컷은 멧과 가슴에 붉은 갈색을 띤다.

2.139. 임반관 가는 길에 공 정사의 시 운자를 사용하다.

[林畔道中 用龔正使韻]

장우(瘴雨)⁹⁷¹에 나무 꽃 얼마나 피고 시들었을까
 봄바람에 주막 깃발 기울어져 보이지 않네.
 북궐을 뚫어져라 바라보니 안개구름 아득하고
 서쪽 길에 나아가는 부역은 도로가 멀다네.
 물색(物色)이 쓸쓸하니 절기 늦어 놀라고
 가슴(襟懷)이 적막하니 봄꽃을 마주하네.
 한가로워 평생의 일 묵묵히 따져보니
 참으로 구구(區區)하게 바다모래 셈하였네.

瘴雨開殘幾樹花
 東風不見酒帘斜
 望穿北闕煙雲迥
 賦就西征道路賒
 物色蕭條驚節晚
 襟懷寂寞對春華
 閑來默計平生事
 眞箇區區算海沙

2.140. 양책관 공 정사의 시에 차운하다.

[良策館 次龔正使韻]

비바람 부는 한밤에 나그네 마음 미혹하고
 명가(鳴珂)⁹⁷²는 멀리 아홉 거리 진흙 생각하네.
 검은 구름 아득하게 처음 들을 드리우니
 맑은 물이 세차게 갑자기 계곡을 채우네.
 숲 멀리 우는 비둘기 끊겼다 이어져 들리고
 처마 걸 나는 제비가 높았다 낮았다 보이네.
 가고 가 용만(龍灣)이 가까워 문득 기쁘나
 천리 성사(星槎)는 서쪽에서 돌아오지 못하네.

風雨中宵客意迷
 鳴珂遙憶九街泥
 黑雲漠漠初垂野
 白水渾渾忽滿溪
 隔樹啼鳩聞斷續
 傍簷飛燕看高低
 行行却喜龍灣近
 千里星槎不復西

971) 장우(瘴雨) : 축축하고 더운 땅에서 생기는 독기를 품은 비를 말한다.

972) 명가(鳴珂) : 말갈래의 장식품, 또는 악기를 말한다.

2.141. 3월 15일 의주 취승정 우거에 오다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다.

[三月十五日 來寓義州聚勝亭 次蘇贊成韻]

수많은 전쟁 겪은 강산에게 물어도 대답 앓으니
단지 짧은 시만 가지고 선대 사람을 이어가네.
변방 삼 천 리 이미 지났고
누대 십 이층을 또 오르네.
믿지 못한 풍류 두목(杜牧)에게 보내고
속절없이 시를 읊고 손등(孫登)⁹⁷³에게 사양하네.
나쁜 습성을 갈아 없애니 해로운 일 없고
편안하고 한가함만⁹⁷⁴ 취하려하니 노스님 같네.

百戰江山問不磨
只將斷句續先曾
已經關塞三千里
又上樓臺十二層
未信風流輸杜牧
空餘嘯詠讓孫登
消磨習氣無妨事
須取安閑似老僧

2.142. 다시 앞의 운자를 사용하다

[再用前韻]

정자가 높아 신선과 멀리서도 서로 맞으니
일찍이 보지 못한 산천이 눈길에 들어오네.
성곽은 백 리 남짓 둘러 있고
초문(譙門)⁹⁷⁵은 몇 천 층 우뚝 섰네.
새는 서쪽 변방으로 부터 안개를 뚫고 날아가고
사람은 남쪽 누각을 향해 달빛을 두르고 오르네.
밥을 끊은 것 같이 몸이 가벼움을 점점 깨달으니
한가한데 해가 없으니 수운(水雲)⁹⁷⁶스님 되었네.

亭高僊客遠相磨
入望山川見未曾
城郭周遭餘百里
譙門突兀幾千層
鳥從西塞衝煙度
人向南樓帶月登
轉覺身輕同絕粒
不妨閑作水雲僧

973) 손등(孫登) :晉나라 때 隱者 孫登을 가리킨다.

974) 편안하고 한가함만 : 安閑自適의 준말로, 평화롭고 한가하여 마음대로 즐거움을 말한다.

975) 초문(譙門) : 城門 위에 세운 望樓의 문을 말한다.

976) 수운(水雲) : 水雲鄉의 준말로, 안개가 피어오르는 곳. 은자가 사는 淸幽한 곳을 가리킨다.

2.143. 세 번째 앞의 운자를 사용하다

[三用前韻]

사람을 만나도 묻고 대답이 없으니
 일찍이 세월만 묵묵히 뒤바뀌었네.
 첩첩 산봉우리 골산(鵲山)⁹⁷⁷ 서로 보며
 층층이 물결치는 압록강 오랫동안 보네.
 가련하다 근심의 실마리를 누구에게 의지하여 풀까
 오히려 기쁘네 시단에 나의 등단(登壇)을 허락하니.
 이미 생애를 고담(枯淡) 속에 부치었고
 적멸을 말할 것 없으니 처음 스님이라 하였네.

逢人無問又無應
 默默翻成日月曾
 相對鵲山峯疊疊
 長看鴨水浪層層
 可憐愁緒憑誰解
 猶喜詩壇許我登
 已付生涯枯淡裏
 不須談寂始稱僧

2.144. 낮잠

[晝眠]

연일 아침 베개에 엎드려 거북이처럼 머리 줄이고
 봄기운에 사람의 애를 꿰어 누각을 꼬옥 껴안았네.
 뒤숭숭한 잠 귀신 서로 와서 다그치고
 몽몽하게 취한 눈 문드러져 거두지 못하네.
 황홀한 하천 길은 멀고 가까움이 혼미하고
 어렵פות한 꽃나무 새로 부드러움 희롱하네.
 백년의 세상사 무엇이 꿈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인생 바닷가 부평초라네.

伏枕連朝龜縮頭
 惱人春氣擁深樓
 眠魔忽忽來相迫
 醉眼朦朧爛不收
 恍惚川途迷遠近
 依稀花木弄新柔
 百年世事誰非夢
 可信吾生海上浮

977) 골산(鵲山) :遼東에서 50리 떨어져 있는 松鵲山을 말한다.

2.145. 여관에서 무료하여 연아체(978) 읊시 2수를 짓고 연자에게 잇게 하다.

[旅館無聊 得演雅體二律 次演之]

두견화(杜鵑花)가 피어 나그네 시름 더하니	杜鵑花發客愁添
새로 달을(979) 보니 가늘고 뾰족하게 드러났네.	新見寒蟾露細尖
하늘가에서 들려오는 기러기 울음소리 정녕 괴롭고	正苦天邊聞雁叫
벽 위에 달팽이가 붙어 있으니 오래토록 가련하네.	長憐壁上有蝸黏
꿈속의 낮은 궁전의 섬돌(980)에 자주 오고가며	夢魂螭陛頻來往
잔속의 술은 용만(龍灣)에서 발걸음 지체되네.	杯酒龍灣足滯淹
금빛오리 향로 식어가니 모두 잠들지 못하고	金鴨香殘渾不寐
임의로 우성(牛星)과 두성(斗星)을 서쪽 처마에 옮겨놓았네.	任教牛斗轉西簷

술잔에 개미가 떠다니는 술(981) 손수 자주 더하며	浮蟻杯觴手屢添
뾰족한 쥐 수염 붓을 때로 잡고 시름 괴로워하네.	苦吟時把鼠鬚尖
헛된 명예의 당나귀(982)가 크니 끝내 어디에 쓰며	虛名驢大終安用
나그네 자취 기러기처럼 날아가니 붙일 수 없네.	羈跡鴻飛不可黏
봉궐(鳳闕)은 구름 멀리 두고두고 바라보며	鳳闕雲遙長望望
압록강은 봄이 늦도록 오래오래 머무네.	鴨江春晚久淹淹
내일 아침 정녕 편지를 입에 문 잉어 있다고	明朝定有銜書鯉
집 뒤 처마에서 까치가(983) 소리 전하네.	乾鵲聲傳屋後簷

978) 연아체(演雅體) : 詩體의 하나다. 이것은 宋나라의 시인 黃庭堅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시체는 새, 짐승, 곤충 등 여러 종류의 동물들을 소재로 삼아 각 句節마다 한 종류, 혹은 두 종류의 동물 이름을 넣어서 지은 것이 특징이다.

979) 달을 : “寒蟾”에서 ‘蟾’은 蟾月이다. 상고시대 后羿의 아내 姮娥가 西王母의 仙藥을 훔쳐 月宮으로 달아나 蟾蜍가 되었다는 전설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

980) 궁전의 섬돌 : “螭陛”는 용을 새긴 대궐의 계단을 말한다.

981) 개미가 떠다니는 술 : “浮蟻酒”는 동동주를 말한다. “浮蟻”는 술 위에 동동 뜨는 흰 밥풀을 말한다.

982) 헛된 명예의 당나귀 : 黔驢之技의 준말로, 黔州에 사는 당나귀의 재주라는 뜻이니, 겉치레뿐이고 실속이 보잘것없는 솜씨를 이르는 말이다.

983) 까치가 : “乾鵲”은 까치를 말한다. “乾鵲噪而行人至.”(『書經雜記』.)

2.146. **취승정** 현판 시에 차운하다.

[聚勝亭 次板上韻]

백 자나 높은 난간 변방 모퉁이를 압도하고
 새 밖에 못 산은 터럭 하나만큼 작네.
 성곽 북쪽 긴 강은 물줄기를 멀리 나누고
 처마 서쪽 지는 해 석양빛을 거꾸로 비추네.
 복숭아나무는 무성한 꽃봉오리 머금고 붉게 처음 터트리고
 버드나무는 부드러운 가지 희롱하며 푸르게 바로 살찌웠네.
 객리에서 장차 어떻게 아름다운 경치를 보답할까
 밤새도록 나는 우상(羽觴)⁹⁸⁴을 사양하지 못하네.

危欄百尺壓邊陲
 鳥外群山一髮微
 郭北長江分遠派
 簷西落日倒殘暉
 桃含繁萼紅初綻
 柳弄柔條綠正肥
 客裏將何酬勝景
 不辭終夜羽觴飛

2.147. **통군정⁹⁸⁵에 올라** 연지의 시에 차운하다.

[登統軍亭 次演之韻]

성 위에 올라가서 변방을 멀리 내려다보니
 깃대는 곧바로 오랑캐 추장을 들추고자 하네.
 글 맡은 신하 새로운 부세(賦稅)로 수레타고 서쪽 가고
 늙은 장수 일찍이 많은 피로 북쪽을 진압하였네.
 만 리 산천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
 삼춘(三春)의 환락이 잠시 줄을 섰네.
 구구(區區)한 개와 쥐는 법을 범하지 말라
 교위(校尉)⁹⁸⁶는 지금처럼 한곽후(漢霍侯)라네.⁹⁸⁷

城上登臨俯遠陬
 旗竿直欲揭胡酋
 詞臣新稅征西駕
 老帥曾多鎮北謀
 萬里山川高處望
 三春歡樂暫時倫
 區區狗鼠休干紀
 校尉如今漢霍侯

984) 우상(羽觴) : 새 깃 모양으로 된 술잔을 말한다.

985) 통군정 : “統軍亭”은 關西 八景 가운데 하나이다. 평안북도 의주군 義州郡 압록강변 高臺에 있는 정자이다.

986) 교위(校尉) : 漢代 고급 무관직의 명칭이다. 계급은 대략 장군 다음으로, 군사를 통솔하는 내용에 따라 품질이 달랐다.

987) 교위(校尉)는 지금처럼 ~ 한곽후(漢霍侯)라네 : 漢나라 昭帝 때 霍光이 정권을 잡았는데 上官桀이 거짓으로 사람을 시켜 燕王의 글이라고 올려 보이고는 燕王 및 蓋長公主와 霍光이 함께 모반한다고 참소하였다. 昭帝는 “霍光이 廣明에 갈 때 모두 廊屬들뿐이었다. 또 校尉를 임명한 지 10일도 못 되었는데 모반했다고 하더라도 燕王이 어떻게 알았겠는가.” 하고 드디어 上官桀의 죄

화려한 망루가 우뚝 솟아 용만(龍灣)을 압도하니
 중원(中原)이 지척 간에 내려다보이네.
 지형은 긴 강을 벌리어 서해로 달리고
 구름은 높은 성에 들어와 북산(北山)을 의지하네.
 백년의 봉화 삼면의 변방에서 고요하고
 오야(五夜)에 비휴(毳毼) 만갑(萬甲)의 각오⁹⁸⁸ 한가하네.
 털뿔⁹⁸⁹이 악착스러움 많다 하지마라
 훗날 열쇠로 웅장한 관문을 다스리네.

華譙突兀壓龍灣
 俯視中原咫尺間
 拆地長江西走海
 入雲高堞北依山
 百年烽火三邊靜
 五夜毳毼萬甲閑
 莫道毛錐多齷齪
 他時鎖鑰試雄關

변방 서쪽 정자에 잠시 기대어 바람을 쐬니
 점점(點點)의 오랑캐 산 나를 향하여 맞이하는가.
 약수(弱水)⁹⁹⁰에 부상(扶桑) 하늘 밖으로 떨어지고
 계성(薊城)의 요동(遼東) 들판 눈 안에서 평정하네.
 근심이 깊어지면 죽엽(竹葉)⁹⁹¹을 세 번 옥잔에 기울고
 애간장 끊어지면 매화(梅花)⁹⁹²로 한 번 소리를 희롱하네.
 붓을 던지고 응당 등단하는 날이 있으리니
 서생(書生)은 늙어 이를 수 없다 말하지 말라.

臨風暫倚塞西亭
 點點胡山向我迎
 弱水扶桑天外落
 薊城遼野眼中平
 愁深竹葉傾三盞
 腸斷梅花弄一聲
 投筆登壇應有日
 書生莫道老無成

만을 다스렸다. (『漢書』 卷68 <霍光傳>.)

988) 만갑(萬甲)의 각오 : 萬甲藏胸의 준말로, 宋나라 范仲淹이 수년 동안 변방을 지킬 때 夏 땅 사람들이 감히 국경을 넘보지 못하고 말하기를 “범중엄의 가슴 속엔 수만의 甲兵이 들어 있다”라고 하였다.

989) 털뿔 : 毛錐子의 준말로, 붓을 가리킨다. 五代 後漢의 大將 史弘肇가 “조정을 편안하게 하고 화란을 평정하려면 당장 장창과 대검이 필요한데, 모추자 같은 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安朝廷, 定禍亂, 直須長槍大劍, 若毛錐子, 安足用哉?]”라고 말한 고사가 있다. (『新五代史』 卷30 <漢臣傳 史弘肇傳>.)

990) 약수(弱水) : 崑崙山 아래 신선이 살았다는 전설적인 강을 말하나, 여기서는 滌의 땅 북쪽에는 弱水가 있다는 『後漢書』의 기록을 따른다.

991) 죽엽(竹葉) : 酒名으로, 전하여 술을 가리킨다. “죽엽은 나에게 이미 연분이 없어졌으니, 국화는 이제부터 피기를 기다릴 것 없네. [竹葉於人既無分 菊花從此不須開]” (杜甫, <九日>, 『杜少陵詩集』 卷20)

992) 매화(梅花) : 晉나라 桓伊가 만든 笛曲인 <落梅花曲>을 가리킨 듯하다.

2.148. 압록강에서 소 찬성의 시에 차운하고 두 사신과 이별하고 아울러 서장관에게 주다.

[鴨江 次蘇贊成韻 別兩使兼贈書狀官]

잠시 작별에 ⁹⁹³ 녀을 잃은데	暫時分袖亦銷魂
하물며 하늘가에서 또 당신을 보냄이야.	況是天涯又送君
두 범경(泛梗)처럼 백년을 모였다 흩어지고	聚散百年雙泛梗
하나의 뜬 구름인양 천리를 오고 가네.	往來千里一浮雲
미인의 노래 신묘하여 간장이 먼저 끊어지고	佳人曲妙腸先斷
좌객(座客)의 근심 많아 술이 이미 훈훈하네.	座客愁多酒已醺
강가에서 오래 슬피 바라보려고 하니	欲向江頭長悵望
송골산(松鵲山) ⁹⁹⁴ 멀리 석양이 저무네.	鵲山迢遞帶殘曛

2.149. 구룡연⁹⁹⁵에서 유람하며 신 선위의 시에 차운하다.

[遊九龍淵 次申宣慰韻]

누가 긴 피리 불며 잠자는 용을 깨우려 하나	誰將長笛動龍眠
갑자기 성난 파도가 춤 자리를 덮치네.	忽有驚濤洒舞筵
가슴에 품은 생각 넘쳐나는 술잔에 씻고	洗滌胸懷杯澹澹
주인과 손님 등등 북소리에 머뭇거리네.	留連賓主鼓淵淵
고향을 바라보니 길은 삼천리 멀리 떨어지고	望鄉路隔三千里
말 위에서 ⁹⁹⁶ 지은 시 일백 편을 이루었다네.	橫槩詩成一百篇
취중에 천지가 작음을 돌아보고	醉裏回頭天地小
해서(海西) ⁹⁹⁷ 변방에 몸이 있음을 모르네.	不知身在海西邊

993) 작별에 : 分袖相別의 준말로, 서로 소매를 나누고 헤어진다는 뜻이니, 작별을 의미하는 말이다.

994) 송골산(松鵲山) : 義州에 있는 ‘松骨山’을 가리킨다. 아래에 ‘骨嶺’ 또한 ‘松骨嶺’을 말한다.

995) 구룡연 : 九龍淵은 강원도 금강산의 구룡폭 아래에 생긴 못 이름이다. 폭포 아래의 바위에 펜 크고 작은 아홉 개의 구멍이 마치 용이 빠져나간 듯 모양을 이루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다.

996) 말 위에서 : 橫槩賦詩의 준말로,馬上에서 창을 가로로 비껴들고 시를 짓는다는 말이다. 陣中에서 시가를 읊는 풍류를 즐긴다는 뜻이나 文武를 겸비한 인물이 전쟁터에서 지어 낸 豪快한 글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曹操曹丕上馬橫槩, 下馬談論.”(『南齊書』卷28 <垣榮祖列傳>.)

997) 해서(海西) : 현재 黃海道の 별칭이다.

2.150. 다시 앞 시에 차운하다

[再次前韻]

봄풀이 강가에 가득 푸른 초목 무성하니	滿江春草碧芊眠
이날 하늘가에서 멋진 잔치가 벌어졌네.	是日天涯作勝筵
구름사이 먼 산봉우리 송골령(松鵲嶺)임을 알고	遠岫雲間知鵲嶺
발아래 맑은 물결 구룡연(九龍淵)으로 내려가네.	清波脚底俯龍淵
영웅은 만고에 도리어 천고요	英雄萬古還千古
풍월은 장편에 다시 단편이로다.	風月長篇復短篇
취기를 붙들고 먼 변방의 요새 부임 사양 앓으니	扶醉不辭臨絕塞
지금과 같이 개와 쥐 세 변방에서 조용하네.	如今狗鼠靜三邊

2.151. 처의 조부 박 참찬을 위로하는 만사(998) 이름은 호이다.

[挽聘祖朴參贊詞 名壕]

산구화옥(山丘華屋)은 사공(謝公) ⁹⁹⁹ 이 슬퍼하고	山丘華屋謝公悲
늦은 봄은 양담(羊曇) ¹⁰⁰⁰ 이 통곡하는 때라네.	春晚羊曇痛哭時
늙은이는 남의 득실을 말하지 않고	白首不言人得失
참된 마음 오직 나라의 안위에 두었네.	赤心唯在國安危
시종 근신하기를 일찍이 간단함이 없고	始終謹慎曾無間
생사(生死)가 청빈하여 절로 앎이 있네.	生死清貧自有知
내가 사사로이 지나친 찬사를 말할 수 없고	莫道吾私爲溢美

998) 만사(挽詞) :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말한다. 박호(朴壕, 1466~1533)는 세조~중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務安이며, 자는 叔保·仲深이다. 시호는 貞簡이다.

999) 사공(謝公) : “山丘華屋”은 죽어서 묻힌 무덤과 살아서 살던 집을 말한다. 曹植의 樂府詩에 “살아서는 화려한 집에 살다가 / 죽어서는 산으로 돌아가네. [生在華屋處, 零落歸山丘.]”라는 구절이 있다.(『文選』, <箎篥引>.) “謝公”은 謝靈運(385~433, 東晉·宋의 시인)을 말한다. 그의 시는 종래의 老莊流의 玄言詩의 풍을 배제하고, 새로이 산수시의 길을 개척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어 후세에 끼친 영향이 크다. 동시대의 陶淵明의 자연시에 비해서, 인위적인 修辭의 아름다움에 기울어졌다는 결점이 있으나, 당시 謝靈運의 위치는 어디까지나 정통적이었으며, 『文選』에 40수가 수록되어 있다.

1000) 양담(羊曇) : 풀나라 謝安의 사위로 사안의 사랑을 받았던 羊曇은 사안이 죽고 난 뒤 그가 살던 西州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는 고사를 말한다.

상천(上天)이 내려다보니 본래 속이기 어렵네.

皇天臨上本難欺

생질(甥姪)의 아픈 마음과 십년의 정에
 어찌 부탁이 또 간곡함을 알았겠는가.
 진실로 작은 의약도 일찍이 효험 없고
 무력(無力)하여 무덤도 겨우 이루었네.
 천박하고 용렬하니 어떻게 집안을 유지하고
 노쇠하고 더디어 공연스레 전범을 생각하네.
 임종에 가르쳐준 말 만일 저버리면
 지하에서 다른 때 행할 수 있으랴.

甥舅傷心十載情
 那知付托又丁寧
 誠微醫藥曾無效
 力薄墳塋僅有成
 淺劣何能持戶牖
 衰遲空自想儀刑
 臨終誨語如相負
 地下他時可得行

때문에 나무 재가 차가워 다시 타지 않으니
 아! 공(公)은 무슨 일로 하늘로 올라가 신선이 되었는가.
 일가(一家)는 예로부터 산악(山嶽)¹⁰⁰¹을 의지하고
 온 식구는 지금 같이 죽거리를 빼앗겼네.
 피눈물이 두터운 땅을 적시고 있을 때에
 슬픈 편지¹⁰⁰² 쓰려니 푸른 하늘에 물을 곳이 없네.
 봄이 와 만약 구원(丘原)의 일¹⁰⁰³ 마치면
 이로부터 반이랑 밭을 돌아와서 갈려네.

門柞灰寒不復然
 嗟公何事又登仙
 一家自昔依山嶽
 百口如今奪粥饘
 血淚有時沾厚地
 哀賤無處問蒼天
 春來若畢丘原事
 從此歸耕半畝田

1001) 산악(山嶽) : ‘泰山喬嶽’의 준말로, 높고 큰 산을 말한다.

1002) 슬픈 편지 : “哀賤”은 죽음을 애도하는 시, 輓詞를 가리킨다.

1003) 구원(丘原)의 일 : 사람이 죽어 산에 묻는 일, 곧 封墳하는 일을 말한다.

2.152. 작은 집이 비좁아 갑자기 동호의 뱃놀이와 절간을 찾아가는 등의 일이 생각났다. 지난날 자취를 늘어놓으며 사사로운 마음으로 감탄하고 단를 두어 편을 지어 지난번의 유람을 덧붙여서 기록하다 교리 선생에게 주어 하여금 화답시를 바라다.

[踟促小屋，忽憶泛東湖，訪招提等事。卽成陳迹，私心感嘆，吟短律數篇，追記曩日之遊 呈校理先生 冀和教]

하나의 줄기 구불구불 멀리 이어져 백룡(白龍)을 끌고
 조종(朝宗)¹⁰⁰⁴을 배우려고 서쪽으로 달려가 함양하네.
 바위 벼랑에 모인 사람들 다투어 영립(迎立)하고
 작은 붓도랑 같은 물줄기도 부용(附庸)¹⁰⁰⁵이라네.
 밤의 달은 하늘과 지척이라 근원을 다하고
 늦은 바람은 땅을 가로질러 파도를 뒤집네.
 가슴 속에 대부분은 뜬구름 같은 꿈을 삼키고
 또 병든 모습으로 도시에 돌아왔네.

一脈逶迤拖白龍
 涵涵西走學朝宗
 巖崖攢首爭迎立
 溝澮同流亦附庸
 夜月窮源天咫尺
 晚風翻浪地橫衝
 胸中八九吞雲夢
 城市歸來又病容

강가에 있는 절 푸른 산허리에 닿았으니
 몰래 찾아서 간다는 약속 하였네.
 서쪽 해는 바빠 지는 것도 걱정하지 않고
 남쪽 바람 두둥실 돌아오는 것만 믿을 뿐이네.
 달빛을 토한 놀란 파도 차갑게 얼굴 씻기고
 숲을 적신 성긴 이슬은 차갑게 옷을 적시네.
 지금 여흥(餘興)으로 의연하게 있으나
 세상사에 상한 마음 어제뿐 만이 아니라네.

寺在江頭接翠微
 幽尋有約可相違
 不愁西日愔愔落
 只信南風泛泛歸
 噴月驚濤寒洒面
 滴林疏露冷沾衣
 今來餘興依然在
 世事傷心昨已非

남으려다가 떠나고자 하는 한 때의 마음
 분명하게 헤아려서 깊고 얕음을 알았네.

將留欲去一時心
 料得分明識淺深

1004) 조종(祖宗) : 옛날 중국에서 諸侯가 봄과 여름에 天子를 謁見하던 일을 말한다.

1005) 부용(附庸) :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의탁하는 附屬의 뜻이나, 여기서는 남에게 기대어 자립하지 못함을 말한다.

청아한 경치 지나쳐오니 어떻게 다시 잡을까
 시의 마음 이른 곳마다 절로 금하기 어렵네.
 천지는 광대하여 조금이나마 나를 용서하지만
 세월은 유구하여 지금만 보여주고 만다네.
 어느 날에나 같은 배에서 함께 취해볼까
 흥진(紅塵)의 일 부질없이 찌들어 견딜 수 없네.

淸境過來寧再把
 詩情到處自難禁
 乾坤納納差容我
 歲月悠悠已視今
 何日同舟又同醉
 不堪塵事謾侵尋

2.153. 전주로 부임하는 김 부윤¹⁰⁰⁶에게 병중에 이별하며 주다 이름은
 희열이다.

[病中贈別金府尹赴全州 名希說]

옥서(玉署)¹⁰⁰⁷에서 친해진 정 십 오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갑자기 망연(茫然)스럽네.
 중간에 소식 다 자료할 수 없으나
 말로에 부평초와 쑥대 같은 인연 있었네.
 봄날 숲에 간장이 끊어진 세월 많으니
 저녁 구름 돌아보며 산천과 멀리 하네.¹⁰⁰⁸
 다만 쇠약한 자취에 얽매인 풍질(風疾)을 근심하고
 마음의 술잔을 잡지 못하고 이별자리만 따랐네.

玉署情親十五年
 追思往事却茫然
 中間消息渾無賴
 末路萍蓬似有緣
 春樹斷腸多日月
 暮雲回首隔山川
 但愁風疾拘衰迹
 未把心杯屬別筵

2.154. 다시 호남에 사는 윤씨 어른을 찾아보다
 [再訪尹丈人湖居]

대문을 두드리며 주인을 불러 송균(松筠)¹⁰⁰⁹을 물으니

叩門呼主問松筠

1006) 김 부윤 : 金希說을 말한다.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順天, 자는 商卿, 호는 柯亭이다.

1007) 옥서(玉署) : 三司의 하나로 궁중의 經書와 史籍을 관리하고 왕에게 학문적 자문을 하던 관청을 말한다.

1008) 저녁 구름 ~ 멀리 하네 : 春樹暮雲의 준말로, 봄철의 수목과 해 저물 무렵의 구름, 곧 벗을 그리는 정이 일어남을 비유한 말이다. “渭北春天樹，江東日暮雲。”(杜甫，〈春日憶李白〉.) 여기서서는 이별하여 그리움을 참지 못함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였다.

도마(徒馬)로 당신을 번거롭게 하니 가까운 이웃 부끄럽네.	徒馬煩君愧近隣
맨발로 황속주(黃粟酒) ¹⁰¹⁰ 를 바로 끓이고	赤脚旋烹黃粟酒
늙어서 흑륜건(黑綸巾) ¹⁰¹¹ 을 자주 쓰네.	白頭頻落黑綸巾
어린 아들 처량한 낫빛 모르고	不知稚子淒涼色
광부(狂夫) 노병(老病)의 몸 절로 허락하네. ¹⁰¹²	自許狂夫老病身
깊은 감사와 후덕(厚德)한 정 흠뻑 취함을 바라고	多謝厚情期爛醉
때때로 나를 고향사람이라고 기뻐하네.	時時說我故鄉人

강어귀 작은 마을 해는 따뜻한 별을 다투니	江頭小市日暄爭
특별한 지형 맑아 방 하나로 산을 의지하네.	一室依山特地清
참된 마음에서 거마의 처지 절로 생기고	眞意自生車馬境
막걸리 ¹⁰¹³ 에서 가까운 이웃 정을 많이 보네.	濁醪多見比隣情
담가에 늙은 밤나무 많은 가지 ¹⁰¹⁴ 말라가고	墻邊老栗枯千樹
시궁창에서 향기로운 미나리 두어 줄기 캐었네.	泥底香芹採數莖
야성(野性)이 강한 얼굴로 속어(俗語)를 하는데	野性强顏爲俗語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功名(功名)을 묻네.	逢人猶復問功名

2.155. 면앙정¹⁰¹⁵ 시에 차운하다

[次俛仰亭韻]

모정(茅亭)을 멀리서 생각하니 경치 그윽하여	遙憶茅亭景物幽
--------------------------	---------

1009) 송균(松筠) : 소나무와 대나무로 절개가 굳센 것을 비유한다.

1010) 황속주(黃粟酒) : 좁쌀 풀로 담근 술을 말한다. 불면증에 효험이 있다.

1011) 흑륜건(黑綸巾) : 검은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말한다.

1012) 어린 아들 ~ 절로 허락하네 : 엄혼은 杜甫의 <狂夫>를 가져와 자신의 병약한 몸을 杜甫에게 맡긴다고 말하고 있다. “후록의 고인으로부터 편지도 끊어져서, 항상 주리는 아이들 낫빛이 처량하네. [厚祿故人書斷絕 恒飢稚子色淒涼]”(杜甫, <狂夫>, 『杜少陵詩集』 卷9)

1013) 막걸리 : 쌀로 빚어서 만든 희부연 색깔의 우리나라 고유의 술 막걸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술의 하나로, 빛깔이 희부영고 탁하며 알코올 성분이 적다.

1014) 많은 가지 : 원문은 “千樹”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千枝’의 의미로 보고 ‘많은 가지’라고 국역하였다.

1015) 면앙정 : 宋純(1493~1582)의 雅號이다. 宋純이 만년에 벼슬을 떠나 후학들을 가르치며 한가롭게 여생을 지냈던 곳이다.

몇 번이나 꿈에 돌아와 호수어귀에 빠졌던가.
숲을 열고 두루 구경하니 내와 들 넓고
길을 쌓고 마름질하니 대나무 뻗뻗하네.
면앙정(旃仰亭)에서는 정녕 우주를 궁구하고
우유자적하며 에오라지 춘추(春秋)를 다시 지내네.
잠영(簪纓)¹⁰¹⁶은 순채국과 농어회 흥¹⁰¹⁷을 금하지 않으나
오주(吳州)¹⁰¹⁸를 아랑곳 앓고 달을 보며 근심하네.

幾回歸夢落湖頭
開林看盡川原闊
築逕裁來竹木稠
旃仰政堪窮宇宙
優游聊復度春秋
簪纓未禁蓴鱸興
一任吳州見月愁

2.156. 동호에서 앞 시에 차운하다.

[東湖 次前韻]

동호(東湖)에 물이 푸르고 또 모래 깨끗하여
문득 풍진(風塵)을 깨달아 병든 눈 맑아지네.
작은 거룻배 돌아올 때 높은 언덕 작고
긴 강이 다한 곳에 어지러운 산 비껴있네.
노닐며 감상하는 천년 마음 수많은데
부침(浮沈)하는 반세기 공명 바로 부끄럽네.
흰 갈매기 가까이서 번거롭게 말을 붙여오니
일신(一身)을 가볍게 오가는 네가 기특하구나.

東湖水碧又沙明
忽覺風塵病眼清
短艇歸時高岸小
長江盡處亂山橫
幾多遊賞千年意
直愧浮沈半世名
近近白鷗煩寄語
憐渠來去一身輕

1016) 잠영(簪纓) : 귀족이나 관리의 冠을 장식하는 물건으로 벼슬아치가 뒀을 가리키기도 한다. 簪이란 비녀로, 冠帽과 두발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일종의 머리핀이다. 纓이란 모자 양옆에 달린 끈인데, 턱 아래에서 묶어 관을 고정시킨다.

1017) 순채국과 농어회 흥 : “蓴羹鱸膾”는 고향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는 정을 말한다.

1018) 오주(吳州) : 漢나라 梅福은 『尙書』, <穀梁春秋>에 밝은 학자였는데 王莽이 집정하자 성명을 바꾸고 吳州의 저자에서 문지기 노릇을 하였다 한다.(『漢書』 卷67 <梅福傳>.) 이곳에서 시인자신은 吳州에 감정이입하고 있음을 말하려고 한 것 같다.

2.157. 조대¹⁰¹⁹)

[釣臺]

예전에 즐겁게 노닐었던 맑은 여울 칠 리 ¹⁰²⁰)	清灘七里舊遊遊
낙시터를 방불하여 물이 도포를 적시었겠지.	髣髴磯頭水濕袍
풍월(風月)은 천년을 기영(箕穎) ¹⁰²¹)에게 붙이고	風月千秋屬箕穎
공명(功名)은 일대(一代)를 소조(蕭曹) ¹⁰²²)에게 주었네.	功名一代付蕭曹
분분(紛紛)한 도화(圖畫)를 아는 사람 누구랴 ¹⁰²³)	紛紛圖畫人誰識
적적(寂寂)한 천지(乾坤)에 그는 절개 유달리 높았네.	寂寂乾坤節獨高
한(漢)나라의 술을 부지하고 남은 힘이 있으니	漢鼎扶持有餘力
지금까지 남아 탐도(貪饕)한 사람을 분발시키네.	至今留與激貪饕

2.158. 성천¹⁰²⁴) 가는 벗의 길에 뒤따라 부치다

[追寄友人成川之行]

아름다운 경치의 선경(仙境) 신선의 누각 따르니	仙區形勝屬僊樓
관서(關西)와 호서(湖西) 수백 고을 중 으뜸이네.	冠絕關湖數百州
거문고와 학 ¹⁰²⁵)의 한아한 경치 몇 해인가	琴鶴幾年閑景槩
거문고 타고 노래하니 오늘 풍류 좋을시고.	絃歌今日好風流
멀고 가까운 뽕나무 삼발 이슬이 새로 젖고	桑麻遠近新沾露

1019) 조대(釣臺) : 일반적으로 낙시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後漢의 嚴光(생물연대 미상. 자는 子陵)의 낙시터를 말한다. 隱士 嚴光은 光武帝가 즉위하여 諫議大夫에 제수했으나 사양하고 富春山에 은거하여 七里灘에서 낙시질하면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富春山에 그가 낙시하던 釣臺가 있다. (『古文眞寶 後集』 卷6 <嚴先生祠堂記>.)

1020) 여울 칠 리 : 중국 浙江 桐廬縣 남쪽에 있는 富春山(一名 嚴陵山)의 七里灘을 말한다.

1021) 기영(箕穎) : 堯임금 때 許由가 箕山에 숨어 潁水에 귀를 씻은 고사를 말한다.

1022) 소조(蘇曹) : 前漢의 명제상 蕭何(?~B.C.193)와 曹參(?~B.C.190. 字는 敬伯)을 말한다.

1023) 분분(紛紛)한 도화(圖畫)를 ~ 사람이 누구랴 : 『漢書』에서 班婕妤가 “옛날의 圖畫에는 聖君과 賢君 곁에 모두 賢臣이 있다.”(『常變通攷』 卷29 <家禮考疑上·通禮·司馬氏居家雜儀>.)는 말을 근거하여 작자가 嚴光은 聖君과 賢君의 곁에 있는 賢臣임을 강조하는 말이다.

1024) 성천 : 현재 평안남도 중부에 있는 고을 成川이다. 대체로 낮은 산지와 소규모의 평야로 이루어져 있다.

1025) 거문고와 학 : 옛날 사람들이 항상 거문고와 학을 행장에 지니고 다녀서 淸高하고 廉潔함을 표시했던 데서 온 말이다. “夫君淸且貧, 琴鶴最相親.”(鄭谷, <贈富平李宰>, 『雲臺編』.)

동서로 있는 군기와 북 늦은 가을에 만났네.
 멀리 □ 강산에 술 한 잔 없으니
 다만 시구를 의지하여 이별의 근심 부치네.

旗鼓東西晚值秋
 遙□江山無一盞
 只憑詩句寄離愁

2.159. 벗의 강가 정자에 제를 지어 부치다

[寄題友人江亭]

푸른 항구 내려다보이는 그윽한 정자 지어
 주인은 높은 곳에 누워 강산을 마주보네.
 숲을 여니 길은 허무(虛無) 속으로 가고
 발을 걸자 창은 아득한 너머로 통하였네.
 세상의 공명 절로 괴로움 많으나
 병중에 재미 남은 한가로움 있네.
 섬계(剡溪)는 오늘밤 응당 청아하고 좋으니
 외로운 배는 언제나 달빛 싣고 돌아오려나.

起得幽亭俯碧灣
 主人高臥對江山
 開林路出虛無底
 捲箔窓通浩渺間
 世上功名多自苦
 病中滋味有餘閑
 剡溪今夜應清絕
 一棹何時載月還

전년에 짚신 신고 바위 모퉁이를 걸을 때
 숲속에서 만나 한번 웃었네.
 작은 배에서 오래 늙어 가는 것을 이미 헤아리나
 쇠약한 귀밑머리가 돌아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까.
 밥상에 채소 외에 맛있는 반찬 없으나¹⁰²⁶⁾
 동이에 새 청주가 막 발효되고 있다네.
 이별 뒤에 유유한 세월 많으나
 몇 사람이 노를 저어 술 배로 돌아오려나.

芒鞋前歲步巖隈
 邂逅林間一笑開
 已擬扁舟長老去
 那知衰鬢又歸來
 盤中蔬菜無兼味
 瓮裏新清有發醅
 別後悠悠多日月
 幾人能棹酒船回

1026) 맛있는 반찬 없으나 : “無兼味”는 杜甫의 <客至>에 “반찬은 저자가 멀어 겸미가 없거니와 / 술은 집이 가난해 오직 묵은 술뿐이라네. [盤餐市遠無兼味, 樽酒家貧只舊醅.]”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杜少陵詩集』 卷9)

2.160. 벗의 <술막걸리에 감사하다>에 차운하다

[次友人謝松醪韻]

술을 권하는 이의 공력은 쇠약한 기운 북돋아준다고	醺人功力卽扶衰
그대의 집에서 병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었네.	送與公家慰病思
세상은 오랫동안 응당 맛을 아는 이가 적으나	世上久應知味少
술동이 앞에서 어떻게 술잔을 잡고 더디겠는가.	樽前那得把杯遲
두보(子美)가 술을 따라 마시는 곳에 해당될 뿐 아니라 ¹⁰²⁷⁾	正當子美開嘗處
도잠(淵明)이 슬프게 바라보는 때 아름다운 광경이라네. ¹⁰²⁸⁾	絕勝淵明悵望時
경요(瓊瑤) ¹⁰²⁹⁾ 를 가득 잡아 명자나무에 부끄럽고	滿把瓊瑤慙木李
다시 무슨 물건을 가지고 보내준 시에 화답할까.	更將何物答來詩

2.161. 다시 벗의 <술막걸리에 감사하다>에 차운하다

[復次友人謝松醪韻]

천 층 푸른 물결 바위산봉우리처럼 불어나더니	千層翠浪漲巖巒
한밤중에 변화하여 포도 알이 되었네.	化作葡萄半夜間
추녀 창에 따뜻한 열기 돌음을 앓아 깨달으나	坐覺軒窓生煖熱
안면으로 쇠잔(衰殘)한 모습을 점점 숨기게 하네.	漸教顏面諱衰殘
곤드레 취하게 하는 광약(狂藥) ¹⁰³⁰⁾ 과는 다르고	不同狂藥沈人醉
세한(歲寒)에도 지키는 끈은 정조 오히려 있네.	猶有貞心保歲寒

1027) 두보(子美)가 술을 ~ 뿐 아니라 : “嘗處”는 원래 굴 껍데기를 술잔 삼아 술을 따라 마신다는 뜻이다. 참고로 嘗處의 고사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巴邛의 어떤 사람이 자기 橘園에 대단히 큰 굴이 열려 있으므로, 이를 이상하게 여겨 따서 쪼개어 보니, 그 굴 속에 鬚眉가 하얀 두 노인이 서로 마주 앉아 바둑을 두면서 즐겁게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노인이 말하기를 “굴 속의 즐거움은 상산에 뒤지지 않으나, 다만 뿌리가 깊지 못하고 꼭지가 튼튼하지 못한 탓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따 내릴 수가 있었다. [橘中之樂不減商山, 但不得深根固蒂, 爲愚人摘下耳.]”라고 하였다(『玄怪錄』卷3)

1028) 도잠(淵明)이 슬프게 ~ 아름다운 광경이라네 : “悵望”은 슬피 바라본다는 뜻이다. “천추에 슬피 바라보며 한 번 눈물을 뿌리노니 / 아득히 세대가 달라 함께하지 못했네. [悵望千秋一灑淚, 蕭條異代不同時]”(杜甫, <搖落深知宋玉悲>.)

1029) 경요(瓊瑤) : 아름다운 옥, 전하여 주고받은 禮物 또는 詩文들을 말한다.

1030) 광약(狂藥) : 원래 사람을 미치게 하는 약을 말하나 여기서는 술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성스러운 곳에서 오직 공은 신묘한 이치 아니
한 동이 술을 대하며 서로 의탁하고 기뻐하네.

聖處惟公知妙理
一樽相對托交歡

귀밑머리 털 노쇠함을 꽃다운 막걸리 나를 속이고
메마른 창자에 윤택하게 들어와 생각처럼 놀리네.
즐거운 나라 점점 이루고 돌아가 안온한데
순박한 풍속 끌어옴 더디다고 누가 말하나.
맑은 바람소리 우렁찬 곳에 향기 전해지고
텅 빈산 우뚝 설 때 시운(詩韻)만 끊어졌네.
술동이 앞 좋은 시구 없어 스스로 부끄러운데
외람되게 새 시를 극구 칭찬하니 어찌 다행이라.

芳醪欺我鬢毛衰
潤入枯腸撩若思
樂國漸成歸去穩
淳風誰道挽來遲
香傳清籟颺處
韻絕空山屹立時
自愧樽前無好句
揄揚何幸枉新詩

2.162. 술동이 앞에서 어린 시절 벗에게 주다.

[樽前 贈小時友]

유유(悠悠)한 우환을 일찍 마음껏 겪었다는
말이 이르자 당시에 눈물이 떨어지려고 하네.
젊은 날 마음의 기대 옷칠처럼 단단하지만
중년에 만나고 헤어짐 부평초인양 물에 유랑하네.
술동이 앞에 나는 부끄러워 머리 먼저 희어지고
이별한 뒤에 그대 만나니 눈이 갑자기 파래지네.
손을 잡으며 자주 탄식함을 이기지 못하고
과장하는 말만 힘없이 푸른 하늘에 보내네.

悠悠憂患飽曾經
說到當時淚欲零
少日心期膠在漆
中年離合水漂萍
樽前愧我頭先白
別後逢君眼却青
握手不堪頻歎息
吹噓無力送青冥

2.163. 벗에게 드리다

[呈友人]

어둑어둑해지자 봄추위 두꺼운 이불에 사무치고

春寒闐闐透重衾

홀로 서쪽 창문을 의지하여 깊은 밤에 이르네.
붓과 벼루는 점점 새로운 시를¹⁰³¹⁾ 이루고
거문고 노래에는 아직도 옛정의 마음 남아 있네.
청운(靑雲)이 이른 곳에 아는 얼굴 많고
백설은 어느 때 풍류와 운치 얻을까.
술 막걸리가 지금 이미 익었다고 알려오니
당신과 함께 즐기는 술 한 잔 생각나네.

獨倚書窓到夜深
筆硯漸成新事業
琴歌猶有舊情心
靑雲到處多知面
白雪何時得賞音
報道松醪今已熟
一杯思與子同斟

2.164. 괴산으로 부임하는 벗을 보내며

[送友人赴任槐山]

어지러운 산봉우리 사이 쓸쓸한 옛 고을에는
방에 사람도 없이 화극(畫戟)¹⁰³²⁾만 한가하네.
백판(白板)¹⁰³³⁾은 신선의 경계 모두 이루고
단사(丹砂)는 소녀 얼굴에 오래 머무르네.
일변(日邊)¹⁰³⁴⁾의 북극 멀지 않음을 보고
꿈속의 남쪽가지¹⁰³⁵⁾ 절로 돌아와 이르렀네.
진중(珍重)한 소 칼을 경솔하게 시험하지 마라¹⁰³⁶⁾
오로지 시구만 가지고 청산을 바라보네.

蕭條古郡亂峯間
齋閣無人畫戟閑
白板渾成仙境界
丹砂長駐少容顏
日邊北極看非遠
夢裏南柯到自還
珍重牛刀莫輕試
唯將詩句對青山

1031) 새로운 시 : 원문에는 “新事業”이나 앞 뒤 내용 문맥으로 보아 ‘事業’을 ‘詩’로 보고 ‘새로운 시’로 국역하였다.

1032) 화극(畫戟) : 누각의 들보에 둘러친 색칠한 창살을 말한다.

1033) 백판(白板) :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나 전혀 모르는 상태를 말한다.

1034) 일변(日邊) : “日邊”은 도성의 별칭이다. 東晉의 明帝가 어렸을 적에 부왕인 元帝로부터 長安과 日 가운데에 어떤 것이 거리가 먼지 물음을 받고 대답한 고사에서 유래하였다.(『世說新語』, <夙惠>.)

1035) 남쪽 가지 : 꿈처럼 허망한 한 때의 부귀영화를 말하는 南柯一夢에 나오는 槐安國을 가리킨다. “敘述淳于棼夢至槐安國，娶公主，封南柯太守，榮華富貴，顯赫一時。後率師出征戰敗，公主亦死，遭國王疑忌，被遣歸。醒後，在庭前槐樹下掘得蟻穴，即夢中之槐安國。南柯郡爲槐樹南枝下另一蟻穴。後因以指夢境，亦比喻空幻。(李公佐，<南柯太守傳>.)”

1036) 진중(珍重)한 소 ~ 시험하지 마라 : 공자 제자 子游의 ‘牛刀割鷄’ 고사를 말한다.

2.165. 추석 달

[中秋月]

비가 먼 하늘을 씻어 흰 물결이 흩어지니
 청아한 빛 오늘 저녁에는 매우 많다네.
 빛은 연못가 나무를 흔들어 사는 새들 놀라고
 찬 기운 속인에게 사무쳐 수마(睡魔)¹⁰³⁷ 물리치네.
 소영(嘯詠)¹⁰³⁸이 점점 더해 새 흥이 넘치고
 천지는 모두 다른 산하라네.
 해가 지나 만나는 정 다함이 없으니
 새벽을 어떻게 하냐고 상아(嫦娥)¹⁰³⁹에게 말해주게나.

雨洗長空散素波
 清輝此夕十分多
 光搖池樹驚棲鳥
 寒徹塵脾却睡魔
 嘯詠轉添新興汎
 乾坤渾是別山河
 隔年相見情無盡
 報道嫦娥奈曉何

2.166. 납매¹⁰⁴⁰

[蠟梅]

얇은 빛과 은은한 향기 함부로 자만하며
 봄이 오기 전에 몰래 두 세 꽃봉오리를 피웠네.
 시인의 글귀에 들어가 오래 품제(品題)¹⁰⁴¹되고
 시골 늙은이 집에서 많이 심고 재배하네.
 도미(酴醾)¹⁰⁴²의 가늘게 점철(點綴)함을 배웠으니
 저 도리(桃李)의 부질없이 번화(繁華)함을 비웃네.
 하늘은 이미 꽃이 벌됨을 허락하였는데
 오늘 어찌 벌이 꽃 되는 것을 시기하라.

淺色輕香敢自誇
 先春暗展兩三葩
 品題久入詩人句
 栽植多從野老家
 學得酴醾微點綴
 笑他桃李謾繁華
 天工已許花成蠟
 今日何嫌蠟作花

1037) 수마(睡魔) : 못 견디게 오는 졸음을 惡魔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한다.

1038) 소영(嘯詠) : 詩歌를 운율에 따라 외거나 읽음을 말한다.

1039) 상아(嫦娥) : 달 속에 있다는 전설의 선녀를 말한다. 또는 姮娥라고도 한다.

1040) 납매(蠟梅) : 南宋 때의 시인 范成大(1126~1193)는 자는 致能, 호는 石湖居士, 시호는 文穆이다. 그 매화의 색깔, 잎의 다소, 피는 시기, 특징 등에 따라 江梅, 早梅, 官城梅, 消梅, 古梅, 重葉梅, 綠萼梅, 百葉細梅, 紅梅, 杏梅, 蠟梅 등으로 분류하였다.(『范村梅譜』.)

1041) 품제(品題) : 인물의 가치나 優劣을 평정하는 일을 말하나, 여기서는 蠟梅를 평가한다는 말이다.

1042) 도미(酴醾) : 장미과의 蔓生 관목을 말한다.

2.167. 가을날 벗에게 보여준다.

[秋日 示友人]

밤비¹⁰⁴³는 끝없이 송객(送客)의 마음 슬프게 하는데
 찬 빗소리 어지러이 들려와 창문 몰래 알았네.
 단심(丹心)이 천지에 쓸쓸해지는 날
 백발(白髮)이 강산에 흔들리며 떨어지는 때이라.
 오래도록 황폐한 소나무와 국화는 도잠(陶潛)의 오솔길
 헛되이 음미하는 난초와 향초는 굴원(屈原)의 사(辭)네.
 내일 아침 기색은 아마도 구슬프리니
 다시 누가 있어 내 시에 화답하려나.

夜雨無端送客悲
 寒聲亂報暗窓知
 心丹天地蕭騷日
 鬢白江山搖落時
 松菊久荒元亮徑
 蘭荃空味屈平辭
 明朝氣色應悵悵
 更有何人和我詩

2.168. 또 앞 시 운자를 사용하여 벗에게 보여준다

[又用前韻 示友人]

가을 들녘 황폐하여 슬픔을 한없이 보고
 천년을 오직 송생(宋生)¹⁰⁴⁴의 앓이 있네.
 초목은 서리를 맞은 뒤 쓸쓸하고
 가슴속 마음은 늙으면 어엿하네.
 기성(騎省)¹⁰⁴⁵의 풍류는 호탕한 부(賦)를 전하고
 용산(龍山)에서 읊은 노래 고상한 사(辭)를 부르네.
 수유(茱萸)가지 다 마르고 남은 꽃술 없으니
 남전(藍田)의 자세한 시¹⁰⁴⁶에 화답하지 마라.

秋野荒蕪極目悲
 千年唯有宋生知
 蕭蕭草木經霜後
 落落襟懷到老時
 騎省風流傳好賦
 龍山嘲詠騁高辭
 茱萸枯盡無餘蕊
 莫和藍田仔細詩

1043) 밤비 : 밤비는 이곳에서 그리운 친구 宋純을 가리킨다. 唐나라 李商隱이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여 지은 <夜雨寄北>에 “그대 돌아올 날 물어도 기약은 없고 / 파산의 밤비만 가을 못에 넘치누나. / 어찌하면 함께 서쪽 창 의 촛불심지 자르면서 파산의 밤비 내리던 시절을 얘기할거나. [君問歸期未有期, 巴山夜雨漲秋池. 何當共翦西窓燭, 却話巴山夜雨時.]”에서 온 말이다.

1044) 여기서 ‘宋生’은 宋純을 가리킨다.

1045) 기성(騎省) : 6曹의 하나로, 군사와 郵驛 따위의 일을 맡아보았다.

1046) 남전(藍田)의 자세한 시 : 王維(699~761)의 <藍田山石門精舍>를 말한다.

단풍잎과 국화꽃 세모(歲暮)에 서글프니
산에 오르는 회포(懷抱) 그 누가 알까.
살랑살랑 가벼운 곳도 견디기 어려운데
어둑어둑 하물며 달 밝은 때야.
구름 밖으로 기러기 오는 소리 외로운 나그네 듣고
마루 앞에서 제비는 주인과 작별하네.
분분(紛紛)이 가는 계절 마음이 놀라
맑은 술동이 향하여 옛 시를 읊조리네.

赤葉黃花歲暮悲
登臨懷抱有誰知
不堪策策風輕處
況是荒荒月白時
雲外雁來孤客聽
堂前燕與主人辭
紛紛節序驚心事
且向清樽詠古詩

창가에 홀로 누운 서글픈 마음
뜰에 지는 낙엽마다 안다네.
흠손을 그어 음식 얻기 어려우니¹⁰⁴⁷⁾ 스스로 우습고
내기 사냥¹⁰⁴⁸⁾에 부질없이 달려감을 누가 가없다 하랴.
일 년의 생김새 가을과 함께 늙어가고
새벽의 정의 병중에도 사양 않네.
붓의 힘이 오래되고 쇠약하여 시흥(詩興)이 다했으나
오늘 그대를 위해 억지로 시를 이루네.

窓間獨臥抱深悲
箇箇中庭落葉知
自笑畫墁難得食
誰憐獵校謾趨時
一年顏狀秋兼老
五夜情懷病不辭
筆力久衰吟興盡
爲君今日強成詩

강 구비에 가을이 깊어 온 나무가 서글픈데
늘그막에 이 마음 그대에게 의탁하네.
눈앞의 영화와 쇠락 모두 한가로운 일
세상의 공명도 잠시라네.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노래하고 통음(痛飲)하기 사양하지 않으려네.
우산(牛山)에서처럼 좋은 옷 적시지 않으려고
입을 열어 두목(杜牧)의 시 읊조리네.¹⁰⁴⁹⁾

江曲秋深萬木悲
暮年心契托君知
眼前榮落渾閑事
世上功名亦暫時
望遠登高猶有處
酣歌痛飲欲無辭
牛山不爲沾衣好
開口須吟杜牧詩

1047) 흠손을 그어 ~ 얻기 어려우니 : 『孟子』, <滕文公 下>에서 나오는 孟子와 彭更의 고사를 말한다.

1048) 내기사냥 : “獵校”에 대해서는 사냥에서 서로 사냥한 것을 빼앗아 제사 지내는 것이라는 설과, 사냥하여 잡은 짐승의 많고 적음을 서로 비교한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朱熹는 『孟子集註』에서 판단을 미루고, 趙氏와 張氏의 설을 실어 놓았는데, 趙氏는 “사냥을 하여 서로 다투어서 금수를 빼앗아 제사 지내는 것이다.” 하였고, 張氏는 “사냥하여 누가 많이 잡았는지 비교하는 것이다.” 하였다.(『孟子』, <萬章 下>, 朱子註 참조.)

2.169. 강가에서 밤에 등불을 보며 벗에게 보여준다.

[江夜見燈 示友人]

안개가 자욱하니 어느 곳이 서흥(西興) ¹⁰⁵⁰ 인가	煙沈何處是西興
멀고 가까운 누대에 등불만 보이네.	遠近樓臺祇見燈
반짝반짝 벽 사이로 한 점 빛 밝고	耿耿壁間明一點
넘실넘실 물결아래 천 층 파도 솟아나네.	溶溶波底潑千層
빛은 외로운 기러기 따라 깊은 물가에 의지하고	光連獨雁深依渚
그림자는 물고기 떼를 쫓아 어지러이 그물 피하네.	影逐群魚亂避罾
오늘밤 빈 강에서 가만히 샅대 짓는데	此夜空江橫暗掉
겨드랑이 사이에 바람 일더니 신선이 될 듯하네. ¹⁰⁵¹	風生兩腋欲無憑

2.170. 송미수¹⁰⁵²의 <솔막걸리에 감사하다>에 차운하다 이름은 인수다.

[次宋眉叟謝松醪韻 名麟壽]

누가 술잔 아래 술숲이 있음을 알았으랴	誰知盞底有林巒
솔바람 소리가 입안에 이누나.	漸覺松聲在齒間
공(公)의 가슴을 툭 트이게 할 뿐 아니라	不獨澆公胸磊落
나의 하얀 귀밑머리도 다시 검게 하리라.	還應黑我鬢鬢殘
온화한 바람이 자리에 드니 순후함 돌아오고	和風入座回淳古
봄기운이 술잔에 감돌아 추위를 물리치네.	春氣浮杯辟沍寒
세상 사람들은 이 맛을 논하지 마라	莫向世人論此味
참다운 기쁨을 애들이 어찌 알까나.	兒曹那復識眞歡

1049) 우산(牛山)에서처럼 좋은 옷 적시지 않으려고 : 齊나라 景公이 牛山에 올라가서 노닐다가 북쪽으로 國城을 굽어보고는 “이 아름다운 강산을 놔두고 어떻게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자, 모두가 함께 옷깃을 적셨다는 고사가 있다.([晏子春秋], <內篇·諫上>.)

1050) 서흥(西興) : 현재 충남 천안의 지명으로 추정된다.

1051) 겨드랑이 사이에 ~ 될 듯하네 : 唐나라 盧仝의 <走筆謝孟諫議寄新茶>에서 “일곱 번째 잔은 마실 수 없으니 / 오직 겨드랑이 사이에서 맑은 바람 이는 것 같은 느낌만 드네. [七椀喫不得也, 唯覺兩腋習習清風生.]”라고 하였다. 이것은 仙靈과 통한다는 것이다.

1052) 송미수 : 宋麟壽(1499~1547)를 말한다. 연산군~명종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恩津, 자는 眉叟 또는 台叟, 호는 圭菴이다. 저서로 『圭菴集』이 있다. 시호는 文忠이다.

3. 부록

[附錄]

3.1. 조산대부수홍문관전한지제교겸경연시강관춘추관편수관엄공갈문

[朝散大夫守弘文館典翰知製敎兼經筵侍講官春秋館編修官嚴公碣文]

홍문관전한겸경연시강관지제교(弘文館典翰兼經筵侍講官知製敎) 엄흔(嚴昕)은 자(字)가 계소(啓昭)로, 나이 서른여섯에 병환으로 서울에서 죽었다. 그 다음해 나는 황해도 안찰사로 체직되어 장의리(藏義里) 집에서 임시로 살고 있었는데, 공(公)의 동생인 서(曙)가 내 집 대문에 와서 알려주며 말하였다.

“죽은 형 흔(昕)의 장사는 이미 마치었습니다. 형이 매우 가난하여 죽은 날 집안에 돈 한 푼도 없었습니다. 죽어 장례 치를 때까지 모든 상사(喪事)를 치르는 비용은 모두 조정에서 교유한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지금 게다가 여러 친구들의 힘을 의지하여 비석 하나를 준비하고, 한식 때 사적을 기술하여 세우고자 하니, 마땅히 형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의 비문(碑文)을 얻어야 형의 사적을 진실하게 하고, 형의 이름을 길이 남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 죽은 형의 마음을 깊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까? 형과 함께 불후(不朽)할 비문의 글 한 편을 부탁합니다.”

아! 내가 우리 계소(啓昭)의 비문을 차마 지을 수 있겠는가? 계소는 나의 친구다. 이미 죽어 그 주검을 어루만질 수 없고, 이미 장사를 치러 하관할 때 참석을 못하였으니, 항상 곁연쩍게 여기었다. 지금 동생(仲氏는曙,昕의 아우이다.)이 형의 비문 일을 가지고서 나에게 연루시키니, 내가 사양하고자 하여 책임자가 아니라고 하면, 이미 전에 실례한 일도 있고, 게다가 그 비문을 사양하면 이는 계소와 절교하는 일이 되니, 차마 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엄씨(嚴氏)의 가계(家系)는 강원도(江原道) 영월군(寧越郡)에서 나왔다. 나라 초기에 가선대부도총제부동지총제(嘉善大夫都摠制府同知摠制)¹⁰⁵³가 유온(有溫)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공의 4대조¹⁰⁵⁴ 할아버지이다. 고조할아버지는 이름이 극인(克仁)¹⁰⁵⁵으로 중훈

1053) 원문의 “嘉善都摠制府同知摠制”는 『寧越嚴氏大同譜』에는 “嘉善大夫左軍都摠制府同知摠制”로 되어 있다. 여기서의 대동보를 따라 嘉善大夫左軍都摠制府同知摠制로 국역하였다.

1054) 원문 “四代祖也”는 바로 다음에 오는 ‘高祖諱克仁’으로 보아 나로부터 산계하면 ‘五代祖’가 된다. 그러나 이를 할아버지로부터 산계하면 ‘四代祖’가 된다. 따라서 원문에 충실하여 국역하였다.

1055) 克仁은 벼슬이 成均館 進士로 일찍 죽었다.(『寧越嚴氏大同譜』 卷1 5쪽 참조.)

대부승문원교리(中訓大夫承文院校理) 송수(松壽)를 낳고, 교리 송수는 증통정대부공조 참의행조봉대부금천현감(贈通政大夫工曹參議行朝奉大夫衿川縣監) 회(誨)를 낳았는데, 연산군(燕山君)의 도의(道義)를 잃은 시대를 만나 죄가 없는데도 죽었고, 성조(中宗初)에 들어와 전대의 원통함을 추설(追雪)¹⁰⁵⁶하여 이에 증직(贈職)이 있었다. 금천현감이 보공장군충좌위좌부장(保功將軍忠佐衛左部將)¹⁰⁵⁷ 용화(用和)를 낳으니, 이가 실재공(公)을 낳았다. 어머니는 사섬시첨정(司贍寺僉正) 안동(安東) 김중성(金仲誠)의 딸이다.

공은 어린 나이에 행동거지가 보통의 아이들과 다르고, 책을 읽을 줄 알아 놀기를 좋아하지 않았다. 12살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곡읍(哭泣)을 지나치게 슬피하여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더욱 독실하게 하면서 그만두지 않았다.

을유(乙酉)년(1525, 중종20), 나이 18살에 사마시를 거쳐 무자(戊子)년 21살에 갑과제3인으로 합격하고, 처음 제수 받은 관직은 무공랑사섬시직장(務功郎司贍寺直長)이었다. 이 해 가을(8월)에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선발되어 임명되고, 겨울(10월)에 (홍문관)저작(著作)에 올랐다.

기축(己丑)년 봄에 품계가 올라 선무(宣務)가 되고, (홍문관)박사(博士)에 올랐다. 여름에 본직¹⁰⁵⁸에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를 겸하였다. 겨울에 (홍문관)부수찬지제교(副修撰知製敎)에 올랐다.

경인(庚寅)년 여름에 수찬(修撰)을 수직(守職)하였고, 홍문관에 있으면서 장주(章奏)¹⁰⁵⁹를 올려 시정의 득실에 관하여 논했는데, 홍문관의 바른 말과 바른 논의가 거의 공의 입에서 나왔다. 여러 학사들이 그의 뛰어난 감동을 받았고, 당시 문형(文衡)¹⁰⁶⁰의 요직에 있는 자가 공의 학문에 연원이 있어 (공의) 문장에 탁월한 흥취가 있다고 여기었다. (이 일을) 임금에게 아뢰니, 사가독서를 동호의 강변으로 가게 되었고,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으로 전직되었다. 겨울(11월)에 홍문관수찬(弘文館 修撰)으로 다시 임명되었다.

신묘(辛卯)년 봄에 선교(宣敎)가 더해지고, 겸세자시강원사서(宣敎兼世子侍講院司書)하였고, 조금 있다가 이조좌랑지제교(吏曹佐郎知製敎)에 전직되었다.

1056) 추설(追雪) : 죽은 뒤에 죄를 풀어 주는 것을 말한다.

1057) 원문의 “忠佐衛左部長”은 『寧越嚴氏大同譜』에는 “保功將軍忠佐衛左部長”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대동보를 따라 保功將軍忠佐衛左部長으로 국역하였다.

1058) 본직(本職) : 어떠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자기를 가리키는 말이다.

1059) 장주(章奏) : 신하가 황제나 임금에게 올리던 글을 말한다.

1060) 문형(文衡) : 홍문관과 예문관의 으뜸 벼슬이다. 정2품으로 1401년에 대학사를 고친 것이다.

임진(壬辰)년 여름 하찮은 일에 연좌되어 파직되었다. 아마도 정언(正言) 때 권신(權臣. 金安老)을 거역하는 일이 많았는데 이때에 이르러서 혈뜰음을 당한 것 같다.

부장공(部將公)¹⁰⁶¹이 오랫동안 고질병이 걸려서 항상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공은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모시면서 조금도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기도하고 약 다리는 등의 일을 모두 몸소 직접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시키지 않았다.

부장공의 죽음에 이르러서는 비통하게 곡읍하여 길가는 이를 감동시키고 슬프게 하였고, 상례·장례와 제사를 하나같이 예법에 따랐다. 공이 상중(喪中)에 있는 동안 효도를 다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연원이 있었다. 상기가 끝나자 상복을 벗고 바로 묘 옆에 집을 짓고, 대문을 닫고 자취를 감추어 세상과 담을 쌓고서 경서(經書)와 사서(史書)의 사이에서 자유자재로 하였다.

정유(丁酉)년 겨울에 권세를 갖은 간신들이 죄를 인정하여 일찍이 직언하여 견책당한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다.

무술(戊戌)년 봄에 다시 서용되어 성균관전직(成均館典籍)이 되었다가 세자시강원사서(世子侍講院司書)로 바뀌고, 승문원교리지제조(承文院校理知製敎)에 올랐다. 가을에 봉상시판관(奉常寺判官)으로 바뀌고, 다시 홍문관부수찬(弘文館副修撰)에 임명되었다. 겨울에 부교리(副校理)로 승진하였다.

기해(己亥)년 봄에 중국에서 사신 화찰(華察)과 설정총(薛廷寵)이 오니, 원접사(遠接使)¹⁰⁶²가 공(公)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아 수행하게 하였다. 이때 오고가면서 읊은 시가 나라를 빛나게 하였으니, 문장마다 모두 보배로 삼을 만하였다. 여름에 이조정랑(吏曹正郎)에 임명되었다. 가을에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으로 바뀌었다. 겨울에 사인(舍人)으로 승진되었다.

경자(庚子)년 여름에 사헌부장령(司憲府掌令)에 임명되었고, 다시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에 임명되었는데 일에 연좌되어 파직 당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서용되어 군기시첨정(軍器寺僉正)에 제수되었다. 겨울에 시강원필선(侍講院弼善)으로 바뀌었다.

신축(辛丑)년 여름에 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으로 승진되었고, 조금 있다가 홍문관전환(弘文館典翰)으로 전직되었다. 공은 이 해에 풍질이 생기어 오래 동안 낫지 않아 말은 일을 사면해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두 차례 체직(遞職)이 되다가 조정에서는 끝내 병을 고칠 수 없는 공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연이어 한직(閒職)을 제수하여서

1061) 부장공(部將公) : 저자 엄혼의 아버지 用和를 말한다.

1062) 원접사(遠接使) : 이때 원접사는 蘇世讓이었다.

봉록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승문원(承文院)교검(校檢)·교리(校理)·참교(參校)와 성균관(成均館)사예(司藝)·사성(司成)과 통례원(通禮院)찬의(贊儀)와 의빈부(儀賓府)경력(經歷) 같은 관직이 그가 거쳐 간 한직이다.

아! 운명인가보다 이러한 사람이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하다니! 공은 충성, 신의, 청렴, 정직으로 그 자신을 수양하고, 넓고 크고 온화하고 후덕함으로 자신의 주위를 살피었다. 따라서 일처리는 공명정대하게 하고, 뜻은 견고하게 세워 행동거지를 취사함에 있어서 사군자의 지조가 있었다.

국가의 정사를 논의하는 자리를 만나서는 정도를 지키면서 돌아보지 않았고, 한 터럭만큼의 생각도 자신을 돌보지 않았다. (공은) 경적(經籍)¹⁰⁶³을 너무 좋아하여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니, 문장을 지음에 전아하고 장중하며 간결하고 고풍스러움이 있었다. 한 때의 동료들이 문장의 수려(秀麗)함을 논의하면서 훗날 문형(文衡)을 맡게 될 사람으로 모두 공을 선두로 삼음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일찍이 교지에 응하여 경기도 감사(監司)에게 내리는 교서(敎書)를 지어서 올렸는데, 임금의 보고 감탄하며 훌륭하게 여겼다.

(공은) 서(曙)와 병(昞) 두 동생이 있었는데, 우애가 극진하여 하나의 음식이 있더라도 반드시 서로 나누어 먹었다. 병(昞)이 (공보다) 먼저 죽으니, 통곡하고 슬프고 쓰러진 마음이 오래 가지지 않았다. 무릇 임금과 부모를 섬기고, 형제와 우애하고 친척을 우애롭게 여기며, 친구에게 신의가 있었으니, 하나같이 지극하고 정성스런 마음에서 나왔다.

(공은) 일찍이 “십성당(十省堂)”으로 자호를 삼고, 그 조목을 말하였는데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 행동은 거만하게 하지 말라, 술은 탐닉하지 말라, 여색은 가까이 하지 말라, 명예는 훼손하지 말라, 화냄은 좋아하지 말라, 남을 대접할 때에는 후덕하게 하라, 일을 처리 때에는 관대하게 하라, 공직은 근면 하라, 집안일은 멀리하라.” 라고 하였다. 일찍이 이를 가지고 스스로 경계삼고, 행동함에 반드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공이 평생 행한 일은 십성(十省)을 벗어나서는 언행 하나라도 그 경계를 저버리고 제멋대로 횡횡하는 일이 없었다.

공이 병으로 죽자 친척과 친구들이 알고 애통하여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임금이 (부음을) 듣고 애석해 하며 사부(賜賻)¹⁰⁶⁴를 내려 주었다. (공의) 덕은 백성을 보살피어 줄만하였고, 재주는 나라를 다스릴 만하였다. 그러나 (덕과 재주를) 베풀

1063) 경적(經籍) : 옛 성현들이 유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적어 놓은 책, 四書五經을 말한다.

1064) 사부(賜賻) : 임금이 신하가 죽었을 때 賻儀를 보내던 일을 말한다.

지 못하고 요절하니, (이것이) 사람을 울리고 임금의 마음을 측은케 하는 말미가 되고 말았다.

박씨(朴氏) 부인은 무안 후손으로 의정부좌참찬(議政府左參贊) 박호(朴壕)의 손자인 장사랑(將仕郎) 박대유(朴大有)의 딸인데 공보다 삼년을 앞서 죽었다. 박씨 부인은 공이 중병을 얻은 데에 애통하게 여기었는데 이를 지나치게 슬퍼하다가 죽었으나, 집안 사람들은 공 때문에 병이 나서 죽음을 결국 알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 양천(陽川) 백암산(白巖山) 선영(先塋) 옆에 나란히 장사지내 주었다. (박씨는) 일남 삼녀를 두었는데 모두 나이가 어렸다.

弘文館典翰兼經筵侍講官知製敎嚴君諱昕, 字啓昭, 年三十六, 病卒京師. 其明年, 某遞按察黃海, 僑寓藏義里舍, 公弟曙進余門, 告曰: “亡兄昕已葬矣. 兄貧甚, 死之日, 家無一錢. 卒比葬, 凡治喪事費, 皆出朝中所與游. 今又賴諸友力, 備石一片, 欲及寒食 記事迹以豎, 宜得知兄心深者銘, 可以信兄迹而壽兄名. 君非深知吾亡兄心者耶? 請銘一言, 與兄不朽.” 嗚呼! 吾尚忍銘吾啓昭也哉? 啓昭, 吾友也. 死既不得撫其屍, 葬既不得臨其窆, 常以爲缺然. 今者, 荷仲氏之以銘其兄累我, 我欲辭非其人, 則既失於前. 又辭其銘之, 是與啓昭絕矣, 亦所不忍. 惟嚴氏系出江原道寧越郡. 當國初, 有爲嘉善都摠制府同知摠制者, 曰有溫, 於公爲四代祖也. 高祖諱克仁, 是生中訓大夫承文院校理諱松壽, 校理生贈通政大夫工曹參議行朝奉大夫衿川縣監諱誨, 遭燕山失道, 死非其辜, 入聖朝, 追雪前冤, 有是贈. 衿川生忠佐衛左部將諱用和, 是實生公. 母, 司贍寺僉正安東金仲誠之女也. 公雖在齠髻, 舉止異凡兒, 知讀書, 不好弄. 年十二, 丁內憂, 哭泣過哀, 濱於死, 益篤不已. 乙酉歲, 年十八, 舉司馬試, 至年二十一戊子歲, 中甲科第三人, 初授務功郎司贍寺直長. 是年秋, 選拜弘文館正字, 冬, 陞著作. 己丑春, 加階宣務, 陞博士. 夏, 以本職兼世子侍講院說書. 冬, 陞副修撰知製敎. 庚寅夏, 陞守修撰, 館中上章奏, 論時政得失, 其格言正論, 多出於公口. 諸學士服其英偉, 時柄文衡者, 以公學有淵源, 爲文章蹕有遠趣. 白于上, 賜暇讀書于東湖之濱, 轉司諫院正言. 冬, 復拜弘文館修撰. 辛卯春, 加宣敎, 兼世子侍講院司書, 俄轉吏曹佐郎知製敎. 壬辰夏, 坐微事罷官. 蓋正言時, 多忤權臣, 至是見中. 部將久嬰宿疾, 常臥床褥, 公至誠侍側, 未嘗少懈. 凡禱祀湯藥等事, 皆身之, 不付與他手. 及其卒也, 哭泣悲痛, 感惻行路, 喪·葬·祭祀, 一依禮文. 其居憂盡孝, 自少有源. 服闋, 仍家墓側, 杜門屏迹, 與世抹撇, 而自肆於經史間. 丁酉冬, 權奸伏罪, 盡還諸所嘗直言而見擯者. 戊戌春, 復敍公爲成均館典籍, 遷世子侍講院司書, 陞承文院校理知製敎. 秋遷奉常寺判官, 復拜弘文館副修撰. 冬, 陞副校理. 己亥春, 詔使華公察·薛公廷寵出來, 遠接使, 以公爲從事官而行. 往來吟詠, 輝映江山, 一句皆可寶也. 夏, 拜吏曹

正郎。秋，選議政府檢詳。冬，陞舍人。庚子夏，拜司憲府掌令，復拜議政府舍人，坐事見罷。未幾，復敍授軍器寺僉正。冬，遷侍講院弼善。辛丑夏，昇成均館司成，俄轉弘文館典翰。公於是年，得風疾，久不瘳，乞辭綰事。至再乃遞，朝廷憫公之窮無以治其病，連授閑官，使不絕祿。如承文院之校檢也校理也參校也，成均館之司藝也司成也，通禮院之贊儀也，儀賓府之經歷也，是所歷也。命矣夫！斯人也，竟至不救。公以忠信廉直植其中；寬弘溫厚濟其外。處事正大，立志牢確，行止取捨，有士君子之操。遇論國事，守正不回，無一念顧身。酷好經籍，手不釋卷，爲文典重簡古。一時儕輩論文章之秀，宜爲後日典文衡者，咸以公爲先登。嘗應旨作教京畿監司書以進，上覽而歎美之。有弟二人，曰曙曰昞，極盡友愛，得一物，必相分食。昞先死，痛泣悲傷，久而不衰。凡事君親；友兄弟；恩親戚；信朋友，一出至誠。嘗以“十省堂”自號，其目曰“毋放言；毋傲行；勿耽酒；勿近色；無毀譽；無喜怒；待人厚；作事寬；勤公職；棄家事。”嘗以此自戒，動必踐。故其平生行事，於十省外，無敢有一言行背其戒而橫馳者。及其病卒，親戚朋友聞之，無不痛傷而流涕者。上聞而惜之，賜賻有加。德宜覆民，才宜器國，而竟夭不施，泣士林而惻上情，其有由矣。妻朴氏，務安人也，議政府左參贊朴壕之孫將仕郎朴大有之女也，先公三年歿。朴氏，痛公得重病，過傷而死，一家以公有病，竟不聞至是。耦葬陽川白巖原先塋之側。生一男三女，皆幼。

홍춘경(洪春卿)은 삼가 비문을 짓다.

洪春卿 謹撰.

3.2. 지명 1065)

[誌銘]

엄씨(嚴氏) 선조의 계보 출처는 강원도 영월(寧越)이다. (공의) 4대조 유온(有溫)은 가선대부도총제부동지총제(嘉善大夫都摠制府同知摠制)이다. 고조할아버지는 극인(克仁)이다. 증조할아버지는 송수(松壽)니, 중훈대부승문원교리(中訓大夫承文院校理)이다. 할아버지 회(誨)는 금천현감(衿川縣監)으로 연산군(燕山君) 정난을 만나 무고한데 빠졌으나, 중종(中宗) 때에 이르러 법이 바뀌자 추증하여 석방되어 증통정대부공조참의행조봉대부금천현감(贈通政大夫工曹參議行朝奉大夫衿川縣監)이다. 아버지 용화(用和)는 어려서부터 공부에 힘썼으나 궁구하지 못하고, 물러나 강원도에서 살며 고기 잡고 낚시질 하면서 스스로 늙어가다가 추천되어 보공장군충좌위좌부장(保功將軍忠佐衛左部將)이 되었고, 사삼시침정(司瞻僉正) 김중함(金仲誠)의 가문에서 아내를 맞아 정덕(正德) 무진(戊辰, 1508. 중종3. 정덕3)년에 공을 낳았다.

공의 이름은 혼(昕), 자는 계소(啓昭)이다. 어려서부터 소질이 특이하였고, 장성하여서는 경학을 연구하는데 뜻을 독실하게 하여 낮과 밤이 다하도록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가정(嘉靖) 을유(乙酉, 1525. 중종20. 가정4)년에 생원시에 합격하였다. 무자(戊子)년 문과 제3인으로 급제하여 사삼시직장(司瞻直長)에 관례적으로 제수되었다. 이 해 가을(8월)에 홍문관(弘文館)에 선발되어 정자(正字)가 되었다가 (10월에) 저작겸지제교(著作兼知製敎)로 승진하였다. 이로부터 항상 이 이름을 수반하고, 박사겸시강원설서(博士兼侍講院說書)로 바뀌었고, 조금 있다가 다시 부수찬(副修撰)으로 바뀌어 사간원정언(司諫院正言)에 임명되니, 모든 직무를 잘 수행한다고 알려졌다.

당시 김안로는 유배되어 외지에 있었는데, 조정에 신하들은 그를 다시 등용하여 동궁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공은 혼자서 불가함을 고집하며 말하였는데 “나는 일찍이 김안로와 혼인으로 친척이 되어 그가 마음을 쓰고 일을 행하는 것을 익히 아는데, 결단코 좋은 사람이 아니다. 하물며 동궁은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이 함께 우러러 받드는 분인데, 하필이면 이러한 사람을 (등용하여) 경중을 삼겠는가?”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목을 움찔하였으나, 공은 두려워한 기색이 없었다.

수찬겸사서(修撰兼司書)를 지내다가 이조좌랑(吏曹佐郎)이 되었다. 김안로가 이미

1065) 지명 : 비석, 종 따위에 만든 시거나 내력에 관하여 새긴 글을 말한다.

뜻을 얻고, 전날의 원한으로써 공을 배척하니, 공은 사직하고 양천(陽川)에서 지내며 선대의 업을 이어 7년을 보내면서 대문을 닫고 종적을 감추고, 매일 서사(書史)¹⁰⁶⁶를 가지고 스스로 즐기었다.

(공은) 일찍이 증자(曾子)는 성문(聖門)의 최고의 제자임에도 오히려 스스로를 하루에 세 가지 일로 살피는데, 후학이 되어서 더욱 힘쓰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드디어 당(堂)을 “십성(十省)”이라고 이름하고 써서 스스로 이를 경계하였다.

갑오(甲午)년 아버지 상을 당하였는데, 삼년의 시묘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집에 오지 않고, 수제(守制)¹⁰⁶⁷에 극히 조심하였다.

정유(丁酉)년에 정권을 잡은 자들의 죄를 정하여 다스렸는데, 공은 오래토록 폐해진 가운데에서 일어나 전적(典籍)에 제수되어 사서(司書)로 바뀌고, 수찬(修撰)·교리(校理)가 되어 이조정랑(吏曹正郎)이 되었다.

기해(己亥)년에 (중국에서) 화(華)·설(薛)¹⁰⁶⁸ 두 사신이 나왔을 때 공은 종사관¹⁰⁶⁹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화찰(華察)이 공의 예의용모가 한아(閒雅)하고, (일을) 정리하고 수행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입을 모아 상을 주자고 칭송하니, 검상(檢詳)·사인(舍人)에 승진되어 장령(掌令)·필선(弼善)으로 바뀌고, 다시 사인으로 옮겨져 전한(典翰)이 되었다.

임인(壬寅)년에 풍비로 고생하다가 사성(司成)·사예(司藝)로 재직되었다가 사면되었다.

계묘(癸卯)년에 질환이 악화되어 9월 9일 집에서 죽었다. 부음이 알려지자 동궁은 몹시 놀라고 슬퍼하며 사부(賜賻)를 내려주니, 나이 서른여섯이었다. 이 해 12월 양천현(陽川縣) 백석원(白石原)에 선영을 따라 장사지냈다.

공의 자질과 품성은 순후하고 아름답고, 도량이 크고 군세어 집에 있을 때 사람을 접대하는 것과 더불어 교유하는 이를 대할 때에는 처음 지냈던 한 마음이 변한 적이 없었다. 종친과 친족들을 어루만지고, 사내아이 중을 거느림이 모두 그 도리에 부합하였다.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서모(庶母)를 섬기는데 근신하고, 충좌위좌부장(忠佐衛左部將) 아버지가 일찍이 풍질의 병환으로 3년을 병석에 누웠는데, 공은 친히 약을 조제하고 먹여 보면서 잠시도 슬하를 떠나지 않았으니, 외모가 갑자기 야위었다. 비록 추위

1066) 서사(書史) : 여러 책을 종류별로 분류할 때 그중 經書類와 史書類를 아울러 이르던 말이다.

1067) 수제(守制) : 자식이 부모상을 당해 만 27개월 동안 근신하며 모든 교제를 끊음을 말한다. 선비는 과거 응시를 중지하고, 관리는 그 職을 사임한다.

1068) 화설(華薛) : 華察과 薛廷寵을 말한다.

1069) 종사관(從事官) : 이때 임혼은 遠接使 蘇世讓의 종사관이 되었다.

가 매서운 한 겨울일지라도¹⁰⁷⁰) 반드시 목욕재계하고 매일 밤중에 하늘에 기도하면서 연명을 빌었다. 어떤 날은 이슬을 맞으며 아침을 맞이하니, 보는 사람마다 서글퍼서 눈물을 떨구었다. 어린 동생 병(昞)이 가슴에 질병이 있어¹⁰⁷¹) 의원을 불러와 (치료의)방법을 찾을 때 정성을 다하고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는 아마도 효우의 지성이 천성에서 나와 그렇게 한 것 같다.

(공은) 일찍이 한 방에 거처하면서 책을 좌우에 놓고 닭이 울면 일어나 바르게 앉아 읽고 암송하였는데, 옛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이기는 훈계를 관찰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반복하여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였다. 일찍부터 호담암(胡澹菴)에서 보낸 봉사(封事)¹⁰⁷²) 일도를 글로 써서 문미(門楣)¹⁰⁷³) 사이에 걸어 놓고, 공은 조정에서 퇴청하면 반드시 한번 장중하게 두루 암송하기를 힘써 일하는 말에게 더욱 채찍질을 하듯 하였다. 공은 (집에) 들어와서는 논사(論思)¹⁰⁷⁴)하는 관원의 일에 대비하고, (집을) 나아가서는 궁료(宮僚)¹⁰⁷⁵)의 선발에 응하여 성상(聖上)의 아름다운 생각을 도와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덕행을 쌓음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았으니, 품은 생각이 다진달하였다. (공은) 좌우로 몸을 삼가지 않음이 없었고, 간관(諫官)의 지위에 있을 때에는 의논이 바람처럼 일어나도 이익과 손해를 돌아보지 않았다. 일찍부터 그는 김안로는 해코지를 좋아하고 마음이 교활하다고 여기며 배척하였는데, 훗날 마침내 그의 말처럼 되니, 사람들은 공의 선견지명에 감복하였다. (공이) 시문을 지을 때에는 글이 고상하고 힘이 있으며, 원만하고 수려하였다. 일찍이 사가독서(賜暇讀書)¹⁰⁷⁶)를 하였고, 다시 예문관응교(禮文館應敎)를 겸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공을 받들어 칭찬하는 일 이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청렴하고 검소한 마음으로 자신을 갈고 닦아 세업(世業)¹⁰⁷⁷)을 남기었으나 한번 병이 들자 일어나지 못하니, 친구들이 서로 더불어 눈물을 흘리며 조문하면서 모두 국기(國器)¹⁰⁷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었다.

(공의) 부인은 무안 박씨(朴氏)이니, 선비 대유(大有)의 딸이다. 현철하고 법도가 있

1070) 원문은 ‘祈寒’인데, 원문의 誤字로 보고, ‘祈’를 ‘禱’로 바로잡아 국역하였다. 참고로 ‘祈寒’은 ‘祈寒祭’의 준말로 겨울이 너무 따뜻할 때, 추위지기를 바라는 제사를 말한다.

1071) 원문은 ‘在服’인데 원문의 誤字로 보고, ‘服’을 ‘腹’으로 바로잡아 국역하였다.

1072) 봉사(封事) : 上奏文을 봉하여 올리는 일이나 그 상주문을 이르던 말이다.

1073) 문미(門楣) : 문이나 창문 위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를 말한다.

1074) 논사(論思) : 나라 다스리는 도리를 의논하고 생각함을 말한다.

1075) 궁료(宮僚) : 世子侍講院에 속한 輔德 이하의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던 말이다.

1076) 사가독서(賜暇讀書) : 원문에는 “賜暇書堂”이나 “賜暇讀書”로 바로잡아 국역하였다.

1077) 세업(世業) : 집안 대대로 전해 오는 가업을 말한다.

1078) 국기(國器) : 나라를 다스릴만한 능력과 재주를 말한다. 또는 그러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으며 부도(婦道)를 매우 잘 실천하였는데 공보다 1년 먼저 죽었다. 1남 3녀를 두었는데, 장녀는 정랑 유사신(正郎 柳思新)과 결혼하여 딸을 낳으니, 유학 조규(幼學 趙珪)에게 시집갔다. 차녀는 학생 이문거(學生 李文据)와 결혼하여 1남 4녀를 낳으니, 모두 어렸다. 삼녀는 유학 김여순(幼學 金汝順)과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으니, 모두 어렸다. 아들 인술(仁述)은 음보(蔭補)1079)로 사옹원참봉(司饗院參奉)에 제수되어 현감(縣監)으로 근면하고 조심하니, 그 가업을 세습할 수 있었다. 호군 박행검(護軍 朴行儉)의 딸과 결혼하여 1남 2녀를 낳으니, 모두 어렸다.

인술(仁述)은 나와 이웃 마을에서 살았는데, 하루는 행장을 가지고 와 나에게 건네 주며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지 지금까지 24년이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비석에 새겨 마음에 간직하고 훗날 드러낼 묘지명이 없다. 아버지의 모범된 행실을 어렵게 하고 (후손에게)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나의 죄다. 그대가 힘써 준다면 내가 (아버지의) 훌륭한 덕행을 세상에 밝게 드러내었다고 여길 것이다.” 라고 하였다. 나는 책임자가 아니었으나, 인술(仁述)의 뜻이 더욱 간절하고 말이 더욱 애처로워서 사양할 수 없었으니, 그 대대의 계통과 이력과 지행(志行)을 대략만 서술하고, 묘비명으로 이어 놓았다. 묘비명에서 말하였다.

嚴氏之先，系出寧越。四代祖諱有溫，嘉善大夫同知摠制。高祖諱克仁，曾祖諱松壽，承文院校理。祖諱誨，衿川縣監。遭燕山政亂，陷非辜，逮中廟改玉，得追釋，贈工曹參議。考諱用和，少勵業未究，退處江鄉，以漁釣自老，用薦爲部將，聘于司贍僉正金仲誠之門，以正德戊辰，生公。公諱昕，字啓昭。幼有異質，及長，篤意治經，窮日夜不懈，中嘉靖乙酉生員。戊子，擢文科第三人，例授司贍直長。是年秋，選入弘文館爲正字，陞著作兼知製教。自是，常帶是號，遷博士兼侍講院說書，俄轉副修撰，拜司諫院正言，以舉職聞。時金安老謫在外，廷臣多欲汲引，以爲東宮地者，公獨執不可曰：“吾與安老，嘗連姻，熟聞其處心行事，決非佳士也。況東宮，一國臣民，所共仰戴，何須此人，以爲輕重耶？”聞者爲之蹙頰，而公無懼色。歷修撰兼司書，爲吏曹佐郎。安老既得志，用前嗾斥之，公罷居陽川，先業者七稔，杜門掃軌，日以書史自娛。嘗以爲曾子聖門高第，猶三省其身，在後學，尤不可不勉。遂名堂以十省，用自警焉。甲午，丁外艱，居憂三載，一不到家，守制甚謹。丁酉，定用事者之罪，起公久廢之中，授典籍，遷司書，爲修撰·校理，爲吏曹正郎。己亥，華·薛兩使之來，公以從事官隨焉。華人見其禮貌閑雅，儀度整修，交口稱賞，陞檢詳·舍人，遷掌令·弼善，復轉舍人，爲典翰。壬寅，苦

1079) 음보(蔭補) : 조상의 덕으로 벼슬을 얻는 일을 이르던 말이다.

風痺, 免爲司成·司藝. 癸卯, 疾轉革, 以九月十九日, 卒于第. 聞訃, 東宮震悼, 賜賻有加, 春秋三十有六. 以是年十二月, 葬于陽川縣白石原, 從先兆也. 公資稟純美, 宇量弘毅, 其居家, 接人與待交游, 初持一心, 未嘗有變. 撫宗黨, 御僮僕, 皆得其道焉. 小失先妣, 事庶母惟謹, 部將公嘗患風疾, 在床褥者三年, 公親調藥餌, 暫不離膝下, 形貌頓瘁. 雖祈寒, 必沐浴齋潔, 每中夜祈天請命. 或露立達朝, 見者悲泣. 少弟昞, 在服纏病, 迎醫檢方, 盡心不怠. 蓋其孝友之誠, 出於天性然也. 嘗處一室, 左右圖書, 鷄鳴而起, 端坐諷讀, 至觀古人治心克己之訓, 必及覆以深繹之. 嘗書胡澹菴封事一道, 揭諸楣間, 公退, 必莊誦一遍, 以改勵馬. 公入備論思之官, 出膺宮僚之選, 以沃贊睿猷, 輔導儲德爲己任, 有懷必達. 左右莫不聳躬, 其在言地, 議論風發, 不顧利害. 嘗排金安老以爲劉猾, 後竟如其言, 人服其遠識. 爲詩文雅健圓麗. 嘗賜暇讀書, 復以兼帶藝文應教. 其爲時輩, 所推許者如此, 尤以清儉自砥礪, 以遺其世業, 而一疾不起, 親舊相與流涕而弔之, 咸惜其國器焉. 配務安朴氏, 士人大有之女也. 賢有法度, 得婦道甚, 先公一年而卒. 生三女一男, 長女適正郎柳思新, 生一女, 適幼學趙珪. 次女適學生李文珪, 生四女一男, 皆幼. 次女適幼學金汝順, 生三男, 皆幼. 男仁述, 蔭補司饗院參奉, 守官勤謹, 能世其家. 娶護軍朴行儉女, 生二女一男, 皆幼. 仁述與余比巷而居, 一日, 手狀抵余曰: “自吾先君之下世, 至于今二十有四年. 尚無銘誌以刻于石, 以藏于幽, 以彰于後. 使先人行範昧而不傳, 則吾有罪焉. 子其勉之, 余以爲焯德顯世.” 吾非其人, 仁述志愈懇言愈悲, 辭之不獲, 則略敘其世系履歷志行, 而系以銘. 銘曰:

덕행이 있고 재기가 있어도

有德有才

공은 장수(長壽)를 다 누리지 못하였네.

不享其壽

많은 것을 축적하고 청렴을 취한다면

蓄多取廉

과연 누구에게 허물을 보낼까

果何歸咎

내가 공의 행적을 으뜸으로 삼고

我最其跡

영원하다고 고(告)하노라.

用告不朽

만력4(1576. 선조9)년 8월 일 승의랑수이조정랑지제교 이발(1080)은 삼가 기록하다.

萬曆四年八月日 承議郎守吏曹正郎知製教 李潑 謹誌

1080) 이발 : 李潑(1544~1589)은 중종~선조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光山, 자는 景涵, 호는 東巖·北山이다. 金謹恭·閔純의 문인이다.

3.3. 십성당명

[十省堂銘 有序]

교리(校理) 엄흔(嚴昕)은 ‘십성(十省)’으로 당(堂)을 명명하였는데, 이는 증자(曾子)의 ‘삼성(三省)’의 뜻을 취하여 넓힌 것이다. 엄 선생은 자질이 아름답고 문장이 있었는데, 내가 처음 조선에 들어올 때 찬성 소군(贊政蘇君)¹⁰⁸¹을 수행하여 의순관(義順館)에서 맞이하였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강가에서 전송하였다. 이로 인하여 엄 선생을 불러 애기를 나누며 바로 (공을) 위하여 명(銘)을 지었다. 명(銘)에서 말하였다.

嚴校理昕以十省名堂，蓋取曾子三省之義而擴之。嚴子質美而文，予初入朝鮮，隨贊政蘇君，逆於義順，歸復送之江上。因徵子言，乃爲之銘。銘曰：

오직 하늘의 운행은	維天之行
지극히 강건하여 쉬지 않으니	至健不息
군자가 이를 본받아	君子法之
그 덕을 날마다 새롭게 하네.	日新其德
일신의 작은 몸이라도	一身之微
백(百) 가지 행실이 모이니	百行攸集
선(善)을 위하면 순(舜)임금 ¹⁰⁸² 이요	爲善而舜
이익을 위하면 도척(盜蹠) ¹⁰⁸³ 이네.	爲利而蹠
후회하고 인색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悔吝憂虞
길하고 흉하고 얻고 잃음을	吉凶得失
마음에 돌이켜서 보니	反觀於心
흑백처럼 분명하네.	較若白黑
옛날 성현은	古之聖賢

1081) 소군(蘇君) : 遠接使 蘇世讓을 말한다. 여기서 “贊政”은 ‘贊成’의 誤記로 보인다. 『국역 국조인물고』 소세양 기사에 따르면, 1539년에 소세양이 좌친성이 되었고, 이해 봄에 명의 황제가 태자를 책봉하고 한림원 시독 화찰 등을 보내 조서를 반포하게 하자 공을 원접사로 임명한 일이 있었다. 따라서 당시 소세양의 관직은 左贊成임이 분명하다.

1082) 순(舜)임금 : 고대 중국의 전설적인 제왕으로, 五帝의 한 사람이다. 성은 虞, 이름은 重華이다. 효행이 뛰어나 堯임금으로부터 천하를 물려받았다.

1083) 도척(盜蹠) : 도척은 魯나라 사람으로 孔子 當代의 도적이다. 현인인 柳下惠의 동생으로 9천 무리를 지어 다니며 담을 허물고 물건을 빼앗았다고 한다.(『孟子』, <盡心 上>.)

하루 종일 부지런하고 조심하였으니 ¹⁰⁸⁴	朝乾夕惕
우(禹)임금은 촌음을 아끼고	禹惜寸陰
문왕(文王)은 익익(翼翼) ¹⁰⁸⁵ 하고	文王翼翼
탕왕(湯王)은 십건(十愆) ¹⁰⁸⁶ 을	殷湯十愆
안연(顔淵)은 사물(四勿) ¹⁰⁸⁷ 로 삼가 하였네.	顔淵四勿
군자의 도를	君子之道
구(丘) ¹⁰⁸⁸ 는 하나도 잘하지 못한다고 하니	丘未能一
이에 오직 증삼(曾參)이	粵惟曾參
당(堂)에 올라 방에 들어가	升堂入室
우리 도의 전함은	吾道之傳
충서(忠恕) 하나일 뿐이라고 대답하네. ¹⁰⁸⁹	一唯而得
스스로 살핌을 간절히 하고	猶切自省
대자리를 바꾸도록 다하니 ¹⁰⁹⁰	盡於易簣
하물며 나 같은 소자(小子)가	矧予小子
감히 겨를에 편안하라.	而敢暇逸

1084) 하루종일 ~ 조심하였으니 : 군자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군자가 종일토록 굳세고 굳세게 하여 저녁에는 조심하니, 좀 위태롭기는 하니 허물이 없다. [君子終日乾乾，夕惕若，厲无咎.]”(『周易』의 乾卦 九三 爻辭)

1085) 익익(翼翼) : 小心翼翼의 준말로, 마음을 작게 하고 공경한다는 말로, 대단히 조심하고 삼간다는 뜻이다.(『詩經』, <大雅 蒸民>.)

1086) 십건(十愆) : 三風十愆의 준말로, “巫風은 노래와 춤 두 가지와 淫風은 재물, 여색, 놀이, 사냥 네 가지와 亂風은 성인의 말을 업신여김, 충직한 이를 거슬림, 늙고 덕 있는 이를 멀리함, 악동과 친하게 지내는 네 가지를 가리키는데 합하여 十愆이다. [指巫風二舞歌，淫風四貨色游畋，亂風四侮經言逆忠直遠者德比頑童，合而爲十愆.]”(『書經』, <伊訓>.)

1087) 사물(四勿) : “안연이 인에 대해 물었다. 孔子가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감이 인을 행하는 것이 된다. 하루라도 사욕을 이겨 예에 돌아가면 천하가 인을 허여하는 것이다. 인을 행하는 것은 자기 몸에 달려 있는 것이니,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다. 안연이 ‘그 조목을 묻습니다.’라고 하자, 공자가 ‘예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며,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안연이 ‘제가 비록 불민하오나 청컨대 이 말에 중사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顔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一日克己復禮，天下歸仁焉. 爲仁由己，而由人乎哉. 顔淵曰: 請問其目. 子曰: 非禮勿視，非禮勿聽，非禮勿言，非禮勿動. 顔淵曰: 回雖不敏，請事斯語矣.]”(『論語』, <顔淵>.)

1088) 구(丘) : 孔子의 이름이다.

1089) 우리 도의 ~ 뿐이라고 대답하네 : “공자가 물었다. ‘삼아 내 도는 하나로써 꿰었느냐?’ 증자가 대답하였다. ‘예’ 공자가 나가자 문인이 ‘무엇을 말합니까?’ 문자, 증자가 대답하였다. ‘부자의 도는 충서일 뿐이다.’ [子曰: 參乎，吾道，一以貫之. 曾子曰: 唯.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忠恕而已矣.]”(『論語』, <里仁>.)

1090) 대자리를 바꾸도록 다하니 : 사람이 병으로 죽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학덕 있는 사람의 죽음을 말한다. “曾子易簣.”(『禮記』, <檀弓>.)

옛날 현인이 말하기를
 남이 한번하면 나는 백번하고¹⁰⁹¹⁾
 저가 삼(三)으로 하니
 나는 십(十)으로 하리라.
 청하건대 이 말을 경계로 삼고
 밤낮없이 부지런히 실천하려 하네.

先民有言
 人一己百
 彼以其三
 我以其十
 請事斯語
 夜以繼日

사진사출신한림원시독경연관전국사수찬겸교누조보훈실록어제문집서차정사상군홍산
 화찰
 賜進士出身翰林院侍讀經筵官前國史修撰兼校累朝寶訓實錄御製文集敍差正使常郡鴻山
 華察

1091) 남이 한번 ~ 나는 백번하고 : “남이 한 번 해서 능하다고 하면 자기는 백 번을 하고, 남이 열 번 해서 능하다고 하면 자기는 천 번을 한다. [人一能之, 己百之. 人十能之, 己千之.]”(『中庸』, 第20章.)

3.4. 십성당설¹⁰⁹²⁾

[十省堂說]

교서(校書) 엄흔(嚴昕)은 ‘십성(十省)’으로 당(堂)의 이름을 지어놓고, 그가 말하기를 “옛날 증자(曾子)는 공자(孔子)의 뛰어난 제자임에도 ‘세 가지를 살핀다.’고 하였는데, 나처럼 배우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매사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당을 이렇게 이름 지었다.”라고 하였다.

나는 교서더러 학문을 아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였다. 문자가 흥하였으나 의리가 잘 드러나지 않자, 공자는 『詩經』·『書經』을 산정(刪定)하고 물러나 칠십 제자와 인(仁)의 도덕의 뜻을 연구하여 밝히니, 진실로 배운 것이 몸과 마음에 미치고자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을 아니 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유독 증자(曾子)만이 그 종지(宗志)를 알았다. 그러므로 몸을 살피고, 검소한 품성 지킴을 주장함으로 삼았다.

성인은 멀어지고 말은 없어지니, 학자가 떠다니는 변설(辨說)을 멋대로 하여 힘써 저술하고, 대도의 법을 배반하여 깊고 후미진 벼랑길에 스스로 속았는데도 헛된 말이 터무니없다고 말하지 않으니, 아마 도를 어지럽히고 사람을 그릇되게 하고 말 뿐이다. 진(秦)나라 분서(焚書)의 불이 맹렬하였을지라도 구하는 사람이 없었겠는가?

한(漢)나라가 일어나 산일(散逸)된 것을 수습하고, 천착하여 부회(傅會)¹⁰⁹³⁾하고, 석거각(石渠閣)¹⁰⁹⁴⁾의 의논이 동이(同異)하여도 충분히 논할 사람이 없었다. 양자운(楊子雲)을 대유(大儒)라고 칭찬한다면, 교서(校書)는 하늘이 준 복록이다. 현묘함을 헤아려 참람하게 경전을 지으니, 글자와 말이 기이하고 심오하여 독자가 거의 구두도 끊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劇秦美新>¹⁰⁹⁵⁾은 죄를 명교(名教)에 얻음이 이미 심하였으니, 박사와 학사들이 과연 무엇을 취하였겠는가?

한(漢)나라 이래로 대체로 사장(詞章)만 입으로 말하며 귀로 듣고, 송(宋)나라 사람

1092) 설(說) : 한문문체의 하나이다. 說은 글자의 뜻이 말하듯이 해석과 서술을 주로 하는 문체를 말한다. 說體는 뜻과 이치를 해설하는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자유스럽고 분망하게 글을 더하여 상세하게 서술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주요 작품으로는 李奎報의 <鏡說>, <舟路說>, <虱犬說>, <雷說>과 姜希孟의 <訓子五說>, 權好文의 <畜猫說>, 李植의 <矯松說>, 金邁淳의 <鵲鴟說>, 李建昌의 <鷹說> 등이 있다.

1093) 부회(傅會) : 牽強附會의 준말로, 근거가 없고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대어 자기에 게 유리하도록 맞춤을 말한다.

1094) 석거각(石渠閣) : 漢나라 宣帝 때 五經을 論定한 곳을 말한다.

1095) 극진미신(劇秦美新) : 중국의 前漢 말기에 揚雄이 王莽에게 아첨하여 지은 글을 말한다.

은 이학(理學)을 밝혀 심법(心法)을 드러내었다. 학자가 이에 기대어 그 당시를 살피니, 이미 자질구레하고 병폐를 면할 길이 없었다. 지금 남아 있는 경전(經典)¹⁰⁹⁶은 문장이 조박하고,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따라 물결이 맴돌 듯 쟁명(爭鳴)¹⁰⁹⁷하고, 한우충동(汗牛充棟)¹⁰⁹⁸하고, 흰 머리가 펄펄 날리는 듯하니, 식자(識者)가 진(秦)나라 분서를 빌려 다하고자 하는데 이르니 어찌 애통하지 않겠는가?

교서 엄혼은 차례로 육적(六籍)¹⁰⁹⁹을 섭렵하고, 제자백가의 학문에 두루 관통하였다. 바로 돌아가 삼성(三省)의 학문을 돌아봄이 더욱 상세하니, 어찌 학문을 아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아니 사람이 한 몸을 일을 처리하는 요긴한 곳에 놓았으니, 수많은 단서가 끝나는 곳이 아니겠는가? 그 법에는 으뜸이 있고, 그 앞에는 천지의 큰 덕이 있으니, 증자(曾子)의 삼성(三省)도 이미 지나치게 자상한데, 하물며 십성(十省)이라?

공자(孔子)가 “우리 도는 하나로 관통한다.”라고 하였는데, 아마도 이 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증자(曾子)뿐인 것이다. 삼성(三省)의 실재를 통해서 일이관지(一以貫之)의 종지에 거슬러 올라가면, 의지(意智)가 날마다 잊어져 상수(象數)¹¹⁰⁰가 함께 폐하여도 언어와 문자의 사이에 거의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교서 엄혼은 학문을 알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글을 지어서 올린다.

嚴校書昕以‘十省’名其堂，其言曰：“昔曾子，聖門高弟。猶曰‘三省’，如昕未學，所當每事皆省。故名其堂云云。”余謂校書知學者夫。自文字興而義理晦，夫子刪『詩』·『書』，退而與七十子之徒，講明仁義道德之旨，實欲學者及諸身心。故曰：“予欲無言。”而諸子不悟，獨曾子得其宗。故以省身守約爲主。聖遠言湮，學者逞浮辨，務爲著述，畔大道之軌，以自詭於奧僻之蹊，匪曰空言無當，蓋亂道誤人焉爾。秦炬雖烈，得無傲之者乎？漢興，收拾散逸，穿鑿傳會，石渠同異，無足論者。楊子雲，稱爲大儒，校書天祿。擬玄僭經，奇字奧語，讀者幾不能以句。乃其〈劇秦美新〉，獲罪名教已甚，經生學士，果何取焉？漢而下，大率口耳詞章，宋人明理學闡心法。學者賴之，觀其時，已不免支離之病。今存者經筵句粕，不量之徒，從而澆澆爭鳴，汗牛充棟，白首紛如，識者至欲借秦炬而盡之，豈不痛哉？校書次辭六籍，貫穿百家。乃反而循三省之學，尤加詳焉，豈非知學者？抑人以一身，放之乎事爲之衝，千緒萬端，靡可紀

1096) 경전(經典) : 宋나라 趙鵬飛의 『春秋經筵』 16卷을 말한다.

1097) 쟁명(爭鳴) : 百家爭鳴의 준말로, 많은 학자 등이 자기 자기의 주장을 펴고 논쟁하는 일을 말한다.

1098) 한우충동(汗牛充棟) : 책을 수레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집에 쌓으면 대들보까지 닿는다는 뜻으로, 장서가 많은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柳宗元, <唐故給事中皇太子侍讀陸文通先生墓表>.)

1099) 육적(六籍) : 여섯 가지 경서를 말한다. 『易經』·『書經』·『詩經』·『春秋』·『樂記』·『禮記』를 말한다.

1100) 상수(象數) : 邵康節의 象數學을 말한다.

極? 其統有宗; 其會有元, 在曾氏之三省, 已爲過詳, 矧十省乎? 子曰: “吾道一以貫之.” 蓋悟之也, 而曾子唯矣. 由三省之實, 遡一貫之宗, 則意智日忘, 象數俱廢, 庶幾不墜於言語文字之間矣. 校書知學. 故吾以是進之.

사진사제공과좌급사중시경연관관화헌 설정총
賜進士第工科左給事中侍 經筵官關華軒薛廷寵

【참고문헌】

1. 자료

- 『孔子家語』.
- 『舊唐書』, <柳公權傳>.
- 『國朝榜目』, 肅宗條 30年.
- 『南齊書』, 卷28 <垣榮祖列傳>.
- 『論語』, 附 諺解 天 地 人, 학민문화사, 1990.
- 『大唐西域求法高僧傳』, <法顯傳>.
- 『大學』, 附 諺解, 학민문화사, 1990.
- 『東國輿地勝覽』, 卷52
- 『東醫寶鑑』.
- 『杜律』.
- 『文心彫龍』, <通變> 第29.
- 『北堂書鈔』, 卷129
- 司馬遷, 『史記』, 卷69 <蘇秦列傳>.
- 『史要聚選』, 卷6 <文章>.
- 『蘇東坡詩集』, 卷12 <贈寫眞何充秀才>.
- 『宋史』, 卷457 隱逸列傳, <种放>.
- 『書經』, 附 諺解 天 地 人, 학민문화사, 1990.
- 『世說新話』, <簡傲>.
- 『世宗實錄地理志』.
- 『荀子』, <大略>.
- 『詩經』, 附 諺解 天 地 人, 학민문화사, 1990.
- 『搜神後記』, 卷1
- 『新唐書』, 卷203 <孟浩然列傳>.
- 『呂氏春秋』, <本味>.
- 『禮記』, <檀弓>.
- 『列子』, <湯問>.
- 『列仙傳』.

- 『莊子』, <知北遊篇>.
- 『左傳』, 昭公 元年條.
- 『朝鮮紀事』.
- 『酒譜』.
- 『周禮』, <夏官 司燿>.
- 『周易』 附 諺解 元, 학민문화사, 1990, 363쪽.
- 『周易』 附 諺解 貞, 학민문화사, 1990, 453쪽.
- 『中庸』 附 諺解, 학민문화사, 1990.
- 『晉書』, 卷62 <祖逖傳>.
- 『芝峯類說』, 卷2
- 『蜀志』, <先主劉備傳>.
- 『春秋左氏傳』.
- 『太平御覽』, 卷41
- 『稗官雜記』.
- 『海東歷史』, <朝鮮部>.
- 『荊楚歲時記』.
- 『漢書』, 卷67 <梅福傳>.
- 『後漢書』, <范丹傳>.
- 邱燮又 注譯, 『唐詩三百首』, 三民書局印行, 1999, 370쪽, 401쪽 및 502쪽.
- 歐陽脩, 「朋黨論」.
- 김천택, 「書劍을 못 일우고」, 『歌曲源流』.
- 朴閔, 『挹翠軒 遺稿』, 한국문집총간 제21집, 1988.
- 成百曉 역주, 『古文眞寶 後集』, 傳統文化研究會, 2000, 28쪽 및 108쪽.
- 蕭統, 「古詩十九首」, 『文選』, 卷29
- 申光漢, 『企齋集』, 한국문집총간 제22집, 1988.
- 吳喬, 『圍爐詩話』.
- 吳守盈, 『春塘先生文集』, 한국문집총간 續3集, 1988.
- 吳隱之, 「貪泉」, 『古文眞寶』, 前集.
- 嚴昕, 『十省堂集』, 定山縣 開刊, 萬曆 乙酉 秋七月(1594. 7.).
- 陸游, 주기평 옮김, 『陸游詩選』,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1, 67쪽.
- 林億齡, 『石川集』, 한국문집총간 제27집, 1988.

秋適, 『明心寶鑑』.

許筠, 『國朝詩刪』, 아세아문화사, 1980.

黃庭堅, 『黃山谷詩集註』 內卷22.

2. 논문류

강동석, 「朝鮮前期 自然觀과 그 變貌樣相에 關한 研究-館閣文人을 중심으로」, 『漢文學論集』38권, 槿域漢文學會, 2014, 159쪽. (G704-SER000008636.2014.38.001)

권혁명, 「十省堂 嚴昕의 詩世界」, 『東洋古典研究』 第49輯, 東洋古典學會, 2012, 138쪽 및 140쪽. (G704-001739.2012..49.009)

권정안, 「退溪의 삶과 敬學思想의 형성-修學期의 收斂工夫와 仕宦期의 持敬行義를 중심으로」, 『退溪學論集』, 영남퇴계학연구원, 2011, 249쪽. (G704-SER000003090.2011.9.008)

김중서, 「芝川 黃廷彧의 삶과 시」, 『韓國漢詩研究』, 韓國漢詩學會, 2012, 267쪽.(G704-000619.2012.20.003)

김태준, 「朝鮮文學史」, 『朝鮮語文叢書』, 朝鮮語文學會, 1931.

민병수, 「朝鮮前期의 漢詩研究」, 『漢文教育研究』 第1輯, 韓國漢文教育學會, 1986, 57쪽.

서인희, 「靜菴 道學政治思想의 淵源 考察」, 『漢文古典研究』, 한국한문고전학회, 2010, 245쪽. (G704-002001.2010.20.1.003)

이가원, 『韓國漢文學史-韓國漢文學思潮研究』, 보성문화사, 2005.

이종목, 『海東江西詩派研究』, 태학사, 1995.

조희창, 「蘇齋 盧守愼의 詩文學研究」,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G704-002001.2008.16.1.007)

정재현, 「企齋 申光漢의 研究」,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황의동, 「聽松 成守琛의 道學精神과 務實學風」, 『韓國思想과 文化』, 韓國思想文化學會, 2013, 259쪽. (G704-000697.2013.69.007)

【엄 혼 年譜】

- 1508년(중종03), 01세 아버지 用和와 어머니(叔人 安東金氏 아버지 僉正 中誠의 딸) 사이에서 3남 중 장남으로 태어나다.
- 1519년(중종14), 12세 모친상을 당하다.
- 1525년(중종20), 18세 생원시에 합격하다.
- 1528년(중종23), 21세 문과에 급제하다. 8월 홍문관 정자가 되다. 10월 홍문관 저작이 되다.
- 1529년(중종24), 22세 5월 검설서가 되다. 7월 홍문관 박사로 趙琛의 일에 관련된 諫員들의 체직을 청하다.
- 1530년(중종25), 23세 부수찬이 되어 지제교를 겸하다. 5월 정언이 되다. 7월 李沆을 奔競을 범한 죄로 치죄할 것과 周世鵬의 파직을 청하다. 사가독서에 선발되다. 11월 홍문관 수찬이 되다.
- 1531년(중종26), 24세 2월 공론을 세우라는 상소를 올린다. 4월 이조좌랑으로 단오제 제문을 짓다.
- 1534년(중종29), 27세 부친상을 당하다. 복을 마친 뒤에도 陽川 선영에 집을 짓고 經史에 몰두하다.
- 1538년(중종33) 31세 金安老가 석방되어 돌아올 적에 공은 정언으로 있으면서 불가함을 주장하여 미움을 받았었는데 이때 서용하다. 2월 부수찬이 되다. 10월 시강관으로 『大學衍義』를 강하다.
- 1539년(중종34), 32세 5월 중국사신 華察과 薛廷寵이 나오자 원집사 蘇世讓의 종사관이 되어 崔演, 林亨秀와 함께 『皇華集』을 교정하다.
- 1540년(중종35), 33세 5월 장령에서 체직되다. 12월 필선으로 경기 관찰사 林百齡에게 내리는 교서를 짓다.
- 1541년(중종36), 34세 6월 홍문관 전한이 되다. 대간을 경솔히 대우하는 것에 대하여 차자를 올린다. 이 해에 풍질을 앓아 체직을 청하다.
- 1542년(중종37), 35세 3월 승문원 참교로 여러 해 동안 앓아누워 있어서 간원이 파직하라고 청하다.
- 1543년(중종38), 36세 약질에 걸려 오랫동안 폐기되었다가 이 해 9월 19일 죽다.
- 1585년(선조18) 定山에서 문집 초간이 간행되다.